

호남한국학 자료총서 6

西行錄

서행록

2

송정악 宋廷岳 지음
송지행 宋志行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서행록(西行錄)》으로 하였다.
2. 《서행록》2는 송정약의 1759년 2월 20일부터 1769년 7월 3일까지 기록한 일기와 송지행의 1768년 1월 15일부터 1792년 4월 1일까지 기록한 일기이다.
3.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4.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5.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6.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 원문의 결자 빈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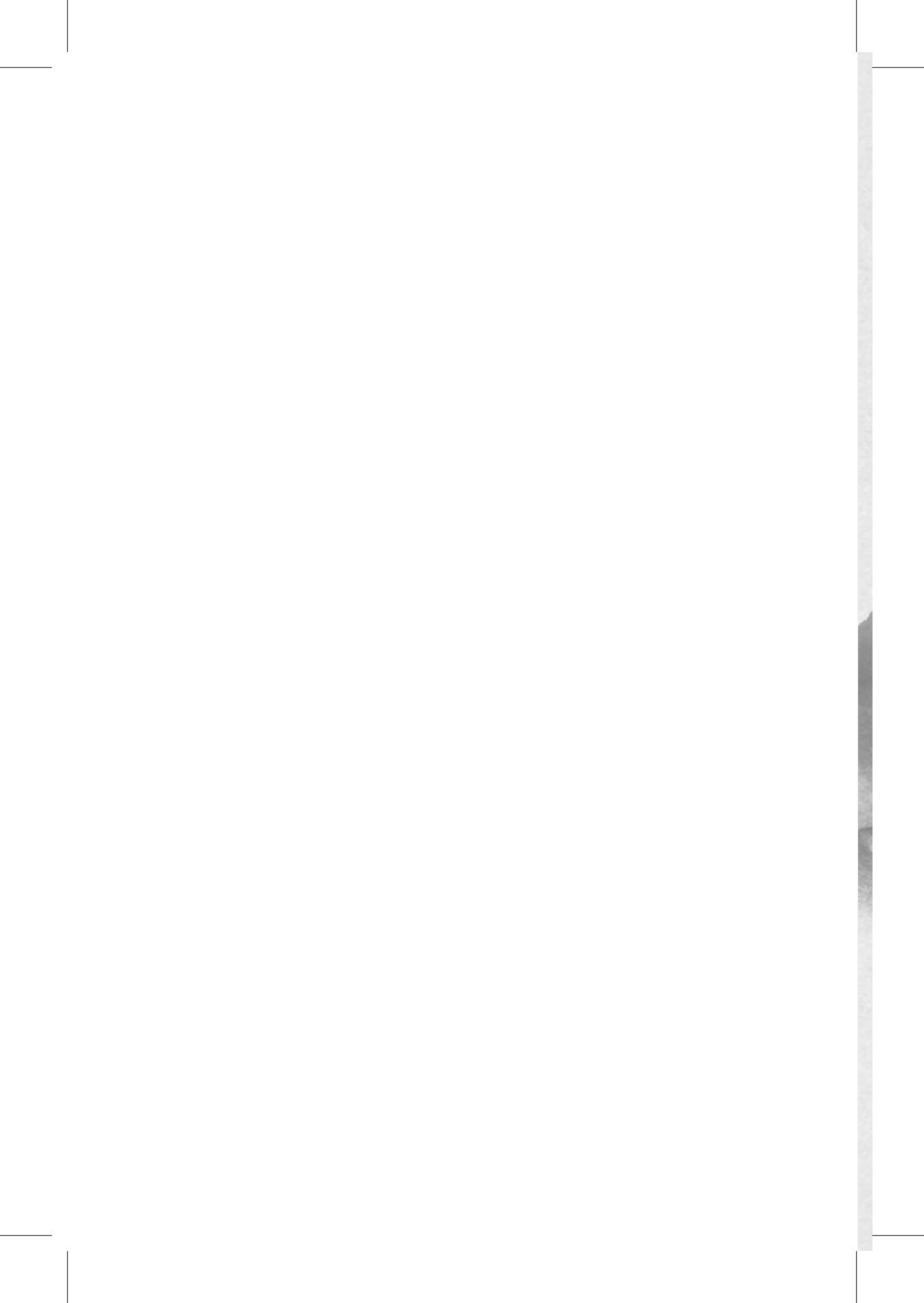
일러두기	2
목차	3

송정약 宋廷岳

기묘년 (1759) 2월	7
통행일기 기묘년(1759) 4월	21
신사년(1761) 12월	54
연영노정기 계미년(1763) 1월	99
서유경조록 계미년(1763) 8월	104
무자년(1768) 정월	122
호행록	161
유경일기	172
심혼록 기축년(1769) 5월	200

송지행 宋志行

무자년(1768) 1월 15일	221
계사년(1773) 2월 회행일기	260
신해년(1791) 2월	319
신해년(1791) 11월	362



서행록 西行錄 2

송정악 宋廷岳





기묘년 (1759) 2월

▪20일. 맑다. 용동(龍洞)과 장동(牆洞)에 가서 시편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장동(壯洞)의 이 흥양(李興陽) 집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군좌(君佐, 재종제)가 보낸 편지를 남겨두었다. 돌아오는 길에 주현(珠峴)에 들렀는데, 전령(田令)은 부재중이었고 다만 직재(直哉)와 서로 만났다. 합동(蛤洞)에 가서 시편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또 익산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서 남대문 안으로 들어오니 장 영장(張營將)이 병으로 누워 있어 쌍동(雙洞)으로 돌아왔다. 임생(林生)과 정생(丁生)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고 한다.

二十日. 晴. 往龍洞牆洞, 受詩篇而來. 往壯洞李興陽家不遇, 而留君佐書. 返入珠峴, 田令不在, 只與直哉相面. 往蛤洞, 受詩篇而來. 且受益山去東封入門內, 則張營將病臥, 還雙洞. 林丁兩生訪余而來云.

▪21일. 눈이 내리다. 이현(泥峴)에 가고, 이어서 호동(壺洞)에 갔다가 돌아왔다.

二十一日. 雪. 往泥峴, 因往壺洞而來.

▪22일. 맑다. 아침에 송도천(宋道天)이 서종(庶從)을 시켜 시지(試紙)를 가지고 오게 하니 달경(達卿)이 직접 재단한 것을 빌려서 보냈다. 응창(應昌)의 처제(妻弟)인 광주 사람 정(鄭)이 찾아왔다.

二十二日. 晴. 朝宋道天, 使其庶從持試紙而來, 借達卿手裁制而去. 光州人鄭乃應昌之妻弟來見.

▪23일. 맑다. 아침에 의동(義洞)에 가서 돈 3냥을 주고 왔다. 장동(牆洞)과 정동(貞洞)에 갔으나 석사(碩士) 김정재(金定材)를 만나지 못하고 다만 이위솔(李衛率)만 만나고 돌아왔다.

二十三日. 晴. 朝往義洞, 給三兩錢而來. 往牆洞貞洞, 不見金碩士定材, 只見李衛率來.

▪24일. 맑다. 달경이 순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구사(求嗣)¹⁾하러 가는 길인데, 동행하지 못하니 마음이 몹시 서글펐다. 호동(壺洞)에 가서 고향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과거 보는 유생으로 오위장(五衛將)²⁾ 김중하(金重河)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또 반촌(泮村)에 가서 정생과 임생 두 사람을 보고 돌아왔다.

二十四日. 晴. 達卿下去順天地, 求嗣之行也, 不得同行, 心甚缺悵. 往壺洞見同鄉, 科儒之住接於金五衛將重河家者. 又往泮村, 見丁林兩生而還.

▪25일. 눈이 내리다. 천동(泉洞)으로 가려고 하는데 빌린 인마(人馬)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한낮에 출발하여 한진(漢津)을 건너 험천(險川)의 주점에서 묵었다.

二十五日. 雨雪. 將往泉洞, 以借來人馬之晚到, 向午發行渡漢津, 宿險川酒店.

▪26일. 맑다. 새벽에 출발하여 바로 천동(泉洞)에 이르렀다. 영양(英陽)을 만나 위로하고 잠깐 쉼 뒤에 선생의 산소에 가서 배알하였다. 그 길로 계금(桂金)의 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다. 다시 들어가 영양을 만나고 곧바로 출발하여 다시 경성(京城)으로 향했다. 열원(悅院)에서 묵었다.

二十六日. 晴. 曉發直抵泉洞. 見英陽致慰小憩後, 往謁先生山所, 因往桂金家朝飯. 更入見英陽, 卽發還向京城. 宿悅院.

▪27일. 비가 오다. 새벽에 출발하여 대왕(大旺)의 이습지(李習之) 집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비가 내리니 문득 과거장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 나도 모르게 매우 염려스런 마음이 절로 들었다. 이날은 감회(監會)³⁾가 있는 날이므로 향유(鄉儒) 중에 우구(雨具)가 없는 자들을 생각하니 염려스런

1) 구사(求嗣) : 대를 이을 아들을 얻으려고 첩을 들이는 일을 말한다.

2) 오위장(五衛將) :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하여 숙직할 때 영내(營內)를 순검(巡檢)하고 각 문에 암호(暗號)를 전하는 정3품의 무관직.

3) 감회(監會) : 감시(監試)의 회시(會試),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2차 시험을 말한다.

마음이 가지질 않았다.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나 마전포(麻田浦)를 건너 쌍동(雙洞)에 이르러서 인부와 말을 그 본 주인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잠시 석산(石山)에 갔다가 돌아왔다.

二十七日. 雨. 曉發抵大旺李習之家朝飯. 雨作忽念場中客, 不覺憫慮之極. 是日監會之日, 故念及鄉儒之無雨具者, 慮不弛中. 冒雨離發, 渡麻田浦, 抵雙洞, 送人馬于其本主所在處. 暫往石山而返.

▪28일. 맑다. 일찍 호동(壺洞)과 반촌(泮村)에 가서 대략 과거 시험장 소식을 들었다. 올 때에 의동(義洞)에 들러 새로 인쇄한 책자 5권을 가지고 왔는데, 1권은 편지를 써서 곧바로 금위영(禁衛營)⁴⁾ 낭청(郎廳)⁵⁾에 부쳐 홍원(洪原)으로 전송하게 했다.

二十八日. 晴. 早往壺洞及泮村, 略聞場屋消息. 來時入義洞, 持新印冊子五卷而來. 一卷修柬, 卽付于禁衛營郎廳, 以爲傳送洪原之地.

▪29일. 바람 불다. 일찍 난동(蘭洞)에 가서 영상(領相)과 그의 아들 인천 부사(仁川府使)를 뵈고 작별하였다. 길을 바꿔 흥동(興洞)에 가서 석사 유사정(兪士精)과 그의 아버지 능주 목사(綾州牧使)를 만나고, 다시 남대문 밖 염소교(焰焯橋)의 박 첨지(朴僉知) 집에 갔으나 흥양(興陽)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남대문 안의 장 영장(張營將) 집에 들어갔더니 그가 고양(高陽)으로 나갔기에 다만 경익(景翼)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또 분호조(分戶曹)⁶⁾에 가서 상중(喪中)인 조씨(趙氏) 형제를 만났다. 또 낙동(駱洞)에 가서 조 시직(趙侍直)을 만났으며, 또 주동(鑄洞)에 가서 이 생원을 만나고 돌아왔다. 밥을 먹은 뒤, 장동(牆洞)에 가서 홍 대간(洪大諫)을 만나 나주에서 가지고 온 편지를 받았다. 또 정동(貞洞)에 갔으나 생원 김정재(金定材)를 만나지 못했다. 또 이위솔(李衛率)의 집에 갔더니 지금 막 과거

4) 금위영(禁衛營) : 조선 후기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되었던 군영이다.

5) 낭청(郎廳) : 조선시대 비변사(備邊司)선혜청(宣惠廳)준천사(濬川司)오군영(五軍營) 등에 두었던 실무 관직이다.

6) 분호조(分戶曹) :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설치해서 호조의 일을 분담하던 관청이다.

시험장에 들어간 다음이라서 다만 그의 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또 신문(新門) 안의 전령(田令)과 직재(直哉)에게 갔으나 부재중이라서 다만 그 손자에게 오게 된 연유를 말하고 돌아왔다. 의동(醫洞)의 윤 진사(尹進士)에게 갔으나 출타 중이었다. 안동(安洞)의 송 헌납(宋獻納)에게 갔으나 또한 출타 중이라서 다만 그의 아들에게 책자 하나를 남겨 그 숙부 정랑(正郎)의 집에 전송하게 했다. 또 민 순창(閔淳昌)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홍 자의(洪諮議)의 형 계승(啓丞)이 마침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죽동(竹洞)에 가니 홍 대감은 제관(祭官)으로 명릉(明陵)⁷⁾에 나가서 다만 그 손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일어나 원흥보(元興甫)의 집으로 갔더니, 그 부자가 함께 고산(高山)으로 가고 없었다. 또 홍화문(弘化門) 밖에 가서 구례(求禮)의 송양석(宋良錫)을 만났다. 또 호동(壺洞)에 가서 송도천(宋道天)과 동접(同接)들을 만났다. 또 반촌(泮村)에 가서 정생(丁生)과 임생(林生) 두 사람을 만나 다음날 함께 고향으로 출발하기로 약속하고 쌍동(雙洞)으로 돌아왔다.

二十九日。風。早往蘭洞，拜辭于領相及其子仁川。轉往興洞，見兪碩士士精及其父綾州。更往南大門外焰焰橋朴兪知家，未逢興陽人而返。入門內張營將家，則出往高陽，只與景翼暫話。又往分戶，見趙哀兄弟。又往駱洞，見趙侍直。又往鑄洞，見李生員而返。食後往墻洞，見洪大諫，受羅州去書柬。又往貞洞，不見金生員定材。又往李衛率家，則方入場屋，只與其子敘別。又往新門內田令及直哉不在，只與其孫言其來由而返。往醫洞尹進士出他。往安洞宋獻納亦出他，只留一冊于其子，以爲傳送其叔正郎家。又往閔淳昌家，與之敘別，洪諮議之兄啓丞適來相話。往竹洞，則洪台以祭官，出去明陵，只與其孫小話，卽起往元興甫家，其父子俱往高山。又往弘化門外，見求禮宋良錫，又往壺洞，見宋道天及同接諸人。又往泮村，見丁林兩生，約以明日同發鄉行，還雙洞。

▪ 3월 1일. 바람 불고 몹시 춥다. 동트기 전에 석산(石山)에 가서 조금

7) 명릉(明陵) : 숙종과 그 계비 인현왕후(仁顯王后) 및 두 번째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의 능으로, 경기도 고양(高陽)에 위치해 있다.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돌아왔다. 또 종현(鍾峴)으로 가서 한 토산(韓兪山)을 만나 작별인사를 하고 돌아온 다음, 생미동(生美洞)에 가서 한 책을 김정재(金定材)에게 전했는데, 김정재는 정동(貞洞)으로부터 와서 잠시 이곳에 우거하고 있었다.

三月初一日. 風而極寒. 未明往石山, 小話即來. 又往鍾峴, 見韓兪山辭歸, 往生美洞, 傳一冊于金定材. 蓋金自貞洞, 暫寓此處矣.

▪ 2일. 눈이 내리다. 천동(泉洞)으로 조문을 갔을 때에, 영악(靈幄)⁸⁾의 밖에서 곡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의(情義,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의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여겼다. 그러므로 이미 과거(科擧)보러 가는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지 못하고 수일간에 다시 천동으로 가서 두 달 동안 오로지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선 흥양(興陽) 해의상(海衣商)이 송도(松都)에 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그 길로 그들과 함께 가려고 했다. 이른 새벽에 걷기 시작하여 겨우 한진(漢津)을 건너자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다. 모래와 돌이 날아들어 눈을 뜰 수가 없고 진흙길에 무릎까지 빠져들어 걸음을 옮길 수도 없었으나 한 치 한 치 앞으로 나아가 날이 어둑어둑할 때에야 어렵사리 직동(直洞)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初二日. 雪. 以泉洞往弔時, 未哭於靈幄之外, 爲未盡情義, 故既不得與科行同發, 欲爲數日間更往泉洞, 以伸專留兩月之意. 且姑待興陽海衣商之往返松都後, 因與同行. 凌晨徒行, 纔渡漢津, 則風雪大作. 飛沙走石, 不能開眼, 路泥沒膝, 運步未由, 然寸寸前進, 昏黑時艱到直洞而宿.

▪ 3일. 눈이 개다. 일찍 출발하여 천동(泉洞)에 이르러 들어가 영악(靈幄)의 밖에서 곡하고 주인과 작별했다. 이습지(李習之)도 또한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괴단(槐壇) 아래로 나와서 지난번 보냈다가 종놈에게 잃어버린 돈을 추심(推尋)하여 주니 그 정의 곡진함을 알 수 있었다. 양성(陽城)의 석사 오위(吳煒), 영평(永平)의 석사 이순보(李醇輔), 이태화(李泰和)와

8) 영악(靈幄) : 상례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사당에서 내 온 신주를 임시로 두는 장막이다.

서로 만났다. 길을 떠나 사정(士精) 및 영상(領相)의 손자를 용인읍(龍仁邑) 앞에서 만났고 험천(險川)에서 묵었다.

初三日. 雪晴. 早發抵泉洞, 入哭于靈幄之外, 與主人辭別. 李習之亦來相話, 出來槐壇下, 以向日所送見失於奴者之錢, 推尋以給, 其情之曲盡, 可見矣. 陽城吳碩士煒永平李碩士醇輔泰和相見. 離發逢士精及領相之孫於龍仁邑前, 宿險川.

■4일. 맑다. 일찍 출발하여 삼거리(三巨里)에서 아침을 먹고 한강을 건너니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불었다. 쌍동에 이르렀다. 대개 천동에서 장사(葬事) 지내는 일은 3일간 치러지는데, 다시 가서 보지 못하고 곧바로 돌아온 것은 향인(鄉人)과 동행이 뇌정(牢定)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를 놓칠까 염려되어 이처럼 어수선하고 경황이 없으니 한탄스럽다.

初四日. 晴. 早發朝飯三巨里, 渡漢江, 風甚怪惡. 抵雙洞. 蓋泉洞葬事卽三日, 而再往未觀, 而卽還者, 以同行牢定於鄉人, 故恐失此期, 如是荒忙, 可歎.

■5일. 맑다. 아침에 석산(石山)에 가서 들으니, 박형(朴兄)이 입시(入侍)할 때, 귀양 중에 있는 언신(言臣)을 석방해 주기를 청하는 자들이 크게 풍파를 일으키고, 심지어 좌우승지를 신구(申救)하기까지 하였으니, 언자(言者)를 모두 파직시키고 물러가라는 전교가 내려졌다. 얼마 안 있어 파직의 명을 거두라는 명과 기타 파직한 여러 사람들 모두 파직하지 말라 하셨는데, 영상도 또한 신구하면서 개탄하는 전교가 내려졌다고 한다.

흥양 사람 김흥주(金興周)가 새벽에 왔기에 염소교(焰焯橋) 박 침지(朴僉知) 집에 책판을 보내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실려 보내게 했다. 종일 피곤하여 쌍동에서 누워있었다.

初五日. 晴. 朝往石山聞之, 則朴兄入侍時, 請放言臣在謫者, 大生風浪, 至有左右承旨申救者, 一併罷職言者退去之教矣. 俄收罷職之命, 及他罷職諸人, 皆勿罷, 而領相亦以申救, 有慨然之教矣. 興陽人金興周來曉, 送冊板于焰焯橋朴僉知家, 以爲載送下鄉之地. 終日困臥于雙洞.

▪6일. 맑다. 새벽에 석산(石山)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흥양(興陽) 사람 강씨와 박씨 두 사람이 찾아와 만났다. 미동(美洞)에 가서 생원 김정재(金定材)를 만나고, 또 이동(履洞)에 가서 민함열(閔咸悅)을 만났다. 후동(後洞)에 가서 백사헌(白師憲)을 만났는데, 백사헌은 전 흥양 상휘(尙輝)의 아들로 이번에 진사 과거시험을 봤다. 인현(仁峴)에 가서 윤여규(尹汝揆)의 아들을 만났다.
初六日. 晴. 曉往石山而來, 興陽人姜朴兩人來見. 往美洞, 見金生員定材. 又往履洞, 見閔咸悅. 往後洞, 見白師憲, 前興陽尙輝之子也, 今科進士. 往仁峴, 見尹汝揆之子.

▪7일. 맑다. 죽동(竹洞)에 가서 흥 대감을 만나 작별하고 돌아왔다. 또 주현(珠峴)에 가서 전 병사(田兵使)와 직재(直哉)를 만난 뒤에 작별하였다.
初七日. 晴. 往竹洞, 見洪台辭歸. 又往珠峴, 見田兵使及直哉而別.

▪8일. 바람 불다. 조카 흡(洽)을 데리고 약간의 짐을 꾸려 남대문 밖 박첨지 집에 갔다. 이른바 서로 약속하고 송도(松都)로 떠난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나, 때마침 가화리(加禾里)의 해의상(海衣商)이 내려간다는 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짐을 부치려고 했더니 거절하고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그를 꾸짖었다. 그곳에 앉아 있던 여러 사람은 모두 흥양(興陽)에서 온 사람들인데, 모두들 “그놈이 웅졸하여 인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꾸짖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약간의 짐들은 절반을 나누어 먼저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속옷과 홑이불 등의 물건은 장생(張生)에게 말아보게 하여 먼저 보내고, 조카아이와 함께 도로 쌍동(雙洞)으로 들어가서 송경(松京, 개성(開城)의 옛 이름)에 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뒤에 동행할 계획이었다. 이위솔(李衛率)을 찾아가 만났는데, 이위솔이 진사가 된 뒤로는 처음 만난 것이다. 쌍동에 머물렀다.

初八日. 風. 率洽侄持略干卜物, 出往門外朴僉知家. 所謂相約去松都者尙未還, 適有加禾里海衣商下去者, 故欲付卜物, 則落落不應, 怒而責之. 在坐諸人, 皆是興陽客, 盡謂“渠漢迷劣, 不知人事, 何足責也. 然略干卜物, 分半先送爲妙云,” 故衣裊單衾等物, 使張生看護先去, 同侄兒還入雙洞, 以待去

松京者還後同行之計. 歷見李衛率, 此乃進士後, 初見也. 留雙洞.

▪9일. 맑다. 아침을 먹기 전에 진사 박중고(朴仲固) 삼형제가 찾아와 작별하고, 남동(南洞) 김사원(金士元) 형의 아들 성국(聲國)이 찾아와서 작별했다. 식후에 문밖으로 갔으나 송경에 간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 애타게 기다리는 일이 답답할 노릇이다. 동행한 사람 강가(姜家, 강도관(姜道貫)), 박가(朴家, 박몽언(朴夢彦)), 김가(金家)와 함께 박가(朴家)네 집에서 묵었다.

初九日. 晴. 朝前朴進士仲固三兄弟來別, 南洞金兄士元之子聲國來別. 食後往門外, 去松京者不來, 苦待憫苑. 與同行人姜朴金, 共宿朴家.

▪10일. 아침에 흠비가 내렸다. 밥을 먹은 뒤에 이제 막 전주 상인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빌려 말을 사서 길을 떠나려고 계획했다. 이른바 백랑(白郎)이라는 사람이 송도에서 들어왔으므로 한낮에 출발하여 동진(銅津)을 건너 과천에 이르렀다. 박몽언(朴夢彦)이 뒤쳐져서 마음에 매우 염려스러웠는데, 해가 저문 뒤에야 당도하였다.

初十日. 朝土雨. 食後方欲借全州商人錢兩, 買馬以行計矣. 所謂白郎者, 自松入來, 故向午離發, 渡銅津, 抵果川. 朴夢彦落後, 心甚憫慮, 日昏後到來.

▪11일. 맑다. 새벽에 출발하여 유천(柳川)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진위(振威, 경기도 평택지역의 옛 지명)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소사(素沙)에 이르렀다.

十一日. 晴. 曉發抵柳川朝飯, 午秣振威, 抵素沙.

▪12일. 맑다. 새벽에 출발하여 천안에서 아침을 먹고 궁원(弓院)에서 묵었다. 말에서 내린 뒤에 곧바로 진사 조형숙(趙亨叔)을 찾아가니 크게 놀라고 반가워하면서 저녁밥을 차려주었다. 저녁을 다 먹고 새로 건립한 영당(影堂, 초상이나 영정을 모시는 사당)을 가서 보았는데, 아직 단장하는 손질이 다 끝나지 않았다. 주막으로 돌아오니 형숙이 뒤따라 주점(酒幕)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달경(達卿)이 내려갈 때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이날 120

리를 갔다. 가랑비가 낮부터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이 되자 점점 굵어졌기 때문에 매우 염려스러웠다.

十二日. 晴. 曉發天安朝飯, 宿弓院. 下馬後, 卽訪趙進士亨叔, 則大爲驚喜, 因進夕飯. 飯訖, 往見影堂新建, 而未及粧修. 還酒幕, 亨叔追來酒店相話, 聞達卿下去時消息. 是日行一百二十里. 微雨自午始, 夜則稍多, 故深慮深慮.

▪13일. 새벽에 잠깐 안개가 끼었다. 아침밥을 판치(板峙, 계룡산 널티 고개)에서 먹었다. 피곤함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은진에서 묵었다.

十三日. 曉乍霽. 朝飯板峙. 困苦不可言. 宿恩津.

▪14일. 맑다. 여산(礪山)의 신주막(新酒幕, 새술막)에서 아침을 먹고 약간의 짐을 백랑(白郎)이 가는 편에 부쳐 보냈다. 동행했던 강씨(姜氏)와 박씨(朴氏) 두 사람과는 갈림길에서 헤어지고 조카 흠(洽)을 데리고 익산(益山)의 족손 응구(應奎)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관가에 가서 익산의 수령을 만났다. 수령은 바로 승지 남태저(南泰著)⁹⁾의 형 남태보(南泰普)¹⁰⁾이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충효록》을 보고자 하므로 태인(泰仁)에 전달할 책자를 내보였더니 펼쳐보고서 감탄하였다. 작별할 때에 5전의 돈을 여행 경비에 보태주었다.

삼례(參禮)에 이르러 유숙하였는데, 마침 무장(茂長) 사람 이업휴(李業休)를 만나 그 조상(根派)을 물었더니, 승지 이화진(李華鎭)¹¹⁾의 손자이며 달경과는 동종(同宗)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또 그에게 아들이 있는가에

9) 남태저(南泰著) : 1709~1774.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공회(公晦)이다. 빙고별검(氷庫別檢)으로 재직 중 1752년(영조 28)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을과로 합격하여 1754년 정언(正言)이 되었으며, 그 뒤 수찬지평부교리교리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0) 남태보(南泰普) : 1694~1773.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숙도(叔燾), 호는 서산(西山)이다. 군위현감 때 서당을 세우고 백성을 구휼한 훌륭한 목민관이었으며, 뛰어난 안목을 지닌 역사가였는데, 군위현감 때 군위읍지 <적라지(赤羅誌)>를 편찬했고, 익산군수 때는 익산읍지 <금마지(金馬志)>를 편찬했다.

11) 이화진(李華鎭) : 1626~1696.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자서(子西), 호는 묵졸재(默拙齋)이다. 사은사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병조참의, 우부승지에 이르렀다. 경흥부사 때 북로편의십사사를 진소했고, 지방관으로 선정을 베풀었다. 시부에 능했고 시조 3수가 전한다. 문집《묵졸재집》이 있다.

대해 물었더니, 6남이나 두었다 하고, 당질이 지금 정산(定山, 충남 청양지역의 옛 지명)의 농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 만나 보려고 그곳으로 간다고 하였다. 달경이 만약 순천에서 양자(養子)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람에게서 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절로 흐뭇했다.

十四日. 晴. 礪山新酒幕朝飯, 付送略干卜物于白郎去便. 與姜朴兩人分路, 率洽侄往益山族孫應奎家, 暫話同詣官家見益倅, 倅乃南承旨泰著之兄泰普也. 良久敘話, 求見忠孝錄, 故以泰仁所傳冊子出示, 則披玩稱歎. 辭別之際, 以五錢助行矣. 抵參禮留宿, 適逢茂長人李業休, 問其根派, 則承旨華鎮之孫, 與達卿同宗云. 故又問其子之有無, 則多至六男, 其堂侄方居定山農庄, 故往見次, 去其處云云. 達卿若不得養子於順天, 則求於此人最好, 故心自內悅矣.

■ 15일. 흐리다. 태인(泰仁)¹²의 수령은 지금 경상감영[嶺營]에 갔다는데, 아마도 태인의 수령인 조정(趙景)¹³의 형 조엄(趙曠)¹⁴이 영백(嶺伯, 경상도 관찰사)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본도 도사(本道都事)도 지금 고산(高山)¹⁵에 갔는데, 본도 도사는 바로 흥 대감¹⁶의 아들 흥지해(趾海)¹⁷

12 태인(泰仁) : 전라북도 정읍 지역의 옛 지명으로, 태산(泰山)과 인의(仁義)가 합쳐서 생긴 지명이다.

13 조정(趙景) :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인서(寅瑞)이다. 1767년(영조43) 생원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후 이듬해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1769년 승지를 거쳐 의주부윤에 임명되었으나 잠상(潛商)의 일에 대한 조사를 완결짓지 못하여 물러났다가 다시 승지로 복직한 이후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14 조엄(趙曠) : 1719~1777.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명서(明瑞), 호는 영호(永湖)이다. 1758년에 이례적인 승진으로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76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고구마 종자를 가지고 와서 동래와 제주도에 재배하게 하여 최초로 고구마 재배를 실현하였다. 저서에 《해사일기》, 《해행총재》 등이 있다.

15 고산(高山) : 전라북도 완주와 충청남도 논산 지역의 옛 지명이다.

16 흥 대감 : 홍계희(洪啓禧, 1703~1771)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순보(純甫), 호는 담와(淡窩)이다. 1750년 병조판서로 균역법 시행에 힘썼다. 《열성지(列聖誌)》를 증보(增補)하는 한편, 왕명으로 《해동악(海東樂)》을 지었다. 저서로 《삼운성취(三韻聲龔)》, 편서(編書)에는 《춘천사실(淸川事實)》 등이 있다.

17 흥지해(洪趾海) : 1720~1777.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자는 백미(伯美)이다. 1759년 호남지방의 부정한 서리 색출의 임무를 띠고 전라도도사에 특제(特除)되었으며, 같은 해에 교동농형순심어사(喬桐農形巡審御史)로 파견되었다. 정조를 시해하고 은전군을 추대하려다가 발각되어 주살되었다.

이다. 그는 옥서(玉晷) 출신으로 양진(量陳, 진전(陳田)을 측량함) 어사(御使)가 되어 고산의 개장(改葬)¹⁸⁾하는 일 때문에 간 것이다. 우선 두 곳으로 가려던 것을 멈추고 곧장 부내(府內)로 향해 가다가 북정 5리쯤 못가서 본가(本家)로 올라가던 길인 백 흥양(白興陽)을 만났다. 말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누다가 행색의 궁핍함을 말하니 5전의 돈을 주고 갔는데, 《충효록》한 권을 매우 간절하게 얻으려 하므로 장차 태인 수령에게 전달하려던 책자를 주었다. 전주에 이르니 서문(西門) 안의 파총(把摠) 김상려(金尙礪)가 지난해 9월에 작고하였으므로 들어가 궤연에 곡하였다. 그의 집에서 아침을 먹고 슬치(瑟峙)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오원(烏院)의 신막(新幕)에 이르렀다.

十五日. 陰. 以泰仁倅方往嶺營, 蓋以仁倅趙晟之兄曠爲嶺伯故也. 本道都事方往高山, 本道都事, 卽洪台之子趾海, 以玉晷出爲量陳御使, 往高山改葬故也. 姑停兩處之行, 直向府內, 未及北亭五里許, 逢白興陽, 上去本家之行. 下馬相話, 告以行色之艱乏, 則以五錢出給而去, 忠孝錄一卷, 求之甚緊, 故以將傳泰仁倅冊子納之. 到全州, 則西門內金把摠尙礪, 年前九月身死, 入哭几筵. 其家朝飯, 午飯瑟峙, 抵烏院新幕.

▪ 16일. 맑다. 오수(獒樹, 전북 임실군에 위치)에서 아침을 먹고 원천(源川, 남원에 위치)으로 향했다. 폐문교(閉門橋)를 건너 고개 하나를 넘어 외평(外坪)의 사위집에 이르렀다. 대개 내가 지난해 6월에 서울에 올라가느라 노씨(盧氏) 집안으로 출가한 딸을 신행(新行,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감) 보낼 때에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길이 용성(龍城)¹⁹⁾을 경유하게 되어 차마 지나칠 수 없었다. 노씨 집안에 출가한 딸이 나를 보고 울음을 터트리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이름은 억(億)이며 자(字)가 백휴(伯休)라는 노랑(盧郎)의 당숙이 찾아와 만났는데, 《충효록》 얻어 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름이 엄(儼)이라는 노씨의 삼촌도 또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천(源川)에서 묵었다.

18) 개장(改葬) : 이미 장사 지낸 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시 수축하는 절차이다.

19) 용성(龍城) : 고려와 조선시대 전라북도 남원의 별호로, 그 기록은 《고려사》지리지 전라도 남원부조에 처음 등장한다.

十六日. 晴. 葵樹朝飯, 向源川. 渡閉門橋, 躡一嶺, 抵外坪婿家. 蓋以余去年六月上洛, 故盧氏女治送新行之際, 不得見之, 今行路由龍城, 不忍過去, 盧氏女見余呼泣, 不覺淚自然下矣. 盧郎堂叔之名億字伯休來見, 求忠孝錄觀之. 盧郎三寸之名儼, 亦來相話. 宿源川.

▪17일. 맑다. 일정이 바쁜 처지라서 떠나려고 하니 여식의 정리(情理, 인정과 도리)는 차마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데, 노랑(盧郎)과 삼촌 모두 한사코 만류했다. 그러나 반드시 서둘러 돌아가서 달경이 돌아가기 전에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뿌리치고 작별하였다. 잠시 광한루(廣寒樓)에 올라 벽 위의 제영시(題詠詩)를 잠깐 보았다. 중주(中洲)를 건너 곡성(谷城)에 이르러 요기하고 묘치(猫峙)를 넘어 용계(龍溪)에서 묵었다.

十七日. 晴. 以行色之忽忽, 欲爲離發, 則女息之情理, 不忍有難形言, 而盧郎及三寸, 皆爲堅挽. 然必欲急還逢着達卿於未發還之前, 以此揮却作別. 暫登廣寒樓, 瞥看壁上題詠. 渡中洲, 抵谷城療飢, 躡猫峙, 宿龍溪.

▪18일. 맑다. 석곡에 이르러 유덕홍(柳德弘)을 찾아가 그 아우의 상이 난 뒤에 곧바로 위문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였다. 또 김서정(金瑞鼎)을 찾아가 그 서모(庶母)의 상이 난 일에 대해 위문하였다. 아침을 먹은 뒤에 천평(泉坪)의 조카 집으로 가서 곧바로 달경의 소식을 물었더니, 이번 달 3일에 달경이 천평에 왔다가 4일에 질아의 이종(姨從)과 함께 월릉(月陵)의 이봉문(李鳳文) 집에 갔는데, 그 소자(小子)가 요청하여 지금까지 여러 날을 머물면서 내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므로 곧바로 질아를 보내 맞이하여 오게 해서 그 길로 함께 흥양으로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저녁에 질아가 돌아와 말하기를, “이봉문의 집에 거의 다 도착할 즈음 노가(盧哥)라 불리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바로 달경의 노복과 말이 거처하던 곳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새벽에 달경은 서울로 떠났는데,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달경과 서울에서 온 노복은 3월 12일에 출발하였는데, 우리는 10일 오후에 출발하여 중도에 익산과 남원에서 지체하다 서로 어긋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

온 노복이 병 소식만을 전하였지만, 그 형세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상(喪)이 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얻은 양아(養兒)를 미처 데리고 가지 못하고 허겁지겁 달려갔다고 합니다.”라고 하니, 매우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十八日. 晴. 抵石谷, 歷訪柳德弘, 爲敘其弟喪後未卽相問之由. 又訪金瑞鼎, 問其庶母喪出之事. 朝飯後向泉坪姪家, 卽問達卿消息, 則今月初三日, 達卿來泉坪, 初四與侄兒之姨從, 往月陵李鳳文家, 請得其小子, 尙今留連, 企待吾之下來云, 故卽送侄兒, 使之邀來, 因與同往興陽計矣. 夕間侄兒還曰: “幾至李家之路, 得逢盧哥稱號者, 乃達卿奴馬所處之主人也. 其言曰: ‘今曉達卿發向京裡, 聞其親患之報故也.’ 達卿京來奴人三月十二日出, 而吾則十日午後發行, 中路盤桓於益山南原, 以此相違勢固然矣. 但來奴只傳病奇, 而想其形勢, 則喪出分明, 未及率去其所得養兒, 蒼黃星馳云.” 心甚惻然.

▪ 19일. 맑다. 질아가 이웃에게 빌려온 말을 신치(薪峙)에 도착해서 되돌려 보냈다. 발의 통증이 조금 나으니 곧바로 당동서재(堂洞書齋)에 이르러 군실씨(君實氏)를 조문하였다. 면교(面橋)로 내려오는 길에 유한원(兪漢元) 부자를 방문하였는데, 그가 초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계통(季通)의 집에 이르러 저녁을 먹고 조카 흡과 함께 마륜(馬輪)을 향해 가는데, 깜깜하여 길을 알 수 없으니 그 고생스러움을 형언하기 어렵다. 조카 흡은 갈림길에서 헤어져 귀산(龜山)을 향하여 가고, 나는 간신히 길을 찾아 재동(齋洞)의 종형 집에 이르렀다.

十九日. 晴. 侄兒借得隣人馬匹騎, 到薪峙還送. 足痛差勝, 直到堂洞書齋, 弔君實氏. 下來面橋, 歷問兪漢元父子, 以其遭喪故也. 抵季通家夕飯, 與洽侄同向馬輪, 昏黑埗埗, 困苦難言. 洽侄分路向龜山去, 余則艱尋抵齋洞從兄家.

▪ 20일. 맑다. 식전에 귀산(龜山)의 좌수(座首)가 그 아들을 보내 식후에 올라오겠다고 전갈하므로 잠시 머물러 기다렸다. 또 조카 기(器)로 하여금 말을 빌려 오게 했다. 귀산의 두 형님이 함께 찾아와서 만나고, 중숙(仲叔)도 또한 찾아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묘(家廟)에 가서 참배했다. 이어서

《충효록》을 간행한 일로 고사(告辭)한 뒤에 출발하여 집에 도달하였다.

二十日. 晴. 食前龜山座首, 送其子傳喝食後上來云, 故稍留等待. 且使器侄借馬以來. 龜山兩兄俱來相見, 仲叔亦來暫話, 詣家廟展謁. 因以忠孝錄刊成事告辭後, 離發得達于家.

동행록(同行錄)무인년(1758, 영조34) 6월 상경할 때.

군거 송정악, 정축년 여산 사람, 흥양에 거주함.

사언 박희동, 신묘년 밀양 사람, 흥양에 거주함.

직재 전백상, 을미년 담양 사람, 흥양에 거주함.

화여 송숙, 무신년 여산 사람, 흥양에 거주함.

봉서 장경익, 경신년 인동 사람, 흥양에 거주함.

同行錄 戊寅六月上京時

宋廷岳 君擧 丁丑 礪山人 居興陽

朴熙東 士彦 辛卯 密陽人 居興陽

田百祥 直哉 乙未 潭陽人 居興陽

宋楠 華汝 戊申 礪山人 居興陽

張景翼 鵬瑞 庚申 仁同人 居興陽

동행록 기묘년 3월 하향할때.

송정악

강도관

박몽언

송지윤

同行錄 己卯三月下鄉時

宋廷岳

姜道貫

朴夢彦

宋志尹

통행일기 기묘년(1759) 4월

統行日記 己卯四月

▪25일. 길을 떠나 가사(伽寺)에서 잠시 쉬었다. 낙안에서 불러온 각수승(刻手僧)에게 간행하는 일을 분부(分付)했다. 출발하여 한동(閑洞)에 이르러 종형(從兄)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여도(呂島)에 도착하니 날은 이미 저물어 어두웠다. 군관청(軍官廳)에서 묵었다.

二十五日. 發程暫歇于伽寺. 招來樂安刻手僧, 分付刊役事. 離發到閑洞, 與從兄暫話, 抵呂島. 日已昏黑. 宿軍官廳.

▪26일. 새벽에 비가 오고 저물녘에 흐렸다. 밥을 먹은 뒤에 종형(從兄)이 들어오고 질아와 벗 이성회(李聖會)가 배를 타고 왔다. 종형 및 송일갑(宋日甲), 이광주(李光周)와 함께 뱃머리로 나가니 김천기(金天紀)김여귀(金汝龜)이중태(李重泰) 등 여러 사람이 와서 작별하였다. 배를 출발시켜 강 중간쯤에 이르러 돛을 올리고 만월도(滿月島)를 지나 곡포(曲浦)의 이진(梨津)에 정박하니 순천 땅이다.

북쪽으로 한 고개를 넘어 서이산(鼠耳山)²⁰⁾ 마을 박시창(朴始昌)의 집에 이르렀다. 박시창은 이생(李生)이 이전부터 친한 사이인데, 도착하자 곧바로 우리 일행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었다. 출발하여 목관(牧官) 문밖을 경유해서 고돌산진(古突山鎭)²¹⁾의 한몽신(韓夢信) 집에 이르렀다. 한몽신도 또한 이생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 대접해 주었다. 이날 물길로 40리를 가고 물길로 20리를 갔다.

二十六日. 曉雨晚陰. 食後從兄入來. 侄兒與李友聖會, 乘舟而來. 與從兄及宋日甲李光周, 出往船頭, 則金天紀金汝龜李重泰諸人來別. 發船到中江舉

20) 서이산(鼠耳山)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에 있는 산 이름이다.

21) 고돌산진(古突山鎭) : 여수시 화양면에 있는 조선전기에 축성된 수군 관련 주둔지이다. 《태종실록》 8년 정월조에 돌산포만호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돌산진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여수반도에는 여수시 삼일면에 있었던 진례만호와 화양면 용주리에 있었던 돌산포만호가 왜구 방어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帆, 歷滿月島, 泊曲浦梨津. 順天地也. 向北踰一嶺, 抵鼠耳山村朴始昌家, 李生之曾前所親也, 到卽點心一行. 離發由牧官門外, 抵古突山鎮韓夢信家, 韓亦以李生之受恩者, 盡誠以待. 是日水行四十里, 陸行二十里.

▪27일. 맑다. 천풍(天風, 하늘 높이 부는 바람)이 잠깐 불어 날씨가 쾌청하니 기뻐할 일이다. 다만 방이 냉골인데다가 복통으로 인한 잦은 설사에 기운이 없어 몹시 근심스러웠다. 흥국사(興國寺)²²⁾에 이르러 묵었다.地藏전(地藏殿)에 있는 옥정(玉淨) 스님은 예전에 가사(伽寺)의 비석을 새기는 곳에서 서로 알고 지냈던 스님이고, 또 선암사(仙巖寺)의 스님 즉민(卽敏)은 화공으로 이 절의 괘불을 그리러 왔는데, 또한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다. 이들 모두 놀라고 반가운 기색이었다. 이날 30리를 갔다.

二十七日. 晴. 天風乍吹, 日氣清快, 可喜. 但突冷腹痛, 泄頻氣憊, 甚憫. 抵興國寺宿. 地藏殿有玉淨僧, 舊時相識於伽寺刻碑所者也. 且仙巖僧卽敏, 以畫工來繪此寺掛佛, 亦素親厚者, 皆有驚喜色. 是日行三十里.

▪28일. 맑다. 일찍 출발했다. 옥정(玉淨)은 2되의 밥을 점심으로 준비해 주었고, 즉민(卽敏)은 1전의 돈으로 궁핍한 여비에 보태주었다. 또 각각 사발[沙碗]에 두어 흡의 꿀을 가지고 와서 설사에 대비하는 약으로 쓰게 했으므로 김 서방과 노복이 가지고 길을 떠났다. 흥국사 뒤 동쪽 고개를 넘고 들판을 지나 ‘협도(狹島)’라는 나루터에 이르렀다. 마침 남해로 가는 배가 있어서 곧바로 배를 타고 건너 평산진(平山鎭)에 정박하였다. 육지로 20리를 가서 곡포(曲浦)의 폐진(廢鎭)을 지나 잠시 쉬었다가 금산(錦山)²³⁾의 서쪽 기슭에 이르렀다. 금산을 미처 못가서 왼편 길가에 용문사(龍門寺)²⁴⁾가

22) 흥국사(興國寺) : 여수시 중흥동 영축산(靈鷲山)에 있는 절로, 화엄사(華嚴寺)의 말사이다. 1196년(명종 26) 지눌(知訥)이 창건하였으며, 나라가 흥하면 이 절도 흥할 것이라는 흥국의 염원을 담고 있어 흥국사라 하였다고 한다.

23) 금산(錦山) : 소금강 또는 남해금강이라 불리는 명산으로, 신라 원효대사가 이 산에 보광사를 짓고 ‘보광산’이라 불러왔는데, 태조 이성계가 젊은 시절 이 산에서 백일기도 끝에 조선왕조를 개국하게 되자 영세불망의 영산이라 하여 온 산을 비단으로 두른다는 뜻으로 ‘금산’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24) 용문사(龍門寺)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호구산(虎丘山)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있다고 하는데, 갈 길이 바빠서 들어가 보지 못했다.

창의(暢衣)를 벗고 단삼(單衫, 저고리 안에 입는 홑옷) 차림에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걸었다. 수차례 쉬기를 반복하면서 봉수지기의 집에 이르렀다. 여기가 금산의 가장 높은 곳이다. 잠시 쉬었다가 동쪽으로 내려가니 보리암(菩提庵)²⁵⁾ 왼편 암벽에 판서(判書) 권혁(權赫)²⁶⁾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그가 방백(方伯)으로 있을 때 순시하는 길에 새긴 것이다. 수십 걸음을 가서 보암(菩庵)에 이르렀다. 7~8명의 승도(僧徒)는 모두 속승(俗僧)들이다.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다. 몸은 비록 고단하고 내일 갈 길이 매우 염려되었으나 여러 사람과 함께 암자 뒤의 석대(石臺)에 올라갔다. 석대 위에는 신기(新奇)한 불감(佛龕)²⁷⁾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조사전(祖師殿)²⁸⁾이었다. 적막하고 인기척이 없어서 물었더니, 보리암의 스님이 말하기를, “이 방의 노스님은 마침 일이 있어서 산을 내려가셨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정결함이 좋아서 그 사이에 누워있고 싶었으나 뒤에 있는 바위가 떨어질까 두려워 곧바로 일어나 내려왔다. 보리암에서 묵었다. 이날 80리를 갔다.

二十八日。晴。早發。玉淨以二升飯爲點心之資，卽敏以一錢爲助乏之具。且各持沙碗數合蜜，使備泄瀉之藥，故金書房及已奴持而作行。踰寺後東嶺過野，至津頭所謂狹島。適有向南海船，卽渡泊平山鎮。陸行二十里，過曲浦廢鎮小憩，至錦山西麓，未及錦山左邊路上有龍門寺云，行忙不入。脫暢衣只着單衫，扶杖緩步九憩，而至烽燧直家，盖山之最高峰也。小歇東下，菩提庵

본사인 쌍계사(雙溪寺)의 말사이다. 남해군 제1의 사찰로서 신라시대의 원효대사(元曉大師)가 금산(錦山)에 창건한 보광사(普光寺)의 후신이라고 전한다.

25) 보리암(菩提庵)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尙州面)의 금산 정상 바로 아래 자리 잡은 보리암은, 638년 원효대사가 초당을 짓고 수행하다 관음보살을 친견한 후 초당의 이름을 보광사라 칭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관음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26) 권혁(權赫) : 1694~1759. 본관은 안동, 자는 자장(子章), 충주 출생이다.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등장할 때 실록청낭관이 되어《숙종실록》보궐정오편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강원도관찰사가 되고, 이어 1745년에 경상도 관찰사강화부유수를 거쳐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암행어사 김치인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27) 불감(佛龕) : 불상을 모시기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적게 만든 집이나 방을 뜻한다.

28) 조사전(祖師殿) : 역대 조사나 그 종파의 조사스님, 대덕스님, 사찰의 창건주, 역대 주지스님 등 해당사찰과 관련하여 후세에 존경받는 스님들의 영정이나 위패를 모신 전각이다.

左邊巖壁, 有權判書懋之名, 爲方伯時巡到也. 行數十步至菩庵, 七八僧徒, 皆俗僧也. 日將夕矣, 身雖憊甚爲慮明日之行, 與諸人登庵後石臺. 上有一新奇佛龕, 名祖師殿. 寂無人蹟問之, 則菩庵僧曰“此房老僧, 適以事下山矣.” 愛其靜潔, 欲臥其間, 恐有後巖之墜落, 卽起下來. 宿菩庵. 是日行八十里.

▪29일. 맑다. 피로가 너무 심하여 쉬려고 하는데 문득 한 스님이, “가시려는 곳에 대해 말하는 것을 문득 들어보니, 한산(閑山)의 제승당(制勝堂)²⁹⁾에 가서 구경하신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그곳은 수로(水路)가 멀어서 왕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여 순편(順便)이 없다면 끝내 도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래 미조항진(彌助項鎭)³⁰⁾으로 내려가면 오늘 합험(合驗)³¹⁾의 행차가 지나가고 내일은 마땅히 통영에 보고를 보낼 것입니다. 참으로 그 때를 만났으니 생원 나리께서 서둘러 내려가시면 통영에 도착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그길로 한산에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 날을 경영할지라도 건너가 닿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의 말을 기꺼이 듣고서 서둘러 밥을 먹고 출발하여 벽 위에 이름을 새긴³²⁾ 다음 남쪽을 향하여 수십 보를 내려가, 석대 위에 탑을 세우고 단을 쌓아 놓은 곳에 이르렀다. 지로승(指路僧)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가며 알려주기를, “북쪽의 가장 높고 빼어난 것은 대장봉(大莊峯)이고, 그 서쪽은 화암봉(華巖峯)입니다. 그 다음은 제석봉(帝釋峰)이고, 또

29) 제승당(制勝堂) :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 관련 사당으로, 원래 운주당(運籌堂) 터다. 왜적(倭賊)을 물리치기 위한 작전도 짜고, 총통(銃筒)과 같은 신무기의 제작과 보급에 힘쓰는 등 모든 군무(軍務)를 관장하던 곳이었다.

30) 미조항진(彌助項鎭) : 미조항은 남해에서 육로로 80리, 적량(赤梁)에서 40리, 평산포(平山浦)와는 60리 떨어진 곳에 있다.

31) 합험(合驗) : 병부(兵符)를 맞추어 보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 병부는 군대를 동원할 때 표지로 쓰이던 패로, 한 면에 발병(發兵)이란 두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김이로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진호(鎭號) 등을 기록한 한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임금이 교서와 함께 그 한쪽을 내리면, 지방관은 두 쪽을 맞추어 틀림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했다 한다.

32) 이름을 새기고 : 원문의 ‘제명(題名)’은 명승지에 온 것을 기념하여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은 향로봉(香爐峯)이며, 또 다음은 노적봉(露積峯)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황홀하여 마치
창검을 벌여 놓은 듯하고 어렵듯이 선승(禪僧)들이 부처를 공양하는 듯하니,
금산의 절묘한 곳이라 할 만하였다.

또 3~40보를 내려가 동쪽으로 향하여 이른바 ‘음성굴(音聲窟)’³³⁾이라는
곳에 들어가니 돌조각이 4~5곳에 펼쳐져 있는데, 절구공이로 돌 조각의
위를 두드리면 그 소리가 완연히 북을 치는 것과 같아서 ‘음성(音聲)’이라
이름한 것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었다. 오른쪽으로 높이가 한 길 남짓한 곳에
‘용굴(龍窟)’이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거의
15~6파(把)가 된다고 한다. 나는 몸이 둔하여 올라가 보지 못했다.

다시 십여 걸음을 내려와 남쪽으로 가서 ‘홍문(虹門)’³⁴⁾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커다란 바위 가운데가 뚫린 모양이 마치 무지개와 같았다.
스님이 말하기를, “상고시대에 석가세존이 여기에서 배를 만들어 강으로
내려갔다는데, 암벽이 벌어진 틈은 바로 상앗대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멀리 바라보니 바다 가운데에 세존도(世尊島)³⁵⁾가 있는데, 이
세존도는 중간이 뚫려 있어서 배가 출입하며 두루 승경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었다. 곧바로 긴 계곡을 내려가서 상주포(尙州浦)의 폐진(廢鎭)을 거쳐
미진(彌鎭)의 군관청(軍官廳)에 도착했다. 이날 30리를 갔다.

二十九日。晴。困憊特甚，將欲休息，忽有一僧曰：“暫聞行次所言，則往觀
閑山制勝堂云，水路遙遠，來往甚艱。倘無順便，卒難到達。此下彌助項鎭，
今過合驗之次，明當送報于統營。的值其時，生員主急急下去，則可以得力

33) 음성굴(音聲窟) : 음성굴은 만장대 바로 북쪽, 높이 2m, 길이 5m 정도 되는 조그만 바위굴이다.
굴속에 들어가 굴 바닥을 두드리면 장구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음성굴이라 한다.

34) 홍문(虹門) : 쌍홍문(雙虹門)으로, 금산을 드나드는 관문이며 자연이 만든 보리암 일주문이다.
옛날에는 하늘에 오르는 두개의 문이라 하여 "천양문(天兩門)"이라 불러 왔으나, 신라 초기 원효대사가
'두 굴이 쌍무지개 같다' 하여 쌍홍문(雙虹門)이라 부른데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한다.

35) 세존도(世尊島) : 옛날 석가세존이 금산 득도를 한 후, 쌍홍문에서 돌배로 섬의 중간을 뚫고
지나갔다는 전설이 있어 세존도라 했다. 그때 돌배가 지나간 흔적이 금산의 쌍홍문과 세존도에 난 2개의
동굴이다. 세존도의 뚫려 있는 두 개의 큰 바위 구멍 때문인지 '문암'이라 불리기도 했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란 뜻의 '천양문'이라고도 했다.

達于統營, 因往閑山. 如失此機, 雖累日經營, 未易渡泊矣.” 樂聞其言, 促飯離發, 而題名壁上, 向南而下, 行數十步, 至石臺上建塔築壇處. 指路僧告而指點曰: “北邊最高特秀者大莊峯, 其西華巖峯, 其次帝釋峰. 又其次香爐峯, 又其次露積峯.” 特起列立, 恍如劍戟森羅, 依稀衆禪供佛, 可謂錦山之絕妙處也. 又下三四十步, 東向入所謂音聲窟, 布置片石四五處, 而以杵木叩片石之上, 則其聲宛如擊鼓, 名以音聲, 信不虛也. 右邊高丈餘有龍窟, 緣梯而上, 深入其中, 幾十五六把云. 余則體鈍, 不得上見. 復下十餘步向南行, 至所謂虹門, 巨石中穿狀如虹蜺. 僧言“上古之世, 世尊佛造船於此, 因爲下江, 巖壁罅隙, 乃着篙之痕云.” 遙望海中有世尊島, 島腰中坳, 船可出入周觀勝處. 直下長谷, 歷尙州浦廢鎮, 到彌鎮軍官廳. 是日行三十里.

▪ 5월 1일. 맑다. 미조항진(彌助項鎭)에서 합험선(合驗船)이 과연 이날 통영으로 간다 하기에 동행하기로 약속하고 군관 5~6인과 작별하였다. 그들 가운데 장무(掌務)인 최치휘(崔致輝)가 대략 조사해보더니, 그가 사는 곳에서 생산한 백기(白碁)를 가지고 흥양의 죽도(竹島)에서 생산한 전죽(箭竹, 화살대)과 바꾸기를 요청하였다.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하고 걸어서 봉해성문(鵬海城門)으로 나가 나루에 이르렀다. 미조항진의 객사(客舍)에는 ‘봉해관(鵬海館)’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고 성문도 또 ‘봉해(鵬海)’라 이름하였는데, 생각하건대 혹 《남화경(南華經, 《장자(莊子)》의 이칭)》의 봉새가 남명(南溟)으로 옮겨갔다는 뜻³⁶⁾에서 나온 듯하였다.

배를 출발시키는 것이 조금 지체된 것은 병방(兵房)의 군관 최형신(崔亨信)이 행장을 챙기는 것이 조금 늦었기 때문이다. 한낮에 배를 띄워 닻줄을 풀고 돛을 올리자 바닷물이 순하고 바람도 순조롭게 불어 배가 나는 듯 나아갔다. 왼쪽을 돌아보면 진고(晋固, 진주와 고성)의 모든 산 풍경이 병풍 같고, 오른쪽을 돌아보면 연욕(蓮浴)의 늘어진 섬들이 바둑돌처럼 펼쳐져 있어서

36) 봉새가 …… 뜻 :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북명(北溟)에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는 곤(鯁)이라는 큰 물고기가 있다. 이것이 변하여 새가 되면 봉(鵬)이 되는데, 그 등의 길이가 몇 천리나 되는지 또한 알 수가 없다. 봉새는 태풍이 불면 비로소 남명(南溟)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데, 남명으로 날아갈 적에는 바닷물을 쳐 삼천리나 튀게 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날아오르며, 여섯 달 동안을 난 다음에야 쉰다.” 하였다. 따라서 저본의 ‘徙’를 ‘徙’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바다의 넓음을 망각할 정도였다. 삼시간에 사진(蛇鎭)과 적진(赤鎭) 양진(兩鎭)을 지나 판데목[鑿梁]³⁷⁾에 이르게 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잠시 소도에 배를 대어 섶을 채취해서 배에 싣고 양항(梁項)으로 가서 정박했다. 마침 먼저 정박한 상선(商船)이 있어 물으니, 전라도 흥양 사람이라 하므로 몹시 반가운 마음에 다시 사는 곳을 물었더니, 팔영산(八影山)³⁸⁾ 장수동(長水洞)에서 왔다고 했다. 점인(店人)으로 철(鐵)을 사들이기 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내일 일찍 만나기로 약속하고 배 위에서 유숙하였다. 이날은 130리를 갔다고 한다.

五月初一日。晴。彌鎭合驗船，果以是日往統營，約與同行，與軍官五六輩作別。其中掌務崔致輝稍詰，請以其處所產白碁，換興陽竹島所產箭竹矣。相約而步出鵬海城門，到船倉。彌鎭客舍，以鵬海館懸板，城門又以鵬海名之，意或出於南華經鵬之徙於南溟之意也。發船稍遲者，以兵房軍官崔亨信，治行差緩也。向午發船，解纜舉帆，水順風利，船行如飛。左顧晉固諸山之屏立，右視蓮浴列島之碁布，忘却海闊。瞥過蛇赤兩鎭，得抵鑿梁，可云幸矣。暫泊小島，採薪載船，進泊梁項，適有商船之先泊者，問之則全羅道興陽人，故不無驚喜之心，更問居止，則八影山長水洞來云。認是店人之貿鐵次來，約以明早相面，宿于船上。是日行一百三十里云。

▪2일. 맑다. 일찍 일어나 김 서방(金書房) 정휘(鼎輝)를 감영(監營)으로 먼저 보내고 아침을 먹은 후에 종형(從兄)과 증지(曾之)와 동행하여 충렬사(忠烈祠)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충무공(忠武公)의 영령을 모신 곳이다. 문 밖에 두 개의 비(碑)가 있고 사당에는 수직 장교(守直將校) 한 사람이 있었는데,

37) 판데목[鑿梁] : ‘척량(鑿梁)’이란 ‘파서 다리를 만든다.’라는 뜻으로 당포해전에서 참패한 왜군들이 쫓겨 달아나다 미륵도와 통영반도 사이 좁게 이어진 협곡에 이르러 돌을 파서 다리를 만들며 도망한데서 붙인 이름이다. 이곳을 판데목[鑿梁]이라고 부르는데, 왜군들이 도망칠 때 아군의 공격으로 무수히 죽었으므로 송장목이라고도 한다.

38) 팔영산(八影山) : 고흥 10경 중 으뜸인 팔영산은 금닭이 울고 날이 밝아 햇빛이 바다 위로 떠오르면 이 산의 봉우리가 마치 창파에 떨어진 인쇄판 같은 모습을 보여 ‘영(影)’ 자가 붙었다는 설과 세숫대야에 비친 여덟 봉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감탄한 중국의 위왕이 이 산을 찾으라고 명하였는데, 신하들이 고흥에서 이 산을 발견한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다.

승무당(崇武堂)³⁹⁾에서 거처하였다. 우리 일행이 흥양에서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놀라고 반가워하는 기색이 있는 듯하였다. 자기 말로는 “저희 선친(先親)께서도 흥양(興陽) 동면(東面)의 장동(獐洞) 사람인데. 무과(武科)로 통영(統營)에 수자리를 살러 왔다가⁴⁰⁾ 그대로 이곳에 자리잡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마침내 통영 사람이 되었고 그 수가 7~8인에 이릅니다.”라고 하였다.

참배를 마치고 나서 《심원록(尋源錄)》에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윤 초관(尹哨官)⁴¹⁾에게 청하여 장 동지(張同知)의 첩남인 조금동(趙金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불러오게 했더니, 금동이 그의 생질 통영(通令)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배알하였다. 통영의 나이는 십여 세인데 얼굴이 장 동지와 흡사했다. 앞으로 나오게 하여 어루만지고 한참 있다가, “우리 일행은 한산도(閑山島)의 제승당(制勝堂)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네.”라고 말했더니, 금동이 그의 집에 가기를 청하였다. 금동의 뒤를 따라 서문으로 들어가니 문장(門長)이 금동의 말 때문에 막지 않았다. 누각에 올라 잠시 구경한 다음 영아(令兒)의 집에 이르자 음식을 차려주어 요기를 하고 조금 쉬었다.

통상(統相)의 아들과 조카, 아우 등이 떠나고 머무는 것에 대해서 천천히 물었더니 월전(月前)에 모두 이미 상경(上京)했다고 한다. 통상의 형은 바로 자유(子猷)의 부친인데, 비록 여러 차례 얼굴을 뵈 적이 있다고 하나 교분을 맺고 정이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찾아보려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한산으로 가는 길을 금동에게 물었더니, “내일은 사또⁴²⁾가 제승당(制勝堂)에 들어가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직승장이 오늘

39) 승무당(崇武堂) : 1695년(숙종21) 제 71대 통제사 김중기(金重器) 때 준공한 것으로, 통제영에서 파견한 장교 3명이 상주하면서 충무공 사당의 일과 위토전담의 일을 관장하던 곳이다. 지금은 회의실과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40) 수자리를 살러 왔다가 : 원문의 ‘부방(赴防)’은 군인이 변경(邊境)이나 해안(海岸)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자리 나가는 것을 이른다.

41) 윤 초관(尹哨官) : 원문의 ‘초관(哨官)’은 각 군영의 위관(尉官)중의 하나로, 군대 1초(哨)를 거느리는 종9품 무관직을 말한다.

42) 사또 : 원문의 ‘使道’는 ‘순사또[巡使道]’의 줄임말로 감사(監司)를 높여 부른 말이다. 사또는 흔히 일반 백성이나 하급 벼슬아치들이 자기 고을의 수령을 존대하여 부르던 말로 쓰인다.

와서 뵙고 곧 돌아갈 것인데, 그 배를 함께 타고 건너면 일이 매우 수월할 것이니 소인이 승장에게 가서 말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금동의 누이 또한, “조금 전에 영문(營門)에서 승장을 만나 이러한 것을 미리 말해 두었으니 행여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한 사내로 하여금 우리들 몇 사람과 함께 가게 했다.

선두(船頭)의 승장이 있는 곳에 이르니 승장은 이미 금동 남매의 요청을 듣고 별도로 막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승장이 데리고 온 승려 5~6명과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섬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거북한 말이 무수했다. 이날은 바로 통영 장날이라 금물(禁物)을 훔쳐 마셨다거나 수영(水營)의 위세에 의지한다는 등 갖가지 괴악하고 배척하는 거북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에 물정(物情)을 살펴보니, 그것은 대개 한산은 거제(巨濟)⁴³에 있고 거제는 본디 다른 사람 노비의 소굴이라 불리기 때문이었다. 전부터 추노(推奴)⁴⁴인 자가, “한산을 구경하다가 결국에는 숨어 사는 노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많으므로 이곳 사람들은 양반을 보기만 하면 몹시 머리가 아프니 어떡해서든 쫓아낼 궁리를 한답니다.”라고 하였다. 승장이 이제 떠나야겠다고 말하고는, “생원님은 결코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만약 괴이한 일이 생긴다면 제가 마땅히 책임질 것입니다.”라고 말한 연후에 배를 출발시켰는데, 우리가 모두 진탕 취하여 노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혹은 키를 꺾거나 상앗대⁴⁵를 놓치는 등 자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며 간신히 한산에 도착하였다.

대개 한산의 형승(形勝)은 뒷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고, 남쪽 산자락은 굴실굴실 북쪽으로 회전하여 제승당을 감싸고 앞 바다를 가리고 지나간다. 제승당 앞은 수백 척의 배를 수용할 만하였는데, 동쪽에서 보면 바닷길이 남해(南海)와 바로 통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임진왜란 때, 왜선들이 항구에 많이 쳐들어오자 충무공이 오는 길을 막아서 끊어 버리고 격전을 벌여

43) 거제(巨濟) : 경상남도 남해안에 거제도를 비롯한 여러 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진 시(市)를 말한다.

44) 추노(推奴) : 노비(奴婢)가 소유주(所有主)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외지(外地)에 가서 살았을 때에 소유주가 이를 찾아가서 사실을 밝히고 노비 또는 그 후손들로부터 공포(貢布) 또는 몸값을 징수하던 일을 말한다. 또한 도망간 노비를 수색하여 연행해 오는 것도 추노라고 하였다.

45) 저본의 ‘篙’는 ‘篙’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남쪽 나지막하고 좁은 곳은 왜놈[倭奴]들이 온힘을 다해 파서 지나가는 길을 뚫고자 했는데, 바윗돌로 이루어진 산줄기라서 계획대로 할 수 없었다.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이를 ‘포항(浦項)’이라 일컫는다. 포항에서 제승당까지 거의 5리 정도 가면 충무공의 직당(直堂, 집무실)인데, 항상 여기에서 머물렀다고 하며, 그 뒤로는 거처를 지금의 통영으로 옮겼다고 한다.

제승당 아래에 이르러 정박하니 송죽(松竹)이 숲을 이루었는데, 10여 걸음을 가니 충무공유허비(忠武公遺墟碑)가 있었다. 유허비 가에 조금 높고 평평한 곳에 3칸으로 지어진 웅장한 규모의 건물이 있는데, 들보와 문미가 크고 넓은 것이 대궐만큼 큰집이라 할 만하였다. 그 들보에는 ‘제승당(制勝堂)’ 세 개의 대자(大字)로 현판이 걸려 있고 그 북쪽 문미에는 충무공의 <야음시(夜吟詩)>가 걸려 있다. 시는 다음과 같다.

수국에 가을빛 저무니	水國秋光暮
추위에 놀란 기러기 떼 높이 나네	驚寒鴈陣高
근심으로 뒤척이며 잠 못 이룬 밤에	憂心轉輾夜
새벽달 만이 활과 칼을 비추네	殘月照弓刀

바다에 맹서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誓海魚龍動
산에 맹서하니 초목이 아네 ⁴⁶⁾	盟山草木知

한산섬 달 밝은 밤에	閑山島月明夜
수루에 올라	上戍樓
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할 때에	撫大刀深愁時
어디선가 한줄기 강적소리 남의 애를 끓나니 ⁴⁷⁾	何處一聲羌笛更添愁

46) 바다에 …… 아네 : 2구는 충렬사 동재의 주련에 쓰인 글귀로, 이순신의 한시 <진중음(陣中吟)>에 나오는 시구이다. 오연율시의 <진중음(陣中吟)>은 선조의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충무공의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담고 있다.

47) 한산섬 …… 끓나니 : 이순신(李舜臣)이 임진왜란 때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어 한산도에서

동쪽 들보에는 기문(記文)이 걸려 있는데, 조현명(趙顯命)⁴⁸이 찬한 것이다. 또 여러 사람들의 시와 기문, 노래를 적은 현판이 걸려 있는데, 유독 정익하(鄭益河)⁴⁹가 읊은 시가 조금 뛰어나기에 베껴 왔다. 정익하가 경상도 관찰사(嶺伯)가 되어 순찰하며 지나갈 때에 통제사(統制使) 조경(趙敬)⁵⁰에게 지어준 시이다. 시는 다음과 같다.

그대는 서쪽에서 나는 동쪽에서 와	君自西來我自東
문무의 두 원용 ⁵¹ 한 자리에 앉았네	一筵文武兩元戎
땅은 적벽에서 접전했던 형세 남아 있는데	地餘赤壁鏖兵勢
사람은 금성에서 오랑캐 격파한 공 멀어졌네	人遠金城破虜功
천리의 묘한 계책 준조 ⁵² 속에 있고	千里妙籌樽俎裡
오래 전 새로 지은 사당 한 폭의 그림 같네	百年新構畫圖中

군진을 치고 있을 때의 착잡한 심회와 충정을 노래한 <한산도가(閑山島歌)> 중 1수이다. 《청구영언(靑丘永言)》을 비롯한 22종의 가집에 실려 있고,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1 및 《충무공가승(忠武公家乘)》에 전한다. 또한 《이충무공전서》에, “한산도가는 조경남의 《난중잡록》를 살펴보면 이순신이 쓴 한산섬에 대한 시가 2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모두 없어지고 이것 하나 남았으니 애석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閑山島歌, 按趙慶男亂中雜錄, 有閑山吟咏二十韻云, 而屢經兵燹, 散佚不傳, 只有一聯一歌傳於世, 可勝惜哉.]”라는 내용이 보인다.

48) 조현명(趙顯命) : 1690~1752.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치회(稚晦), 호는 귀록(歸鹿)·녹옹(鹿翁)이다. 1719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을 거쳐 대사헌, 도승지를 거쳐 1730년 경상도 관찰사로 나갔다. 시호는 충효(忠孝)이다. 저서로는 《귀록집(歸鹿集)》이 있다.

49) 정익하(鄭益河) : 1688~1758.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자겸(子謙), 호는 회와(晦窩)·겸재(謙齋)이다. 조선 후기 체천 출신의 문신으로, 1721년(경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벼슬은 의정부 좌참찬, 참찬, 형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1739년에는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50) 조경(趙敬) : 1739년(영조15년) 107대 삼도수군통제사로 부임했다. 조경은 충무공이 떠난 뒤 폐허가 된 운주당(運籌堂) 자리에 제승당을 중건하고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51) 원용 : 각 군영의 대장(大將), 주장(主將)을 말하는데, 여기서 두 원용은 정익하와 조경을 가리킨다.

52) 준조(樽俎) : ‘준조(樽俎)’는 고대에 술을 담은 술동이와 고기를 올려놓는 그릇으로, 연석(宴席)을 뜻하는 말인데, 《안자춘추(晏子春秋)》〈잡상십팔(雜上十八)〉에 “준조의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천 리 밖에 있는 적을 제압할 줄 아니, 이는 안자(晏子)를 두고 말한 것이다.[夫不出於樽俎之間, 而知千里之外, 其晏子之謂也]”라고 하였다.

누선이 돌아가는 길에 고래 물결⁵³⁾ 잠잠하고
고각⁵⁴⁾ 소리 아직도 대수⁵⁵⁾의 바람에 전한다네

樓船歸路鯨波靜
鼓角猶傳大樹風

난간에 기대어 잠시 쉬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곳에 거처하는 스님이
밥을 차려주었다. 제승당 뒤의 두어 칸의 집은 바로 본토의 스님이 거처하는
곳인데, 탁임(卓稔)이란 이름의 수직 승장(守直僧將)이 조금은 인사를 아니
쇠 중에서도 쨍쨍 울리는 사람⁵⁶⁾이라 할 만하였다. 제승당에 묵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파도 소리 고요해지고 오직 소나무 숲에서 슬피 울어대는
두견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밤새 뜬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장군과
나의 족고조(族高祖, 송대립과 송희립)의 충의(忠義)를 회상하다가 장군의
<야음시>에 차운하였다. 시는 다음과 같다.

공업은 동해처럼 넓고
성명은 북두처럼 높도다
후생의 끝없는 한은
시험하지 못하고 오래토록 칼을 가는 것

勳業東溟闊
聲名北斗高
後生無盡恨
難試久磨刀

이날 물길로 20리를 갔다.

初二日。晴。早起先送金書房鼎輝於營底，食後與從兄及曾之同行，至忠烈
祠，忠武公安靈所也。門外有二碑，祠有守直將校一人，居於崇武堂。聞吾等

53) 고래 물결 : 원문의 '경파(鯨波)'는 거세고 거대한 물결을 고래에 비유하여 왜적의 침략을 뜻한다.
두보(杜甫)의 <주출강릉남포봉기정소윤심(舟出江陵南浦奉寄鄭少尹審)>에 “바다에는 고래 물결이
무겁게 일고, 형양에는 기러기 그림자가 막혔어라.[溟漲鯨波重 衡陽雁影阻]” 하였다.

54) 고각 : 군중(軍中)에서 시간을 알리고 명령을 내리는 데 쓰던 북과 나발을 말한다.

55) 대수 : 후한 때의 장군 풍이(馮異)를 비유한 말로, 훌륭한 장수의 덕에 감복한 나머지 그가 떠난
뒤에도 길이 잊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후한의 개국공신 풍이는 광무제를 섬겨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사람됨이 겸양하여 논공행상할 즈음이면 언제나 자신의 공로를 발표하지 않고 큰 나무
아래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었으므로 대수장군이라는 별칭이 있게 되었다.《後漢書 卷17 馮異列傳》

56) 쇠 …… 사람 : 같은 무리 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후한(後漢) 광무제(光武
帝)가 서선(徐宣)에게 “경은 이른바 쇠 중에서도 쨍쨍 울리는 그런 사람이다.[卿所謂鐵中錚錚]”라고
말한 고사가 전한다.《後漢書 卷11 劉盆子列傳》

之在於興陽，似有驚喜之色，自言“其先以興陽東面獐洞人，爲武科赴防於統營，因居不還，子孫遂爲統營人，其數至七八”云。參謁後，題名尋源錄。請於尹哨官者，招來張同知妾男趙金同爲名人，則金同率其甥侄通令兒而出來拜謁。令兒年可十餘歲，而眉目恰似張同知。進前撫愛，良久乃言，“吾行專爲翫景于閑島制勝堂”云，則金同請往其家。隨後入西門，門長以金同之言，不爲拒塞。登樓暫玩，到令兒家，進療飢小歇。徐問統相子及侄弟去留，則月前皆已上京，統相之兄，卽子猷之父，而雖云數次見面，無結交情親之道，故亦不以求見爲意。惟往閑山之道，問金同則答曰：“明日使道入去制勝堂發令，守直僧將今日來謁，卽當還去，同其舟而濟，則事極輕便，小人往言于僧將矣。”金同之妹亦曰：“俄見僧將於營門，以此先言，幸勿慮焉。”因使一漢同吾等數人往。抵船頭僧將所在處，僧將已聞金同男妹之請，別無拒塞，而其餘僧將所率髡輩五六，及他島民在船者，無論男女，因談無數。是日卽統營場日，盜飲禁物，憑籍營威，百端怪拒，多發困談，察見物情，蓋閑山在巨濟，巨濟素稱他奴婢窟穴。自前推奴者，稱云“閑山翫景，而終有貽害於隱奴者多，故此處人物見兩班，則大爲頭痛，必欲追逐之計也。”僧將告以此去，“生員主，決無所慮，若有怪舉，吾當任其咎責。”然後發船。衆皆泥醉，不善搖櫓，或折柁失篙，累至危境，艱達閑山。蓋閑山形勝，後峯卓立，南麓逶迤，向北回轉，繞抱制勝堂，掩過前洋。堂前可容數百艘，自東視之，疑若海路之直通南海，故壬之變，蠻船多入港口，忠武公遏絕來路，鏖戰大捷。南邊低細處，倭奴盡力掘之欲通去路，而石骨連脈，未得售計，其痕尚在，稱云浦項。自浦項至制勝堂幾五里許，忠武公直堂，而常留于此矣。其後移居今統營云。到泊堂下，松篁成林，行十餘步，有忠武公遺墟碑。碑上稍高平易處，作三間傑構，樑楣宏闊，可謂廣廈。樑間懸制勝堂三大字，北楣懸忠武公夜吟詩。詩曰：“水國秋光暮，驚寒寫陣高。憂心轉輾夜，殘月照宮刀。誓海魚龍動，盟山草木知。”“閑山島月明夜，上戍樓，撫大刀深愁時，何處一聲羌笛更添愁。”東樑懸記文，趙顯命所撰也。且有諸人詩記歌咏懸板，而獨鄭益河所咏稍優，故臆來。鄭爲嶺伯巡過時，贈統使趙徹。詩曰：“君自西來我自東，一筵文武兩元戎。地餘赤壁鏖兵勢，人遠金城破虜功。千里妙籌樽俎裡，百年新構畫圖中。樓船歸路鯨波靜，懿角猶傳樹風。”憑軒小憩，日已夕矣，居僧進飯。堂

後數間舍，卽本土爲髡者居，而守直僧將名卓稔，稍知人事，可謂鐵中錚錚者也。宿制勝堂，夜深波靜，惟聞杜鵑啼於松樹間而已。耿耿無寐，追想李將軍與族高祖忠義，吟次將軍夜吟詩曰：“勳業東溟闊，聲名北斗高。後生無盡恨，難試久磨刀。”是日水路行二十里。

▪3일. 맑다. 아주 늦게 통제사가 탄 큰 배가 많은 기치를 펴리며 군졸들을 가득 싣고 작은 배 수십 척으로 하여금 좌우에 늘어서서 상선(上船, 대장선)을 닦줄로 묶어 노를 저어 끌게 하니, 상선이 완전히 한가운데에서 물길 따라 서서히 가는 모습이 마치 산악이 옮겨가는 듯했다. 북과 피리를 번갈아 연주하며 만무(萬舞, 춤의 이름)가 바야흐로 펼쳐지자 짙은 화장을 한 기녀들 춤사위⁵⁷⁾가 물결에 은은히 비추고 장군의 높은 깃발⁵⁸⁾은 구름과 안개 속에 펄럭였다.

한참을 지나 제승당 아래에 이르러 정박하니 아객(衙客) 4~5명이 먼저 와 있었는데, 그중에는 자유(子猷)의 종형(從兄)으로 원동(院洞)에서 점방(店房)을 하는 사람과 오위(吳瑋)의 아들이 통제사의 처남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인하여 함께 잠시 쉬면서 모두 말하기를, “다행히 이렇게 서로 만나 종일토록 함께 노닐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약속했던 여러 사람들은 모두 이미 벌써 올라가 버렸으니, 지금에 와서 간알(干謁, 사사로운 일로 알현을 청함)하는 것은 매우 구차스러워 구경한 뒤에 먼저 떠나 자리를 피하는 것만 못한 것이라 여겼다. 통사가 오자 서쪽 소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그 위(威儀)를 살펴보았더니, 호위(護衛)가 엄장(嚴壯)하였으며 행동거지가 가볍지 않았다. 의당 남쪽 바다를 진정(鎮靜)시켜 외적이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데 장수가 책임자가 아니라면 한갓 허기(虛器)일 뿐이니 국가가 장수 뽑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57) 짙은 …… 춤사위 : 원문의 ‘취대(翠黛)’는 검고 짙은 눈썹으로, 미인을 비유하는 말이다. 홍군(紅裙)은 붉은 치마라는 말로 미녀나 기녀를 뜻하는 시어이다.

58) 깃발 : 원문의 ‘고아(高牙)’는 장상(將相)이 행차할 때에 세우는 기(旗)를 가리킨다. 구양수(歐陽脩)의 <주금당기(畫錦堂記)>에 “고아(高牙)와 대독(大纛)이 공에게는 영화로운 것이 못되고, 환규(桓圭)와 곤상(袞裳)도 공에게는 귀한 것이 못된다.”라고 하였다.

종형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포항(浦項)으로 향하여 잠시 구경하고 소나무 아래로 돌아오자 김 서방 정취가 와서 석각(石角) 위로 옮기기를 청하였다. 금동이 송편(松餅)과 가장(家獐, 개장[狗醬])을 보냈으므로 요기를 하였다. 저녁에 먼저 떠나는 배 한 척이 있어서 금동이 우리 일행에게 먼저 가기를 청하였다. 순풍이 불어 와서 나루에 배를 정박하니 장쾌하였다. 제승당에 있을 때 서쪽 문미에 이름을 적고 판서(判書) 정자겸(鄭子謙)의 시에 차운하였다. 시는 다음과 같다.

유유히 유랑하는 자취 동서로 맘껏 다니는데	悠悠浪迹任西東
저 멀리 보이는 남쪽 바다 견용과 인접하였네	遙望南洋接戎狄
용사 ⁵⁹⁾ 의 국가 변란 차마 어찌 말하라	忍說龍蛇家國變
애처롭도다 계구의 기이한 공로여	堪憐鷄狗辦奇功

우리 고조의 형제⁶⁰⁾께서 나라를 위해 순절하여 공로를 세움이 정유년(1597, 선조30)과 무술년(1598, 선조31)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노량진 귀신은 성난 파도 속에 흐느끼고	露湖鬼泣驚波裡
산꼭대기 잔나비는 안개 속에서 울어대는데	尖峯猿啼宿霧中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 변방이 잠잠하니	何幸今來邊警息
아득한 바다 만리 바람도 없이 고요하네	滄溟萬里靜無風

육지에 내려 안파루(晏波樓) 아래를 경유하여 청파문(淸波門)으로 들어가니 문장(門長)이 동행을 붙잡으며 따져 물었다. 그는 바로 금동이 부탁해 두었던

59) 용사 : 용은 진(辰), 사는 사(巳)로서, 임진년과 계사년의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뜻한다.

60) 우리 고조의 형제 : 송대립(宋大立, 1550~1597)과 송희립(宋希立, 1553~1623)을 말한다. 송대립은 1594년 무과(武科)에 오르고, 아우 희립(希立)은 1583년 별시로 치른 무과에 합격하여 지도 만호(智島萬戶)로 있었는데, 이들 형제는 통제사 이순신의 휘하로 같이 가 협력하여 수차례 일본군을 무찌르며 공을 세웠다. 송대립은 의병(義兵)을 모집하여 흥양(興陽)의 첨산(尖山)에서 항거하다 적탄에 맞아 전사했다. 송희립은 이순신의 핵심참모로서 뛰어난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여 옥포해전, 당포해전, 부산포해전 등에서 차례로 대승을 거두는 전공을 올렸다.

사람인데, 금동의 집에 간다고 하자 다시 묻지 않았다. 금동의 집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저녁밥을 먹은 뒤에 세병관(洗兵館) 문루(門樓)에 가서 야간 군사훈련을 구경하였다. 금동의 집에서 묵었다.

初三日. 晴. 最晚統使乘大艦, 多張旗幟, 滿載軍卒, 使小船數十隻, 擺列左右, 繫纜上船, 搖櫓挽引, 上船宛在中央, 順流徐行, 有若山岳移運. 鼓吹交奏, 萬舞方張, 翠黛紅裙, 隱映烟波, 大旆高牙, 動搖雲霞. 稍久到泊堂下, 衙客四五人先來, 其中子猷從兄店於院洞者及吳璋之子, 與統使之妻男在焉. 因與小憩, 皆言“幸得相遇, 終日同遊可乎.” 吾等自念所約諸人, 皆已上去, 今來干謁, 事涉苟且, 不如玩景後先去起避. 統使之來, 坐于西邊松下, 暫見威儀, 則擁衛嚴壯, 舉措非輕. 宜乎鎮靜南洋, 外侮不至, 而將非其人, 則徒是虛器, 國家擇將, 其可忽哉. 與從兄扶杖向浦項暫玩, 回來松下, 金書房鼎輝來請移往石角上. 金同者送松餅及家獐, 以為療飢. 夕間有先去船隻, 金同請吾一行先往. 順風來泊于船倉, 快哉. 在制勝堂時, 題名西邊楣間, 次鄭判書子謙詩曰: “悠悠浪迹任西東, 遙望南洋接犬戎. 忍說龍蛇家國變, 堪憐鷄狗辦奇功.” 吾高祖兄弟, 死節立功, 在丁酉戊戌間故云爾. “露湖鬼泣驚波裡, 尖岬猿啼宿霧中. 何幸今來邊警息, 滄溟萬里靜無風.” 下陸由晏波樓下, 入清波門, 門長挽詰同行. 卽金同所囑者, 言其往于金同家, 則不爲更問. 到同家, 日已昏黑. 夕飯後, 往洗兵館門樓觀夜操. 宿同家.

■4일. 맑다. 증지(曾之)가 와서 보았는데, 밥을 먹은 후에 곧바로 출발하여 세병관(洗兵館)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대로 갔더니 증지가 오지 않아서 종형과 함께 관우(館宇, 관사(官舍))에 올라 구경했다. 관우의 규모는 매우 넓고 웅장하여 9칸으로 배열되어 있고, 건물 중앙의 북벽(北壁) 아래에 좌담(座榻)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담 후벽 위에 전패(殿牌)⁶¹⁾를 안치해 두었다. 좌우 벽에 8척의 배가 그려져 나열되어 있고, 배 아래에는 기계(器械)와 짐물(什物)을 나열하여 붙여 놓았다. 들보와 문미 현판에는 고금의

61) 전패(殿牌) : 각 고을 객사(客舍)에 ‘전(殿)’ 자를 새겨 세운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로, 공무로 지방에 간 관원이나 그 지방 벼슬아치가 초하루, 보름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여기에서 배례(拜禮)하였다.

통사(統使)와 장좌(將佐)가 된 이들의 명록(名錄)과 거주지가 쓰여 있었다. 또 약간의 제영시(題詠詩)가 있는데, 모두 순찰하다가 들른 감사와 어사들이 지은 것이다. 좌답 좌우 기둥에는 ‘일국남락대장군삼도주사통제영(一國南落大將軍三道舟師統制營)’이라는 14글자를 판목에 새겨서 붙여 놓았고, 오른쪽 큰 들보에는 ‘세병관(洗兵館)⁶²⁾’이라는 세 개의 큰 글자를 새겨 붙여 놓았다. 그 남쪽에는 장태소(張泰紹)⁶³⁾ 장좌(將佐)⁶⁴⁾의 좌목(座目, 자리의 차례를 적은 목록)이 있는데, 동지(同知) 장세중(張世重)의 이름자가 있었다. 오른쪽 벽 위에는 ‘오세사리(五世四莅)’ 네 개의 대자(大字)가 새겨져 붙여 있고, 그 왼쪽에 이우(李珩, 110대 수군통제사)가 4대를 이어 통제사가 된 좌목이 있다.

장쾌한 광경이다. 뜰 가장자리에 세워진 4개의 석인(石人)은 위아래로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니 대좌기(大坐起)⁶⁵⁾ 때에 깃발을 꽂는 도구이다. 석인 뒤에 또 좌우로 설치된 장강목(長杠木)⁶⁶⁾ 또한 깃발을 꽂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장강목 아래는 길고 큰 나무로 용의 형상을 만들었다. 또 뜰 가 좌우에 설치된 낭사(廊舍)는 각각 4~5칸으로 밖을 향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안쪽 벽 뒤에는 구름과 용, 바람과 범을 그렸는데, 보기에 매우 험상궂고 웅장하였다. 뜰의 남쪽에 쌓은 담장 안에는 3칸의 문을 설치되어 있고, 뜰은 매우 평평한데 돌을 쌓아 대(臺)를 만들었으며, 밖은 매우 높고 험준하였다.

62) 세병관 : 통제영의 객사로 제6대 통제사 이경준(李慶濬)이 이 곳에 통제영을 옮겨 온 이듬해인 1605년에 처음 세웠다. 세병이란 두보의 시 만하세병(挽河洗兵)에서 따 온 말로 ‘은하수를 끌어와 병기를 씻는다’는 뜻이며, <세병관(洗兵館)>이라 크게 써서 걸어 놓은 현판은 제137대 통제사인 서유대(徐有大)가 쓴 글씨이다.

63) 장태소(張泰紹) : 1693~?. 본관은 인동(仁洞), 자는 내백(來伯)이다.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에서 태어났다. 1747년부터 1749년 까지 2년 동안 제113대 통제사(統制使)를 역임하였다.

64) 장좌(將佐) : 장군과 보좌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65) 대좌기(大坐起) : 좌기는 관아의 장관(長官)이 사진(仕進)하여 자기 자리인 상석(上席)에 좌정하여 부하를 대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의식 또는 큰 사건이 있을 때는 대좌기(大坐起)라 하여 위의(威儀)를 더 갖춘다.

66) 장강목(長杠木) : 원문의 ‘장기(長機)’는 가마와 같이 무거운 것을 메거나 드는 데 쓰이는 길고 굵은 뿔대로 장강목(長杠木)이라고도 한다.

그 아래는 또 문루 3칸을 세워 ‘망일루(望日樓)⁶⁷⁾’라고 편액하였고, 망일루 아래는 출입할 수 있는 큰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망일루 위에는 큰 북이 매달려 있는데, 이것을 ‘종루(鍾樓)⁶⁸⁾’라고 하였다. 세병관 왼쪽에는 통제사가 거처하는 관사가 있었지만 가서 뵙지 못하고 관현(觀軒)을 배회하면서 증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어떤 한 장교(將校)가, “생원님은 흥양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묻기에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어제 제승당에 가셨습니까.”라고 물으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어제 사또께서 생원님이 가신 곳을 물으시고 맞아들이게 하셨는데, 아랫사람이 이미 먼저 떠난 배를 타고 출발하여 영저(營底)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땅히 들어가 고할 것이니 부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더니 곧바로 가서 고하였다.

얼마 안 있어 통사의 형이 전갈을 보내 들어오기를 청하였다. 대개 자유의 부친 오옥(吳頊)은 늘 읍취헌(挹翠軒)⁶⁹⁾에 있는데, 어제 제승당 아객(衙客)의 말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들어 온 것을 알고서 통사에게 말하여 맞아들이게 했으나 때마침 내가 포항(浦項)으로 구경을 가서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장교가 들어가 고하니 이렇게 초청한 것이다. 부득이하여 들어가니 오옥이 영접(迎接)하며 말하기를, “아직도 예전에 뵈었던 얼굴이 기억나는데, 많이 늙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침밥을 먹었냐고 묻자, “이미 밥을 먹고 막 출발하여 돌아가려던 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오옥이 “당초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미 여기에 오셨으니 마땅히 이곳에서 머무시지요. 아우가 며칠간 머물러도 좋다고 하였는데, 어찌 이처럼 바빠 돌아가려고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서울에 있을 때에 현운(賢允)⁷⁰⁾, 영함(令咸, 상대방 조카의 높임말)과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들으니 모두 이미

67) 망일루(望日樓) : 1611년(광해군3)에 제10대 우치적(禹致績) 통제사가 세웠으며, 1769년(영조45)에 제128대 이국현(李國賢) 통제사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다시 지었다. 세병문(洗兵門)이라고도 한다.

68) 종루(鍾樓) : 동행금지와 해제를 알리는 종이다.

69) 읍취헌(挹翠軒) : 통제사가 풍경을 조망하며 휴식하던 정자를 말한다.

70) 현운(賢允) : 상대방 아들을 높이는 말로, 여기서는 오옥의 아들 오자유(吳子猷)를 말한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보고 싶었던 제승당은 어제 또 가서 구경하였으니 달리 경영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오욱이, “굳이 갈 필요는 없지요. 내일은 바로 단옷날이라서 주수(主帥, 통제사(統制使))가 세병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볼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구경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에 머뭇거리고 결정을 못하고 있을 즈음에 종놈이 밖에서 길을 재촉하였는데, 아마도 종형과 증지가 당부해서 그런 듯했다. 그러므로 몸을 일으켜 작별을 고하였더니 오욱이 곁에 차려진 상(床)에서 약간의 음식 그릇을 덜어내어 밖으로 내보내 일행들이 입에 덜 만한 먹을거리를 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반상에 차려진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기를 권하고 3자루의 부채를 꺼내어 주었다.

그길로 작별하고 북문을 나와 10여 리를 가서 원문(轅門)⁷¹⁾ 2층 누각에 올랐다. 누각 안에는 ‘망북루(望北樓)’라는 편액이 걸려 있고, 또 ‘삼도대원수원문(三道大元帥轅門)’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다. 상층 미간에는 제명(題名)⁷²⁾을 하였는데, 대개 선과 같은 일맥은 남쪽으로 달려가 통제영(統制營)이 된 이들이다. 원문의 좌우는 바다와 인접하여 있고, 산등성이에 걸쳐 성을 만들었는데, 문을 닫으면 몸에 날개를 갖추지 않는 한 날아 넘을 수 없는 곳이었다. 애초에 이 성을 만든 뜻은 수상(殊常)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서 적들의 침범에 대비하고 미연에 방지하자는 방도였지만, 근래에 장수 된 자들은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토착민의 말만 듣고서 도망한 노비들에게 주인을 배반하는 계획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이는 또한 자기 집에 객이 오는 것을 피하여 힘을 쓰지 않으려는 계책이니, 통탄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성문을 나와 10리를 가서 구화현(九華峴)을 넘어 한 줄기 긴 골짜기를 지났다. 대치(大峙)를 넘어 도선주점(道善酒店)에서 점심을 먹고 갈산(葛山)의 최석경(崔錫慶)의 집에 이르렀다. 40리를

71) 원문(轅門) : 진영 입구의 문을 칭하며, 1682년(숙종8) 제61대 원상(元相) 통제사 때 통제영으로 오가는 유일한 육로의 북쪽 10리 지점인 이곳에 세운 성문이었다.

72) 제명(題名) : 제명기(題名記)로, 일반적으로 해당 관서(官署)의 벽에 그 관서에 출사(出仕)하였거나 출사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이력 등을 쓰고, 그 관사의 내력이나 관원에게 권계할 내용을 함께 기술하여 걸어 놓는 목판(木板)을 말한다.

갔다. 고성(固城) 땅이다.

初四日. 晴. 曾之來見, 約以食後即發會于洗兵館. 如約而往, 則曾之不來, 與從兄登覽館宇. 制極宏壯, 排列九間, 居中北壁下設座榻, 榻後壁上奉安殿牌. 左右壁畫列八船, 船下書列器械什物而付之, 樑楣間懸古今爲統使將佐名錄居地. 又有略干題詠, 而皆巡過監司及御使輩所作也. 座榻左右柱刻板十四字付之一國南落大將軍三道舟師統制營, 右邊大樑刻付三大字洗兵館. 其南有張泰紹將佐座目, 而張同知世重名字在焉. 右邊壁上刻五世四莅四大字付之, 其左有李玕連四代爲統使座目. 壯哉. 庭際立石人四箇, 穿上下兩孔, 大坐起時, 樹旗之具. 石人後, 又設木長機於左右, 亦穿樹旗之孔. 機下則以長大木爲龍形, 又置廊舍於庭畔左右, 各四五間, 向外開面. 內邊壁後, 畫雲龍風虎, 視甚獍壯. 庭南築牆中, 設三間門, 庭極廣平, 累石爲臺, 外甚高峻. 其下又立門樓三間, 扁以望日樓, 樓下爲出入大路, 樓上懸大鼓, 謂之鍾樓. 洗觀左邊有統使所居官舍, 不爲往見, 徘徊於觀軒, 以待曾之之來矣. 有一將校問曰: “生員主, 無乃自興陽來乎.” 答曰: “然矣.” 又問曰: “昨往制勝堂乎.” 曰: “然矣.” 又曰: “昨日使道尋問生員主去處, 使之迎入, 而下人以已乘先去船, 出往營底告之. 今當入告, 幸小留焉.” 卽往告之. 俄而統使之兄傳喝請入. 蓋子猷之父吳頊, 常居挹翠軒, 昨因制勝堂衙客之言, 知吾入來, 言于統使, 使之延入, 適吾往浦項而不見, 故將校者入告, 有此邀請也. 不得已入去, 則吳頊迎接曰: “尚記昔年面目, 而頗爲衰老矣.” 相與敘話, 因問朝飯乎. 答曰: “已飯而方發還矣.” 吳曰: “當初緣何而來. 既來之後, 則當留回, 舍弟以爲數日盤桓之地可也, 而何其告歸之忙忙若此.” 余曰: “在京時, 與賢允令咸, 有相會之約矣. 今來聞之, 則皆已上去. 所欲見制勝堂, 則昨又往觀, 他無營爲之事, 故今方臨行.” 吳曰: “不必強行, 明日卽端午, 主帥坐起于洗兵館, 小留觀之可乎.” 余乃趨趨未決之際, 已奴從外而促行, 意者從兄及曾之所囑也. 起身告別, 則吳也除出傍床略干器, 送出于外, 以作一行接口之資, 勸余小喫其盤中物, 出三柄扇以給. 因作活別, 出北門行十餘里, 登轅門二層樓, 內懸望北樓扁, 又懸三道大元帥轅門扁, 題名上層楣間. 蓋一脈如線, 南走爲統營. 而轅門左右接海, 跨脊爲城, 閉門則非身具羽翼, 莫可飛越. 當初設此之意, 審察殊常之人, 以備對敵防微之道, 而近來

爲帥者, 不通本意, 偏信土人之言, 使逃奴得遂叛主之計, 亦爲自家避客不費之策, 可勝痛惡. 出門行十里, 踰九華峴, 過一長谷, 踰大峙, 點心道善酒店, 抵葛山崔錫慶家. 行四十里. 固城地也.

▪ 5일. 아침에 흐리다. 최석경의 선조 중에 이름이 강(綱)⁷³⁾이라는 분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에 공을 세웠고 관직이 총용사(摠戎使)⁷⁴⁾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허 생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만났는데, 그의 선조 이름이 수광(守光)이라는 분이 또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다고 말하였다. 밥을 먹은 뒤에 최 생원과 함께 고성 읍내에 이르러 객사에서 잠시 쉬고 있으니 증지와 친분이 있는 허 생원이 찾아와서 만났다.

고성의 풍속 중에 반드시 단옷날에는 관문 밖에서 청단희(淸壇戲)을 베풀고 이어서 또 씨름을 한다. 이른바 ‘청단희(淸壇戲)’는 무녀(巫女)와 재인(才人)⁷⁵⁾들이 관문에서 삼현(三絃)⁷⁶⁾을 연주하고 온갖 놀이를 베풀면 못사람들이 모두 빙 둘러싸고 구경을 하다가 놀이가 끝나면 또 씨름을 하며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최 생원과 작별하고 서문을 나가 북쪽으로 10여 리를 가서 무량산(無量山)의 법천사(法泉寺)⁷⁷⁾에 이르렀다. 법천사는 대개 고찰(古刹)로, 지금은 허물어지고

73) 강(綱) : 최강(崔綱, 1559~1614)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여견(汝堅), 호는 소계(蘇溪)이다. 1585년(선조18) 무과에 급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 균(均)과 함께 고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많은 공을 세웠다. 화공법(火攻法)으로 왜적을 무찔러 순천부사(順天府使)가 되었다.

74) 총용사(摠戎使) : 조선시대 총용청(摠戎廳)의 으뜸 벼슬로 종2품 서반 무관(武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관원으로는 총용사(摠戎使: 從二品) 1원, 중군(中軍: 從二品) 1원, 천총(千摠: 正三品 堂上) 2원, 진영장(鎭營將: 正三品 堂上) 4원, 파총(把摠: 從四品) 2원, 초관(哨官: 從九品) 10원, 교련관(敎鍊官) 15원, 기패관(旗牌官) 2원 등이 있었다.

75) 무녀(巫女)와 재인(才人) : 천인(賤人)의 하나로, 남자는 노래와 춤과 줄타기를 업(業)으로 하고, 여자는 무당 노릇 기타(其他)를 업으로 하여 농업 등의 정업(正業)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76) 삼현(三絃) : 생황이나 피리 등을 연주하는 관악(管籥)을 말한다. 나라에 대해서는 관악이라고 하고 백성에 대해서는 삼현이라고 하는데, 군악(軍樂)인 육각(六角), 삼각(三角)과 같은 것이다. 《承政院日記 英祖 42年 7月 12日》

77) 법천사(法泉寺) :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에 있던 신라시대의 고찰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폐사되고 현재는 7기의 부도(浮屠)만 남아 있다. 법천사지(法泉寺址)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자료 제207호로 지정되어 있다.

파손되어 거주하는 승려 몇 사람이 힘써 농사를 지어 업으로 삼고 있었다. 이날 25리를 갔다. 법천사에서 묵었다.

初五日. 朝陰. 崔之先有名綱, 倭亂時立功, 官至摠戎使云. 又有許生員者來見, 言其先祖名守光, 亦立功於倭變云. 食後同崔生員, 至固城邑內, 小憩于客舍, 曾之所親許生員來見. 固城風俗, 必以端午日設清壇戲於官門外, 因復角觝. 所謂清壇戲者, 巫女才人, 設三絃雜戲于官門, 則衆皆環擁, 戲畢, 又設角觝以較勝負. 吾等以行忙, 與崔生員作別, 出西門北行十餘理, 抵無量山法泉寺. 寺蓋古刹, 而今則殘破, 居僧略干力農爲業. 是日行二十五里. 宿法泉寺.

▪6일. 비가 오다. 법천사에서 머물며 우연히 읊었다[偶吟]. 시는 다음과 같다.

오월에 진경을 찾는 나그네	五月尋眞客
지팡이 휘저으며 법천으로 향했네	飛筇向法泉
승려에게 돌아갈 길을 물으니	問僧歸去路
웃으며 바다 남쪽 하늘을 가리키네	笑指海南天

初六日. 雨. 留法泉偶吟. “五月尋眞客, 飛筇向法泉. 問僧歸去路, 笑指海南天.”

▪7일. 맑다. 아침밥을 일찍 먹은 뒤, 서쪽 고개를 넘어 1리를 갔다. 다시 한 고개를 넘어 골짜기를 경유하여 내려갔다. 증지가 도망간 노비를 찾는 일 때문에 길을 따라 사천으로 향해 가니 갈림길에서 험박하였다. 영현창(永縣倉) 앞길 가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소촌역(召村驛)을 경유하여 한 고개를 넘어 청곡사(靑谷寺)⁷⁸⁾에 이르렀다. 산 이름은 월아(月牙)이며, 땅은 바로 진주(晉州)의 경계에 있는 곳이다. 마을 입구에는 새로 지은 3칸의 수각(水

78) 청곡사(靑谷寺) :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월아산(月牙山)에 있는 절로, 879년(헌강왕5)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창건하였는데, 월아산 남쪽 남강변으로 청학(靑鶴)이 날아오니 서기(瑞氣)가 충만하므로 이 자리에다 절을 지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되었는데, 1602년(선조35)에 중건하였다.

閣, 물가나 물위에 지은 정자)이 있고, 숲을 뚫고 마을로 들어가서 계곡 따라 수백 보를 올라가면 세진각(洗塵閣)이 있는데, 물을 가로질러 지어졌다. 잠시 쉰 뒤에 다시 만세루(萬歲樓)에 올라갔는데, 만세루는 절의 큰 누각이다. 한 승려를 불러 머물 곳을 정하니 송월寮(送月寮)로 이끌고 갔다. 들으니 병영(兵營)의 우후(虞侯)⁷⁹⁾가 어제 놀러 왔다가 조금 전에 내려갔다고 하니 가탄스럽다. 이날 60리를 갔다.

初七日. 晴. 朝食後, 踰西嶺行一里. 復踰一嶺, 由谷而下. 曾之以逃奴推尋事, 分路向泗川去, 臨歧悵然. 至永縣倉前路邊點心, 由召村驛, 踰一嶺, 抵靑谷寺, 山名月牙, 地乃晉州境也. 洞口新建三間水閣, 穿林入洞, 緣溪上數百步, 有洗塵閣, 跨水而作. 小憩後, 更上萬歲樓, 寺之大樓也. 招一髡定宿處, 則引去送月寮. 聞兵營虞侯, 昨日來遊, 俄纔下去云, 可歎. 是日行六十里.

■8일. 맑다. 조금 늦게 출발하여 서쪽으로 10리를 갔다. 남강(南江)에 이르러 옷을 걷어붙이고 강을 건넜다. 또 넓은 들판 10리를 지나가는데, 왼쪽은 좁은 강이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가파른 절벽이니 기이한 승경이라 할 만하다. 향교⁸⁰⁾를 찾아 들어가니, 석사 유재(柳)가 마침 색장(色掌)⁸¹⁾으로 있었다. 향교의 대문에는 ‘풍화루(風化樓)’라 편액되어 있고 단청이 휘황찬란했다. 대문 안의 넓은 뜰로 들어가서 층계를 지나 올라가니 동서재(東西齋)⁸²⁾가 있고, 동서재(東西齋)의 북쪽으로 또 한 층을 더 올라갔다. 큰 뜰을 지나 명륜당에 오르니 그 만들어진 규모가 매우 크고 화려했다. 명륜당 동쪽의 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내신문(內神門) 밖 섬돌 위로 나와서 신문의 동쪽 곡장(曲牆)에 있는 좁은 문을 따라 들어가니 바로 동무(東廡)의 남쪽이다.

79) 우후(虞侯) : 조선 시대 때의 무관직(武官職)이다. 각 도에 배치된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의 다음가는 벼슬로 병마우후는 종3품이요, 수군우후는 정4품이다.

80) 향교 : 진주향교는 고려 말 조선 초 경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6칸의 대성전, 각 5칸의 동무와 서무, 내삼문(內三門), 7칸의 명륜당, 각 5칸의 동재와 서재, 풍화루, 그 밖에 부속건물 등이 있다.

81) 색장(色掌) : 성균관 유생 자치회인 재회(齋會)의 임원인 ‘빚장’을 이두식으로 쓴 말이다. 주로 식당의 검찰(檢察)과 문묘(文廟)의 청소를 맡아보았다.

82) 동서재(東西齋) : 서원이나 향교의 동재와 서재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동서무(東西廡)⁸³는 각각 7칸이며 64위의 신패(神牌, 신주)가 봉안되어 있고, 동서무의 북쪽에는 대성전이 있다. 대성전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오성(五聖)의 신위(神位)⁸⁴가 가운데에 있고, 종향(從享)⁸⁵은 각각 8개의 신위가 있다. 종향하는 신위와 동서무는 모두 탁자를 설치하여 봉안하였는데 교의(交倚)⁸⁶가 없었다. 문 밖 섬돌 위는 모두 벽돌을 깔아 놓았고, 전우(殿宇, 신위를 모시고 있는 건물)가 걸출하며 석체(石)가 고절(高截)하였다, 문정(門庭)은 툇 툇 시원스럽고 담장은 꽤나 널찍했다.

대성전 뒤의 주맥(主脈)은 고송(古松)들이 뻗뻗하게 늘어서 있는데, 유석사가 이르기를, “소나무들 사이에는 옛 성전 터가 있습니다. 이 터에 봉안할 때, 고을의 명공(名公)과 고관들이 당나라의 지사(地師, 풍수전문가) 두사충(杜思忠)⁸⁷의 말을 잘못 듣고 지금의 대성전 터로 옮겨 내려온 것인데, 인재는 크게 전만 못합니다. 민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두사충이 도내의 교궁(校宮, 향교)에서 뇌물을 많이 받고 진주 선비들을 꼬드겨 전당을 옮겨 내려오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꼭 실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두사충의 잘못이 매우 심합니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인재가

83) 동서무(東西廡) : 문묘 안에 있는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말한다. 문묘는 공자(孔子)를 주벽(主壁)으로 모시고 양편의 동무와 서무에 유현(儒賢)들을 배향하는데, 중앙에서는 성균관에, 지방에서는 각 향교에 건치하였다.

84) 오성(五聖)의 신위(神位) : 조선 시대에 서울 성균관(成均館) 대성전(大成殿)과 지방 향교(鄕校) 대성전의 오성위(五聖位)에 모셔진 5성현(聖賢)의 신위를 말한다. 5성현은 유학(儒學)의 창시자인 공자, 공자의 제자인 안자(顔子)와 증자, 증자의 제자인 자사(子思), 자사의 제자인 맹자이다.

85) 종향(從享) : 문묘나 서원의 주벽(主壁) 좌우에 배향위(配享位)의 위패를 모시고, 그 배향위의 바깥쪽에 동서 양편으로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는 일을 가리킨다.

86) 교의(交倚) : 신주를 모시기 위해 사용된 의자이다. 신좌교의(神座交倚)라고도 한다.

87) 두사충(杜思忠) : 저본에 ‘冲’으로 되어있으나 ‘忠’의 오자로 보고 고쳐 번역하였다. 두사충은 중국 두릉(杜陵)사람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과 우리나라를 원조하기 위해 왔던 수륙지획주사(水陸地劃主事)이다. 수륙지획주사(水陸地劃主事)는, 지세를 살펴 진지를 펴기 적합한 장소를 잡는 임무로 이여송과 함께 일급참모로서 항상 군진을 펴는데 조언해야 했고 조선과의 합동작전을 할 때 조선군과도 전략 전술상의 긴밀한 협의를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그는 당시 우리나라 수군을 통괄하던 이순신 장군과도 아주 친했다. 임란이 평정되자 두사충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그의 매부인 진린(陳璘) 도독과 함께 조선에 온 후 정유재란이 평정되자 두사충은 압록강까지 매부 진린을 배웅한 후 자기는 조선에 귀화했다.

비록 예전만 못할지라도 사환(使喚, 고용한 사람)이나 기구(器具)가 호남에 비해 크게 차이가 있었다.

계속 머물면서 떠나지 못한 것은 다만 진양(晉陽, 진주)의 형승을 두루 구경하지 못해서일 뿐만 아니라 또 남쪽 왜구들이 성을 함락시킬 때 절조를 세워 충의를 드러낸 여러 사람의 사당을 찾아가서 참배하고 또한 우후(虞侯) 황철(黃哲)을 만나고 싶어서인데, 서울에 있을 때 만나서 했던 약속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향교 노복들이 모두들 결코 성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장의(掌議)인 생원 최치인(崔致仁)은 자기말로 본래 서울의 사족(士族)인데, 진주에 양자로 와서 바야흐로 이곳 지방의 사람이 되었으며, 선대 중에는 우암(尤庵) 노선생의 문하에 출입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니, 최 생원이 말하기를, “제가 마땅히 들어가 우후에게 통보할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향교에서 묵었다. 이날 20리를 갔다.

初八日. 晴. 稍晚離發, 向西行十里. 至南江, 褰衣而渡. 又行大野十里, 而左狹江流, 右傍絕壁, 可謂奇勝. 尋鄉校而入焉, 柳碩土方爲色掌, 大門扁以風化樓, 丹碧輝煌. 入門內廣庭, 歷層階而上, 有東西齋, 齋之北又上一層, 由大庭上明倫堂, 制極宏侈. 明倫堂東邊入一挾門, 出內神門外階上, 從神門東邊曲牆挾門而入, 卽東廡之南也. 東西廡各七間, 奉安六十四位神牌, 東西廡之北, 有大成殿. 入殿奉審, 則五聖位居中, 從享各八位, 而從享位及東西廡, 皆設卓而安焉, 無交倚. 門外階上, 皆布磚石, 殿宇魁傑, 石高截, 門庭軒敞, 垣牆廣豁. 殿後主脈, 古松森列, 柳碩土云, “松間有古時聖殿基址. 奉安于此基之時, 州多名公巨官, 誤聽唐地師杜思忠之言, 移下於卽今殿基, 人材大不如前. 諺傳‘思忠多受賂物於道內校宮, 誑誘晉士, 至於移下云’未必其實然, 而然則思忠之多愆甚矣.” 大抵人材雖不如古, 使喚器具, 比湖南大相遠矣. 留連不發者, 不但周觀晉陽形勝, 且尋南寇陷城時立節忠義諸人之祠參謁, 而亦欲見虞侯黃哲, 以副在京時面約矣. 校僕輩, 皆言決難入城, 掌議崔生員致仁, 自言素以京中士族, 出繼於晉州, 方爲此土之人, 先代有出入尤庵老先生之門者. 崔生員曰: “吾當入通于虞侯, 小可等待.” 故宿校中. 是日行二十里.

■9일. 맑다. 밥을 먹은 뒤에 최 생원이 성안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우후에게 통보한 후에 회보(回報)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앉아서 기다렸다. 낮에 하인이 와서 전하기를, “병영 안은 도적을 잡는 일 때문에 상주 영장(商州營將)을 불러왔는데, 도적을 다스리는 일이 이제 막 벌어져 절로 몹시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우후에게 통보하지 못하였으니 다음 날을 기다리면 주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객지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근심스러웠고, 게다가 별다른 계획을 꾸릴 수도 없어서 유 석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나 향교의 하인을 데리고 성(城)의 동쪽에 이르렀다. 다시 강변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모래톱에 앉았다. 축석루(矗石樓)와 의암(義巖)⁸⁸⁾을 바라보고 성지(城池)⁸⁹⁾를 두루 돌아보니 천연적으로 험준한 땅이라 할 만한데, 사방의 산은 높고 성은 강변에 있는 데다가 지형은 낮으니 만약 적봉(賊鋒)이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성 가운데의 허(虛)와 실(實)을 훤히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생각해 보면, 한 줄기의 길다란 이강이 어떻게 당시 왜구들의 공격을 당해낼 수 있었겠는가. 함락당하는 것이 괴이한 일도 아닐 것이다.

조금 오래 있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면서 바위 절벽을 따라 긴 강을 굽어보았다. 수십여 리를 가면서 뒤돌아보니, 읍 터는 산의 형세가 북쪽에서 와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치는 듯하였는데, 목사(牧使)와 영장(營將)이 그 아래에 거주하고 있었다. 진성(晋城)은 강 쪽으로 불룩하게 나와서 새의 알과 같았는데, 병사(兵使)와 중군(中軍)이 성의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재(柳)가 “진성은 나는 봉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빈말이 아니었다.

비가 점차 내렸기 때문에 20여 리를 서둘러 가서 강변의 성지(城池) 가에 이르렀다. 백 흥양(白興陽)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 궤연에 절하고 곡하니

88) 의암(義巖) : 진주성 축석루 아래 남강변 강가 수면 위로 솟아올라 있는 바위로, 윗면이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서쪽 면에 ‘의암(義巖)’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일본군 장수를 유인하여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순국정신을 현창하기 위해 영남사람들은 이 바위를 ‘의암’이라고 불렀다.

89) 성지(城池) : 성(城) 주위에 빙 둘러가며 파서 물을 채운 것으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자(庶子)인 동청(東靑)이 조문을 받았다. 조문록(弔問錄)에 서명하고 출발하여 흥양의 조카 동현(東顯)을 찾아갔다. 백 병사(白兵使)의 계후자(繼後者, 후사를 잇는 사람)가 여기에 거주하여서 찾아간 것인데, 지명이 배춘(培春)⁹⁰이라는 곳은 강변과 거리가 멀지 않았다. 또 백생(白生)은 일찍이 백 흥양의 원님 시절 책방에 와서 머물렀을 때에 본 적이 있었기에 찾아갔더니 백생은 마침 읍에 들어가서 안타까웠다. 백생의 조카아이 이름은 학안(學顔)으로 백 흥양의 양손(養孫)이 되었는데, 그의 생가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보고 접대해 주었다. 백학안이, “우리 삼촌 또한 일찍이 도암(陶庵) 선생의 문하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初九日. 晴. 食後崔生員入去城中, 卽通于虞侯後回報云, 故坐而待之矣. 午間下人來傳, “營中以捕賊事, 招來商州營將, 治盜方設, 自多紛擾, 不得通于虞侯, 當待明日, 可以周旋云.” 而作客日久, 心甚憫苦. 且無別樣營爲, 告別於柳碩士離發, 率校下人至城東. 轉向江邊, 渡船坐沙. 望矗石及義巖, 周觀城池, 可謂天險, 而但四邊山高, 城在江邊, 地形低下, 若使賊鋒登高, 則城中虛實, 可以洞知. 惟一長江, 何足爲恃, 倭寇之攻, 陷不必怪矣. 稍久起向南邊, 緣石崖俯長江. 行數十餘里回顧, 邑基則山形北來, 如鳥張翼, 牧使營將, 居於其下. 晉城則臨江起突, 有如鳥卵, 兵使中軍, 居於城內. 柳云晉城乃飛鳳抱卵者, 信不虛也. 雨勢漸作, 故促行二十餘里, 至江洲池邊. 尋白興陽所居村, 拜哭於几筵, 庶子東靑受弔. 書名弔錄離發, 尋興陽之侄東顯. 爲白兵使繼後者之所居住焉. 地名培春距江洲不遠. 且白生曾見于白興陽爲倅時來留冊房, 故往尋則白生適入邑中, 可歎. 白生之侄兒名學顔, 爲白興陽養孫, 以其在於生家, 故出見接待. 白兒云, “吾三寸, 亦曾出入於陶庵先生之門矣”.

▪10일. 맑다. 아침을 먹은 뒤에 출발했다. 사천읍(泗川邑)에 이르러서 남문루(南門樓)에 올라 잠시 쉬었다가 들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 이른바 일일장(一

90) 배춘(培春) : 진주군의 축곡면의 지역으로서 예전에는 배가 들었으므로 배춘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기동, 양동과 가차례면의 하동과 사천군 북면의 토촌동 일부를 병합하여 배춘리라 해서 사천군 축동면에 편입되었다.

日場) 주변 마을에 이르렀다. 갯가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배촌과 1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한다. 흥양으로 떠나는 배를 찾아가 물으니, 마침 초관(哨官) 강운태(姜雲太)라는 사람이 있어 대강 소식을 들었다. 대개 그는 이곳 포구의 사람인데, 임술년(1742, 영조18)과 계해년(1743, 영조19)에 초실(稍實)⁹¹⁾ 안에 드니 그로 하여금 세곡(稅穀)을 배에 싣고 상경하게 했다. 그가 세곡을 싣고 흥양에 이르렀을 때,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되자 흥양의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 후 3년이 지나서야 석방되어 돌아왔다. 그러므로 흥양읍 안의 일은 대강이나마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흥양 사람을 만나자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던 것이다. 그가 우리 두 사람을 끌어당겨 갯가에 앉히고 말하기를, “생원님은 곧바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흥양의 상선(商船)이 이곳에 왔답니다.”라고 하더니 인하여 뱃사람을 불러 나오게 했다. 뱃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니, 그는 적금도(的今島)의 거주민으로 고기를 팔려는 목적으로 와서 정박하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혹 다 팔리기만 하면 곧바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강운태의 집에서 묵었다. 이날 15리를 갔다. 初十日。晴。食後離發。至泗川邑，登南門樓小憩，過野踰峴，抵所謂一日場邊村。村居浦邊，去培春十五里云。訪問興陽去船，則適有姜哨官雲太者，聞言略喜。蓋渠以浦民，壬癸年入於稍實中，使之船載稅穀而上京。到興陽敗船，囚禁興獄，過三年放還，故興陽邑中事，幾皆領略，以此逢興人，而有喜色，引吾兩人，坐於浦邊曰：“生員主，可以即還矣。興陽商船來此。”因招船人出來。與船人相話，則渠以的今島居民，賣魚次來泊，明市倘得盡賣，則即還云。宿姜雲太家。是日行十五里。

▪ 11일. 맑다. 종일 시장 주변에서 머물며 물고기 파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려니 지치고 힘들었다. 저녁 무렵, 김일동(金日東)의 배가 먼저 고기를 다 팔았으므로 배에 올라 밥을 먹었다. 초저녁에 달빛을 받으며 노를 젓다가

91) 초실(稍實) : 곡식이 조금 익은 것 혹은 경제력이 충실한 여유가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자를 말하기도 한다. 연분 사목을 내리면 각 읍의 수령들은 직접 재해를 살펴서 실상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다시 검핵(檢覈)해서 도내 각 읍을 분등해서 아뢰는데, 재해의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각 고을을 우심(尤甚)·지차(之次)·초실(稍實)로 나누었다.

몇 리를 가서 돛을 달고 곤양(昆陽, 경상남도 사천 지역의 옛 지명) 사천을 떠났다. 바다 어귀에 닿을 내리고 배 위에서 잤다.

十一日. 晴. 終日留市邊, 以待其賣魚苦哉. 夕間金日東船隻, 先爲發賣, 故上船喫飯. 初昏乘月搖櫓, 行數里掛帆, 出昆陽泗川. 海口下碇宿船.

▪ 12일. 아침에 맑고 저녁에 흐리다. 돛을 올리고 바로 노량(露梁)⁹²⁾으로 향했는데, 때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충렬사에 앞에 이르러 배에서 내렸다. 사당으로 들어가 수직승장 문단(文坦)을 불러 문을 열게 하고 참배했다. 묘정의 비석은 우암(尤庵) 선생이 글을 짓고 동춘(同春)⁹³⁾ 선생이 글씨를 쓴 것을 보니 훌륭하다고 이를 만하였는데, 충무공이 절의를 세운 사적에 우리 집안의 고조가 좌막(佐幕)⁹⁴⁾으로 찬획(贊畫)⁹⁵⁾했던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심했다. 충무공의 자손이 그 선조를 현양(顯揚)하고자 입언(立言)하는 군자에게 사실로써 바로 고하지 않아서 숨은 빛을 드러낼 즈음에 이러한 일의 오류가 있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대개 노량은 바로 우리들이 애초에 구경하려고 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미진에서 합험(合驗)하는 배편이 급하여 미처 구경하지 못하고 반드시 오는 길에 다시 들어가기로 기약했었다. 이번에 올라 구경해 보니, 좌우로 좁고 험하여 바닷길의 요충지이고 참으로 굳게 지켜 반드시 쟁취 할 곳이며, 충렬사가 산등성이의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푸른 물결을

92) 노량(露梁) : 현재 남해대교가 놓여 있는 부근 일대를 말한다. 임진왜란 때 삼대첩지(三大捷地)의 하나로 알려진 곳으로서 1598년(선조 31) 이순신(李舜臣)이 명나라 진린(陳璘)과 함께 퇴각하려는 적을 필사적으로 쫓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한 곳이다.

93) 동춘(同春) :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을 가리키며,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 본관은 은진(恩津),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이이(李珣)와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우참찬과 이조판서를 지내면서 노론의 거두로 활약하였고, 성리학과 예학에 능했다. 저서에 《동춘당집(同春堂集)》과 《어록해》 등이 있다.

94) 좌막(佐幕) :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 따위에 따라 다니는 관원의 하나로 비장을 가리킨다. '막료(幕僚)'라고도 하였다.

95) 찬획(贊畫) :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 그 지방의 주장(主將)을 도와 전술(戰術)·전략(戰略) 등의 일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굽어보니 절강(浙江)⁹⁶을 방불케 하여 조수가 세차게 밀려들어올 때면 마치 백마와 촉루검(屬鏤劍)⁹⁷을 보는 듯하니 한 번 가서 볼 만한 곳이었다. 문밖에는 또 김자암(金自庵)⁹⁸의 비석이 있었는데, 선인(船人)이 재촉하였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볼지 못했다. 신속하게 《심원록(尋院錄)》에 서명하고 곧바로 배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충렬사 밖에도 또한 객관 3칸이 있었다.

강 한복판에 이르자 바람이 잠잠하여 빨리 달릴 수가 없었다. 물결 따라 뚱뚱 동서로 길을 바뀌가며 배회하다가 해가 저물 무렵에 좌수영 동쪽 물가에 이르러 정박하고 선인은 작별을 고했다. 육지에 내려 과녁을 걸어 놓은 곳에 이르러 여진(呂鎭)에서 와 거주하는 안택인(安宅仁)을 물었더니, 안택인이 마침 그들 속에 있어 그의 집으로 이끌고 갔다. 택인의 집은 동문 안에 있었으니 조금 쉬 뒤에 가서 객사를 보았다. 대개 수영의 객사는 웅장함으로 호좌(湖左)에 그 이름이 높았다. 돌아와 안택인의 집에서 묵었는데, 방이 비좁아 몸을 펼 수가 없으니 고생스러웠다. 이날 수로(水路)로 100여 리를 갔다고 하는데, 지나온 바다 이름은 ‘와해(瓦海)’라고 일컫는다. 어두워진 뒤에 여진(呂鎭) 김천기(金天紀)의 아들 성갑(聖甲)이 왔다고 했다. 다만 고향 마을 소식을 들어서 기쁠 뿐만 아니라 또한 동행할 소식도 있어서 기뻐다.

十二日。朝晴晚陰。舉帆直向露梁，時尚早矣。至忠烈祠前，下船入祠，招守直僧將文坦，使開門參謁。見廟庭碑，尤庵先生製之，同春先生書之，可謂壯矣。而忠武公立節事蹟，專沒我族高祖佐幕贊畫實辭甚矣。忠武公子孫，欲顯其祖，而不以事實直告於立言君子，發輝幽光之際，有此件誤，良可歎也。

96) 절강(浙江) : 중국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전당강(錢塘江)을 말한다. 바다 어귀에서 일어나는 조수(潮水)를 절강조(浙江潮)라고 한다. 지형적 위치로 인해 무서운 기세로 거대한 조수가 밀려들어 예부터 천하의 기이한 경관으로 일컬어졌다.

97) 백마와 촉루검(屬鏤劍) : 저본의 ‘觸’는 ‘屬鏤’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백마’와 ‘촉루검’은 춘추 시대 오자서(伍子胥)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오자서가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자주 충간하다가 촉루검(屬鏤劍)을 하사받고 자결하면서 오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의 유언에 화가 난 부차가 말가죽에 시신을 싸서 강물에 버리게 하였다. 그 뒤로 오자서가 전당강(錢塘江)의 물귀신이 되어 거센 물결이 일면 백마 타고 출몰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吳越春秋 卷3 夫差內傳》

98) 김자암(金自庵) : 김구(金球, 1488~1534)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대유(大柔), 호는 자암이다. 안평대군(安平大君), 양사언(楊士彦), 한호(韓濩)와 함께 조선 시대 4대 서예가로 꼽힌다. 필법은 중국의 종유(鍾繇)와 왕희지(王羲之)를 본받아 기운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蓋露梁, 卽吾等當初欲見之地, 而急於彌鎮合驗之船, 不及尋玩, 必期來路更入矣. 今番登覽, 則左右狹險, 海道要衝, 眞守扼必爭之地, 而祠在山脊松篁之間. 俯臨碧波, 彷彿浙江 潮盛之時, 如見白馬屬鏤之橫, 不可不一見處也. 門外又有金自庵碑, 而因船人之催促, 未得詳察. 忙速書名尋院錄, 而卽爲登船回顧, 祠外亦有客館三間矣. 中流風止, 不得疾馳. 泛泛東西換轉徘徊, 日暮時到泊左水營東崖, 船人告別. 下陸至掛幟處, 問呂鎮來居安宅仁, 則仁也適在其中, 引往其家. 家在東門內, 小歇後往見客舍, 蓋水營客舍, 以宏傑名於湖左. 回來宿仁家, 房窄不得屈伸苦哉. 是日水路行百餘里云, 所歷海名, 卽瓦海稱也. 昏後呂鎮金天紀之子聖甲來云. 不徒鄉里消息之喜聞, 亦欣同行之有便矣.

▪13일. 맑다. 성갑(聖甲)이 회지(晦之)의 관액(官厄, 관가로부터 받는 재앙) 소식을 전하였는데 염려스러웠다. 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서문으로 나갔다. 안택인이 타루비(墮淚碑)에서 작별하였다. 타루비는 바로 수영 사람들이 충무공을 사모하여 세운 것이다. 또 오성(鰲城)⁹⁹이 짓고 남창(南窓)¹⁰⁰이 썼으며 선원(仙源)¹⁰¹이 전자(篆字)를 쓴 충무공사적비(忠武公事蹟碑)가 있어서 다 구경한 뒤에 서쪽으로 갔다. 하나의 긴 골짜기를 나와 한 고개를 넘으니 곧바로 혁부장(革府場) 터가 나왔다. 혁부장(革府場) 터를 지나니 저번에 지나갔던 구불구불한 해변이다. 곡포(曲浦)의 선두(船頭)를 바라보며 가다가 중도에 이광주(李匡周)를 만났는데, 이광주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다시 여러 날을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객지살이의

99) 오성(鰲城) : 이항복(李恒福, 1556~1618)으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상(子常), 호는 백사(白沙), 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승지로 선조를 의주까지 호위해 오성군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저서로 《노사영언(魯史零言)》, 《북천일록(北遷日錄)》, 《백사집》 등이 있다.

100) 남창(南窓) : 김현성(金玄成, 1542~1621)으로,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여경(餘慶), 호는 남창이다. 1564년(명종19)에 문과에 급제하여 양주 목사, 동지돈녕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시서화(詩書畵)에 두루 능했는데, 글씨에 더욱 뛰어났다고 한다.

101) 선원(仙源) : 김상용(金尙容, 1561~1637)으로, 자는 경택(景擇)이고 호는 선원(仙源)이다. 병자호란 때 묘사주(廟社主)를 받들고 빈궁과 원손을 수행하여 강화도에 피난하였다가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저서로 《선원유고(仙源遺稿)》가 있다.

서글픔이 배가 되었으나 만나자마자 바로 헤어졌다. 목장 관문(牧場官門) 밖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선두(船頭)에 이르니 해가 기울어 거의 넘어갈 지경이었다. 배를 타고 돛을 올리니 순풍이 불어 순조롭게 강을 건넜다. 여진에 이르자 해는 어둑어둑하였다. 배 안에는 고돌산(古突山)¹⁰²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여진 장교와 이졸(吏卒, 아전)이 있어서 매우 적적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군관청에서 묵었다.

十三日. 晴. 聖甲傳晦之有官厄云, 可慮. 食後離發. 出西門. 安宅仁拜別于墮淚碑. 碑乃營人思忠武公而立焉. 又有鰲城所撰南窓所書仙源所篆忠武公事蹟碑, 覽畢西行. 出一長谷越一嶺, 卽革府場基也. 過此則向日所去路, 逶迤海曲, 望曲浦船頭而行, 中路逢李生匡周, 李也尙未還家, 且復留連云. 客裡缺悵有倍, 初頭分離也. 到牧場官門外點心, 抵船頭, 斜陽幾沒. 乘船舉帆, 順風利涉. 到呂鎮, 日色昏黑. 船中有呂鎮將校吏卒之往古突山來者, 不甚寂寥, 可幸. 宿軍官廳.

■ 14일. 맑다. 식전에 건방(乾方, 북서쪽)으로부터 뇌성이 울리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잠시 후에 약간의 우박(雨雹)이 떨어졌다. 매우 괴이한 일이었다. 조금 늦게 출발하여 한동(閑洞)에서 잠시 쉬었다가 종형과 작별하였다. 가사(伽寺)로 들어가서 책판을 개각한 곳을 보았다. 군실씨가 와 있다고 들었기에 잠시 가서 만났는데, 화백(華伯)도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일어나 사리동(沙里洞)에 들러 상중(喪中)인 김진성(金振聲)의 아들과 그의 두 숙부를 만나 조문한 뒤에, 또 오명유(吳命裕), 송홍심(宋弘心), 김진당(金振塘), 오이약(吳以約), 송재겸(宋再謙)을 방문하고 왔다. 김홍심과 오명유 두 사람 또한 상(喪)을 당하였다.

十四日. 晴. 食前乾方雷聲, 黑雲滿天, 有頃略干雨雹. 怪哉怪哉. 稍晚離發, 暫歇閑洞, 與從兄作別. 入伽寺, 見冊板改刻處. 聞君實氏來在, 故暫往見之, 華伯亦在其座. 暫話卽起, 歷入沙里洞, 見金振聲之子爲喪人者及其兩叔弔

102 고돌산(古突山) : 고려시대 이후 조선 전기까지 돌산현(縣)으로 부르고, 이곳 돌산포(突山浦)에 수군만호진(水軍萬戶鎭) 별장진(別將鎭) 등을 두었으나 후에 현을 폐지하고 옛 돌산[古突山]이라 하였다.

問後, 又訪吳命裕宋弘心金振塘吳以約宋再謙而來. 弘心命裕亦遭喪者也.

미진의 군관 최치휘가 전죽(箭竹) 청하다, 피죽(皮竹) 8,9전(箋).

彌鎮軍官崔致輝箭竹請 皮竹八九箋

노정

여도(呂島)월진(越津) 수로 30리, 곡포(曲浦)순천(順天)고돌산(古突山) 육로 20리, 흥국사(興國寺) 20리, 접도(接島) 20리, 이상은 모두 순천 땅이다. 월진(越津) 수로 20리, 남해(南海)평산포(平山浦)금산(錦山) 육로 40리, 보리암(菩提庵)미조항(彌助項) 육로 30리, 이상은 모두 남해 땅이다. 통영(統營)착량(鑿梁) 수로 110리, 고성(固城) 한산(閑山) 수로 10리, 제승당(制勝堂)거제(巨濟)통영(統營)세병관(洗兵館)헌문(轅門) 육로 10리, 갈산(葛山) 40리, 고성읍내(固城邑內) 10리, 이상은 고성이다. 법천사(法泉寺) 15리, 청곡사(靑谷寺) 60리, 진주(晉州) 배춘(培春) 30리, 사천읍내(泗川邑內) 10리, 신기장(新基場) 10리, 사천(泗川)곤양(昆陽)서단포(書端浦) 수로 40리, 노량(露梁) 10리, 남해 좌수영(南海左水營) 100리. 순천.

路程

呂島越津水路三十里, 曲浦順天地古突山陸路二十里, 興國寺二十里, 接島二十里, 已上皆順天地. 越津水路二十里, 南海平山浦錦山陸路四十里, 菩提庵彌助項陸路三十里, 已上皆南海地. 統營鑿梁水路一百十里, 固城閑山水路十里, 制勝堂巨濟統營洗兵館轅門陸路十里, 葛山四十里, 固城邑內十里, 已上固城. 法泉寺十五里, 靑谷寺六十里, 晉州培春三十里, 泗川邑內十里, 新基場十里, 泗川昆陽書端浦水路四十里, 露梁十里, 南海左水營百里. 順天.

신사년(1761) 12월

辛巳十二月

▪13일. 출행(出行)하기로 정한 날인데, 여행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다.

十三日. 出行定日, 而以行具未備, 不得離發.

▪14일. 몹시 춥고 바람이 불다. 사면교(四面橋)의 창(昌) 조카와 함께 출발하여 나란히 말을 타고 사면교에 이르렀다. 조카의 집에서 묵었다.

十四日. 極寒而風. 離發與四面橋昌侄並, 抵四面橋, 宿其家.

▪15일. 몹시 춥다. 중숙(仲叔)에게 가서 병문안을 하고 응창(應昌)의 집에서 묵었다.

十五日. 極寒. 往問仲叔病, 宿應昌家.

▪16일. 몹시 춥다. 군실씨(君實氏) 형님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산재(山齋)에서 묵었다.

十六日. 極寒. 往見君實氏兄主, 宿山齋.

▪17일. 바람 불고 몹시 춥다. 낙안(樂安) 백현(栢峴)에 이르러 김 서방 집에서 묵었다.

十七日. 風而極寒. 抵樂安栢峴, 宿金書房家.

▪18일. 몹시 춥다. 당산(堂山)의 소나무에 관한 일로 길을 떠난 뒤에 여러 날을 증도에 지체하게 되니 매우 답답하였다. 김 서방 집에서 머물렀다.

十八日. 極寒. 以堂山松事發程後, 累日遲滯於中路, 憫憫. 留金書房家.

▪19일. 또 옴[疥瘡]이 아직 완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떨쳐 낸 뒤에

길에 떠나려고 시장에 사람을 보내 비상(砒礪)¹⁰³을 사오게 해서 저녁에
쑥찜질을 했다. 매우 고민스럽다.

十九日. 又以疥瘡之未快, 必欲離却後登道, 送人市中, 貿來砒礪, 夕間艾燻.
苦憫苦憫.

▪20일. 몹시 춥다. 백현에서 머물렀다. 또 쑥찜질을 했다.

二十日. 極寒. 留栢峴. 又燻之.

▪21일. 새벽에 관의 기별을 듣고 당동(堂洞)으로 돌아왔는데, 중질(仲侄)이
순천으로 가는 길에 들어와 만났다. 득아(得兒)는 가사(伽寺)에서 사교(四
橋)로 왔다가 내가 백현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서 백현으로 갔다가 또 내가
당동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당동으로 돌아와 서재(書齋)에 이르렀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한데 기운은 지칠 대로 지치고 발은 누에고치처럼 부르터서
분한 마음이 들 만도 하였다. 이날 관가(官家)에서 수영(水營)에 알리는
기별을 들었다.

二十一日. 曉爲聞官奇, 還來堂洞, 仲侄去順天之路入見. 得兒自伽寺來四
橋, 聞吾去栢峴, 往栢峴, 又聞吾來堂洞, 還堂洞, 抵書齋. 日已昏黑, 氣乏足
繭, 可爲切憤處也. 是日聞官家報水營之奇.

▪22일. 눈이 내리다. 득아를 들여보내고 나는 산재(山齋)에 머물렀다.

二十二日. 雪. 得兒入去, 余則留山齋.

▪23일. 비가 오다. 산재에 머물렀다.

二十三日. 雨. 留山齋.

▪24일. 귀산의 쾌(快) 조카를 수영(水營)에 보냈다. 작은놈[者斤老味]이

103) 비상(砒礪) : 비석(砒石)에 열을 가하여 승화시켜 얻은 결정체의 독약.

득아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관모(官母)의 병 때문에 소지(所志)¹⁰⁴를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 득아는 발병[足病]을 앓고 있으니 나오지 못했다.
산재에 머물고 있는데, 저녁에 중질이 순천에서 와서 만났다.

二十四日. 送龜山快侄于水營. 者斤老味, 持得兒書來, 以官母之病, 不得呈
所志云. 得兒則足病, 不得出來. 留山齋, 夕間仲侄, 自順天來見.

▪25일. 백현으로 돌아왔다.

二十五日. 還栢峴.

▪26일. 백현에서 머물렀다. 연일 쑥쑤짐질을 하니 몹시 괴로웠다.

二十六日. 留栢峴. 連日艾燻, 苦哉苦哉.

▪27일. 몹시 춥다. 백현에서 머물렀다.

二十七日. 極寒. 留栢峴.

▪28일. 백현에서 머물렀다.

二十八日. 留栢峴.

▪29일. 백현에서 머물렀다.

二十九日. 留栢峴.

▪30일. 백현에서 머물렀다.

三十日. 留栢峴.

▪임오년(1762, 영조38) 1월 1일. 밤에 눈이 조금 내렸다. 백현에서 머물렀다.

壬午元月初吉. 夜微雪. 留栢峴.

104) 소지(所志) :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 등을 말한다.

▪2일. 사람과 말을 빌려 천평의 종질의 집에 이르렀다.

初二日. 借人馬到泉坪從侄家.

▪3일. 몇 자의 편지를 써서 낙안으로 사람과 말이 돌아가는 편에 부쳐 보냈다. 옴이 완쾌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으로 쑥 찜질을 하였는데, 반드시 낮고자 하는 바람으로 약을 많이 쓰고 찜질을 오래하느라 밤이 깊어서야 끝났다.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初三日. 修數字書, 付送于樂安人馬回便. 以疥瘡之未快, 艾燻砭礪, 而期於必差, 藥多燻久, 夜深乃罷. 苦狀難堪.

▪4일.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했다.

初四日. 又以他方治療.

▪5일. 이봉문(李鳳文)을 만나기 위해 월등(月登)으로 향했다. 잠시 김약승(金若承)의 집에 들어가서 먼저 월등 소식을 탐문하고, 이 형(李兄)이 사는 곳에 이르러 서로 회포를 풀었다. 종아(宗兒)를 불러와 살펴보니 그 모습이 가히 사랑스러웠는데, 때에 아직 천연두를 겪지 않았다. 김성관(金聖觀)의 집에서 묵었다. 김성관은 바로 성서(聖瑞)의 사위의 형인데, 성서의 사위는 이제 막 화순 땅으로 이사했으며, 1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한다. 밤에 이경(李璟),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베개를 나란히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初五日. 爲見李鳳文向月登, 暫入金若承家, 先探月登消息. 抵李兄所住處, 相見敘懷. 招來宗兒諦視, 則毛骨可愛, 而時未經疫矣. 宿金聖觀家, 金乃聖瑞女婿之兄, 而聖瑞之婿, 今方移去和順地, 歲前喪妻云矣. 夜與李璟諸人, 聯枕相話.

▪6일. 험악한 고갯길을 넘어 돌아왔다. 피곤함이 몹시 심했다.

初六日. 還來嶺路險惡. 困悴特甚.

▪7일. 천평(泉坪)에 머물렀는데, 그때에 우침(遇漸) 김경진(金景進) 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진 형은 바로 종질의 이모부로 예전부터 친한 사이인데, 지금 와서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또 그와 함께 금동(金洞)의 이경덕(李敬德)이 우거하는 곳에 같이 갔다가 돌아왔다. 이경덕은 바로 장흥의 어산(語山) 사람인데, 강진(康津) 김최씨(金最氏)의 사위이다. 때마침 그가 이 곳에 와서 우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격조했던 회포를 풀었다. 또 그 아내를 만나보았는데, 그 아내는 재종매(再從妹, 육촌 누이)로 슬픔과 기쁨이 절절히 교차하였다.

初七日. 留泉坪, 時與金遇漸景進兄相話. 金卽從侄姨母夫也, 昔年親舊, 今來穩紱. 又與之同往金洞李敬德寓所而返. 李乃長興語山人, 而康津金最氏之婿也. 適聞其來寓於此, 尋往紱阻. 又見其內, 內再從妹, 悲喜交切.

▪8일. 천평(泉坪)에 머물면서 친척 조운창(趙耘昌)을 찾아가서 만났다.

初八日. 留泉坪, 往見趙戚耘昌.

▪9일. 이른 아침에 한동(閑洞)의 종질과 득아가 행장을 꾸려서 올라왔다. 천평에 머물고 있는데, 이때에 주인 질아(侄兒)의 아들이 마침 천연두를 앓고 있어 그 증상이 가볍지 않으니, 나의 음 치료에 약을 쓰는 데 방해가 많아 매우 편치 않았다. 그런데다 새벽에 와서 자못 트집을 잡기 때문에 목욕재계하고 기도하는 것도 또한 하나의 고생스런 일이니 한탄스러웠다.

初九日. 早朝閑洞從侄與得兒, 治行裝上來. 留泉坪, 是時主人侄兒之子, 方痛痘患, 症情非輕, 吾之治瘡, 施藥多妨, 深切不安矣. 曉來頗有執頃, 故沐浴祈禱, 亦一苦事, 可歎.

▪10일. 출발하였는데, 득아가 뒤처지더니 그길로 내려갔다고 한다. 용계(龍溪)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동막(東幕)에 이르렀다.

初十日. 發行, 得兒落後, 因爲下云. 秣馬龍溪, 抵東幕.

▪11일. 흐리고 눈이 내리다. 일찍 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남원 읍저(邑底)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원천(源川)의 노서방(盧書房) 집에 이르니, 여식이

크게 놀라고 기뻐하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원천에서 머물고 있는데 종일 눈이 내렸다. 집에 있을 때에, 우리 내외는 언제나 노씨 집안에 출가한 딸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어떻게 지탱하며 지내는지 염려하였다. 더욱이 길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 소식도 또한 막히고, 혹 부부간에 서로 힐난하기라도 하면 아내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을 삼킬 것이라 생각되므로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직접 보게 되니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다가 또한 부당(夫黨, 남편 쪽의 본종(本宗))의 칭송을 받고 있으니 이처럼 마음이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하랴. 원천에서 머물렀다.

十一日. 陰而雪. 早飯後離發, 秣馬南原邑底, 抵源川盧書房家, 女息大爲驚喜, 不能成說. 留源川, 終日雪下. 在家時, 吾之內外, 每以盧女爲慮, 調度甚艱, 何以支過. 道路稍間, 聲息亦阻, 或至夫婦交話, 內則吞聲飲泣, 故常用慨矣. 今來目擊, 則不以衣食爲念, 且得夫黨之稱賀, 此心喜幸, 曷可勝言. 留源川.

▪ 12일. 흐리다. 노랑(盧郎, 딸의 낭군)의 삼촌은 늘그막에 얻은 아들의 천연두를 처음 겪었는데, 마침내 몸소 60세의 노쇠한 나이에 우소에서 천연두를 잘 치르니 원근의 아는 이들이 직접 찾아와서 축하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눈이 쌓여 산길을 온통 뒤덮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위문하지 못하니 안타깝다.

十二日. 陰. 盧郎三寸, 初經其老來所得男之疫, 未稍自家以六十衰年, 善行秦虎之患於寓所, 遠近知舊, 莫不踵門稱慶, 而以雪滿山路, 未即往問, 可歎.

▪ 13일. 맑다. 원천에서 머물면서 말편자를 끼웠다. 질아가 호곡(虎谷)에 갔다가 돌아왔다.

十三日. 晴. 留源川, 挿馬鐵. 侄兒往虎谷而返.

▪ 14일. 원천에서 머물렀다.

十四日. 留源川.

▪15일. 일찍 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용담(龍潭) 가에 이르렀다. 이건(李健)이 길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잠시 들어가 만났다. 근래에 서울 소식을 들었는지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정랑(正郎) 안여송(安如松)이 지평(砥平, 경기도 양평지역의 옛 지명)의 원님이 되었는데, 지난 1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하니 마음이 아팠다. 출발하여 울천(栗川)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오수(槩樹)에 이르렀다.

十五日. 朝食後離發, 到龍潭邊. 聞李健住在路傍, 暫入相見. 問近聞京耗, 則答曰: 安正郎如松, 爲砥平倅, 去十月喪逝云, 慘矣. 離發秣馬栗川, 抵槩樹.

▪16일. 새벽에 출발하여 아침을 굴암(窟巖)에서 먹고 신원(新院)에 이르렀다. 순천의 김성관(金聖觀) 형제가 감영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곳에 도착하여 함께 한 주막에 들어가서 밤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개 김성관의 어머니와 감사(監司)의 계모(繼母)가 자매지간이라서 그 이모를 만나기 위하여 온 것이었다.

十六日. 曉發朝飯窟巖, 抵新院. 順天金聖觀兄弟, 上去監營之路到此, 同入一幕, 夜與相話. 蓋金之母與監司之繼母爲兄弟, 故爲見其姨母而來也.

▪17일. 출발하여 전주에 이르러 바로 서문 안 김 파총(金把摠)의 집에 갔더니 김 파총의 사후에 그 아들들이 예전처럼 지탱하고 보존하지 못하여 가도(家道)가 크게 기울고 접대할 뜻이 없어 돌아왔다. 순천 주인집에서 아침을 먹고 낮에 흥양 주인집으로 옮겨가서 중숙이 오기를 기다리며 주인집에서 머물렀다.

좌수영의 하인 신창년(申昌年)은 수사(水使)의 사환(使喚)으로, 상경할 때에 짐이 무거워 혼자 갈 수가 없으니 우리가 타고 가는 말에 약간의 짐을 부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와 사내 종놈이 인하여 함께 동행하겠다고 했다. 말이 약해서 매우 곤란하였지만 종이 없는 것도 매우 곤란하니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는데, 앞으로 무탈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十七日. 離發到全州, 直往西門內金把摠家, 則金把摠死後, 其子等不能依

前支保, 家道大敗, 無意容接還來. 順天主人朝飯, 午間移于興陽主人, 以待仲叔之來, 留主人家. 左水營下人申昌年, 以水使使喚, 上京卜重, 不能獨行, 願付略干物於吾之所騎馬, 渠兼奴漢, 因與同行云云. 馬弱甚難, 無奴亦甚難, 許其所願, 前頭無事, 姑未可知也.

▪18일. 맑다. 중숙이 오기를 기대하였으나 끝내 그림자도 없었다. 그러므로 오후에 출발하여 삼례(參禮)에 이르렀다.

十八日. 晴. 企待仲叔之來, 而終無影形, 故午後離發, 抵參禮.

▪19일. 맑다. 새벽에 출발하여 여산(礪山)에서 아침을 먹었다. 사교(沙橋)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이산에 이르렀다.

十九日. 晴. 曉發礪山朝飯. 沙橋秣馬, 抵尼山.

▪20일. 맑다. 새벽에 출발하여 공주(公州)에서 아침을 먹고 광정(廣亭)에 이르렀다.

二十日. 晴. 曉發朝飯公州, 抵廣亭.

▪21일. 맑다. 새벽에 출발하여 인조원(仁照院)을 지나가는데, 객점이 불에 타버려서 보이는 광경이 참담하였다. 천안에서 아침을 먹고 성환(成歡, 천안시 서북부에 있는 읍)에 이르러 병사(兵使) 이한응(李漢膺)을 주점에서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二十一日. 晴. 曉發過仁照院, 店舍失火, 所見愁慘. 朝飯天安, 抵成歡, 逢李兵使漢膺於酒店暫話.

▪22일. 바람 불고 춥다. 새벽에 출발하여 진위(振威)에서 아침을 먹고 세마(洗馬) 송만희(宋萬喜)의 집에 이르렀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방구들이 차가웠기 때문에 수십 보 정도에 있는 산지기[山直] 노복의 집으로 옮겨가 묵었다.

二十二日. 風而寒. 曉發朝飯振威, 抵萬喜宋洗馬家, 暫話後, 以突冷移宿于

數十步許山直奴家.

▪23일. 맑다. 일찍 밥을 먹은 뒤에 세마의 집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을 고하였다. 동쪽 고개를 넘어 긴 골짜기를 내려가니 멀리 천동의 뒤쪽 봉우리가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산천이 예전에 보았던 곳이다. 천동을 5리 정도 앞두고 매를 팔에 올리고 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사문(師門)댁의 묘지기인 노복 한선(漢善)이었다. 잠시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천동에 이르렀다. 묘소에 배알한 다음 소요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소나무와 전나무만 무성하게 보이고 강송(講誦)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용향(龍鄉)의 사우들이 세 칸의 영각(影閣, 고승의 초상을 모신 곳)을 건축하여 선생의 진영(眞影, 얼굴을 그린 초상화나 사진)을 걸어 봉안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이때에 아직 기와를 덮지 않아서 아쉬웠다.

한참을 있다가 출발하여 금량(金梁)에 이르러서 송단(宋端)을 조문했다. 그의 말을 들으니 큰 슬픔[巨創]¹⁰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아내 상(喪)을 당하고 또 그 형의 상(喪)을 당해서, 가도(家道)가 크게 기울어 생활해 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 들으니 서산(瑞山) 송덕중(宋德中)의 아버지는 80세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되고¹⁰⁶⁾ 오위장(五衛將)이 되어 3대가 추증의 영광을 입었는데, 지금 집에 계신다고 한다. 지난번에 천동에 왔다 갔을 때 이곳에 찾아와 몇 번 만나 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곧바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직동(直洞)에 이르렀다.

二十三日。晴，早飯後，往洗馬家，小話辭別。踰東嶺下一長谷，望見泉洞後峯，山川依稀，舊時所見。未及泉洞五里許，逢臂鷹而來者，乃師門宅墓直奴漢善也。暫與立談，抵泉洞，拜謁于墓所，徘徊四顧，但見松檜之茂，不聞講誦之聲。龍鄉士友營建三間影閣，以爲先生眞像掛安之所，而時未蓋瓦椽。良久離發，抵金梁弔宋端。聞其言則不但遭巨創，年來喪偶，又喪其兄，家道大敗，無以調過云矣。聞宋瑞山德中之父，以年八十加資嘉善，爲五衛將，三

105) 큰 슬픔 : 부모의 상을 말한다.

106) 가자되고 : '가자(加資)'는 품계를 가진 사람이 등과하여 품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代追榮, 今方在家云. 曾前來往泉洞時, 尋到此處, 有數面之分, 故往見即還.
午飯後離發, 抵直洞.

▪24일. 눈보라 치고 몹시 춥다. 새벽에 출발하여 판교(板橋)에서 아침을 먹고
대왕(大旺) 이습지(李習之)의 집에 이르렀다.
二十四日. 雪風極寒. 曉發板橋朝飯, 抵大旺李習之家.

▪25일. 아침을 먹은 후에 출발했다. 얼어붙은 삼천포(三田浦)를 건너 쌍동
달경(達卿)의 집에 이르렀는데, 달경은 포천으로 나가 곧바로 만나지
못했으니 안타까웠다. 다만 학동들과 묻고 답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석산으로 가서 박유선(朴諭善)을 만나고 돌아왔다.
二十五日. 朝飯後離發. 水渡三田浦, 抵雙洞達卿, 出去抱川, 卽未相見, 可
歎. 惟與學童輩問答小憩後, 往石山, 見朴諭善而還.

▪26일. 발은 부르토고 몸은 아파서 출입할 수 없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주인집 노복의 아들이 포천에서 들어와 달경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二十六日. 以足繭身痛, 不得出入. 昏後主家奴子, 自抱川入來, 聞達卿消息.

▪27일. 눈이 내리다. 애초에 주인집 노복과 함께 포천을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눈이 내리고 추워서 결행하지 못하였으니 어찌하겠는가. 저녁 무렵에
눈은 개었지만 포천으로 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二十七日. 雪. 初意與主家奴偕往抱川矣. 雪寒未果奈何. 稍晚雪晴, 恨未往
抱矣.

▪28일. 맑다. 발의 통증이 조금 나아져 아침에 의동(義洞)의 조해명(趙海明)
집에 가니 조해명이 아침밥을 차려주었다. 쌍동으로 돌아왔다가 조금 늦게
명동(明洞)으로 갔다. 이현(泥峴)에 이르러 올라오는 길이던 중숙(仲叔)과
박찬영(朴燦瑛), 최명한(崔鳴漢), 송지윤(宋志尹) 등을 만나서 쌍동으로
돌아왔다. 찬영을 데리고 반촌에 가서 김재광(金再光)의 집을 가리켜주고

최명한을 남동(南洞)의 생원 김정재(金定材) 집으로 보냈다.

二十八日. 晴. 足痛稍愈, 朝往於義洞趙海明家, 海明進朝飯. 還雙洞, 稍晚往明洞. 至泥峴, 逢仲叔及朴燦瑛崔鳴漢宋志尹諸人上來之行, 還歸雙洞. 率燦瑛往泮村, 指金再光家, 送崔生鳴漢于南洞金生員定材家.

▪29일. 맑다. 밥을 먹은 뒤에 난동(蘭洞)에 가서 유 정승(兪政丞)¹⁰⁷을 뵈고 그의 아들 인천(仁川)과 평강(平康) 두 사람을 찾아가 만났다. 또 주서(注書) 유언호(兪彦鎬)¹⁰⁸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의 형인 사정(士精) 유언집(兪彦鑣)¹⁰⁹이 있는 곳을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님은 지금 부친¹¹⁰을 모시고 안성(安城)의 우소에 가 계십니다.”라고 했다. 낙동(駱洞)에 가서 신계(新溪) 조영극(趙榮克)을 만나고 용동(龍洞)에 가서 교관(敎官) 윤득의(尹得毅)를 만났는데, 그 부친 판서 대감은 처지가 편안하지 못해서 손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했다. 남대문 안에 가서 병사(兵使) 장지항(張志恒)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종현(鍾峴)에 들어가 한 임피(韓臨陂)의 아들과 진사 여러 사람을 만났다. 또 미동(美洞)에 들어가 병사 이한응(李漢膺)을 만나고 쌍동으로 돌아왔다. 인정(人定, 통행을 금하는 시간) 때에 달경이 들어왔는데, 오래 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서로 만나니 슬픔과 기쁨을 형용할 수가 없었다.

107) 유 정승(兪政丞) : 유척기(兪拓基, 1691~1767)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전보(展甫), 호는 지수재(知守齋)이다. 노론 계열의 김창집(金昌集)과 신임(申銜)의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였다. 조선 후기의 명필가(名筆家)이자 금석학(金石學)의 권위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신라 시조 왕비(新羅始祖王碑)>와 <만동묘비(萬東廟碑)>가 남아 있으며, 저서로 《지수재집(知守齋集)》 15권이 전한다.

108) 유언호(兪彦鎬) : 1730~1796.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사경(士京), 호는 칙지헌(則止軒)이다. 1761년(영조37)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다음 해 한림회관(翰林會圈)에 선발되고, 이후 사간원 및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칙지헌집》《연석(燕石)》 등이 있다. 정암의 막내딸과 결혼하였다.

109) 유언집(兪彦鑣) : 1714~1783. 자는 사정(士精), 호는 대재(大齋)로, 권상하(權尙夏)이재(李緯)의 문인이다. 학행이 있어,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세자시강원자의가 되었다. 1778년(정조2) 경연관, 1783년에 돈녕부도정이 되어 원자를 보도(輔導)하였다. 편서로 《오복명의(五服名義)》가 있다.

110) 부친 : 유언집의 아버지 유직기(兪直基, 1694~1768)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청보(淸甫)이다. 우리나라 선현(先賢)들의 가언(嘉言), 선행(善行)을 모아서 《해동가언선행(海東嘉言善行)》을 만들었다.

二十九日. 晴. 食後往蘭洞謁兪相, 尋見其子仁川平康兩人. 又往見兪注書彥鎬, 問其兄彥鏤士精所在, 則答云, “方侍其父親住在安城寓所矣.” 往駱洞見趙新溪榮克, 往龍洞見尹教官得毅, 其父判書大監, 以情地難安, 不得見賓云. 往南大門內, 見張兵使志恒, 回路入鍾峴, 見韓臨陂子進士諸人. 又入美洞, 見李兵使漢膺, 還雙洞. 人定時, 達卿入來, 久阻相面, 悲喜難狀.

▪30일. 눈이 내리다. 달경이 살곳[箭串]에 나갔는데, 흥양 사람 김백랑(金百郎)이 마필(馬匹)을 사주기를 요청했으므로 14관(貫) 5전(錢)을 주기로 서로 약속했다.

三十日. 雪. 達卿出往箭串. 興陽人金百郎, 請買馬匹, 故以十四貫五錢相約.

▪2월 1일. 증현(鍾峴)에 가서 한 진사(韓進士)를 만나고 또 정동(貞洞)에 가서 이 감찰(李監察)을 만났다.

二月初吉. 往鍾峴, 見韓進士, 又往貞洞, 見李監察.

▪2일. 이현(梨峴)에 가서 왕세손의 길례(吉禮)¹¹¹⁾ 거동을 보았다.

初二日. 往梨峴, 見王世孫吉禮舉動.

▪3일. 또 가서 동궁(東宮)이 마을 입구 안으로 돌아 내려오는 거동을 보았다. 최상운(崔尙雲)과 원흥보(元興甫)를 찾아가 보고 저녁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질아(侄兒)를 진송했다.

初三日. 又往見東宮還下洞口內舉動. 訪見崔尙雲元興甫, 夕時送侄兒還鄉.

▪4일. 흐리다. 아침을 먹기 전에 석산(石山)에 갔다가 그 집에서 아침을 먹고 조카 윤(潤)을 데리고 반촌(泮村)에 갔다가 왔다.

初四日. 陰. 朝前往石山, 因朝飯于其家, 率潤侄往泮村而來.

111) 길례(吉禮) : 관례(冠禮)-혼례 등 경사스러운 예절로, 1762년(영조 38) 정조와 효의왕후 김 씨가 세손과 세손빈으로 가례 올린 일을 말한듯하다. 같은 해에 정조의 나이 11세 때 생부인 사도세자는 윤 5월 13일에 세자에서 폐위되고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사망하였다.

▪5일. 사동(社洞)의 김 판서(金判書) 집에 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또 민 정승(閔政丞) 덕에 갔는데, 상중인 사람이 병을 앓고 있어 조문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들어가 뵈지 못하고 길을 바꿔 신문(新門) 안 전 병사(田兵使)의 집에 가서 조문하고 돌아왔다.

初五日. 往社洞金判書家, 不得見. 又往閔政丞宅, 喪人有病, 不得受弔云, 故不爲入見, 轉往新門內田兵使家, 弔喪而還.

▪6일. 호동(壺洞)에 가서 남 참판(南參判)과 그 조카 예안(禮安)을 조문하고 관동(館洞)의 전평해(田平海) 집에 갔는데, 전평해가 병을 앓고 있어서 만나지 못했다. 계동(桂洞)에 가서 안지평(安砥平)의 궤연에 조문하고 쌍동으로 돌아왔다.

初六日. 往壺洞, 弔南參判及其侄禮安, 往館洞田平海家, 而平海以病不得見, 往桂洞, 弔安砥平几筵, 還雙洞.

▪7일. 눈이 오다. 아침을 먹기 전에 생원 김정재(金定材)가 찾아와서 만났다.

初七日. 雪. 朝前金生員定材來見.

▪8일. 대가(大駕)가 건원릉(健元陵, 조선 태조의 능)에 거둥했는데 몹시 추웠다. 임금의 행차가 돌아갈 때에 동교(東郊)에서 열무(閱武, 임금이 몸소 군대를 사열함)한다는 말을 듣고 최생 및 조카 윤(潤)과 함께 동대문 밖까지 걸어갔다. 저녁 무렵에 습진(習陣, 진법(陣法)을 연습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도로 문내(門內)로 들어가 이석교항(二石橋項)에서 구경하고 파진(罷陣)한 뒤에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넘길까 걱정되어 조해명(趙海明)의 집을 찾아갔다. 밤은 이미 삼경이었다.

初八日. 大駕健元陵舉動極寒. 聞回鸞時閱武于東郊, 與崔生暨潤侄, 步往東大門外. 稍晚, 知不爲習陣, 還入門內, 觀光于二石橋項, 罷陣後, 恐有犯夜之患, 尋往趙海明家. 夜已三更矣.

▪ 9일. 영희전(永禧殿)¹¹² 거동이 있어 동현(銅峴)¹¹³에 가서 구경했다. 돌아올 때 길이 질퍽거리려 고생스러웠지만 유감은 없었다.

初九日. 永禧殿舉動. 往銅峴觀光, 歸時路泥, 苦狀無恨矣.

▪ 10일. 진눈깨비가 많이 내렸다. 여러 곳을 오고 가는 길이 또 매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初十日. 雨雪大下. 諸處往來之道, 似又極難憫憫.

▪ 11일. 맑았으나 매우 추웠다. 국동(國洞)에 가서 민 연안(閔延安)과 송 승지(宋承旨)를 만난 다음 주현(珠峴)에 가서 전 선천(田宣川)을 만났다. 이어서 직재(直哉)와 함께 냉정동(冷井洞)¹¹⁴에 가서 이산(理山) 민성수(閔聖洙)를 만나 수영(水營)¹¹⁵에 편지를 전할 일을 의논한 다음 아현(阿峴)에 가니 텅 비어 사람이 없었다. 이래(李來)가 마침 신문(新門) 안 영양(英陽)의 집에 있다고 들었지만, 해가 저물어서 만나지 못하고 쌍동으로 돌아왔다.

十一日. 晴極寒. 往國洞, 見閔延安宋承旨, 往珠峴, 見田宣川. 仍與直哉, 往冷井洞, 見閔理山聖洙, 議水營傳柬事, 往阿峴, 則虛無人. 聞李來方在新門內英陽家, 而以日暮不見, 而還雙洞.

▪ 12일. 맑다. 흥양의 순장(巡將) 임상갑(林象甲)이 와서 만나고 밥을 먹은 뒤 회동(晦洞)에 갔다. 조카 윤(潤)과 함께 예조(禮曹)로 가서 같은 고향의 유생들이 모여 있는 의막(依幕, 임시로 거처하는 곳)에 찾아갔다. 이어서

112) 영희전(永禧殿) : 조선 후기 태조 이하 역대 왕들의 어진(御眞)을 모시고 제사 지내던 전각으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도성 내 진전(眞殿)이다.

113) 동현(銅峴) : 서울 중구 을지로1가와 2가 사이에 있던 고개로, 황토 흙인 이 고개는 구리가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것 같던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114) 냉정동(冷井洞) : 종로구 교남동평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평동과 바로 이웃한 지금의 의주로 도로 한가운데에 찬우물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냉동 혹은 찬우물골이라고도 불린다.

115) 수영(水營) : 수군절도사의 군영으로, 경기·충청·강원·황해·평안도에 각각 하나씩, 경상·전라·함경도에 각각 둘씩 있다.

주현으로 가서 이산(理山) 민성수(閔聖洙)에게 편지를 써서 비국(備局)¹¹⁶⁾의 조보(朝報)¹¹⁷⁾ 편에 부쳐 수영(水營)이 있는 곳에 전송하게 했다. 경영(京營)¹¹⁸⁾에 가서 홍 대감을 보고자 했더니, 박 유선(朴諭善)의 산송(山訟)¹¹⁹⁾ 문제가 한창 진행 중이라 문지기가 통보할 수 없다고 하기에 길을 바꿔 팔각정(八角亭)에 가서 이 대간(李大諫)의 궤연에 조문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들어가 홍 대감을 만나고, 신문 안에 들어가 이래를 만난 다음 김상현(金尙鉉) 주인을 찾아갔다. 김상현은 병으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 19일에 비로소 평안 감영[箕營]에 간다고 하였다. 잠시 이창한(李昌漢)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쌍동으로 돌아왔다. 날은 이미 저물고 기운 또한 피곤하여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었다.

十二日. 晴. 興陽林巡將象甲來見, 食後往晦洞. 與潤侄同往禮曹, 尋同鄉會儒之依幕. 仍往珠峴 修閱理山書柬, 付于備局朝報便, 以爲傳送水營之地. 往京營欲見洪台, 則以朴諭善山訟方張, 閹吏不得通, 轉往八角亭, 弔李大諫几筵. 回路入見洪台, 入新門內見李來, 歷訪金尙鉉主人, 則金以病呻吟矣. 今月十九日, 始往箕營云. 暫見李昌漢相話, 還雙洞. 日已暮, 氣又疲困, 幾生病矣.

▪13일. 맑다. 아침에 남동(南洞)에 가서 최 석사와 그 주인 김 생원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조형숙(趙衡叔)이 달경의 좌상에 와 있었다. 그러므로 함께 두포

116) 비국(備局) : 비변사(備邊司)의 별칭으로, 조선 시대 군국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이다. 중종(中宗) 때 삼포왜란의 대책으로 설치한 뒤, 전시에만 두었다가 1555년(명종10)에 상설 기관이 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의정부를 대신하여 정치의 중추 기관이 되었다.

117) 조보(朝報) :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 서리가 베껴서 소속 군사로 하여금 조정의 관원들에게 배포케 하는 통보(通報)로서 난보(爛報)라고도 한다. 각 군현의 경주인(京主人)들이 이를 다시 베껴서 수령에게 보냈는데, 이를 기별(奇別)이라고 일컬은 데서 속칭 '기별'이라고도 하였다.

118) 경영(京營) : 서울에 두었던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수어청(守禦廳)·충용청(攄戎廳)·용호영(龍虎營)의 총칭이다.

119) 산송(山訟) : 묘를 쓴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송사(訟事)를 말한다.

(斗浦)에 가서 영유(永柔) 조정(趙殿)¹²⁰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충효록》 한 권을 소매 속에 넣고 두포(斗浦)에 이르니, 영유 조정은 그 둘째 형인 부제학의 사랑(舍廊)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형숙에게 통보하게 하고 나는 영유의 초당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유의 아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숙이 오래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나는 부제학의 사랑으로 가서 부제학과 영유를 한자리에서 함께 만났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효록》을 열람하는데 부제학이 이르기를, “송 생원의 선대 충효 사적은 일찍이 《단암주의(丹巖奏議)》¹²¹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송 생원의 이름도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직 인사를 할 때에 영유가 함께 와서 그의 사랑에서 정담을 나누니 그가 고을 수령으로 있을 때,¹²² 모천(茅川)에서 권강(勸講)했던 일이 역력하였다. 또 남쪽 선비들이 분쟁하는 습속을 탄식하더니 나에게 한 그릇의 울무(薏苡)를 선사하였다. 돌아갈 때는 큰 길을 경유하여 좁은 길과 얼어붙은 비탈을 피하고자 하였다. 날이 저물어 지체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다시 갔던 길을 따라서 오다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까 몹시 두려워서였다.

十三日. 晴. 朝往南洞, 見崔碩士及其主人金生員而還, 趙衡叔來在達卿座上, 故約與同往斗浦, 見趙永柔殿. 袖去忠孝錄一卷至斗浦, 則永柔在於其仲兄副學舍廊, 故先使衡叔通之, 而余則坐在永柔草堂, 與永柔之子相話矣. 衡叔久不出, 余往副學舍廊, 同見副學永柔於一座, 稍久穩話, 閱看忠孝錄, 副學云, “宋生員先代忠孝事蹟, 曾見於丹巖奏議. 且聞宋生員名於他人矣.” 拜辭之際, 永柔同來, 其舍廊穩敘, 其爲在邑時, 茅川勸講事, 歷歷不已. 且歎南士紛爭之習, 進余以一器薏苡. 歸時欲由大路, 以避捷徑氷坂之險矣, 恐有日暮遲迴之弊, 復從去路而來, 顛沛甚可畏矣.

120) 조정(趙殿) : 1719~1775.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인서(寅瑞)이다. 조선후기 대사성, 수원부사, 이조참의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이조판서 조돈(趙墩)과 우리나라 최초로 고구마재배를 실현시킨 조엄(趙嚴)의 쌍둥이 동생이다.

121) 단암주의(丹巖奏議) : 단암(丹巖)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이 관료로서 활동하는 동안의 소자(疏劄)를 모아놓은 저서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 희귀본으로 남아 있다.

122) 그가 …… 때 : 원문 판독이 불가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맥의 흐름상 ‘在’자로 보고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 14일. 종현(鍾峴)에 가서 한 임피(韓臨陂)를 만나고 장동(壯洞)의 진사 이창진(李昌鎭)의 집에 갔는데, 이 진사는 고향에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다만 그 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사성(大司成) 조중희(趙重晦)에게 가서 조문하고 대간(大諫) 이의철(李宜哲)을 만났는데, 이 대간은 바야흐로 사문(師門, 도암 이재)의 문집(文集)과 서찰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 번 훑어보니, 내가 선묘(先墓)의 일로 예를 물었던 것과 사문(師門)이 답한 편지들을 기록한 것이었다. 오는 길에 이창한(李昌漢)을 만나고 주동(鑄洞)의 병사 정익량(鄭翊良)을 찾아갔더니, 정익량은 총관(摠管)으로 입직하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十四日。往鍾峴見韓臨陂，往壯洞李進士昌鎭家，則進士下鄉不來，只與其子暫話。往弔趙大司成重晦，見李大諫宜哲，大諫方修師門文集書牘卷故。一覽則余之以先墓事問禮及師門答柬見錄矣。來路見李昌漢，歷訪鑄洞鄭兵使翊良，則鄭以摠管入直，故未見而還。

▪ 15일. 큰 눈이 내리다. 아침을 먹기 전에 조카 윤(潤)이 찾아오고 최생도 또한 왔는데, 눈에 길이 막혀 강소(講所, 강경 시험을 치는 시험장)에 가서 중숙의 과거보는 일이 살펴보지 못하니 매우 걱정스럽다.

十五日。大雪。朝前潤侄來見，崔生亦來，而阻雪不得往講所以探仲叔科事，憫憫。

▪ 16일. 날은 비록 개였으나 길이 질퍽거리니 나막신을 신고 정동에 가서 이감찰(李監察)을 만났다. 또 이창한(李昌漢)의 집에 가서 수영의 편지를 처가(妻家)에 보내주기를 청하는 일을 언급한 뒤에, 의정부 중숙의 의막(依幕)에 가서 강(講)이 무사함을 알고 돌아오는 길에 정생(丁生)과 박생(朴生) 두 사람의 의막에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인현(仁峴)에 이르러 벗 윤여규(尹汝揆)에게 안부를 묻고, 또 오재능(吳載能)에게 안부를 묻고 돌아왔다.

十六日。雖晴以路泥着木鞋，往貞洞見李監察。又往李昌漢家，請得送水營書柬于其聘家事言及後，往議政府仲叔依幕，知其講無事，回路尋丁朴兩生依幕，而不得見。至仁峴，問尹友汝揆，又問吳載能而還。

▪17일. 맑다. 길이 질퍽거리 멀리 가지 못하고 동학동(東學洞)에 가서 지평(持平) 김양심(金養心)을 만나 종일 이야기를 나눴다.

十七日. 晴. 路泥不得遠去, 往東學洞, 見金持平養心, 終日談話.

▪18일. 맑다. 수각교(水閣橋)에 가서 판서 윤봉조(尹鳳朝)¹²³의 궤연에 조문한 다음 서소문 밖으로 나가 민 정랑(閔正郎)의 집에 이르러 집을 지키는 노복에게 소식을 물었더니, “정랑 다크은 모두 여주(呂州)로 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합동(蛤洞)에 가서 남 승지(南承旨)의 소식을 물으니 가가(假家)¹²⁴에서 담배를 파는 사람이, “남 승지 다크은 이미 이 집을 팔고 서소문 밖 야동(冶洞)으로 이사를 갔는데, 남 령(南令)은 바야흐로 삼척부사(三陟府使)가 되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돌아왔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신히 찾아 야동(冶洞)에 이르렀다. 마침 서흥(瑞興) 조정세(趙靖世)를 길가에서 만나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작별하였다. 들어가 남 승지를 만나 정담을 나누다가 다시 오기로 약속하였다. 도로 문안에 들어가 장 병사(張兵使)의 집에 이르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경주인의 집에 찾아가 흥양에서 온 사람을 물었더니, 박 사문(朴師文)이 어제 왔다가 용산(龍山)으로 갔다고 했다. 그리고 흥양의 하인들이 며칠 전에 옛 관리의 내행(內行)¹²⁵을 모시고 와서 어제 낮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던 일이 안타까웠다. 돌아오는 길에 정 병사(鄭兵使)의 집에 들렀더니, 정 병사는 입직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날이 저문 뒤에 가늘게 비가 내렸다.

十八日. 晴. 往水閣橋, 弔尹判書鳳朝几筵, 出西小門外. 至閔正郎家, 問消息于守宅奴, 則答云, “正郎宅盡往呂州矣.” 往蛤洞, 問南承旨消息, 則假家賣草人言, “南承之宅, 已賣此家, 移于西小門外冶洞, 而南令方爲三陟府使

123) 윤봉조(尹鳳朝) : 1680~1761.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명숙(鳴叔), 호는 포암(圃巖)이므로, 조선 후기 공조참판, 지중추부사, 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문집으로 《포암집》이 있다.

124) 가가(假家) : 집의 이동을 위하여 헐고 옮기기 쉽도록 임시로 짓던 여막초막뚝집 등 원초형 형태의 건축물로, 길가나 장터 같은 데서 임시로 상품 따위를 벌려 놓고 파는 곳, 즉 '가게'를 말하는데, 지금의 가게는 한자어 '가가(假家)'에서 유래한 말이다.

125) 내행(內行) : 부인의 행차, 부인네의 나들이를 가리킨다.

矣. 今聞還來云.” 故艱尋到冶洞, 適逢趙瑞興靖世於路邊, 立談卽別. 入見南承旨穩話, 約以更來. 還入門內, 至張兵使家暫話, 歷訪京主人家, 問有興陽來人, 則朴師文昨來, 往龍山云. 興陽下人輩, 數日前, 舊官內行陪來, 而昨午下去云, 恨其不知也. 回路入鄭兵使家, 則鄭入直未還. 夕昏後微雨.

▪19일. 맑았으나 바람이 불고 춥다. 심 병사(沈兵使)의 집에 가니 심명덕(沈命德)은 그 집을 팔고 바야흐로 남산 아래에서 거주한다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니 가서 만날 수가 없었다. 백사술(白士述)이 있는 곳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도랑을 따라 내려가 시리문동(矢里門洞) 홍 승지(洪承旨)의 집을 찾아가서 그 아들 대유(大猷)를 만났는데, 그 부친이 정주(定州) 현감에서 체직되어 돌아온 뒤에 막 승지가 되어 입직하였다고 하기에 만나지 못했다. 전초정동(全椒井洞)을 방문하여 교보(教保) 김이안(金履安)을 만난 다음 계동(桂洞)의 홍 판서 집에 가서 교리(校理) 지해(趾海)를 만났다.¹²⁶⁾ 감영에 갔다가 오는 길에 생원 오욱(吳頊)을 효교(孝橋)에서 만났다.

十九日. 晴風寒. 往沈兵使家, 沈命德賣其家, 方往南山下, 而不能的知, 未得往見. 往白士述所在處暫話, 沿渠而下, 尋往矢里門洞洪承旨家, 見其子大猷, 言其父定州遞來後, 方爲承旨入直, 不得見. 訪全椒井洞, 見金教保履安, 往桂洞洪判書家, 見校理趾海. 往監營來路, 見吳生員頊于孝橋.

▪20일. 맑다. 회동(晦洞)에 가서 중숙(仲叔)을 만나고 반촌(泮村)에 가서 정생(丁生)과 박생(朴生) 두 사람을 만났다. 달경(達卿)도 또한 두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주인집에 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보성의 벗 이정규(李廷珪)가 와서 이웃집에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돌아오는 길에 낙안(樂安)의 김수현(金壽鉉) 주인에게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흥양(興陽)의 임세중(林世中)이 득아(得兒)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윤세권(尹世權)과 진생(陳生)도 또한 찾아와 만났다.

二十日. 晴. 往晦洞見仲叔, 往泮村見丁朴兩生. 達卿亦以回謝兩生次, 來于

126) 교리(校理) 지해(趾海)를 만났다 : 문맥의 흐름 상 원본에 '見'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主人家, 與之同話. 聞賣城李友廷珪, 來在隣舍, 故往見小話. 歸時往樂安金壽鉉主人, 暫話而來. 興陽林世中持得兒書札而來. 尹世權陳生亦來見.

▪21일. 박사문(朴師文)이 와서 만나고, 이교(二橋)에 가서 잠시 흥양의 군사 주인을 만났다. 그길로 계동(桂洞)의 홍 판서(洪判書)의 집에 갔더니, 이날 교리는 또한 경영(京營)에 나갔다. 국동(國洞)에 가서 민 연안(閔延安)을 만난 다음, 또 주현(珠峴)에 가서 유 부산(柳釜山)의 편지를 전 선천(田宣川)에게 부치고 또한 좌수영에 전하여 보낼 계획이었다.

二十一日. 朴師文來見, 往二橋, 頃見興陽軍士主人. 因往桂洞洪判書家, 則是日校理, 亦出往京營. 往國洞見閔延安. 又往珠峴, 付柳釜山書柬于田宣川, 亦爲傳去左水營之計.

▪22일. 모화관(慕華館)¹²⁷에 거동하여 문무관 당상(堂上)¹²⁸을 시사(試射)¹²⁹하려는데, 눈보라가 크게 몰아쳐 곧바로 환궁하셨다. 조카 윤이 찾아와서 보고 함께 남동(南洞)의 생원 김정재(金定材) 집에 가서 조금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조카 윤은 최생과 함께 반촌에 갔다. 그리고 나는 수구문(水口門) 안 이능상(李能祥)의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돌아와 박 영평(朴永平)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二十二日. 慕華館舉動, 文武官堂上試射, 風雪大作, 卽爲還宮. 潤侄來見, 同往南洞金生員定材家, 稍久談話後, 潤侄與崔生往泮村, 余則往水口門內李能祥家, 暫話卽歸, 訪朴永平而還.

▪23일. 일찍 신문(新門) 밖 냉정동(冷井洞)에 가서 이산(理山) 민성수(閔

127) 모화관(慕華館) : 돈의문(敦義門) 밖 서북쪽에 있으며 본래는 모화루(慕華樓)였는데, 세종 12년에 누각을 관(館)으로 고쳤다. 중국의 사신을 영송(迎送)하던 곳이며, 중종(中宗) 34년에 조사(詔使) 설정충(薛廷寵)이 그 정문을 영은문(迎恩門)으로 고치기도 하였다.

128) 당상(堂上) : 정3품 상계(上階) 이상인 벼슬아치를 말한다.

129) 시사(試射) : 조선 시대에 현직 문무관에게 보이던 궁술(弓術) 시험으로 매달 초하루에 실시하는 것을 삭시사(朔試射), 특별히 실시하는 것을 별시사(別試射),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실시하는 것을 친림 시사(親臨試射)라고 한다. 이외에 별부로 군관에게 보이던 별부로 시사(別付料試射)도 있다.

聖洙)를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 야동(冶洞)의 남 삼척부사(南三陟府使)을 방문하여 그의 형 익산(益山)의 집으로 보낼 《충효록》 한 권을 전했다. 또 정동(貞洞)의 좌랑(佐郎) 노정원(盧廷元)이 거처하는 곳에 찾아갔으나, 좌랑은 출타 중이어서 한참동안 기다렸다가 비로소 만났다. 또 주동(鑄洞)의 정 병사(鄭兵使)를 방문하고 돌아오니, 아침을 먹기 전에 흥양 사람 김일담(金日潭)이 찾아왔다고 한다. 연동(蓮洞)의 심 참봉(沈參奉) 집에 갔으나 능소(陵所)¹³⁰에 갔기 때문에 다만 장생의 서간만 전해주고 돌아왔다. 호동(壺洞)에 가서 남 예안(南禮安)을 만났다. 저녁에 눈이 내렸다.

二十三日。早往新門外冷井洞，見閔理山，回路訪冶洞南三陟，傳其兄益山家所去忠孝錄一卷。又訪貞洞盧佐郎廷元下處，佐郎出他，良久企待，始得相面。又訪鑄洞鄭兵使而還。朝前興陽人金日潭來訪云矣。往蓮洞沈參奉家，往陵所故只傳張生書柬而來。往壺洞，見南禮安。夕間雪。

▪24일. 김일담(金日潭)이 찾아와서 만났다. 석산(石山)에 갔으나 박 유선(朴諭善)이 병으로 밖을 나오지 못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길로 중숙이 거처하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이때에 며칠 동안 연이어 눈이 내려서 눈이 녹지 않은데다 추위가 유난히 심하니 모두들 근래에 없던 강추위라고 하였다.

二十四日。金日潭來見。往石山，諭善以病不出外，未得相面，因往仲叔所住處久話而歸。是時連日雪下，雪不消而寒氣特甚，皆云近古所無矣。

▪25일. 입었던 옷이 매우 더러워졌기 때문에 벗어서 빨게 하고 종일 밖에 나가지 않았다.

二十五日。以所着之甚汚，脫而使澣，終日不出外。

▪26일. 또한 밖에 나가지 않았다.

二十六日。亦不出外。

130) 능소(陵所) :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이 있는 곳을 말한다.

▪27일. 감시 회시(監試會試)가 있는 날인데, 날씨가 청명하니 기뻐다. 남동(南洞)의 신중권(申重權)이 찾아와서 만난 다음, 석산에 가서 박 유선(朴諭善)을 만나고 호동(壺洞)에 가서 남 예안(南禮安)을 만났다

二十七日。乃監試會日也。日氣清明，可喜。南洞申重權來見。往石山，見朴諭善，往壺洞，見南禮安。

▪28일. 맑다. 달경이 포천으로 갔다. 종현에 가서 한 임피를 만나고 난동에 가서 유 정승(兪政丞)과 그의 아들 인천(仁川)을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 낙동(駱洞)에 들렀는데, 신계(新溪, 조영극(趙榮克))가 출타 중이라 다만 그의 아들만 만났다. 시리문동(矢里門洞)에 가서 홍 승지를 만나 가아(家兒)가 지은 시 7수와 최생이 지은 시 8수를 부쳐 평가해 주기를 청하고 돌아왔다.

二十八日。晴。達卿往抱川。往鍾峴，見韓臨陂，往蘭洞，見兪相及其子仁川。回路入駱洞，新溪出他，只見其子。往矢里門洞，見洪承旨，付家兒所作詩七首崔生所作詩八首，以爲點評之請而還。

▪29일. 날씨가 맑고 화창했다. 아침을 먹기 전에 조카 윤이 가아(家兒)의 서신을 가지고 왔는데, 2월 16일에 부친 것이었다. 집안은 무탈하다고 하니 다행이다. 안동(安洞)에 가서 민 연안을 만나고 주현에 가서 전 선천과 전직재를 만났다. 모화관으로 나가 남대문 밖 염소교(焰焯橋) 가에 가서 김용재(金龍才) 주인을 찾아갔으나 김용재는 출타 중이었으므로 만나지 못하고 오는데, 중도에서 서로 만났다. 돌아오다가 중숙을 찾아가 과거장의 소식을 듣게 되니 통분함을 견딜 수가 없다.

二十九日。日氣清和。朝前潤侄持家兒書而來，二月十六日出也，家間無事云幸也。往安洞，見閔延安，往珠峴，見田宣川直哉。出去慕華館，往南大門外焰焯橋邊，尋金龍才主人，而龍才出他，故未見而來矣，中路相見。回訪仲叔，聞場中消息，不勝痛憤。

▪3월 1일. 맑다. 석산에 가서 조금 오래 동안 이야기하였다. 이어 저녁밥을 내왔다.

三月初吉. 晴. 往石山, 稍久相話, 因進夕飯.

▪2일. 정동에 가서 이 감찰(李監察)을 만났다. 저녁에 회시(會試)의 방(榜)이 나왔는데, 간천(艮川)의 조카 박백종(朴伯宗)이 진사가 되었으니,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하랴. 여주(呂州) 민 정랑(閔正郎) 댁에 사람을 보내어 국동(國洞)의 연안(延安) 댁에 편지를 전달하게 했다.

初二日. 往貞洞, 見李監察. 夕間會榜出, 而艮川朴侄伯宗爲進士, 喜幸曷喻. 送呂州閔正郎宅, 傳去書柬于國洞延安宅.

▪3일. 흐리다. 반촌(泮村)에 가서 박 진사(朴進士)를 만나 1전의 돈을 강진(康津) 김구주(金九疇)의 상소(喪所)에 보내게 했다. 돌아올 때 동재(東齋)에 들러 진사 양학연(梁學淵)을 만나고, 낙안 김수현(金壽鉉) 주인에게 가서 진사 김훈(金勛)과 그의 여러 조카를 만났다. 순창(淳昌) 김기조(金箕祖)의 상소(喪所)에 가서 1전의 돈을 그 조카에게 부의하여 주고 돌아온 다음, 조해명(趙海明)의 집에 들러 조금 쉬다가 돌아왔다.

初三日. 陰. 往泮村, 見朴進士, 以一錢, 送賻于康津金九疇喪所. 回時入東齋, 見梁進士學淵, 往樂安金壽鉉主人, 見金進士勛及其諸侄. 往淳昌金箕祖喪所, 以一錢, 賻給其侄而返, 入趙海明家, 小憩而還.

▪4일. 가랑비가 내렸다.

初四日. 微雨.

▪5일. 맑고 춥다. 집에 보낼 편지를 써서 임세중(林世中) 편에 부쳐 보냈다. 침교(沈橋)의 진사 김상적(金相迪) 집에 가서 이안(梨岸)에 전달할 편지를 주었다. 서운제(徐允悌)가 와서 만났다. 이동(泥洞)에 갔으나 좌랑(佐郎) 김광묵(金光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회덕(懷德)의 편지를 주지 못하고 왔다.

初五日. 晴而寒. 修家書付送于林世中便. 往沈橋金進士相迪家, 付梨岸傳去書柬. 徐允悌來見, 往泥洞, 不見金佐郎光默, 故未付懷德書柬而來.

▪6일. 몹시 춥다. 선달(先達) 전직재(田直哉)가 부인의 상(喪)을 당하였다고 하니 참혹한 일이다. 정동 이 영양(李英陽)의 집에 가서 내간(內柬)¹³¹을 전하고 답서를 받아서 왔다. 선달 최효백(崔孝伯)이 포천에서 들어왔다.

初六日. 極寒. 田先達直哉, 喪其小畜云慘矣. 往貞洞李英陽家, 傳內柬, 受答而來. 崔先達孝伯自抱川入來.

▪7일. 회동(晦洞)에 가서 증숙과 후지(厚之)를 만났다. 주현에 가서 전선천과 직재를 만나고 돌아와 주동의 정 병사 집에 들렀는데 만나지 못했다. 미동에 들러 병사(兵使) 이한응(李漢膺)과 그의 아우 영장(營將) 한태(漢泰)를 만나고 석산에 들렀다가 돌아왔다.

初七日. 往晦洞, 見仲叔及厚之. 往珠峴, 見田宣川及直哉, 回入鑄洞鄭兵使家而不見. 入美洞, 見李兵使漢膺及其弟營將漢泰, 入石山而返.

▪8일. 회동(晦洞)에 가서 조카 윤 및 벗 정씨와 함께 정동(貞洞) 이 감찰(李監察)의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카 윤 및 벗 정씨는 염소교박 첨지 집으로 가고 나는 이동(泥洞)에 가서 좌랑 김광묵(金光默)을 만나 회덕(懷德) 송 유선(宋諭善)의 집에서 보낸 편지를 전했다. 반촌에 가서 박진사를 만나고 돌아오다가 낙안의 벗 김씨와 여러 사람을 방문했다. 또 호동(壺洞)에 들러 남 예안을 만나 잠시 쉬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아왔다. 달경이 포천에서 들어왔다.

初八日. 往晦洞, 與潤侄及丁友, 同往貞洞李監察家暫話. 潤及丁友, 向焰焯朴愈知家去, 余則往泥洞, 見金佐郎, 傳懷德宋諭善家送去書封. 往泮村, 見朴進士, 回訪樂安金友諸人. 又入壺洞, 見南禮安小憩, 日暮還歸. 達卿自抱川入來.

▪9일. 석산에 가서 박 유선(朴諭善)을 만났는데, 마침 그 집에서 이에원

131) 내간(內柬): 옛 부녀자들이 써서 주고받거나 부녀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쓰여진 편지로, 내찰(內札)안편지라고도 한다. 한글로 편지를 쓰는 것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 주로 궁중의 궁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성종-선조 때에 이르러 점차 일반 사녀층(士女層)에 까지 확산되었다.

(李禮源)을 만나 지난해에 당한 부모의 상사(喪事)를 위로하고 돌아왔다. 밥을 먹은 뒤에 미호(溟湖)를 향해 출발하여 오후에 김 참의(金參議) 집에 도착하였다. 이야기를 나눈 뒤에 작별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광진(廣津)으로 갔다가 살곶[箭串]의 여 생원(呂生員) 집에서 유숙할 계획이었는데, 주인 김 참의가 굳이 만류하여서 떠나지 못했다. 그대로 머물면서 베개를 나란히 하고 밤이 깊도록 정담을 나눴다.

初九日. 往石山, 見朴諭善, 適逢李禮源於其家, 慰其年前遭故而還. 食後發向溟湖, 午後得達金參議家, 敘話後, 欲爲辭別還向廣津, 留宿于箭串呂生員家計矣. 主人參議堅挽, 不得離發, 因留聯枕夜久穩話.

■10일. 새벽에 일어나 돌아가겠다고 하니 김 참의가 다시 잡아끌고 하인에게 명하여 일찍 죽을 올리게 했다. 하인 한 명과 소를 빌려 타고 갔는데, 내를 건넌 뒤에 돌려보내고 곧바로 광진(廣津)의 이생(李生) 집에 이르니 이생이 한사코 붙잡으며 아침밥을 차려 주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살곶의 여 생원 집에 방문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함박눈이 펄펄 날리는데다가 여씨 집의 부자(父子)는 부동(部洞) 아우의 창방(唱榜)을 보기 위하여 반드시 서울에 들어갔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바로 길을 돌려 왕십리(往十里)에 이르렀다. 비와 눈이 섞여 내려서 의관이 다 젖어버렸다. 잠시 가가(假家)에서 쉬다가 말끔히 개기만을 기다릴 수 없어서 다시 출발하여 쌍동에 이르렀다. 신발과 버선이 모두 더러워져 차마 다시 신을 수가 없었다.

初十日. 曉起告歸, 參議更爲挽執, 命進早粥. 借一力與牛隻騎, 而渡川後還送, 直抵廣津李生家, 則李生強挽進朝飯. 飯後離發, 欲訪箭串呂家矣. 雪花亂落, 且料呂家父子之爲見部洞其弟之唱榜, 必入京裡, 故直爲回程, 至往十里. 雨雪交下, 衣冠沾濕, 小憩于假家, 不得待其快晴, 更發抵雙洞. 鞋襪俱污, 難忍復着矣.

■11일. 맑다. 오고 가는 길이 진흙탕 길이었기 때문에 피곤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종일 쌍동에 머물렀다.

十一日. 晴. 以往來泥路之故, 困憊未解, 終日留雙洞.

▪12일. 국동(國洞)에 가서 민 연안을 만났다. 좌상(座上)에 새로 급제한¹³²⁾ 진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로 교리(校理) 홍지해(洪趾海)의 아들 상간(尙簡)이며, 또 한 사람은 영광(靈光) 윤일복(尹一復)의 아들인데, 모두 민 연안의 생질들로 유가(遊街)¹³³⁾하러 여기에 온 것이다. 연안이 두 진사를 데리고 그 사당에 참배한 뒤에 진사와 좌상의 여러 손님들에게 음식을 올렸다. 장흥의 우후(虞侯) 안동일(安東一)도 또한 와서 참석했다. 나는 홍 진사와 작별할 때에 그의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 홍 교리에게 축하를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두 진사가 떠난 뒤 천천히 계동(桂洞)으로 갔더니 계동에서 온 자들이 모두, “교리는 천연두를 앓는 딸아이의 병세가 순탄치 않아서 문을 닫고 손님이 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계동에 들르지 못하고 바로 쌍동으로 돌아오니, 진사 박찬영(朴燦瑛)이 나를 보기 위하여 왔다. 또 다른 소년 진사가 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벗 오자유(吳子猷)의 종제(從弟)로, 일찍이 달경의 집에서 두어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十二日. 往國洞, 見閔延安. 座上有新榜進士二人, 一乃洪校理趾海之子尙簡也, 一乃尹靈光一復之子, 而俱以延安甥侄, 遊街來此也. 延安率兩進士, 參謁于其祠堂後, 進飲食於進士及座上諸客. 長興安虞侯東一, 亦爲來參. 余與洪進士臨別, 約以往訪于其家, 獻賀於其父校理, 而兩進士去後, 徐行往桂洞, 自桂洞出來者, 皆言“校理以其兒女之患痘不順, 杜門忌客”云, 故不入桂洞, 直還雙洞, 朴進士燦瑛爲見余而來. 又有他少年進士者, 坐在一座, 乃吳友子猷之從弟, 曾有數面於達卿家者也.

▪13일. 밥을 먹은 뒤에 곧바로 주현에 간 것은 어제 출타 중이었을 때에 직재와 그의 매제(妹弟) 송덕일(宋德一)이 찾아왔었다고 해서였다. 송덕일은

132) 새로 급제한 : 원문의 ‘신방(新榜)’은 조선 시대 과거를 치른 뒤에 새로이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써서 발표하는 방목을 이르던 말이다.

133) 유가(遊街)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광대들에게 풍악을 잡히고 거리를 다니면서 좌수(座首), 선배, 친척들을 찾아보는 일이다. 대개 3일 동안 하는데, 머리에는 어사화(御賜花)를 꽂고 손에는 임금의 준 일산(日傘)을 들고 음악을 울리며 다닌다.

바로 같은 고향의 일가인데, 애매한 일로 고을 원님이 모함하여 안동부로 귀양을 갔다가 지금 사전(赦典)¹³⁴을 입고 바로 서울로 와서 나를 찾아 이곳에 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매우 기뻐 달려갔더니, 덕일은 마침 고향으로 내려가는 동행을 만나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을 틈타서 길을 떠나 더욱더 서운하였다.

직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길을 바꿔 사동으로 가서 민 우상(閔右相)의 궐연에 조문하였다. 시리문동(矢里門洞) 흥 승지 집을 방문하였는데, 승지는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전강(殿講)¹³⁵ 시험관으로 궐내에 들어가서 그 아들과 오래토록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이날은 달경 아버지의 기일인데, 새벽에 제사를 지낸 뒤에 남은 제사음식(餽餘)을 차려 주었기 때문에 객지에서 배불리 먹었다. 여러 곳을 고단하게 다니는 틈에도 또 떡과 과일을 내오니, 달경 내외가 손님으로 여기지 않고 대접해주는 그 정에 더욱 감사하였다.

十三日. 食後卽往珠峴者, 昨日出他時, 直哉與其妹婿宋德一來訪云. 德一乃同鄉同宗, 而以曖昧事爲主倖所構陷, 謫去安東府, 今蒙赦典, 直來京裡, 訪余到此云, 故喜極馳往, 則德一適逢下鄉同行, 未及留待, 乘曉發程, 尤切悵然. 與直哉小話, 回往社洞, 弔閔右相几筵, 歷訪矢里門洞洪承旨家, 承旨以館學儒生殿講試官, 入去闕內, 與其子久話而還. 是日卽達卿親忌也, 曉頭行祭後進餽餘, 故客裡飽喫矣. 累處困步之餘, 又進餅果, 其情尤感於達卿內外之不以客視之也.

▪ 14일. 비가 오다. 종일 최효백(崔孝伯)과 우스갯소리를 하며 적적함을 없애니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十四日. 雨. 終日與崔孝伯, 諧謔破寂, 亦云幸矣.

134) 사전(赦典)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의 죄인을 용서하여 주던 특전을 말한다.

135) 전강(殿講) : 조선조 성종(成宗) 때부터 경학(經學)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시작한 시험이다. 성균관 유생과 학식이 많은 사람을 모아 삼경(三經)이나 오경(五經) 중에서 강(講)을 임금이 친히 받았는데, 뒤에는 생원·진사도 참여하였다. 시험은 매중삭(每仲朔: 24681012월) 11일에 승정원에서 건의하여 16일에 실시했다.

▪15일. 맑다. 남동에 김가(金家)와 최생(崔生)에게 갔다가 반촌에 가서 박진사를 만나 집에 보낼 편지를 부치고, 서재(西齋)의 진사 형숙(衡叔)과 평택(平澤)의 심중주(沈重周)에게 들렀다. 반촌 사람 몽설(夢說)의 집에 가서 진사 박휘진(朴徽鎭)¹³⁶을 만났다. 대개 박휘진은 전강(殿講)할 때에 등지고 앉았기 때문에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행동이 해괴하니 특별히 정거(停擧)¹³⁷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셨으므로 반촌에 나가 재계하고 앉아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가서 문안한 것이다. 오는 길에 의동(義洞)의 전 평해(田平海)를 방문하였는데, 그의 아들 보성(寶城) 견용(見龍)의 집안에 병세가 심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므로 내실로 맞아들어 잠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十五日. 晴. 往南洞金家與崔生, 往泮村, 見朴進士付家信, 入西齋進士衡叔及沈平澤重周. 往泮人夢說家, 見朴進士徽鎭. 蓋朴以殿講時背坐, 上曰: “舉措駭然, 特爲停擧.” 故出齋坐于泮村. 以此往問. 來路訪田平海于義洞, 其子寶城見龍家病重, 不得出外, 延入內室, 暫與相話而歸.

▪16일. 맑다. 종현(鍾峴)에 가서 한 임피(韓臨陂)를 만난 다음 장동에 가서 조 대사성(趙大司成)을 만났는데, 이미 대상(大祥)이 지났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이 대간(李大諫)의 집에 가서 《도암집(陶庵集)》 몇 권을 보고 나서, 다시 이교(二橋)로 들어가 잠시 향군(鄉軍) 주인집에서 쉬었다가 돌아왔다.

十六日. 晴. 往鍾峴, 見韓臨陂, 往壯洞, 見趙大司成, 已過再葦. 暫話後, 往李大諫家, 見陶庵集略干卷, 回入二橋, 頃鄉軍主人憩而還.

▪17일. 흐리다. 호동에 가서 남 예안(南禮安)을 만났다. 돌아올 때에 잠시 동지(同知) 김중하(金重河)가 머무는 곳에 들러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136) 박휘진(朴徽鎭) : 1705~1790.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백회(伯晦)로, 박광일(朴光一)의 장손이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나 1740년 증광시에 합격하고 성균생원으로 등재 후 정조 때 절충장군검지중추부사 벼슬을 마지막으로 낙향하여 마을의 창산(蒼山)아래에다 만년을 위해 정자를 짓고 유유자적했다.

137) 정거(停擧) : 유생에게 가하는 형벌의 한 가지로, 일정한 연한(年限) 동안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정지시키는 벌을 말한다.

동지는 나이가 많아 병이 심하니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十七日. 陰. 往壺洞, 見南禮安. 歸時暫入金同知重河所住處相話. 金年老衰病, 已無可爲矣.

▪18일. 벗 정씨와 임학룡(林學龍)이 와서 남산에 함께 구경을 가자고 청했다. 그러므로 최생을 불러와 함께 부동(部洞)에 가서 조카 윤을 데리고 주동(鑄洞)을 경유하여 남산에 올라 봉화대와 잠두(蚕頭)에 오르고, 성의 시가(市街)와 한강의 교외를 두루 구경한 다음 회동(晦洞)으로 내려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十八日. 丁友及林生學龍來, 請同往南山翫景, 故招來崔生, 偕往部洞. 率潤侄由鑄洞, 上南山登烽臺及蚕頭, 周觀城市與江郊, 下來晦洞, 小話而歸.

▪19일. 가랑비가 내리다가 늦게 개다. 수각교(水閣橋) 장 병사(張兵使)의 집에 갔는데, 장령(張令)은 홍 재상이 전달한 것 때문에 지금 의금부에 있어서 도착하지 못했다. 남대문으로 나가 박 첨지의 집에 이르렀다. 김 서방 용재(龍才)를 만나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사람과 말에 대해 물었다. 돌아오는 길에 신문(新門)을 경유하여 정동(貞洞)에 이르러 이 영양(李英陽)을 만났다. 또 이창한(李昌漢)을 만나 작별을 고하고 이 감찰(李監察)의 집에 이르렀으나 감찰은 출타 중이었다.

十九日. 微雨晚晴. 往水閣橋張兵使家, 張令以洪相所達, 方在禁府未放矣. 出南大門, 抵朴僉知家. 見金書房龍才, 問下鄉人馬, 回路由新門, 抵貞洞見李英陽. 又見李昌漢而告別, 抵李監察家, 監察出他矣.

▪20일. 흐리다. 며칠 전에 벗 박여옥(朴汝玉)을 만났는데, 청주(淸州)에서 올라왔다고 했다. 대개 여옥은 바야흐로 고향에 거주하고 있다가 지금 그 삼촌의 장사지내는 일로 인하여 서울에 들어왔다고 했다. 수사(水使) 이경무(李景茂)는 바로 그의 동서(同婿) 아들이므로 소록(小錄, 요점만 간략히

적은 글)을 써서 주고 그의 처남 오재희(吳載熙)¹³⁸⁾에게 전해 주게 했었는데, 오재희는 바로 고(故) 좌의정 윤중주(尹重周)의 손자이다. 이날 여옥이 와서, “착실히 말기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밥을 먹은 뒤에 난동에 가서 유 대감(兪大監)께 작별을 고했다. 또 인천부사(仁川副使)와 유 정승의 당질인 주서(注書) 언호(彦鎬)를 만났다. 아현(阿峴)으로 나가서 선생의 영정에 참배하고 잠시 이래(李來)를 만난 뒤에 신문에 들러 전 부산과 선천을 만났다. 선전관(宣傳官)의 상중(喪中)인 삼형제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또 전 병사의 궤연에 절하고 곡한 다음 돌아왔다.

二十日. 陰. 數日前, 逢朴友汝玉, 云自清州上來. 蓋汝玉方鄉居, 今因其三寸葬事, 入京而聞. 水使李景茂, 卽其同婿之子, 故書小錄以付, 使爲傳給於其妻男吳載熙, 吳卽故左尹重周之孫也. 是日汝玉來言, “着實付囑”云云矣. 食後往蘭洞, 告別于兪大監, 又見仁川及兪相堂侄注書彦鎬. 出往阿峴, 拜辭于先生影幀, 暫見李來後, 入新門, 見田釜山宣川. 宣傳官三哀告歸, 又拜哭於田兵使几筵而歸.

▪21일. 침교(沈橋)에 가서 김열택(金悅澤)을 만났다. 또 호동에 가서 이인석(李仁錫)과 원작(元爵)을 만나 그 주인에게 인하여 작별을 고했다.

내일은 바로 문묘에 참배¹³⁹⁾한 뒤에 과거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 20일에 흰 무지개의 변괴가 있었기에 임금께서 정전(正殿)을 피하고 수라의 음식을 줄였으나¹⁴⁰⁾ 문묘에 참배하는 일은 이미 고유제를 지냈기 때문에 사체(事體)가 중대하니 멈출 수가 없다. 이날 밤 이경(二更)에 성균관에 거동하시어

138) 오재희(吳載熙) : 1727~1813.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경집(敬緝), 호는 휴재(休齋)이다. 용모가 흰칠하고 시율(詩律)의 품격이 높아 무관이라기보다는 문신다운 풍모가 있어 사람들이 고을의 시우(詩友)들과 음영(吟咏)하는 모습을 보고 ‘평지신선(平地神仙)’이라 불렀다.

139) 문묘에 참배 : 원문의 ‘알성(謁聖)’은 임금이 성균관 문묘(文廟)의 공자 신위(神位)에 참배하는 것인데, 이때에 보이는 시험이 알성시(謁聖試)이다.

140) 임금께서 …… 줄였으나 : 나라에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관례적으로 임금이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고, 옥안(獄案)을 재심리하며, 운음을 내려 허물을 자책하고 직언을 구하였다. 또 수라상의 음식을 줄이고, 음악을 철폐하였으며, 정전(正殿)에 기거하지 않았다. 특히 가뭄이 들면 남단(南壇)에 친히 기도하고, 우단(雩壇)에까지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내리게 되어서야 중지하였다. 《國朝寶鑑》

재실(齋室)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가 사경 일점(四更一點)에 술잔을 따라 예를 행하고 나서 명륜당(明倫堂)에 이르러 시험 제목을 내어 시험을 치른 뒤에 시험관(試驗官)¹⁴¹에게 시권(試卷)을 거두게 하며, 송문당(崇文堂)¹⁴²에 이르러 합고(合考)¹⁴³하여 어람(御覽)에 올린다. 인하여 출방(出榜), 합격자 명단을 별표)과 창방(唱榜)¹⁴⁴은 바로 27일에 하교가 내려진다.

二十一日。往沈橋，見金悅澤。又往壺洞，見李仁錫元爵，于其主人，因爲告別。明日乃謁聖後 試士之日，而以二十日白虹之變，自上避正殿減常膳，而謁聖則既行告諭祭，故事體重大，不可停止。是夜二更，舉動于成均館，入齋室小憩，四更一點，行酌獻禮，詣明倫堂，出題後，令命官收試卷，詣崇文堂，合考進御覽，因出榜唱榜，乃二十七日下教矣。

▪ 22일. 양근(楊根)의 생원 변자장(邊子章)의 이름은 성진(聲鎭)인데, 바로 달경의 처남으로 이전부터 매우 친했던 사람이다. 지금 내상(內喪)의 장사지내는 일 때문에 바야흐로 장례 도구를 마련하여 고향에서 올라왔는데, 며칠을 같이 거처하였다. 작별을 고하고 내려갈 때에 객지에서 이별하면서 훗날을 기약함이 아득하니 심사(心事)가 몹시 좋지 않았다. 호동(壺洞)에 가서 남 참판(南參判) 숙질을 만나 작별을 고하였다. 또 박 영평(朴永平)의 집에 가니 영평은 부재중이었다. 저녁에 벗 정후지(丁厚之)가 와서 말하기를, “모레에 내려가시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마필(馬匹)을 아직 완전히 정하지 못해서 매우 고민스럽다.

二十二日。楊根邊生員子章名聲鎭，卽達卿妻男，曾前最親者也。今以其內喪葬事，方營葬需，自鄉上來，數日同處矣。告別下去，客裡分手，後期茫然，

141) 시험관(試驗官) : 원문의 '명관(命官)'은 조선 시대 과거 시험관으로 알성시, 증광시 등 특별한 과거를 여는 경우 임금이 친림하여 임명한 시험관을 말한다.

142) 송문당(崇文堂) : 조선 시대에, 창경궁의 명정전 서쪽에 두어 학문을 숭상하고 글을 배우고 닦도록 한 곳이다.

143) 합고(合考) : 과거의 급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관(試官)들이 모여서 급제의 대상으로 뽑아 올린 시권(試券)을 다시 심사하는 일을 말한다.

144) 창방(唱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합격증(合格證)을 주는 일을 말한다. 대과(大科) 합격자에게는 홍패(紅牌)를 주고, 소과(小科) 합격자에게는 백패(白牌)를 준다.

懷事甚惡. 往壺洞, 見南參判叔侄辭別. 又往朴永平家, 則永平不在矣. 夕間丁友厚之來言, “再明當下去, 可以同行云, 而馬匹姑未得完定憫憫.

▪23일. 효교(孝橋)에 가서 오자유(吳子猷)를 만나 잠시 이야기하고 이동(泥洞)의 김 좌랑(金佐郎) 집에 갔더니 좌랑은 부재중이었다. 그의 형 용궁(龍宮)과 조 영유(趙永柔)가 자리에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어났다. 문을 나와 영유가 용궁에게 말한 것을 들었는데, 우리 집안 충효에 관한 일이 매우 상세하게 실려 있어 감동할 만하다고 하였다. 국동(國洞)의 연안(延安)에게 갔으나 연안은 바로 혜청(惠廳)¹⁴⁵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왔다. 미동(美洞)에 가서 이 영장(李營將)을 만났다. 그의 형 병사(兵使)는 출타 중이었다.

二十三日. 往孝橋, 見子猷小話, 往泥洞金佐郎家, 佐郎不在. 其兄龍宮及趙永柔在座, 相話而起. 出門聞永柔向龍宮而說, 吾家忠孝事, 甚悉可感. 往國洞延安, 方入直惠廳, 故不見而來. 往美洞, 見李營將, 其兄兵使出他矣.

▪24일. 밥을 먹은 뒤 곧바로 남동(南洞)에 가서 김사원(金士元) 형을 만났다. 대개 김사원이 양주에서 들어온 지는 겨우 이틀이 되었다고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김 남해(金南海)의 말을 빌려 의금부(義禁府)에 가서 장 병사(張兵使)에게 안부를 묻고 혜청(惠廳)에 가서 민 연안을 만났다. 또 예빈시(禮賓寺)¹⁴⁶ 안에 가서 명천(明川) 이행빈(李行彬)을 찾아갔는데, 며칠 전에 진위(振威)로 내려갔다고 한다. 명천은 집을 판 뒤에 이곳 진위로 옮겨 들어온 것이다.

알성과(謁聖科)¹⁴⁷에 오른 세 사람이 있으니, 첫 번째는 진사 권이강(權以

145) 혜청(惠廳) : 선혜청(宣惠廳)을 말한다. 대동법(大同法) 실시와 함께 대동미(大同米)대동포(大同布)대동전(大同錢)의 수납과 공가(貢價)의 지출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아문이다. 선조(宣祖) 41년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가 고종(高宗) 31년에 폐지하였다.

146) 예빈시(禮賓寺) : 조선시대 빈객의 연향(燕享)과 종실 및 재신(宰臣)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로, 정3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내려오다가 조선 후기에 종6품아문(從六品衙門)으로 격하되었다.

147) 알성과(謁聖科) : 국왕이 문묘에 참배한 뒤 성균관 유생에게 제술시험을 보여 성적이 우수한 몇 사람에게 급제를 주는 것으로, 문과와 무과의 두 과만 있었다. 알성문과는 국왕의 친림 하에 거행되던

綱), 두 번째는 진사 이동현(李東顯)이며, 세 번째는 목사(牧使) 민백흥(閔百興)으로, 고(故) 참판(參判) 민형수(閔亨洙)¹⁴⁸⁾의 아들이며, 고(故) 좌상(左相) 민진원(閔鎭遠)의 손자이며, 고(故)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의 증손이며, 고(故) 좌상 민백상(閔百相)의 아우이다.

二十四日. 食後卽往南洞, 見金兄士元, 盖士元自楊州入來者, 纔二日云. 回路借金南海馬匹, 往禁府問張兵使, 往惠廳見閔延安. 又往禮賓寺內, 訪李明川行彬, 而數日前下去振威云, 明川賣家後, 移入於此矣. 謁聖科取三人, 一乃進士權以綱, 二乃進士李東顯. 三乃牧使閔百興, 故參判亨洙之子, 故左相鎭遠之孫, 故驪陽府院君維重之曾孫, 故右相百相之弟也.

▪ 25일. 효교(孝橋)에 가서 오자유(吳子猷)를 만나 잠시 이야기하고 흥양군사 주인에게 가서 김한백(金漢白)을 만나고 왔다.

二十五日. 往孝橋, 見吳子猷小話, 往興陽軍士主人, 見金漢白而來.

▪ 26일. 흐리다. 회동(晦洞)에 가서 증숙을 만나고 시리문동(矢里門洞)에 갔는데, 흥승지가 체직되어 곧바로 교외(郊外)로 갔으므로 득아(得兒)의 시편을 찾아왔다. 낙동(駱洞)으로 가서 신계(新溪) 조영극(趙榮克)를 만나고 왔다. 돌아서 종현(鍾峴)으로 돌아 들어가니 임피(臨陂)는 광주(廣州)에 나가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二十六日. 陰. 往晦洞, 見仲叔, 往矢里門洞, 洪承旨遞職, 卽往郊外, 故推來得兒詩篇. 往駱洞, 見趙新溪而來. 回入鍾峴, 則臨陂出往廣州, 未得見而來.

▪ 27일. 가랑비가 오다.

二十七日. 微雨.

친림과(親臨科)의 하나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되며 시험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48) 민형수(閔亨洙) : 1690 ~ 1741.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자는 사장(士長)이다. 1741년 형조참판을 거쳐, 함경감사 때는 북관의 진보(鎭堡) 설치에 힘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해청미 일만곡(一萬斛)을 진휼 구제를 위한 물자로 이용하였으며, 그 해 변경순방을 하다가 괴한에게 장살되었다.

▪28일. 맑다. 문무과(文武科) 시험장이 열려 사람과 말을 탐문하는 일 때문에 경주인(京主人) 집에 갔다가 돌아왔다.

二十八日. 晴. 文武科開場, 以人馬探問事, 往京主人家而還.

▪29일. 남동의 사원(士元) 형이 사람을 보내 떠나기를 청하니 그의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오는 길에 생원 김정재(金定材)의 집에 들렀는데, 최생은 친구 정 지평(鄭持平)을 만나기 위해 양주로 갔다고 한다. 윤 조카가 와서 말하기를, “용재(龍才)가 날이 밝으면 출발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二十九日. 南洞士元兄, 送人請去, 往其家朝飯, 來路入金生員定材家, 崔生爲見其所親鄭持平, 往楊州云. 潤侄來言, “龍才明發還鄉云.”

▪30일. 아침을 먹기 전에 남대문 밖 박 침지의 집에 나가 용재와 함께 떠나기로 약속하고 돌아왔다. 낮에 주인 달경이 약간의 음식으로 전별해 주었다. 종헌(鍾峴)에 갔더니 입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없었고, 남동에 가서 석사 김정재를 만나고 왔다. 또 석산에 가서 참봉(參奉) 박종식(朴宗植) 형제를 만난 다음 또 효교(孝橋)에 가서 오자유를 만났는데, 자유가 이별할 때에 거의 눈물을 흘릴 지경까지 이르니 나 또한 서글픈 마음 금하기 어려웠지만 헤어지고 돌아왔다. 저녁에 생원 박도규(朴道揆)와 영평(永平) 박명양(朴鳴陽)이 찾아와서 작별하고, 웅천(熊川) 이담(李潭)도 와서 작별하였으며, 김정재와 박종식 형제 및 그 종제도 왔다. 김양필(金良弼) 남해(南海)가 와서 작별하더니 대곡(大谷)이 전한 편지를 주면서 황중석(黃重錫)의 집에 보내 달라고 했다.

저녁을 먹을 때 달경이 여러 학동들을 데리고 행장을 꾸려 주었다. 이돌득(李奭得)이 침 2봉과 붓 2자루를 가지고 와서 선물하고, 이경손(李慶孫)도 또한 한 봉의 침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었으며, 주인 맥도 지분(脂粉)과 산초 등 각종 물건을 보내 주었고, 수례(水禮)도 또한 지분(脂粉)과 산초 조금을 넣어 주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에 학동 돌득(奭得) 경손(慶孫)계흥(季興)오수(五秀)몽술(夢述)암회(巖回)수강(壽崗)귀수(龜

壽) 등이 소찬(小饌)을 마련하여 전별연을 베풀어주니 매우 감사하였다.

저녁에 조카 윤이 자수(子修)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이 편지는 서몽수(徐夢修)가 가지고 와서 상경하였는데, 3월 13일에 발송한 것이었다. 편지 안에는 집안 아이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이 들어 있었는데, 차도가 있는 지 오래지 않았다고 한다. 객지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으니 놀랍고 염려스런 마음 어찌 끝이 있겠는가.

三十日. 朝前出往南大門外朴僉知家, 與龍才約行而還. 午間主人達卿, 以略干飲食餞行. 往鍾峴, 則臨陂尙不還, 故未得辭別, 往南洞, 見金碩士定材而來. 又往石山, 見朴參奉宗植兄弟, 又往孝橋, 見吳子猶, 子猶臨別, 幾至墮淚, 余亦難禁悲懷, 分手而還. 夕間朴生員道揆朴永平鳴陽來別, 李熊川潭來別, 金定材朴宗植兄弟及其從弟亦來. 金良弼南海來別, 付大谷所傳東封, 而去黃重錫家送來. 夕飯達卿率諸學童, 封裹行裝. 李彥得以針二封筆二枝來贈, 李慶孫亦以一封針來贈, 主人宅以脂粉椒各種出送, 水禮亦納脂粉及椒小許. 入夜就枕之際, 學童彥得慶孫季興五秀夢述巖回壽崗龜壽等, 備納小饌, 以爲餞行感感. 夕間潤侄持子修書柬而來云. 是徐夢修持來上京, 三月十三日出也. 書中有家兒病報, 而得差非久云. 客裡聞此, 驚慮曷極.

■4월 1일. 맑다. 새벽밥을 먹고 달경과 효백, 그리고 학동들과 손을 맞잡고 작별을 고하는데 서운한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다. 회동에 이르러 중숙과 조카 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하는데, 중숙이 “계통(季通)의 편지에 ‘당산(堂山)에 있는 선조의 묘소에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적합한 곳으로 안치하는 문서에 대한 일은 수영(水營)에서 관문(關文)¹⁴⁹⁾을 발송하여 내주었다.’라고 하니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남대문 밖 박 선달의 집에 이르니 용재(龍才)가 윤세권(尹世權)이 과거보는 일 때문에 오늘 길을 떠날 수 없을 듯하다고 하니 매우 고민스럽다.

저녁에 송재윤(宋再允)이 와서 말하기를, “해의(海衣) 네 바리를 신고 오는데, 교활한 무리들의 술수에 잘못 걸려들어서 지금 효교항(孝橋項)

149) 관문(關文) : ‘관(關)’ 또는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동등한 관아 사이에 주고받는 평관(平關)이나,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관용문서를 이른다.

에 머물러 있고, 동면(東面) 기가(奇家)의 마필을 세내어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미 그 말을 방매(放賣, 물건을 내놓고 마구 팔)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빌려주어 내려 보내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 좋을 듯합니다. 게다가 만일 말을 빌리지 못한다면 내가 내려갈 방도가 없으니 부디 잘 헤아려 조처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언급하니, 송재윤이 깊이 생각하다가 한참 만에 말하기를, “마땅히 동행과 상의하여 내일 일찍 나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四月初一日。晴。曉飯與達卿孝伯及學童輩，搯手告別，悵然尤切。到晦洞，與仲叔潤侄立談相別，仲叔云，“季通書中，有堂山先墓，宜松案置簿事，自水營發關出給云，喜幸。”抵南大門外朴先達家，龍才以尹世權科事，今日似未發程云，憫憫。夕間宋再允來言，“載來海衣四駄，而誤入於猾輩術中，方住孝橋項，東面奇家馬匹，出貰以來云。”故余言“既不放賣其馬，則借余以爲下送，大有便好。且若不借，則余之下去，末由致身，幸須量處。”懇懇不已，則宋再允深思，良久曰：“當與同行相議，明早出來矣。”

▪2일. 새벽에 송재윤이 문내로 들어가더니 식사 때가 되도록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답답하였다. 전하여 듣기를, 난전(亂廛)¹⁵⁰으로 들어가니 가지고 온 해의(海衣)가 모두 본전(本廛)으로 실려 들어가서 물건의 주인인 송재윤과 주인을 구박하여 내쫓으니 말을 보낼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고 염려되어 용재를 본전으로 권하여 보내고, 또 중숙에게 통지하여 변통할 방도를 찾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들으니, 큰일이 아니었다. 기씨(奇氏) 마필은 서몽수(徐夢修)와 송당(宋堂) 두 사람이 끌고 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용재와 백량, 윤 서방 등 여러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났다. 동진(銅津)을 건너 갈산(葛山)에 이르러서 말편자를 끼우고 인하여 유숙하였다. 말이 없어 염려하던

150) 난전(亂廛) : 조선시대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하는 상인 및 상점을 말한다. 즉 시전(市廛) 상인 이외의 한성(漢城) 내외의 모든 상행위자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고 한성 내의 상업에 독점하고 있는 시전 상인의 이익을 가로챘기 때문에 정부와 시전 상인의 규제를 함께 받았다.

중에 우연히 기씨(奇氏)의 말을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으나 그 말이 등에 상처를 입고 발을 절뚝거리니 몹시 염려스러웠다.

初二日. 曉宋再允入去門內, 至于食時不來, 故方切泄菀矣. 傳聞入於亂塵, 所持海衣, 盡爲輸入於本廬, 物主宋再允及主人, 驅迫以去, 無暇於送馬云, 故不勝驚慮. 勸送龍才于本廬, 且爲通奇於仲叔, 以爲變通之地矣. 俄聞不至大端, 奇馬徐夢修宋堂兩人持來, 故小話後, 與龍才白郎尹書房諸人作行. 渡銅津, 抵葛山插馬鐵, 因爲留宿. 無馬憫慮中, 偶得奇鬣雖幸, 而厥馬背傷足蹇, 旋切慮慮.

▪3일. 가랑비가 내리다. 새벽에 출발하여 축저(築底)에서 아침을 먹었다. 갈원(葛院)에서 낮에 말에게 꼴을 먹이고 성환(成歡)에 이르자 밤은 거의 이경(二更)이 되었다. 종일 비에 젖어 몸에 냉기가 심하니 주인집의 내막(內幕)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조리하였는데, 윤 서방과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웠다. 윤 서방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소사(素沙)를 건너다 보니 진흙탕 속에서 여러 번 얹어지고 넘어지며 고생스럽게 도착하였다.

初三日. 微雨. 曉發築底朝飯, 葛院午秣, 抵成歡, 夜幾二更. 終日沾濕, 體甚寒冷. 入處主漢內幕, 調理達宵, 而與尹書房聯枕. 尹以無馬之故, 徒涉素沙, 泥路累顛累沛, 艱以得達矣.

▪4일. 새벽녘에 비가 조금 개어서 길을 떠나 김제(金梯)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비 기운이 다시 일어나 옷이 다 젖어 냉기가 뺏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동행이 길을 재촉하였기 때문에 간신히 길을 나섰다. 말이 약하여 혹은 걷기도 하고 타기도 했기에 날이 저문 뒤에야 모로원(暮路院)에 이르렀다.

初四日. 曉初稍霽發行, 抵金梯朝飯. 雨勢更作, 衣裾盡濕, 冷氣透骨, 而同行促程, 故艱辛登道. 以馬弱或步或騎, 日婚後, 抵暮路院.

▪5일. 새벽에 출발할 때에 비가 개지 않을 것 같았기에 옷을 벗어서 짐에 싣고 다만 훌적삼과 버선만 신고 출발했다. 하늘 바람이 크게 몰아치고 온몸에 오한이 드니 참으로 우스운 모양새였는데, 금강(錦江)을 건널 때에는

패랭이[笠帽]마저 잃어버렸으니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정천(定川)에서 아침을 먹고 황화정(皇華亭)에 이르렀다. 김일담(金日淡)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서 함께 유숙하였다. 대개 김일담은 서울에서 먼저 작별을 고하였는데, 며칠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빗을 내어 말을 사서 지금에야 비로소 도착했다고 한다.

初五日. 曉發時雨似不霽, 故脫衣載卜, 只着單衫暢衣及襪而發行矣. 天風大起, 寒粟遍身, 可笑可笑. 渡錦江之際, 笠冒失之, 尤切憤憤. 定川朝飯, 抵皇華亭. 金日淡逢於此處, 因與同宿. 蓋金於京裡先爲告別, 而盤桓數日, 得債買鬻, 今始到來云.

▪6일. 맑다. 새벽에 출발하여 삼례(參禮)로 내려가 아침을 먹고 애당(艾堂)에 이르렀다. 김일담(金日淡)은 말이 둔하여 뒤처졌다. 흥양의 하인 박치근(朴致謹)을 한벽당(寒碧堂) 앞길에서 만났는데, 그는 호적색(戶籍色)¹⁵¹⁾을 마감하려는 일로 상경했다고 한다. 1전의 돈을 내주었다.

初六日. 晴. 曉發下參禮朝飯, 抵艾堂. 金日淡馬鈍落後. 逢興陽下人朴致謹於寒碧堂前路. 渠以戶籍色磨勘次上京云. 納一錢.

▪7일. 새벽에 출발하여 오원(烏院)에 이르자 빗줄기가 다시 일어나 온몸이 흠뻑 젖었다. 오수(獐樹, 전라북도 임실군 소재)에 이르러서는 한기가 크게 일어나니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용재는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다는 기별을 들었기 때문에 밤새 달려갈 작정을 하고 갈림길에서 증산(甌山)으로 향했는데, 윤세권(尹世權)이 따라갔다. 백랑(白郎)은 그의 형을 만나기 위하여 남원 읍내로 향했는데, 그가 가지고 온 말이 사나웠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며 먼저 떠나고 나만 홀로 뒤처져 가게 되었다. 먼 길을 함께 어울려 올 수 있었기에 그다지 적적하지도 않고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갑자기 흩어지게 되어 마치 짝을 잃은 외기러기와 같으니

151) 호적색(戶籍色) : 고려조선시대 향리의 한 계층으로, 고을의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한 부서를 말한다. 이들은 색리(色吏)라고 하며 신분은 지배구조에서 하부를 맡고 있었으나 천역에 가까운 모든 향역을 부담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처지는 천인과 다를 바 없었다.

마음이 자못 좋지만은 않았다. 요천(蓼川)¹⁵²에 이르자 물이 불어나 다리가 끊어져서 어렵사리 하천을 건너는데, 마음이 몹시 두려웠다. 해질 무렵에 원천(源川)의 노랑(盧郎) 집에 도착하였다.

初七日. 曉發抵烏院, 雨勢更作, 滿體沾濕. 抵檠樹寒氣大發, 誠極難堪. 朝飯後, 龍才以母病聞奇之故, 罔夜馳去爲計, 分路向甌山, 而尹世權隨行. 白郎爲見其兄, 向南原邑內, 而以其所持馬之驕惡, 着鞭先去, 余獨後行. 長道聯翩, 不甚寂寥, 稍以慰懷矣. 遽然分散, 有若失侶之孤鴻, 心事頗惡. 到蓼川, 水漲橋斷, 艱以渡川, 心甚危凜. 日暮時, 抵源川盧郎家.

■8일. 맑다. 수철동(水鐵洞)에 가서 노사중(盧思仲)을 만나려 했지만 그가 역병을 앓은 뒤라 만나지 못하였다. 점심을 먹은 뒤에 노랑(盧郎)의 집으로 돌아왔다.

初八日. 晴. 往水鐵洞, 見盧思仲, 蓋其經疫後未見也. 點心後, 還盧郎家.

■9일. 새벽에 출발하여 곡성(谷城) 읍내에서 아침을 먹었다. 백량은 아직 그 주막에 있었고 윤세권도 또한 있었기에 잠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석곡(石谷)에서 조금 말에게 꼴을 먹이고 해가 이미 저물어서 빨리 달려 입지(笠旨) 나루를 건너 천평(泉坪)의 종길 집에 이르니, 밤이 거의 이경(二更)이 되었다.

初九日. 曉發谷城邑內朝飯. 白郎尚在其幕, 尹世權亦在, 暫時相話. 石谷小秣, 日已黃昏, 而疾馳渡笠旨津, 抵泉坪從侄家, 夜幾二更矣.

■10일. 아침에 달경을 보내어 월등(月燈)의 편지를 주암동(朱巖洞) 김약승(金若承)의 집에 전달하게 했다. 아울러 이아(李兒)의 역병 앓은 소식을 탐문하니, 회보하기를, “6일에 성서(聖瑞)를 만났더니, 그 아이가 역병을 앓은 지 닷새가 되었는데도 병세가 매우 가볍지 않았는데, 그 뒤로는

152) 요천(蓼川):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과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사이를 흐르는 하천으로, 장수군의 일부와 남원시 중앙부의 산지와 구릉의 물을 모은 다음, 섬진강으로 들어간 후 남해로 흘러든다. 요천 유역은 남동-북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망측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쾌차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을 형용할 수가 없다. 벗 김경진(金景晉) 및 여러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월에 상경하였을 때, 조카 집에 도착하여 옴을 치료하기 위해 독한 약을 많이 썼지만, 종질의 아들 응진(應眞)은 막 역질을 앓아서 처음에는 자못 순조로웠다. 그런데 내가 옴을 치료한 뒤부터는 증세가 크게 변하여 가려운 데를 긁는 것 같더니 점차 위태로운 징후가 나타나 온 집안이 놀라 당황하였고, 나도 또한 걱정스러워 목욕재계하고 이른바 신상(神床) 앞에 나아가 몸소 기원하였다. 그렇게 몹시 염려하고 있던 즈음에, 한동(閑洞)의 중질(仲侄)이 말과 복물(卜物)을 가지고 득아(得兒)와 함께 올라왔다. 그러므로 하룻밤을 묵은 뒤에 곧바로 서울로 출발하였는데, 내려올 때까지 기별을 듣지 못했었다. 이제 바야흐로 되돌아와서 마음에 매우 염려가 되어 문에 들어가 먼저 아이들의 역병앓이가 좋아졌는가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숙부님께서 가신 뒤로 무사히 순조롭게 잘 지나가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다행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하랴.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 일척(一陟) 대사에게 안부를 묻기 위하여 송광사에 이르렀으나 일척 스님은 출타 중이어서 다만 관희(冠熙)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희는 지금 주지로 있다. 밥을 먹은 뒤에 대곡(大谷, 순천시 송광면 소재)의 벗 조자정(趙子貞)의 집에 이르니 놀라고 반가워하며 극구 만류하였지만 길을 나섰다. 조 서방(趙書房)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다만 그의 아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우산(牛山)으로 향하여 전엽선(田葉善)의 집에 이르렀다. 그에게 말을 잘 먹이게 하고 저녁을 먹은 뒤에 매정(梅亭)으로 내려와서 안제여(安濟汝)의 귀연에 조문하였다. 신기(新基, 벌교 신기마을)의 용여(用汝) 형 집에 가서 유숙하였는데, 용여 형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담을 나누다가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初十日. 朝送達卿, 傳去月燈書柬朱巖洞金若承家. 兼爲探問李兒經疫消息, 則回報內, 初六日見聖瑞, 言其兒痛疫者, 方五日症甚不輕, 而厥後不知云. 可想其不至於罔測之境, 然未得快知, 菀菀難狀. 與金友景晉及諸人相話. 正月上京時, 來到侄家, 治療疥瘡, 多施毒藥, 從侄之子應眞, 方患疫疾, 初

則頗順矣. 自吾治瘡之後, 症情大變, 恰似搔疥之狀, 漸有危徵, 舉家驚惶, 余亦憂憫, 沐浴親禱于所謂神床之前. 深以爲慮之際, 閑洞仲侄, 持馬與卜物, 偕得兒上來, 故經宿後, 卽發京行, 而迄于下來, 未聞奇別. 今方回到, 心切慮念, 入門先問兒輩疫行善否, 則答云“叔主去後, 無事順行, 今至完蘇.” 其幸曷喻. 食後登道, 爲問一陟師, 抵松寺, 陟僧出他, 只與冠熙相話, 熙也方爲住持. 飯後抵大谷趙友子貞家, 驚喜堅挽而離發, 尋趙書房不見, 只與其內小話, 向牛山抵田葉善家. 使之善喂馬匹, 夕飯後, 下來梅亭, 弔安濟汝几筵. 往新基用汝兄家留宿, 與用汝臺臺款話, 夜深就睡.

▪11일. 아침을 먹기 전에 주인 집 노복을 빌려 홍 의원(洪醫院)에게 전갈하게 하고, 아울러 표유장(表有章)과 임성원(林聖元) 두 사람에게 안부를 물게 했다. 홍 의원은 출타 중이었고, 표유장은 곧바로 와서 나에게 그 집으로 가서 아침을 먹기를 청했는데, 용여(用汝)가 만류하며 잡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 밥을 먹은 뒤에 전엽선의 집으로 와서 짐을 꾸리고 출발하여 백헌(栢峴)에 이르렀다. 이날 밤에 큰비가 왔다.

十一日. 朝前借主家奴, 傳囑于洪醫, 兼問表有章林聖元兩人矣. 洪則出他表也卽來請余往其家朝飯云, 而用汝挽執, 故未得去. 食後來田家, 裝發抵栢峴, 是夜大雨.

▪12일. 흐리다. 길을 떠나 동면(東面) 기씨 집에 이르러 말을 얻어 내려온 곡절을 말해 주었다. 당동(堂洞)에 이르러 군실씨(君實氏) 형님을 만나고 점심을 먹은 후에 사면교(四面橋)를 지나 응창(應昌)을 불러 만났는데, 중숙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해가 저문 뒤에 집으로 돌아오니 득아(得兒)의 병이 조금 회복되었다.

十二日. 陰. 離發抵東面奇家, 言得馬下來之由. 抵堂洞, 見君實氏兄主, 點心後, 歷四面橋, 招見應昌, 言仲叔下來之奇. 日暮後還家, 得兒稍蘇矣.

서울 안 각 덕에 해의(海衣)를 나누어 보낸 기록
京中 各宅海衣分送記

- 아현 이 판서 덕 5.
阿峴李判書宅 五
난동 유 정승 덕 5.
蘭洞俞政丞宅 五
미강 김 참의 덕 3.
渼江金參議宅 三
호동 남 참판 덕 3.
壺洞南參判宅 三
남 예안 덕 3.
南禮安宅 三
계동 안 지평 덕 2.
桂洞安砥平宅 二
국동 민 연안 덕 5.
國洞閔延安宅 五
국동 송 승지 덕 2.
國洞宋承旨宅 二
장동 조 대사성 덕 3.
壯洞趙大司成宅 三
이 대사간 덕 3.
李大司諫宅 三
홍 시직 향거 덕 2.
洪侍直鄉居宅 二
사동 김 판서 덕 5.
社洞金判書宅 五
계동 홍 판서 덕 5.
桂洞洪判書宅 五

서소문 밖 민 정랑 대 3.
 西小門外閔正郎宅 三
 서소문 밖 남 승지 대 3.
 西小門外南承旨宅 三
 팔각정 이 대사간 대 3.
 八角井李大司諫宅 三
 낙동 조 신계 대 2.
 駱洞趙新溪宅 二
 용동 윤 판서 대 5.
 龍洞尹判書宅 五
 수락교 윤 판서 대 5.
 水閣橋尹判書宅 五
 남대문 안 장 병사 대 3.
 南大門內張兵使宅 三
 정동 이 감찰 대 2.
 貞洞李監察宅 二
 정동 이 생원 대 2.
 貞洞李生員宅 二
 명동 이 교리 향거 대 2.
 明洞李校理鄉居宅 二
 종현 한 임피 대 3.
 鍾峴韓臨陂宅 三
 회동 홍 능주 대 2.
 晦洞洪綾州宅 二
 석산 박 유선 대 5.
 石山朴諭善宅 五
 쌍동 박영평 대 2.
 雙洞朴永平宅 二
 박 생원 대 1.

朴生員宅 一
인현 윤 생원 덕 2.
仁峴尹生員宅 二
부동 백 생원 덕 1.
部洞白生員宅 一
시리문동 홍 승지 덕 3.
矢里門洞洪承旨宅 三
남수동 김 생원 덕 3.
南水洞 金生員宅 三
어영창동 김 생원 덕 2.
御營倉洞金生員宅 二
회덕 송유선 덕 3.
懷德宋諭善宅 三
수원 송 세마 덕 3.
水原宋洗馬宅 三
여주 민위솔 외방덕 2.
呂州閔衛率外方宅 二
용진 한 참봉 덕 3.
龍津韓參奉宅 三
이안 김 부학 덕 3.
梨岸金副學宅 三
안산 조 판서 향거덕 3.
安山趙判書鄉居宅 三
포천 최 선달 덕 1.
抱川崔先達宅 一
미동 이 병사 덕 3.
美洞李兵使宅 三
이 영장 덕 2.
李營將宅 二

주현 전 병사 덕 3.
珠峴田兵使宅 三
주동 정 병사 덕 1.
鑄洞鄭兵使宅 一
원흥보 1
元興甫 一
조해명 1
趙海明 一
최상운 1.
崔尙雲 一
종 수례 1.
婢水禮 一.

연영노정기 계미년(1763) 1월

蓮營路程記 癸未正月

▪19일. 출발해서 가사(伽寺)에서 묵었다.

十九日. 離發宿伽寺.

▪20일. 한동(閑洞)¹⁵³으로 내려가서 종형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질아(侄兒)를 데리고 여진(呂鎭)에 이르렀다. 군관청(軍官廳)에서 잠시 쉬었다가 요기를 한 뒤에 송일갑(宋日甲)을 찾아가서 만났다. 성 밖으로 나가 배를 타고 곡포(曲浦) 강변으로 내려가 목관문(牧官門)밖의 마을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순천 땅이다.

二十日. 下去閑洞, 與從兄暫話, 率侄兒抵呂鎭. 小憩于軍官廳, 療飢後, 往見宋日甲. 出城外登船, 下曲浦江邊, 抵牧官門外閭家留宿. 順天地也.

▪21일. 출발하여 가는 길에 가사승(伽寺僧) 견안(見安)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40리를 가서 수영(水營)의 동문(東門) 안 안택인(安宅仁)의 집에 이르렀다. 택인은 바로 흥양(興陽) 사람으로 이곳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박희동(朴希東)과 이광주(李匡周)는 이미 벌써 여기에 와 있었으므로 도착하자마자 그들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광주는 어떤 사람의 요청을 받아 산을 둘러보려고¹⁵⁴ 나갔고 박희동은 수영에 있다고 한다.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통하게 하였더니 저녁에 와서 만났다.

二十一日. 離發路逢伽寺僧見安暫話. 行四十里, 抵水營東門內安宅仁家, 宅仁卽興陽人來居者也. 朴希東李匡周, 曾已來此, 故到卽問之, 李則爲人所請, 看山次出去, 朴則在營云. 使人通奇, 夕間來見.

▪22일. 아침을 먹기 전에 이 생원이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왔다.

153) 한동(閑洞)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住巖面)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154) 산을 둘러보려고 : 원문의 '간산(看山)'은 뒷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산을 돌아보는 것을 말한다.

사원(士元)을 시켜서 백비(白裊)에게 통지하게 하였더니, 백비가 곧바로 만나려 하지 않고 핑계 대는 듯하다고 하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운 일이다. 머물러 기다리고 싶지 않으니 곧장 돌아가야 하는데, 발이 부르터서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누워 병을 조섭하는 동안 하루를 보내기가 삼년과도 같았으니 분한 마음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해 보면, 공자 같은 성인도 오히려 하수(河水)에 이르러 탄식함이 있었으니,¹⁵⁵⁾ 건너지 못한 것이나 보지 못한 것이나 모두 운명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조금 늦게 생원 박상후(朴尙厚)가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의 말로는 자기는 서울 사람이며 어린 나이에 영남 밀양(密陽)으로 우거하러 왔고, 또 밀양으로부터 와서 수영 동문 밖에 거처하고 있다고 했다. 한나절을 머물며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초시(初試)에 여러 번 입격하였고 매문(每文)¹⁵⁶⁾을 모두 잘하며, 16살인 그의 아들도 또한 저술에 능하여 더욱 필재(筆才)가 있다고 하였다. 주인 택인의 숙부 흥재(興才)가 또 나루를 건너서 오고, 택인의 장인인 동지(同知) 임치만(林致萬)도 저녁에 와서 보았다. 임치만 또한 원래 흥양 사람으로 수영에 와서 거주하였는데, 일찍이 장교를 지냈고 집안 살림이 그런대로 탄탄하여 자못 인사를 알아 바야흐로 본영의 초기(抄飢, 기민(飢民)의 실태 파악)를 맡고 있었다. 사원은 복술(卜術)로 영(營) 안에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되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람에 쓸리듯 몰려들었지만 오히려 보지를 못했고, 수사(水使)나 군관청(軍官廳)에서 다투어 맞이하여 갔다.

二十二日. 朝前李生員, 聞吾之來來見. 使士元通于白裊, 則白裊不卽邀見, 似有稱托之舉云, 人心誠可難測也. 不欲留待, 卽當復路, 而足繭未動. 臥而調病, 度一日如三秋, 憤莫甚焉. 然自內念孔聖, 尙有臨河之歎, 不濟與未見,

155) 하수(河水)에 …… 있었으니 : 《사기》〈공자세가〉에, 공자가 위(衛)나라에서 등용되지 못하자, 진(晉)나라로 가서 조간자를 만나려 하였는데, 하수에 이르렀을 때 조간자가 정관을 잡고 어진 대부인 두명독(賣鳴犢)과 순화(舜華)를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강물에 서서 탄식하기를, “아름답다, 물이여. 넓고도 넓구나. 내가 이 물을 건너지 못하는 운명이로다.[美哉水, 洋洋乎. 丘之不濟此, 命也夫.]” 하였다.

156) 매문(每文) : 시(詩), 부(賦), 전기(傳記), 책(策) 따위의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을 말한다.

均是命也奈何. 稍晚朴生員尙厚來見, 自言京人早年寓居于嶺南密陽, 又自密陽來接于水營東門外. 留話半日, 屢占初解, 每文皆善, 其子年十六者, 亦能著述, 尤有筆才云矣. 主人宅仁之叔興才, 又越津而來, 宅仁之妻父林同知致萬, 夕間來見. 林亦原來興陽之人, 來居水營, 曾經將校, 家計稍強, 頗知人事, 方爲本營抄飢所任矣. 士元以卜術大鳴於營中, 欲見者風靡輻湊, 而猶不得見, 水使及軍官廳, 爭爲邀去矣.

▪23일, 바람 불고 흐리다. 밥을 먹은 뒤 출발하여 동문 밖으로 나가 잠시 생원 박상후(朴尙厚)가 우거한 곳에 들러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바로 일어나 충민사(忠愍祠)¹⁵⁷에 이르러 참배를 하니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다. 우리 일행은 곡포 나루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 서이산(鼠耳山) 마을의 상중(喪中)인 박경조(朴景肇)의 집에 찾아갔다. 박경조는 전에 통영 길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또한 생원 이광주와 친분이 있는 주인이다. 지금 그 아버지의 상을 당했다고 하였기에 겸하여 위문하고서 또 유숙하기 위해 저녁을 틈타 문을 두드리니, 상중(喪中)인 박경조가 반갑게 맞이하였다. 다음 날 아침밥을 지어 동행한 다섯 사람을 대접해 주었다. 흉년에 이러한 일은 또한 쉽지 않을 것인데, 그 사람의 순실(純實)함을 알 수가 있었다.

二十三日. 風而陰. 食後離發, 出東門外, 暫入朴生員尙厚寓所, 小話卽起, 抵忠愍祠參謁, 日已晚矣. 度吾行不能得達曲浦津頭, 尋往鼠耳山村朴喪人景肇家. 朴郎曾前一見於統營之行, 而亦李生員匡周所親主人也. 今遭其父之喪云, 兼爲慰問, 因且留宿, 乘暮扣門, 則朴哀欣接. 翌朝晉飯, 以待同行五人. 凶年此事, 亦不易矣, 可知其人之純實也.

▪24일. 날씨가 맑고 화창하니 다행이다. 안흥재(安興才)가 어제 중도에 뒤따라 도착하였으므로 동행들과 함께 유숙하였었다. 일찍 출발하여 나루에 이르렀더니, 나룻배는 이미 여도(呂島) 사람들의 땀나무와 짐을 싣고서

157) 충민사(忠愍祠) :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조선 시대의 사당으로, 선조 34년(1601)에 영의정 이항복의 청으로 충무공 이순신·의민공 이억기·충현공 안홍국(安弘國)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웠다. 고종 5년(1868)에 서원 철폐령으로 폐지하였다가 고종 10년(1873)에 다시 세웠다.

땀줄을 풀고 바다에 띄워져 있었다. 그러므로 급히 사람을 시켜 불러 멈추게 한 뒤에 걸음을 재촉하여 앞으로 나아가 간신히 배에 올랐다. 그러나 바람의 형세가 순조롭지 않고 조수마저 물러가니 강 북판에서 뚱뚱 떠가다가 매우 늦게 여진(呂鎭)의 동쪽 물가에 도착한 뒤에야 물에 내릴 수 있었다. 김일갑(金日甲)의 아우네 집에 찾아가서 제사를 무사히 잘 지냈는가를 물었다. 대개 이날 새벽은 바로 일갑이 세상을 떠난 지 만 2년으로, 대상 날이다. 그런데 일갑의 조모인 90세 늙은 노파가 노환으로 숨이 끊어질 듯하다가 이제는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정리(情理)로 볼 때 절박(切迫)한 일이다.

잠시 쉼 뒤에 가서 이곳에 우거하는 청담(淸潭) 동종(同宗)에 대해 묻고 그길로 군관청으로 향하여 지난번에 잘 대접해 준 뜻에 감사하고 곧바로 출발하려 하자 또 극구 만류하며 잡으니, 여러 사람들의 근후한 정성을 볼 수 있었다. 오는 길에 동지(同知) 김시택(金時澤)의 집에 들러 몇 마디 인사를 나누는 뒤에 곧바로 일어나서 왔다.

한동의 중형네 집에 이르니 보이는 형편이 절박하고 단지 껌보리[皮牟] 두어 말만 있을 뿐인데, 굶주림에 허덕이는 딸린 식구 중에 한 사람 몫을 삭감했다고 했다. 또 우리 집안의 굶주린 식구 또한 1구(口)를 줄이라는 기별을 듣고서야 비로소 우리 중형제의 식복이 너무 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사(伽寺)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四日。日氣淸和，可幸。安興才昨日追到於中路，故同行同宿。早發抵津頭，津船已載呂島人柴卜，解纜浮海，故急使人招，而挽止後，促步前進，艱以登船。風勢不順，潮且退矣，泛泛中流，最久到泊于呂鎭東涯下陸。訪金日甲弟家，問其行祀利成。蓋是曉乃日甲再募，終祥之日，而日甲祖母九十歲老媪，氣息奄奄，方至危境云，情理切迫矣。小憩後，往問淸潭同宗之寓居此鎭者，因向軍官廳，謝其往者善待之意，卽爲離發，則又多挽執，可見諸人之勤厚也。來路暫入金同知時澤家，數語後，卽爲起來。抵閑洞從兄家，所見切迫，只有皮牟數斗，而所付飢口，削減一命云。且聞吾家飢口，亦爲數減一口之奇，始知吾從兄弟食福之太薄也。到伽寺留宿。

▪25일. 한동의 아노(兒奴)가 오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출발하여 사리동(沙里洞)의 오팔억(吳八億)을 방문하였다. 또 평해(平海) 김석규(金錫奎)와 장흡(張洽)의 집에 들렀으나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였고, 송 선달도 또한 부재중이었다. 어둠을 틈타 집으로 돌아왔다.

안자의 안빈낙도 ¹⁵⁸⁾ 배우지 못함이 부끄럽도다	自愧安貧未學顏
조각배는 물과 구름 ¹⁵⁹⁾ 사이 물결 따라 떠가네	扁舟浪泛水雲間
사람 마음 험난한 바다 물결 같음을 깨달았도다	人心始覺溟波險
말없이 아침 창가에 푸른 산을 마주하네	無語朝窓對碧山

경영한 바가 뜻대로 되지 않음을 탄식하고 허망한 여행길이 된 것을 후회하며 읊어보았다.

二十五日. 小待閑洞兒奴之來而離發, 歷訪沙里洞吳八億. 又入平海金錫奎張洽家, 出他未逢, 宋先達亦不在矣. 乘昏還家. “自愧安貧未學顏, 扁舟浪泛水雲間. 人心始覺溟波險, 無語朝窓對碧山.” 歎所營不如意, 悔作妄行而吟.

158) 안자의 안빈낙도 : 《논어》〈雍야(雍也)〉에서 “어질다, 안회여.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박 물을 마시며 누향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근심하며 견뎌 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낙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라고 하였다.

159) 물과 구름 : ‘수운(水雲)’은 ‘수운향(水雲鄉)’의 준말로, 물이 흐르고 구름이 떠도는 맑고 그윽한 곳을 말한다. 즉, 은자(隱者)가 거처하는 청유(淸幽)한 지방을 가리킨다.

서유경조록 재미년(1763) 8월

산양, 예양, 금릉, 당악

西遊慶弔錄 癸未八月 山陽 汭陽 金陵 棠岳

▪8월 15일. 맑다. 조금 느즈막에 한동의 종형과 함께 출발하였는데, 어린 노복 막대(莫大)가 약간의 행장을 짊어지고 따라왔다. 대지팡이에 짊신 차림으로 대사동(大寺洞) 황회일(黃會一)의 집에 도착하였다. 저녁에 나루를 건너기 위해 서둘러 저녁밥을 차려 먹고 달빛을 밟으며 나루에 이르렀다. 곧바로 배를 타고 돛을 올리니 순식간에 벌써 청암(靑巖)에 배를 대었다. 바람의 형세가 매우 순조로워서 배가 나는 듯이 나아갔는데, 때때로 간혹 지난해 송수관(宋壽觀)의 위태로웠던 일이 생각나서 몹시도 두렵고 겁이 났다. 육지에 내린 뒤에 천천히 걸어서 예진(曳津)을 지나 사치(寫峙)를 넘어 두촌(頭村)의 박숙(朴叔) 집에 이르자 닭이 세 번째 울었다.

十五日. 晴. 稍晚與閑洞從兄離發, 小奴莫大負略干行裝而從焉. 竹杖芒鞋, 到大寺洞黃會一家. 夕間越津次, 促進夕飯, 步月抵津頭, 即乘船舉帆, 瞬息已泊靑巖矣. 風勢雖極順, 船行如飛, 而時或念及於去年宋壽觀事, 懷懷可怕. 下陸後, 緩步徐行, 歷曳津, 踰寫峙, 抵頭村朴叔家, 鷄三鳴矣.

▪16일. 맑다. 밥을 먹은 뒤에 운추(韻秋) 김대이(金大而)의 아들을 방문하여 잠시 이야기를 하였다. 일전에 초토(草土)에 있을 때에 내가 출타하여 안부를 묻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원교(東院橋)를 건너 교촌(校村)의 박천방(朴天邦)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는 바로 가아(家兒)가 머물렀던 집의 주인이다. 집은 부자묘(夫子廟) 서쪽 담장 아래에 위치하였는데, 때마침 찬배(贊拜)¹⁶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날은 밤길을 걸어오느라 피곤하여서 종형제가 토상(土床)에서 혼절하니 친구의 방문을 살피지 못하였다.

十六日. 晴. 食後歷訪金韻秋大而是子暫紱, 曾在草土時, 以吾出他未問之

160) 찬배(贊拜) : 의식을 거행할 때, 절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절차를 소리쳐 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由. 渡東院橋, 抵校村朴天邦家, 乃家兒所住主人也. 家在夫子廟西墻下, 時聞贊拜之聲矣. 是日以夜行路困, 從兄弟昏倒土床, 不省親舊之來訪.

▪ 17일. 맑다. 가아(家兒)를 만나 시험도구를 갖추고 과거장을 출입하기 위하여 그대로 주인집에서 머물다가 종이를 파는 시전(市廛)이 오동(梧洞)과 조동(槽洞) 사이 큰길가에 나왔다고 들었다. 혹여 옛날 아는 얼굴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종형과 함께 가서 보니 오는 자와 말하는 자 모두 청춘소년(靑春少年)들로, 나처럼 노쇠한 늙은이는 하나도 없음을 알 수가 있었다. 조금 앞았다가 바로 일어나 안창록(安昌錄)의 궤연에 가서 조문하고 원중(元仲) 안창언(安昌彦)을 방문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十七日. 晴. 爲見家兒措備試具場屋出入, 因留主人家, 聞紙廩出於梧洞槽洞間大路邊. 意或逢着舊日顏面, 與從兄往見, 則來者云者, 都是靑春少年, 如我衰老, 無一可知矣. 小坐卽起, 弔安昌錄几筵, 訪安昌彦元仲, 暫話而來.

▪ 18일. 맑다. 용성(龍城)의 노랑(盧郎)과 부차(浮槎)의 김랑(金郎)이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바로 와서 만났는데, 노랑은 지난 해 겨울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노랑의 숙부가 와서 북문 밖에 머물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서 만나보고 곧바로 왔다.

十八日. 晴. 龍城盧郎, 浮槎金郎, 聞吾之來, 卽日來見, 而盧郎年前冬月生男云, 可幸. 盧郎之叔, 來留于北門外云, 故往見卽來.

▪ 19일. 새벽에 과거장에 들어갔을 때에 빗방울이 간혹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웠는데, 조금 늦게 날이 쾌청해졌다. 밥을 먹은 뒤에 종형제와 덕래촌(德來村)에 함께 가서 박종언(朴宗彦) 형을 만나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하여 작별을 고하였더니 박 형이 손을 잡고 한사코 만류하며 점심을 차리려고 하였지만, 기어이 거절하고 길을 나서 주인집으로 왔다. 조금 쉰 뒤에 남성(南城)의 조금 높은 곳에 올라 과장(科場)을 바라보고 돌아왔다. 황혼 무렵에 마을 인가(人家)에 기대어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조금 오래 지나서 나왔다

十九日. 曉頭入場時, 點雨或下, 故深切憂憫矣. 稍晚快晴. 食後從兄弟同往德來村, 見朴兄宗彥, 良久敘話, 因以告別, 朴兄執手堅挽, 欲進點飯, 強拂作行, 來主人家. 小憩後, 登南城稍高處, 觀望場屋而來. 黃昏時, 倚于閭巷, 企待兒輩之出來矣. 稍久出來.

▪20일. 맑다. 외면(外面)의 접유(接儒)¹⁶¹가 과거장에서 돌을 다룬 일로 지금 감옥에 수감 되어 있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동향의 유생들에게 일어나기를 권하여 입문관(入門官)¹⁶²이 머무는 곳에 하소연하게 하였다. 종형제는 중숙(仲叔)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동숙(東叔)을 오게 하고 일접(一接, 시험을 같이 보는 한 동아리)의 여러 벗들과 상의한 다음 많은 사람을 들여보내게 했다. 입문관도 또한 담양 유생이 속인 것을 알고 사유를 갖추어 잘못을 고발하는 글을 상시관(上試官, 시험 감독관 중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였는데, 시원하게 풀려 다행이었다. 주인집으로 돌아오니 덕촌(德村)의 박종언 형이 그 조카를 보내어 사례하는 뜻을 표하였고, 남원의 노사(盧查)도 또한 찾아와서 만났다. 중간에 벗 안원중(安元仲)이 우리 주인을 직접 방문하였다는데, 우리들이 출타 중이라 만나지 못하였으니 안타깝다. 오후에 출발하여 청룡(靑龍) 유하건(柳夏健)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日. 晴. 聞外面接儒, 以場屋爭石事, 方在囚禁云, 故勸起同鄉儒生, 伸訴於入門官次. 從兄弟入去仲叔下處, 請來東叔, 一接諸友相議, 入送多人矣. 入門官, 亦知潭陽士子之欺罔, 告訐具由文, 報於上試, 而快釋可幸. 還于主人家, 德村朴兄, 遣其侄回謝, 南原盧查亦來見. 中間安友元仲, 親訪吾主人, 而吾等出他未逢, 可歎. 午後離發, 抵靑龍柳夏健家留宿.

▪21일. 맑다. 출발하여 웅치(熊峙, 보성군 소재)를 넘을 때에 길은 험하고 날은

161) 접유(接儒) : ‘접(接)’이란 단체의 뜻이다. 같은 서당에서 수업하는 동료를 ‘동접(同接)’이라 하고, 이 접의 우두머리 격을 접장이라 하였다.

162) 입문관(入門官) : 과거 시험장의 출입구에서 응시자의 적격 여부를 살펴 입장을 허락하거나 통제하던 임시 벼슬이다. 지방에서 시행되는 시험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호적에 등재된 유생들만 응시할 수 있었으니, 이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입문관을 파직하였다. 《大典會通 禮典 諸科》

또 너무 더워서 옷을 벗어 돌에 걸쳐 두고 돌 웅덩이 가운데 물이 모인 곳으로 뛰어들었다. 조금 오래 헤엄치다가 한기가 들자 일어나 의관을 입고 고갯길을 걸어 넘어갔다. 더위가 멀리 달아나서 다행이지만 땀구멍으로 냉기가 들어가는 것을 살피지 못하여 장차 병의 근원이 되게 하였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며, 몸조섭하는 것을 조심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무식함이 너무 심하다.

벽사(碧沙) 앞길을 지나 연곡 서원(淵谷書院)에 들러 참배하였다. 연곡 서원은 바로 노봉 민 선생(老峯閔先生)¹⁶³과 둔촌 민 선생(屯村閔先生)¹⁶⁴ 두 분 선정(先正, 죽은 현인)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나는 일찍이 연액(延額)할 때에 와서 참배한 적이 있었는데, 종형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한 번 참배하게 하였다. 그리고 《심원록(尋院錄)》에 이름을 적은 다음 통자(通刺)한 뒤 당(堂)으로 들어갔다. 이날은 바로 중정일(中丁日)¹⁶⁵ 입재(入齋, 제사 전날에 재계하는 일)하는 날이라서 많은 선비들이 일제히 모였는데, 묘정(廟庭)에 배알한 뒤에 일어나려고 하니 많은 선비들이 한사코 만류하였다. 그러나 건산(巾山)에 가서 연친(連親, 혼인으로 친족이 되는 것)의 집에 조례(弔禮)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금릉(金陵)으로 가야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말하니 인하여 밥을 먹고 가게 했다. 밥을 먹은 뒤에 곧바로 일어나 건촌(巾村) 안현구(安顯九)의 집에 이르렀다. 안현구는 종형(從兄)의 동서(同婿)로 지난해 작고한 사람이다. 현구의 조카로, 이름이 시실(始實)이라는 아이는 나이가 13세로 미목(眉目)이 맑고 순수하며 몸집도 좋으니 장래에 그 성립(成立)을 기대할 만하였다.

二十一日。晴。離發踰熊峙之際，路險而日又甚熱，脫衣掛石，跳入石臼中水

163) 노봉 민 선생(老峯閔先生) : 민정중(閔鼎重, 1628~1692)으로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노봉, 자는 대수(大受)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1649년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여러 요직을 역임하고, 1675년(숙종1) 남인이 득세하자 장흥부(長興府)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좌의정이 되고, 기사환국 때 벽동(碧潼)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별세하였다.

164) 둔촌 민 선생(屯村閔先生) : 민유중(閔維重, 1630~1687)으로, 본관은 여흥, 자는 지숙(持叔), 호는 둔촌이다. 인현왕후의 아버지이다. 1651년(효종2) 문과에 급제, 호조 판서와 병조 판서 등을 지냈다.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에 봉해지고, 저서로 《민문정유집(閔文貞遺集)》 10권 10책이 있다.

165) 중정일(中丁日) : 음력으로 그달의 중순에 드는 정일(丁日)을 이르는 말로, 묘제(墓祭)연제(練祭)답제(禫祭)서원 향례(書院享禮) 따위의 제사를 대개 이날에 지낸다.

會處. 稍久游泳, 寒氣乃入, 起來衣巾, 步躡嶺路, 只幸暑熱之遠去, 不審汗孔之受冷, 將爲病根, 可歎. 吾攝身之不謹, 無識之太過也. 由碧沙前路, 歷入淵谷書院參謁. 院乃老峯閔先生屯村閔先生兩先正, 俎豆所也. 吾則曾於延額時來參, 而從兄初見, 故欲使一番參謁, 題名尋錄, 通刺入堂. 是日乃中丁入齋日也. 多士齊會, 拜謁廟庭後, 將欲起來, 則多士挽留, 以不可不往于巾山, 行弔禮于連親家, 而明早發向金陵之意, 縷縷言說, 則因使喫飯而去. 飯後卽起, 抵巾村安顯九家, 安是從兄同婿, 去年作故者也. 顯九之侄兒名始實者, 年十三眉目清粹, 形體豐碩, 來將之成立可期.

▪ 22일. 맑다. 아침을 먹기 전에 종형제와 함께 안현구의 궤연에 가서 곡하였다. 오는 길에 백후채(白厚采)씨가 옛날 살던 곳을 방문했더니 노소간에 맞이하여 접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곧바로 안가(安家)로 돌아왔다. 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예강(沂江)을 건너 관산(冠山)의 동문(東門)으로 들어가 남문(南門)으로 나왔는데, 문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정 해남(鄭海南)의 사랑에 이르니 적적하고 사람이 없어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시험장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조금 쉰 뒤에 길을 나서 곧장 병영(兵營)으로 향했다. 사청(射廳, 무과 시험장으로 쓰던 대청)에서 잠시 쉬다가 사청의 수직하는 사내에게 흥양에서 온 정후중(鄭後重)이 사는 곳을 물었더니 동쪽으로 10여 걸음 정도의 감나무 아래 집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곳이 후중의 집입니다.”라고 하였다. 곧바로 일어나 가서 물으니 후중은 출타 중이라고 했다. 그 두 아들 중 막내아들이 의관을 입지 않은 채 상놈[常漢]처럼 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그놈에게 말을 건네자 발끈하며 대답하는 말이 곱지 않으니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치부해 버렸다.

북쪽 냇가로 옮겨가서 사랑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에게 증조의 비석을 옮기는 일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사랑의 주인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비록 영저(營底)에서 있지만 이와 같은 일은 영중에서 여론을 수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북쪽으로 향하여 가면 중리(中里)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는데, 그 마을에 별감(別監) 김계옥(金啓瑬)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됨이 자상하고 신중하니 영 안의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잘 의논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봄에 초기(抄飢)하여 진흙미를 나누어 주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집에 찾아갔더니 김계옥이 나와서 만났다. 그 사람의 말로는 일찍이 나와 만난 적이 있고 행정(杏亭)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다고 하였다. 지난 일을 상세히 헤아려 보니 그때서야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았다. 비석 옮기는 일을 언급하니 답하여 이르기를, “어려운 일이 아니니 마땅히 곧바로 들어드려야 하지만 벼와 곡식이 들에 가득하여 손실이 있을 듯하니 반드시 가을과 겨울 사이를 기다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 연후에 곧바로 옮겨 세우면 일이 매우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출발하여 군촌(君村)으로 가는 길에 비석을 닦고 잡초를 베어 없앴다. 천천히 걸어서 군촌에 이르니 해는 이미 어둑어둑했다. 이날 밤에 왼쪽 갈비뼈 사이에 담기(痰氣)가 응결(凝結)되어 마치 예리한 칼날이 꽂혀 있기도 하듯 숨을 쉬거나 몸을 펴고 굽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찌르듯이 아픈 통증이 너무 심하니 매우 걱정스러웠다.

二十二日。晴。朝前從兄弟同往哭安顯九几筵，來路訪白厚采氏舊居，則老少間無延接人，故卽還安家。食後離發，渡汭江，入冠山東門，出自南門，而門已毀矣。抵鄭海南舍郎，寂寂無人，問兒輩，則往試所，未還云矣。小憩後，作行直向兵營。暫歇于射廳，問興陽來鄭後重所居于射廳守直漢，則指東邊十步許柿木下家曰：“此是後重家也。”卽起往問，則後重出他云。其二子中未子，不冠不衣，有若常漢者，吾等爾語厥漢，勃然答辭不順，付之於無可奈何。移向北邊川上，坐舍郎有人處，問議曾祖碑石運移事。舍郎主人答曰：“吾等雖在營底，如許事不能收議於營中，自此稍向北邊而行，有中里之名，其里金別監啓項稱號人居生。爲人詳慎，營中事無大小，可以議處。且春間爲抄飢，分賑所任云。”如其言尋往其家，則金也出見，自言曾與吾面，話於杏亭云。詳量前事，始覺其言之不誣也。語及運碑事則答云，“非難之事，當卽聽施，而禾穀滿野，似有損害，必待秋冬間，收議諸人，然後可卽移建，事甚順便云。”故發向君村之路，摩碑石，剪除荊艾。徐行抵君村，日已昏黑。是夜左脇骨節間，痰氣凝結，有若刀尖之插入，呼吸屈伸，不得任意，刺痛特甚，切憫切憫。

▪23일. 맑다. 군촌에 머물렀다. 김응수(金應洙)와 홍희장(洪喜璋) 등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날을 보냈다. 오후에 찌르듯 아픈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 3~7장(壯) 쑥뜸을 뜨니 통증이 조금 가라앉은 듯했다. 二十三日. 晴. 留君村. 金應洙洪喜璋諸人來見, 相話度日. 午後不堪刺痛, 艾灸三七壯痛似稍歇.

▪24일. 비가 오다. 나는 당악(棠岳)으로 향하고자 했고, 종형은 월출산(月出山)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비가 바로 내려 방해를 놓으니 고민스러웠다. 오후가 되어 날이 쾌청해졌기 때문에 종형과 처조카 김명갑(金鳴甲)은 월출산으로 향하여 떠나고, 나는 호암(狐巖)으로 옮겨가서 다음 날 당악으로 향할 계획이었다. 갈비뼈 통증이 끝내 조금도 낫지 않으니 밤늦도록 걱정스러워 하다가 처조카로 하여금 그 어머니에게 알리게 하여 말하기를, “흥양에 있을 때, 간혹 위급한 병이 있으면 밥과 국을 성하게 갖추어 깨끗한 곳에 깨끗한 자리를 펼쳐 놓고 사도(思悼)에게 축원하면 곧바로 차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따라 행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유씨가 말하기를,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 곧바로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강진에도 또한 이와 같은 풍속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부씨(婦氏)에게 도와주기를 권하여 밥을 지어 신위를 설치하고 직접 축원하였다. 한바탕 말한 대로 하였으나 여전히 완쾌되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二十四日. 雨. 余則欲向棠岳, 從兄欲翫月出矣. 雨乃作戲憫憫. 午後快晴, 故從兄與妻侄金鳴甲向月出去, 余移于狐巖, 以爲明向棠岳之計. 脇痛終不小愈, 夜久尤憫, 使妻侄告于其母曰: “在興陽時, 聞或有急病則盛具飯羹, 布潔席於淨處 而口祝于思悼, 則即差云, 依吾言之, 未知如何.” 柳氏曰: “此非難事, 即行無妨. 康津亦有如許風俗矣.” 勸起婦氏, 造飯設位, 親自口祝. 一如所告, 然猶未快奈何.

▪25일. 맑다. 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였다. 병든 몸을 이끌고 마치(馬峙)를 넘어 석지원(石池院)을 지나다가 마침 행정(杏亭)에서 보았던 남평(南平)의 최생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잠깐 동안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그가 말한 대로

비곡(飛谷)의 서생(徐生)이라는 사람이 사는 곳에 찾아 들어갔다. 서생은 부유한 놈인데 비루하고 인색하였으니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다. 조금 신 뒤에 서쪽 고개를 넘으니 바로 흑석산(黑石山) 중턱이다.

청계(淸溪)에 이르렀다. 방축내(防築內)의 내종(內從)은 수년 전에 기로촌(耆老村)의 임시교(任時喬)가 거주하는 곳으로 옮겨갔다가 임시교가 작고하자 내종은 홀로 버틸 수가 없는데다가 또 금년 여름의 보리 흉년에 곤궁하여 다시 그 아내의 삼촌이 있는 쪽으로 옮겼다고 한다. 축내 마을은 달리 아는 이가 없고, 다만 김희계(金喜啓)와 김최계(金最啓) 두어 사람만이 외외척(外外戚)으로 서로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옛 거처를 찾아가보니 벼와 곡식이 무성하여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상전(桑田)이碧海(碧海)가 되듯 크게 변하였다. 간신히 한 사람을 찾아 우리가 숙식할 곳을 청하니 또한 매우 어려워하다가 끝내는 나를 이끌고 김씨 집안의 제각(祭閣)이라는 곳에 이르러 머물게 하고 저녁밥을 보내오겠다고 했다. 저물녘에 과연 저녁밥을 보내왔다. 二十五日。晴。食後離發。扶病踰馬峙，歷石池院，適逢南平崔生之相面於杏亭者，立談數語，依其言尋入飛谷徐生者所居。徐是富漢，而鄙吝則見於外矣。小歇後，踰西嶺，卽黑石山中脊也。抵淸溪，防築內內從，數年前，移去耆老村任時喬所住處矣。時喬作故，內從不能獨支，且困今夏麥凶，更移其妻家三寸面云矣。築內村無他所知，而惟有金喜啓金最啓數人，以外外戚相知者矣。訪其舊居，則禾穀離離，數十年間，滄桑大變。艱尋一人，請吾宿食，亦甚難之，未乃引余到所謂金門祭閣留之，送來夕飯云矣。黃昏時，果送夕飯。

▪ 26일. 맑다. 수직하는 사내에게 엽전(葉錢) 4개를 내주면서 우리들에게 아침밥을 차려 주게 하였다. 일찍 밥을 먹고 길을 나서 김명기(金命祺)의 집에 찾아가서 어제 저녁에 밥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명기가 조금 이야기를 한 뒤에 말하기를, “어제 출타했다가 돌아오니 객이 멀리서부터 와서 제각(祭閣)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변변찮은 밥상이나마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저와 또한 척분(戚分)¹⁶⁶⁾

166) 척분(戚分) : 성이 다르면서 일가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 있고, 노년의 먼 여정이니 곧바로 돌아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병든 몸이시니 하루라도 머물러 쉬면서 몸조리를 한 다음에 떠나시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어제 저녁에 객을 인도했던 사람은 이웃에 살고 있는 일가였는데, 곡절을 상세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과연 주인 된 도리에 매우 미안해 할 줄을 몰랐다. 그가 말한 것을 들으니, 자못 근후한 정이 있었지만, 여러 날을 계속 머무르기가 어려워 작별을 고하고 길을 나서 오당(蟹塘)을 향하여 갔다.

당촌(塘村)에 이르니 마을 집이 흩어져 있어서 다시는 예전에 보았던 바가 아니었다. 바로 산소로 갔더니 다른 산소는 심하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외조고비(外祖考妣) 무덤의 봉축만 허물어져 마치 물가의 모래 언덕이 무너져 내리기라도 한듯 잔디¹⁶⁷⁾는 전혀 없고 봉분(封墳)은 움푹 파여 있으며, 가시덤불과 풀뿌리만 무덤 위에 두루 나 있었다. 다만 지리적 조건이 험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묘가 매우 소원한 듯하였다. 오래토록 계단 아래에 엎드려 있자니 심회가 좋지 않았다. 비록 통곡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눈물이 절로 흘러 옷깃을 적셨다.

일어나 선묘가 있는 곳에 가서 참배를 한 뒤에 마을로 내려와 간신히 임홍인(任弘仁)의 집에 찾아가니 임홍인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두 아들만 있는데, 큰 아들은 출타하였고 둘째는 병으로 누워 있다고 하였다. 직접 그 거처하는 곳에 가보니 두어 칸의 오두막은 무릎을 놓리기도 어려운 비좁은 집이었다. 홍인의 아내에게 보기를 청하였더니 이웃집으로 나갔다고 핑계를 대었는데, 그 차림새가 손님을 보기에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병든 아이를 억지로 불러 내가 바로 너의 족친이라고 하니, 비록 병을 앓고 있으나 잠깐 나가 응접하지 않을 수 없었던지 아이는 바로 병으로 신음하면서 문을 나왔다. 해진 옷과 짧은 바지를 입은 모습이 흡사 상놈과 같은 몰골이었으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진흙 속에 금을 묻어둔 모습이었다. 만약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건을 갖추었다면 양반의 자태를

167) 잔디 : 원문의 '사초(莎草)'는 잔디를 뜻하는데, 묘의 봉분이 점차 비바람 등에 의해 점차 작아지거나 무너지기 때문에 봉분을 다시 높이거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여 잔디를 새로 입히는 일을 사초라 한다.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세상 어찌할 수 없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몸을 일으켜 길을 잡았다. 아픈 아이가 나를 따라 마을 뒤 고개에 이르러 가는 길을 가리켜 보였는데, 슬퍼하는 모습이 미간에 절로 드러나니 그제서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은 참으로 속일 수 없음을 알았다.

별진(別津) 마을 앞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석주가원(石柱佳院)에 이르러 길가에 있는 회석(灰石) 캐는 곳을 보고 오래도록 앉아서 구경하였다. 돌을 캐내는 것에도 또한 묘한 이치가 있었는데, 커다란 너럭바위가 박혀있어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 위에 불을 피우고 불에 녹여 불기운이 깊이 들어가게 한 연후에 원하는 대로 처리하였다. 항아리처럼 작은 바위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높이 들어 단단한 가운데 부분을 깨뜨려서 미세한 흙이 생기게 하고, 팽이와 끌로 그 형세에 따라 쳐서 차례차례 조각을 내어 마음먹은 대로 분쇄하였다. 그러나 급히 쓰는 것으로 공을 취할 수가 없었다.

죽곡(竹谷) 앞을 경유하여 시내를 건너고, 마현(馬峴)을 넘어 호암(狐巖)에 이르렀다. 종형이 어제 밤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혹 높은 산과 험준한 고개를 넘고 풍세와 날씨마저 평탄치 않은 이러한 곳을 거쳐 돌아왔으리라 생각하여 곧바로 행정(杏亭)으로 내려가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몸이 몹시 피로하고 다리도 시큰거리려 호암에 머물렀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二十六日。晴。出給四葉錢于守直漢，使進吾奴主朝飯，而趁早喫之作行，尋往金命猗家，以謝昨夕饋飯之意。金小話後乃言曰：“昨日出他而還，聞有客自遠而來，往留祭閣，送饋鹽飯矣。今聞所言，於吾亦有戚分，老境遠程，不可即返。且有身病，一日留息，調理而去，無妨云。”昨暮引客者，隣居一家，而不詳曲折，故余果不知爲主之道，甚爲未安。聽其所言，頗有勤厚之情，而難於累日留連，告別登路，向蟹塘而行。至塘村，閭閻散落，非復昔日所見。直往山所，則他山不甚崩頽，而外祖考妣塋域封築毀破，有若水邊之崩岸壞沙，莎草絕無，積土淪陷，惟見荊叢卉根，遍生塋上，不徒地理之極凶，亦似省拜之最疏。久伏階下，心懷作惡，雖不能發聲痛哭，涕淚自沾于衣襟。起向先墓所在拜謁後，下來村中，艱尋任弘仁家，弘仁身死已久，只有二子，長則出他，次則病臥云。躬到其所居，數間斗屋，不堪容膝。請見弘仁之內，則托以隣舍出去，意其治裝之難於見客也。強招病兒，以吾乃汝之族親，雖病不

可不暫出接應，則兒乃吟病而出戶。弊衣短袴，恰是常漢貌樣，而細審眉目，則自有泥土埋金之形。若使梳洗衣巾，可見兩班儀形，而勢無奈何，可歎。起身作路，病兒從余，到村後嶺，指示去路，悲傷之態，自現於眉間，始覺乘彝之天，信不可誣也。抵別津村前點心，至石柱佳院，見路邊有灰石堀取處，久坐觀之。掘石亦有妙理，巨石盤結，不可動搖，則熾火其上，使之燒融火氣深入，然後籠絡。小巖之如瓮者，衆力高舉，撞破中堅，使有微瑕，而以光耳斧角，隨勢動拔，次次作片，分碎如意，然不可以急用取功也。由竹谷前，渡川躡馬峴，抵狐巖。聞從兄昨夕下來。意或高山峻嶺，風日不順，以此經還也，卽欲下去杏亭相面，而身憊脚酸，留狐巖。達宵無寢。

■27일. 맑다. 간밤에 자못 괴이한 꿈을 꾸었는데, 길한지 흉한지 분간이 서질 않았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행정으로 내려가 벗 홍문보(洪文甫)의 집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행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조금 쉰 뒤에 김홍갑(金弘甲)의 집에 갔다. 홍갑과 형갑은 처사촌(妻四寸) 응징(應澄)의 아들이며, 응징은 작고한 지 이미 3년이 지났으나 나는 옮겨 다녔기 때문에 조문을 하지 못했었다. 또 김문갑(金文甲)은갑(殷甲)훈갑(勳甲)을 찾아갔다. 이들은 응징의 아우인 응수(應洙)의 아들인데, 응수는 마침 가산이 조금 넉넉하여 그 아들 문갑을 보내 송능상(宋能相)의 문하에 출입하게 했으므로 문필이 모두 훌륭하였다. 은갑은 경전을 연구하여 지금 두 과장¹⁶⁸의 초시에서 모두 합격하였다. 김명갑(金鳴甲)과 용갑(龍甲)은 처 집안의 장남인 태경(台卿)의 아우이며, 김수갑(金秀甲)의 차남인 휘경(輝卿)이 아들이다. 두 벗은 이미 벌써 작고하여 인간사가 서글프지만, 후진이 많이 번창함은 축하할 일이다. 저녁에 창방(唱榜) 소식을 들었다. 금릉(金綾)은 두 사람뿐이고 홍양은 8인이 합격하였다고 하는데, 급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세히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 더욱 절실하였다.

二十七日. 晴. 夜夢頗怪, 吉凶未分. 朝飯後下來杏亭, 歷入洪友文甫家, 稍

168) 두 과장 : 양장(兩場)은 과거의 첫째 날 보는 시험장인 초장(初場)과 마지막 날 보는 시험장인 종장(終場)을 이른다. 생원·진사시의 경우 초장에는 시(詩)·부(賦)를 보고, 하루 간격을 두고 보는 종장에는 의(疑)·의(義)를 보았다. 《梅泉野錄 卷1上 甲午以前》

久敍話, 還杏亭. 小歇後, 往金弘甲家暫話. 弘甲亨甲妻四寸應澄之子, 應澄作故, 已過三年, 吾以遷徙之, 故未問者也. 又訪金文甲股甲勳甲, 應澄弟應洙之子, 應洙方在家產稍饒, 送其子文甲, 出入于宋能相門下, 文筆俱嘉. 股甲治經, 方持兩場初試矣. 金鳴甲龍甲, 妻長男台卿之子, 金秀甲次男輝卿之子. 兩友曾已作故, 人事愴感, 但其後進旣旣, 可賀. 夕時間榜奇, 金綾只兩人, 興陽八人云, 而不詳其誰某, 泄菀尤切.

▪28일. 아침에 흐리다. 갈비뼈 통증이 완쾌되지 않아서 객중에 오래토록 머무르기가 어려운데다가 또 창방 소식을 상세히 알지 못한 것이 답답하기에 돌아가는 길을 재촉하여 출발하고, 편지를 써서 행정에 남겨 영보(永保)의 신가(愼家) 벗에게 전하게 할 생각이었다. 애초에는 영보에 가서 진보(晋甫)를 만나보려고 했었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떠나 넓은 벌판으로 나와 긴 시내를 건너고 학치(鶴峙)를 넘으니 구십포(九十浦)가 내려다 보였다. 나천(羅川)을 거쳐 금천(錦川)의 오사의(吳思義) 집에 이르렀다. 오사의는 돌아가신 진사 도겸(道謙)의 아들로, 종형에게는 처남 신사숙(申士叔)의 외손이 된다. 그의 집에서 묵었다.

二十八日. 朝陰. 以脇痛之未快, 久難留連於客中, 且憫榜奇之未詳, 催發還歸之行, 修書留于杏亭, 以爲傳致永保愼友之計. 初意必欲往永保面見晋甫矣, 事不如意可歎. 食後登程, 出廣野渡長川, 踰鶴峙, 俯見九十浦. 歷羅川, 抵錦川吳思義家, 故進士道謙之子, 於從兄爲妻男申士叔外孫也. 宿留其家.

▪29일. 맑다. 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화방촌(花坊村)으로 가서 숙질 윤휘서(尹輝瑞)와 윤지해(尹趾海)를 만났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사인암(舍人巖) 앞의 강을 건너 면치(眠峙)를 넘어 어산(語山) 박수춘(朴秀春)의 집에 이르렀다. 박수춘은 표재종(表再從, 외가쪽 6촌)으로 박형(朴兄) 배연(斐然)씨의 조카이다. 배연 씨 형제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미루고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위곡(慰哭)의 길에 이르려고 했다. 그런데 오를 와서 조문하려고 배연 씨 궤연에 찾아갔더니, 그 집안은 망하여 형편없는 모양이라 신위를 설치하여 조문을 맞이하는 의례조차 없었다. 장차 고읍

(古邑)에 가서 곡하고 묘수에 들러 참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수춘의 집에서 머물렀다. 수춘 조카의 가도(家道)는 점점 탄탄해지고 두 아들은 선조를 닮을 가망이 있는듯하니 다행이었다.

二十九日. 晴. 食後離發, 向花坊村, 見尹輝瑞尹趾海叔侄. 小話後, 渡舍人巖前江, 踰眠峙, 抵語山朴秀春家. 朴是表再從, 朴兄斐然氏之侄也. 斐然氏兄弟, 身死之後三霜, 將至尙稽一者 慰哭之道矣. 今來相問次, 尋斐然氏几筵, 則以其家赤敗, 不成貌樣, 設位迎弔之儀無矣. 將欲往哭於古邑之行, 歷拜其墓土+遂計計, 留秀春家. 春侄家道稍強, 兩子似有克肖之望, 可幸.

▪30일. 맑다. 밥을 먹은 뒤 출발할 즈음에 봉현(蜂峴)에 사는 이름이 정광열(鄭廣悅)인 아이가 찾아와서 보았는데, 바로 나의 이종(姨從) 창언(昌彦)의 손자로, 내가 어제 저녁에 그 집에 찾아갔기 때문이다. 출발하여 김상진(金尙鎭)의 집에 들러 방목을 구하여 보니, 흥양의 입격한 사람은 8명인데 가아(家兒)는 낙방하였다. 망쳐버린 흥을 말해 무엇 하랴.

다시 이유징(李需徵)의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유징은 바로 옥 장식을 한 갓을 쓰고 붉은 허리띠를 두르고 있어 그 까닭을 물었더니, 나이 80에 천작(天爵)¹⁶⁹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창명(李昌命)의 옛 거주지를 지나다가 염(廉) 누이의 막내딸이 그 집의 손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행한 조카 박수춘의 아들을 시켜 이종규(李宗奎) 군에게 통보하게 한 뒤에 내실로 들어가 만나 보았다.

남쪽으로 몇 리를 가서 길 왼쪽으로 백보 정도 되는 곳에 소나무 숲 속의 한 무덤은 배연(斐然) 씨의 옷과 신이 묻혀 있는 곳이다. 중형제와 소매를 나란히 하고 가서 곡한 다음, 마을 밖 남쪽으로 걸어 나와 작은 고개를 넘고 죽천장(竹川場) 가를 통과하여 방촌(傍村)에 이르니 옛날 회주읍(懷州邑) 터라고 한다. 염(廉) 조카를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었으므로 바로 산 아래 마을 정종(鄭從) 치경(致慶) 씨의 궁벽진 거처에 갔다. 정종(鄭從)은

169) 천작(天爵) : 사람에게 갖추어진 자연적인 미덕을 말한다. 《맹자》〈고자 상(告子上)〉에 “인의충신과 선을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천작이요, 공경대부 같은 종류는 인작일 뿐이다.[仁義忠信樂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라는 말이 나온다.

늡고 병들어 있었다. 초가집에 누워 있는 그의 모습은 깡마른 체구에 뼈만 앙상하였는데, 비록 서로 만나서 기뻐으나 그 근력을 보면 세상에 살날이 오래지 않은 것 같았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담소를 나누다가 새벽닭이 화를 치는지도 몰랐다. 당초에 인쇄해서 가지고 온 《충효록》 2권 중에서 한 권은 남원의 노사(盧查)에게 전하여 용성(龍城)의 사우들 간에 널리 배포하였고, 한 권은 행장 속에 가지고 와서 정종(鄭從)에게 전하였는데, 정종이 공경히 거듭 반복해서 읽더니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三十日。晴。食後離發之際，蜂峴居鄭兒名廣悅來見，卽吾姨從昌彥之孫也，以吾昨夕往尋渠家故也。發行歷入金尙鎮家，求見榜目，則興之入格者八，而家兒見屈，敗興何言。轉往李需徵家暫話，李乃玉乎頂，朱其帶，問其由，則年八十受天爵矣。過李昌命故居，聞廉妹之末女，爲其家孫婦，使朴侄秀春子同行者，通于李郎宗奎，而入內相見。向南行數里，路左百步地，松林中一杯土者，斐然氏衣履所藏也。從兄弟聯袂往哭，步出洞外指南，踰小峴，度竹川場邊，抵傍村，古懷州邑基云。訪廉侄不在，故直往山底村鄭從致慶氏幽居，鄭從老且病矣。臥在蓬廬，癯形骨立，雖相面喜倒，而觀其筋力，在世非久，達宵臺臺，不覺曉鷄之扣翼矣。當初印來忠孝祿二件，一則傳于南原盧查，以爲廣布于龍城士友間，一則持來行中，傳于鄭從，鄭從敬玩再三，哽咽涕出矣。

▪9월 1일. 맑다. 이날은 일식(日食)이 있었다. 정종과 함께 정담을 나누는 중에 한참 동안 태양이 빛을 잃은 채 드러나지 않았다. 밥을 먹은 뒤에 대흥(大興)으로 향하여 길을 나서 관산(冠山)의 남쪽 기슭을 돌아 20리를 갔다. 대흥장(大興場)에 이르러 잠시 쉼 뒤에 직보(直甫)가 우거하는 곳에 찾아갔다. 마을 집은 겨우 10여 채이며, 새로 터를 잡아 이제 막 지은 거처는 제 모양을 이루지 못했다. 직보가 우리들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신을 거꾸로 신고서 맞이하니 기쁨을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종매(從妹)가 묻힌 곳을 물었더니 남쪽으로 5리쯤 떨어져 있다고 했다. 마을 앞에는 기로소(耆老所)가 있고 염장(鹽場, 소금을 굽는 곳)은 독을 막아 물을 저장하여 끊임없이 소금을 구워야 하는데, 독이 대부분 무너져서 물을 받아들 수가 없었다.

九月初吉。晴。是日日有食之，而與鄭從情話，彌時不見太陽之晦彩。食後向

大興作路, 周回冠山南麓, 行二十里. 抵大興場少憩後, 尋往直甫所寓. 村舍
堇十餘, 新寓草創, 不成貌樣. 直甫聞吾等至, 倒屣迎接, 喜不可言. 問從妹
所葬地, 南去五里許云. 村前有耆老所, 鹽場防堰儲水, 無時煮鹽, 而堰多破
落, 未能蒙利矣.

▪2일. 바람 불다. 나는 밥을 먹은 뒤에 직보(直甫)의 서자(庶子)인 철장(鐵
杖)을 데리고 종매(從妹)의 산소에 가고, 종형은 직보와 함께 탑산(塔山)
으로 떠나면서 내일 우도(牛島, 고흥군 남양면에 있는 섬)의 풍안선(豊安
船)이 들어와 정박한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나루를 건널 생각에 나는
오후에 돌아왔지만 종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初二日. 風. 余則食後, 率直甫妾子鐵杖, 往從妹山所, 從兄同直甫向塔山去,
約以明日相會於牛島豊安船來泊處. 越津計計, 而余則午後還來, 從兄不還.

▪3일. 새벽에 흐리다가 저녁에 비가 오다. 밥을 먹은 뒤에 서둘러 길을 떠나
산변촌(山邊村)에 이르니 종형과 직보는 어제 이미 도착하여 마을 집에서
유숙하면서 우리 일행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항구의 물을 건너는 곳에서
모여 곧바로 우도의 나루를 건너갔지만 직보가 이전에 머물렀던 마을의
풍안선(豊安船)은 이미 떠나버렸다. 직보가, “풍안선은 비록 떠났으나 아직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여러 섬의 배들이 있을 것이네. 내가 만약 그대를
금당(金堂)¹⁷⁰으로 건너갈 수 있게 권유하면 그길로 절도(折島)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니 절도에서 녹진(鹿鎭)으로 나가는 편이 좋을 듯하네. 그러니
염려하지 말게나.”라고 하였다. 부득이하게 우도에 머물렀다.

대흥에서 출발할 때, 반드시 하루 안에 녹진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겨
한 뒤의 쌀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종형도 또한 탑산에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식량을 신경쓰지 못하였다. 우도는 원래 가난한 백성 두어 집만이 있을
뿐이었는데, 직보가 가까이 있는 민가에 두루 기별하여 조식을 제공하니 그

170) 금당(金堂) : 완도군 금당면에 속한 섬으로, 완도군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으며,
고흥반도 남서쪽 득량만(得糧灣) 안에 있다. 원래 금당도(金堂島)라 불리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의 금당도(金塘島)로 바뀌었다.

형세가 구차하였다. 마을 집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에 밤이 거의 3경쯤 되었는데, 뱃사람이 와서, “지금 배가 출발합니다. 서둘러 행장을 꾸려서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삐 의건(衣巾)을 차려입고 서둘러 모래톱으로 향했는데, 바람의 형세가 사나워 배를 몰고 나갈 방도가 전혀 없었다. 섬사람도 또한 머뭇거리며 출발하지 못하자 직보가 큰소리로, “우선 내일을 지켜보고 거취(去就)를 결정해야겠네.”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고 돌아왔다.

初三日。曉陰晚雨。食後促行，抵山邊村，從兄與直甫，昨已來到，宿留村舍，以待吾行云。往會于海港渡水處，卽爲越去牛島之津頭，直甫曾前所住村豐安船已去。直甫謂曰：“豐船雖去，尚有諸島船趁市來者，吾若勸諭渡君于金堂，則因可得達於折島，自折而出鹿鎮好矣。勿慮焉。”不得已留牛島。大興離發之際，謂必一日內，渡得鹿鎮，不持升米，從兄亦自塔山直下，故未得留意於糧道。牛島元來，貧氓數家而已，直甫遍奇于附近民村，以供朝夕，其勢苟且矣。留宿村舍之際，夜幾三更，船人來言，“今當發船，速裝下來云。”故忙迫衣巾，促向沙汀，風勢怪惡，萬無駕海之道。島民亦逡巡不能發，直甫大言，“姑觀明日，以決去就。”挽手回來。

■4일. 바람 불다. 조금 늦게 또 나루로 나갔다. 풍량이 그치지 않아서 바람을 무릅쓰고 험한 바다를 건너는 것이 결코 좋은 방도가 아니라 생각하여 길을 돌려 항구를 건너 산저촌(山底村) 정종(鄭從)이 거쳐하는 곳을 경유하는데, 해는 저물고 갈 길이 바쁘다 보니 다시 찾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막대(莫大)로 하여금 가서 일의 형세를 전하게 하자 정종이 그 아들을 보내어 가는 길을 붙들었지만 굳이 거절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위명관(魏命觀)의 궤연에 들러 조문하고 잠시 위명익(魏命益)의 집에 들어가 잠깐 동안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쪽 작은 고개를 넘어 지북촌(枝北村), 장흥 관산 소재 박수도(朴守道)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는 바로 직보의 사위이다. 직보가 우도에서 뒤쳐져 있을 때에 간곡히 이르기를, “내가 한질(寒疾)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지만, 우리 사위집에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고 유숙하면 숙식(宿食)이 매우 편안할 것이네. 또 다음날 해창(海倉, 연해(沿海) 지방에 있는 창고)으로 향하는 것도 편하고 가까울 것이네.”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도착하니 박수도의 내외가 모두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었다. 일찍이 생원 문영후(文永後)의 거처가 이곳에 있다고 들어서 사람을 보내어 전갈하게 하였더니 문영후 또한 와서 보았다. 박수도의 집에서 머물렀다.

初四日。風。稍晚又去津頭，風浪不止，因念冒風涉險，決非好道。回程渡港，路由山底村鄭從所居，而日暮行忙，不能更尋。使莫大往傳事勢，鄭從送其子挽行，強拂不入。歷弔魏命觀几筵，暫入魏命益家，立談數語，踰東邊小嶺，抵枝北村朴守道家，卽直甫之婿也。直甫在牛島落行時，丁寧謂曰：“吾以寒疾不能同往，而尋往吾婿家，傳吾言留宿，則宿食甚安。且明日轉向海倉之路，便近矣。”如其言得達，朴之內外，俱爲款接，曾聞文生員永後居在此處，送人傳囑，文亦來見。留朴家。

■5일. 맑다. 죽천(竹川, 장흥군 관산읍) 하류를 지나 바다를 따라 왼쪽으로 돌아서 해창으로 건너갔다. 해창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바로 관부(冠府)의 세곡(稅穀)을 봉류(捧留)¹⁷¹하는 곳인데, 관부의 전함(戰艦)도 또한 창고의 아래에 정박하고 있어서 혹은 해창(海倉)이라 칭하기도 하고 혹은 선소(船所)라 칭하기도 하였다. 조금 쉼 뒤에 바다를 따라가서 하도(下道) 김정옥(金廷玉)의 집에 이르니 주인은 남평으로 나가고, 집을 지키고 있는 나주에서 온 임 생원이라는 자는 자못 손님을 꺼려하는 모양새였다. 대개 그의 아들이 김정옥의 사위인데, 아들을 따라 김정옥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었다. 初五日。晴。由竹川下流，沿海左轉渡海倉。抵海倉，卽冠府稅穀捧留之所，而冠府戰艦，亦泊在倉下，或稱海倉，或稱船所矣。小憩後，沿海而行，抵下道金廷玉家，主人出去南平地，守家有羅州來林生員者，頗有厭客之狀。蓋其子爲金婿，而隨子食于金者也。

■6일. 맑다. 견월치(見月峙)를 넘어 회령촌(會寧村) 문덕래(文德來)의 집에 들르니, 문덕래는 이미 작고하였고 그의 아들이 이제 막 삼상(三喪)¹⁷²을

171) 봉류(捧留) : 본창(本倉)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지에 거두어 보관해 두는 것을 말한다.

172) 삼상(三喪) : 초상(初喪), 소상(小祥), 대상(大祥)을 가리킨다.

마쳤다. 내 일찍이 건산(巾山)의 김 누이가 와서 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벗 김응렬(金應烈)도 또한 그의 제수를 만나기 위하여 마침 왔다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정담을 나누면서 건산에 이르렀을 때 나누지 못한 회포를 풀었다. 한참 있다가 점심밥을 차려주었고, 밥을 먹은 뒤에 헤어져 천포(泉浦)의 윤덕효(尹德孝)의 집에 이르렀다. 윤군은 낙안 김 서방의 매부이다.

初六日. 晴. 踰見月時, 歷入會寧村文德來家, 文已故而其子纔經三喪矣. 曾聞巾山金妹來留此家, 尋見敘話, 而金友應烈, 亦爲其弟嫂之相見, 適來未歸, 故與之款話, 因言到巾未奉之懷. 良久進午飯, 飯後分離, 抵泉浦尹德孝家. 尹郎樂安金書房妹夫也.

▪7일. 맑다. 저물녘에 청암진(靑巖津)을 건너 송일언(宋日彦)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初七日. 晴. 暮渡靑巖津, 宿宋日彦家.

▪8일. 맑다. 집으로 돌아왔다.

初八日. 晴. 還家.

▪9일. 맑다. 종형(從兄)은 벌원(伐院)의 관종(觀從)을 조문하기 위하여 도화(道化)로 떠났다. 나는 송일언(宋日彦)의 지시에 따라 단방약(單方藥)을 써서 병의 뿌리를 없애고자 하였는데, 기운이 다 빠지고 식욕마저 없었다. 한 달여 동안 병을 앓다가 간신히 차도가 있었으니 심하기도 하였다. 늙어서 쇠약해지는 기력이 개탄스럽기도 하지만, 병든 와중에 간신히 적어 훗날 보는 데에 대비한다.

계미년 9월의 그믐에 간촌(看村)의 병든 객이 기록하다.

初九日. 晴. 從兄爲弔伐院觀從 而去道化. 余則服宋日彦指示單方藥, 欲祛病根, 而氣奪食厭, 因病月餘, 艱以得差, 甚矣. 老境之氣衰, 可歎. 病裡艱草, 以備後覽. 癸未九月之晦, 看村病客記.

무자년(1768) 정월

戊子正月

▪15일. 김광은(金光殷)과 함께 길을 떠나 연등(淵登)에 이르렀다. 광은은 구입한 해의를 먼저 보냈는데, 중간에 반드시 받아 가지고 곡성(谷城)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말을 세내어 서둘러 서울에 다다른 뒤에야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광은에게 우선 갔다가 또 기다리게 할 생각으로 간곡히 서로 약속하고 앞서 가기를 권하여 보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가사(伽寺)로 가서 말을 쉬게 하고 한동(閑洞)으로 내려가 종형을 만났다. 종형은 정신과 기력이 비록 예전만 못했지만 아직 아픈 곳은 없다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있다가 작별을 고한 다음 가사로 돌아와 아이 종을 타일러서 말을 잘 먹이도록 하였다. 가사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녁에 박성서(朴聖瑞)가 상경하기 위하여 뒤에 먼 길을 왔다. 20리를 갔다.

十五日. 發程與金光殷同行至淵登. 光殷以所買海衣先送, 中路必須領去到谷城, 出賁馬急急抵洛, 然後可無後悔云云, 故使光殷且行且待之意, 丁寧相約, 勸送前去, 而余則直向伽寺歇馬, 下去閑洞見從兄, 神氣雖不如前, 姑無痛處云矣. 敘話小頃告別, 還伽寺以爲申飭兒奴, 善喂馬匹. 留伽寺, 夕時朴生聖瑞上京次, 自後跋來. 行二十里.

▪16일. 그대로 가사에서 머물며 가아(家兒, 송지행(宋志行))를 기다렸다. 다음날 일찍 출발하여 복교(卜橋)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오후에 책방 대감(冊房大監)이 세 아들과 이 서방, 그리고 김 생원을 데리고 구경차 이르렀으므로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동의 종질이 순천으로 가는 길에 또한 와서 만났다. 송계익(宋啓益)이 마침 와서 함께 유숙하였는데, 5전의 노잣돈을 주었다. 승려 신각(神覺)에게 왕골 돛자리 하나 얻기를 청하였으니, 가서 수레에게 줄 생각이었다.

十六日. 因留伽寺待家兒. 發行于明早, 期會於卜橋, 而午後冊房大監, 率三子及李書房金生員翫景次到來, 故相與穩話. 閑洞從侄向順天, 亦爲來會. 宋啓益適來同宿, 而以五錢贖行. 僧神覺處, 請得王藁席一立, 往給水禮計計.

▪17일. 책방 여러 사람과 함께 작별을 고하고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떠나 북교에 이르자 득아(得兒)가 왔다. 한동 조카, 박성서와 함께 서둘러 채찍질하며 양원(楊院)에 이르렀는데, 빗줄기가 멈추지 않았다. 김갑동(金甲東)이 술 한 병을 함께 마시면서 유숙하기를 굳이 만류하였지만, 한사코 거절하고 길을 떠나 사교(四橋)에 이르니 옷이 비에 흠뻑 젖어 버렸다. 나는 우산(牛山) 조카의 객가(客家)에서 머물고 득아와 중(仲) 조카는 나주(羅州) 조카 집에서 머물렀다. 저녁 무렵, 비에 막혀서 절하러 가지 못한 마음을 편지를 써서 지재(智齋)에 보냈다. 밤이 깊은 뒤에 빗줄기가 조금 그치자 사두었던 참빗 8개를 가져다가 짐 속에 잘 챙겼다. 돈 1냥 5전 4푼으로 참빗 값을 치렀다. 40리를 갔다.

十七日. 與冊房諸人告別, 食後離發, 抵卜橋, 得兒來到. 同閑洞侄及朴聖瑞, 促鞭至楊院, 雨勢不止. 金甲東以一壺酒來喫同行, 堅挽留宿, 而強拂作行, 抵四橋衣裾沾濕. 余則留牛山侄客家, 得兒仲侄, 留羅州侄家. 夕間以阻雨, 不得往拜之意, 裁書送智齋. 夜後雨勢稍止, 取置置眞梳八箇莊卜中. 錢一兩五錢四分梳價下. 行四十里.

▪18일. 일찍 출발하여 낮에 동점(銅店)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는데, 포두(浦頭, 고흥군 포두면)에서 사온 말이 네 발 모두 절뚝거리고 또한 잘 먹지도 못하니 매우 고민스럽다. 박생(朴生)은 먼저 앞길로 가서 김광은(金光殷)과 곡성에서 서로 만나 장화정(長花亭)에서 머물며 기다리라는 말을 하여 보냈다. 중질은 뒤쳐진 뒤에 천평(泉坪)으로 가고, 홀로 득아와 함께 우산에 이르러 안 생원의 궤연에 조문하고 곧바로 전 감관(田監官)의 집으로 가서 유숙하였다. 80리를 갔다.

十八日. 早發午秣于銅店, 而浦頭買來馬匹四足皆蹇, 亦不善食, 苦憫苦憫. 朴生先往前途, 以與金光殷相見谷城, 留待于長花亭事言說以送. 仲侄落後往泉坪, 獨與得兒, 抵牛山弔安生員几筵, 卽向田監官家留宿. 行八十里.

▪19일. 일찍 출발할 때에 상중(喪中)인 안씨 형제가 각각 식량과 말먹이

콩 약간을 신행(贖行)¹⁷³으로 가지고 왔다. 대곡천변(大谷川邊)에 이르니 송득대(宋得大)가 나와서 보고 노상에서 가지고 있던 1전의 돈을 주었다. 전 수문장(田守門將)을 광천변(廣川邊)에서 만나 짧은 시간 동안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헤어져 석곡에 도착하여 낮에 말에게 꼴을 먹였다. 비와 눈이 그치지 않아 걱정스러웠지만 출발하여 용계(龍溪)를 지나고 질퍽이는 진창길에 험한 길을 지나 어렵사리 덕촌에 이르니 곡성 땅이다. 80리를 갔다. 학노(鶴奴)가 석곡을 떠나올 때에 뒤쳐졌다.

十九日. 早發之際, 安哀兄弟, 各持糧太略干贖行. 至大谷川邊, 宋得大出見, 路次持一錢以給. 逢田守門將於廣川邊, 立談數語, 卽爲分袂, 到石谷午秣. 雨雪不止憫憫, 離發歷龍溪, 泥路險逕, 艱得抵於德村. 谷城地也. 行八十里. 鶴奴石谷離發時落後.

■20일. 아침을 먹기 전에 출발하여 옥과(玉果) 앞길을 경유하여 택촌(擇村)의 방 석사(房碩士, 방석필(房碩弼)) 집으로 향해 갔다. 가는 도중 4리쯤에서 진흙탕 길에 말굽이 빠져 거의 넘어질 뻔한 상황이 여러 차례였으니 매우 고생스러웠다. 방 석사의 집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인 다음 역천(櫟泉, 송명흠)의 소식을 묻고, 득아는 방 서방의 내상(內喪) 귀연에 곡하였다. 벗 방 석사가 한사코 만류하였으나 거듭 거절하고 장화정의 약속을 어기기가 어려워 길을 떠났다. 방 석사의 아우는 자수(子修)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아침에 창평(昌平) 내동(內洞)으로 갔다고 했다. 방 석사가 그의 노복으로 하여금 배행(陪行)하여 강을 따라 10리 정도 내려가게 했는데, 사공에게 분부하여 강을 건너 주게 한 뒤에 방 석사의 노복은 뒤쳐졌다.

서쪽의 모래 언덕을 따라 10리를 가고 방향을 바꿔 동쪽으로 향했다. 왼쪽으로는 큰 산을 끼고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긴 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돌길이 험준하여 말이 가기가 매우 어려웠다. 거의 10리를 더 가서 중주원(中洲院)의 큰길로 나오니 해는 이미 고개에 걸려 있었다. 채찍을 재촉하여 장화정 아래에 이르러 주막의 사람에게 물으니 답하여 이르기를, “한 양반이

173) 신행(贖行) :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돈과 물품을 말한다.

주포 주막(周浦酒幕)으로 향하면서 이곳 길가의 사람에게, ‘말 탄 두 사람이 찾아오면 주포로 지시하여 보내주게’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들은 대로 빨리 달려 주포 주막에 이르니 과연 김생과 벗 박씨가 함께 있었다. 또 석사(碩士) 임학룡(林學龍)과 낙안의 정(鄭) 생원이라는 자가 만나는 장소에 먼저 와 담소를 나누고 있어 주막에서 함께 유숙하였는데, 주막집 사내가 형편이 없어 찬밥에 멀건 국을 내오니 괴로웠다. 80리를 갔다.

二十日。朝前發行，由玉果前路，向擇村房碩士家，中間四十里，泥濘沒馬蹄，幾至顛覆者累次 苦哉苦哉。到房家秣馬，訪問櫟泉消息，而得兒入哭房書房內喪几筵。房友雖堅挽，而重違長花之約，離發房碩士之弟，以往見子修次，朝向昌平內洞云。房碩士使其奴者，陪行沿江下十里許，分付津夫渡江後，房奴落後。由西邊沙岸行十里，轉而東向。左挾太山右瞰長江，石路崎嶇，馬行甚艱。行幾十里，出中洲院大路，日已掛嶺。促鞭到長花亭下問酒幕人，則答云，“一兩班向周浦酒幕，而言于此處路邊人曰：‘當有馬上兩人來訪，指示送周浦矣。’”聞則疾馳，抵周浦酒幕，果有金生與朴友同在。且林碩士學龍與樂安鄭生員云者，先來逢場諧笑，同宿幕中，而酒幕漠無形，飯冷羹淡，苦哉。行八十里。

▪21일. 임생과 정생은 일찍 출발하여 오수(獒樹)로 떠나고 우리들 몇 사람은 조금 늦게 출발하여 원천(原川)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광한루 아래 주점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곧바로 출발하여 요천교(蓼川橋)를 건너 석사(碩士) 이건(李健)을 찾아갔다. 원천의 야촌(野村)에 이르렀는데, 노 서방(盧書房)은 마침 출타 중이었고, 딸아이가 나를 보고 통곡하니 도리어 보지 않은 것만 못하였다. 짐을 잘 간수해 둔 다음 친구 박씨와 김생 두 사람은 이웃에 사는 상한(常漢)의 집으로 함께 갔는데, 말은 마구간도 없고 구유도 없으니 뜰 가운데 우두커니 세워 두고 노랑(盧郎)이 오기를 기다렸다. 저녁에 노랑(盧郎)이 도착하여 안부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말을 먹이는 도구를 얻어 오게 했는데 군색함이 더할 나위 없이 심했다. 노군의 아들 효동(孝童) 형제는 참으로 유달리 사랑스러웠다. 30리를 갔다.

二十一日。林生與鄭生，早發向獒樹去，吾等數人，稍晚離發向原川。作路到廣漢樓下酒店朝飯，即發渡蓼川橋，歷訪李碩士健。抵原川野村，盧書房適

出他, 女息見我痛哭, 反不如不見也. 莊置朴金兩同行于隣居常漢家, 馬則無廐無槽, 空立庭畔, 以待盧郎之來矣. 夕時盧郎來到, 敍暄涼畢, 因使得來喂馬之具, 窘速莫甚. 盧郎之子孝童兄弟, 眞可奇愛. 行三十里.

▪22일. 일찍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떠났는데, 콩과 죽거리를 얻어 와야 하니 남원 동문 밖을 경유하여 들판을 지나 울치(栗峙)를 넘었다. 울천(栗川)에 이르러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돈 1냥을 내어 오수장(槥樹場)에서 콩과 양식, 말편자를 사고 말치(末峙)를 넘었다. 임실(任實) 땅이었다. 도마교(都馬橋)에 이르러서 2냥의 돈을 내고 유숙하였다. 80리를 갔다. 날마다 질퍽이는 길에 고달픈 여행길이 이어지니 말은 약하고 사람은 피곤하여 고민스러움을 말로 다할 수 없다.

二十二日. 早飯後發程, 而太與粥資得來, 由南原東門外, 歷一野踰栗峙. 抵栗川秣馬, 出錢一兩, 質太與糧及馬鐵于槥樹場, 踰末峙. 任實地也. 抵都馬橋, 出二兩錢留宿. 行八十里. 連日泥路, 艱辛行役, 馬弱人困, 苦憫不可言.

▪23일. 일찍 출발하여 신원(新院)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전주부(全州府) 안의 영주인(營主人) 집에 이르러 잠시 쉬 뒤에 가서 이 감사(李監司)를 만났다. 득아를 데리고 가서 또한 그를 만나 비석 일을 문의하게 하니 답하여 이르기를, “좋은 일을 하는데 어찌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의심하십니까. 애초부터 유허비를 막는 명령이 없었기에 이러한 의혹은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바야흐로 2월에 태인 땅에 장례를 치뤄야 하고 더구나 몸에 병이 있으니 다른 일에 경황이 없었다. 그러므로 감사가 그전에 두 차례 찾아와서 보고 훗날 혹 만나게 되면 그대로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폐물(幣物)지숙(紙束)필묵(筆墨)진소(眞梳) 등은 50냥으로 사서 짐 속에 넣어 두고 주인이 약간 요기하라고 4~5그릇을 내왔다. 박생이 길에 머무르지 못했으니 의송(議送)¹⁷⁴⁾을 올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인의

174) 의송(議送) : 동상 고을 백성이 수령에게 패소(敗訴)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하고 감영의 관찰사에게 항소(抗訴)하는 데 쓰이는 말인데, 감영의 관찰사에게 백성들이 글을 올려 뜻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쓰였다. 《儒胥必知 凡例》

외사(外舍)에서 묵었다. 60리를 갔다.

二十三日. 早發抵新院朝飯, 抵全州府內營主人家, 小憩後, 往見李監司. 率去得兒, 亦使見之. 問議碑事, 則答云, “好事豈有禁斷之致疑乎. 自初元無遺墟碑防塞之令, 以此訝惑, 甚可怪矣.” 吾方以二月營葬於泰仁地, 況有身病, 不違於他事, 監司此前兩次來見, 日後或有逢着, 尙爲言及云矣. 幣物紙束筆墨眞梳等, 以十五兩貿置卜中, 主人進略干療飢次四五器. 朴生以道不坐, 未呈議送矣. 宿主人外舍. 行六十里.

▪24일. 조금 늦게 박생(朴生)과 내일 낮에 익산(益山)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길을 떠나 삼례(參禮)에 도착했다. 남계(南溪)의 정생(丁生)을 만나 모여서 가다가 문내 주막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출발하여 익산으로 떠난 지 5리 쯤 못 가서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사납게 내리니 말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비록 한 벌의 우의가 있었으나 두루 몸을 걸치기에 부족하여 일행은 모두 비에 흠뻑 젖었다. 간신히 주막을 찾았지만 여행길에 나서서 이처럼 낭패를 당함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니 어찌하겠는가. 밤새도록 비와 눈이 내려 잠자리가 평온하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주인 사내가 매우 선량하고 제공하는 밥도 정성이 깃들어 있었으니 고통과 즐거움이 서로 절반임을 그제야 알았다. 50리를 갔다.

二十四日. 稍晚與朴生, 約以明午相會於益山, 發程到參禮. 逢南溪丁生會行, 暫話於門內酒幕. 離發向益山, 未至五里許, 大風驅雨暴至, 馬幾顛覆. 雖有一件油衫, 未及周着, 一行盡爲沾濕. 艱尋酒店, 役身其爲狼狽, 生來初見, 奈何奈何. 達夜雨雪, 寢眠難穩, 所幸者主漢極良善, 供飯亦精緊, 始覺苦樂之相半也. 行十五里.

▪25일. 눈보라가 그치지 않아서 일찍 출발하지 못했다. 식전에 송응규(宋應奎)의 집을 찾아가서 그 과부(寡婦)를 조문하였는데, 모습이 참담하여 차마 보고 들을 수가 없어 돈 1전(錢)과 해의(海衣) 2토(吐)를 내주고 곧바로 주막으로 돌아왔다. 우선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려보지만 여행하는 형편이 지체가 되니 고민스럽다. 조금 느즈막에 구름이 흩어지고 눈이 개어서 날이

쾌청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였다. 그러므로 짐을 싣고 문을 나갔더니 북쪽 하늘이 암흑처럼 캄캄하고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쳐서 결코 길을 떠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직 멀어서 바로 출발하고자 했다. 또 혹 낮이 되면 하늘이 개일 수도 있으니 서둘러 채찍질하며 길을 나섰다. 그러나 한결같이 춥고 눈보라는 종일 그치지 않았으며, 길에는 지나가는 사람마저 끊겨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었다. 바로 북쪽으로 향하여 간신히 병항 주점(瓶項酒店)에 이르렀으니 용안(龍安) 땅이다. 익산(益山)과는 40리 떨어져 있고 남당(南塘) 나무와는 10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 병항(瓶項)에서 묵었다. 40리를 갔다.

二十五日. 風雪不止, 未早發行. 食前尋往宋應奎家, 弔其寡婦, 形影慘不忍視聽, 以一錢二吐海衣出給, 卽還酒幕. 姑待日晴, 而行色遲滯憫憫. 稍晚雲散雪霽, 似有晴快之勢, 故載卜出門, 則北天暗黑, 凜風吼怒, 決難作行, 而前途尙遠, 欲爲縮站. 且或向午天晴, 促鞭就道. 一向寒凜, 且風且雪, 終日不止, 路絕行人, 莫由尋問, 直北投向, 艱抵瓶項酒店. 龍安地也. 距益山四十里, 去南塘津頭十里云. 宿瓶項. 行四十里.

▪ 26일. 아침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북쪽으로 15리를 가서 남당(南塘) 나무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조금 쉬면서 나룻배를 기다렸다가 이윽고 강을 건넜다. 강어귀에 양반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바로 병사(兵使) 유주기(兪胄基)의 집이라고 한다. 북쪽으로 20리를 가서 옥곡(玉谷)에 다다르니 이 지평(李持平)이 제수의 과장(過葬) 때문에 지금 백마강(白馬江) 옛 집에 갔다고 했다. 그러므로 옥곡에서 잠시 쉬었다가 점심을 먹은 뒤에 백마강으로 향해 가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 오고간 산길이 거의 몇 리나 되었다. 김 서방이 산곡(山谷)의 묘지기 사내를 불러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이 아래 들 가운데 가로로 뻗은 길을 내려가면 곧바로 백마진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길을 재촉하여 말을 몰아 두 고개를 넘어 읍곡역(邑谷驛) 마을 앞으로 나왔다. 북쪽으로 큰 들이 바라다 보이고 규암(窺巖) 나무까지는 20리를 가야 한다고 하니 해는 저물고 길은 질퍽거리 고민스럽다. 간신히 강을 건넜는데, 사공이 언덕에 배를 대려고 노를 돌리자 호통을 치며 거슬러

올라가게 했더니 곧바로 북쪽 모래 언덕으로 향했다. 사공은 어쩔 수 없이 명을 따르더니 내리자마자 빨리 배를 몰아 질주했다. 주막에 이르니 해는 이미 어둑해졌다. 60리를 갔다.

二十六日. 朝飯後離發, 向北行十五里, 抵南塘渡頭. 稍歇待津船, 俄而渡江. 江頭有兩班居, 乃兪兵使曹基家云. 北行二十里, 得達玉谷, 則李持平以弟嫂過葬事, 方往白馬江舊宅云, 故暫歇玉谷午飯後, 尋向白馬江. 中間迷失道, 來往山路幾數里. 金書房呼山谷守墓漢而問之, 則曰: “此下野中橫途, 乃直去白馬津路.” 故促行驅馬, 踰二嶺, 出於邑谷驛村前. 北望有大野, 往窺巖津頭二十里云, 日暮路泥憊憊. 艱辛渡江, 津夫欲泊岸而回棹, 驅叱泝流, 直向北邊沙岸, 津夫不得已從命, 纔下疾馳. 抵酒幕, 日已昏黑. 行六十里.

▪27일. 아침에 이 지평의 집에 가서 오게 된 까닭을 자세히 진술하고 《충효록》 문자 받기를 청하였다. 가지고 온 충효록을 펼쳐 보더니, “서술이 지극하니 다시 무슨 말을 덧붙이겠습니까.”라며 굳이 사양하였다. 내가, “이미 두 분 송씨 자손의 글을 받았습니다. 또 사충(四忠) 자손의 글을 얻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세 곳에서는 이미 받았으니, 지평께서는 굳이 거절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라고 한 연후에야 허락하였기에 비로소 예물로 가지고 온 폐물과 지필묵, 그리고 해의(海衣)와 전복(全卜) 약간을 올리고서 주막으로 물러나왔다. 아침을 먹고 출발하려고 할 때에 다시 사양을 하였는데, 반드시 본책 《충효록》을 남겨 참고하고 근거할만한 자료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역천(櫟川)에 도착하면 마땅히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길을 떠났다. 부여 읍내에 도착하여 말을 남겨 두고 나만 홀로 주막을 지켰다. 득아와 김 서방은 낙화암(落花巖)과 조룡대(釣龍臺), 고란사(皐蘭寺)를 구경하고 돌아왔다. 곧바로 석성(石城, 충청남도 부여의 옛 지명)의 탄동 주막(炭洞酒幕)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가 논산(論山)을 향해 길을 나섰다. 날이 저물어 논산에서 투숙했는데, 주점은 석교(石橋)가 강 언덕 위에 있었다. 주막은 비록 작았으나 행인이 매우 많았으니, 이들은 모두 청어상(靑魚商)으로 강경(江景)을 왕래하는 자들이다. 50리를 갔다.

二十七日. 朝往李持平家, 細陳來由, 請受忠孝錄文字. 披閱持來忠孝錄曰:

“敍述至矣，更何贅說。”固辭不已。余曰：“既受兩宋子孫之文，又得四忠子孫之文，平生所願，三處已受，持平似不可堅拒矣。”然後乃許，始進禮幣紙筆墨及海衣全卜略干。退來酒幕，朝飯臨發更辭，而必留本冊忠孝錄，以爲考據之資，故約以到櫟川當送而發程。到扶餘邑內留馬，余獨守幕，得兒與金書房，見落花巖釣龍臺阜蘭寺而還。卽發到石城炭洞酒幕暫歇，向論山作行，暮投論山，店在石橋邊江岸上，幕雖小，行人甚多，皆是青魚商，往來江景者也。行五十里。

■28일. 눈 때문에 일찍 출발할 수 없어서 아침을 먹고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아침을 먹은 뒤에 조금 개니 연산(連山)으로 향하여 길을 나섰다. 임촌(林村)의 사계 선생(沙溪先生) 서원 앞에 들러 박금미(朴琴未)를 방문하고, 이 생원이 사는 곳에 어렵사리 도달하니 자수(子修)가 과행(科行) 길에 먼저 와서 있었다. 객지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 놀랍고 반가움을 어찌 말로 다하랴. 과행 길의 세 사람은 임담(林潭)과 임돈(林墩)으로 자수와 함께 동반한 자들이다. 주인 이 생원은 정월 초에 상을 당하여 지금 장사지내는 일을 경영 중인데다가 과거 길에 오른 사람과 우리 일행이 한꺼번에 도착하고, 눈보라 또한 거세게 휘몰아치니 보기에 매우 번거롭고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못 정성스럽게 접대하지 못함을 말하였다. 자수와 방을 나누어 각각 머물며 말을 살피 먹이도록 했다. 또 조용히 등사한 《충효록》 하나를 내어서 백마강으로 보낼 생각에 인편을 빌려 이 지평의 집에 전송하려는 뜻을 말하니 자못 난처한 기색이었다. 이는 대개 새로 대상(大喪)을 당한 뒤라서 노비들은 흩어져 있고 지사(地師)를 청주 땅에 꾸려서 보내야하니 바빠서 틈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3전의 돈을 내주어 그로 하여금 수삼일 간에 보내주기로 간곡히 약속했다. 밤사이에 눈이 한 자 남짓이나 내려 길을 다니기가 매우 어려우니 어찌하겠는가. 20리를 갔다.

二十八日。以雨雪不得早發，因朝飯待晴。食後稍霽，向連山作路。歷林村沙溪先生書院前，訪朴琴未，李生員所居，艱以得達，則子修科行，先以來到。客地相逢，驚喜何言。科行三人，林潭林墩與之同伴者也。主人李也，正月初遭喪，方營葬事。且科行及我行一時并到，風雪亦大作，所見似甚煩苦，而小

不介意，頗以不能款接爲言矣。與子修分房各處，以其看檢喂馬。且從容贍出忠孝錄一件，送于白馬江計也，借人送傳李家之意言及，則頗有難色。蓋緣新遭大喪之餘，奴輩散亡，治送地師于清州地，奔忙未隙之致云，故出給三錢，使之數三日間傳去事，丁寧相約。夜間雪下尺餘，行途甚艱奈何。行二十里。

▪29일. 눈발이 조금 그쳤다. 밥을 먹은 뒤에 자수(子修)와 헤어져 나는 역천(櫟川)으로 향하고 자수는 효가(孝家)로 향하여 떠났다. 연산읍(連山邑) 앞을 경유하여 한 고개를 넘는데, 고갯길이 험악하였다. 두거리(豆巨里) 주점에 이르니 비록 20리라고 하나 40~50리나 다름이 없었다. 말에게 꼴을 먹인 다음 길을 떠나 유천(柳川)에서 유숙하였다. 해는 이미 어둑어둑하였다. 공주 땅이다. 70리를 갔다.

二十九日. 雪意稍止. 食後與子修分路, 余向櫟川, 子修向孝家而去. 由連山邑前越一嶺, 嶺路險惡. 抵豆巨里酒店, 雖云二十里, 無異四五十里矣. 秣馬作行, 向柳川留宿. 日已昏黑矣. 公州地也. 行七十里.

▪2월 1일. 일찍 출발하여 애천장(艾川場) 근처에서 요기를 하고 두치(痘峙)를 넘었다. 두치 아래에 영당(影堂)이 있는데, 이 영당에는 바로 주자의 화상(畫像)이 있고, 왼쪽에는 우암(尤庵)의 화상이 걸려 있었다. 말에서 내려 들어가 참배하였다. 역천으로 향하는 길에 말이 진흙 구덩이로 굴러 떨어져서 짐이 흠뻑 젖어 버렸으니 한탄스럽다.

역천에 이르러 마을 집에서 조금 쉰 뒤에 들어가 송 참의(宋參議)를 배알하고 그 며느리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였다. 이어 한포재(寒圃齋)에 세울 비석에 글 써주기를 요청하는 뜻을 말하자 이를 허락하였는데, 반드시 비문의 원고가 나온 연후에야 쓸 수 있으니 그 때에 폐물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는 아직 폐물을 들이지 말라고 하였다. 득아에게 지필묵과 전복, 해의를 받들고 가게 했더니, 전복과 해의는 입맛을 돋게 함으로 받고 지필묵은 받지 않았으므로 득아가 나왔다. 참의가, “비문은 미호(溟湖)에게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참의가 술잔을 권하자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함으로 사양하니, 참의가, “여행길에 술을 조금 마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더니 인하여 소동(小童)을 시켜 반잔의 술을 올리게 하였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 겨우 한잔을 마셨는데, 이미 취기가 돌았다. 이에 출발에 앞서 작별인사를 올리고 머물던 주인집으로 물러나왔는데, 득아와 김 서방이 얼굴에 붉은 빛이 도는 것을 보고는 혹 병이라도 생겼을까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나는 “조금 전에 장식(丈席, 학덕(學德)이 높은 사람)과의 자리에서 반잔의 술을 마셨는데, 어지러운 기운이 있는 듯하기에 물러나왔다.”라고 답하였다.

밥을 먹은 뒤에 다시 들어가 아뢰기를, “폐물은 비록 비문을 쓰기 전에 받지 않겠다고 하교하셨으나 얼마 전에 길 위에서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짐이 흠뻑 젖어 싸 가지고 서울로 들어갈 수 없으니 썩거나 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 노복도 없는 행색이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니 우선 놔두고 갈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자 참의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납폐(納幣)의 예는 없애고 행하지 마시지요. 우선 남겨두고 가셨다가 비문 보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더니 좌우에 명하여 받아 두게 하였다. 그러므로 비문을 받기로 약속한 뒤에 곧바로 마땅히 보내주기로 하였다. 하직인사를 드린 뒤에 나왔다. 또 득아에게 들어가 하직하고 물러나오게 하니 비문을 보낼 때 죽청지¹⁷⁵⁾를 담아 보내오는 것이 지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였다. 출발하여 삼정동(三丁洞) 주막에 이르니 해는 이미 저물었다. 50리를 갔는데, 진창길이라서 말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 여러 번이었다.

二月初吉. 早發抵艾川場邊療飢, 踰痘峙. 峙下有影堂, 卽朱子畫像, 左邊掛尤庵畫. 下馬入謁, 向櫟泉之路, 馬墜泥坑, 卜物沾濕, 可歎. 抵櫟泉, 小歇村舍, 入拜宋參議, 慰其遭子婦之憾. 因陳寒圃齋豎碑請書之意, 許之而必須碑文出稿, 然後可以書之, 其時受幣可矣, 姑勿納幣云, 而使得兒奉去紙筆

175) 죽청지(竹淸紙) : 대나무를 원료로 한 죽청지(竹淸紙)는 얇고 질긴 종이의 한 가지로 빛깔이 파르스름하다. 우리나라 남쪽 고을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며, 비문을 쓰는 사람은 훔치고 얇아서 모각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 종이를 사용하였다.

墨及全卜海衣, 卜與海衣, 以助味受之, 紙筆墨不受, 故得兒出來. 參議曰: “碑文受之泮湖最可矣.” 余之拜話時, 參議使酒盃, 余辭以未飲, 參議曰: “行役之中, 小喫無妨.” 因使小童酌進, 半盃素是不好, 纔飲一勺, 已有醉氣. 乃以臨發拜辭爲言, 退來所館主人家, 得兒及金書房, 以面有赤色, 疑或生病, 怪而問之, 答曰: “俄間喫半盃酒於丈席, 而似有眩亂之氣, 故退出耳.” 食後更入告之曰: “幣物雖以不受於未書碑文之前爲教, 而俄者道上馬躓沾濕, 不可裹入京裡, 致有朽傷. 且無奴行色, 持往持來勢甚難, 便恕量姑置, 未知如何.” 參議曰: “然則納幣之禮, 除而勿行. 姑使留去, 以待碑文之送來似可矣.” 命左右受置. 約以碑文受出後, 卽當送納計計, 拜辭而出. 又使得兒入而辭退, 則送碑文時, 竹清紙容入送來, 至妙云矣. 離發抵三丁洞酒幕, 日已昏矣. 行五十里, 而以泥濘墜馬者數次.

▪2일. 출발하여 5리를 가서 형강(荊江)을 건너고 문의(文義) 읍내를 지나 청주(淸州) 남문 밖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이날 또한 말이 진흙길에 넘어져서 몹시 고생스러웠다. 출발하여 성안을 지나서 진(鎭)의 북문을 나와 10리 쯤 갔다. 작천교(鵲川橋)를 건너 오공 주막(蜈蚣酒幕)¹⁷⁶에 이르렀다. 80리를 갔다.

初二日. 離發行五里, 渡荊江, 過文義邑內, 抵淸州南門外秣馬. 是日亦馬蹶墜泥, 苦哉苦哉. 離發衝過城中, 出鎭北門行十里許, 渡鵲川橋, 抵蜈蚣酒幕. 行八十里.

▪3일. 비 때문에 일찍 출발하지 못하고 조금 늦게 길을 나섰다. 진천(鎭川)으로 향하여 대치(大峙)를 넘었다. 바람과 날씨가 고르지 못하니 고민스럽다. 진천 읍내 주막에서 조금 쉬었다가 곧바로 길을 떠나 바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장곡(長谷)으로 향하는데, 눈보라가 매우 사나울 뿐 아니라 비 온 뒤 냇물에 눈이 더하여 크게 불어나서 사람들이 건너가는 다리가 끊어져

176) 오공 주막(蜈蚣酒幕): 아들 송지행의 일기에 의하면 ‘오공 여막(吳公旅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虫’이 탈락한 것으로 볼 때, 저본의 ‘虫+空’ 또한 ‘蚣’의 오기일 듯하여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버렸다. 김생이 도처로 물을 건너는데¹⁷⁷⁾ 보기에 매우 걱정스러웠다.

간신히 개족 주막(蓋足酒幕)에 도착하였는데, 주막의 사내가 노쇠하고 기력이 쇠잔하였기 때문에 형세상 응대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여행객이, “근래에 그의 아내는 해산하여서 불 때어 밥 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 벋짚 등의 물건도 없어서 여러 가지로 한사코 거절만 하였는데, 솟양이 울타리에 걸려든 것과 같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처지라서¹⁷⁸⁾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 주인 사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을 집에서 벋짚과 미당(粥糖)을 사오고, 그 아내는 밖으로 나와 머리를 감고 양식을 청했다.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군색하나 실체는 성정이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60리를 갔다.

初三日。以雨未得早發，稍晚作行。向鎮川而踰大峙，風日不順苦憫。小歇鎮川邑內酒幕，旋則作行，直北泝流，向長谷，不但風雪甚惡，雨後川流，添雪大漲，而斷橋梁之濟人。金生到處揭厲，所見憫憫。艱到蓋足酒幕，幕漢以衰老殘敗者，勢不能酬應，行旅稱“以近間解產，決難炊飯。”且無藁草等物，多般牢拒，而有同抵羊之觸藩，御卜入房，則主漢不得已貿藁與粥糖於村舍，其妻出外沐髮而請糧。渠雖貧窶，實則性良之人也。行六十里。

■4일. 일찍 출발하여 부읍치(扶邑峙)를 넘어가다가 도중에 커다란 호랑이의 발자국을 보았다. 예전에 비록 호랑이의 발자국을 본 적이 있지만 이처럼 커다랗지는 않았다. 겨우 고개 위에 이르자 호랑이의 발자국은 깊고 뾰뾰한 숲속으로 사라졌지만 마음은 몹시 두려웠다. 넓은 들판으로 나와 안성으로 향할 즈음에 오른쪽 산 정상에 성을 쌓은 모양이 있고, 그 아래에 돌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가서 보니 홍장군계남고루비(洪將軍季男故壘碑)¹⁷⁹⁾로,

177) 물을 건너는데 : 원문의 ‘계려(揭厲)’는 물을 건너는 것을 의미한다. 《시경》〈패풍(邶風) 포유고엽(匏有苦葉)〉에 “강물이 깊으면 옷을 벗고 건너고 얇으면 옷을 걸고 건너다.[深則厲 淺則揭]”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178) 솟양이 …… 처지라서 :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곤경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주역》〈대장괘(大壯卦) 상육(上六)〉에 “솟양의 뿔이 울타리에 걸려 물러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한다.[羝羊觸藩，不能退，不能遂]” 하였다.

179) 홍계남장군고루비(洪季男將軍故壘碑)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산에 위치하며, 1745년에

비석의 글은 사문(師門, 스승 이재(李緯))이 찬하고, 민 대헌(閔大憲, 민우수(閔遇洙))이 썼으며, 유 재상(兪宰相, 유척기(兪拓基))이 새긴 것이었다. 안성 주점(安城酒店)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예전에 세마(洗馬) 유사정(兪士精)¹⁸⁰이 이곳으로 옮겨와 거처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찾아가 만나리라 생각하였다. 조금 있으니 벽제(辟除)¹⁸¹ 소리가 들렸다. 이는 세마의 아우 유언호(兪彦鎬)¹⁸²가 이제 막 홍산(鴻山, 충남 부여지역의 옛 지명) 군수(郡守)가 되어 홍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부친¹⁸³을 찾아가 뵈고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홍산 군수는 또한 전부터 안면이 있지만, 득아의 경우는 지난해 서울에 있을 때에 매우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의관을 정돈하고 유 능주(兪綾州) 집에 찾아가니 문밖이 요란하므로¹⁸⁴ 바로 사랑으로 들어갔다. 사정의 아들 진사가 동쪽 성문(省門, 관아문) 안으로 가기를 지시하여서 사정이 항상 거처하는 곳으로 들어와 앉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사정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 홍산의 내행(內行)이 도착하여서 형편상

건립된 것이다. 흥계남의 본관은 남양으로,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의병을 일으켜 여러 곳에서 승리하였다. 그 공으로 수원판관, 영천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이몽학의 난을 토평하기도 하였다. 비문에는 흥계남의 생애와 임진왜란 시의 행적이 잘 드러나 있다.

180) 유사정 : 유언집(兪彦鑣, 1714~1783)으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사정이다. 권상하(權尙夏), 이재(李緯)의 문인으로 학행이 있어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세자시강원 자의가 되고, 1778년 경연관이 되었으며, 1783년에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이 되어 원자를 보도(輔導)하였다. 그 뒤 이조 참의에 이르러 치사(致仕)하였다. 아버지는 유직기(兪直基)이다. 정암의 사위 유언호(兪彦鎬)의 형이다.

181) 벽제(辟除) : 임금이나 관리 등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선도하는 군졸들이 큰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고, 길에서 비키도록 한 일이다. 원래는 개벽(開闢) 혹은 소제(掃除)의 뜻으로 길을 열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게 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귀인이나 관리들의 위엄을 과시하는 의례로 변질되었다.

182) 유언호(兪彦鎬) : 1730~1796.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사경(士京), 호는 칙지현(則止軒),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아버지는 우윤 유직기(兪直基)이며, 어머니는 김유경(金有慶)의 따님이다. 1761년(영조37)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다음 해 한림회권(翰林會圈)에 선발되었다. 이후 주로 사간원 및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칙지현집》《연석(燕石)》 등이 있다. 정암의 막내딸과 결혼하였다.

183) 그 부친 : 유직기(兪直基, 1694~1768)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청보이다. 저서로 우리나라 선현(先賢)들의 가언(嘉言)·선행(善行)을 모은 《해동가언선행(海東嘉言善行)》이 있다.

184) 요란하므로 : 저본의 ‘喑’은 문맥의 흐름상 ‘嘩’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그러한 듯하기에 수청(隨廳)¹⁸⁵하는 아랫사람에게 통보하게 했더니 진사가 먼저 오고, 사정이 또 와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다. 조금 오래 있으니 사정이 먹고 마실 것을 올리게 했다. 또 홍산을 불러서 나와 보았는데, 홍산이 나를 보고 자못 정성스럽고 곡진한 마음을 보여 주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눈 뒤에 작별을 고하고 주막으로 나아가 곧바로 길을 떠났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다. 진흙길의 험악함은 전날보다 더욱 심했다. 나는 복통으로 설사를 하었는데, 말에서 내려 여러 차례 쉬게 되니 괴로웠다. 간신히 신주막(新酒幕)에 이르니 주막집 주인 늙은이가 매우 불량하여 한사코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간청해보았지만 끝내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부엌에서라도 머물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어찌 대처할 방법이 없어 말을 울타리에 매어 두었더니 또한 거북한 말을 내뱉었다. 혹은 처마 밑에 앉거나 혹은 뜰 가운데 서서 머물지 못하고 있을 즈음에 곁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집은 비록 거처할 만한 온돌도 없지만 지금 형편으로 보아 매우 절박하니 우선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급히 가서 그의 집에서 투숙하였다. 주인은 매우 선량하였으나 딸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밥을 지을 수가 없고, 또한 벼짚도 없었다. 가가(假家, 임시 건물)의 주목(柱木)에 말을 매워두고 나왔는데, 처음 들어갔던 주막의 인정머리 없는 늙은 놈보다 훨씬 나으니, 세상 사람들이 말한 ‘좋은 사람이 없다[無好人]는 세 글자’¹⁸⁶는 빈말이라 이를 만하다. 김생과 득아가 주인 사내를 불러 죽을 끓이기를 권유하여 조석으로 올리니 다행이었다. 나는 기절하여 인사를 살필 수 없는 지경이 되니 득아와 김생이 밤새도록 잠을 못자고 앉아서 새벽을 기다렸다.

185) 수청(隨廳) : 조선조 때 종친부(宗親府)나 의정부(議政府)의 고관과 기타 육조(六曹) 등 여러 관아의 고관(高官)에게 각각 녹사(錄事)·서리(書吏) 몇 사람을 배속(配屬)하여 사무를 보조하게 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집사(執事)라 하여 사저(私邸)에서 공무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은 상관이 근무하는 관청에서 사무를 보게 하였는데, 이를 수청이라 한다.

186) 좋은 …… 글자 : 《소학》〈가언(嘉言)〉에서 여희철(呂希哲)이, “은혜와 원수를 분명히 하라는 네 글자는 도가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며,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다는 세 글자는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후생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恩讎分明此四者, 非有道者之言也, 無好人三字, 非有德者之言也. 後生戒之.]”라고 하였다.

오늘 여행길은 매우 낭패이다. 60리를 갔다.

初四日. 早發踰扶邑峙, 見道中巨虎之跡. 曾前雖見虎跡, 而未有若此者. 纔到嶺上, 虎跡入林藪深密處, 心甚懍懍. 出廣野, 向安城之際, 右邊山頂有築城形止, 其下立石碑, 往見則洪將軍季男故壘碑, 師門撰之, 閱大憲書之, 俞相篆之矣. 抵安城酒店秣馬. 前聞俞洗馬士精, 移居于此, 今番尋見爲意矣. 俄聞呵殿之聲, 云是洗馬之弟彥鎬, 方爲鴻山郡守, 下往鴻山之路, 歷謁其親而來. 鴻山亦曾見有面分, 得兒則最親於向年入洛時. 整頓衣冠, 尋往俞綾州家, 則門外喧嘩, 直入舍廊. 士精之子進士, 指往東邊省門內士精所常居處, 入坐, 久士精不出. 蓋鴻山內行來到, 勢所固然, 使隨廳下人通之, 則進士先來, 士精又來款話. 稍久士精, 使進飲啖. 又招鴻山出見, 鴻山見我, 頗有款曲之意. 小話後辭別, 就酒幕卽爲離發. 日已西矣. 泥路之險, 比前尤極. 余有腹痛泄瀉, 而下馬累歇, 苦哉. 艱抵新酒幕, 幕漢老者極不良, 牢拒不納. 多般懇乞, 終不許, 至於求處廚間爲言, 而亦不許. 夜已向深, 末由處置, 繫馬籬帶, 則亦出困談, 或坐簷下, 或立庭中, 莫可住着之際, 傍有一人, 乃言曰: “吾家雖無居處溫突, 今觀事勢, 甚爲憫迫, 且向吾家如何.” 得聞此言, 急往投之. 主人極良, 然以無柴之, 故不得造飯, 亦無薰草. 繫馬假家柱木以過, 而大勝初入老漢之極惡, 世云無好人三字, 可謂虛言矣. 金生與得兒, 招誘主漢煮粥, 以進於朝夕, 可幸. 余則昏倒不省人事, 得兒與金生, 達夜不寢, 坐以待曉, 甚矣今行之狼狽. 行六十里.

▪5일. 일찍 출발하였다. 사람은 굶주리고 말은 피곤하였다. 5리쯤 가서 겨우 장사리(長沙里) 주막 앞에 이르렀는데,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미끄러지는 바람에 공중에서 땅으로 추락하였다. 진흙길이 풀리지 않아 딱딱하기가 마치 바위 절벽 같았다. 처음 떨어질 때에 중상을 입은 줄 몰랐는데, 주막에 들어가 쉬니 허리 아래로 당기며 심한 통증이 있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부어올라 굽히고 펼 수가 없으니 어찌하랴. 득아와 김생이 이대로 주막에서 머물며 조리하기를 강청하였지만 나는 “대단한 것이 아니니 어찌 가는 길을 지체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천동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우선 가서 형세를 살펴보도록 하자.” 라고 하고 서둘러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서니

득아가 매우 애가 타는 듯 걱정스러워했다.

천동에 이르자 해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내 병을 조리하고 또 선생의 산소와 영당(影堂)을 참배한 뒤에 출발하자면 만의(萬義)까지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기에 사랑에서 유숙하였다. 사랑에 이르자마자 곧바로 누웠는데,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서 득아로 하여금 선생의 묘소에 가서 참배하게 하고, 나는 내일 아침을 기다려 배알할 계획이었다.

어떤 한 양반이 찾아와 보았는데, 그에게 물으니 신보(愼甫)의 중형(仲兄)이라 하였다. 이전에 안면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하더니 스스로 말하는 도중에 보령(保寧)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처음으로 여기에 왔다고 했다. 신보의 아들 흥운(興運)을 불러오게 하니 흥운이 바로 왔는데, 이목구비가 맑고 수려하며 체격은 건실하여 장차 성인(成人)이 되면 그 아버지보다 나를 듯하였다.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나를 따라 묻고 말하고 싶어 하자 그 숙부가 꾸짖어 쫓으며 글을 읽으러 가게 했다. 저녁에 또 오자 그 숙부가 또 꾸짖어 공부하기를 권면하는 뜻이 지극하였는데, 어린 아이가 부친의 소식을 상세히 알고자 하는 뜻을 막아버리고 이루지 못하게 하니 그의 소견이 박하였다.

득아와 김생이 한생(漢生)에게 닭을 살 수 있는 곳을 물으니 한생이 사가지고 왔는데, 양식과 콩, 죽거리도 모두 한생이 사왔다. 한생은 바로 선생 집안의 수노(首奴)¹⁸⁷이다. 지금은 그의 손자로 하여금 선생 댁을 지키게 하고 인하여 수노가 되었는데, 그는 새로 지은 집에서 별도로 거처하였고 정수리에 옥권(玉卷) 장식을 하였으니 상놈 중에 호걸이라 할 만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매를 날리는가에 대해 물으니 대답하기를, “근래에 핏이 없어 그만 두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계금(桂金)도 또한 와서 보았는데, 각각 해의 1토(吐)을 주고 흥운은 3토(吐)를 주었다. 밤에 따뜻한 곳에서 땀을 내니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 20리를 갔다.

初五日。早發人飢馬困，行五里，纔到長沙里酒幕前，馬忽顛蹶，空中墜地。泥濘未解，有若石崖。初落時不知重傷，入歇幕，則腰下牽引深痛，左手末指，

187) 수노(首奴) : 관아에서 부리는 관노(官奴)의 우두머리로, 관노 중에 연륜이 가장 높아 사정에 밝은 남자 하인이 맡았다.

現有浮氣, 不能屈伸, 奈何. 得兒金生強請因留幕中調理. 余曰: “不至大端, 何可滯行, 此去泉洞不遠, 且往觀勢.” 促裝登程, 得兒甚憫迫矣. 抵泉洞日尚早矣. 爲調余病, 且拜謁先生山所及影堂而離發, 則往于萬義, 決不可得達, 留宿舍廊. 纔到卽臥, 未能作氣, 使得兒往拜先生墓下, 余則待明朝, 拜謁計計. 有一兩班來見, 問之則慎甫仲兄也. 曾未有面分, 可恨云爾, 則自言中居于保寧, 今始來此. 招來慎甫之子興運, 則興運卽來, 眉目清秀, 形體牢實, 來將成人, 似勝於其父. 能問其父安否, 意欲陪我問話, 其叔叱逐, 使往讀書. 夕間又來, 其叔又叱勸課之意至矣, 而小兒欲詳父親消息之志, 拒塞未遂, 所見薄矣. 得兒與金生, 問買鷄處于漢生, 則漢生得買以來, 糧太粥賚, 皆使漢生貿來. 漢生乃先生家首奴也, 今則使其孫 守直先生宅, 因爲首奴, 而渠則別處新舍, 頂加玉卷, 常漢中可謂豪傑. 問其今尚飛鷹, 則答云“近來無雉, 廢之矣.” 桂金亦來見, 各給海衣一吐, 興運則給三吐. 夜間溫處就汗, 顯有微效. 行二十里.

▪6일. 아침을 먹기 전에 영당(影堂)에 침배하고 득아에게 침배록에 이름을 적게 하였다. 영정(影幀)은 영당 서쪽 가 동쪽 방향으로 만들어진 감실(龕室)¹⁸⁸에 걸려 있으며, 영당 가운데 북쪽 벽 문미 사이에는 ‘한천서사(寒泉書社)’ 네 개의 큰 글자가 걸려 있고, 영당의 동쪽에 만들어진 방은 학생들로 하여금 때로 와서 강송(講誦)하게 하는 곳이었다. 영당은 매우 정묘하여 노닐고 수학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할 만하였다. 침배를 한 뒤에 선생의 산소에 가서 절하고 한차례 두루 살펴본 다음, 사랑(舍廊)으로 돌아와서 행장을 꾸리고 출발하여 마을 어귀의 문을 나오니 서운한 마음에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서쪽으로 향하여 길을 나서 긴 계곡으로 들어가 10여 리를 가서 한 고개를 넘으니 바로 만의(萬義) 송 세마(宋洗馬)가 거처하는 마을이다. 세마는 옛집의 남쪽 아래 수십 보쯤 되는 곳으로 옮겼는데, 정실(正室)은 기와로 덮여 있고 사랑도 또한 전보다 나왔다. 둘러보니 낭저(廊底)에 여사(閭舍)가

188) 감실(龕室): 돌아가신 사람의 위패를 봉안해 두는 사당 내부의 공간이다.

없었다. 그러므로 바로 들어가 사랑 밖에서 하마(下馬)하고 곧바로 들어가니 세마가 몹시 놀라고 기뻐하였다. 한참 동안 정담을 나누다가 자수의 편지를 전해 드리고, 또 가지고 온 약간의 해의와 전복을 드린 다음 곧바로 작별을 고하였다. 가는 길의 험이(險易)에 대해 상세히 묻자 세마가 나와 방 밖에서 동쪽 고개 지름길을 가리켜 주었다. 작은 고개 아래의 장곡(長谷)을 넘어 간신히 열원(悅院)에 이르렀다. 50리를 갔다.

初六日. 朝前瞻拜于影堂, 使得兒題名瞻拜錄. 影幀掛影堂西邊東向爲龕, 堂中北壁楣間, 懸寒泉書社四太字, 堂東邊爲房, 使學子時來講誦. 堂甚精妙, 可合遊修. 瞻拜後, 往拜先生山所, 周省一次, 還來舍廊, 裝發出洞門, 心思悵然, 若有所失. 向西作行, 入長谷行十餘里, 踰一嶺, 卽萬義宋洗馬所居村. 洗馬移于舊舍之南下數十步許, 正室以瓦蓋覆, 舍廊亦勝於前. 回瞻無廊底閭舍, 故直入舍廊外, 下馬卽入, 洗馬大爲驚喜. 款話移時, 傳納子修簡封, 又納持來略干海衣全卜, 旋即告別. 詳問去路險易, 洗馬出立房外, 指示東嶺捷徑. 踰小嶺下長谷, 艱抵悅院. 行五十里.

■7일. 일찍 출발하여 낮에 신원(新院)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양재교(良才橋)를 지나 안 진사의 옛 터를 바라보니, 인가(人家)는 없고 모두 밭과 들판뿐이라서 길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안 진사의 아들이 돌아와 길 왼편 서쪽 가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행색이 변변치 않음으로 인해 찾아가지 못하고 바로 한강에 이르러서 나루를 건너 성으로 들어가니, 해는 아직 남아 있었다. 쌍동(雙洞)에 이르니 주인이 놀라워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70리를 갔다. 혹 생원 박성서가 서울에 먼저 들어와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서울에 도착했는데도 아득히 소식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자수는 그저께 들어왔다고 한다.

初七日. 早發午秣新院, 過良才橋, 望見安進士故基, 未有人家, 盡爲田野, 問于道傍人, 安進士之子還居道左西邊云矣. 緣行色忽忽, 未得尋訪, 直到漢江, 渡津入城, 日尙早矣. 抵雙洞, 主人驚喜歡迎. 行七十里. 朴生員聖瑞, 意謂先入洛企待矣, 到洛杳無所聞, 可鬱鬱. 子修再昨入來云.

▪8일. 몸의 병이 완쾌되지 않은데다가 또 입은 옷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벗어서 빨게 하고 종일 이불을 꺼안고 누워있으니, 마음이 매우 답답했다. 자수의 강(講)이 통을 받았다고 들으니 다행이다.

初八日. 身病不快, 且所着盡爲沾汚, 故脫使澣濯, 終日抱衾而臥, 心甚憫鬱, 聞子修講通, 可幸.

▪9일. 비가 오다. 석수(石手) 최상운(崔尙云)을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또 원흥보가 있는 곳을 탐문하였지만 알 수가 없어서 고민스럽던 차에 마침 고향 사람 중에 내려가는 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므로 편지를 써서 날이 개기를 기다린 뒤에 전송했는데, 고향 사람이 와서 편지를 받아서 떠났다. 쌍동에 거주하는 초관(哨官) 구유득(仇有得)은 바로 예전에 서로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와서 바로 만나고 내가 온 까닭을 들려 주었다. 또한 원흥보의 소식을 수소문하게 하였더니 저녁쯤에 간 곳을 대략 알려 주었다.

初九日. 雨. 石手崔尙云, 使人訪問, 或云已死, 未能的知. 且探元興甫所在, 而不知憫憫, 適聞有鄉人下去者, 故修書以待日晴後傳送矣. 鄉人來受簡封而去. 雙洞居仇哨官有得, 卽前日相愛者, 而今來卽見, 聞吾來由, 亦爲訪問元興甫消息, 夕間略聞去處.

▪10일. 맑다. 김 서방이 어지럼증으로 아파서 누워 있다. 이는 본래 가지고 있는 병이었지만 객지 생활 중에 걱정스러움을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아침을 먹기 전에 조해명(趙海明)이 찾아왔다. 조해명은 바로 우리 집안 《충효록》을 인쇄하고 포장해 준 사람으로 정리(情理)가 매우 절실하였는데, 여러 해 동안 소식이 막혀 있다가 지금 갑자기 얼굴을 보게 되니 매우 반갑고 기뻐다. 또 원흥보가 거주하는 곳을 물었더니 지금 냉정동(冷井洞)에 있다고 하기에 사람을 시켜 찾아가게 할 생각이었다.

初十日. 晴. 金書房以眩症痛臥, 此是本病, 客中爲憫, 有不可言. 朝前趙海明來見, 明乃吾家忠孝錄印裝之人也. 情甚懇切, 累年阻音, 今忽見面, 欣喜殊深. 又問元興甫居住, 則方在冷井洞云, 使人往探計計.

▪11일. 원흥보가 찾아와서 보니 기뻐다. 비석에 대한 일을 물으니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달라 염려스럽다. 저녁에 비로소 나가 득아를 데리고 박 봉조하(朴奉朝賀)¹⁸⁹)의 궐연에 가서 곡하였다. 오전에 자수가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득아를 보내 가서 보고 돌아오게 했다. 흥양 사람 송사룡(宋思龍)과 유정찬(柳廷燦), 유희일(柳希一)이 찾아왔다.

十一日. 元興甫來見, 可喜. 問石事, 則大異所料慮慮. 夕間始爲出頭, 率得兒往哭朴奉朝賀几筵. 午前聞子修病報, 送得兒往見而還. 興陽人宋思龍柳廷燦柳希一來見.

▪12일. 득아는 남동(南洞) 김 생원의 집에 갔고, 직강(直講) 박사문(朴思文)이 찾아와 만났다. 풍안(豐安) 박 생원이 전주에서 도로 내려간다는 기별을 유정찬(柳廷燦)이 와서 서찰을 전하였기에 그의 거취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十二日. 得兒往南洞金生員家, 朴直講思文來見. 豐安朴生員自全州還下去之奇, 柳廷燦來傳書札, 施得明知其去就.

▪13일. 아침을 먹기 전에 남동(南洞) 김 생원의 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다. 오후에 어청교(於靑橋)갔으나 오재능(吳載能)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생미동(生美洞) 이 병사(李兵使)에게 갔으나 출타 중이었으니, 다만 해의봉(海衣封)만 남기고 다시 남학동(南學洞)으로 가서 상중인 흥낙현(洪樂顯)을 조문하고 돌아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 김생이 서소문 밖으로 갔다.

十三日. 朝前往南洞金生員家朝飯. 午後往於靑橋, 未逢吳載能而返. 往生美洞李兵使出他, 只留海衣封, 轉往南學洞, 弔洪喪人樂顯而返. 夕飯後金生往西小門外.

▪14일. 이 영유(李永柔)가 우리가 쌍동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인을 시켜 전갈하여 만나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내일 마땅히 가서 만나겠다고 답하였다.

189) 봉조하(奉朝賀) : 종2품 이상의 관리가 치사(致仕)한 뒤에 특별히 주던 벼슬로, 종신토록 봉록을 받으면서 조하(朝賀)와 기타 의식이 있을 때만 대궐에 나가 참여하였다. 조선 초기 봉조청(奉朝請)의 바뀐 이름이다. 여기서는 박성원(朴聖源)을 말한다.

첨사(僉使) 김상현(金尙鉉)이 찾아와서 만났다.

十四日. 李永柔聞吾來在雙洞, 使下人傳喝欲爲相見, 故答以明當往見. 金僉使尙鉉來見.

▪15일. 일찍 영희전(永禧殿)¹⁹⁰으로 가서 영유(永柔)를 직소(直所, 속직이나 당직을 하는 곳)에서 만났다. 대개 영유는 마침 영희 전령(永禧殿令)이 되어 입직하였고 쌍동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다. 서로 만난 뒤에 비석 일을 의논하여 마땅히 일에 따라 힘을 쏟겠다고 하였다. 저녁에 자수와 조카 담(壇)이 와서 유숙하였는데, 모두 낙방하였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임학룡(林學龍)은 높은 성적으로 급제하였으나¹⁹¹ 내동(內洞) 정씨의 형제는 또한 모두 낙방하였다고 한다.

十五日. 早往永禧殿, 見永柔于直所. 蓋永柔方爲永禧殿令入直, 最近於雙洞故也, 相面後商確碑事, 以當有隨事致力云. 夕間子修與壇侄來宿, 而俱爲見屈, 可歎. 林學龍高中, 內洞丁之兄弟, 亦皆見屈云.

▪16일. 자수와 담 조카가 일찍 출발하여 서소문 밖으로 가고, 득아는 송별하기 위하여 함께 갔다. 서글프고 서운한 마음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아침을 먹기 전에 원흥보가 찾아와서 만났다. 저녁에 들으니, 입격한 생진(生進, 생원과 진사)으로 고강(考講)¹⁹²에서 6~7인을 발거(拔去)¹⁹³한다고 했다가 얼마 안 있어 도로 거두라는 명이 내려졌다고 한다.

十六日. 子修壇侄早發往西小門外, 得兒送別次同往, 悵缺可言. 朝前元興甫來見. 夕間聞入格生進考講拔去六七人矣. 俄有還收之命云.

190) 영희전 : 조선 후기 태조 이하 역대 왕들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 지내던 전각으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도성 내 진전이다.

191) 높은 성적으로 급제하였으나 : 원문의 '고중(高中)'은 화살이 보기 좋게 명중하였다는 뜻으로, 우등의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을 말한다.

192) 고강(考講) : 사학(四學)의 유생들에게 《사서(四書)》 및 《소학》을 배강(背講)시키는 소과(小科)를 말한다.

193) 발거(拔去) : 타도(他道)에 가서 응시(應試)할 때에 일정한 요건(要件)을 갖추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을 이른다.

▪17일. 비가 오다. 자수와 조카 담 및 흥양의 여러 사람들이 길에서 지체하며 먼 길을 오는 고통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니 매우 염려스럽다. 종일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十七日. 雨. 子修壇侄及興陽諸人, 想多道路遲滯跋涉之苦, 爲之慮慮. 終日三人同坐, 不得出頭.

▪18일. 아침에 흐리다. 남동의 김 생원이 일찍 사람을 보내 우리 부자를 청하였는데, 득야만 가서 만나게 하였다. 밥을 먹은 뒤에 영회전으로 갔더니 내일이 한식이기 때문에 제관(祭官)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한잡인(閒雜人, 장사아치 따위)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남산동(南山洞) 이 참의(李參議)도 제관으로 출타 중이니 가더라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로 종현에 가서 한 강서(韓江西)를 만나 정담을 나누고 다시 난동(蘭洞)에 가서 유 봉조하(兪奉朝賀, 유척기)의 궤연에 조문하였는데, 연안은 산소에 나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석수 김차명(金次明)이 찾아와서 만났다.

十八日. 朝陰. 南洞金生員, 早送人請我父子, 而只使得兒往見. 食後往永禧殿, 則以明日爲寒食, 故祭官多會, 閒雜人不得出入云. 且南山洞李參議, 亦以祭官出他, 雖往不得見之云. 故直往鍾峴, 見韓江西而穩話, 更往蘭洞, 弔兪奉朝賀几筵, 而延安出往山所, 故未見而返. 石手金次明來見.

▪19일. 비가 오다. 밤에 천둥이 치고 비가 왔다. 득야는 가서 한 강서를 만나고, 유광익(柳光翊)과 신 화악(申華岳)이 찾아와서 만났다.

十九日. 雨. 夜雷雨. 得兒往見韓江西, 柳光翊申華岳來見.

▪20일. 아침에 흐리다. 오후에 부자가 함께 호동에 가서 박 봉조하 조전(祖奠)¹⁹⁴에 참례(參禮)하고 이어 제문을 써서 통곡하였다. 나는 주인집으로

194) 조전(祖奠) : 발인 전날 저녁에 올리는 제사로, ‘조(祖)’는 ‘장차[且]’ 또는 ‘시작[始]’이라는 뜻으로, 널을 장차 옮기려는 것이 길을 떠나는 시작이라는 말이다. 산 사람이 길을 떠날 때 전별하는 예가 있는 것처럼, 장례 때에도 영구가 집에서 떠날 때 망자를 위해 전별식을 베푸는 것이다. 구거

돌아왔고, 득아는 달경(達卿)과 함께 호상(護喪)¹⁹⁵⁾하여 초도(草島)로 갔다.
二十日. 朝陰. 午後父子同往壺洞, 參朴奉朝賀祖奠, 因爲祭文而痛哭. 余則
還于主人家, 得兒與達卿護喪, 往草島.

▪21일. 아침을 먹기 전에 득아가 돌아왔다. 밥을 먹은 뒤에 남산동(南山洞)에 가서 참의(參議) 이복상(李復祥)을 만났다. 난곡(蘭谷)에 가서 연안(延安) 유언현(兪彦鉉)에게 조문하고, 다시 남대문 안으로 가니 병사(兵使) 장지항(張志恒)은 지금 고양(高陽)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나지 못하고 정동(貞洞)에 가서 이영유를 만났다. 또 안국동(安國洞)에 가서 민 황주(閔黃州)를 만나고 돌아왔다.

二十一日. 朝前得兒還. 食後往南山洞, 見李參議復祥. 往蘭谷弔兪延安彦鉉, 轉往南大門內, 張兵使志恒, 方在高陽云, 故不得見, 往貞洞, 見李永柔. 又往安國洞, 見閔黃州而還.

▪22일. 득아와 유광익이 공부를 하기 위하여 안정사(安靜寺)로 나갔다. 오후에 임 진사(林進士)가 와서 보고, 호동에 가서 남 판서만 보고 돌아왔다.
二十二日. 得兒與柳光翊做工次, 出往安靜寺. 午後林進士來見, 徒往壺洞, 見南判書而還.

▪23일. 득아가 안정사(安靜寺)에서 들어왔다. 밤에 큰 비가 내렸다.
二十三日. 得兒自安靜寺入來. 夜大雨.

▪24일. 가평(加平, 경기도 중동부에 있는 군)으로 박 참판의 장사를 보기 위하여 주인 달경과 함께 갔다. 낮에 토원(兔院)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판곡(板谷)에서 묵었다.

二十四日. 爲見朴參判葬事于加平, 與主人達卿同行. 午秣兔院, 宿板谷.

(柩車)의 끝채를 대문 쪽으로 돌려놓은 뒤에 전(奠)을 올린다. 《禮記大全 檀弓上 注》《儀禮 士喪禮》

195) 호상(護喪) : 상례를 거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 안팎의 일을 지휘하고 관장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지칭한다.

▪25일. 일찍 출발하여 마치현(麻治峴)을 넘어 굴운(屈雲)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청평천(淸平川)에 이르니 상여 행렬이 그때까지 육지에 내리지 못하고 아직 선상에 있었는데, 산소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 이른바 도산지기[都山直] 거처에 왕래하였으나 서로 미루고 핑계를 대며 해질녘까지도 확실한 기별이 없었다. 그러자 내가 이르기를, “장사(葬事)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내일 아침이 바로 하관(下棺)해야 할 때인데도 아직까지 정해진 곳이 없단 말입니까. 비록 보통 사람의 장사라도 결코 이와 같이 아니하거늘, 하물며 도덕이 있는 장자(長者)의 장사가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먼저 행하는 것만 못하니 이곳에 임시로 장사를 지내고¹⁹⁶⁾ 이후에 영구히 장사할 자리를 골라 정하여 과장(過葬)¹⁹⁷⁾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리라 봅니다.”라고 하였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여겨 이날 밤에 하관(下棺)하고 행상(行喪)¹⁹⁸⁾하였으며, 잠곡 서원(潛谷書院)¹⁹⁹⁾ 가까운 곳의 촌사(村舍)에서 다시 권조(權厝)할 곳을 골라 정하였다. 이날 해가 질 무렵, 하늘에서 또 진눈깨비[雨雪]가 내리니 이러한 광경이 걱정스러웠다. 나는 청평천(淸平川)의 촌사에서 유숙하였으니, 곧 달경 외척의 집 아래이다. 달경은 그 외척 남궁색(南宮穡)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二十五日。早發踰麻治峴，抵屈雲朝飯。抵淸平川，喪行時未下陸，尙在船上，山事未決之故也。累次送人，來往於所謂都山直處，而互相推托，至暮無的奇。余謂“葬事何許重大，明早乃下棺時，而迄無定處，雖凡人之葬，決不如是，況此有道德長者之葬乎。愚意則莫如先行，權厝於此處，從後擇定永窆之地，以爲過葬，大爲合宜。”聽之者皆以爲然，卽夜下柩行喪，潛谷書院近處村舍，更擇權厝處爲定。是日將暮時，天又雨雪，所見憫憫矣。余則留宿于

196) 임시로 장사를 지내고 : 원문의 권조(權厝)는 좋은 밋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장사를 지내는 것이나 또는 그 장사를 의미한다. 중편(中窆)이라고도 한다.

197) 과장(過葬) :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198) 행상(行喪) : 시신을 상여에 실어서 산소로 나르는 일을 말한다.

199) 잠곡서원(潛谷書院)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었던 조선후기 김육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이다.

淸平川村舍, 卽達卿外戚家戶底也. 達卿留宿于其外戚南宮穡家.

▪26일. 나는 가평 원님을 찾아뵙기 위하여 현창(縣倉)의 분적소(分糶所)에 갔다. 현창은 청평천(淸平川)과의 거리가 30리인데, 가평 원님이 조금 전에 현창으로 갔다고 들어서 서둘러 채찍질하여 뒤를 쫓아갔다. 긴 골짜기에 들어가고 험한 시내를 5~6차례 건너 현창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가평 원님이 나를 보고 매우 반가워하며 괴이한 듯 찾아온 까닭을 물었다. 대답하기를, “박 봉조하의 장례를 참여하기 위하여 왔지만 장례는 이미 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이곳의 원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어 오직 찾아뵙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니, 가평원님이 곧바로 점심을 내오게 했다. 점심을 먹은 뒤에 잠시 쉬었다가 곧바로 돌아가려 하니 가평 원님이 약간의 노잣돈을 내주었다. 돌아올 때, 다시 박 봉조하의 제청(祭廳)에 들어가 통곡하고 상인(喪人) 및 여러 친구들과 서로 작별하고 청평천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해는 아직 저물지 않았다.

二十六日. 余以尋見加平倅, 往縣倉分糶所. 縣倉距淸平川三十里. 聞加平倅纔往縣倉, 促鞭追後. 入長谷, 渡險川五六次, 而得抵倉所. 加平倅見余驚喜, 怪問來由. 答以“爲朴奉朝賀會葬而來, 葬既未行. 且聞本倅之來, 專爲尋見而來.” 加平倅即使進午飯. 午飯後小憩, 卽爲回程, 加平倅出給略干路資矣. 還歸時, 更入朴奉朝賀祭廳痛哭, 與喪人及諸親舊相別, 還淸平川主人家. 日未暮矣.

▪27일. 달경과 함께 아침을 먹은 뒤에 길을 떠나 판곡(板谷)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七日. 與達卿朝飯後發程, 抵板谷留宿.

▪28일. 아침을 토원(兔院)에서 먹고 쌍동에 이르렀다. 노정(路程)이 피곤하여 출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쌍동에서 머물렀다.

二十八日. 朝飯兔院, 抵雙洞. 以路困不得出入, 留雙洞.

▪29일. 바람 불고 눈이 내리다. 아침을 먹기 전에 연동(蓮洞)에 가서 원흥보(元興甫)와 김차명(金次明)을 만나 비석 일을 의논하였다. 저녁에 석수가 와서 “일전에 의논한 비석은 매매하지 못하였으니 다시 다른 곳에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바람 때문에 출입할 수가 없어 쌍동에 머물렀다.

二十九日. 風而雪. 朝前往蓮洞, 見元興甫及金次明議石事. 夕間石手來言, “前議石則不成買賣, 更問他處云.” 以風不得出入, 留雙洞.

▪30일. 아침을 먹기 전에 고향에 보낼 편지를 써서 김 서방에게 보내어 백랑(白郎)이 내려가는 편에 가서 전하게 했다. 밥을 먹은 뒤에 장흥동(長興洞)에 가서 정내승(鄭內乘)의 아우를 만나 박희동(朴希東)의 편지를 전했다. 길을 바꿔 흥양의 경주인에게 가서 흥양 소식을 물은 다음 서소문 밖으로 나가 민 토산(閔兎山)의 아들인 태열(台烈)을 만나고 초류정동(草柳井洞)에 가서 참판(參判) 남태저(南泰著)를 만났다. 고마동(雇馬洞)²⁰⁰에 갔으나 이 고산(李高山)의 집을 찾지 못하고, 거평동(居平洞)²⁰¹에 가서 전경상(田景祥)을 만났다. 그리고 머물고 있는 곳에서 냉정동으로 가서 전통진(田通津)의 궤연에 조문하였는데, 그 아우인 수사 전광훈(田光勳)은 입직하였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신문(新門)에 들어가 장동(壯洞)으로 가서 양주(楊州) 조중회(趙重晦)를 만났다. 또 회양(淮陽) 이의철(李宜喆)을 찾아갔으나 하직(下直)하여서 출입을 볼 수 없었고, 또 영장(營將) 신석기(辛錫基)를 찾아가 그에게 조문하고 쌍동으로 돌아왔다.

晦日. 朝前修鄉書, 送金書房, 往傳于白郎下去便. 食後往長興洞, 見鄭內乘之弟, 傳朴希東書. 轉往興陽京主人, 問興陽消息, 出西小門外, 見閔兎山之子台烈, 往草柳井洞, 見南參判泰著. 往雇馬洞, 不得尋李高山家, 往居平洞, 見田景祥. 所住處因往冷井洞, 弔田通津几筵, 其弟水使光勳, 以入直未見.

200) 고마동(雇馬洞) : 서울 중구 충정로1가의주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조선시대에 경기감영(京畿監營) 남쪽에 역마(驛馬)를 빌려주는 고마청(雇馬廳)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고마청골이라고도 하였다.

201) 거평동(居平洞) : 종로구 교남동평동충정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안산기슭과 인왕산 사이에 긴 분지형에 속하는 지역이 서대문을 나서서 무악재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평탄하므로 마을 명칭이 유래되었다.

入新門往壯洞，見趙楊州重晦。又訪李淮陽宜喆，以下直出入不得見。又訪辛營將錫基而弔之，還雙洞。

▪3월 1일. 아침을 먹기 전에 석수가 와서 말하기를, “비석을 아직까지 마땅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 걱정이다. 밥을 먹은 뒤에 미호(溟湖)로 나갔다. 김생과 동행하여 미호에 이르러서 오게 된 이유를 말하고, 또 일전에 자수가 떠날 때 대략 소회를 부쳤는데, 미호가 굳이 사양했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 와서 격조했었다는 인사를 한 뒤에 인하여 비문을 받으려는 일에 대해 말을 꺼내고 직접 충민공(忠愍公)²⁰²의 사적을 올렸다. 그러자 미호가 척연히 얼굴빛을 바꾸어 차마 듣지 못하는 기운을 드러내며 거의 눈물을 흘릴 듯 답하기를, “무릇 문자를 지음은 반드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연후에야 붓을 잡고 뜻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려 하는데, 어찌 충민공 때문에 그러하겠습니까. 문득 이는 우리 집안일이기에 결코 글을 지을 마음이 없으니 애초부터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무리하게 요청하면 어른을 공경하는 의에 혐의의 소지가 있는데다가 다른 객이 좌중에 있으니 틈을 타서 언급하였는데, 한결같이 완강히 거절하며 허락을 하지 않았다.

동쪽 별처로 나가 그의 아들 보은(報恩) 김이안(金履安)²⁰³을 조문하고 잠시 전말을 말하자 또한 이르기를, “일의 형세가 그러하니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인하여 김생이 있는 사랑으로 가서 요기를 한 다음 다시 들어가 기어이 요청하였는데, ‘전날의 친분과 우의만을 믿고 인사를 살피지 못한 점이 있는 듯하지만, 혹여 연로하고 어리석다 칭하더라도 고향 선비들이

202) 충민공(忠愍公) : 이견명(李健命, 1663~1722)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강(仲剛), 호는 한포재(寒圃齋),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의 한 사람으로, 신임사화 때 나로도에 유배되었다가 목이 베여 죽고, 1724년에 신원되었다. 시문과 송설체(松雪體)에 뛰어났다. 김창집 형제 및 민진원(閔鎭遠)·정호(鄭澹) 등과 친밀하였다.

203) 김이안(金履安) : 1722~1791. 본관은 안동, 자는 원례(元禮), 호는 삼산재이며, 김상헌(金尙憲)의 후손으로 김창협(金昌協)의 증손자이다. 아버지 김원행에게 학문을 배워 1762년(영조 38) 학행으로 천거되어 경연관에 기용되었다. 흥대용박제가 등과 사귀어 실학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박윤원이적보 등과 교유한 주자학자로 더 알려져 있다.

요청한 것을 망령되이 허락하였으니, 이미 떠난 뒤에 빈손으로 돌아가면 고을의 많은 선비에게 실제 할 말이 없고, 게다가 또 돌을 사고 석공을 불러서 이제 막 배에다 실었기에 낭패가 심할 것입니다. 어찌 이 늙은이의 간절한 부탁을 꼭진히 들어주지 않습니까?’라고 하며 앞에서 했던 말을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다. 또 ‘약간의 폐물(幣物)과 지숙(紙束), 필묵(筆墨) 등은 모두 고향 선비들이 보낸 것이니 도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어찌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폐물을 들어 바치자 밀치며 물러가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비록 물러가지만 다시 훗날을 기다렸다가 다시 와서 받아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자 부득이하게 우선 자리 곁에 두고 납폐의 예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감히 빨리 글을 지어달라는 뜻을 억지로 말하지 못하고 다만, “다시 나아가 찾아뵙고 안부를 묻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 곧바로 광진(廣津)으로 향하여 길을 나섰다. 해가 저물 때에 인평군 정자(仁平君亭子)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상인(喪人) 한사함(韓士涵)이 우거하는 곳이다. 한사함이 인하여 머물다 가라며 붙잡으니 정자에서 묵었다. 사함의 조카인 과남(科男)의 아우가 마침 여주(呂州) 신촌(新村)으로부터 와서 내 앞으로 와 절하고 반갑게 맞이하였는데, 나는 기억이 어렴풋하였다. 그가 바로 자기의 아명을 말하자 올해년에 올라왔을 때, 어린 아이로 용진(龍津)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용진의 민수심(閔受心)은 이미 작고하였고 그의 아들 담제인(禫制人)²⁰⁴도 또한 마침 와서 함께 묵었는데, 거동과 모습이 아버지와 흡사하여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이 교차하였다. 밤에 사함과 옛 이야기와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많은 변화는 서울이나 시골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三月初吉. 朝前石手來言, “碑石迄未得可合者.” 憫憫. 食後出往漢湖. 與金生同行抵漢湖, 具陳來由. 且前因子修之去, 略付所懷, 槩聞其固辭之說矣. 今來絃阻後, 因發碑文受得事, 手進忠愍公事蹟, 則惕然動色, 見有不忍聽之氣. 幾至隕淚, 答曰: “凡做文字, 必須方寸寧靜, 然後可以把筆運意, 今聞此事, 心腸欲裂, 豈以忠愍公爲也. 便是吾家事, 決無綴文之意, 初勿提起

204) 담제인(禫制人) : 삼년상을 마친 그 다음다음 달 하순에 탈상(脫喪)하면서 지내는 제사인 담제(禫祭)를 지낼 때까지 상중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다.

似好云云。”故強迫請得，有嫌敬長之義。且有他客之在座，乘間又及，一向牢拒，不得見。出往東邊別處，弔其子金報恩履安，暫陳顛末，亦云“事勢然矣，奈何奈何。”因往療飢於金生所在廊底，更入固請，徒恃前日親誼，有若不省人事者，而或稱年老迷愚，妄許於鄉儒之所請，既發之後空還，實無辭於一邑多士。且貿石招工，今方載船，狼狽極矣。何不曲施老漢之懇囑，累累不已。且略干幣物紙束筆墨，俱是鄉儒之所送，還爲持去，豈非有難乎。因舉幣物以進，推使退去。余曰：“雖退去，更俟日後，復來受還。”則不得已姑置座右，使不行納幣之儀，以此不敢強白其從速綴文之意，只曰：“更進拜候爲計矣。”辭退卽向廣津作行。日昏時得抵仁平君亭子，韓喪人士涵所寓，因爲挽留，宿亭子。士涵之侄科男之弟，適自呂州新村而來，拜前歡迎，而余則依係，渠乃自言兒名，則乙亥年上來時，以稚兒相見於龍津者也。龍津閱受心，已爲作故，其子以禪制人，亦爲適來同宿，儀形洽似乃父，不無悲喜之心。夜與士涵，話舊談新世，故多變京鄉無異矣。

▪2일.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여 잠시 이형신(李亨信)의 집을 방문하니 그 형은 부재중이어서 곧바로 하직 인사를 하고, 살곳 여 생원(呂生員)의 집에 이르러 여 서방의 귀연에 조문하고 이름이 의(義)인 그의 고아(孤兒)를 만났다. 곧바로 출발하여 장내(場內)를 지나 길을 나서 쌍동(雙洞)에 이르렀다. 해는 아직 정오가 되기 전이다.

初二日. 朝飯後離發，暫訪李亨信家，其兄不在，卽爲辭別，到箭串呂生員家，弔呂書房几筵，見其孤兒名義。卽發由場內作行，抵雙洞。日未午矣。

▪3일. 새벽에 득아와 김생이 과거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다. 아침을 먹기 전에 석수가 와서 말하기를, “평구(平丘)의 강변에 적합한 돌이 있습니다. 돌 값은 비싸지 않고 돌의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일 김 서방을 내보낼 테니 같이 보고 결정해서 사가지고 오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돈 1전을 석수 등 세 사람에게 주어 요기하는 데 쓰게 했다. 밥을 먹은 뒤에 남산동(南山洞)의 이 참의(李參議) 집에 가니 이 참의는 시관으로 궐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승지(承旨)

이명식(李命植)의 집을 찾아가니 승지는 그의 형 원주(原州)에게 갔는데, 그의 형은 지금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로 부임하였다고 한다. 다시 원주의 집을 찾아가서 이 승지 형제를 만났다. 또 종현(鍾峴)의 한 가평(韓加平) 집에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남학동(南學洞)에 가서 상을 당한 홍낙현(洪樂顯)을 만났다. 또 미동(美洞)의 이 병사(李兵使)를 찾아가려고 했으나 이 병사는 출타하였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고 왔다. 조금 있으니 득아가 장중(場中)에서 돌아왔다.

初三日. 曉頭得兒與金生, 入去場中. 朝前石手來言, “平丘江邊, 有可合石, 材價則不高, 石品最好云.” 故約以明日出送金書房同見決買而來, 給一錢于石手等三人, 以爲療飢之資. 食後往南山洞李參議家, 李參議以試官入去關中, 不見而返. 回路訪李承旨命植家, 則承旨往于其兄原州, 方爲司僕主夫家云. 轉訪原州家, 見李承旨兄弟. 又訪鍾峴韓加平家, 從容敘話, 又往南學洞 見洪喪人樂顯, 又欲訪美洞李兵使矣, 李令出他, 故不訪而來. 小頃得兒自場中出來.

■4일. 김 서방을 평구(平丘)로 보내 석수와 함께 사고자 했던 돌을 보게 했다. 나는 득아와 함께 계동(桂洞)의 홍 대감에게 갔으나 귀천(龜川)으로 나가고 없어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영희전에 들어가 이 영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는 길에 병사(兵使) 이한응(李漢膺)을 만나고 돌아왔다. 저녁 무렵에 김 서방이 들어와서, “돌의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初四日. 送金書房于平丘, 與石手同觀所欲買石. 余則同得兒, 往桂洞洪台, 出去龜川, 故不見而還. 入永禧殿, 與李永柔相話, 來路見李兵使漢膺而還. 夕間金書房入來言, “石品最好云.”

■5일. 비가 오다. 낮에 석수 세 사람이 와서 만났다.

初五日. 雨. 午間石手三人來見.

■6일. 맑다.

初六日. 晴.

▪ 7일. 맑다. 남산동(南山洞)에 가서 이 참의(李參議)를 보고 돌아왔다. 본가에서 편지가 왔다.

初七日. 晴. 往南山洞. 見李參議而還. 本家書柬來.

▪ 8일. 득아는 승보시(昇補試)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나는 사동(社洞)의 김 재상(金宰相)에게 가서 조문하였다. 이어서 석사(碩士) 김정재(金定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회양(淮陽) 이의철(李宜哲)을 만나 1첩(帖)을 받았다. 다시 의동(醫洞)에 가서 금천(金川) 송중(宋載中)을 만나니 그 아우 도승지(都承旨) 영중(瑩中)은 지금 대사동(大寺洞)에 살고 있는데, 입직하여 집에 있지 않다고 했다. 국동(國洞)의 민 황주(閔黃州)에게 갔으나 신촌(新村)으로 나가서 만나지 못하였다. 오는 길에 묵사동(墨寺洞)에 가서 오 흥양(吳興陽)의 아버지와 형을 만나고 쌍동으로 돌아왔다.

初八日. 得兒入去昇補場中, 余則往弔社洞金相. 因訪金碩士定材不遇 而回路見李淮陽宜哲受一帖. 轉往醫洞, 見宋金川載中, 其弟都承旨瑩中, 方居大寺洞, 而入直不在家云. 往國洞閔黃州, 出往新村, 不見而來路, 往墨寺洞, 見吳興陽父與兄, 還雙洞.

▪ 9일. 아침을 먹기 전에 화량(花梁) 김 첨사(金僉使)가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고 1관(貫)의 동(銅)을 보내 주었다. 득아는 밥을 먹은 뒤에 서소문 밖에 나가고, 나는 안동에 가서 잠시 민 황주를 만났다. 또 장동 신 흥양(辛興陽) 집에 가는데, 거동이 아직 끝나지 않음으로 길이 막혀서 돌아왔다. 생원 이능상(李能祥)이 사람을 보내어 말 사기를 청했다.

初九日. 朝前花梁金僉使書問, 送惠一貫銅. 得兒食後出往西小門外, 余則往安洞, 暫見閔黃州, 又往壯洞辛興陽家, 路阻舉動之未罷而還. 李生員能祥, 送人請買馬.

▪ 10일. 일찍 영희전에 갔다가 수소(修掃, 수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와 함께 들어가 어용(御容)을 우러러보고 돌아왔다. 이능상이 말을 사가지고 갔다.

初十日. 早往永禧殿, 因修掃同入, 瞻仰御容而還. 李能祥買馬而去.

▪11일. 남산동(南山洞)에 가서 이 참의(李參議, 이복상(李復祥))를 만나고, 남대문 밖 김백랑(金白郎)이 사는 곳으로 나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냉정동(冷井洞)으로 갔으나 전 수사(田水使)가 입직하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거평위동(居平尉洞)의 조영경(趙榮慶)의 집에 찾아갔는데, 조영경은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사동(社洞)에 들어가서 석사 김정재를 만나 서로 이야기하였다. 또 신호문(神虎門) 북쪽 신 영장(辛營將)에게 갔으나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고 쌍동으로 돌아왔다. 득아가 서소문 밖에 갔다가 돌아왔다.

十一日. 往南山洞, 見李參議, 出往南大門外金白郎所住處暫話, 往冷井洞, 以田水使入直不見. 尋往居平尉洞趙榮慶家, 而趙以出他未見. 入往社洞, 見金碩士定材相話. 又往神虎門北辛營將, 出他未見, 還雙洞. 得兒往西小門外而還.

▪12일. 비가 오다.

十二日. 雨.

▪13일. 맑다. 득아가 미호(溟湖)로 나가니 편지를 써서 붙여 비문을 재촉하였다. 저녁에 돌아온 답서에서는 기어코 사양하며 다른 곳에서 다시 구하라고 내용이였다. 고대하던 중에 이러한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어찌하겠는가. 예조의 빗기²⁰⁵)는 이 참의를 통해서 서리를 불러오게 하여 2관의 동(銅)을 미리 주어 임금께서 능(陵)에 거동하실 때에 상언(上言)하게 할 계획이었다.

十三日. 晴. 得兒出往溟湖, 修付書柬, 以促文字. 夕間還來答書, 牢讓他處更求爲辭. 苦待之中, 聞此不勝愕然, 奈何奈何. 禮斜事, 因李參議, 招來書吏, 先給二貫銅, 以爲上言于陵幸時計.

205) 예조의 빗기 : 원문의 ‘예사(禮斜)’는 양자(養子)를 허가하는 증명서, 즉 예조의 빗기이다. 빗기[斜只斜是]는 땅이나 집 등의 소유권이나 어떤 권리를 증명하는 관아의 문서로, 정소자가 제출한 소지(所志)에 착관(着官)할 때 옆으로 길게 비껴[斜] 휘필한 데서 이르는 말이다.

▪14일. 남소동(南小洞)으로 가서 김 생원과 함께 어영청(御營廳)²⁰⁶ 습각(習角)을 보고 돌아왔다.

十四日. 往南小洞, 與金生員同見御營廳習角而還.

▪15일. 남산동(南山洞)에 가서 참의(參議) 이복상(李復祥)을 만나 미호가 비문을 허락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상세히 의논하고, 이어 석천동(石泉洞)에 가서 참의(參議) 이휘지(李徽之)를 만났다. 또 사동(社洞)에 가서 김 생원을 만나고 돌아왔다. 풍호(風湖) 박 생원이 아침을 먹기 전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전 수문장(田守門將)과 이광주(李光周)가 올라왔다는데, 만나지 못했으니 전 수문장과 이광주 두 사람의 마음이 몹시 답답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十五日. 往南山洞, 見李參議復祥, 詳議漢湖不許文字之事, 因往石泉洞 見李參議徽之. 又往社洞, 見金生員而還. 風湖朴生員, 朝前入來言, “田守門將李光周上來而不見, 田李兩人心甚菀菀.”

▪16일. 아침을 먹기 전에 득아가 안동에 갔다가 돌아왔다. 밥을 먹은 뒤에 생원 이광주가 집안의 편지와 옷보따리를 가지고 왔다. 득아와 김생은 이현(泥峴)으로 가고, 나는 생원 윤여규(尹汝揆), 박 생원과 슬파정(琵琶亭)에 함께 올라 잠시 꽃과 버들을 구경하였는데, 꽃과 버들은 벌써 시들었다.

十六日. 朝前得兒往安洞而返. 食後李生員光周, 持家信及衣襍而來. 得兒與金生往泥峴, 吾則與尹生員汝揆朴生員, 同登琵琶亭, 暫翫花柳, 而花柳已衰矣.

▪17일. 득아가 서소문 밖 민가(閔家)로 나갔다. 조금 늦게 남산동으로 가서 이 참의를 만나고 완영(完營, 전라 감영)과 좌수영에 보낼 편지를 청한 일에

206) 어영청(御營廳) : 인조 2년에 창설하였으니 화포를 가르치던 3군문(軍門)의 하나로 처음에는 총융청(摠戎廳)에 부속시켰는데, 효종 3년에 독립하였으며 숙종 32년에 1영(營) 5부(部)제로 고치고 관원은 대장(大將) 1명, 중군 1명, 별장 2명, 천총(千摠) 5명, 파총(把摠) 5명, 낭청(郎廳) 2명, 초관(哨官) 45명을 두었다.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참의가 곧바로 하인을 시켜 용동(龍洞)으로 가서 좌수영에 보낼 편지를 받아 오게 하니, 하인이 와서 말하기를, “용동 대감께서 편지 안에 부칠 태록(胎錄, 별지)을 써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나무를 요청하는 뜻을 대략 써서 보냈다. 한참 지나서 온 편지를 열어 보니 사의(辭意, 글이나 말로 이야기되는 뜻)가 매우 좋았다. 참의가 또 완영에 보낼 편지를 내놓았는데, 사의가 또한 그러하니 다행이다. 이날은 바람 부는 날씨가 매우 사나웠다. 게다가 비가 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니 오래도록 이야기하지 못하고 곧바로 쌍동으로 돌아왔다.

十七日. 得兒出往西小門外閱家. 稍晚往南山洞, 見李參議, 問完營及左水營請柬事, 參議即使下人往龍洞, 受來左水營所去書柬, 則下人來言, “龍洞大監, 以書送柬中所寄胎錄云云.” 故略書請財請木之意以送矣. 最久乃來拆見, 則辭意極好. 參議且出完營所去柬, 而辭意亦然, 可幸. 是日風日極惡, 且有雨意, 不能久話, 卽還雙洞.

▪18일. 아침에 무침교(無沈橋) 이 병사(李兵使)의 집에 가서 생원 이광주를 만나고 다시 청량교(靑涼橋)로 가서 오재능(吳載能)을 만나고 돌아왔다. 밥을 먹은 뒤에 남곡(南谷)에 가서 이 참의를 만나 두 곳에 서찰을 청했는가 여부를 묻고 왔다.

十八日. 朝往無沈橋李兵使家, 見李生員光周, 轉往靑涼橋, 見吳載能而還. 食後往南谷, 見李參議, 問請得兩處書柬與否而來.

▪19일. 서소문 밖에 나가 득아가 머무는 곳을 보고, 다시 차동(車洞)으로 갔는데 진사 이래(李來)는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다. 거평동(居平洞)으로 가서 진사 조영경(趙榮慶)을 만났다. 또 전 수문장(田守門將)이 사는 곳에 갔다가 전 주부(田主夫)와 함께 잠시 정동(貞洞)에 들어가 이창한(李昌漢)을 만나고, 예조 서리(禮曹書吏)를 불렀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난동(蘭洞)에 들러 유 연안(兪延安) 형제를 만나고 쌍동으로 돌아왔다. 전 수문장의 돌아가는 노복 편에 집에 보낼 편지를 부쳤다.

十九日. 出往西小門外, 見得兒所住, 轉往車洞, 以李進士來出他不見. 往居

平洞, 見趙進士榮慶. 又往田守門將所居. 因與田主夫, 暫入貞洞, 見李昌漢, 招禮曹書吏, 而不見而來. 歷入蘭洞, 見兪延安兄弟, 還雙洞. 付送家書於田守門將回奴便.

▪20일. 영희전으로 가서 이 영유를 만나고 돌아왔다. 김 서방과 박 생원이 거동을 보기 위하여 살곳으로 나가고, 득아는 서소문 밖에서 들어왔다가 도로 떠났다.

二十日. 往永禧殿, 見李永柔而返. 金書房朴生員爲見舉動, 出往箭串. 得兒自西小門外入來還去.

▪21일. 대가(大駕)가 헌릉(獻陵)에 거동하였다. 득아가 서소문에서 들어왔다. 二十一日. 大駕獻陵舉動. 得兒自西小門入來.

▪22일. 돈 1냥은 생원 이광주가 빌려가고, 거동을 구경할 때에 김 서방이 2전을 가져갔으며, 내가 갈 때에 점심을 먹기 위하여 3전, 입례(入禮) 때에 중(仲)이 1전을 빌려갔다. 구 초관(仇哨官)이 빌려간 돈 1냥을 가지고 왔다. 二十二日. 錢一兩李生員光周貸去, 舉動觀光時, 金書房二錢持去, 吾之去時, 點心次三錢, 入禮仲一錢貸去. 仇哨官貸去錢一兩持來.

▪23일. 박 생원이 나갔다. 二十三日. 朴生員出去.

▪24일. 미호로 나갈 때 1전(錢), 점심 양식거리로 1전 6푼, 신발값으로 3전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돌시(疳屎)에게 1전을 내려주고, 수레는 2전을 빌려 갔다. 수레가 7전을 염포(染布) 값으로 가지고 갔다. 밥을 먹은 후에 김 서방은 석수 2명을 데리고 돈 5냥을 가지고 송파(松坡)로 나가고, 나는 미호로 나갔다. 미호 어른께서는 비문을 지어 줄 뜻이 전혀 없었으므로 행여 유숙하면서 애걸하면 승낙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인마(人馬)를 돌려보내고 미호에서 머물렀다.

저녁에 다시 사사로운 간청과 서울 안의 공의로써 고하였더니, 답하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글을 지을 뜻이 있었다라면 애초부터 어찌 굳이 거절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송 생원 어른께서 고령(高齡)의 몸으로 천리 먼 길을 오시어 여러 차례 간곡한 부탁을 하시기를 이토록 지극 정성으로 하시는데, 어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충민공의 일은 근래에 어지럽고 정신과 기운이 안정되지 않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오열을 하니 차마 다시 다그칠 수가 없어서 외사(外舍)로 물러나와 보은(報恩)과 함께 몇 마디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기침 때문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서당에 가서 머물렀는데, 진주 정 석사(鄭碩士)와 처소를 함께하였다.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생각해보니 편지를 받아 역천(櫟泉, 송명흠(宋明欽, 1705~1768))에게 가서 청하는 것 외에는 다시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았다.

二十四日. 漢湖出去時一錢, 點心糧下一錢六分, 鞋價下三錢持去. 瓦屎一錢下, 水禮二錢貸去. 水禮七錢, 染布價持去. 食後金書房率石手二名, 持錢五兩, 出去松坡. 余則出去漢湖, 漢湖丈頓無文字製給之意, 故幸或留宿哀乞而得諾, 人馬還送, 留漢湖. 夕間更以私懇與洛中公議告之 則答曰: “若有一分製文之意, 自初豈有牢拒之理. 且宋生員老人, 千里遠來, 累度懇囑, 至是勤摯, 何不念及也. 然此忠愍公事, 近來撓頓, 神氣未定, 深以爲慮.” 因以嗚咽, 不忍更迫, 退來外舍, 與報恩數語. 余以咳嗽, 不得侍臥, 終夜往留書堂, 與晉州鄭碩士同處. 達宵不寢思之, 則受簡往請于櫟泉之外, 更無他道.

▪25일. 밥을 먹은 뒤에 사랑으로 들어가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에 문자는 이미 짓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니 역천에게 편지를 써 주면 받아가겠다고 말하자 대답하기를, “편지는 마땅히 성의를 다해 써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편지 속의 문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편지를 받고 하직한 뒤에는 한시도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 문밖으로 걸어 나오니 심사가 아득한데 문득 순천(順天) 조준하(趙峻夏)의 일이 생각났다.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서 망우치(忘憂峙)에 이르러 조금 쉬었다가 다시 중령천변(中靈川邊)에서 쉬었다. 또 의령화소(懿陵火所) 밖 주점에서 쉬고, 또 다시 제단(祭壇)

소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또 5칸 수문(水門)의 버드나무 그늘에서 쉬었다가 쌍동에 이르니, 두 발은 모두 부르르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였다. 광암(廣巖)의 박 상인(喪人)에게서 편지가 와서 책상 위에 있었다.

二十五日. 食後入舍廊小語後, 文字既以不爲製給決斷, 則櫟泉書柬受去爲辭, 答曰: “書則當極意書納.” 而書中措語, 小無所欠. 受書下直後, 一時難留, 步出門外, 意緒茫然, 却思順天趙峻夏事矣. 緩步徐行, 到忘憂峙小憩, 復憩于中靈川邊, 復憩于懿陵火所外酒店, 復憩于祭壇松陰. 又憩于五間水門柳陰, 得抵雙洞, 兩足俱繭, 憊困不可形言. 廣巖朴喪人, 書來在案上矣.

▪26일. 생원 이광주와 박 생원은 아침을 먹기 전에 들어왔지만, 김 서방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답답하였다. 낮에 직강(直講) 박사문(朴思文)이 와서 만났다. 김서방은 저녁을 틈타 들어와서, “비석을 실어다가 용산(龍山)에 내렸습니다,”라고 하니 다행한 일인데, 돈 11냥 5전을 배 값과 잡다한 물건 값으로 허비하였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二十六日. 李生員光周朴生員, 朝前入來, 金書房尙不來, 可菀. 午間朴直講來見. 金書房乘夕入來言, “碑石載下龍山云” 可幸, 而錢十一兩五錢, 入於船價及雜物條虛費云, 憫哉.

▪27일. 아침에 이 생원이 왔다가 아침을 먹고 내가 요청한 것 때문에 광암(廣巖)으로 갔다. 나는 아침에 남곡(南谷)으로 가서 이 참의를 만나 전라 감영과 좌수영에 편지를 보낸 일에 대해 묻고 미호가 글을 짓지 않는 연유를 말하였다. 또 영희전에 가서 이 영유를 만나고 돌아왔다. 밥을 먹은 뒤에 가서 한 가평(韓加平)을 만나고, 또 참의 이회지(李徽之)를 만나 《충효록》을 찾아왔다. 사동(社洞)에 갔으나 김 생원을 만나지 못하고, 대사동(大寺洞)에 갔으나 승지(承旨) 송형중(宋瑩中)을 만나지 못하였다. 계동(桂洞)에 가서 참의(參議) 조정(趙晟)을 만나고 또 홍 봉조하(洪奉朝賀)를 만났으며, 또 석사(碩士) 안식(安植)을 만났다. 이 시직(李侍直)을 찾아갔으나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쌍동으로 돌아왔다.

二十七日. 朝李生員來, 因爲朝飯, 出往廣巖, 以吾之所請也. 吾則朝往南谷,

見李參議, 問監水營送柬事, 言漢湖不爲製文之由. 又往永禧殿, 見李永柔還. 食後往見韓加平, 又見李參議徽之, 推來忠孝錄. 往社洞, 不見金生員, 往大寺洞, 不見宋承旨瑩中. 往桂洞, 見趙參議晟, 又見洪奉朝賀, 又見安碩士植. 訪李侍直, 以其出去不得見, 還雙洞.

▪ 28일. 아침에 유정찬(柳廷燦)과 신광악(申光岳)이 내려간다고 하기에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부치려는데, 신광악은 병세가 있어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았다. 오후에 남산동에 가서 이 참의를 만나니 충민공 행장을 아직 등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서방이 돈 1냥을 빌려 가지고 왔다.

二十八日. 朝柳廷燦申光岳下去云, 故修付一札, 而申有病勢, 似難行矣. 午後往南山洞, 見李參議, 則忠愍公行狀, 尙未謄出云. 李書房貸錢一兩持來.

▪ 29일. 예사의 빚기로 들어가는 돈 5전을 서리의 아들이 가지고 갔다.

二十九日. 禮斜錢五兩, 書吏子持去.

호행록 湖行錄

▪4월 1일. 한포재(寒圃齋) 비문을 미호(澗湖)에게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 밥을 먹고 길을 떠났다. 한강을 건너 낮에 판교 삼거리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만의(萬義)에 도착하였다. 110리를 가서 송 자의(宋議)를 만나 역천(櫟泉)에게 가는 까닭을 말하고 사랑에서 묵었다. 밤에 우리 고조 참의공이 전쟁에서 사망한 땅에 비석 세우는 일과 또 유총관유허비(兪摠管遺墟碑) 및 홍장군고루비(洪將軍故壘碑)의 일을 청하였더니, 답하기를, “문장이 짧아서 표창하여 훌륭함을 드러내기에 부족합니다.”라고 하며 굳이 거듭 사양하기에 나도 또한 강청을 하니 비로소 약간 허락하였다.

四月初一日。以寒圃齋碑文之不得受許於澗湖之故，朝食發程。渡漢江，午秣板橋三巨里，到萬義。行一百十里，入見宋議，爲敘往櫟泉之由，宿舍郎。夜間請吾高祖參議公戰亡地立石事，且兪摠管遺墟碑及洪將軍故壘碑事，則答，“文短不能褒揚”固辭再三，余亦強請，始有微許矣。

▪2일. 아침에 나아가 본적(本蹟)과 유총관비본(兪摠管碑本)을 올리니 책상 위에 받아 두었다. 밥을 먹은 뒤에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하직인사를 하였다. 진위(振威)에서 유정찬(柳廷燦)을 만났는데, “지금 동행할 이를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갈원(葛院)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실음소(實陰所)에서 묵었다. 100리를 갔다.

初二日。朝進納本蹟及兪摠管碑本，則受置案上。食後約以更來拜辭。於振威逢柳廷燦，言“方待同行云。”至葛院午秣，宿實陰所，行百里。

▪3일. 새벽에 출발하여 천안(天安)에 이르러 아침을 먹은 다음, 이른바 사거리라는 곳에 이르러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나분돌(羅分厓) 고개를 넘고 승천(勝川)과 복호정(伏虎亭) 두 주점을 지나니 목천(木川) 땅이다. 송정 주점에 이르니 청주 땅이다. 낮에 말에게 꼴을 먹이고 남쪽으로 고개를 넘으니 고개 아래에 창사(倉舍)가 있는데, 청주창(淸州倉)이라고 한다. 작천

(鵲川)을 건너 청주에 이르렀다. 120리를 갔다.

初三日. 曉發抵天安朝飯, 至所謂四巨里, 由左邊作路, 越羅分芻峴, 歷勝川伏虎亭兩酒店. 木川地. 抵松亭酒店. 清州地. 午秣南踰一嶺, 嶺下有倉舍, 清州倉云. 渡鵲川, 抵清州. 行一百二十里.

■4일. 아침을 먹기 전에 말편자를 끼우느라 일찍 출발하지 못했다. 인하여 아침을 먹은 다음에 문의(文義)를 지나 신전 주점(薪田酒店)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역천에 이르니 송 참의는 용유동(龍游洞)에 갔다고 한다. 여러 날에 거쳐 간신히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만나 뵈지 못하였으니 그 답답한 마음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들어가 그의 조카를 만나고 초당(草堂)에서 묵었다. 70리를 갔다.

初四日. 以朝前插馬鐵, 不得早發. 因朝飯歷文義, 抵薪田酒店午秣, 抵櫟泉宋參議往龍游洞云. 累日艱辛到此, 而未得奉拜, 曷勝憫苑. 入見其侄, 宿草堂. 行七十里.

■5일. 일찍 밥을 먹은 뒤에 참의의 조카에게 편지를 받고 앞길 주점의 참수(站數)를 물었다. 출발하여 동쪽으로 길을 나서 한 고개를 넘고 이약(泥藥)을 지난 다음, 옥천(沃川) 읍내를 지나 강을 따라 내려갔다. 옥계(郁溪)로 들어가지 않고 괘안진(掛岸津)을 건너 창촌 주점(倉村酒店)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옥천 땅이다. 동쪽으로 둔치(菴峙)를 넘어가는데 길이 매우 험악하였다. 원암(元巖)과 관기(館基) 두 주점을 지나니 보은(報恩) 땅이다. 부항가미(浮恒加未)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120리를 갔다. 상주(尙州) 땅이라고 한다. 지나오는 길가에 대추나무가 많이 있었고, 북쪽으로 바라보니 높은 산이 있었는데, 하늘에 돌기둥을 꽂아놓은 듯 우뚝 솟아 험준하였다.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바로 속리산(俗離山)이라고 한다.

初五日. 朝食後受書柬于參議之侄, 問前路酒店站數. 發行向東邊作行, 踰一嶺過泥藥, 歷沃川邑內, 沿江下來, 不入郁溪, 渡掛岸津, 至倉村酒店午秣. 沃川地也. 東踰菴峙, 路甚險惡. 歷元巖館基兩酒店, 報恩地. 抵浮恒加未留宿. 行一百二十里. 尙州地云. 所經路邊, 多棗木矣. 北望有高山, 插天石角

崢嶸. 問居人, 則乃俗離山也.

▪6일, 주점에서 동쪽으로 5리 정도 가서 북쪽으로 긴 계곡에 들어가니 양쪽 석벽이 묶어 세워 놓은 듯하였고, 중간에 있는 작은 길은 겨우 소와 말이 통과할 만하였다. 나무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아 있으며,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깊은 숲속 계곡물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계곡을 따라 10여 리를 가다가 갈림길에서 마침 풀을 베고 있는 사람을 만나 용유동(龍游洞) 가는 길을 물었더니 동쪽을 가리키며 가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따라 가다가 몇 리 못 가서 한 고개를 넘었다. 고개의 동쪽은 조금 널찍하게 트여 있었고, 몇 리를 내려가니 큰 길이 나왔다. 또 인가(人家)가 있었는데, 이른바 가리점(加里店)이라 하였다.

구불구불 북쪽으로 향해 가다가 다시 한 고개를 넘어가서 고교 주점(高橋酒店)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시냇물을 따라 몇 리를 내려가다 스님을 만났다. 그의 이름을 물어보니 염휘(念輝)라 하였는데, 청곡사(淸谿寺)에서 거주한다고 했다. 동행하여 용유동(龍游洞)에 이르니 대개 스님은 일찍이 참의 영감과 일면식이 있어서 마침 나아가 뵈고 왔다. 나도 들어가 장석(丈席)을 뵈고 역천 본가의 편지와 미호의 쪽지를 드렸더니, 이에 말하기를, “미호가 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래 태사씨(太史氏)가 있는 법인데, 어찌 여러 곳에서 널리 구하지 않고 고생스럽게 먼 길을 오셨습니까.”라고 하였다. 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집사와 미호 두 분께 의뢰하려고 했는데, 미호는 이미 차마 붓을 적시지 못하겠다고 한사코 사양하여 지어 줄 뜻이 전혀 없고, 또 집사에게 편지를 써 주었으니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람이 먼 길을 누차 찾아온 것에 대해 생각해 주심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수차례 간청하자 비로소 본적(本蹟)을 받아 보관하였다. 그런데 이미 다른 곳의 긴급한 문자를 짓기 시작한 것이 있어서 조속히 짓지는 못할 것 같으니 다시 서울에 갔다가 내려갈 때에 받아 가는 편이 낫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많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받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끝내 허락해 주지 않았다. 동쪽 승사(僧舍) 독서하는 선비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물러 나와서 한참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 노복과 말이 있는 촌사로 가서 밥을 먹고 사랑에 갔으나 함께 유숙하는 사람이 없어 매우 적적하였다.

初六日. 自酒店東行五里, 向北入長谷, 兩邊石壁東立, 中有微路, 僅通牛馬. 樹木參天, 惟聞鳥啼, 林藪溪鳴. 澗谷行十餘里, 有分路處, 適逢折草人, 問龍游洞去路, 則指東而往云, 故如其言行, 未數里踰一嶺. 嶺東稍開豁, 下數里得大路, 又有人家, 所謂加里店也. 逶迤向北, 又踰一嶺, 抵高橋酒店午秣. 沿溪下數里逢白足, 問其名則念輝, 而居清谿寺云. 同行抵龍游洞, 蓋僧也, 曾與參議令有面雅, 方爲進謁而來. 入見丈席, 納櫟泉本家書封并泮湖片紙, 則乃曰: “泮湖雖不許, 自有太史氏, 胡不廣求諸處, 辛勤遠來也.” 余以物論, 皆歸於執事及泮湖兩處, 泮湖既以不忍泚筆固辭, 萬無製給之意. 且又裁書于執事, 幸商量焉. 亦念此漢之遠路委至如何. 數次陳懇, 始乃捧留本蹟, 而既有他處緊急文字已爲始製者, 似不可從速爲之, 莫如更往京中下往時受去爲便云, 故余以雖費許多時月, 必受而去爲意, 則終不決許. 退來東邊僧舍讀書儒之所住處, 休歇良久, 更入小話. 夕間往奴馬所在村舍喫飯, 往舍郎, 而無同留, 甚爲寂寥矣.

■7일. 아침에 보슬비가 내리다가 낮에는 흐리기만 하고 비가 오지 않았다. 종일 승사에 머물면서 때때로 정자에 출입하였다. 정자는 냇가의 암반(巖畔)에 있는데, 해가 물 위에 비치면 빛이 영롱하여 그대로 그림 속의 풍경 같기에 영롱정(玲瓏亭)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리고 양쪽에 늘어선 소나무는 해를 가리고 하늘을 찌르듯이 서있고, 시내 가운데 너럭바위는 흰 빛깔의 베를 다듬어 놓은 것처럼 흰한테, 완전히 용이 뛰어올라 움켜쥔 듯한 흔적이 있고 물이 그 위를 따라 흐르니 이를 용유동(龍游洞)이라 한 것이다.

저녁에 나아가 보니, 장석이 “내일 돌아가시렵니까.”라고 하자, 내가 “만약 비문의 원고가 나온다면 마땅히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석이 “비문의 원고는 거의 다 나왔으니 중초(中草)²⁰⁷를 써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 내가 “그렇다면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잠시 보기를

207) 중초(中草) : 사료 편찬 사업의 진행 순서에서 중간 단계의 원고이다. 실록(實錄)을 편찬할 적에 초초(初草)·중초(中草)·정초(正草)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과정을 말한다.

청하니 곧바로 기록한 초고를 내어 주었는데, 하단에 나의 명자(名字)가 있었다. 내가, “비록 사사로운 일 때문에 상경하였으나 아울러 우리 고을 선비들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실제 주관하는 이는 바로 박호석(朴祐錫)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박군은 고(故) 별제(別提) 박정영(朴挺榮)²⁰⁸의 손자입니다. 정영은 직언(直言)으로 제조(提調)²⁰⁹ 도적 전(鐫)에게 굴하지 않고 인하여 귀양을 갔는데, 그 뒤로 벼슬을 구하지 않았으니, 당시 사람들이 강직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장석이, “그렇다면 귀하게 여길 만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미 불녕(不佞)²¹⁰ 이름이 있으니 일을 주관하는 박모를 끼워 넣을 수 없겠습니까.”라고 하자 장석이 “중초(中草)할 때에 헤아려서 마땅히 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촌사로 물러나와 내일 일찍 하직(下直)할 때에 받을 계획이었다.

初七日。朝微雨，晝則陰而不雨。終日留僧舍，時或出入於亭子。亭在川上巖畔，日照川上，則光影玲瓏，依然畫圖，故名以玲瓏亭。兩邊松樹，蔽日參天，溪中盤石，白如布鍊，而完然有龍騰拏攫之跡，水由其上，是之謂龍游洞也。夕間進見，則丈席曰：“明日欲回程乎。”余曰：“文字若出稿，當回程矣。”曰：“文字幾至出稿，當書中草以納。”余曰：“然則極幸極幸。”請暫見之，乃出記草以賜，而下端有余之名字。余曰：“雖因私事上京，兼當邑士之付托，而實主此事者，乃朴祐錫爲名人，朴郎故別提挺榮之孫也。挺榮以直言，不屈於提調鐫賊，因以謫去，其後不爲求仕，時人以爲剛直也。”丈席曰：“然則可貴。”余曰：“既有不佞之名，則主事朴某，未可插入乎。”曰：“中草時，量宜爲之。”退出村舍，意以明早下直時，奉受爲計。

208) 박정영(朴挺榮) : 1638~1685. 본관은 진원(珍原), 자는 원직(元直), 거주지는 흥양(興陽)이다. 조선 인조(仁祖)때 직언(直言)을 하다가 북청(北靑)에 유배되었으나 돌아온 후 송시열의 천거(薦擧)로 사천현감(泗川縣監)을 역임하며 많은 치적을 남겼다.

209) 제조(提調) : 조선시대 잡무 및 기술계통의 관직으로, 조달영선제작창고접대어학의학천문지리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던 관직이다

210) 불녕(不佞) : 재주가 없다는 뜻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송(宋)나라 섭적(葉適)의 <상서부서(上西府書)>에 “아무게 불녕(不佞)은 스스로 생각건대 삼자에 대한 근심은 없고, 다만 세상을 근심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某不佞 自以爲無三者之患而獨有憂世之心]”라고 하였다.

▪8일. 새벽에 빗소리를 들었다. 오랜 가뭄 끝에 오는 비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있으나 객지 생활하는 처지의 사람은 빨리 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다. 정자에 가서 종일 있으니 참의가, “송 생원은 비에 가로막혀 괴롭겠으나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으로 시냇물 소리 들리는 푸른 나무 숲 사이에 함께 앉아 있으니 또한 기이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내가, “무척이나 다행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저녁에 촌사로 돌아왔다. 촌사 아래쪽에는 커다란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데, 모양이 두궤(斗几)와 같으며 앞에는 ‘연좌암(宴坐巖)’이라고 새겨져 있다. 참의의 옛 집 뒤편의 석벽에는 ‘대은병(大隱屏)’ 세 글자가 가로로 새겨져 있고, 정자 아래 냇가 가운데에 세워진 돌에는 ‘회란석(回瀾石, 물결이 휘돌아 가는 바위)’이라고 새겨져 있다.

初八日。曉聞雨聲。久旱之餘，雖有喜心，而作客者，不無速晴之願矣。往亭子終日，參議曰：“宋生員似有阻雨之苦，而以遠方之人，同坐川聲樹色之間，不亦奇異乎。”余曰：“幸甚幸甚。”夕間還村舍，村舍下邊有巨巖特立，狀如斗几，刻前曰宴坐巖。參議舊舍後有石壁，以大隱屏三字橫刻，亭下川石中立者，刻回瀾石矣。

▪9일. 빗줄기가 조금 그치니 일찍 밥을 먹고 행장을 꾸려 출발하여 정자에 가서 미호에게 보내는 답장을 받았다. 하직 인사를 할 때에 약속하기를, 노인과는 비록 만나지 못하더라도 자식들을 보내 서로 안부를 묻고 대대로 교분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내가,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니 참의가, “그때에는 의당 어제 저녁 요청하였던 것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인하여 하직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작별을 하였다. 참의의 서자가 문밖까지 나와서 송별해주니 참의의 가르침인 것 같았다.

두 시내를 건너 북쪽으로 가서 얼치(鰲峙)를 넘고 30리 긴 골짜기를 내려가 선유동(仙遊洞)에 이르렀다. 문경(聞慶) 땅이라 한다. 선유동은 바로 우리 사문(師門)이 오고가며 머무는 곳이므로 한 번 보고 싶었다. 이번에 마침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으니 갈 길이 바쁜 것을 따지지 않고 마을 문에 찾아 들어갔다. 북쪽 푸른 석벽에 ‘선유동문(仙遊洞門)’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보상(李普祥)이 쓴 것이라고 한다. 말에서 내려 벽을 어루만지며

수백 걸음을 걸어 정자가 있던 옛터에 이르니 정자는 이미 퇴락하고 다만 무너져 남은 대연 깨진 기와 조각뿐이었다. 정자 앞 너럭바위는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데, 강물은 요란하게 흘러가고 지난날을 추억하니 감당할 수 없이 아련하였다. 흰 빛깔의 돌 위로 흐르는 맑은 물이 상하로 네다섯 번 굽이치니 참으로 기이한 승경이 숨겨진 곳이다. 선생이 학문을 닦을 곳²¹¹⁾을 잘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고 사물은 변하여 수목이 수심에 잠겨 있으니 하늘을 어찌하겠는가.

선유동을 내려서 나와 비로소 말을 타고 화양동(華陽洞)으로 들어갔다. 계곡을 따라 수십 리를 가니 돌길이 험난했지만 태평하게 구곡(九曲)으로 걸어갔다. 이곳은 일찍이 전에 보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경할 수는 없었다. 서원에 이르니 우암 선생의 영정을 개모(改模)하는 일 때문에 집임(執任)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만나본 뒤에 곧바로 사우(祠宇)에 참배하고 《심원록(尋院錄)》에 이름을 적었다. 본원에서 점심을 내왔는데, 집임인 임상주(任相周)의 사람됨이 사랑스러웠다. 작별하고 청천에 이르렀다. 60리를 갔다. 初九日. 雨勢小止, 朝食裝發, 往亭子受溪湖答狀. 拜辭時, 約以老人雖未逢着, 遣子相問, 爲結世誼似好云. 余曰: “謹受教矣.” 參議曰: “其時當副昨夕所請.” 因以下直, 又與諸生相別. 參議庶子, 出來門外送別, 意者參議之所教. 渡兩川, 北行踰筵峙, 下長谷三十里, 抵仙遊洞. 聞慶地云. 仙遊洞, 卽吾師門往來棲息之所, 故願一見之. 今適過此, 不計行忙, 尋入洞門. 北邊蒼壁書仙遊洞門四字, 而李普祥書云. 下馬捫壁, 行數百步, 至亭子舊址. 亭已頽落, 只餘傾石+臺破瓦. 亭前盤石, 可坐數十人, 江流聒聒, 追思曩昔, 不堪. 石白流清, 上下四五曲, 眞奇勝秘隱之地. 先生可謂善占裝修之所, 而人非物變, 樹木含愁, 天也奈何. 下來出洞, 始乘馬入華陽洞. 沿溪行數十里, 石路崎嶇, 太平徒步九曲. 曾前所見, 故不能一一觀玩. 抵書院, 以尤庵先生影幀改模事, 執任多會, 相見後, 卽爲瞻拜祠宇, 書名尋院錄, 本院進午飯. 執

211) 학문을 닦을 곳 : 저본의 ‘裝’은 ‘藏’의 오기로 고쳐 번역하였다. ‘장수(藏修)’는 장수유식(藏修遊息)의 준말로 늘 학문에 전념함을 뜻한다. 《예기(禮記)》〈학기(學記)〉에 “군자는 학문에 대해서 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업을 닦고, 학교에서 물러나 쉬 때에는 기예를 즐긴다.[君子之於學也, 藏焉修焉息焉游焉.]”라고 하였다.

任任相周, 爲人可愛. 辭別抵清川. 行六十里.

▪10일. 일찍 밥을 먹고 속리산에 이르렀는데, 중도에서 길을 잃었다. 오후에 비로소 도착하여 요기를 한 뒤에 불존승(佛尊僧)을 데리고 대략 두루 구경을 하였다. 대개 옛 절은 다 쓰러졌지만 불사(佛舍)가 터를 잡은 처음에는 웅장하고 화려하였으리라는 것을 지금도 알 수가 있었다. 밖에 있는 암자와 산의 경치는 구경할 만한 곳이 많이 있었는데, 행색이 매우 바쁘고 또 장대(莊臺)는 결코 부여잡고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마음을 먹지 않고 돌아와 선방에 누웠다. 저녁에 회덕(懷德) 유산객(遊山客) 10여 명이 갑자기 왔는데, 자못 소란스럽기까지 했다. 50리를 갔다.

初十日. 朝食抵俗離, 中路失道. 午後始得達療飢後, 率佛尊僧, 略干周觀. 蓋古寺殘敗, 而基址佛舍自初壯麗, 今亦可知矣. 外庵及山景, 多有可觀處云, 而行色甚忙, 且莊臺則決難攀登, 故初不生意, 還臥禪房矣. 夕間懷德遊山客十餘人卒至 頗有擾亂. 行五十里.

▪11일. 길을 떠나 청천으로 돌아와 낮에 말에게 꼴을 먹였다. 괴산(槐山)으로 갈 생각으로 동쪽으로 10여 리를 가서 다시 북쪽으로 긴 골짜기로 들어가 수십 리를 지났다. 이름이 굴치(屈峙)라는 고개 하나를 넘어가는데 고갯길이 매우 급경사여서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었다. 고개를 따라 20여 리를 내려가 괴산 읍저(槐山邑底)에 이르렀다. 50리를 갔다. 주막에서 우연히 최씨 성을 가진 노인을 만났는데, 그 나이를 물었더니 동갑이었다. 그는 매우 반가워하며 담배 한 줌을 가지고 오고, 또 말편자 값 2푼을 빼주었다.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는 아들이 둘이라 했고, 손녀 한 명을 데리고 왔다.

十一日. 發程還清川午秣. 向槐山計, 東向行十餘里, 轉向北入長谷數十里, 躡一嶺名屈峙, 嶺路甚急, 不能跨馬. 下嶺行二十餘里, 抵槐山邑底. 行五十里. 酒幕偶逢崔姓老人, 問其年則同甲. 渠甚欣喜, 持南草一握而來. 又減馬鐵價二分. 與之小話, 有子二人云, 率一孫女而來矣.

▪12일. 일찍 출발하여 겸촌(鎌村)에서 아침을 먹었다. 음성(陰城) 땅이다. 50리를 갔다. 북쪽으로 가서 장원(長院)에 이르렀다. 음죽(陰竹) 땅이다. 50리를 갔다.

十二日. 早發朝飯于鎌村. 陰城地也. 行五十里. 向北抵長院. 陰竹地也. 行五十里.

▪13일. 새벽에 출발하여 단강(丹江)의 길에 이르자 막 비가 내려 민 청풍(閔淸風)의 집에 도착하였다. 종일 큰비가 내리니 단암(丹巖)에서 머물렀다. 50리를 갔다.

十三日. 曉發抵丹江之路, 始雨得達于閔淸風家. 終日大雨, 留丹巖. 行五十里.

▪14일. 맑다. 사람과 말을 보내 내일 미호에서 기다리도록 분부하고, 나는 장차 배를 타고 미호에 내려갈 생각이었다. 해는 장차 저물어 가고 내려가는 배가 오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저녁에 비로소 배 한 척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바삐 강가에 도착하여 겨우 배를 탔는데, 여읍(呂邑)에 도착하니 해는 이미 어둑어둑하였다. 이 판서 댁을 찾아가서 유숙하였다. 10리를 갔다.

十四日. 晴. 送人馬, 明日企待于漢湖之意分付, 余則將欲乘船下漢湖計矣. 日將夕矣, 下去船不來憫憫. 夕間始有一船云, 故忙迫出江頭, 僅得乘之, 而到呂邑, 日已昏黑, 尋往李判書宅留宿. 行十里.

▪15일. 주인이 선색장(船色掌)²¹²을 불러 배편을 물었더니 오늘은 내려가는 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가(李家)에 머물게 되었으니 걱정스러웠다. 주인의 서숙(庶叔)으로 이제 막 장수 찰방(長水察訪)이 된 사람이 행장을 꾸려 그 내행(內行)을 출발시키고 그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답답하고 고민스런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저녁에 선색장(船色掌)이 와서 말하기를, “내일 새벽에 하경(下京)하는 배가 있으니 잡아드리겠습니다.”

212) 선색장(船色掌) : 배에 관한 일을 담당할 실무 담당자이며, 색장은 관청 내 제반 부서의 실무 담당자를 의미한다.

라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나 하룻밤을 보내기가 일년과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행장을 꾸렸다.

十五日. 主人招船色將問之, 則今日無下船, 故留李家憫憫. 主人之庶叔, 方爲長水察訪者, 治發其內行, 于此時相話, 而菴憫之心, 不可勝言. 夕間船色掌者來言, “明曉有下京船, 當捉納.” 聞此稍慰, 度夜如年, 曉起裝束矣.

▪ 16일. 날이 밝기도 전에 뱃사람이 급하게, “지금 바로 배가 출발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자 걸음을 재촉하여 강변으로 나가 곧바로 배에 올랐다. 어느새 벌써 영릉(寧陵)을 지나니 물결도 순하고 바람도 잔잔하여 배는 화살과 같이 나아갔다. 이안(梨岸)에서 아침을 먹고 강 한복판을 지나갈 때, 어제 양근(楊根) 사람이 환곡(還谷)을 받아 강을 내려가는데 배가 급한 여울에 전복되어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3~4번까지 관리들이 강을 따라 수색하였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몹시 두려웠다. 대개 항상 이 여울은 평소에도 험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나와 배 안의 4~5명 모두는 육지에 내려 몇 리를 걷다가 다시 배에 올라 두미(斗尾)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미강(溟江)에 도착하자 해는 아직 남아 있었다. 만약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서울에 들어가도 날이 저물지 않았을 것 같았다. 개손(介孫)이 나를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서울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한다. 미호 어른을 들어가 뵙고 여행길²¹³⁾을 설명한 다음 문자(文字)를 올리니 미호 어른이 말하기를,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어 고칠 것²¹⁴⁾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미강(溟江)에 머물렀다. 160리를 갔다.

十六日. 未明船人急告, “今方發船.” 趨步出江邊, 卽爲登舟. 於言焉之間, 已過寧陵. 水順風殘, 船行如箭. 朝飯于梨岸, 過上潯之際, 聞昨日楊根人受還谷下江, 舟爲急灘所覆, 人命致死. 至於三四時, 方以官令沿江搜索, 心甚

213) 여행길 : 원문의 ‘행리(行李)’는 사자(使者), 수종(隨從)하는 하인, 행장(行裝) 등의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행로(行路)의 뜻으로 쓰였다.

214) 고칠 것 : 원문의 ‘자황(雌黃)’은 잘못 쓴 글자를 고칠 때 칠하는 것으로, 글을 고치고 비평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을 비유한다. 진(晉)나라 왕연(王衍)은 노장(老莊)의 담론을 잘하였는데, 그 이치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고쳐 말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입 속의 자황[口中雌黃]이라 하였다. 《晉書 卷43 王衍列傳》

凜然. 蓋常灘素號險惡. 吾與舟中凡人四五, 下陸步過數里, 更爲上船, 至斗尾午飯. 到漢江, 日尙早矣. 若無遲滯, 則雖入京, 似不昏暮. 介孫者待余數日, 俄纔去京云矣. 入見漢丈, 具述行李, 進呈文字, 漢丈曰: “盡善無以雌黃云.” 留漢江. 行百六十里.

- 17일. 미호 어른에게 들어가 하직하고 도보로 길을 떠나 망우치(忘憂峙)를 지나다가 개손(介孫)을 만났다. 저물녘에 쌍동에 도착하였다.
十七日. 入辭漢丈, 徒步作行, 過忘憂峙, 逢介孫. 至暮得達雙洞.

유경일기

留京日記

■4월 17일. 미호(溟湖)에서 들어왔다.

四月十七日. 自溟湖入來.

■18일. 노정이 고단하여서 출입할 수 없었다.

十八日. 以路困, 不得出入.

■19일. 밤에 가랑비가 내리고 아침에 개었다. 득아(得兒)가 미강(溟江)으로 갔는데, 낮에 큰 우박이 내려서 상처 입은 곳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 득아가 돌아왔다.

十九日. 夜微雨朝晴. 得兒往溟江, 午時, 大雨雹, 所傷甚多云. 得兒還.

■20일. 아침을 먹기 전에 득아(得兒)가 서소문(西小門) 밖으로 나갔다. 밥을 먹은 후에 미동(美洞)으로 가서 새로 부임한 통제사를 만났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의 아우가 왔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인하여 남산동(南山洞)으로 가서 이 참의(李參議)를 만나 호남(湖南)으로 가는 길에 문자(文字)를 받은 소식을 상세히 말하였더니, 비문을 본 후에 편지를 써서 하인으로 하여금 함께 가서 새로 부임한 완백(完伯)을 만나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계동(桂洞)으로 갔더니 신임 감사(監司)가 출타 중이었기에 이 참의(李參議)의 편지를 남겨 두고 저물 무렵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친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석사(碩士) 안식(安植)의 집으로 가서 머물며 기다렸다.

걸어서 후령(後嶺)을 넘어 회동(灰洞)²¹⁵⁾으로 가서 주서(奏書) 오정원(吳廷元)을 찾아갔더니 오 주서 또한 출타 중이었기에 다만 그 아우만 보고 왔다.

215) 회동(灰洞) : 황해북도 수안군 석담리 소재지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 횃돌바위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1967년 서평리에서 넘어왔다. 회를 굽던 마을이라 하여 재월이라고도 한다.

조금 있으니 오 주서가 다른 곳에서 마침 안씨 집으로 오니 함께 한참동안 정담을 나누었다. 또 들으니 시직(侍直) 이습지(李習之)가 근래에 들어왔다고 하므로 습지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오래토록 옛일을 이야기하였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신임 감사가 들어왔다고 하므로 다시 그의 집으로 가니 곧바로 통보하여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그 도의 백성이 되었기에 사체(事體)가 편안하지 않으니 명함을 전하게²¹⁶⁾ 한 후에 들어가 뵈었다. 이 참의가 먼저 보낸 서찰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민공의 비문이 있는가에 대해 물어보았으므로 소매에서 문자를 꺼내주고는 이어 그에게 필적(筆跡)을 청하니 두세 번 사양한 후에 비로소 허락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고을의 선비들이 약간의 폐물을 보내왔습니다. 내일 마땅히 사가지고 온 죽청지(竹淸紙)와 함께 가지고 와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 신임 감사가 말하기를, “폐물은 애초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저의 개인적인 물건이 아니라 바로 한 고을 선비들의 물건이니 비록 보잘 것 없는 지숙(紙束, 종이 묶음)이라도 도의상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린 후에 받고 안 받고는 영감(令監)의 조치에 달려 있으나 저는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라고 하니, 신임 감사가 말하기를, “많은 선비들이 이미 충민공(忠愍公)을 위해 힘을 썼으니, 저 또한 많은 선비들과 힘을 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여겨 가지고 오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재삼 거절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말씀하신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비문을 써 주는 것은 영감께서 서울에 계실 때 사조(辭朝)²¹⁷⁾하기 전에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신임 감사가 말하기를, “비석 일은 돌은 실어 내려 보낸 뒤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이전에는 일이 많아 조금도 틈을 낼 수가 없으니 감영으로 내려간 후에 써 드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해주신다면

216) 명함을 전하게 : 원문에 ‘투자(投刺)’는 처음으로 윗사람을 뵈을 때에 미리 명함(名衝)을 전하여 드리던 일이다.

217) 사조(辭朝) : 원문의 사조(辭朝)는 관원이 임지로 가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좋습니다. 돌을 실어 내려 보낼 때 감영을 경유하여 내려가니 마땅히 나아가 뵈고 받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영문의 명이 엄하여 마침내 통자(通刺)하기 어려우니 영감께서 미리 흥양 주인에게 분부하시어 즉시 들어가 고하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신임 감사 말하기를, “감히 요청하신 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돌을 실는 것도 영감의 지휘가 있는 연후에야 폐단이 없을 것이니 속히 흥선(興船)을 운행하여 강에 도착하게 한 뒤에 흥양 선인(船人)과 색리(色吏)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신임 감사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부임지에 도착하기²¹⁸⁾ 전인데 어찌 이처럼 분부할 도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인하여 하직하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김백랑(金白郎)이 병으로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 보니 병세가 매우 위중하여 며칠을 보존하기 어려울 듯하였다. 그러므로 급히 주인을 오라고 해서 김서방(金書房)을 보내 치료하게 하라고 권했다.

二十日. 朝前, 得兒出往西小門外. 食後往見新統制于美洞. 略干說話, 問其弟來否, 則尙不來云. 因往南山洞, 見李參議, 詳說湖行受文字消息, 見碑文後, 修小札, 使下人, 同往見新完伯云, 故轉往桂洞, 則新伯出他, 故留李參議小札, 俟其乘暮還歸後親見, 轉往安碩士植家留待矣. 步踰後嶺, 往灰洞, 尋見吳奏書廷元, 則吳亦出他, 只見其弟而來. 小焉, 吳自他處適來安家與之款話良久. 又聞李侍直習之, 近間入來, 故下來習之所在處, 臺臺敍舊. 日將夕矣, 聞新伯入來, 故更往其家, 卽通入來云, 而旣爲其道之民, 事體未安, 使之投刺後入見, 以有李參議先通小札, 故穩話, 問有忠愍公碑文, 故袖納文字, 因請其筆, 則謙讓數三後, 始爲許之. 余曰: “邑中章甫, 送來略干幣物, 明當買取竹清紙并爲來納.” 則新伯曰: “幣物, 初不持來極好.” 余曰: “非吾私物, 乃一邑多士之物, 雖薄劣紙束, 義不可不納, 納之後, 受與不受, 在令監處置, 吾則持來, 當然底道理.” 新伯曰: “多士既有爲忠愍公用力, 則吾亦與多士, 同力無妨, 不順持來.” 再三牢拒. 余曰: “然則當受教, 而書給碑文, 在於令監在京未辭朝前乎.” 新伯曰: “碑役載石下去後始之云, 且吾此前多

218) 부임지에 도착하기 : 관찰사병사수사 등이 임지에 부임하는 것을 도(道) 경계에 도착했다는 의미로 도계(到界)라고 한다.

事, 小無暇隙, 下營後書納, 何如.” 余曰: “然則好矣. 載石下去時, 路由營下, 當進拜受去, 而營門令嚴, 卒難通刺, 令監預爲分付於興陽主人, 使之趁卽入告, 如何.” 新伯曰: “敢不依施云云.” 余曰: “載石亦有令監指揮, 然後可以無弊, 速運興船到江後, 分付于興陽船人及色吏處, 如何.” 新伯曰: “不然. 未到界之前, 豈有如許事分付之道乎.” 因爲下直而來. 回路入見金白郎病臥處, 則病勢極重, 似難保數日, 故急來主人, 勸送金書房使之救治.

▪21일. 정동(貞洞)으로 가는 길에 한강서(韓江西)를 찾아가 보았는데, 강서는 천연두로 그 손주를 잃었다고 말하였다. 사동(社洞)으로 갔더니 생원(生員) 김회숙(金晦叔)이 정동(貞洞)으로 갔다고 하므로 돌아왔다. 명례궁(明禮宮)²¹⁹을 방문한 뒤에 광성(光城) 덕에서 김씨를 만나 대신(大臣)의 안부를 묻고 전서(篆書)를 요청하기 위해 일부러 오게 된 연유를 언급하였더니, 대신은 지금 병중에 있는데다가 또 내간(內間)의 병으로 근심스럽기 때문에 붓을 잡을 겨를이 없을 듯하다고 하였다. 내가 청하여 말하기를, “잠시 다시 찾아가 거취(去就)를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김씨가 들어갔다가 한참 지나서 나와 말하기를, “병으로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가의 신임 감사가 이미 비문에 글씨를 써주기로 허락했다 하니, 그 동종(同宗)에게 더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물러 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석동(石洞)의 이 참의(李參議)를 만나 순천(順天)의 편지를 청하였다. 남동(南洞)으로 갔더니 출타하였기에 만나지 못했다. 지나가는 길에 영희전(永禧殿)²²⁰ 숙직하는 곳을 방문하여 이 영유(李永柔)를 만나고 돌아왔다.

二十一日. 往貞洞之路, 歷見韓江西, 江西以痘患夭其孫兒云. 往社洞則金生員晦叔, 往貞洞云, 故回來. 訪明禮宮後, 光城宅見金 而問大臣安否, 及請篆

219) 명례궁(明禮宮) : 왕비의 토지를 관리하는 궁방(宮房)이다. 명례궁은 속궁(屬宮)으로서 비빈들이 사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소유주의 사유재산을 보관하고, 그 궁에 딸린 토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로써 소유주의 사적 경제생활을 관리해 주던 곳이었다. 역대 명례궁의 주인공을 살펴보면 인목대비, 장렬왕후, 인현왕후, 혜경궁 홍씨, 효의왕후, 순원왕후, 철인왕후, 명성황후 등이 있다.

220) 영희전(永禧殿) : 조선조 태조세조원종숙종의 어진을 봉안한 영전. 남별전(南別殿)을 고친 이름으로, 뒤에는 영조순조의 어진도 함께 봉안하였다. 서울의 남쪽 훈도방(薰陶坊)에 있었다.

委來之由, 則答大臣方有身病, 且以內間憂患爲慮, 似無暇及於筆硯云. 余請曰: “暫爲更探以決去就, 如何.” 金入去稍久出曰: “非但憂患不能暇及, 且吾一家新伯 既許寫碑, 又爲添受於其同宗, 似不緊急云.” 故退來. 回路見石洞李參議, 請順天片紙. 往南洞則出他, 故未見. 歷訪永禧殿直所, 見李永柔而還.

▪22일. 묵동(墨洞)에 가서 성주(城主)의 아버지를 만나고 쌍동(雙洞)으로 돌아왔다. 예사(禮斜)에 들어가는 비용 8냥의 돈을 예조 서리(禮曹書吏)에게 내주었다. 저녁에 개손(介孫)이 편지를 받아 만의(萬義)에서 돌아왔다. 二十二日. 往墨洞, 見城主之父, 還雙洞. 禮斜價八兩錢出給禮曹書吏. 夕間介孫自萬義, 受書而來.

▪23일. 득아(得兒)가 들어왔다가 저녁에 다시 갔다. 집에 보낼 서신과 비문을 봉하여 읍리(邑吏) 고운익(高雲翼) 편에 부쳐 보냈다. 二十三日. 得兒入來, 夕間還去. 家信及碑文, 封付送於邑吏高雲翼便.

▪24일. 남산동(南山洞)으로 가서 이 참의(李參議)를 만나고 돌아왔다. 생원(生員) 박성서(朴聖瑞)가 광암(廣巖)으로부터 들어오고, 생원(生員) 이광주(李光柱)가 여주(呂州)로부터 들어왔으며, 서종덕(徐宗德)이 내려간다고 작별을 고하였다. 말이 절뚝여서 서소문(西小門) 밖으로 보내 치료하고는 이어서 주막에서 머물며 말을 먹이게 했다. 二十四日. 往南山洞, 見李參議而還. 朴生員聖瑞自廣巖入來. 李生員光柱自呂州入來. 徐宗德下去告別. 以鬣蹇送西小門外治療, 因使留喂於酒幕.

▪25일. 아침에 남수동(南守洞) 김 생원(金生員) 집에 갔다가 돌아왔다. 생원(生員) 박성서(朴聖瑞)는 서종덕(徐宗德)과 함께 내려갔다. 二十五日. 朝往南守洞金生員家而還. 朴生員聖瑞, 同徐宗德下去.

▪26일. 비가 오다가 낮에 갔다. 二十六日. 雨午間晴.

▪27일. 말이 병이 나서 출입할 수 없었다. 전자(篆字)는 아직도 받지 못하였고 돌을 싣는 것도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매우 답답하다. 박 직강(朴直講)이 찾아와서 종일토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1전(錢)을 나에게 주면서 요기를 하라고 하니 귀하게 여길 만하였다.

二十七日。以馬病不得出入。篆字尙未受得，載石亦無定期，憫憫。朴直講來話終日，以一錢授余，爲療飢之資，可貴。

▪28일. 날씨가 먹구름이 끼므로 말은 비록 병이 바로 나았으나 걸어서 길을 떠났다. 계동(桂洞)으로 가서 홍 판서(洪判書)가 집에 있는가를 물었더니, 어제 광진(廣津)으로 가서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하므로 그의 아들 감역(監役) 홍염해(洪念海)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신임 감사를 찾아갔더니 신임 감사가 내일 성묘를 간다고 하였다. 잠시 들어가 만났는데, 비문 초본 한 건을 받아두었다가 중초(中草)²²¹를 훗날 써주기로 약속하였다. 다시 안동(安洞)으로 가서 민 황주(閔黃州)를 만나고, 대사동(大寺洞) 참판(參判) 송형중(宋瑩中)을 찾아갔다. 오는 길에 박 직강(朴直講), 박사문(朴思文)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만났는데, 장흥(長興) 장 문관(張文官)이 남원(南原) 무관(武官) 최 감찰(崔監察)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쌍동(雙洞)으로 돌아오니 피곤함이 매우 심했다. 누워서 잠깐 쉬고 있는데, 통제사가 모레 하직(下直)한다고 하니 일어나 그 집으로 가서 그의 아우인 병사(兵使) 이한태(李漢泰)를 함께 만나고 돌아왔다

二十八日。日氣陰翳，故馬雖病立，徒步作行。往桂洞，問洪判書在家與否，則昨往廣津，卒未入來云，故與其子監役念海，面話而來。歷訪新伯，則新伯明日掃墳出去云。暫入相見，留納碑文草一件，約以中草日後書來。轉往安洞，見閔黃州，歷訪大寺洞宋參判瑩中，來路見朴直講所在 則有長興文官張，同住於南原武弁崔監察家矣。回來雙洞，困憊甚矣。臥息小選，聞統制再明下直，起往其家，同見其弟兵使漢泰而來。

221) 중초(中草) : 사료 편찬 사업의 진행 순서에서 중간 단계의 원고이다. 실록(實錄)을 편찬할 적에 초초(初草)·중초(中草)·정초(正草)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과정을 말한다.

▪ 29일. 아침에 김 서방(金書房)을 정동(貞洞)으로 보내 예사(禮斜)²²²를 추심(推尋)하려고 하니 매우 괴롭다. 김 서방은 고향에 내려갔다가 오지 않은 백랑(白郎)을 만나보기 위하여 서소문 밖에서 머물렀다. 김 첨사(金僉使)가 와서 보고 비문을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갔다.

二十九日. 朝送金書房于貞洞, 推尋禮斜, 苦哉苦哉. 金書房爲見白郎之下鄉不來, 留門外. 金僉使來見, 袖碑文而去.

▪ 30일. 종현(鍾峴)에 가서 한 가평(韓加平)을 만나고, 다시 남동(蘭洞)으로 가서 유 연안(兪延安) 형제를 만나고 하직하였다. 남동(南洞)의 이 참의(李參議)를 찾아가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晦日. 往鍾峴, 見韓加平, 轉往蘭洞, 見兪延安兄弟而下直. 歷訪南洞李參議, 小話而歸.

▪ 5월 1일. 김 서방(金書房)이 아침을 먹기 전에 서소문(西小門) 밖으로 나가 백랑(白郎)을 만나고 그길로 강가로 가서 배가 오는지를 물었다. 저녁에 김 서방(金書房)이 들어와서 이르기를, “강가에 영남(嶺南)의 조선(漕船)²²³이 많이 올라왔으니 짐을 부린 뒤에 돌을 실을 수 있는가를 물어볼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다.

五月初吉. 金書房朝前, 出往西小門外見白郎, 因往江頭, 訪問船隻之來. 夕間金書房入來云, “江上多有嶺南漕船之上來. 訪問其卸卜後載石計計.”

▪ 2일. 남소동(南小洞) 김 생원(金生員)이 아침을 먹기 전에 사람을 보내 떠나기를 청하니 가서 만나고 돌아왔다. 밥을 먹은 후에 남산동(南山洞)에 가서 이 참의(李參議)를 만났다. 또 석정동(石井洞)으로 가서 참의(參議) 이휘지(李徽之)를 만나 작별을 고하고 또 미장동(美牆洞)으로 가서 승지(承

222 예사(禮斜) : 예조(禮曹)에서 양자(養子)의 청원을 허가해 주던 문서이다. 양자 허가 증명서를 말한다.

223 조선(漕船) : 조운선(漕運船)의 약칭으로, 국가에 수납(收納)하는 조세미(租稅米)를 지방의 창고에서 경창(京倉)에 운반하는 데 사용하였던 선박이다.

함) 홍재(洪粹)를 만나 작별인사를 하였는데, 홍 승지가 먹 한 동(同)을 내어 주었다. 또 안국동(安國洞)으로 가서 민 황주(閔黃州)를 만나 작별을 고하고 쌍동(雙洞)으로 돌아왔다.

初二日. 南小洞金生員, 朝前送人請去. 往見而還. 食後, 往南山洞, 見李參議. 又往石井洞, 見李參議徽之辭別, 又往美牆洞, 見洪承旨粹辭別, 洪出給墨一同. 又往安國洞, 見閔黃州辭別, 還雙洞.

▪3일. 일찍 광진(廣津)에 가서 전자(篆字)를 청하여 승낙을 얻고 모레 5일에 그의 본가인 계동(桂洞)에 전달하여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살곶[箭串] 여 생원(呂生員)의 집에 들르니 여 생원은 출타 중이었다.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이고 쌍동(雙洞)으로 돌아왔다. 득아(得兒)가 어제 저녁 서소문(西小門)에서 들어왔는데 돌림감기[輪感]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므로 매우 염려스럽다. 조금 차도가 있어 저녁에 서소문 밖으로 나갔다.

初三日. 早往廣津, 請篆字得諾, 而約以再明初五日, 傳送于其本家桂洞云. 回路入箭串呂生員家, 呂生員出他. 點心秣馬, 還雙洞. 得兒昨夕自西小門入來, 而以輪感頭痛, 故深切慮念矣. 以小差, 夕間出去西小門外.

▪4일. 비가 오다. 김 서방이 배를 물어보기 위하여 나갔는데, 비가 오니 걱정스럽다.

初四日. 雨. 金書房訪問船隻次出去, 逢雨憫哉.

▪5일. 서소문(西小門) 밖으로 사람과 말을 보냈다. 달경(達卿)이 일관(一貫)의 돈을 빌려갔다. 원흥보(元興甫)에게 한 냥을 내어 주었다. 득아(得兒)가 들어왔다. 일찍이 쌍동(雙洞)에서 글을 배우며 서로 알고 지냈던 무리 4~5명에게 내가 머지않아 돌아가겠다고 하니 조출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점심을 내왔는데 그 정이 아름답다고 여길 만하였다.

初五日. 送人馬于西小門外. 達卿一貫錢貸去. 元興甫處一兩出給. 得兒入來. 曾前相知之學書於雙洞輩四五人, 謂余未久還去, 設小酌兼進午飯, 其情可嘉.

▪6일. 득아(得兒)를 데리고 종일토록 정간(井間)²²⁴을 굶고 비문 중초(中草, 초본)를 썼는데, 돌림감기를 겪은 나머지 코피를 흘리니 실로 딱하고 가여웠다. 전자(篆字)는 김 서방(金書房)을 계동(桂洞)에 보내서 가지고 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 득아가 서소문 밖으로 갔다. 밤에 비가 왔다.

初六日. 率得兒, 終日畫井間, 書碑文中草, 重經輪感之餘, 至於鼻血, 實爲憫憐. 篆字送金書房于桂洞持來. 夕飯後, 得兒往西小門外. 夜雨.

▪7일. 강가로 김 서방(金書房)을 보내어 실을 만한 배를 탐문하라고 했다. 나는 밥을 먹은 후에 남곡(南谷)에 가서 이 참의(李參議)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배에 빨리 돌을 운반할 수 있도록 권하였다. 인하여 흥양(興陽) 주인집으로 가서 올라오는 배가 늦게 오는지 빨리 오는지를 물어 보았다. 도양(道陽) 최효장(崔孝長)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남대문을 나와 서소문 밖으로 가서 득아를 만났다. 차동(車洞)에 가서 이 고산(李高山)의 소식을 물었더니, 고산은 아내 장사를 지내기 위해 양근(楊根) 땅에 왔다가 그곳에서 바로 내려가고 서울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의 아우 진사는 지금 영영(嶺營)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막내아우는 아현(阿峴)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

초류정동(草柳井洞)에 가서 남 대헌(南大憲)을 물었더니 대헌은 양근(楊根)으로 나갔으므로 만나지 못했다. 다시 냉정(冷井)에 가서 수사(水使) 전광훈(田光勳)을 만났다. 또 거평동(居平洞)에 가서 전 수문장(田守門將)을 만났다. 진사(進士) 조 영경(趙榮慶)을 찾아갔더니 안산(安山)에 갔다고 하여 쌍동(雙洞)으로 돌아왔다. 김 서방(金書房)이 강에서 저물 무렵에 들어왔다. 이날 밤에 비가 내렸다.

初七日. 送金書房于江頭, 以爲探問船隻可載者. 余則食後往南谷, 勸李參議勤問船隻速使運石. 因往興陽主人家, 問船隻上來遲速. 逢道陽崔孝長暫話, 出南大門, 往西門外見得兒. 往車洞問李高山消息, 則高山來經妻葬于楊根地, 自其處卽爲下去, 不入京裡. 其弟進士則方往嶺營未還, 末弟來往

224) 정간(井間) : 바둑판같이 종횡으로 여러 줄을 그어 정(井) 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로 만든 책다로, 글씨를 쓸 때 글자의 간격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종이 밑에 받친다.

阿峴云矣. 往草柳井洞, 問南大憲, 則大憲出往楊根, 故不見, 而還往冷井, 見田水使光勳. 又往居平洞, 見田守門將, 歷訪趙進士榮慶, 則往安山云, 還雙洞. 金書房, 自江乘夕入來. 是夜雨.

▪8일. 김 서방(金書房)을 남곡(南谷)으로 보내 이 참의(李參議)와 함께 강가로 나가게 했다. 나는 연동(蓮洞)에 가서 심 참봉(沈參奉)을 만났다. 또 호동(壺洞)에 가서 박극인(朴棘人)을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남 봉조하(南奉朝賀, 남유용(南有容))를 만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그의 종손(從孫)인 진사(進士)의 집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왔다. 호동(壺洞)의 홍 감목관(洪監牧官)을 찾아가서 만나지 못하고, 오는 길에 정랑(正郎) 박사문(朴師文)을 찾아갔으나 지금 막 입직하여 만나지 못했다. 저녁에 김 서방(金書房)이 와서, “내일 공조(工曹) 하인을 데리고 나가서 선인들에게 분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내일 다시 갔다가 오기로 약속하였다.

初八日. 送金書房于南谷, 同李參議, 出往江頭, 余則往蓮洞, 見沈參奉. 又往壺洞, 訪朴棘人不遇, 見南奉朝賀, 穩話良久, 又往其從孫進士家, 小話回來. 壺洞訪洪監牧官不遇, 而來歷訪朴正郎師文, 方入直不見. 夕間金書房來言, “明日率工曹下人出去, 分付船人云.” 故約以明日更去而來矣.

▪9일. 김 서방(金書房)이 와서 말하기를, “강가에 가서 이 참의(李參議)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저녁에 노복을 보내어, ‘다시 내일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지금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부득이 들어 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체되니 고민되고 고민된다.

初九日. 金書房來言, “往江頭, 待李參議之來, 而夕間送奴曰: ‘更待明日, 今則入來云.’ 故不得已入來矣.” 若此遷就, 憫憫.

▪10일. 김 서방(金書房)이 남곡(南谷)으로 가서 탐문하여 배를 잡으라는 기별을 하였는데, 저녁에 돌아와서 공조(工曹)의 하인이 오지 않았다고 하니 더욱 더 답답할 노릇이다. 낮에 이 참의(李參議)가 약간의 음식과 반찬들을

보내오니 귀하다 여길 만하였다. 장 서방(張書房)이 고양(高陽)으로부터 들어와서 함께 유숙하였다. 아침을 먹기 전에 도양(道陽)의 하인 김광일(金光一)이 찾아왔다. 원흥보(元興甫)가 전자(篆字)를 다시 받아 광진(廣津)에서 들어왔다.

初十日. 金書房往南谷, 爲探捉船奇別, 而夕間還來言, 工曹下人不來云. 尤切憫憫. 午間李參議, 送來略干飲食及饌品, 可貴. 張書房自高陽入來, 同宿. 朝前, 道陽下人金光一來見. 元興甫 改受篆字, 自廣津入來.

■ 11일. 김 서방(金書房)이 남곡(南谷)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공조(工曹) 하인이 용산(龍山)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참의(李參議)에게 고하기를, ‘가서 영남선(嶺南船)²²⁵을 잡았더니 뱃사람이 무단히 배를 붙잡는 것은 예전에도 없던 일로, 만약 과연 이처럼 붙잡는다면 마땅히 비국(備局)²²⁶에 소장을 넣겠다고 하므로 붙잡지 못하고 왔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공조 하인이 뱃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러한 틈을 만든 것이니 분통함을 어찌 말로 다하랴.

十一日. 金書房, 自南谷來言, “工曹下人, 往龍山而還. 告李參議曰: ‘往捉嶺南船, 則船人言, 無端捉船, 古所未有. 若果爲之, 則當呈訴備局, 故不能捉而來云.’” 此是工曹下人, 納賂於船漢, 造此間, 憤咄何言.

■ 12일. 남곡(南谷)에 가서 이 참의(李參議)를 만나 내일 일찍 용강(龍江)으로 나가서 배를 알아보고 오기로 약속했다. 돌아오는 길에 한강서(韓江西)를 만나서 작별인사를 하고, 또 이현(泥峴)으로 유금성(兪金城)을 찾아갔다. 박

225) 영남선(嶺南船) : 조선 후기 지방사회에서 활동하던 지방민 소유의 선박인 일종의 지토선(地土船)으로 영남선은 도별로 구분하는 토선(土船)에 해당된다. 어선에 불과하던 지토선은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선(商船)으로서, 그리고 당시 최대의 운송 물량인 세곡(稅穀)과 소작료를 임운하면서 운송선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유통경제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키는 매체가 되었다.

226) 비국(備局) : 비변사(備邊司)의 별칭. 비변사는 본디 군무(軍務)에 관한 합의기관(合議機關)으로 설치되었던 것인데, 임진정유의 왜란 이후 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명종 때에는 이미 일반 정무(政務)에도 관여하는 바가 크게 되고, 뒤에는 팔도(八道)를 구관(旬管)하는 당상관(堂上官)까지 있게 되니, 본디 대신(大臣)이 회의하는 장소의 뜻인 묘당(廟堂)이 그 별칭이 되기까지 하였다.

정랑(朴正郎)이 와서 기다린 지가 조금 오래되었다고 한다.

十二日. 往南谷, 見李參議, 約以明早出去龍江, 探得船隻而來. 回路見韓江西辭別, 又歷見兪金城于泥峴. 朴正郎來待稍久云矣.

▪13일. 아침에 두포(杜浦)로 가서 조 참의(趙參議)를 만날 계획이었는데, 중도에 말 위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참 뒤에 헤어졌다. 그길로 황참의교(黃參議橋)²²⁷로 가서 감목(監牧) 홍 창원(洪昌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박 정랑(朴正郎)이 말을 빌려 갔다. 저녁에 김 생(金生)이 와서 말하기를, “이 참의(李參議)와 함께 강가로 가서 진주(晉州) 뱃사람을 불러 면전에서 분부하였는데, 그의 곡물을 모두 납입하면 내일이라도 뱃삿 없이 비석을 실어가겠다고 약속하였기에 이 참의가 가서 창고 관리를 만나 속히 곡식을 거둬들이자는 뜻을 착실히 언급했습니다.”라고 하니 매우 다행이었다.

十三日. 早往杜浦, 見趙參議計矣, 中路逢着馬上, 相話稍久分離. 因往黃參議橋, 見洪監牧昌元, 相話而還. 馬匹朴正郎借去. 夕間金生來言, “與李參議同往江頭, 招晉州船人, 面爲分付, 約以渠之谷物畢納, 則雖明日, 無船價載去云, 故李參議往見倉官, 從速捧谷之意, 着實言及.” 深幸深幸.

▪14일. 이 참의(李參議)가 편지를 보내어 배를 얻을 수 있는 방도와 또 비문 등본(謄本)을 빌려가는 것에 대해 말했다. 오후에 이 참의가 노복을 보내어 말하기를, “뱃사람이 와서 비석을 실을 수 없다고 말하니 어찌합니까.”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분통 터짐을 이기지 못하여 직접 가서 까닭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 서방(金書房)이 다른 곳에서 돌아왔으므로 급히 남곡(南谷)에 보내어 곡절을 상세히 물어보고 오라 했더니 저물녘이 되어도 오지 않았다. 밤새도록 근심스럽고 답답함을 차마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十四日. 李參議送小札言, 船隻可得之道, 且借去碑文謄本. 午後, 李參議送

227) 황참의교(黃參議橋) : 종로구 원남동 76번지 서쪽에 있던 다리이다. 황참의(黃參議)라는 사람이 사재(私財)로 다리를 놓았으므로 ‘황참의다리’라고 하였고, 일명 황참교, 황교, 황참의교, 참의교 등으로 불렸다

奴言, “船人來告 不可載石云奈何.” 聞不勝憤咄, 身往問故計矣, 金書房自他處來, 故急送南谷, 詳問曲折而來, 至昏不來. 達夜憫苑, 不忍形喻.

▪ 15일. 아침을 먹기 전에 석수(石手) 김차명(金次明)이 왔기에 남곡(南谷)으로 가서 김 서방의 거취를 알아보게 했다. 석수가 남곡으로 가니, 김 서방은 강가로 나가고 없었다. 그러므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더욱 더 근심스럽고 답답하다. 조금 늦게 김 서방이 강가에서 들어와서는, 대략 관령(管領) 및 뱃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고 하였다. 밥을 먹은 후에 다시 약속하러 갔는데, 이런 혹독한 더위에 자주 왕래하니 보기에 절박했다. 나는 밥을 먹기 전에 무침교(無沈橋)에 가서 이 서방(李書房) 징보(徵甫)와 만났다. 그길로 미동(美洞)에 가서 병사(兵使) 이한태(李漢泰)를 만나고 왔다. 밥을 먹은 후에 김 서방을 보내 다시 강가로 가서 뱃사람들과 서로 의논하고 오라고 했다. 나는 남동(南洞)으로 가서 이 참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그의 아우 고성(高城)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석동(石洞)에 가서 이 참의를 만나 작별을 고하였다. 초류정동(草柳井洞)으로 나갔는데, 남 참판(南參判)이 밖에 있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 다만 그 아들 한림(翰林)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아현(阿峴)에 가서 이래(李來)를 만나고 왔다. 남곡의 이 참의가 노비를 보내 선박에 관한 일은 허락을 얻었으니 즉시 비석을 실으라고 했지만, 우선 김생(金生)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저녁에 김 서방이 와서 말하기를, “뱃사람이 속히 신고자 하므로 구입한 비석과 기계, 나무를 실으려 했으나 저물어서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十五日. 朝前石手金次明來, 故使之往南谷, 以知金書房去就而來. 石手往南谷, 則金書房出去江頭, 故未見而還, 尤甚憫苑. 稍晚金書房, 自江上入來云, 略與管領及船人, 相話而來. 食後更往爲約, 當此極熱. 頻數來往, 所見切迫. 余則食前, 往無沈橋, 與李書房徵甫相面. 因往美洞 見李兵使漢泰而來. 食後送金書房, 更往江頭, 與船人相議而來. 余則往南洞, 見李參議相話. 又與其弟高城相話, 同往石洞, 見李參議辭別. 出往草柳井, 以南參判在外, 不得相面. 只與其子翰林相話, 又往阿峴, 見李來而來. 南谷李參議送奴言, 船事得諾, 卽速載石云, 而姑待金生之入來. 夕間金書房來言, “船人欲爲速

載, 故貿得載石器械木物, 緣暮未爲而來.”

▪16일. 새벽녘에 김 서방이 돌을 실으려고 강가에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뱃사람이 말을 바꾸어 발악을 하면서 실을 수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니 세상일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득아(得兒)가 들어왔다가 도로 갔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낭패를 당하니 나 또한 분통이 터져서 김생(金生)과 함께 서로 힐난하였다. 김생이 화진(花鎭)으로 나갔는데, 김 첨사(金僉使)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말은 주인집에서 수원(水原)으로 빌려 보냈다.

十六日. 曉頭金書房載石次, 出去江頭, 未久卽還言, “船人變辭發惡, 不爲載去.” 世上事誠可痛惡. 得兒入來還去. 久待之餘, 竟至狼狽. 余亦憤咄, 與金生相詰. 金生出往花鎭, 爲見金僉使云, 馬則主家借送水原.

▪17일. 아침을 먹기 전에 경주인(京主人)에게 사람을 보내 흥양(興陽)으로 가는 배가 도착했는지 소식을 탐문하게 했더니 감감 무소식이라고 하여 더욱 근심스럽고 답답하다. 남곡(南谷)의 답서(答書)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니 이를 어찌면 종단 말인가. 또 들으니 진주 목사가 올라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인(船人)에게 그의 분부를 받들게 하면 반드시 시행할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러한 뜻을 다시 편지로 써서 남곡에게 보냈더니, 답서에 “진주 목사는 머지않아 체직되기 때문에 결코 선원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사설(辭說)만 낭비할 뿐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어찌하겠는가. 저녁에 흥양(興陽)의 기별을 탐문하려고 묵동(墨洞)에 갔더니 흥양의 대동선(大同船)²²⁸이 과연 왔는데, 이것은 바로 도감선(都監船)²²⁹이다. 비록 배가 왔어도 이로울 것이 없었지만 지토선(地土船)²³⁰이

228) 대동선(大同船) : 대동미를 운반하던 관아의 배를 말한다.

229) 도감선(都監船) : 훈련도감의 도감선(都監船)으로, 세곡운송에 참여했던 선박의 형태를 말한다. 16세기 대부분의 대동미의 운송은 전적으로 지토선이 감당했지만, 도감선을 비롯해서 그 외 경상 상인의 경강선(京江船)과 장부에 등록된 선박인 안부선(案付船) 등이 세곡운송에 참여했다.

230) 지토선(地土船) : 어선에 불과하던 지토선은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선으로서, 그리고

머지않아 당도한다고 하니 조금 위로가 되었다.

十七日. 朝前送人于京主人, 探問興陽船隻來到消息, 則寔無所聞云, 尤切憫菀. 南谷答書歸之於無可奈何, 奈何. 又聞晉牧上來, 故意謂受其分付於船人, 則必有施行之道. 以此復爲書, 送於南谷, 則答書“晉牧以非久當遞, 決無船漢聽從, 浪費辭說, 甚不緊合云.” 奈何奈何. 夕間欲探興陽奇別, 往于墨洞, 則興陽大同船果來, 而此則乃都監船也. 雖來無益, 聞地土船, 不久當到, 稍以爲慰.

▪18일. 온종일 쌍동(雙洞)에 머물렀다.

十八日. 終日留雙洞.

▪19일. 아침에 오백분(吳百奮)을 만나고 또 윤예중(尹禮仲)을 만났다. 또 가서 이광주(李光周)를 만나고 또 김재동(金載東)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돌아왔다. 오후에 김 서방이 화진(花鎭)에서 왔다. 일관(一貫)을 친구 이이현(李而見)이 빌려가고, 5전(戔)은 일금(日今)이 가져갔다.

十九日. 早往見吳百奮, 又見尹禮仲. 又往見李光周, 又歷問金載東而還. 午後, 金書房自花鎭來, 一貫李友而見貸去, 五戔日今持去.

▪20일. 묵동(墨洞)에 가서 오 생원(吳生員)을 만나고 왔다. 김생(金生)이 강가로 가다가 중도에 돌아왔다.

二十日. 往墨洞, 見吳生員而來. 金生往江頭, 中路而返.

▪21일. 김생(金生)은 아침을 먹기 전에 강가로 가고, 나는 황참교(黃參橋)에 가서 홍 감목(洪監牧)을 만나고 왔다. 득아(得兒)가 들어왔다가 내일 여주(呂州)에 가려고 말을 타고 갔다.

二十一日. 金生朝前往江上, 余則往黃參橋, 見洪監牧而來. 得兒入來, 明往

최대의 운송 물량인 세곡(稅穀)과 소작료를 임운하면서 운송선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였다. 대동법(大同法)의 실시와 함께 본격화되었는데, 조운제(漕運制)가 붕괴되면서 전세곡도 운송하기가 곤란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운송체계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던 대동미의 운송은 전적으로 지토선이 담당했다.

呂州次, 騎鬣而去.

- 22일. 비가 올 징조가 약간 있었으나 비가 오지 않으므로 김생(金生)이 아침에 서소문(西小門) 밖으로 가서 도양(道陽)의 배가 미곡을 싣고 도착했다는 기별을 전했다. 저녁에 김생이 쌀을 실어 와서 서소문 밖 민씨댁에 드렸는데 21두(斗)라고 했다. 득아(得兒)는 주인의 노잣돈을 변통할 수 없어서 출발하지 못했다고 했다.

二十二日. 略有雨徵而不雨, 故金生朝往西小門外, 爲傳道陽船載米到來之奇. 夕間金生輸來米石斗, 納于西小門外閔宅, 而二十一斗云耳. 得兒以主人之路費未變通, 不爲發行云.

- 23일. 9전(錢)을 수례(水禮)가 빌려가 전교(箭郊)에 보냈다고 하였다. 김생이 강가로 갔다가²³¹⁾ 저녁에 송 별감(宋別監)과 함께 와서 서로 만나니 매우 기뻐했다.

二十三日. 九錢水禮貸去, 送于箭郊云耳. 金生往江上. 夕間與宋別監同來相面, 其喜可掬.

- 24일. 비가 오다. 아침을 먹기 전에 먼저 읍으로 가는 인편에 서간을 써서 보내고 송형대(宋亨大)와 함께 유숙하였다. 오후에 비가 조금 개니 강가로 나갔다.

二十四日. 雨. 朝前, 修柬送付于先去邑便, 宋亨大同宿. 午後稍霽, 出去江上.

- 25일. 맑다. 김생과 함께 마포(麻浦) 강가로 나가서 사람과 말, 김생을 경리(京裡)에 돌려보내고 나는 배에서 머물렀다.

二十五日. 晴. 與金生出去麻浦江上, 還送人馬及金生于京裡, 余則留船中.

- 26일. 배에서 머물렀다.

231) 갔다가 : 저본은 '往'로 되어 있으나 문맥 상 의미가 통하지 않아 '往'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二十六日. 留船中

■27일. 배에서 머문 지 3일째다. 배에 머물 때에 누구는 좋다는 등 누구는 좋지 않다는 등 이야기들이 분분하였는데, 만일 그 허다한 말들을 따르다 보면 백날 결정하지 못하겠기에 한결같이 돌을 실을 생각만으로 동요하지 않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

二十七日. 留船中三日. 留船之際, 或諾或不諾, 辭說紛紜, 而若從其許多所言, 則百日不決, 故一向以載石爲意, 堅臥不起.

■28일. 밥을 먹은 뒤에 비로소 물결을 거슬러 용호(龍湖)로 올라가서 돌을 실었는데, 돌은 무겁고 배는 적어서 상처를 많이 입게 되니 뱃사람이 원망의 소리를 하였다. 형세가 그러하니 돌을 실을 때에 강가에 살고 있는 이 참의(李參議)의 아우가 비로소 돌이 있는 곳으로 나와약간의 노비와 관령(管領) 거부(車夫) 등 7~8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싣는 것을 감독하였다. 돌을 실은 후에 곧바로 떠나 다시 성 안을 향해 걸어서 길을 가니 고달픔을 어찌 말로 다하랴. 득아(得兒)가 여주(呂州)에서 어제 돌아왔으리라 기대하였다. 최선달(崔先達)이 들어와서 함께 머물렀다. 저녁에 김생(金生)이 들어왔다.

二十八日. 食後始得泝流上龍湖載石, 而大抵石重船薄, 多有致傷 船人之呼怨. 勢所固然, 載石時, 李參議之弟, 居在江上者, 始爲出來石在處, 略率奴人及管領車夫等七八人, 同爲監載. 載後卽離, 還向城中, 徒步作行, 困苦何言. 得兒自呂州, 昨還企待矣. 崔先達入來同舍. 夕間金生入來.

■29일. 김생(金生)이 의봉(衣封)과 지속(紙束)을 가지고 강가로 나갔다. 먼저 떠나는 읍의 하인 편에 편지를 써서 부처 삼정(森亭) 박생원(朴生員) 댁에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전송하게 했다. 저녁에 득아(得兒)가 들어왔다. 석수 김차명(金次明)에게 일곱 냥의 돈을 지급하고 김차돌이(金次夏伊)와 그 조역(助役)까지 돈 10냥을 주었다. 김생이 돌아왔는데, 채전(債錢, 빚진 돈)

을 받지 못했으니 답답하다. 모면지(毛綿紙)²³²⁾ 한 권을 2냥에 사 왔다. 묵동(墨洞)에 가서 오 생원을 만나 고별하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잠시 박 영평(朴永平)의 아들과 벗 윤예중(尹禮仲)을 만나 떡 1개를 나누었다. 영유(永柔) 이연상(李衍祥)이 와서 만났다.

二十九日. 金生持衣封與紙束, 出去江上. 修付書柬于邑下人先去便, 以爲趁卽傳送於森亭朴生員宅. 夕間得兒入來, 石手金次明處, 錢七兩給, 金次芟伊處, 并其助役, 錢十兩給. 金生還, 而債錢不得, 憫憫. 毛綿紙一卷, 二兩買來. 往墨洞, 見吳生員告歸. 回路暫見朴永平之子尹友禮仲, 以墨一丁來給. 李永柔衍祥來見.

▪ 6월 1일. 득아(得兒)는 승보시(升補試)²³³⁾ 과장으로 들어갔다. 김생이 서소문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20냥을 빚 얻어 왔다. 각석수(刻石手)의 노자를 거의 충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원흥보(元興甫)가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일행을 접대했는데, 도리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은 뒤에 득아가 나왔다. 박 정랑(朴正郎)이 저녁을 먹은 뒤에 와서 함께 유숙하였다. 이날 밤에 음식을 장만하여 전송하는 데 썼다.

六月初吉. 得兒入去升補場中, 金生出去西小門外, 夕間得債二十兩而來, 庶得充刻石手路費之資, 可幸. 元興甫持飲食略干而來, 以爲吾一行接待之道, 還有不安之心. 夕後得兒出來, 朴正郎夕後來同宿. 是夜爲具飲食, 以爲餞送之資.

▪ 2일. 새벽녘에 김 서방(金書房)이 곡성(谷城) 사람에게 말을 빌리려고 서소문 밖으로 나갔다. 남곡(南谷) 이 참의(李參議, 李復祥)의 아들이 찾아와서 보았다. 이 영유(李永柔, 이연상(李衍祥))가 사람을 보내어 편지로

232) 모면지(毛綿紙) : 질이 낮은 중국산 종이로, 약간 누런빛이 나고 질이 좋지 않아 필사용으로 사용되었는데, 모면지(毛邊紙)라고도 하였다.

233) 승보시(升補試) : 생원시(生員試)에 해당되며 고려 의종(毅宗) 때부터 실시되었다. 대사성(大司成)이 주관하여 해마다 열 차례 부(賦)와 고시(古詩) 각각 한 편(篇)의 제술(製述, 글짓기)로 사학(四學)의 유생 등을 시험하여 연말에 합격한 성적이 우수한 자 10인에게 식년(式年)의 생원·진사 복시(覆試)에 나아갈 자격을 주는 시험이다. 《속대전(續大典)》 예전(禮典) 제과(諸科).

문안했다. 밥을 먹은 뒤 출발하려는데 벗 윤여규(尹汝揆)와 윤예중(尹禮仲), 그리고 이 선전(李宣傳)최 부장(崔部將)서 초관(徐哨官)구 초관(仇哨官)이수재(李秀才)가 모두 찾아와서 작별하고, 달경(達卿)과도 손 마주 잡고 작별하니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다. 주인집 노비들도 모두 나와 절하며 작별인사를 하였다. 득아와 김 서방을 데리고 서소문으로 나가 잠시 민 토산(閔兎山)의 집에 들러서 안채 노비를 불러 토산 부인에게 가는 것을 고하게 하고, 이전에 아들을 부탁한 뜻을 간곡히 전달했다.

길을 떠나 청파(靑坡)에 이르자 득아에게 뒤처져 오게 하고 강에 이르러 나루를 건넜다. 물에 내릴 때, 쌍동(雙洞)에서 데려온 노비 육천(六天)이가 사람됨이 건장하지 못하여 나를 업고 거의 물에 빠질뻔 하였고, 말을 내리다가 말이 배 갑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물에 빠지고 짐조차 모두 잠겨 버렸으니 그 분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과천(果川)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김생이 곡성 사람과 약속한 때에 이르기 위해 간신히 사근천 주점(沙斤川酒店)에 도달하니, 이른바 곡성인은 유천(柳川)으로 내려 갔다. 사천(沙川)에서 유숙하였다.

初二日。曉頭，金書房借馬於谷城人次，出去門外。南谷李參議之子來見。李永柔送人書問。食後離發之際，尹友汝揆，尹友禮仲，李宣傳，崔部將，徐哨官，仇哨官，李秀才皆來別，與達卿摻手作別，懷事甚惡。主家婢輩皆拜別。率得兒與金書房，出西小門，暫入閔兎山家，招內婢告去于兎山夫人，前以托子之意，丁寧傳白。離發到靑坡，使得兒落後，到江越津。下陸之際，率來雙洞奴六天，爲人不猛，負余而幾至落水，下馬而馬跌船板，落水沾濕，卜物盡沈，憤不可言。至果川秣馬，爲及金生所約谷城人，艱以得達於沙斤川酒店，所謂谷城人，下去柳川矣。宿沙川。

■3일. 일찍 출발하여 유천(柳川)에 이르렀다. 곡성 사람이 또 앞서가고 기다리지 않으니 동행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축저 주점(築底酒店)에 도착하여 아침을 먹었다. 김 서방이 1냥을 주고 말을 빌려서 짐을 나누어 각각 실었다. 갈원(葛院)에 이르러서 시원하게 냉수를 마셨다. 소사(素沙)를 지나 성환(成歡)에 이르렀다. 곤고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初三日. 早發抵柳川. 谷城人又爲前去而不待, 其爲不欲同行之意可知. 到築底酒店朝飯. 金書房給一兩, 得貰馬分卜各載. 至葛院, 快飲冷水. 歷素沙, 抵成歡. 困苦不可言.

▪4일. 출발하여 길 위의 진흙 흔적을 보니 어젯밤에 소낙비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천안(天安) 삼거리(三巨里)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낙원(洛源)에 이르러 조 진사(趙進士)를 찾아가니 그의 아들이 먼저 와서 아버지는 뒤따라오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얼마 후에 조형숙(趙亨叔)이 와서 보니 너무나 기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情)은 비록 끝이 없었지만 곧바로 작별을 고하고 내려왔다. 모로원(暮路院)에서 유숙하였다.

初四日. 發程見道上泥痕, 知夜來之有驟雨矣. 到天安三巨里朝飯. 抵洛源尋趙進士, 則其子先來言, 其父之從後來矣. 俄而亨叔來見, 喜極不可言. 情雖無窮, 旋即告別下來. 暮路院留.

▪5일.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일었다. 흑 장맛비[霖雨]의 조짐이 아닐까 생각하니 마음이 매우 걱정스럽다. 일찍 출발하여 미륵 주점(彌勒酒店)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을 먹었다. 곧바로 임천(林川)의 옥곡(玉谷)이 지평(李持平)에게 가다가 30리를 미처 못가 삼거리 주점(三巨里酒店)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바로 부여(扶餘) 땅인데, 백마강(白馬江)의 아래쪽이다. 90리를 갔다.

初五日. 雲暗風起, 意或爲霖雨之漸, 心甚憫慮. 早發, 到彌勒酒店, 秣馬朝飯. 尋向林川玉谷李持平家, 而未及三十里, 抵三巨里酒店, 留宿. 卽扶餘地, 而白馬江下邊也. 行九十里.

▪6일. 아침을 먹은 후에 큰 들판을 지나고 두 개의 높은 재를 넘어 옥곡(玉谷)에 이르렀다. 이 지평(李持平)은 그동안 병이 들고, 그 아우네 집에 장사(葬事)를 지내느라 문자(文字)에 마음을 쏟지 못하여 지어 두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칠월 보름 전에는 서소문(西小門) 밖 민태열(閔台烈)의 집에 글을 지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민태열은 바로 이

지평의 처조카이다. 이때에 혹 왕래하는 인편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다행한 일이었다. 작별인사를 하고 남당(南塘)에 이르러 나루를 건너 간신히 함열(咸悅, 전라북도 익산의 옛 지명) 읍내에 도착했다. 함열에서 전주 참봉(參奉) 심택진(沈宅鎭)에게 갔으나 7~8일 전에 경성으로 떠나서 약속한 일이 모두 허망하게 되었으니 한탄스럽다. 사람은 굶주리고 말은 지쳐서 길을 떠나기에 어려우니 읍내의 주점에 유숙하였다. 60리를 갔다.

初六日. 因朝飯, 過一大野, 歷二峻嶺, 抵玉谷. 李持平以中間病憂及過其弟家葬事, 未得留意於文字, 不爲製置, 故約以七月望前, 製送于西小門外閔台烈家, 台烈卽持平妻侄. 以此時或有往來之便云, 是則可幸. 辭別, 到南塘越津, 艱得抵咸悅邑內, 咸悅往全州沈參奉宅鎭. 七八日前, 發向京城, 所約事, 盡爲虛妄, 可歎. 人飢馬困, 難於發程, 留邑底酒店. 行六十里.

▪7일. 아침을 먹은 후에 출발하여 익산(益山) 읍내에 도착하였다. 나는 송응규(宋應奎) 집에 가서 잠시 그 청상과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주점으로 내려왔다. 말에게 꼴을 먹이고전주로 향해 가는 길에 함열(咸悅)의 현감을 만나 말 위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전주 감영에 이르렀다. 피곤함을 형용할 수가 없다. 90리를 갔다.

初七日. 因朝飯後離發, 抵益山邑內. 余則往宋應奎家, 暫與其孀婦數語, 下來酒店. 秣馬向全州之路, 逢咸悅倅, 馬上暫話, 得抵完營. 困憊難狀. 行九十里.

▪8일. 아침을 먹기 전에 가서 이 감사(李監司)를 만났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와서 충민공(忠愍公) 비문을 보고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먼저 내려가는 녹도(鹿島) 하인 편에 몇 글자를 써서 부쳐 금오 주점(金烏酒店) 주인에게 전해주게 하였다. 이 감사(李監司)와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에 영문(營門)에 통보한 일을 언급했더니, 이 감사가 “마땅히 노복을 기다렸다가 들어 온 뒤에 통보해야 하니 잠시 주인집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인집에 누워서 흥양(興陽)에서 올라온 사람과 함께 한가로이 이야기하였다.

낮에 영문(營門)에서 하인이 와서 고하기를, “흥양(興陽)의 송 생원님이

만약 여기 계신다면 사또께서 뵙기를 청하니 속히 행차하시는 것이 지당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기별을 듣자마자 곧바로 옷깃을 여미고 하인을 따라 영문에 이르자 대문 앞에 나를 세워 두고 말하기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소인이 곧바로 들어가 아뢰고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얼마 안 있어 그 하인이 나와서 인도하였다. 서쪽 담장 밖을 지나 수십 보를 가서 하나의 작은 문으로 들어가니, 바로 선화당(宣化堂)²³⁴의 서쪽 처마 아래였다. 선화당 앞뜰을 지나 관풍각(觀風閣)의 서쪽 계단 아래에 이르자 이른바 급창(及唱)이 나를 인도하여 작은 잔도(棧道)²³⁵로 올라가 관풍각 대청에 오르니 감사가 중앙에 앉아 북쪽 벽 아래를 보고 있었다. 내가 일어서자 내 앞에 방석을 주고서 나에게 읊하고 자리에 나아갔다. 이어 맞이하여 절하는 예를 시행하고 각자 자리에 앉았다. 대략 안부 인사를 나누고는 말하기를, “무더위가 이처럼 극심하니 글씨 쓰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서늘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를, “오직 영감(令監)께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석수(石手)는 함께 왔지만 각수(刻手)가 뒤쳐져서 조금 더 지나야 올 것입니다. 반드시 급한 것은 아니니 틈을 보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각수가 온 뒤에는 헛되게 보내기가 어려울 듯하니 잘 헤아려 처리해 주시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비문 정간(井間)의 글자 모양이 조금 길고 넓지가 않으니 이대로 글자를 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경종(景宗)과 금상(今上, 영조) 두 곳은 극항(極行)²³⁶을 썼고, 숙종(肅宗)은 극항을 쓰지 않았으니 온당하지 않을 듯합니다.”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를, “저의 생각도 그러하였는데, 역천(櫟泉)과 미호(溪湖) 두 어른께서 모두

234) 선화당(宣化堂) :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정청(政廳)으로서 고을의 동헌(東軒)에 해당한다. 정면 중앙에 ‘선화당(宣化堂)’이라는 편액(扁額)을 달았는데, 이는 ‘임금의 덕을 선양하고 백성을 교화하는(宣上德而化下民) 건물’임을 뜻하였다. 도내의 일반 행정군사조세 및 중요한 송사(訟事)형옥(刑獄)의 재판이 이곳에서 행해졌다.

235) 잔도(棧道) : 복도(複道)라고도 한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나 눈이 맞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씌워 만든 통로나 험한 벼랑 같은 곳에 낸 길을 말한다.

236) 극항(極行) : 임금을 상징하는 글자는 줄을 바꾸어 통상 한 자 올려서 쓰는데 이 줄을 ‘극항’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줄을 ‘평항(平行)’이라 한다.

이처럼 써서 주셨기 때문에 한결같이 본문을 따라 써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영감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 정간을 고쳐서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미호(溟湖)가 고친 곳에 몇 글자를 첨가하였으니 정간을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하인에게 분부하여 도량(度量)을 다시 만들어 정간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겠습니다. 또 저의 집안 《충효록(忠孝錄)》 운문(韻語)은 되어 대감(退漁大監)²³⁷이 원운(元韻)을 지으셨는데, 영감께서 만약 보신 적이 없다면 가지고 온 책자(冊子)를 살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쭙기 전에 곧바로 소매 속에서 꺼내 드리자니 사체가 온당하지 않은 듯하여 주인에게 맡겨두고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감사가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니 곧바로 하인에게 분부하여 가지고 오게 해서 살펴본 뒤에 내가 말하기를, “고조인 참의공²³⁸이 흥양(興陽)의 첨산(尖山) 아래에서 절의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영감(令監)이 순시를 나갈 때에 마땅히 (첨산 아래) 전사한 곳을 보시고 표지를 세우고 사적을 기록하려 했으나 본래 그 뜻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길에 안성(安城)의 홍계남장군고루비(洪季男將軍故壘碑)를 보고 나서, 저의 고조부가 전사한 곳에 비석을 세우는 것이 흠이 되는 일이 아니라 여겼으므로 만의(萬義) 송자의(宋諮議)에게 글을 받았으니, 영감께서 부디 수고로움을 잊고 써주시기를 매우 바라고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감사가 말하기를, “비록 잘 쓰지 못하나 송 생원(宋生員)의 정성에 감동하였으니 마땅히 뒤에 써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일 고산(高山)에 가려고 하니 갔다가 돌아온 후에 마땅히 다시금 나아가 작별인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인집을 나와서 유숙하였다.

237) 되어 대감(退漁大監) : 퇴어당(退漁堂) 김진상(金鎭商, 1684~1755)을 말한다. 본관은 광산, 자는 여익(汝翼), 호는 퇴어(退漁)이며, 김장생의 5대손이다. 1699년(숙종25) 진사가 되고 1712년(숙종38)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설서대사성대사헌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퇴어당유고》가 전하며, 글씨에 뛰어났고 많은 비문을 남겼다.

238) 참의공 : 송대립(宋大立, 1550~1597)으로, 1594년 무과에 올라 아우 희립(希立)이 지도 만호(智島萬戶)로 있었으므로 이순신의 휘하로 같이 들어가 수차례 일본군을 무찌르며 공을 세워 이순신에게 무용(武勇)을 인정받았다. 아군은 늘 수(數)적 열세였으나 송대립은 널리 의병을 모집하여 흥양의 첨산에서 결사항전 하다가 적들의 총탄에 전사하였다.

初八日. 朝前, 往見李監司, 稍久敘話. 因出見忠愍公碑文, 還主人家. 修付數字於先去鹿島下人便, 以爲傳給金烏所酒店主人. 與李監司面語時, 通于營門事言及, 則李令言“當待奴者, 入來後通之, 暫留主人家爲妙云.” 故臥于主人家, 同興陽上來人間話矣. 午間自營門有下人來告曰: “興陽宋生員主, 若在此則使道請見, 從速行次, 至當云云.” 聞奇卽爲攝衣從下人, 至營門, 立余于大門前曰: “小留幸甚, 小人當卽入稟更來矣.” 俄而厥下人出來引道, 由西牆外, 行數十步, 入一小門, 卽宣化堂西邊簷下也. 由宣化堂前庭, 至觀風閣西階外, 則所謂及唱導余, 上小棧道, 登觀風閣大廳, 監司當中坐, 北壁下見. 余起立, 進方席于余前, 揖余就席, 因施迎拜之禮, 而各就坐. 略敘寒暄乃言曰: “炎熱此極, 決難書役, 稍待涼生而書之, 如何.” 余曰: “惟令監量處. 石手雖同來, 刻手落後, 稍間當來. 不必急急, 乘隙書之無妨. 然刻手來後, 似難空過, 商量處之如何.” 且曰: “碑文井間字樣, 稍長而不廣, 依此作字甚艱, 且景宗今上兩處, 極行書之, 肅宗不爲極行, 似爲未安.” 余曰: “鄙意亦然, 而樸泉溪湖兩丈, 皆以此書給, 故一從本文書來矣. 令監之言如此, 改井間以書似好耳. 且最後溪湖所改處, 添入數字, 則不可不改井間. 幸分付下人, 改爲度量井間, 大爲合當. 且鄙家忠孝錄韻語, 退漁大監, 創爲元韻, 令監若未曾見, 取考持來冊子如何. 未稟之前, 直爲袖納, 事涉未安, 留置主人而入來矣.” 監司取來似好, 卽爲分付下人持來. 看過後, 余曰: “高祖參議公, 死節於興陽尖山下, 令監巡到時, 當見□□□戰亡處 立表記蹟, 素有其志, 尙今未果矣. 今行見安城洪將軍季男故壘碑, 余高祖立碑于戰亡處, 不爲欠事, 故受文於萬義宋諮議, 令監幸忘勞書給, 至望至望.” 監司曰: “雖不善書, 宋生員誠意可感, 當從後書納矣.” 余曰: “明日欲爲往高山, 往返後當更進, 辭別矣.” 出來主人家留宿.

■9일. 새벽에 고산(高山)으로 출발하였다. 양정포 주점(楊井浦酒店)에서 아침을 먹고 곧바로 고산의 관문 밖에 이르렀다. 하인(下人)에게 통자(通刺)하게 하였더니, 하인이 고하기를, “관가(官家)가 별도로 분부할 것인데, 만약 사적인 일로 통자함이 있으면 마땅히 무겁게 곤장을 칠 것이며, 비록 감영이 통한 바라도 가볍게 먼저 들어가 고할 수가 없다고 하니, 소인은 변통할

방도가 전혀 없었으며, 끝까지 완강하게 막다가 마침내는 피해 가버리니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자인(子仁)의 계아(繼兒)를 보고자 함은 인사(人事)의 당연한 것이지만, 6월의 혼금(閹禁)²³⁹⁾이 이처럼 견고한 벽과 같으니 그 나머지는 논할 것도 없다. 신보(愼甫)가 지난번에 했던 말은 과연 빈말이 아니었다.

곧바로 길을 돌려 전주(全州)에 이르니 해가 아직 남아 있었다. 들어가 감사를 뵈고 작별을 고하였는데, 어제 드렸던 《충효록》을 받아서 왔다. 감사가 말하기를, “《충효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송 생원의 성의가 사람으로 하여금 탄복하게 합니다.”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를, “어찌 그렇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중초의 정간을 고쳤는가를 묻자 대답하기를, “방금 고쳤습니다.”라고 하더니 하인을 시켜 가져오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날이 어둡지 않으나 시력이 약해서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감사가 말하기를, “촛불을 내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촛불 아래에서 보니 전과 비교하여 정간이 조금 촘촘하였다. 또 숙종은 극항으로 올렸으니 더할 수 없이 좋고, 또 남은 줄이 있어 적당한 듯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우리 집안의 비문은 영감께서 이미 수락하셨기에 삼가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니, 감사가 말하기를, “저의 필력으로 어찌 능히 큰 기대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빨리 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저희 집안일은 아직 비석 돌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이번 석수가 왔을 때, 혹시라도 겨우 쓸 만한 돌이 있으면 그 남은 석수를 빌려서 비석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 나중에 천천히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또 혹 글씨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한 어찌 존귀한 이 앞에 억지로 청하겠습니까.”라고 하자, 감사가 말하기를, “급하지 않다면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충민공(忠愍公)의 비석을 세우는 일은 물력이 매우 부족하니, 영감(令監)께서 마땅히 불가(佛家)의 이른바 ‘화주(化主)’²⁴⁰⁾

239) 혼금(閹禁) : 관청에서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일이다.

240) 화주(化主) : 집집으로 다니면서 결연(結緣)의 법을 설(說)하고 시물(施物)을 얻어 절의 양식을 이어대는 중으로 화주승(化主僧)을 일컫는다. 여기서는 영감이 화주의 역할을 해 달라고 한 것이다.

와 같이 도내의 각 고을에 권면하여 돕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감사가 말하기를, “도신사(道臣事)가 관문(關文)을 보내²⁴¹⁾ 권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만나면 직접 뵙고 말씀드릴 계획이니 흥양(興陽)의 이웃 고을은 어떤 고을들입니까.”라고 하자, 내가 말하기를, “낙안(樂安), 보성(寶城), 장흥(長興), 광양(光陽)입니다.”라고 하였다. 감사가 말하기를, “장흥(長興) 신관(新官)을 만나게 되면 부탁의 말을 드려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두웠으므로 작별을 고하였는데, 비석을 세우는 일의 전말은 본대로 본관 편에 전달하여 말씀드리고 하직하니 감사가 말하기를, “여러 달 객지생활 하느라 노자가 궁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하자, 내가 말하기를, “어렵고 궁핍한 상황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감사가 아랫사람에게 분부하여 말하기를, “쌀 두 말과 콩 두 말을 송 생원에게 내어 주어라. 행중(行中)의 일이니 지금 빨리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직 인사를 한 후에 나와 주인집으로 왔다.

初九日. 曉發向高山, 朝飯于楊井浦酒店, 直抵高山官門外. 使下人通刺, 下人所告內, “官家別爲分付, 若有私行通刺, 則當施重杖. 雖監營所通, 不可輕先入告, 小人萬無變通之道, 終是牢拒, 未乃避去, 不得對面.” 反以思之, 則吾之欲見子仁繼兒者, 人事當然, 而六月闔禁, 若此堅壁, 其餘無足可論. 慎甫向者之言, 果不虛矣. 卽爲回程, 抵全州, 日尙早矣. 入見監司告別, 而受來昨日所納忠孝錄. 監司曰: “詳覽忠孝錄, 宋生員誠意, 令人歎服.” 余曰: “豈其然也.” 問中草改井間, 則答曰: “方改之.” 使下人持來. 余曰: “日雖未昏, 眼力衰瞶, 不能諦視.” 監司曰: “進燭.” 燭下視之, 比前井間稍密, 且肅宗上于極行, 可謂盡善, 又有餘行, 似爲得宜矣. 余曰: “吾家碑文, 令監既有盛許, 故謹此持來.” 監司曰: “吾筆豈能當盛望, 亦安得從速書之也.” 余曰: “鄙家事, 未有備石, 只冀今番石手之來, 或有僅可之石, 借其餘手, 因欲始役. 不必趁速, 從後徐緩, 書給無妨, 且或難於書役, 亦何強請於尊前乎.” 監司曰: “不急則好矣.” 余曰: “忠愍公碑役, 物力萬分不足. 令監當如佛家所謂化主, 道內各邑, 使之勸助, 如何.” 監司曰: “以道臣事不可發關以勸, 若

241) 관문(關文)을 보내 : 원문의 ‘발관(發關)’은 상관이 하관에게 관문(關文)을 보내는 일을 말한다.

有逢着, 當面說計計. 興陽隣邑爲何邑也.” 余曰: “樂安, 寶城, 長興, 光陽.” 監司曰: “長興新官, 若見之, 言囑矣.” 時已昏黑, 故告別, 而碑役形止, 隨所見傳通於本官便事, 仰告而下直. 監司曰: “累月作客, 行資想必苟且矣.” 余曰: “艱乏之狀, 不可形言.” 監司分付曰: “二斗米二斗太, 出給于宋生員, 行中事卽速施行.” 拜辭後, 出來主人家.

▪10일. 출발할 즈음에 신만재(申萬才)에게 분부하여 이 감사(李監司)에게 전갈하고 오게 했다. 노고암 주점(老古巖酒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오수(熬樹)에 도착했다.

初十日. 離發之際, 分付申萬才, 使之傳喝于李監司而來. 抵老古巖酒店朝飯. 得達熬樹.

▪11일. 새벽에 출발하여 증산 주점(甌山酒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곡성(谷城) 읍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용계(龍溪)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十一日. 曉發抵甌山店朝飯. 到谷城邑內午飯. 至龍溪, 留宿.

▪12일. 일찍 출발하여 천평(泉坪)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김우(金友, 김문명(金文明))의 궤연(几筵)에 조문하였다. 문명의 아들을 만나 상을 당했으나 궤연에 가서 곡하지 못한 것을 위로하였다. 길을 떠나 동점(銅店)에 도달하니 불별더위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말이 지쳐서 마음대로 달릴 수 없었다. 걸어서 접치(接峙)와 문치(蚊峙)를 넘으니 매우 고생스러웠다.

十二日. 早發抵泉坪午飯. 弔金友几筵, 見文明之子, 慰其遭喪, 未得往哭於几筵, 而離發得達銅店, 不但炎熱之特甚, 以馬困不能任意騰. 步越接峙及蚊峙, 苦哉苦哉.

▪13일. 일찍 출발하여 벌교(伐橋)에 이르러 요기를 하고 사면교(四面橋)의 길에 이르렀다. 잠시 지재(智齋)에 들러 군실씨(君實氏)를 만났는데, 벗인 송여칭(宋汝稱)도 그 옆에 있었다. 우산(牛山) 집에 내려와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은 후에 양원(楊院)에 이르러 저녁을 먹었다. 와평(瓦坪)

김갑동(金甲東)에게 기별을 통하게 하니 와서 보았다. 조카 흡(滄)과 김중빈(金重彬)이 서당으로부터 와서 보았다. 고향 집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달빛을 밟고 천천히 말을 몰아 집에 도달하니 첫닭이 울고 달은 이미 넘어갔다.

十三日. 早發至伐橋療飢, 抵四面橋之路. 暫入智齋, 見君實氏, 宋友汝稱亦在其傍. 下來牛山家, 秣馬點心, 到楊院夕飯. 通奇于瓦坪金甲東來見. 滄侄及金重彬, 自書堂來見. 以家鄉之不遠, 乘月緩駟, 得達于家. 鷄初鳴而月已落矣.

▪14일. 김생이 그의 집으로 갔다.

十四日. 金生去其家.

심혼록 기축년(1769) 5월

心昏錄 己丑五月

■10일. 석아(石兒)가 알지 못할 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다. 대개 이는 앞마을의 아이들이 거의 앓고 있는 병으로 동증(動症)인지 윤질(輪疾)²⁴²인지 의심스러운데, 가벼우면 10여 일 지나서 그치고 심하면 20여 일 가까이 가서 조금 병세가 그친다. 그러므로 석아가 아픈 것도 이 증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 염려하지는 않았지만, 병을 앓은 뒤에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 물리치게 되니 매우 괴이하고 의아스럽다.

初十日. 石兒以無何之症, 重痛. 蓋此前村中兒輩, 多有病者, 或疑動症, 或疑輪疾. 輕則過十餘日而止, 重則近二十日而稍歇, 故意謂石兒所患, 亦是症也. 不甚爲慮, 而但得病後, 症情甚重, 食飲頓却, 深用怪訝矣.

■15일. 구관(舊官)이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가는 날이다. 작별을 하고자 금오소(金鰲所)로 가려는데 길가에서 장아(長兒)가 나에게 나가 피해 있을 것을 굳이 청하며 말하기를, “아우 석(石)의 병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마을의 여러 곳이 대부분 정결하지 않은 듯하니 결코 노인이 집에 계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번 수령을 전별하러 가는 길로 인하여 다시 흥사(興寺)로 가십시오. 또 나도비소(羅島碑所, 한포재 이공의 비석)에 가시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박숙(朴叔)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아울러 조석간의 걱정을 덜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내가 또한 생각해보니, 이치가 없지는 않아서 이에 말하기를, “내가 일의 형세를 보고 조치하겠다.”라고 하였다. 걸어서 오원 주점(鰲院酒店)에 가서 조금 기다렸다가 한참 동안 현감을 만나 전별한 뒤에 곧바로 흥사(興寺)로 향하였는데, 마음은 어수선하고 다리는 힘이 없어 나아가고자 하는데 번번이 물러나니 거의 길을 돌릴 뻔 했다. 억지로 참고 고개를 넘어 어렵사리 흥사(興寺)에 이르니 정신이 혼미하여 마음을 가눌

242) 윤질(輪疾): 어떤 지역에서 전염성이나 공통의 원인에 의해 다른 병보다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일종의 괴질(怪疾)을 말한다.

수가 없었다.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니, 그 길이 바로 영결(永訣)이 되었다. 흥사(興寺)에서 유숙하였다.

十五日。卽舊官罷歸之日也。欲爲奉別，往于金鰲所，路邊長兒，堅請余出避曰：“石弟之病，不是尋常，且村間諸處，似多不淨，決非老人在家之勢。今因餞倅之行，轉向興寺。又往羅島碑所，則庶慰朴叔偏苦之勞，兼破惟憂朝暮之慮矣。”余亦思之，不無有理。乃曰：“余觀事勢而處之。”步往鰲院酒店稍待，移時，見倅餞別後，直向興寺，而心迷脚軟，欲進累退，幾於回程。強忍踰嶺，艱抵興寺，心神昏暗，不能爲懷。追後深想則其行，乃永訣也。宿興寺。

▪ 16일. 일찍 승려를 보내서 포두(浦頭) 종질(從姪)에게 나도(羅島)에 되돌아가는 배편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라 하고 당산(堂山)에 이르러 곧바로 내려갔다. 종질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원래 갈 수 있는 배는 없으나 삼정(森亭)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므로 다시 삼정으로 갔다. 삼정에 임씨(林氏)와 박씨(朴氏) 등 두서너 사람도 그곳에 갈 뜻이 있어서 함께 동행하기로 하고 배편을 탐문했다. 배는 과연 있었으나 격군(格軍)을 변통할 길이 없어서 배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삼정에서 유숙하였다.

十六日。早送僧人，先探羅島順歸船于浦頭從姪處，及堂山，而因卽下去。從姪回報，元無可去船，森亭有可渡之便，故轉往森亭，亭林朴數三人，亦有往彼之意，要與同行，探問船隻。船則果有，而格軍未由變通，不得發船，宿森亭。

▪ 17일. 격군을 끝내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로 가려던 생각을 버리고 박 진사(朴進士)의 말을 빌려 타고 우목촌(牛牧村)에 이르렀다. 노복과 말을 남겨두고 바다를 건너서 잠시 비각을 살펴보다가 비청(碑廳)으로 이동하여 쉬었다. 저녁을 먹은 후에 벗인 박덕조(朴德祖)와 함께 방촌(防村)의 명가(明家)에서 유숙하였다. 비각이 비록 신기(新奇)하지만, 박우(朴友)가 비록 갖은 고생을 겪었다고 하나, 비각을 보고도 좋아하는 흥취가 일지 않고 사람을 마주하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그 쓸쓸하고 처량한 마음이 꼭 나무 허수아비와도 같았는데, 이날이 바로 석아(石兒)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던 것이다. 사람은 바로 알지 못하는데, 천리(天理)가 먼저 끊어져

절로 즐거움이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十七日. 以格軍之終不得, 罷意船行, 借乘朴進士馬, 抵牛牧村. 留置奴馬, 渡海暫見碑閣, 移歇碑廳. 夕飯後, 偕朴友德祖, 往留防村明家. 碑閣雖新奇, 朴友雖積苦, 而見閣無好趣, 對人無開懷, 蕭索淒涼有若木偶. 是日卽石兒化去之辰也. 人卽未知, 而天理先斷, 自無歡悰, 豈不痛哉.

▪ 18일. 새벽에 벗 박씨와 석아(石兒)의 병을 언급하며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석아가 결국 일어나지 못할 것 같네.”라고 하니, 벗 박씨가 나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게.”라고 하였다. 아침을 먹기 전 세수할 때에 뜰 가에 날아 온 까마귀가 울어대니 그 소리를 한 번 듣고 내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만약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누가 그러함을 알겠는가.

서둘러 밥을 먹고 비소(碑所)로 나와 바야흐로 목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사진(蛇鎭, 사도진)으로 건너가 길을 떠나려고 하였다. 갑자기 언덕 위에서 배를 부르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자 급히 고공(篙工)²⁴³에게 배를 부르는 사람이 온 곳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물길에 조금 간격이 있어서 자세히 분별할 수 없었다. 재차 불러 물으니 비로소 우리 집에서 보낸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았다. 깜짝 놀라 노를 재촉하여 부두에 도착해 보니 바로 학노(鶴奴)였다. 바삐 석아의 생사를 물었더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증세가 점점 심해지니 아뢰 뒤엔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물어보기를,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사실대로 즉시 고하여 나의 의혹을 풀도록 해라.”라고 하니, 또 답하기를, “변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면(西面)의 유 생원(柳生員)님이 증세가 위중한 것을 보고 빨리 가서 아뢰라고 하여 급히 온 것입니다.”라고 했다.

마음속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으나 병세를 보려는 생각에 아주 급하게 채찍을 가하여 삼정(森亭)에 도착하였다. 여러 번 재촉하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잠시 후 요기 거리를 내왔으나 먹을 생각이 없으니 몇 수저를 뜨고 물렸다. 막 말을 타고 떠날 즈음에 조카 임(林)이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243) 고공(篙工) : 저본의 ‘篙’는 문맥상 맞지 않아 ‘篙’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석종(石從)이 어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부님이 급히 달려오다가 다만 원기가 상하면 죽은 사람에게 이로울 것이 없고 슬픔을 억누름만 못하니 천금 같은 몸을 보존하시기를 지극히 바라고 바랍니다.”라고 하며 곧바로 말안장을 풀게 하고 한사코 내가 가는 길을 만류하였다. 두려운 마음에 천지가 감감하게 짝 막혀 소리쳐 통곡하고자 하여도 인가(人家)에서 듣고 놀라 혐의함이 있을 것 같아 슬픔을 머금고 정을 억누르고 있으려니 심장이 터지려 하였다. 임가(林家)에서 가침(假寢)²⁴⁴하는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애통한 일이다.

十八日. 曉與朴友言及石兒之病曰: “吾意石兒, 決至不起.” 朴友慰余曰: “何其然也. 勿爲過慮焉.” 朝前洗手時, 飛鴉鳴於庭際, 一聞其聲, 吾心甚苦. 使他人聞之, 誰知其然. 促飯出來碑所, 方欲與木手輩, 同舟而濟由蛇鎮, 作行計矣. 忽聞岸上喚船人, 急使篙工問喚船人來處, 則水路稍間, 不能詳辨. 再次招問, 始識吾家來使. 驚惶催櫓, 到岸見之, 乃鶴奴也. 忙問生死則答云, “症勢漸篤告白後, 陪去次來耳.” 又問, “生耶死耶. 從實直告, 以破我惑.” 則又答以非爲變出, 西面柳生員主, 見其症重, 促往告白, 以此急來. 心雖未信, 看病之意, 甚急促鞭, 抵森亭. 頻數催秣, 俄進療飢, 無意喫飯, 數匙即退. 方欲跨馬之際, 林侄跪告曰: “石從昨已化去. 叔主馳赴, 徒傷眞元, 無益死者, 不如抑哀, 以保千金, 至仰至仰.” 即使卸鞍, 強挽余行, 心神殞越, 天地晦塞, 雖欲發聲痛哭, 有嫌於人家駭聽, 含悲抑情, 心腸欲裂. 假寢林家, 夜不成寐, 痛哉.

▪19일. 임(林)과 박(朴), 그리고 여러 손님들이 간곡히 나에게 며칠 머물라고 하였지만, 내 생각에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통곡하면 마음이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억지로 뿌리치고 일어났더니 조카 임과 박 진사가 뒤를 따랐다. 흥사(興寺)에 이르러 문으로 들어서자 대성통곡하며 여러 차례 울부짖다 기절하니 마음이 조금 풀렸다. 얼마 후에 임(林), 박(朴)이 돌아갔다. 두어 명의 승려와 함께 말을 하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면서 매번 스스로를 위로하여 풀고자 하였지만 긴 한숨과 짧은 탄식만 나올 뿐 조금도

244) 가침(假寢): 잠자리를 제대로 차리지 않고 자는 것을 말한다.

절로 풀리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영산전(靈山殿)에서 묵었다.

十九日. 林朴諸客, 懇余因留累日, 而余意一次, 放聲痛哭, 可以小抒菀抑, 強拂起來, 則林侄朴進士隨後. 到興寺入門, 大痛數次號絕, 中情稍紓矣. 俄余林朴告歸. 惟與數髡, 或話或臥. 每欲寬譬自解, 長吁短歎, 小不自弛. 奈何奈何. 宿靈山殿.

▪ 20일. 조카 우(又)와 득아(得兒)가 보러 왔다. 아이들을 대면하니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두어 번 소리 내어 통곡하자 같이 온 정세황(鄭世晃), 박창덕(朴昌德), 박성서(朴聖瑞), 김연종(金延宗), 유억창(柳億昌) 등 여러 사람들이 한사코 만류하였기 때문에 슬픔을 멈췄다. 점심을 먹은 뒤에 득아와 여러 사람들과 송별하고 나는 생원 박성서(朴聖瑞)와 함께 용사(龍寺)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日. 又侄得兒來見, 對面兒輩, 不忍正視, 痛哭數聲, 同來鄭世晃朴昌德朴聖瑞金延宗柳億昌諸人, 固請止之, 故因爲止哀. 午飯後, 送別得兒與諸人, 余則同朴生員聖瑞, 到龍寺留宿.

▪ 21일. 벗 박덕조(朴德祖), 정응갑(丁應甲), 첨지(僉知) 송운룡(宋雲龍), 정덕원(丁德元), 송계익(宋啓翊) 등이 보러 왔다. 조카 우(又)가 한동(閒洞)의 일로 본관(本官, 고을 수령)이 당도하는 곳에 소장을 내려고 해창(海倉)으로 내려갔다. 오후에 길을 떠나 박성서(朴聖瑞)와 함께 가사(伽寺)로 향할 즈음에 조카 우(又)가 해창에서 소장을 내고 왔다. 가사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一日. 朴友德祖丁生應甲宋僉知雲龍丁生德元宋生啓翊來見. 又侄以閒洞事, 欲爲呈訴於本官所到處, 下往海倉. 午後離發, 同朴聖瑞, 向伽寺之際, 又侄自海倉呈狀而來. 抵伽寺留.

▪ 22일. 종형 및 중질(仲侄)과 생원 이성휘(李聖輝)가 보러 왔고, 최명한(崔鳴漢)이 보러 왔다. 용사(龍寺)를 떠나올 때에 낭인(朗仁) 스님이 쌀 한 말을 내놓았다. 그러므로 때마침 이웃 사람 서갈금(徐袞金)을 가사(伽寺)에서

만나 집으로 부쳐서 보냈다. 중(仲)과 우(又) 두 조카는 정변(呈下)²⁴⁵하는 일로 읍내로 들어갔다.

二十二日. 從兄及仲侄李生聖輝來見, 崔鳴漢來見. 龍寺離發之時, 僧朗仁以一斗米納之, 故 適逢隣人徐芻金於伽寺, 付送家中. 仲又兩侄, 以呈下事, 入去邑中.

▪23일. 오후에 부도암(浮屠庵)으로 향했다. 김중보(金重寶), 유봉림(柳鳳林), 송광적(宋光績)이 보러 오고, 귀산(龜山) 남면(南面)의 조카가 보러 왔다. 박희동(朴希東)이 보러 왔기에 앞으로 일어날 길흉(吉凶)과 큰아이[長兒]의 신수를 상세히 물어보았는데, 나가서 피하는 것이 제일이니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 배만화(裴萬華)의 평도 같았기에 시급히 나가 일을 피하라고 박희동이 가는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저녁에 종형이 한동(閑洞)으로 내려갔다. 어두워진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치지 않았다. 부암(浮庵)에서 유숙하였다.

二十三日. 午後向浮屠庵. 金重寶柳鳳林宋光績來見. 龜山南面侄來見. 朴希東來見, 故詳問前頭吉凶及長兒身數, 則出避爲妙, 不可在家. 且裴萬華之所評同然, 故急急出避事, 書送於朴希東去便. 夕間從兄下去閑洞. 昏後始雨不止. 留浮庵.

▪24일. 비가 오다. 오늘이 죽은 아이의 생일인데, 때때로 간혹 생각이 날 때면 슬픔을 절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 사람을 구요(究寮)로 보내 3되의 양식을 가지고 와서 부암(浮庵)에서 머물렀다. 저녁에 읍내의 소식을 들었는데 득아가 와서 읍에 있다고 하였다.

二十四日. 雨. 是日卽亡兒生日也. 時或念及, 悲不自勝. 送人究寮, 持來三升糧, 留浮庵. 夕間聞邑奇, 得兒來在邑中云耳.

▪25일. 비가 오다. 남면(南面)의 객과 초천(草川)의 객이 비를 무릅쓰고 와서

245) 정변(呈下) : 변정(正正)하는 문서를 올리는 일로, 사실의 전말이나 이유를 들어 관에 호소하여 시비곡직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보고 갔다. 오후에 비가 그치므로 노암(盧庵)으로 옮겨갔다.

二十五日. 雨. 南面客草川客, 冒雨來見而去. 午後雨歇, 故移上盧庵.

▪26일.

二十六日.

▪27일. 상신(尙信)을 간촌(看村)으로 보내 소식을 탐문하고 조금 늦게 원각(圓覺)으로 옮겼다. 오후에 종질의 편지를 받고 읍내의 소식을 알았는데, 얼마 안 있어 종질이 왔다. 송운규(宋運奎)가 보러 오고, 사교(四橋)의 광주(光州) 객이 보러 왔다. 저녁에 상신 스님이 와서 집안 소식을 전했는데, 아직 별 탈 없다고 하였다. 다행히 득아 또한 나를 보기 위하여 와서 중도에 만났는데, 뒤따라 몇 번이나 이르렀다가 혹 신정(新亭) 초당(草堂)에 들어가기라도 한 것인지 그때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잠시 기다렸다.

二十七日. 送尙信于看村, 爲探消息, 稍晚移于圓覺. 午間得見從侄書知邑奇, 俄爾從侄來. 宋運奎來見. 四橋光州客來見. 夕時尙信僧來傳家中消息, 姑無恙云. 頗幸得兒, 亦爲見我而來, 中路逢着, 隨後幾到, 或入新亭草堂, 時則未達, 以此稍企.

▪28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종일토록 그치지 않으니 괴롭다.

二十八日. 自曉始雨, 終日不止, 苦哉.

▪29일. 아침에 잠깐 개었지만 완전히 개지는 않은 것 같다. 오후에 햇빛을 보니 기뻐다. 저녁에 득아(得兒)가 신정(新亭)에서 오고 원암(圓庵) 뒷방에서 함께 유숙하였다.

二十九日. 朝雖乍晴, 猶未快霽. 午後得見日色可喜. 夕間, 得兒自新亭來, 同留圓庵後房.

▪6월 1일. 비가 오다. 중봉(中峯)으로 옮겨 올라가고 득아(得兒)는 한동(閑洞) 종형을 만나기 위해 내려갔다. 얼마 후에 낙촌재(落村齋)의 유생 대여섯

명이 낙안(樂安)에서 백일장이 있다는 소문을 잘못 듣고 나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어제 저녁에 절에 투숙하고는 나를 찾아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하직인사를 하고 갔다. 종일토록 비가 그치지 않으니 매우 괴롭다. 六月初吉. 雨. 移上中峯, 得兒爲見閑洞從兄下去. 俄而落村齋儒五六, 誤聞樂安白場之奇, 出去而空返, 昨暮投寺, 因訪余來見, 小話後辭去. 終日雨不止, 苦苦.

▪2일. 맑다. 득아(得兒)가 어제 한동(閑洞)으로 가는 길에 비에 막혀서 모시고 온 종형과 구요(究寮)에 와서 머물렀다. 밥을 먹은 후에 중암(中庵)으로 올라와 하직하고 돌아왔다. 서면(西面)의 송희조(宋喜祖)가 보러 왔다. 오후에 종형을 만나기 위하여 구요로 내려갔다. 또 나를 위로하러 온 점암(占巖)의 벗 신군순(申君順) 삼종형제(三從兄弟)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올라왔다. 얼마 후에 종형이 또 올라왔는데, 양곡 16승두(升斗)를 두고 갔다. 1일 저녁에 비로소 국사봉(國師峯)을 올라갔다가 돌아왔다.

初二日. 晴. 得兒以昨日閑洞之行, 阻雨於陪來從兄, 來留究寮. 食後上來中庵辭歸. 西面宋喜祖來見. 午間爲見從兄, 下去究寮, 又逢占巖申友君順三從兄弟之慰我而來, 暫話而上來. 俄尔, 從兄亦上來, 糧十六升斗置. 自初一日夕時, 爲始登國師峯而返.

▪3일. 신도흠(申道滄)과 장지량(張之良), 또 장▣▣이 보러 오고, 송덕룡(宋德龍), 김응도(金應道), 송익오(宋翊五), 김태성(金泰成)도 보러 왔다. 한동(閑洞)의 종질 여진(呂鎭) 오유추(吳有秋)가 마른 생선을 가지고 보러 오고, 김응사(金應泗)도 보러 왔다. 오후에 종형과 함께 원암(園庵)에 갔다가 되돌아왔다.

初三日. 申道滄張之良, 又張▣▣來見. 宋德龍金應道宋翊五金泰成來見. 閑洞從侄呂鎭吳有秋, 持乾魚而來見. 金應泗來見. 午後與從兄, 同往園庵而返.

▪4일. 상봉암(上峯庵)에 올라가니 척운(陟曇) 대사가 점심을 차려주었다.

조명상(曹命相), 김응규(金應奎), 김정옥(金廷沃)이 오고, 내동(內洞)의 조카 내(乃)도 와서 보았다. 암자에 있는 나이 든 스님이 이르기를, “대구(大丘)에서 왔는데, 팔도를 유람하다가 이 암자에 와서 거주한지 거의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간촌(看村)의 재승(齋僧)이 찾아왔다. 오후에 다시 묘각(妙覺)에 갔더니 한수좌(閑首座)가 출타 중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왔다. 한수좌(閑首座)가 저녁을 차려주었다. 저녁을 먹고 일어나 나올 즈음에 한사코 붙잡으며 유숙하라 하였지만 폐를 끼칠 수가 없어서 곧바로 중봉(中峯)으로 왔다.

初四日. 上上峯庵, 陟曇師進午飯. 曹命相金應奎金廷沃來, 內洞乃侄來見. 庵有老師云, “自大丘來而遊覽八道, 來住此庵 幾至十餘年矣.” 看村齋僧來見. 午後轉往妙覺, 閑首座出他. 俄而來. 閑也進夕飯. 飯後起來之際, 強挽留宿, 而難於貽弊, 卽來中峯.

▪5일. 냉천(冷泉)의 상중(喪中)인 조카와 이정백(李廷栢)이 와서 보고, 상신(尙信) 스님도 송광사(松廣寺)에서 와서 보았다. 오후에 전덕림(田德林)이 와서 보았다. 장가(張哥)가 집에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오고 《강목(綱目)》 17권도 가져왔다.

初五日. 冷泉哀侄及李廷栢來見. 尙信僧自松廣來見. 午後田德林來見, 張哥持家信而來, 綱目十七卷持來.

▪6일. 비가 오다. 종일토록 그치지 않으니 매우 괴롭다.

初六日. 雨. 終日不止, 苦哉苦哉.

▪7일. 비가 오다. 진목등(眞木登) 인편에 편지를 부쳤다. 오후에 중질(仲侄)이 올라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갔다.

初七日. 雨. 付小札於眞木登人便. 午後仲侄上來, 小話而去.

▪8일. 흐리다.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매우 근심스럽다. 양식 14승(升)을 가져왔다.

初八日. 陰. 夜夢煩極, 憫憫. 糧十四升取來.

▪9일. 맑다. 김중보(金重寶), 송시서(宋時瑞), 정흥엽(丁興暉), 강찬무(姜贊武)가 보러 왔다. 온 종일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김일갑(金日甲)이 보러 왔다.

初九日. 晴. 金重寶宋時瑞丁興暉姜贊武來見. 終日未聞消息, 憫憫. 金日甲來見.

▪10일. 하동손(河東孫)과 담진(淡辰)이 생선을 가지고 왔다. 편지를 써서 장편[市便]에 부쳐 보내 간촌(看村)의 본댁에 전달하게 할 계획이었다. 낮에는 천년금(千年金)이 집에서 온 편지와 반찬을 가져왔는데, 득아(得兒)가 월동서재(月洞書齋)로 나가 피했다고 한다. 김창준(金昌俊)이 보러 왔다가 천년금과 함께 갔다.

初十日. 河東孫及淡辰, 持生魚而來. 書小札付送于市便, 以爲傳致于看村本宅之計. 午間千年金, 持家信及饋物而來, 得兒出避月洞書齋云耳. 金昌俊來見, 而與千年金同去.

▪11일. 비가 오다. 증형의 서곽(暑癘)²⁴⁶ 증세가 밤새 조금 차도가 있다고 하니 다행이었다. 김정일(金廷一)이 보러 오고 송계익(宋啓翊)이 보러 왔다. 오후에 중질(仲侄)도 올라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十一日. 雨. 從兄暑癘之症, 經夜小差云, 可幸. 金廷一來見. 宋啓翊來見. 午後仲侄上來, 還下去.

▪12일. 대곡(大谷) 이정소(李廷燾)²⁴⁷의 아들이 보러 왔다.

246) 서곽(暑癘) : 더위로 인하여 갑자기 게우고 설사를 하는 증상을 이른다.

247) 이정소(李廷燾) : 16741736.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장(汝章), 호는 춘파(春坡),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1714년 증광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지평, 정언을 역임하였다. 1721년(경종1) 상소하여 노론의 사대신과 함께 연잉군(延昞君)을 왕세제로 책봉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신임사화가 일어나자 영해(盈海)에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1) 유배에서 풀려나온 뒤 승지, 병조 참판을 지냈으며,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十二日. 大谷李廷燾之子, 來見.

▪13일. 비가 오다.

十三日. 雨.

▪14일. 맑다. 양식 14승(升)이 왔다. 원암(圓庵)에 내려가 일로(日老) 스님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왔다. 송재겸(宋再謙), 유봉장(柳鳳長), 김응(金應), 이춘덕(李春德)이 와서 보았다. 박성서(朴聖瑞)가 건어 5미(尾)를 가져왔는데, 올 때 오원(鰲院)에서 덕비(德婢)를 만났다고 했다.

十四日. 晴. 糧十四升來. 下去圓庵, 問日老師而來. 宋再謙柳鳳長金應李春德來見. 朴聖瑞, 持乾魚五尾而來, 來時, 逢着德婢于鰲院云.

▪15일.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다. 박성서(朴聖瑞)가 와서 보았다. 삼정(森亭) 박우(朴友)는 글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청하(清河) 스님은 간촌(看村)에서 비문을 가지고 왔다. 저녁 무렵에 재임(齋任) 초천객(草川客)이 와서 보았다. 낙촌(落村)의 임충신(林忠信)이 와서 보았다.

十五日. 朝微雨. 朴聖瑞來見. 森亭朴書問, 清河僧, 自看村持碑文而來. 夕間齋任草川客來見. 落村林忠信歷見.

▪16일. 맑게 개다. 종형이 만암(萬庵) 수사(修師)를 보기 위하여 본가로 내려갔다. 운곡(雲谷)의 김서오(金瑞五), 송언동(宋彦東), 간촌(看村)의 송동현(宋東賢), 고태광(高泰光), 진광욱(陳光郁), 진익룡(陳益龍), 강한채(姜漢采)가 찾아와서 보았다. 저녁에 한동(閒洞)의 중질(仲侄)이 삼정(森亭)에서 왔다가 곧바로 내려갔다.

十六日. 快晴. 從兄爲見萬庵修師, 下去本家. 雲谷金瑞五宋彦東看村宋東賢高泰光陳光郁陳益龍姜漢采來見. 夕間閒洞仲侄, 自森亭而來, 卽下去.

▪17일. 종형이 올라 왔다.

十七日. 從兄上來.

▪18일. 김서하(金瑞河)가 보러 왔다.

十八日. 金瑞河來見.

▪19일. 흐리다.

十九日. 陰.

▪20일. 김귀징(金龜徵), 송운조(宋運祚), 유방림(柳邦霖), 송편(宋片)이 한낮에 보러 왔다. 장편[市便]으로 인하여 장경익(張景翼)의 편지를 보았다. 오후에 증질(仲侄)이 보러 왔다가 곧바로 갔다.

二十日. 金龜徵宋運祚柳邦霖宋片, 日中來見. 因市便見張景翼書. 午後仲侄來見, 卽去.

▪21일. 유성룡(柳星龍)에게 집안 소식을 들었다. 진은후(陳殷屋) 편에 양식 14승(升)을 가져왔다. 저녁을 먹은 후에 묘암(妙庵)으로 올라갔다.

二十一日. 聞家信於柳星龍, 陳殷屋便, 糧十四升持來. 夕飯後, 上去妙庵.

▪22일. 비가 종일 오고 바람 또한 세차게 불었다.

二十二日, 雨終日而風亦大作.

▪23일. 비가 그쳤으나 흐리다. 낮에 중봉(中峯)으로 내려왔다. 상신(尙信) 스님이 상좌(上佐)를 시켜 2승(升)의 쌀을 보내왔다. 도화(道化)의 김광은(金光殷)이 보러 왔다.

二十三日. 雨雖歇而陰. 至午下來中峯. 尙信使上佐送來二升米. 道化金光殷來見.

▪24일. 김 별감(金別監)이 갔다. 저녁에 원암(圓庵)에 내려갔다가 왔다.

二十四日. 金別監去. 夕間下去圓庵而來.

▪25일. 정풍헌(鄭風憲)이 옴으로 인하여 집안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강창오

(姜昌五)의 아들과 조카 두 사람이 보러 왔다.

二十五日. 因鄭風憲之來, 得聞家信. 姜昌五之子與侄兩人來見.

▪26일. 신필응(申弼應)이 보러 왔다가 유숙하고 갔다.

二十六日. 申弼應來見, 宿留而去.

▪27일. 정윤하(丁允夏)가 보러 왔다. 오후에 종형이 내려갔다.

二十七日. 丁允夏來見. 午後從兄下去.

▪28일. 비가 오다.

二十八日. 雨.

▪29일. 비가 오다. 신도활(申道活), 신시택(申時澤), 정석우(丁錫禹)가 와서 보았다.

二十九日. 雨. 申道活申時澤丁錫禹來見.

▪30일. 맑다. 가아(家兒)와 신윤택(申潤澤)이 와서 보고, 유동무(柳東茂), 류엄(柳淹), 신언계(申彦桂)가 와서 보았다. 범평(瓦坪) 김만상(金萬相), 김치호(金致灝)도 와서 보았다. 양식 14승(升)을 가져왔다.

三十日. 晴. 家兒與申潤澤來見. 柳東茂柳淹申彦桂來見. 瓦坪金萬相金致灝來見. 糧十四升持來.

▪7월 1일. 비가 오다.

七月初吉. 雨.

▪2일. 비가 오다.

初二日. 雨.

▪3일.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맑다. 가아(家兒)가 돌아갔다. 오후에 마륵

(馬輪)의 송 천총(宋千摠)과 선교(船橋)의 김생(金生)이 와서 보았다. 해창(海倉) 정자유(鄭子由)가 사람을 보내 서문(書問, 글을 보내어 문안함)하고 아울러 반찬을 보냈다. 한동(閒洞)의 종질이 와서 보았다.

初三日. 朝陰晚晴. 家兒去. 午間馬輪宋千摠與船橋金生來見. 海倉鄭子由, 送人書問兼送饌物. 閒洞從侄來見.

누군들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려 하지 않겠는가마는, 임금을 위한 정성만큼은 어느 누가 우리 육대조 참의공(參議公, 송대립)과 오대조 승지공(承旨公, 송침(宋諶, 1590~1637)) 두 선조의 임금을 위한 정성만 하라. 누군들 선조를 위해 아름다움을 천양하려 하지 않겠는가마는, 선을 행하는 정성만큼은 어느 누가 우리 선왕부(先王父) 만회당(晩晦堂) 부군(府君)의 선조를 위한 정성만 하라. 두 선조의 임금을 위한 정성은 《충효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선왕부의 선조를 위한 정성은 《서행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불초한 내가 감히 덧붙인 것이 아니라 다만 불초한 내가 스스로 감개하여 눈물을 흘린 것이 많다.

아. 오직 우리 두 선조의 순수한 정성과 굳은 절개가 저와 같이 명백한데, 높이고 장려하는 은전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조부인 이우공(二憂公)이 이를 통탄하시자 증조부께서 뜻을 받들고 정성을 다해 상언(上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니, 갑신년에 이르러 비로소 증직되었다. 아울러 두 세대의 정려가 한 문에 두 개의 문설주로 공벽한 바닷가에 찬란히 빛나니 국가가 은덕을 보답함이 거의 유감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선왕부에 이르러 오히려 선조가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전하지 못할까 두려워 힘을 다해 경영하여 수십 년 동안 내내 경향(京鄕) 각지를 오고 간 것이 전후로 수십 번이었다. 한 마디의 귀중한 말씀을 얻기 위하여 이도암(李陶庵, 이재(李穡)) 노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²⁴⁸⁾ 양세(兩世)의

248) 수학하고 : 원문의 '구의(擣衣)'는 '옷실을 걷는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청할 때 하는 거동인데, 스승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기》〈곡례 상〉의 "어른이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옷자락을 공손히 치켜들고 실내 구석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가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응대를 반드시 조심성 있게 해야 한다.[擣衣趨隅 必慎唯諾]"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묘수(墓隧)에 새기기 위해 당세의 학문이 높은 유학자와 명공(名公, 훌륭한 재상)의 가문을 두루 찾아뵙고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시가(詩歌)를 받아 이었으며, 전(傳)과 기(記), 찬사(贊辭)를 받아 덧붙였는데, 상고하여 근거로 삼을 만한 제반의 공사 문적(文蹟) 또한 모두 수집하였다.

또 수천 리 길을 발을 싸매고 북쪽의 철령(鐵嶺)과 함관(咸關)을 넘어 승지공이 순절한 곳에 이르러서 그 남긴 자취를 찾고 그 읍지(邑誌)를 수집했다. 또 문자가 오래되어 흩어지고 분실될까 두려우니 출간하여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도모하고자 판목에 새기고 이름을 《송씨충효록》이라 하였는데,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로 하여금 송씨에 충효쌍절(忠孝雙節)이 있음을 알게 하였다. 이는 모두 우리 조부님이 선조를 위한 정성이 지극하고도 극진한 것이다.

이는 《서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책을 펼쳐 읽어보니, 모두 위험한 낭떠러지와 거친 물결 속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였으며, 견디기 힘든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수없이 많은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이 몇 차례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가운데에서 신미년(1751) 동짓달에 두미(頭尾)에서 빙판 위를 건넌 일, 임신년(1752) 유월에 송파에서 배를 탔던 일, 을해년(1755) 유월(六月)에 노복이 달아나고 말이 죽은 일, 무인년(1758) 유월에 장마가 진 강을 건너다 짐을 빠트린 일 등이 위태로운 상황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었다. 그러니 이 책을 펼치고 이 글을 읽는 불초자의 마음이 어찌 감개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서행록》 중에 무자년(1768) 아무 달 아무 날의 기록은 바로 충민공(忠愍公) 이 선생(李先生)의 유허비 일이었으니, 현인(賢人)을 위한 정성이 또한 선조를 위한 정성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상의 기록은 해에 따라 각각 기록하여 혹은 물에 잠겨서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고, 혹은 먼지가 끼어 문장의 뜻을 알아보기 어려우니 세월이 흐르고 연도가 오래됨에 따라 유실되고 훼손될까 두려웠으므로 상세히 살피고 베끼고 합하여 한 권으로 만들었다. 장차 뒷날 나의 조손(祖孫)된 자들로 하여금 이 기록을 보게 하였는데, 경외(敬畏)의 마음에 감동과 사모함이 일어 조심스레 펼쳐 일어나 집안 명성을 계승할 줄 아는 것을 선왕부의

정성과 힘이라 여길 것이다. 이에 감히 외람됨을 잊고 그 전말을 서술하여 권말에 붙인다.

송정 후 네 번째 무진년(1808) 명춘에 불초손 석년(錫年)이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적는다.

孰不欲爲君效忠, 而爲君之誠, 孰如我六代祖參議公, 五代祖承旨公兩先祖, 爲君之誠乎. 孰不欲爲先闡美, 而爲善之誠, 孰如我先王父晚晦堂府君爲先之誠乎. 兩先祖爲君之誠, 昭載於忠孝錄, 先王父爲先之誠, 詳記於西行錄, 則非不肖所敢贅者, 而獨不肖私自感慨而涕泣者, 則多矣. 嗚呼. 唯我兩先祖, 純誠毅節, 如彼明白, 而崇獎之典, 久而未舉, 高王考二憂公, 用是爲痛, 曾王考府君, 承志殫誠, 上言鳴冤, 至歲甲申, 始蒙貶贈. 仍并舉兩世旌閭一門雙楔, 焜耀於窮海之濱, 則國家崇報, 殆無遺憾, 而及我先王父, 猶懼夫先祖之有美而不知, 知而不傳, 殫竭經營. 首尾數十年, 來往京鄉前後數十度, 爲得一言之重, 樞衣於李陶庵老先生之門. 銘之於兩世墓隧, 遍謁於當世宗儒名公之家, 序之跋之, 繼之以詩歌, 傳之記之, 重之以贊辭, 而諸般公私文蹟之可爲考據者, 亦皆蒐輯. 又裹足數千里, 北踰鐵嶺咸關, 至承旨公殉義處, 訪其遺蹟, 採其邑誌. 既又懼文字之久, 至於散逸, 謀壽其傳, 登之剞劂, 名之曰宋氏忠孝錄, 而傳之後世, 使人知宋氏有忠孝雙節, 此皆吾先王爲先之誠, 至矣盡矣. 此西行錄之所有, 而開卷奉閱, 皆是崎嶇頓踣於巖嶇濤瀧之險, 艱難衝冒於寒暑飢渴之困, 許多悶迫, 不知其幾. 而至若頭尾之乘冰, 辛未至月, 松坡之乘船, 壬申六月, 乙亥六月之奴走馬斃, 戊寅六月之渡潦沈卜, 此其厄景之最者. 開是冊, 讀是辭, 不肖之懷, 寧不感慨而涕泣乎. 且錄中戊子年月日記, 卽爲忠愍公李先生遺墟碑事也, 則爲賢之誠, 亦由爲先之誠中流出耶. 竊恐右錄, 隨年各記, 或水沈而字畫難辨, 或塵埋而文理難曉, 則將至世久年深, 或未免遺失而毀傷, 故詳細審察, 謄合爲一卷, 將使後之爲吾祖孫者覽是錄, 而恍然感慕, 惕然奮厲, 以知家聲之繼, 爲先王父之誠與力, 茲敢忘猥, 敘其顛末, 付于卷末.

崇禎後四戊辰之孟春, 不肖孫錫年, 泣血謹敘.

위의 《서행록》은 오직 나의 외왕고(外王考) 만회당(晩晦堂) 부군이 외선조(外先祖) 참의공(參議公)과 승지공(承旨公) 두 세대의 충효와 의적(毅蹟)을 천양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서행(西行)을 기록한 일기이다. 아. 한 가문의 충효가 어찌면 그리도 장엄하고 또 바른가. 장엄하고 바른 충효는 불민한 한두 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도다.

참의공은 대개 정유년(1597, 선조30)에 왜란의 변을 당하여 불리한 형세에도 힘이 다하여 나라를 위해 죽을 뜻을 정하였으니 이것이 순일한 충성이 아니겠는가. 승지공은 또 정축년(1637, 인조15) 오랑캐의 난에 몸을 떨쳐 죽기를 맹세하며 말하기를, “아버지가 이미 나라를 위해 죽었거늘 자식이 어찌 홀로 면하겠는가. 내가 만약 도망가 피한다면 나라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를 잇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하여 절개를 지키다 죽었으니 또한 아버지의 뜻을 잇는 충이며 효가 아니겠는가. 만회당 부군은 두 세대의 아름다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며 두루 명문(名門)을 찾아뵈고 장명(狀銘)의 문자(文字)를 받아 한 부의 《충효록》을 세상에 간행하였으니 이것이 순일한 효가 아니겠는가.

절와공(節窩公, 송지행(宋志行))은 만회당(晩晦堂)이 아직 이루지 못한 남은 정성을 드러내었는데, 정성이 또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선비들이 참의공과 승지공에게 제사를 드렸고, 효성이 하늘에 닿으니 조정에서 순무공(巡撫公)에게 시호를 내렸다. 순무공은 공에게는 12세조인데, 시호도 또한 반드시 충강(忠剛)이라고 하였다. 아. 충효 두 글자는 과연 송씨 집안에 전해지는 가업이로다. 향사를 베풀고 시호를 이어받아 마침내 남은 유감이 없으니 또한 선조의 뜻을 잇는 효가 아니겠는가.

송석년(宋錫年) 수이(壽而, 송석년의 자(字))는 나와 내종(內從)이 된다. 일찍이 나와 눈물을 삼키며 말하기를, “이 《서행록》은 해를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세월이 점점 오래되어 혹 흠어지고 분실되더라도 한다면 우리 후손된 자들은 충효의 자손을 위태롭게 하고, 모두 두 부군의 순일하게 선조의 뜻을 잇는 정성과 힘을 상세히 알 수가 없게 되니 해마다 베껴서 모아 불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므로 내가 감탄하고 일어나 공경히 대답하기를, “훌륭합니다.”라고 하였다. 말을 한 뒤로 수년 만에 마침내

뜻을 이루게 되어 피눈물을 흘리며 권말에 서술하였다. 절와공의 《서행록》 또한 하나하나 베껴 모아서 별도로 한 권으로 만들었으니 또한 어찌 조상을 추모하는 효가 아니겠는가. 내가 비록 졸렬하고 비루하지만 한 편을 받들어 읽어보니 절로 일어나는 감동을 이길 수가 없어 그 망령되고 외람됨을 잊고 감히 수이(壽而)의 다음에 못난 글을 붙여²⁴⁹⁾ 이처럼 서술하였다.

해는 승정 후 네 번째 무진년(1808)이며, 기술했던 사람은 외손(外孫) 옥천(玉川) 후손 조형엽(趙馨燁)이다.

右西行錄，惟我外王考晚晦堂府君之爲闡揚外先祖參議公承旨公兩世忠孝毅蹟，而積年西行錄日記者也。於虜。一門忠孝，一何壯且躋哉。壯躋之忠孝，不必待不敏之一二，而參議公，蓋當丁酉之倭變，勢殘力窮，決意殉國，此非純一之忠乎。承旨公，又於丁丑之虜亂，奮身矢死曰：“父既死國，子豈獨免。吾若遁避，則不但負國，亦爲忘父。”因又死節，則亦非繼志之忠而孝乎。晚晦堂府君，以兩世顯美事，積苦經營，遍謁名門，狀之銘之，以一部忠孝錄，刊行於世，此非純一之孝乎。節窩公以晚晦堂未就餘誠，誠亦感人，章甫焉，俎豆乎參議公承旨公，孝克格天，朝廷焉，誥謚乎巡撫公。巡撫公於公爲十二世祖，而謚之亦必曰忠剛。嗚呼。忠孝二字，果是宋氏傳家之業也。設享延謚，竟無餘憾，亦非繼志之孝乎。宋君錫年壽而，與余爲內從也。嘗與余飲泣而語曰：“此西行錄，隨年隨錄矣。歲月寢久，或至散逸，則爲我後昆者，危忠孝之子孫，皆是兩府君，純一繼志之誠與力，無攸詳知，逐年臆合，以至不朽何如云。”故余嗟歎起敬而答曰：“美哉矣。”語后數年，竟至成功，而泣血紱顯未於卷末，節窩公西行錄，亦爲一一臆輯，別爲一冊，亦豈非追感之孝乎。余雖拙陋，奉閱一遍，不勝油然之感，忘其妄猥，敢續貂於壽而之次，爾紱之。年崇禎後四戊辰也。紱之者，外孫玉川後趙馨燁也。

249) 못난 글을 붙여 : 원문의 '속초(續貂)'는 뛰어난 것의 뒤를 못난 것이 잇는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조형엽이 송석년이 쓴 후서 뒤에 자신의 글을 싣는다는 겸사로 쓰였다. 진 혜제(晉惠帝) 때 봉작(封爵)을 남발하는 바람에 관(冠) 장식으로 쓸 담비 꼬리가 부족하자 개 꼬리로 대신했으니, “담비가 부족하자 개 꼬리로 이었다네.[貂不足, 狗尾續.]”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晉書 卷59 趙王倫列傳》

참의공(參議公)과 승지공(承旨公) 부자가 나라를 위해 죽은 일은 비록 옛 충신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닷가 한 모퉁이 서울과의 거리가 천리나 되는 곳의 사대부에 대하여 혹 실상을 상세히 알기가 드물다. 만회공(晩晦公)에 이르러 선대의 업적을 널리 드러내는데 뜻을 두어서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입게 되었다. 명문 집안을 찾아뵙고 묘지문을 얻어서 두 공의 충렬이 이에 크게 되어 지금까지도 늙름하기가 마치 생기가 있는 듯하니, 만회공 정성과 노력의 지극함이 없었다면 거의 이처럼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을 것이다.

대개 충효는 하나의 도인데, 선조는 나라에 충성하여 왜란과 호란의 변란에 순절하였으며, 손자는 선조에게 효도하여 서북의 노정을 두루 다니며 20년을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하여 마침내 뜻한 바를 이루었으니 이런 조상이 있었기에 이런 후손이 나왔다는 것이 미덥도다. 공의 손자 송석년(宋錫年)은 또 능히 선조를 본받아 이 《서행록》을 선사(繕寫)²⁵⁰하여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기약하였다. 내가 공경히 책을 다 읽어보고 감히 참람함을 무릅쓰고 대강 덧붙인다.

송정후 네 번째 기묘년(1819) 동짓달에 족손(族孫) 상의(相懿)가 쓰다.
 參議公承旨公父子死國。雖古忠臣，不能過也。然濱海一隅去京千里士大夫，或鮮詳實。及晩晦公志闡揚先烈，聞于朝廷，蒙旌閭之賞，謁于名家，得題墓之文，二公忠烈，於是爲大，至今凜凜猶有生氣，微晩晦公誠力之至，幾不能如是彰著于世。蓋忠孝一道也。祖以爲國之忠，殉於倭胡之變，孫以爲先之孝，遍於西北之路行，行二十年，不懈益勤，竟成所志，有是祖有是孫信乎矣。公之孫錫年，又克肖，繕寫是錄，期其壽傳。余敬閱盡卷，敢冒僭踰，槩以贅之。崇禎後四己卯仲冬，族孫相懿。

250) 선사(繕寫) : 부족한 점을 고치고 보충하여 정서함을 말한다.

서행록 西行錄 2

송지행 宋志行





무자년(1768) 1월 15일

戊子正月十五日

▪ 지난 병술년(1766, 영조42) 3월에 나는 서울로 올라가 몇 달 머물다가 왔는데, 올해 또 서울로 올라가게²⁵¹⁾ 되었으니, 대개 가친(家親)께서 한포(寒圃, 이견명(李健命)) 선생의 비석을 세우는 일로 온 고을의 권함을 받아 서울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가 연로하고 해가 험하기에 모시고 가려고 계획했다.

去丙戌三月，余上京，留數月而來矣。今歲又將西笑。蓋家親以寒圃先生建碑事，爲一鄉所勸，作京行，故余以親老歲險，陪行爲計。

▪ 1월 17일. 일찍 아침을 먹은 뒤에 길을 떠났는데, 명학(命鶴)을 데리고 과역(過驛)에 이르니 가친께서 먼저 15일에 출발하여 가사(伽寺)에 머물다가 일찍 복교(卜橋)로 와서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므로 이에 한동(閑洞)의 종형과 풍호(風湖) 박 생원(朴生員)과 동행하여 양강(楊江)에 이르니 가랑비가 점차 내렸다. 점심을 먹은 후에 길을 떠나려는데 상중(喪中)에 있는 김치호(金致灑)가 와서 작별하며 술을 내왔다. 머물며 한참을 쉬 뒤에 비는 비록 그치지 않았으나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나 대강(大江)에 이르니 해는 이미 저물고 의복은 모두 젖어버렸다. 아버님께서는 우산(牛山) 형님 댁에 유숙하시고 한동 형님과 나는 나주(羅州) 형님 댁에서 유숙했다. 이날 50리를 갔다.

正月十七日。朝食後發程，而率命鶴，抵過驛，則家親先以十五日發行，留伽寺，早來卜橋，待我來到，故仍與閑洞從兄及風湖朴生員同行，至楊江，則微雨漸作。中火後，欲爲登程，而金喪人致灑，來別進酒矣。留憩稍久後，雨雖

251) 서울로 올라갔다 : 원문의 '서소(西笑)'는 서쪽을 향해 웃는다는 뜻으로, 서울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원래 서울 또는 천자가 있는 곳을 그리워한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서울로 올라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漢)나라 환담(桓譚)이 지은 《신론(新論)》〈거폐(祛弊)〉에 “사람들이 장안(長安)의 음악을 들으면 문을 나가 서쪽으로 장안을 향해 웃고, 고기가 맛이 좋으면 푸줏간 문을 마주 보며 씹는다.[人聞長安樂 則出門向西而笑 肉味美 對屠門而嚼]”라는 한 데서 유래하였다.

不止，而冒雨發程，至大江，日已夕矣，衣服盡濕矣。家親留宿牛山兄主宅，
閒洞兄主及余，宿羅州兄主家。是日行五十里。

▪18일. 일찍 아침을 먹은 뒤에 추동 주막(楸洞酒幕)에 도착하여 박 생원
(朴生員)을 기다렸는데, 박 생원이 뒤처졌기 때문이다. 잠시 말에게 꼴을
먹인 뒤 즉시 길을 떠나 동점(銅店)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오늘은 바로 18
일이다. 아버님이 탄 말이 심하게 절뚝거렸다. 앞길이 천리인데 걸음이 이와
같으니 고민스러움을 뭐라 말하겠는가. 채찍을 재촉하여 무동정(舞童亭)에
이르러 한동의 종형과 헤어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우산(牛山)으로 들어가 전
감관(田監官) 집에서 머물렀다. 해가 저문 뒤에 상중에 있는 안군습(安君習)
이 와서 보고 갔다. 이날 70리를 갔다.

翊日. 朝食後，抵楸洞酒幕，待朴生員，而朴生員，蓋落後矣。暫爲秣馬後，即
爲發程，抵銅店中火。是日即十八日也。父主所騎蹇甚，前程千里，對步如是，
憫憫何言。促鞭至舞童亭，與閒洞從兄分路，陪親入牛山，留田監官家。夕昏
後，安喪人君習來見而去。是日行七十里。

▪19일. 눈이 오다. 일찍 아침을 먹고 출발하려고 할 즈음, 상중(喪中)에 있는
안형중(安衡仲) 형제가 와서 보고 인하여 신물(贖物)²⁵²도 가져왔다. 대곡
(大谷)에 이르러 잠시 송득대(宋得大)를 만나고 나서 눈을 맞으며 석곡(石
谷)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명학(命鶴)에게 보내려고 집에 편지를 썼다.
나머지 배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버님의 일기 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점심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섰다. 눈이 많이 내리니 가는 길이 질퍽거리고
말발굽이 미끄러워서 벗겨졌다. 용계(龍溪)에 이르자 진흙길에 무릎까지
빠졌다. 눈을 무릅쓰고 덕촌(德村)에 이르러 유숙했다. 이날 70리를 갔다.

十九日. 雪. 朝食將欲登程之際，安喪人衡仲兄弟來見，仍有贖物。至大谷，
暫見宋得大，冒雪抵石谷中火。送命鶴，修家書。餘船說話，詳在父主日記中。
點飯後登道，雨雪大作，行路泥濘，馬蹄滑脫。抵龍溪，則泥路沒膝，冒雪抵

252) 신물(贖物) :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금품이나 물건을 말한다.

於德村留宿. 是日行七十里.

▪20일. 일찍 출발하여 옥과(玉果) 읍내에 이르자 진흙길에 말 무릎까지 푹 빠졌다. 진창길을 따라 역촌(驛村)의 석사(碩士) 방석필(房碩弼)의 집에 이르렀다. 종매(從妹)가 이미 세상을 떠나 주인이 허술하였는데 방 석사(房碩士)가 쫓아 나왔다. 점심을 먹은 뒤에 종매(從妹)의 영전에 통곡하고 나서 출발하여 강을 건넌 뒤에 가랑눈이 내렸다. 강을 따라 내려가니 강 왼쪽으로는 태산(泰山)을 끼고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만 길 높이로 서 있고, 오른쪽으로 장강(長江)을 굽어보니 백 길의 거센 물결이 일었다. 창화(昌華)에 도착하니 김(金), 박(朴) 두 사람이 먼저 말을 타고 주포 주막(周浦酒幕)으로 갔다고 하기에 채찍을 재촉하여 주포에 가니 두 사람과 석사(碩士) 임학룡(林學龍)이 주막에 들어와 같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숙하였다. 이날 80리를 갔다.

二十日. 早發, 至玉果邑內, 則泥路沒盡馬膝, 緣泥濘, 抵驛村房碩士碩弼家, 從妹已逝, 主人虛疎, 房碩士追來. 中火後, 痛哭從妹靈座, 發行渡江後, 微雪. 緣江而下, 左挾泰山, 削壁萬丈, 右瞰長江, 驚濤百尋. 到昌華, 則金朴兩人, 先馬過行周浦旅幕云, 故促鞭抵周浦, 則兩人及林碩士學龍, 入同幕, 故仍爲留宿. 是日行八十里.

▪21일. 일찍 출발하여 남원(南原) 읍내의 여막(旅幕)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원천(源川)으로 향할 계획이었다. 아침을 먹은 후에 광한루(廣漢樓) 앞에서 물을 따라 올라가고 곧장 노형(盧兄)의 집에 이르렀더니 노형은 출타 중이었고, 사매(舍妹)가 손을 잡고 아버님께 절하고 흐느끼며 맞이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기쁨이 극에 이르면 슬픔이 생긴다는 것이리라. 얼마 후에 노형이 돌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함께 내촌(內村)에 가서 유 진사(柳進士)를 조문했다. 이어 친족을 서술하자면, 상사(上舍)는 바로 광주(光州) 유씨(柳氏)로 나에게서는 외척 12촌이 되는 사람이다.

지나는 길에 들어가 벗 김대이(金大以)를 만났는데, 날이 저물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인사하고 헤어졌다. 동청(洞廳)에 들어가니 동청 벽

위에 반벽(半壁)이 장각(莊閣)인데, 바로 주 부자(朱夫子)와 남전 여씨(藍田呂氏)의 화상이 안치된 곳이었다. 인하여 두 선생의 화상(畫像)을 공경히 배알하고 마침내 내려오니 해는 이미 저물었다. 노형의 집 아래 한 상놈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이날 30리를 갔다.

二十一日. 早發, 至南原邑內旅幕中火, 欲向源川計矣. 朝飯後, 自廣漢樓前, 緣水而上, 直抵盧兄家, 則盧兄出他, 舍妹握手, 拜父主, 涕泣相逐, 此所謂喜極哀生者也. 移時盧兄來到, 暫話後, 同往內村弔柳進士. 仍紱族, 蓋上舍乃光州柳氏, 於我爲外戚十二寸人也. 歷路入見金友大以, 以日暮暫紱後, 拜別. 入洞廳, 廳壁上有半壁莊閣, 乃朱夫子及藍田呂氏畫像所貯處. 仍祇謁兩先生畫像, 遂下來, 日已昏矣. 留宿盧兄戶底一常漢家. 是日行三十里.

▪22일. 맑고 조금 화창하다. 사매(舍妹) 및 노형(盧兄)과 작별하였다. 마침내 길을 나섰지만 진흙길에 무릎까지 빠지자 말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간신히 울치(栗峙)를 지나서 울도천(栗道川)에 도착하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사서 먹었다. 조금 지나 진흙길을 출발하여 간신히 도마교(道馬橋) 객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80리를 갔다.

二十二日. 晴且稍和. 與舍妹及盧兄作別. 遂上路, 泥路沒膝, 馬蹄踟蹰不前矣. 艱過栗峙, 抵栗道川, 秣馬買飯點心. 移發以路泥, 艱到道馬橋旅店留宿. 是日行八十里.

▪23일. 맑고 화창하다. 새벽녘에 길을 떠나 노고암 여막(路鼓巖旅幕) 앞에 이르렀는데, 자못 점점 허기가 심해지므로 밥을 사서 요기를 하고 곧장 신원(新院)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박 생원(朴生員)이 먼저 전주 감영[完營]에 갔는데, 주인을 방문하는 것 및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길을 떠나 전주부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다. 조금 쉰 뒤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목대(五目臺)에 가서 해백(海伯) 이기경(李基敬)을 뵈었는데, 이백(李伯)은 지금 이질(痢疾)을 앓고 있는데다가 또 부인의 상을 당했으므로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하직인사를

하니 해가 저물려고 하였다. 인하여 한벽당(寒碧堂)²⁵³)으로 향했는데, 깎아 세운 듯한 암벽에 누각이 치솟아 있고, 누각 아래로 흐르는 물은 시리도록 차갑고 맑으니 참으로 노닐 만한 곳이라 하겠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머무르지 못하고 마침내 요월대(邀月臺, 한벽당 옆 작은 정자)로 걸어 나가 번개처럼 보아 넘긴 뒤에 한벽당을 내려와 물길 따라 주인집으로 찾아 들어갔다. 이미 저녁을 제공하였기에 머물며 오래 기다렸다. 이날 60리를 갔다.

二十三日。晴和。曉頭登程，至路鼓巖旅幕前，頗有腹空之漸，故買飯糲飢，直抵新院朝飯。朴生員先去完營，爲訪主人，及有他故也。遂登程抵府內，日尙不暮矣。暫憩後，陪父主，往五目臺，謁李海伯基敬，李伯方病痢症，且遭內夫人喪，故拜慰談話。遂拜辭，日欲西矣。因向寒碧堂，削壁絕頂，層軒湧出，軒下流水，寒碧清淡，眞可遊玩處也。以日昏故，不得久留，遂步出邀月臺，電眼看過後，下堂緣水，尋入主人家，已供夕飯，留待久矣。是日行六十里。

▪24일. 아침에 맑다. 늦게 아침밥을 먹은 뒤에 마침내 길을 떠났다. 박 생원(朴生員)이 뒤처진 것은 대개 의송(議送)²⁵⁴)을 드리고자 한 것인데 아직 입정(入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례(參禮)의 강변에 이르러 간신히 수십 보를 지났을 때 길에서 남당(南塘)의 양 서방(梁書房)을 만났다. 삼례 주막(參禮酒幕)에 이르러 회시(會試)를 보러 가는 정석우(丁錫禹)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삼례문(參禮門) 앞 곧은길을 따라 채찍을 재촉하였다. 익산에서 5리쯤 못 가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평평하고 넓은 들판에 인가와 점방이 없고 의복은 흠뻑 젖었다. 바람 끝은 칼날 같아 사람과 옷을 날리고, 빗발은 화살 같아 사람의 피부를 쏘아대니 이런 고생은 평생에 처음 겪었다. 말이 몇 번을 넘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익산 주막(益山酒幕)

253) 한벽당(寒碧堂) : 1404년(태종4) 월당(月塘) 최담(崔澗)이 71세에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세운 별서(別墅)로, 한벽청연(寒碧晴煙)으로 불리며 전주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깎아 세운 듯한 암벽과 누정 밑을 흐르는 물을 묘사한 '벽옥한류(碧玉寒流)'라는 글귀에서 한벽당이라 이름한 것이라 한다.

254) 의송(議送) : 감영에 항소하는 일을 말한다.

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유숙하였다. 밤새도록 눈이 내리니 근심스러움을 어찌하겠는가. 이날 50리를 갔다.

二十四日. 朝晴. 晚食後, 遂登程. 朴生員落後, 蓋欲呈議送, 而尙不入呈故也. 至參禮江邊, 艱越出數十步, 路逢南塘梁書房. 至參禮酒幕, 逢丁錫禹會行, 暫話, 緣參禮門前直路催鞭, 未至益山五里許, 風雨大作. 平原廣野, 無人家店, 衣服盡濕. 風頭如刀, 颯人衣服, 雨脚似矢, 射人肌膚, 這間苦憫, 平生初見. 馬幾顛覆, 艱辛入益山酒幕, 仍爲留宿. 達夜雨雪, 憫憫奈何. 是日行五十里.

■25일. 비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늦게 밥을 먹었으나 길을 떠날 수가 없으니 매우 답답하다. 아침에 보니 눈이 한 자나 쌓여 있었다. 조금 늦게 눈이 겹것 같기에 마침내 길을 나서 겨우 주막 문밖을 나오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더니 개었다가 비가 오다가 오락가락했다. 맑을 때는 늘 적는데 비가 오는 때는 늘 많고 바람 또한 간간이 불어 추위가 자못 심했다. 앞길은 눈으로 뒤덮여서 경로(徑路)를 분별할 수 없고 행인 또한 끊겨 물어서 알 길이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상황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겨우 병항 여막(瓶項旅幕)에 이르렀으니 용안(龍安) 땅이다. 이날 40리를 갔다.

二十五日. 風雨不止. 晚食不得登道, 悶悶. 朝而視之, 雪深一尺. 稍晚似有雪霽之態, 故遂登程, 纔出幕門外, 雨雪更作, 乍晴乍雨. 霽時常小, 雨時恒多, 風亦間之, 寒事頗沍, 而前程雪擁, 難辨徑路, 行人亦絕, 無由問知, 奈何. 艱辛之狀, 不可勝言. 纔到瓶項旅幕. 龍安地也. 是日行四十里.

■26일.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맑다. 일찍 일어나 하늘을 보니 아직도 어두워서 눈이 올 것만 같았다. 그러므로 늦게 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함열(咸悅)의 성당창(聖塘倉) 앞길을 거쳐 남당(南塘) 나룻가에 이르니 주막 한 채 만이 쓸쓸하게 홀로 있었다. 앞에 있는 큰 강은 백마강(白馬江)²⁵⁵에서

255) 백마강(白馬江) : 부여현 서쪽 5리에 있는데 양단포(良丹浦), 금강천(金剛川)과 공주(公州)의 금강(錦江)이 합류하고 임천군(林川郡)으로 흘러들어 고다진(古多津)이 된다.

근원하여 흐르는데, 강물의 동편은 함열(咸悅)이고, 강물의 서편은 임천(林川)이다. 간신히 물을 건너 지곡(紙谷)을 지나 옥곡(玉谷)에 이르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버드나무 아래 작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이 지평(李持平)의 노복 집이었다. 주인장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더니 답하기를, “나으리[進賜]께서는 출타하여 부여 백마강에 계십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마침내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다시 백마강으로 향하여 유곡역촌(楡谷驛村)을 거쳐 굴능포(屈能浦)로 들어갔다. 한바탕 평지를 바라보니 갈 길이 20여 리 가까이 되니 마침내 채찍을 재촉하여 규암포(窺巖浦)가에 이르렀다. 규암포는 당나라 소정방(蘇定邦)이 백제(伯濟)를 정벌할 때에 전쟁의 형세를 염탐하던 곳인데, 그 지역은 바로 홍산(洪山)의 경계이다. 규암의 측면에 동서의 군창(軍倉)이 있으니 서편은 홍산창(洪山倉)이며, 동편은 부여창(扶餘倉)이다. 동창은 자못 매우 표연(飄然)하여 참으로 구경할만한 곳인 듯하였다. 급히 뱃사공을 불러 건넜는데, 자온대(自溫臺)²⁵⁶ 아래에서 거슬러 올라가 작은 포구의 북쪽 기슭에 당도해 쉬었다. 강물을 따라 백마강(白馬江) 객점에 이르니 그 위에 몇 채의 기와집이 있었다. 한 곳은 정(定)댁이고 한 곳은 소재(蘇齋)댁인데, 지평(持平) 어른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였다. 마침내 포구의 주막에 이르렀다. 이날 70리를 갔다.

二十六日。朝陰晚晴。早起視之天色，尙黑雨雪將下者然，故晚食後登程，歷咸悅聖塘倉前路，至南塘津頭，有一酒家，蕭然獨存。前有大江，源自白馬江流來也，水東則咸悅地也，水西則林川地也。艱以利涉，經紙谷抵玉谷，日欲晡矣。入柳樹下一小螺屋，卽李持平奴子家也。問主人丈有無則答云“進賜出在扶餘白馬江云。”故遂秣馬中火。轉向白馬江，歷楡谷驛村，入屈能浦，一望平地，程近二十餘里，遂催鞭，至窺巖浦頭。窺巖蓋蘇定邦伐伯濟時，窺覘戰勢地，而地卽洪山界也。巖側有東西倉舍，西邊洪山倉也。東邊扶餘倉，而東倉頗極飄然，眞似遊玩處也。急招舟子過涉，而自溫臺下，泝流而上，歇

256) 자온대(自溫臺) : 바위 이름으로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扶餘)의 백마강(白馬江)가에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백제의 왕이 이 바위에서 놀면 그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泊小浦北岸. 沿流抵白馬江旅店, 上有數家瓦屋, 一則定宅也. 一則蘇齋宅也, 而持平丈在此云矣. 遂留浦頭幕. 是日行七十里.

▪27일. 늦게 바람이 불었다. 아침 식사 전에 가서 지평 어른을 배알(拜謁)하였다. 바라보니 여유로운 모습이 참으로 도인의 기상이 있었다. 잠시 하직인사를 하고 물러 나왔다가 밥을 먹은 뒤에 다시 장석에게 나아갔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하직인사를 드리고 나와 서둘러 행장을 꾸려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부여(扶餘) 읍내에 이르러서 아버님은 주막에 머물러 계시고 나는 김생(金生)과 함께 객사로 갔다. 대개 부여는 고대 백제가 도읍한 곳이니, 그 네 벽면에 제영시는 고금 문장들의 뛰어난 솜씨가 아님이 없었다. 마침내 걸어서 부소산(扶蘇山)²⁵⁷에 올라가 그 경치를 보는데 반월성(半月城)²⁵⁸과 천정대(天政臺)²⁵⁹는 참으로 경치가 빼어난 곳이었다. 한 수의 읍시를 읊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부소산 우뚝하게 서 있으니	扶蘇山色立崢嶸
노인들 전하는 말에 옛 백제의 도성이라네	古老相傳伯濟京
석탑의 푸른 이끼는 온조 ²⁶⁰ 의 자취이며	石榻苔靑溫祚劫

257) 부소산(扶蘇山) : 백제의 도읍인 충남 부여의 진산으로, 이 산을 감싸고 있는 부소산성은 도읍의 방어를 위한 시설로서 사비성(泗沘城) 또는 소부리성(所夫里城)이라고도 한다.

258) 반월성(半月城) : 백제(百濟) 최후의 서울이었던 부여(扶餘)의 성(城)을 이른다. 《용재총화(慵齋叢話)》 권1에 “탄현(炭峴)에 반월성(半月城)의 옛터가 지금도 완연하다. 백마강(白馬江)을 참(塹)으로 삼았으나 좁고 알아 왕자(王者)가 살 만한 곳이 못되어 소정방(蘇定方)에게 멸망당하였다.”라고 하였다.

259) 천정대(天政臺) : 부여현 북쪽 10리쯤에 있다. 강 북쪽 절벽으로 된 봉우리에 대(臺)와 유사한 큰 암석이 강물을 굽어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백제 때에 재상(宰相)을 임명하려 하면, 뽕힐 만한 자의 이름을 써서 함(函) 속에 넣고 봉한 다음 바위 위에 놓아두었다가 조금 뒤에 이를 취하여 이름 위에 도장 흔적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그로 인해 그 바위를 천정대 또는 정사암이라고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8 忠清道 扶餘縣》

260) 온조 : 백제의 시조로, 주몽(朱蒙)과 소서노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주몽이 유리(類利)를 태자로 삼자, 형 비류(沸流)와 함께 남쪽으로 떠나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열 신하로 보익(輔翼)을 삼아 국호를 ‘십제(十濟)’라고 하였다. 비류가 죽은 뒤 비류의 백성이 모두 위례성으로 오자 국호를 백제(百濟)로 고쳤다. 부여에서 나왔다 하여 ‘부여’로 성씨를 삼았다. 재위 46년째 되던 해

용대 ²⁶¹ 의 푸른 물은 소정방 ²⁶² 을 부르는 것이라네	龍臺水碧定邦名
지난밤 규암길에서 수백 척을 뒤엎었는데	前宵百尺窺巖路
오늘은 천년의 반월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네	今日千年半月城
다시 오른 고란사 ²⁶³ 깊은 감회에 젖으니	更上皋蘭多曠感
고궁의 쇠잔한 그림자 낙화에 놀라네	古宮殘影落花驚

우연히 작은 고깃배를 얻어 조룡대(釣龍臺)에 들어가 소정방(蘇定方)이 용을 낚았다는 옛 흔적을 보고 마침내 배를 돌려 고란사(皋蘭寺) 앞에 이르러 배를 대고 물에 내렸다. 벼랑을 타고 올라가 이 처럼 절묘한 경치를 구경하니 어느 곳이 다시 이곳들과 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침내 퇴어상서(退漁尙書)²⁶⁴의 운에 화답하여 읊시 한 수를 읊는다. 시는 다음과 같다.

장강이 험함을 잃는 것 또한 천시러니	長江失險亦天時
백제의 번화한 반월성이 무너졌도다	百濟繁華半月虧
떨어져간 꽃들 사라진 용 ²⁶⁵ 어디에서 물어볼거나	落花龍亡何處問

(28) 2월에 죽었다.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261) 용대 : 조룡대(釣龍臺)를 말한다. 낙화암 가까이에 있는 작은 바위섬이다. 당나라 군사가 백제를 공격할 때에 백마강에 안개가 끼고 풍량이 일어 진격할 수 없자, 소정방이 조룡대에 앉아 백마를 미끼로 하여 청룡을 낚아 올려 풍량을 멎게 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262) 소정방 : 소정방(蘇定方, 592~667)은 당(唐)나라 고종(高宗) 때의 장군 소열(蘇烈)의 자이다. 백제 의자왕(義慈王) 20년에 나당(羅唐) 연합군의 대총관(大總管)으로 13만의 당군(唐軍)을 거느리고 산둥에서 황해를 건너 신라군과 함께 백제를 협공하여 사비성을 함락시켰다. 《唐書 卷111 蘇定方傳》

263) 고란사 : 부여현 북쪽 부소산(扶蘇山) 서쪽에 있는데 그 언덕에 난초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명명하였다고 한다. 한(漢)나라 오봉(五鳳) 원년(기원전 57)에 창건하였는데 세 개의 불상과 여덟 칸의 승방(僧房), 누각 한 칸이 있었다고 한다. 절이 자리 잡고 있는 절벽이 우뚝하게 솟아 있는데 그 좌우의 돌 틈으로 샘물이 흘러나오고 그 맛이 시원하고 달다고 한다. 《扶餘誌 卷1 山川, 古蹟》

264) 퇴어상서(退漁尙書) : 김진상(金鎭商, 1684~1755)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여익(汝翼), 호는 퇴어(退漁)이다. 1699년(숙종25) 진사가 되고, 1712년(숙종38)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설서(說書), 대사성, 대사헌, 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퇴어당유고》가 있다.

265) 떨어져간 …… 용 : 백제가 멸망할 때, 후궁들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백마강(白馬江) 가의 낙화암(落花巖)에서 투신했다는 3천 궁녀와 당(唐)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조룡대(釣龍臺)에서 말을 미끼로 백제를 수호하는 용을 낚아 죽게 한 전설을 말한다.

쪽빛 봄바람²⁶⁶만이 쓸쓸히 난간 앞에 불어오네

藍風蕭瑟檻前吹

마침내 벽 위에 이름을 적고 인하여 낙화암을 향하여 돌 비탈을 오르고 벼랑을 따라 상쾌하게 낙화암 위 상봉에 오르니, 강에 가득한 고깃배와 물가에 가득한 백로가 흥이 나서 노니는 것이 끝이 없는데, 옛일을 생각하는 감회는 또한 시인이 감격한 것이다. 마침내 지팡이를 돌려 내려가려 하니 남은 흥이 다하지 않아 고개를 돌려 돌아보지만, 가야 할 길이 머니 어찌 뒤돌아보랴. 옛길을 찾아 읍내로 와서 조금 지나 출발하여 탄동(炭洞)에 이르니 인성(仁城) 땅이다. 말에게 꼴을 먹이고 채찍을 재촉하여 논산교주막(論山橋酒幕)에 이르니 바로 은진(恩津) 땅이다. 이날 40리를 갔다.

二十七日。晚風。朝前往拜持平丈席。望之裕然，眞箇有道者氣像也。暫辭退歸，食後更進丈席。陪話後辭退，促裝乘舟越江。至扶餘邑內，父主留在幕所，余與金生，偕往客舍。蓋扶餘古伯濟所都處也。其四壁題咏，無非古今文章手段也。遂步上扶蘇山，觀其勝槩，半月之城，天政之臺，眞奇絕處也。咏一律曰：“扶蘇山色立崢嶸，古老相傳伯濟京，石榻苔青溫祚劫，龍臺水碧定邦名，前宵百尺窺巖路，今日千年半月城，更上臯蘭多曠感，古宮殘影落花驚。”偶得一葉漁舟，入釣龍臺，看過蘇將釣龍舊痕，遂回舟至臯蘭寺前，泊舟下陸，緣崖而上，如此絕妙之玩，未知何處，更有此等儔也。遂步退漁尚書韻，咏罷一律。“長江失險亦天時，百濟繁華半月虧，落花龍亡何處問，藍風蕭瑟檻前吹。”遂題名壁上，仍向落花巖，攀磴緣崖，快上落花巖上上峯，其滿江漁舟，盈渚白鷺，興遊無窮，而又感古之懷，亦騷人之所激也。遂返筇將下，餘興未盡，回首眷顧，奈前程之遠何還。尋舊路來邑內。移發至炭洞，仁城地也。秣馬催鞭，至論山橋頭酒幕，卽恩津地也。是日行四十里。

▪28일. 눈이 내리다. 이른 아침 하늘빛이 어두워 눈이 올 것 같았기에 일찍 떠날 수 없었다. 조금 늦게 길을 떠났는데, 눈이 왔다 개었다 오락가락하였다. 20리를 갔다. 연산(連山) 호정(瓠井)의 상중에 있는 이씨 집에 이르자

266) 질풍: 남풍(藍風)은 초목이 쪽빛을 띠는 봄철의 바람을 가리킨다.

눈보라가 막 몰아쳤다. 한 노복의 집에 들어가 문을 열자 지곡(芝谷) 외숙(外叔)이 방안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니 천만 뜻밖이었다. 또 천 리 먼 길에서 서로 만나니 피차간에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개 외숙께서는 회시(會試)를 보러 가는 길로 낙두(落頭)의 이종(姨從)과 장성(長城)의 벗 임돈(林墩)과 함께 길동무하고 온 것이었다. 이날 20리를 갔다.

二十八日. 雪. 早朝天色暗黑, 雨雪將作, 故不得早發. 稍晚登程, 乍雪乍晴. 行二十里. 至連山瓠井李喪人家, 而風雪方作. 入一奴子家開門, 視芝谷外叔坐於房中, 出於千萬意外, 又是千里相逢, 其彼此欣喜, 不可勝言. 蓋外叔作會行, 與落頭姨從及長城林友墩, 作伴而來也. 是日行二十里.

▪29일. 밤새도록 흐리더니 새벽에 눈이 내려 몇 자나 눈이 쌓였다. 그러나 가야할 기한이 급하여 계속 머무를 수 없었다. 해가 저물녘에 출발하여 연산읍(連山邑)의 앞들에 이르자 하나의 큰 물체가 있었다. 거칠고 거무스레한 것이 자못 구룡(丘隴)의 형상과 같았는데, 개태정(開泰鼎)이라 전하여 불리며 지금까지 남겨 전해졌다고 했다. 수십 보를 가다가 우연히 청어장사꾼 5명을 만났는데, 말 10필과 그 무리들이 앞장서서 길을 찾아갔다. 그 덕분에말이 넘어지지 않으니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쌓였던 눈이 녹아 흘러서 진흙길이 매우 위험했는데, 혹 말발굽이 미끄러워 벗겨지기도 하고, 혹 땅이 질퍽거리 말의 배까지 푹 빠지기도 했다. 진잠(鎭岑)의 경계를 거쳐 두거리(豆渠里) 객점에 이르렀다. 가소원(可笑院) 앞강을 건너 유천 주막(柳川酒幕)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대개 연산을 지날 때, 계룡산(鷄龍山) 상맥(上脈)을 따라 신도(新都)를 굽어보니 그 형세의 웅장한 위세와 강물의 길게 굽어져 흐름이 참으로 명승의 경지이라고 이를 만했다. 이날 60리를 갔다.

二十九日. 陰翼夜達, 曉雪下至數尺雪. 然行期迫促, 不得留連, 晚後發程. 至連山邑前野, 有一巨物. 頑而墨, 頗似丘隴狀, 而傳稱開泰鼎, 而至今留傳云矣. 行數十步, 偶逢商鯖漢五人, 馬十匹渠輩, 前導得尋徑路, 馬賴不顛, 是可幸也. 積雪流漸, 泥路極險, 或馬蹄滑脫, 泥濘沒盡馬腹矣. 歷鎭岑界, 至豆渠里旅店, 涉可笑院前江, 至柳川酒幕留宿. 蓋歷連山時, 從鷄龍山上脈, 瞰新都, 其局勢之雄威, 江水之委迤, 真可謂名勝之界也. 是日行六十里.

▪ 2월 1일. 맑다. 일찍 역천(櫟泉)을 향해 출발하여 송촌(宋村)의 경소제(經蘇堤)를 지나니 이곳이 바로 우암(尤菴) 선생의 옛 집터이다. 그 산천은 확 트여있고 평원은 광활하여 군자가 살던 곳을 상상할 수 있었는데, 염민(濂閩)²⁶⁷에 비슷하고 무이(武夷)²⁶⁸와 방불하였다. 하나의 작은 언덕을 넘으니 사우가 우뚝하니 남아 있어서 마을 사내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우암 선생의 사우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침내 말에서 내려 들어가 배알하고 살펴보니 사우에는 ‘종회사(宗晦祠)’라는 편액(扁額)이 붙어 있었다. 주벽은 주부자(朱夫子)의 영정이고, 우무(右廡)는 우암 선생이었는데, 다시 수십 보 위를 보니 또 하나의 서원이 있어 다시 들어가 배알하였다. 이는 바로 오현서원(五賢書院)으로 “쌍청(雙淸)²⁶⁹, 수옹(睡翁)²⁷⁰, 석곡(石谷)²⁷¹, 송안(松崖)²⁷², 평양(平陽) 박 선생(朴先生)”²⁷³이다.

공경히 배알한 뒤 걸어서 한 고개를 넘어갔는데, 고개 이름은 바로 진치

267) 염민(濂閩) : 염계(濂溪)와 민중(閩中)을 가리킨다. 염계는 호남성(湖南省)에 있는데 주돈이(周敦頤)가 살던 곳이고, 민중은 복건성(福建省)에 있는데 주희(朱熹)가 살던 곳으로 모두 성리학이 흥성한 곳이다.

268) 무이(武夷) : 산 이름으로, 중국 복건성(福建省) 송안현(崇安縣) 남쪽에 있다. 주자(朱子)가 이곳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지내면서 학문을 강론하였다. 여기서는 송시열의 옛 집터를 주자가 강화하던 무이에 비유하였다.

269) 쌍청(雙淸) : 송유(宋兪)를 말하는데, 유일(遺逸)로 세상의 칭송을 받았다. 정절사(靖節祠)에 배향되었다.

270) 수옹(睡翁) : 우암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조(宋甲祚, 1574~1628)이다. 자는 원유(元裕), 호는 수옹(睡翁)이다. 경기전 참봉으로 있다가 정묘년(1627, 인조5)에 사옹원 봉사의 제수를 받고 서울로 가는 도중에 청나라의 침입으로 남하하는 세자를 만나 전주로 호종하였다. 뒤이어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비분을 이기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정절사(靖節祠)에 배향되었다.

271) 석곡(石谷) : 조박(趙璞, 1577~?). 본관은 풍양(豐壤)이고 자는 숙온(叔蘊)이며 호는 석곡(石谷)이다. 조희운(趙希尹)의 아들이다. 1617년(광해군 9)에 무장 현감이 되었으나 우패(愚悖)하다는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으며, 인조 때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나갔다가 탄핵당해 해임되었다.

272) 송애(松崖) : 김경여(金慶餘, 1596~1653).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유선(由善), 호는 송애(松崖),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이귀(李貴)의 사위이며,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송준길(宋浚吉), 송시열(宋時烈)과 친교가 두터웠다. 문집에 《송애집(松崖集)》이 있다.

273) 평양(平陽) 박 선생(朴先生) : 순천(順天)의 고호가 평양이므로 곧 순천 박씨인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을 가리킨다.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본관은 순천, 자는 인수(仁叟), 호는 취금헌(醉琴軒),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鎭峙)이다. 길이 험난하고 진흙길이 미끄러워 간신히 잘 건넜지만 역천에 이르기 3리 쯤 못 가서 말이 엎어지고 짐이 모두 젖어버렸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한스러운 것은 종이 묶음이 젖어버린 것이다. 역천에 이르러 잠시 쉬다가 노비의 집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장석(丈席)께 들어가 절하고 오래도록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가 예폐(禮幣)²⁷⁴를 행한 뒤에 마침내 길을 떠나 두 개의 능령(勒嶺)을 넘어 왼쪽으로 장강을 끼고 10리를 갔다. 삼정동 주막(三丁洞酒幕)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이날 50리를 갔다.

二月初吉。晴。早發向櫟泉，歷宋村經蘇堤，是卽尤菴先生舊址也。其山川之開豁，平原之廣闊，可以想像君子之攸居，而依稀乎瀛閩，彷彿乎武夷矣。越一小原，有祠宇巋然而存，問村漢則曰：“尤菴先生祠宇云。”故遂下馬，入謁奉審，則祠加扁額曰宗晦祠也。主壁朱夫子，影幀右廡則尤菴先生，而更看數十步上，又有一書院，更入拜謁。乃五賢書院曰：“雙清，睡翁，石谷，松崖，平陽。朴先生也。”祇謁後，步越一嶺，嶺名卽鎭峙也。路險泥滑，艱以利涉，至櫟泉未三里許，馬蹄顛覆，卜物盡濕，而其中最恨者，紙束浸漬矣。至櫟泉暫憩，奴子家秣馬中火。入拜丈席，移時陪話。謹行禮幣後，遂登程，越兩勒嶺，左挾長江，行十里。到三丁洞旅幕留宿。是日行五十里。

▪ 2일. 일찍 출발하여 형강(荊江) 가에 이르러 급히 뱃사공을 불러 강을 건넜다. 수십 보를 가서 북녘 기슭을 바라보니 두어 칸의 승옥(僧屋)이 있었는데 이름 ‘현사(懸寺)’²⁷⁵라고 하였다. 마침내 율시 한 수를 읊었다. 시는 다음과 같다.

새벽에 와서 형강을 건너니
 줄던 뱃사공이 놀라 막 깨어나네

曉來荊水渡
 舟子睡初驚

274) 예폐(禮幣) : 고마움과 공경하는 뜻에서 보내는 물품을 말한다.

275) 현사(懸寺) : 현재 충북 청원군에 있는 현암사(懸岩寺)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견불사(見佛寺)”로, 《문의읍지(文義邑誌)》에는 “현사(懸寺)”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사(懸寺)라는 명칭은 바위 끝에 매달려 있는 듯한 다람쥐이라는 의미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문의팔경(文義八景)의 하나이다.

황량한 객점엔 닭 울음소리 쇠잔하고	荒店殘鷄唱
매달린 암자엔 경쇠소리 떨어지네	懸菴落磬聲
상설로 뒤덮힌 모래밭은 정갈하고	沙兼霜雪淨
달빛 별빛 머금은 강은 환히 빛나네	江得月星明
가야할 길 멀고도 머니	爲是前程遠
몹시 피로하나 서둘러 출발하세	多勞早啓行

문의(文義) 읍내를 거쳐 곧바로 지났다. 5리쯤 못 가서 진흙길이 비할 데 없이 심하여 거의 넘어질 뻔하였으니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었다. 작은 고개를 넘어가자 진흙 길에 말의 배까지 빠지게 되고 말은 끝내 엎어지니 마침내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 이와 같이 10여 리를 가서 간신히 청주 병영(靑州兵營)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오전에 50리를 갔다.

점심을 먹은 뒤에 출발하였다. 청주 병영의 영문이 웅장하고 여염집이 즐비하니 큰 고을이라 이를 만하였고, 읍내에 있는 구리 기둥은 그 높이가 수십 길이나 되었다. 공북문(拱北門)을 나와 작천(鵲川)에 이르러 무사히 잘 건너고 오공 여막(吳公旅幕)²⁷⁶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80리를 갔다. 대개 주막의 사내는 자못 부유하였다. 밤에 비가 왔다.

初二日。早發至荊江上，急招舟子渡江。行數十步，望見北岸，有數間僧屋，名曰懸寺。遂咏一律曰：“曉來荊水渡，舟子睡初驚，荒店殘鷄唱，懸菴落磬聲，沙兼霜雪淨，江得月星明，爲是前程遠，多勞早啓行。”歷文義邑內直過，未行五里許，泥路無比，或幾顛覆，未能騎行。越小嶺，泥沒馬腹，馬遂顛沛，遂下馬步行。如是者十餘里，艱抵靑州兵營，秣馬中火。午前行五十里。中火後發程。其營門之雄威，閭家之鯽比，可謂大邑也。邑之中有銅柱高，可數十丈。出拱北門，至鵲川利涉，至吳公旅幕留宿。是日行八十里。蓋幕漢頗富實矣。是夜雨。

▪3일. 밤에 비가 오고 저녁엔 바람이 불고 눈이 왔다. 다랑역촌(多郎驛村)에 이르자 삼봉(三峯)이 둥글고 우뚝 솟아있어 마치 구슬을 연결해 놓은

276) 오공 여막(吳公旅幕) : 아버지 송정약의 일기에는 ‘오공 주막(蜈蚣+空酒幕)’으로 기록되어 있다.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 제1봉에 석물(石物)을 갖춘 옛 무덤은 바로 정송강(鄭松江)²⁷⁷의 묘소였다. 푸른 산의 묵은 풀이 덮힌 무덤²⁷⁸에 석린(石麟)이 넘어져 있으니 절로 낙엽진 빈산에 서글픈 마음이 일어나고 상국(相國)의 풍류가 쓸쓸하였다. 한치(汗峙)를 넘어 진천(鎭川) 읍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눈보라가 크게 몰아쳤으나 눈 속을 뚫고 북쪽을 향하니 눈발이 칼날 같아 사람의 살갗에 닿으면 흡사 화살과 돌 같았다. 10여 리를 가자 한 냇물이 불어나 다리가 깊이 잠겨 거의 한 길쯤이나 되었다. 말을 타고 바로 들어가니 말이 거의 물에 넘어지고 떠내려갈 뻔하였다. 조금 지나 간신이 떨어지지 않고 강 건너편 기슭으로 나왔지만 김생(金生)은 옷을 걷고 물에 들어가 상황이 매우 참혹하였다. 개족 여사(蓋足旅舍)에 이르니 눈이 이미 많이 쌓여 있고 바람은 더욱 매서운데 주인집은 잔패하기가 비할 데가 없었다. 주막의 사내는 또 노쇠하고 기력이 쇠잔하였으며, 문짝은 떨어져 나갔지만 어찌하겠는가. 다행인 것은 매우 순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 이날 60리를 갔다.

初三日。夜雨晚風雪，至多郎驛村，有三峯，圓而屹，如連珠狀。而其第一峯，有石物古墓，卽鄭松江之墓也。青山宿草，石麟倒臥，自有感愴於空山落木，相國風流之蕭瑟矣。越汗峙，至鎭川邑內中火。風雪大作，衝冒北向，雪鏃如鋒，觸人肥膚，恰若矢石矣。行十餘里，有一川水漲，橋深幾尋許。乘鬣直入，馬幾涪顛漂流，小許艱以不墜，出彼岸，金生褰衣入水，景像甚慘。至蓋足旅舍，雪積已多，風氣益凜，主漢家殘敗無比。漢且老殘，門戶缺罅奈何。所幸者，頗極順良矣。是日行六十里。

■4일. 바람이 불다. 밤에 눈이 와서 거의 한 자나 쌓였다. 늦게 밥을 먹은 후에 길을 떠나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니 매우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있었는데,

277) 정송강(鄭松江) : 정철(鄭澈, 1536~1593)로,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1561년(명종16) 26세에 진사시에 장원하고, 이듬해 별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좌의정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송강집(松江集)》과 《송강가사(松江歌辭)》가 있으며, 창평의 송강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278) 묵은 …… 무덤 : 원문의 숙초(宿草)는 무덤에 자란 묵은 풀로 무덤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봉우의 무덤에 해묵은 풀이 있으면 곡하지 않는다.[朋友之墓，有宿草而不哭焉.]” 한 데서 온 말이다.

문득 ‘길가의 호랑이 발자국이 사발만큼 크다’²⁷⁹⁾라는 글귀가 생각났다. 유치(楡峙)를 넘어 안성(安城) 읍내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유 홍산(兪鴻山)이 신관(新官) 행차(行次)로 안성 세마(洗馬) 댁에 왔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점심을 먹은 뒤에 아버님을 모시고 세마 댁에 갔더니 주인집이 몹시 분주하고 사환(使喚)이 뜰에 가득하여 보기가 어렵고 지체되었다. 잠시 후에 유 상사(兪上舍)가 나와서 보고 이어 세마 어른에게 절하니 술과 음식을 나와 대접해 주었다. 홍산이 또한 나와서 만났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하직인사를 하고 객점으로 돌아왔다.

채찍을 재촉하여 양성(陽城)에 10여리쯤 못 미쳐서 두어 채의 가옥이 적막하게 있었다. 아버님이 복통으로 아파서 원기(元氣)가 크게 탈진된 것이 여러 번이었고, 또한 빈번하게 풍기(風氣)가 아직도 사나워서 촌사람에게 목어가기를 청하였더니 단호하게 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양반집 한 칸이 있어서 가서 유숙하기를 청하니 머리에 폐양자(弊羊子)와 모건(毛巾)을 쓰고 남인(南人)과 비슷한 모습인 그 또한 굳이 사양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출발하였다. 이 때문에 해는 이미 저물었다. 새로 생긴 주막이 50리쯤 있다고 들었기에 채찍을 재촉하여 주막에 이르니 밤은 이경(二更)이 되려 했다. 급하게 주인을 부르니 주인의 말버릇이 몹시 사나웠다. 단칸방도 굳이 거절하고 짐을 풀지도 못하게 하였는데, 아버님의 건강이 점점 버티기 어렵고 밤기운이 조금 차가워져 애걸하기를 매우 간절히 하였으나 말은 더욱 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엌이라도 청하였더니 부엌도 또한 사양하였다. 크게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연로한 70여세의 노인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유숙할 수 있을까 하여 애걸하기를 더욱 간절히 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위에 한 칸의 집이 있어서 김생(金生)에게 가서 물어보게 하였더니 애초에 사립문도 열어주지 않았으니 어찌 말을 통할 수 있었겠는가.

어떤 젊은 사내가 주인 방안에서 나오더니 또한 응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279) 길가의 …… 크다 : 남송 때 시인 육유(陸游)의 7언 고시 중 <도산우설상림천암주건초불과왕(陶山遇雪賞林遷庵主見招不果往)> 이라는 작품 속에, “산중에 큰 눈이 두 자나 내려, 길가에 호랑이 자국이 사발만큼 크다.[山中大雪二尺強, 道邊虎迹如碗大]”라는 구절이 나온다.

말하고 나가 버렸다.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말하길 “제가 쓰러져가는 집 한 칸이 있는데, 일행의 행색이 불쌍하게 되었으니 우리 집이라도 가시지요.” 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 사람의 집에 짐을 옮기니 과연 비록 쓰러져가는 집이라지만 이는 실로 석저불(石底佛)이었다. 아버님의 기식이 곧 끊어질 지경인데 저녁밥은 무엇을 올려야 할런지. 주인에게 부탁하여 죽 한 그릇을 올리자 겨우 두세 숟가락을 드셨는데, 방구들이 차갑기가 비할 데가 없었다. 사람이 세간에 살아가며 이처럼 고생스런 상황이 어찌 이에 짝할 만한 경우가 있겠는가. 앉아서 밤을 새는데 밤중에도 오늘 밤이 어찌 이리도 길단 말인가. 지역은 바로 양성(陽城) 땅이다. 이날 60리를 갔다. 여행길에 안성에서 10리쯤 도착하기 전, 사면(四面)에 비갈(碑碣)이 길옆에 우뚝 솟아 있어 찾아가서 보니, 바로 고(故) 홍장군 고루비(洪將軍故壘碑)²⁸⁰였는데, 비문은 도암(陶菴, 이재(李緯)) 선생이 짓고 섬촌(蟾村, 민우수(閔遇洙))이 썼으며 유 상국(兪相國, 유척기(兪拓基))이 새겼다.

初四日。風。夜來雪，幾至一尺。晚食後登程，沿溪而上，有虎跡甚大，忽憶途邊虎跡如碗大之句。踰榆峙，至安城邑內秣馬。聞兪鴻山以新官行次，來安城洗馬宅云。故中火後，陪父主，往洗馬宅，則主家甚忙，使喚滿庭，難見遲滯。後兪上舍出見，仍拜洗馬丈，出饋酒食。鴻山亦出見，暫話後，辭歸幕店。促鞭未至陽城十餘里，有數屋蕭然。父主痛腹患，元真大奪度數，亦頻風氣尙凜，請宿於村漢，則苦辭不已。有班家一間，往乞留宿，則頭着弊羊毛巾，而彷彿南人模樣也。渠亦苦辭，故不得已發行。茲故日已暮矣。聞新幕在五十里許云，故促鞭至旅幕，則夜欲二更矣。急招主漢，則主漢者言鋒甚惡。牢辭單房，使不得解卜，而父主氣候，漸至難支，夜氣稍寒，乞之甚懇，言益不順。故請其廚間，則廚間亦辭。大有毆打之心，而不但年老七十餘，或擬留宿，乞之愈懇，終不許之。上有一間屋，而使金生往問，則初不開扉，何能通言。有少年漢，自主漢房中出來，亦以不接爲言而出去矣。小許還來云，“吾有廢

280) 홍장군 고루비(洪將軍故壘碑) : 1745년에 건립된 홍계남장군고루비(洪季男將軍故壘碑)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산에 위치한다. 홍계남의 본관은 남양으로,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의병을 일으켜 여러 곳에서 승리하였다. 그 공으로 수원판관, 영천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이몽학의 난을 토평하기도 하였다. 비문에는 홍계남의 생애와 임진왜란 시의 행적이 잘 드러나 있다.

突一間, 行次景色可矜, 可往吾家云矣.”遂運卜於厥漢之家, 則果雖廢突, 而此實石底佛也. 父主氣息奄奄, 夕食誰供. 請主漢饘粥一器以進, 下匙羹數三, 而突冷無比, 人生世間, 如此苦狀, 豈有其儔. 坐以達夜, 夜何今宵之甚長, 界卽陽城地也. 是日行六十里. 行至安城未到十里許, 有四面碑碣, 屹然於道傍, 尋往見之, 乃故洪將軍故壘碑, 而碑文則陶菴先生所撰, 而蟾村寫之, 兪相國篆之矣.

▪ 5일. 맑다. 이른 아침 길을 떠나 장사리(長思里)의 주막에 왔다. 대개 어젯밤은 사람도 먹지 못했으니 말이 어떻게 먹을 수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말이 잘 걷지 못하고 겨우 마을 앞에 이르러 말이 평지에서 넘어지니 아버님이 낙상하여 기력은 더욱 떨어지고 걸기도 어려웠다. 겨우 봉당(蓬堂)에 들어가 그대로 누워 일어나지 못하시니 하늘의 뜻인가 운명인가. 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마침내 아침밥을 올리고 오래도록 쉬면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따뜻하게 하였는데 깨어보니 해는 이미 낮을 향했다. 마음으로는 계속 머물며 조섭하게 하고 싶지만 앞길이 아직 멀어 상경할 마음이 매우 바빴다. 마침내 길을 떠나 한천정사(寒泉精舍)에 이르자 바람이 순하지 않아서 간신히 도달하였다. 잠시 신 뒤에 김생(金生)과 함께 천옹(泉翁)의 산소에 절을 하고 묘비명(墓碑銘)과 신도비(神道碑)를 두루 보았다. 그 마을 안의 일초 일목(一草一木)이 이씨 대대로 전한 것이 아님이 없었는데, 석물의 찬란함 또한 사대부 집안 묘소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다. 묘 아래 두 개의 비석이 우뚝 솟아 있는데, 하나는 이 상국(李相國)의 신도비로 우암(尤菴)이 짓고 동춘(同春)이 글을 썼으며 병양(駢陽)이 새겼다. 하나는 귀락당(歸樂堂)의 신도비로 도암(陶菴)과 섬촌(蟾村)과 유상(兪相)이 짓고 쓰고 새겼다.

아버님의 건강이 비록 흥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혀 떨치고 일어날 의사(意思)가 없으시기에 답을 사서 반찬으로 올린 것 또한 드시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니 걱정스런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우연히 이 서방(李書房) 제경(濟敬)을 만났으니 이신보(李愼甫)의 둘째 형이다. 나에게서 그 아우의 편지를 구하였는데, 애초에 신보(愼甫)의 편지가 없었으므로 각각 말로 전달하려고 신보의 아들을 불러와서 그 아버지가 잘 지내신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날은 천곡(泉谷) 초당(草堂)에서 유숙하였다. 방구들이 조금 따뜻하였는데, 어젯밤 냉방에서 끙끙 얼었던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을 받는 듯하니 비로소 하루 사이에 또한 반복되는 이치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날 20리를 갔다. 이곳은 용인(龍仁) 땅이다.

初五日. 晴. 早朝登道, 來長思里幕, 盖前夜人不得食, 馬何以喂. 是以馬不善步, 莖至村前, 馬顛平地, 父主落傷, 氣息益損, 難以行步. 纔入蓬堂, 仍臥不振, 天耶命耶. 此何景像. 遂朝飯移時休息, 穩睡取煖, 覺則日已向午矣. 意欲因留調攝, 而前程尙遠, 上洛之心甚忙. 遂登程至寒泉精舍, 則風氣不順, 艱辛入達. 暫休後, 與金生同拜泉翁山所, 周覽墓碑及神道. 其洞中一艸一木, 無非李氏世傳而石物之彬彬, 亦士夫家墓所罕見. 墓下有兩碑屹然, 一則李相國神道, 而尤菴撰之, 同春書之, 駢陽篆之. 一則歸樂堂神道, 而陶菴蟾村愈相, 撰寫篆之矣. 父主氣候, 雖不昏矇, 而頓無振作意思, 故買鷄進饌, 亦不甘於口, 憫憫何言. 偶逢李書房濟敬, 則李慎甫仲兄也. 索我其弟之書字, 而初無慎甫之寄音, 故各以口報, 招來慎甫之子, 傳其爺好在消息. 是日留泉谷草堂. 其突稍溫, 庶可報前夜冷房凍悚, 始覺一日之內, 亦有反覆之理也. 是日行二十里. 龍仁地也.

▪6일. 찬바람이 크게 일어나니 선달 전과 다름이 없었다. 새벽녘에 일어나 의건을 갖춰 입은 뒤 도암(陶菴) 선생의 영정을 배알(拜謁)하였는데, 그림 속 얼굴이 완전(完然)하여 붉은 입술과 하얀 수염이 참으로 군자다웠다. 오랫동안 현가(絃歌) 소리²⁸¹가 들리는 곳에 유상(遺像, 초상)이 엄연(儼然)하여 참으로 후학의 추모하는 마음을 일으킬 만 하였다.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떠나 하나의 큰 고개를 넘어 만의(萬義) 송 세마(宋洗馬)의 집에 이르렀다. 곧바로 청사(廳事)에 들어가 의복을 갈아입고 들어가 장석(丈席)을 배알하였다. 장석(丈席)은 정성스럽게 애써 찾아온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곡진히 해주셨다. 오래도록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에 후령(後嶺)을 넘어 북쪽 서울로 향하니

281) 현가 소리 : 현가(絃歌)는 거문고와 비파 등을 연주하며 시가(詩歌)를 읊는 것이다. 자유(子游)가 무성의 읍재(邑宰)가 되어 백성들에게 예악을 가르쳤으므로, 곳곳마다 현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고을마다 독서하는 소리가 들려 유교가 크게 진작되었다는 말이다. 《論語 雍也》

세찬 바람이 사람을 쏘아대어 말 위에서 견디기 어려웠다. 젊은 사람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아버님은 뇌쇠한데다가 기력도 없으시니 자식이 되어 봉행(奉行)함에 어찌 염려스러움이 끝이 있겠는가. 용인(龍仁) 읍내를 지나서 열원(悅院)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50리를 갔다.

이날부터 아버님의 거동이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지니 매우 다행스러웠다. 대체로 금년 봄에 내린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는데, 눈 녹은 물이 불어나 개천으로 흘러가 도강(徒杠)²⁸²은 모두 떠내려가고 길은 진흙탕이 되었으며, 소와 말은 연결된 길로 나아갈 소식이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다. 전해 들으니 말과 소가 혹 진흙 길에 빠지거나 죽는 일 또한 세상 변고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대개 하루는 조금 맑다가 이들은 비나 눈이 오고, 하룻밤 조금 화창하다가 사흘 밤은 눈보라치니, 연세가 80~90이 지난 노인들이 모두 이르기를, “봄에 내린 풍설은 금년에 처음 보았네.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이날 바람이 사납고 흐렸지만 찬 기운은 또한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열원(悅院)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는데, 바람과 햇볕이 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노정이 어긋나서 그대로 유숙하고 나는 아버님을 조섭(調攝)하였다. 이날 50리를 갔다. 도착한 땅은 바로 용인의 경계였다.

初六日。寒風大作，無異臘前矣。曉起冠巾後，拜謁陶菴先生影幀，其畫容完然，丹唇皓鬚，真君子人也。百年絃歌之處，遺像儼然，真可起後學之追感也。食後登道，踰一大嶺，至萬義宋洗馬宅。直入廳事，更衣服入拜丈席。丈席殷勤勞來語言詢詢，移時陪話後，踰後嶺，北向洛路。獐風射人，馬上難持。少年如此，況父主衰獐風射人，馬上難持。少年如此，況父主衰之餘，兼有欠和氣力，爲人子奉行，寧無憫慮之無涯乎。歷龍仁邑內，至悅院留宿。是日行五十里。自是日父主舉止，稍勝昨日，幸幸。大抵今年春雪，前古比無，雪漸爲水漲流溪瀆，徒杠盡漂，道路泥濘，牛馬不前連路消息，極爲可慮。傳聞馬牛或有

282) 도강(徒杠) : 저본의 '楸'은 '杠'의 오키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도강(徒杠)은 사람이 통행하는 다리로, 《맹자》〈이루 하(離婁下)〉에, 자산(子產)이 자신의 수레로 강에서 백성들을 건네주자, 맹자가 “은혜로우나 정치를 하는 법을 모른다. 11월에 도강이 이루어지고 12월에 여량이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물 건너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다.[惠而不知爲政，歲十一月，徒杠成，十二月，輿梁成，民未病涉也.]”라고 하였다.

溺泥死傷, 此亦世變之不少也. 盖一日纔晴, 二日雨雪, 一夜稍和, 三夜風雪, 古老年經八九十者皆云, 春月風雪, 今歲初見, 未知前頭之有所可驗也. 是日風氣之惡而陰, 冷亦稍勝於昨日. 到悅院, 日猶未暮, 而不獨風日之不順, 且路次違左, 仍爲留宿. 子爲父主之調攝也. 是日行五十里. 地卽龍仁界也.

▪7일. 맑고 바람이 불다. 새벽녘에 출발하여 험천(險川) 10리(里)에 이르니 날씨가 비로소 맑아졌다. 여막(旅幕)에 들어가 반찬을 사서 요기하고 신원(新院)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한강에 이르러 배를 탔는데, 한 마리 말이 배에 잘 오르려고 하지 않으므로 힘겹게 배에 올랐다. 이 때문에 부자(父子)가 각각 배를 타고 간신히 물을 건너서 조현(囚峴)을 넘고 광희문(光熙門)에 들어가 주인집에 도착하니 주인어른이 깜짝 놀라며 기쁘게 맞아주었다. 초당의 학동들도 또한 기쁘게 맞이하여 웃으며 인사하고 예전과 한 사람도 약간의 차이가 없는데, 다만 벗 여신지(呂愼之)의 모습만 영영 볼 수 없고 의범(儀範)도 보기가 어려우니 탄식하며 길게 곡할 일이다. 이날 70리를 갔다.

初七日. 晴而風. 曉頭登程, 至險川十里, 日始快明矣. 入旅幕, 貿饌糲飢, 至新院, 朝飯秣馬. 抵漢濱乘舟, 而一馬不善登舟, 故困而登舟. 茲故父子各船, 艱以越涉, 踰囚峴, 入光熙門, 到主人家, 則主人丈顛倒欣迎. 草堂學子輩, 亦歡迓笑拜, 舊時無一人小異, 而但呂友愼之甫, 形影永闕, 儀範難覩, 是所喟然欲長哭者也. 是日行七十里.

▪8일. 맑다. 더러워진 의건(衣巾)을 모두 빨고 밥을 먹은 후에 조만간 반촌에 가려고 했다. 지나는 길에 이현(泥峴)에 들어가 석사(碩士) 유자일(兪子一)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 물었더니 노복이 말을 꺼리면서 말하기를, “이미 다른 집으로 떠났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낭상(廊上)에서 책을 읽는 소리가 자못 귀에 익숙하여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자일(子一)이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해를 넘긴 안부를 조금 주고받다가 하직하고 돌아와 반촌을 찾아가 홍화문(弘化門) 앞에 이르렀다. 장성(長城)의 임우(林友)를 만나 표숙(表叔)과 이종(姨從)의 소식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강소(講所)

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강소(講所)를 찾아 가려고 종각(鍾閣)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 강소(講所)는 아직 멀다고 했는데, 해가 이미 저물어서 마침내 돌아왔다. 잠시 후에 강노(江奴)가 강소(講所)에서 와서 뵈고는 인하여 월강(越講)²⁸³ 소식을 알려주었다.

初八日. 晴. 所汚衣巾盡脫洗滌, 食後早晚欲往泮村, 而歷路入泥岷, 尋問俞碩士子一在否, 則奴子諱言曰: “已去他室云云.” 而廊上讀書之聲, 頗慣於耳, 直入開門, 則子一欣笑歡迎. 纔叙隔歲平否, 辭歸尋泮村, 至弘化門前. 逢長城林友, 問表叔及姨從消息, 則答云, “入去講所.” 故欲尋講所, 往鍾閣傍問之, 則講所尙遠云, 而日已西矣, 遂還來矣. 俄間江奴自講所來謁, 仍報越講消息矣.

■9일. 비가 오다. 마침 고향에 내려가는 인편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편지를 써서 부치고자 했는데 비에 막혀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저녁에 고향 사람이 와서 편지를 받아서 갔다.

初九日. 雨. 適有鄉人下去便云, 故修書欲付, 而無奈雨關矣. 夕時鄉人者, 來受簡封而去.

■10일. 맑다. 김생(金生)이 현기증으로 누워있으니 걱정스럽다. 이날 반촌에 들어가 표숙(表叔)과 이종형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냉정동(冷井洞)에 들어가 원흥보(元興甫)의 집을 찾아갔더니 흥보는 이때 막 출타하였으므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니 한탄스럽다.

初十日. 晴. 金生以眩氣痛臥, 悶悶. 是日入往泮村, 見表叔及姨兄, 而來路入冷井洞, 尋元興甫家, 則興甫時方出他, 故未見而來, 可歎.

■11일. 맑다. 원흥보(元興甫)가 이른 시간에 보러 오니 기뻐다. 밥을 먹은

283) 월강(越講) : 조흥강(照訖講)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월강(越講)’ 또는 ‘월생(越性)’이라 하였다. 합격자에게는 그 증서로서 조흥첩문(照訖帖文)을 주었다. 조흥강은 성균관에서 과거를 보려는 유생에게 시험에 앞서 《소학》을 외게 하던 일로, 일종의 예비 시험이다. 여기에 합격해야 조흥첩(照訖帖)을 받고 과거를 볼 수 있었다

뒤 막 반촌(泮村)에 들어가려는 즈음에 성운(成云)이 와서 중첨(仲瞻)씨의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표숙(表叔)의 객지 생활이 편치 않다고 했다. 그러므로 서둘러 들어가니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다. 돌아와서 아버님을 모시고 호동(壺洞)에 가서 상인(喪人) 박씨를 조문하였는데, 가마(加麻)²⁸⁴하고 들어가 봉조하(朴聖源) 영연(靈筵)에 곡하고 돌아오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유정찬(柳廷燦)과 유희일(柳希一)이 보러 왔다.

十一日. 晴. 元興甫早時來見, 可喜. 食後方欲入去泮村之際, 成云來傳仲瞻氏小札, 而表叔以客氣不安云, 故促入則小可矣. 回來陪父主, 往壺洞, 弔朴喪人, 而加麻入哭於奉朝賀靈筵而來. 日已夕矣. 柳廷燦及柳希一來見.

▪ 12일. 이른 아침 남동(南洞)에 가서 김 생원(金生員) 부자를 만나고 돌아왔다. 풍안(風安) 박 생원(朴生員)의 서신이 전주(全州)에서 보내왔는데 서로 헤어지고 20여 일 만에 비로소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기뻐다. 김생(金生)과 함께 반촌(泮村)에 들어가 표숙(表叔)을 만나 문안하고 오는 길에 탐동(楡洞) 원흥보(元興甫)의 집에 들어가니 흥보가 술과 안주를 내놓았다. 김생과 오래도록 석사(石事)에 관해 의논한 후에 돌아왔다.

十二日. 早朝往南洞, 見金生員父子而來. 風安朴生員書封, 自全州來傳, 相離二十餘日, 始得信奇喜喜. 與金生入泮村, 見表叔調候, 而來路入楡洞元興甫家, 興甫爲進酒饌矣. 與金生移時論問石事後還來.

▪ 13일. 맑다. 오늘은 바로 회시(會試) 이틀째이다. 비바람 때문에 매우 염려되었는데 날씨가 맑아 다행이다. 박 영평(朴永平) 댁에 가서 양천(楊川) 어른의 궤연에 들어가 곡하고 돌아왔다.

十三日. 晴. 今日乃會試二日也. 深以風雨爲慮矣, 日氣清朗幸幸. 往朴永平宅, 入哭楊川丈几筵而來.

▪ 14일. 맑다. 표숙(表叔)과 이종형이 반촌(泮村)에서 왔는데 노복과 말을

284) 가마(加麻) : 제자가 스승의 상(喪), 혹은 후배가 존경하는 선배의 상에서 심상(心喪)을 입는 표시로 겉옷에 삼베 형질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데리고 왔다. 이종형은 그대로 쌍동(雙洞)에 머물며 방(榜)이 붙기를 기다렸다. 숙부님은 미호(溟湖)에 갔는데 스승님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날 이동(泥洞)에 가서 유자일(兪子一)을 만나고 오는 길에 암문동(暗門洞)에 들어가 상중인 홍낙현(洪樂賢)을 만났는데, 저녁에 비가 올 것 같으므로 서둘러 돌아왔다. 그러나 방이 붙었다는 소식은 없으니 매우 고민스럽다.

十四日. 晴. 表叔及姨從兄, 自泮村來到, 而率奴馬而來. 姨兄仍留雙洞待榜. 叔主往溟湖, 爲見丈席故也. 是日往泥洞, 見兪子一, 而來路入暗門洞, 見洪哀樂賢, 而夕時有雨意, 故促還, 而榜奇寂然, 憫憫.

▪ 15일. 이른 아침 영희전(永禧殿) 입직소(入直所)에 가서 이 영유(李永柔)를 만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바둑알만 하였다. 표숙(表叔)이 미음(溟陰)에서 왔는데 방(榜)이 붙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한다. 우리 고을에서는 석사(碩士) 임학룡(林學龍)이 높은 성적으로 방이 붙었고 나머지는 모두 낙방하였으니 개탄스럽다. 밤에 집에 보낼 편지를 써서 흥양 본가에 부쳤다.

十五日. 早朝往永禧殿入直所, 見李永柔, 移時談話而來, 雨霰而大如碁子矣. 表叔自溟陰來到, 而聞榜出已久. 本縣林碩士學龍高榜, 而其餘皆落漠可歎. 夜間修家書, 付於興陽本家耳.

▪ 16일. 일찍 출발하여 숙부님과 같이 삼문(三門) 밖 여막(旅幕)에 가서 고향의 여러 벗과 송별하고 왔다. 오후에 남동(南洞)에 가서 남궁 석사(南宮碩士)를 만나고 왔다.

十六日. 早發, 偕與叔主, 往三門外旅幕, 送別一鄉諸友而來. 午後往南洞, 見南宮碩士而來.

▪ 17일. 종일 비가 내려 어디에도 갈 수 없으니 매우 괴롭다.

十七日. 終日雨作, 不得往來於諸處, 憫憫.

▪ 18일. 맑다. 이른 아침 남동(南洞) 김 생원(金生員) 댁에 갔더니 아침밥을

내왔으므로 밥을 먹은 뒤에 돌아왔다. 김생(金生)과 함께 이현(梨峴)의 여사(旅舍)에 가서 벗 유계한(柳季翰)을 찾으니 임 진사(林進士)도 와서 자리에 앉아 있기에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작별하고 이어 호동(壺洞)에 가서 박자직(朴子直)을 만나고 왔다.

十八日. 晴. 早朝往南洞金生員宅, 則爲饋朝飯, 故食後還來. 與金生往梨峴旅舍, 爲訪柳友季翰, 則林進士, 亦來坐座, 故移時談話. 遂別仍往壺洞, 見朴子直而來.

▪19일. 밤에 내리던 비가 아침까지 보슬보슬 내린다. 봄비는 그치질 않고 또 한식(寒食)이니, 나그네의 심사에 고향을 그리는 서글픔이 없겠는가. 다행인 것은 아버님의 기력이 점차 회복되고 걷는 것도 예전과 같으시니 그 기쁨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

十九日. 夜雨至朝微雨. 春雨彌留, 又是寒食矣, 客子之懷, 能無感愴於思鄉乎. 所幸者, 父主氣力, 漸至快蘇, 行步如前, 其於欣喜, 不可形言.

▪20일. 아침에 흐리더니 저녁에 맑다. 밥을 먹은 후에 아버님을 모시고 호동(壺洞)에 갔다. 아버님이 몇 줄의 글을 지어 겸재(謙齋)²⁸⁵의 궤연(几筵)에 곡을 하고 이어서 건전(遣奠)²⁸⁶에 참여하였다. 저녁에 아버지를 모시고 쌍동(雙洞)에 돌아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 다시 호동(壺洞)으로 가니, 말에서 내리자마자 인정(人定)²⁸⁷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주인장과 윤 생원(尹生員) 어른을 찾아 함께 의막(依幕)에 머물렀는데, 대개 내일은 바로 겸재 어른의 발인이므로 연반(燃班)을 보고자 해서 그러한 것이다. 이날 밤 오경

285) 겸재(謙齋) : 박성원(朴聖源, 1697~1767)으로,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사수(士洙), 호는 겸재(謙齋)이다. 이재(李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세손강서원유선(世孫講書院諭善)이 되어 세손인 정조를 보도(輔導)하였으며, 참판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저서로는 《돈효록(敦孝錄)》, 《보민록(保民錄)》, 《돈녕록(敦寧錄)》, 《겸재집(謙齋集)》 등이 있다.

286) 건전(遣奠) : 발인할 때 대문 밖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287) 인정(人定) : 조선시대 치안 유지를 위해 실시한 통행금지 제도로, 매일 밤 10시경에 28번의 종을 쳐서 4대문의 문을 닫고 외부와의 통행을 막는 한편, 성내에서는 고관대작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통행이 금지되었다. 28번은 28수(宿)의 의미한다.

(五更)²⁸⁸이 되자 얼마 안 있어 파루(罷漏)를 쳤다. 인하여 상여를 따라 광희문(光熙門)을 나가 전교교(箭郊橋)가에 이르니 날이 밝으려 했다. 독포(獨浦)에 이르러 배 위에 널을 실으니 날은 어느새 아침이었다.

二十日. 朝陰晚晴. 食後陪親, 往壺洞. 父主以數行文, 哭謙齋几筵, 仍參遣奠. 夕時陪親, 還來雙洞. 夕食後, 復往壺洞, 則纔得下馬, 卽撞人定. 尋主人丈及尹生員丈, 而同留依幕, 盖明日卽謙齋丈席發鞞, 故欲觀燃班而然也. 是夜五更, 良扣罷漏. 因隨輻出光熙門, 抵箭郊橋邊, 日欲曉矣. 至獨浦載柩船上, 日已朝矣.

▪21일. 맑고 바람이 불다. 마침내 박자직(朴子直)을 위로하고 작별한 다음 채찍을 재촉하여 주인택에 돌아왔다. 아침을 먹은 뒤에 아버님을 모시고 남산동(南山洞)에 가서 참의(參議) 이복상(李復祥)을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 난동(蘭洞)을 찾아가 상중에 있는 유 연안(兪延安)을 위로하였다. 다시 정동(貞洞)으로 향하여 영유(永柔) 이연상(李衍祥)을 만나고, 또 안국동(安國洞)을 향하여 민황주(閔黃州)를 만났는데, 황주가 음식을 보내 요기하였다. 저녁에 쌍동(雙洞)으로 돌아왔다.

二十一日. 晴而風. 遂慰別朴子直, 促鞭還主人宅. 朝飯後, 陪父主, 往南山洞, 見李參議復祥. 還尋蘭洞, 慰兪哀延安. 轉向貞洞, 見李永柔衍祥, 又向安國洞, 見閔黃州, 黃州饋以糲飢. 夕時還雙洞.

▪22일. 맑다. 일찍 일어나 이현(梨峴)의 서 초관(徐哨官)의 집에 가서 먹을 사는 일을 언급한 뒤에 다시 계한(季翰)을 만났다. 오는 길에 효교(孝橋)에 들어가 선전관(宣傳官) 오재휘(吳載徽)를 만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시 예동(藝洞)으로 향하여 참봉(參奉) 김두열(金斗烈)을 찾아가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또 필동(筆洞)에 가서 상중에 있는 홍낙현(洪樂賢) 형제를 만났다. 한참이 지난 뒤에 쌍동(雙洞)으로 돌아오니 달이²⁸⁹ 서산에

288) 오경(五更) :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파루는 새벽 4시경인 오경삼점(五更三點)에 친다. 따라서 저본의 '三更'은 정황상 '五更'의 오기로 보고 고쳐서 번역하였다.

289) 달이 : 시간의 흐름상 저본의 '日'은 '月'의 오기로 보고 고쳐 번역하였다.

지려고 하였다. 마침내 아침을 먹고 벗 유계한(柳季翰)과 유 서방(柳書房) 정찬(廷贊) 및 다른 두 사람과 같이 청련암(靑蓮菴)에 가서 공부를 했다. 청련암에 갔더니 적막하고 조용한 절집은 석벽 사이에 의지하고 있어 자못 경치가 아름다운 모습이었었는데, 도성과의 거리가 2~3리에 불과하다 보니 승려들의 모양새와 말씨가 시정(市井)의 무리들과 다름이 없었다. 또 암자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이미 여러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행동거지가 매우 괴이하였다. 조식으로 나오는 밥과 반찬도 매우 기이하고 흥하므로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二十二日. 晴. 早起往梨峴徐哨官家, 以質墨事言後, 更見季翰, 來路入孝橋, 見吳宣傳載徽, 移時談話. 轉向藝洞, 尋見金參奉斗烈暫話後, 又往筆洞, 見洪哀樂賢兄弟, 稍久來雙洞, 月欲西矣. 遂食朝飯, 與柳友季翰, 柳書房廷贊及他兩人, 往靑蓮菴, 爲做工也. 往則蕭然梵宇, 依石壁間, 頗有境佳之樣, 而去都城不過二三里, 其僧子模樣言語, 無異市井之輩. 且菴中做工之人, 先已數人, 其舉止甚怪矣. 朝夕之飯與饌, 極怪且凶, 故無久留之意.

▪23일. 아침에 맑고 저녁에 비가 오다. 아침을 먹은 후에 들어오기로 마음을 정하고 여러 사람과 동대문(東大門)을 통해서 들어가 쌍동(雙洞)으로 오니 날은 아직 아침이었다. 이날 남동(南洞) 김 생원(金生員) 댁에서 계한(季翰)에게 지시(指視)하여 함께 공부할 생각이었다.

二十三日. 朝晴夕雨. 朝食後, 決意入來, 與諸人入自東大門來雙洞, 日猶朝矣. 是日指視季翰於南洞金生員宅, 同爲做工計也.

▪24일. 밤에 조금 내리던 비가 아침까지 개지 않았다. 아침을 먹은 뒤에 비가 조금 그쳤으므로 아버님이 가평(嘉平)을 가셨으니 박 봉조하(朴奉朝賀)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저녁 무렵에 바람이 매우 사나워지자 아버님의 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스러움을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이날 남동(南洞)에 가서 저녁에 돌아왔다.

二十四日. 夜小雨, 至朝不霽. 朝飯後, 雨勢小歇, 故父主作嘉平之行, 爲參朴奉朝賀會葬故也. 稍晚風氣甚惡, 想父主行次之難堪, 憫慮不可言. 是日

往南洞, 夕而還.

▪25일. 맑고 바람이 불다. 이날 또 남동(南洞)에 갔다가 돌아왔다.

二十五日. 晴而風. 是日又往南洞而來.

▪26일. 맑다. 일찍 남동(南洞)에 가서 유 석사(柳碩士)와 여러 사람과 조암(槽巖)에 올라가 기이한 암석과 바위 절벽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二十六日. 晴. 早往南洞, 與柳碩士諸人, 上槽巖玩奇巖及石崖而還.

▪27일. 맑다. 또 남동(南洞)에 갔다가 바로 쌍동(雙洞)으로 돌아왔다. 다시 이현(泥峴)에 가서 유자일(兪子一)과 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김생(金生)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이불을 끼고 누워 있으니 매우 걱정이다.

二十七日. 晴. 又往南洞, 卽還雙洞. 更往泥峴與兪子一, 終日談話而來. 金生不健, 擁衾憫憫.

▪28일. 아침에 맑다가 저물녘에 비가 오다. 날이 포시(晡時)²⁹⁰가 되자 아버님이 가릉(佳陵)에서 돌아오셨다. 박 장석(朴丈席)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저녁에 김생(金生)과 연동(蓮洞)에 가서 석공(石工) 및 원흥보(元興甫)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비석을 보고 돌아왔다.

二十八日. 朝晴暮雨. 日纔向晡, 父主自佳陵入來, 而聞朴丈席襄禮未行云, 不勝愕然. 夕時與金生往蓮洞, 率石工及元興甫兩人, 往見碑石而歸.

▪29일. 찬바람이 크게 일고 계다가 싸락눈까지 내리니 그 차고 냉랭한 기운이 한겨울과 다름이 없었다. 나는 본래 남도 사람으로 평소 봄기운이 일찍 화창해지는 줄만 알았지 늦봄이 이토록 혹독한 추위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별도로 이를 기억하였다가 장차 그러함을 증험하려 하였다.

290) 포시(晡時) : 신시(申時)를 말하는데 지금의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이다.

이는 바로 천기의 조화를 어긴 것이니 어찌 상서로운 징조이겠는가. 이현(梨峴)에 가서 계한(季翰)과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이날 밤에 집으로 보낼 편지를 써서 김백량(金白郎)에게 부치려고 했다.

二十九日. 寒風大作, 兼以微雪, 其寒冷, 無異隆冬. 余本南土之人, 素知春氣之早和, 不見暮春之有此酷寒, 別以記之, 欲驗來將然, 此是天氣之違和, 豈其瑞徵. 往梨峴, 與季翰談話而來. 是夜修家書, 欲付金生白郎也.

▪30일. 찬바람이 매우 거세게 일고 종일 어둡고 흐리다. 이른 아침에 청교(淸橋)의 오 통제사(吳統制使) 집에 가서 석사(碩士) 오재능(吳載能)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쌍동(雙洞)으로 돌아왔다. 아침을 먹고 아버님을 모시고 장흥동(長興洞) 내승(內乘) 정충달(鄭忠達)의 집에 갔더니 충달(忠達)은 숙직하러 들어갔다. 다만 그 아우를 만나서 박 도감(朴都監)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초리정동(楚里井洞)에 가서 참판(參判) 남태저(南泰著)를 만나 조금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거평동(居平洞)에 가서 인척인 전 수문장(田守門將) 소첩(少妾)을 만났다. 냉정동(冷井洞) 수사(水使) 전광훈(田光勳)의 집에 가니 전 수사가 숙직하러 들어갔으므로 만날 수 없었다. 다시 수사(水使) 전광국(田光國)의 집에 이르러 조문의 예를 행한 뒤에 한림동(翰林洞) 낙안(樂安) 전광윤(田光允)의 집으로 내려오니 낙안은 결성(結城)으로 내려갔다, 그러므로 고마동(雇馬洞) 고산(高山) 이화(李禾)의 집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서소문 밖 토산(兎山) 민태열(閔台烈)의 집에 갔다. 그의 집은 웅장하고 위엄이 있어 서울에서 처음 보는 집이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장동(壯洞)의 대사간(大司諫) 조중회(趙重晦)의 집에 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 승지(承旨) 이의철(李宜哲)의 집을 찾아가더니 승지는 그때 회양(淮陽) 현감의 서경차(署經次)²⁹¹차 나갔으므로 만날 수 없었다. 다시 신 영장(辛營將)의 집을 찾아가서 영장의 형제를 만난 뒤에 이현(梨峴)의 초관(哨官) 서재영(徐載永)의 집에 들어가

291) 서경차(署經次) : 서경은 임금이 관원을 서임(敍任)할 때 그 사람의 문벌, 이력 등을 갖추 써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를 구하면, 대간에서 그 하자(瑕疵)의 유무를 조사하여 하자가 없어야 이조(吏曹)에서 비로소 사령장을 교부한다. 세 차례 서경을 구하여 통과되지 않으면 벼슬에 임명되지 못한다.

잠시 쉬었다. 요기하고 여막으로 와서 계한(季翰)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쌍동(雙洞)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晦日. 寒風狂發, 終日昏濛. 早朝往於清橋吳統使家, 與吳碩士載能, 移時談話後, 還雙洞. 朝飯陪父主, 往長興洞鄭內乘忠達家, 忠達入直, 只見其弟, 傳朴都監書簡. 遂往楚里井洞, 見南參判泰著, 稍久談話後, 往居平洞, 見田威守門將少妾. 往冷井洞田水使光勳家, 水使入直, 故不得逢面. 更到田水使光國家, 行弔禮後, 下來翰林洞田樂安光允家, 樂安下去結城, 故尋雇馬洞李高山禾家未尋, 故更往西小門外閔兎山台烈家, 其家庭之雄威, 京城初見. 稍話後, 來壯洞趙大司諫重晦家, 暫話後, 尋李承旨宜哲家, 承旨時以淮陽倅署經次出去, 故不得相見. 更尋辛營將家, 見營將兄弟後, 歷入梨峴徐哨官載永家暫憩. 瘳飢來旅幕, 見季翰暫話. 遂還來雙洞, 日已夕矣.

▪3월 1일. 아버님이 비음기(碑陰記)를 청하는 일로 미호(溟湖)로 행차하셨다. 이날 지방(紙房)에 가서 정초지(正草紙)²⁹²를 사서 왔다. 내일은 바로 절일(節日)이다.

三月初一日. 父主以請乞碑陰事, 行次溟湖. 是日往紙房, 買正草而來. 明乃節日也.

▪2일. 아버님이 미호(溟湖)에서 들어오셨다.

初二日. 父主自溟湖入來.

▪3일. 조금 따뜻하다. 자못 따뜻한 봄날이 되려는 듯하였다. 파루(罷漏)가 울린 뒤에 즉시 출발해서 김생(金生)과 이현(梨峴)에 가서 계한(季翰)과 여러 접인(接人)²⁹³과 함께 귤문 밖에 이르니 이미 초각(初刻)에 이르렀다. 과장에 들어가 우러러 바라보니, 임금님은 정좌하고 이미 옥교(玉轎)²⁹⁴를

292) 정초지(正草紙) : 과거시험에 사용하던 시지(試紙), 과지(科紙)이다.

293) 접인(接人) : 글방 학생(學生)들이나 과거(科擧)에 응(應)하는 유생(儒生)들이 모여 이룬 동아리를 말한다.

294) 옥교(玉轎) : 국왕이 타는 교여(輿輿)로 위를 꾸미지 아니한 것을 이른다.

타고 승정문(崇政門)으로 이어(移御)하셨으므로 어가를 따라서 승정문으로 올라갔다. 전교(傳敎)를 내린 후에 다시 승현문(崇賢門)으로 이어하시므로 다시 어가를 따라 내려왔는데, 지척에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임금님과 동궁(東宮)을 자세히 우러러보니 옥체가 강건하시어 참으로 우리 백성들의 큰 경사였다. 과제는 바로 ‘화외소거(花外小車)’²⁹⁵다. 오후에 곧바로 나왔다. 初三日. 稍暖. 頗有春和意思. 罷漏後, 卽發與金生往梨峴, 同季翰諸接人, 詣闕門外, 至巳初刻. 入場仰瞻, 天顏正坐, 已玉轎移御崇政門, 故隨駕上崇政門矣. 傳敎後, 復御崇賢門, 故更隨駕下來, 而咫尺俯伏, 詳瞻天顏及東宮, 則其玉體之強健, 眞我臣民之大慶也. 題卽花外小車也. 午後卽出來.

▪4일. 맑다. 아버님을 모시고 계산동(桂山洞) 흥 봉조하(洪奉朝賀, 흥계희(洪啓禧))에게 갔으나 교외로 나갔으므로 아버님은 영희전(永禧殿)으로 돌아왔다. 나는 안국동(安國洞)으로 가서 민 황주(閔黃州)를 만나 민 청풍(閔淸風)의 서간을 전한 뒤에 종루(鍾樓)에 가서 정초지(正艸紙)를 사서 돌아왔다. 내일은 곧 승보시(陞補試)²⁹⁶가 치러지는 날이다.

初四日. 晴. 陪父主, 往桂山洞洪奉朝賀, 出郊, 故父主還來永禧殿. 予往安國洞, 見閔黃州, 傳閔淸風書柬, 而後往鍾樓, 質正艸而來. 明日, 乃陞補也.

▪5일. 비가 오다. 갑자기 들으니 승보시(陞補試) 기한이 연기되었으므로 과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初五日, 雨. 暫聞陞補退定, 故不得入場.

▪6일. 맑다. 종일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295) 화외소거(花外小車) : 사마광(司馬光)이 낙양(洛陽)의 승덕각(崇德閣)에서 소옹(邵雍)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도착하지 않자 시를 지어 “숲 속 높은 누각에서 바라본 지 하마 오렌데, 꽃밭 너머 작은 수레 여대 오지를 않네.[林間高閣望已久, 花外小車猶未來.]”라고 하였다. 《性理大全書 卷 39》

296) 승보시(陞補試) : 승보시는 소과(小科)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이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에게 매달 1회씩 시행하였다. 여기에 합격하면 생원(生員)·진사(進士)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初六日. 晴. 終日不出一步.

▪7일. 맑다. 이른 새벽에 반촌(泮村)에 가서 과장으로 들어갔는데, 시제(詩題)가 순탄하지 않았기에 부제(賦題)를 짓고 돌아왔다. 집에서 보낸 서신이 하인 편에 왔다. 집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비로소 편지를 받아보니 기뻐다.

初七日. 晴. 早曉往泮村入場, 以詩題之不順, 做賦題而還, 家書自下人便來到. 離家三月, 始見音信, 可喜.

▪8일. 맑다. 서소문 밖 민태열(閔台烈)의 집에 가서 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初八日. 晴. 往西小門外閔台烈家, 終日談話而來.

▪9일. 맑다. 종현(鍾峴) 한강서(韓江西)의 집에 가서 강서와 함께 온종일 모시고 이야기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현(泥峴)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전(永禧殿)²⁹⁷에 들어가 이영유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주동(鑄洞)의 안성(安城) 이성모(李聖謨) 집에 들어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필곡(筆谷)에 상인(喪人) 홍낙현(洪樂賢)의 집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初九日. 晴. 往鍾峴韓江西家, 與江西終日陪話. 來路入泥峴暫話, 入永禧殿, 與李永柔暫話後, 入鑄洞李安城聖謨家, 稍話後, 入筆谷洪喪人樂賢家, 暫話而來.

▪10일. 맑다

初十日. 晴.

297) 영희전(永禧殿) : 조선의 역대 임금 가운데 태조(太祖)·세조(世祖)·원종(元宗) 영정(影幀)을 봉안하여 제사 지내던 건물로, 예전에는 별도의 전호(殿號)가 없이 '남별전(南別殿)'이라고 불렀는데, 1690년(숙종16)에 숙종의 명으로 대신이 관각(館閣)과 예조의 당상과 모여서 의논하여 '영희전'이라는 이름을 지어 올렸다. 《국역 숙종실록 16년 10월 27일》 추후에 숙종·영조(英祖)·순조(純祖)의 영정도 봉안하였다.

▪11일. 일찍 밥을 먹은 뒤에 아버지를 모시고 서소문(西小門) 밖 차동(車洞)에 가서 민 석사(閔碩士) 집에 들어갔으나 민 석사는 출타 중이었으므로 백랑 여차(白浪旅次)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민 석사의 집에 갔다. 조금 오래도록 이야기하고 뒤에 진사(進士) 이래(李來)의 집을 찾아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서소문 안으로 들어갔다. 정동(貞洞)에 가서 이 영유(李永柔)와 영유의 아들을 만나 조금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十一日. 朝食後陪父主, 往西小門外車洞, 入閔碩士家, 則碩士出他, 故往白浪旅次暫話後, 往閔碩士家. 稍久談話後, 尋李進士來家暫話後, 入西小門內. 往貞洞, 見李永柔與永柔子, 稍話而來.

▪12일. 비가 오다. 온종일 쏟아질 것 같으므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는데, 전일(前日)의 직강(直講) 박사문(朴師文)이 와서 자고 돌아갔다.

十二日. 雨. 終日如注, 故不出一步, 而前日朴直講師文, 來宿而去.

▪13일. 맑다. 일찍 밥을 먹은 후에 행장을 꾸려 미호(溟湖)로 가다가 망우치(亡牛峙)에 이르러 잠시 쉬 뒤에 미호에 이르렀다. 장석(丈席, 김원행)을 배알하고 오래도록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물러나 보은(報恩)의 숙소에 가니 이안(履安, 김원행의 아들)이 정성스레 맞아주었다. 인하여 하직하고 다시 장석(丈席)에게 들어가 비문 일로 누누이 간청하였는데, 끝내 허락하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하직인사하고 돌아와 우계(牛溪)에 이르러 흥 봉조하(洪奉朝賀)를 만났는데, 정각(亭閣)의 높고 걸출함이나 천석(泉石)의 정갈하고 고운 모습,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 등은 참으로 내가 보기 드문 광경들이었다. 잠반와(潛盤窩)에 올라가서 구경한 뒤에 다시 노기루(老寄樓)에 가서 조금 쉬었다. 오는 길에 판서(判書) 이 경우(李景祐)의 정각(亭閣)에 들어가서 한 참봉(韓參奉)을 만나고 곧바로 이 서방(李書房) 집에 들어갔더니 주인이 없었다. 향동(項洞)의 여 생원(呂生員) 집에 와서 신지(愼之)의 영전에 들어가 곡을 하였다. 인하여 요기를 하고 말에게 꼴을 먹인 다음 채찍을 재촉하여 쌍동(雙洞)에 들어왔다. 해가 이미 저물었다.

十三日. 晴. 早食後, 裝往漢湖, 至亡牛時, 暫憩後 至漢湖, 拜謁丈席, 移時奉話少退. 往報恩廬次, 履安與之款接. 因辭復入丈席, 以碑文事, 縷縷懇乞, 終不許之, 奈何. 辭歸至牛溪, 見洪奉朝賀, 其亭閣之高傑, 泉石之精麗, 瀑布之漱溜, 眞吾所罕見. 上潛盤窩遊玩後, 復往老寄樓小憩. 來路入李判書景祐亭閣, 見韓參奉, 卽來入李書房家, 則無主矣. 來項洞呂生員家, 入哭愼之几筵. 因爲瘳飢秣馬, 而促鞭入來雙洞. 日已昏矣.

▪14일. 맑다. 밥을 먹은 후에 남동(南洞)에 가서 성통(聖通)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나무 밑으로 가서 쉬고 있는데 어영청(御營廳) 병마(兵馬)의 습각(習角)²⁹⁸을 보니 그 웅장한 위세와 호령이 참으로 늙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먼 길 달려 북방을 평정할 듯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다.
十四日. 晴. 食後往南洞, 與聖通氏暫話. 往休松樹下, 觀御營兵馬之習角, 其雄威號令, 眞凜凜, 能使人起長駟平北之心矣.

▪15일. 맑다. 아침 일찍 박성서(朴聖瑞)가 고향에서 올라오니 그 기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개 박생(朴生)은 채찍을 나란히 하고 동행하다가 뒤쳐졌던 것인데, 전주 감영의 소식을 알 수 없어 몹시 기대가 되던 차에 뜻밖에 서로 만나니 다른 곳에서 만난 것과 절로 구별이 되었다. 밥을 먹은 후에 박생(朴生)과 안동(安洞)에 가서 민 황주(閔黃州)와 정담을 나누는 뒤에 정동(眞洞) 박창한(朴昌漢)의 집으로 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이 영유(李永柔)의 집으로 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소의문(昭義門)²⁹⁹의 백랑 여점(白浪旅店)에 가서 해의(海衣, 김)를 봉하여 차동(車洞)의 진사(進仕) 이래(李來)의 집에 전해주었다. 다시 거평동(居平洞) 전 수문장(田守門將) 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하고, 또 조 판서(趙判書) 집에 가서 그 아들

298) 습각(習角) : 군대 악기의 한 가지인, 각을 부는 것을 익히는 것이다.

299) 소의문(昭義門) : 저본이 '昭'는 '昭'의 오키로 고쳐 번역하였다. 소의문은 서울 사대문(四大門) 사이에 있는 4개의 작은 문 중에 하나로, 도성의 서남 방향 관문이다. 처음에는 '소덕문(昭德門)'으로 불렸으나 이후 '소의문(昭義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속칭 서소문(西小門)이라 한다. 일제의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되었다. 과거 서소문 밖에서 주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진사(進士) 조영경(趙榮慶)과 잠시 이야기하였다. 쌍동(雙洞)으로 돌아왔다.十五日. 晴. 早朝朴生聖瑞, 自鄉上來, 其喜喜不可言. 盖朴生聯鞭同行而落後, 完營聲息莫通矣, 甚爲企待矣. 意表相逢, 自別於他處矣. 食後與朴生往安洞, 與閔黃州穩話後, 來貞洞朴昌漢家. 暫話後, 來李永柔家暫話. 遂昭義門, 往白浪旅店, 封海衣, 往傳于車洞李進士來家. 又往居平洞田守門將家暫話, 又往趙判書家, 與其子進士榮慶暫話. 還雙洞.

▪16일. 바람 불다. 김(金), 박(朴) 두 사람과 꽃과 버들을 구경하고자 했는데, 어제 유자일(兪子一)과 함께 구경하기로 서로 약속하였으므로 이동(泥洞)에 갔더니 자일은 몸이 아파서 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김(金), 박(朴) 두 사람과 함께 남산(南山)에 오르니 일천 가지에 일만 꽃송이가 흐드러지게 늘어져 참으로 빼어난 경치였다. 잠두(蚕頭)를 따라 남대문으로 내려와 다시 차동에 갔다가 마침내 동접(同接)³⁰⁰하기로 약속하고 왔다.

十六日. 風. 與金朴兩人, 欲玩花柳, 而昨與兪子一相約共玩, 故往泥洞, 則子一以身病不往, 故只與金朴登南山, 則千枝萬葩, 垂垂冉冉, 眞勝景也. 從蚕頭下於南大門, 復往車洞, 遂相約同接而來.

▪17일. 흐리다. 밥을 먹은 뒤에 차동(車洞)으로 가다가 주동(鑄洞)의 안성(安城) 이성모(李聖謨) 집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별하려고 하자 만류하며 붙잡기를 멈추지 않았다. 조금 쉰 뒤에 또 이현(泥峴)에 들어가 자일(子一)과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하늘을 보니 장차 비가 올 것 같은데다가 또 천둥소리가 매우 요란한 것을 듣고 서둘러 차동(車洞)으로 가서는 그대로 머물렀다.

十七日. 陰. 食後將往車洞, 歷入鑄洞李安城聖謨家暫話, 欲別則挽執不已. 小憩後, 又入泥峴, 與子一稍話後, 仰看天色, 將雨又聞雷霆之聲甚轟, 促往車洞仍留.

300) 동접(同接) : 유사(儒士)들은 으레 동료들과 함께 모여 공부하는데, 이를 이름 붙여 ‘동접(同接)’이라고 한다.

▪18일. 맑다. 차동(車洞)에서 머물렀다.

十八日. 晴. 留車洞.

▪19일. 맑다. 다시 차동(車洞)에서 머물렀다. 오늘은 아버님께서 보러 오셨다.

十九日. 晴. 更留車洞. 是日父主來見.

▪20일. 맑다. 오후에 쌍동(雙洞)으로 왔다. 내일 임금님의 거동을 보고 싶지만 길이 멀어서 가기가 어려우니 마침내 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주동(鑄洞)에 가니 생원(生員) 이광주(李匡柱)가 서울에 올라왔다고 하였다. 마침내 노복과 말을 보내 달라 청하고 온 뒤에 자일(子一)을 찾아갔다. 마침내 차동(車洞)에 갔다.

二十日. 晴. 午後來雙洞. 欲觀明日舉動, 而以路遠難往, 遂決意不去. 往鑄洞, 言李生員匡柱上來, 遂送奴馬而請來後, 歷訪子一, 遂往車洞.

▪21일. 바람이 불다. 오후에 쌍동(雙洞)으로 왔는데, 내일 임금님의 수레가 들어오는 의례를 보고 싶어하였다.

二十一日. 風. 午後來雙洞, 欲觀明日玉輦入來之儀故也.

▪22일. 맑다. 일찍 아버님을 모시고 전교(箭橋)에 나가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보고 군병(軍兵)과 백관(百官)을 두루 보았는데, 성대(聖代)의 기상을 볼 수 있었으며, 도성에 가득한 사람들은 천이나 만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저물녘에 동대문에 들어갔는데, 사람은 많고 문은 작아 거마(車馬)가 그 사이로 가니 그 비좁음이 어깨가 부딪칠 정도여서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二十二日. 晴. 早陪父主, 出箭橋, 瞻御容, 周覽其軍兵及百官, 而可見聖代之氣像者. 士女傾城, 不可以千萬計矣. 暮入東大門, 而人多門小, 車馬間之, 其狹隘肩磨, 幾至氣塞矣.

▪23일. 맑다. 일찍 밥을 먹은 후에 차동(車洞)에 나갔다.

二十三日. 晴. 朝食後, 出去車洞.

▪24일. 맑다. 아버님이 미호(湑湖)로 행차하셨다.

二十四日. 晴. 父主行次湑湖.

▪25일. 맑다. 아버님이 미호(湑湖)에서 들어오셨다.

二十五日. 晴. 父主自湑湖入來.

▪26일, 27일, 28일. 맑다. 오후에 차동(車洞)으로부터 쌍동(雙洞)에 와서 유숙하였다.

二十六日, 七日, 八日. 晴. 午後自車洞, 來留雙洞.

▪29일, 30일. 그대로 쌍동(雙洞)에서 유숙하였다.

二十九日, 晦日. 仍留雙洞.

▪4월 1일. 맑다. 아버님이 회덕(懷德)으로 길을 떠나셨으니, 미호 장석(湑湖丈席)³⁰¹께서 비문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역천(櫟泉)³⁰² 장석(丈席)께 글을 부탁하고자 해서였다. 밥을 먹은 후에 차동(車洞)으로 나갔다.

四月初一日. 晴. 父主作懷德之行, 以湑湖丈席之不撰碑文, 故欲乞文於櫟泉丈席故也. 食後出去車洞.

▪2일. 맑다.

初二日. 晴.

301) 미호 장석(湑湖丈席) : 김원행(金元行, 1702~1772)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백춘(伯春), 호는 미호(湑湖) 또는 운루(雲樓),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조선 후기 노론 명문가 출신으로, 노론의 학맥을 이어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의 사상은 대체로 김창협(金昌協)의 학설을 답습해 주리(主理)와 주기(主氣)의 절충적인 입장에서 있었다. 저서로 《미호집(湑湖集)》이 있다.

302) 역천(櫟泉) :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의 호이다.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회가(晦可), 시호는 문원(文元)으로 송준길의 현손이며, 이재(李穡)의 문인이다. 저서로 《역천집(櫟泉集)》이 전한다.

▪3일에서 7일. 비로소 비가 오다.

初三日至初七日. 始雨.

▪8일. 큰 비가 오다. 등을 걸 수 없었다.

初八日. 大雨. 不能掛燈.

▪9일. 비로소 등을 걸고서 밤에 율시 한 수를 지었다.

우리나라 풍속 사월 초에는	國俗吾東四月初
서울의 무수한 집에 종이등꽃 핀다네	長安萬戶紙燈花
높은 누각에서 손으로 가리키며 서로 말하고	高樓指點仍相語
시험 삼아 성진 별에게 많고 적음을 물어 보네	試向疏星問小多

初九日. 始掛燈, 夜拈一律曰: “國俗吾東四月初, 長安萬戶紙燈花, 高樓指點仍相語, 試向疏星問小多.”

▪10일. 맑다.

初十日. 晴

▪11일.

十一日.

▪12일. 맑다.

十二日. 晴.

▪13일. 비가 많이 오다.

十三日. 大雨.

▪14일. 맑다.

十四日. 晴.

▪15일, 16일, 17일, 18일. 늦게 밥을 먹은 뒤에, 쌍동(雙洞)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김생(金生)을 만나 아버님이 입성(入城)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돌려 들어왔다. 비록 큰 병은 없었으나 안색이 수척하시니 답답한 마음 무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비문은 역천(櫟泉) 장식(丈席)께 받아서 돌아오셨으니 매우 다행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 하랴.

望日, 六日, 七日, 八日. 晚食後, 欲入雙洞時, 適逢金生, 聞父主入城消息, 顛倒入來, 則雖無大端身病, 神色瘦敗, 悶悶何言. 然碑文, 受得於櫟泉丈席而來. 幸幸何言.

계사년(1773) 2월 회행일기

癸巳二月會行日記

▪30일. 아침에는 맑았다가 저녁에 바람이 불었다. 일찍 부모님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출발하여 과역(過驛) 시장 주변에 이르러 잠시 휴식한 뒤 양강원(楊江院)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저녁에 대강(大江) 광주덕(光州宅)에 이르러 유숙하는데 마륜(馬輪)의 초천(草川) 형님과 송원조(宋元祚), 송성복(宋聖福), 귀산(龜山)의 보성(寶城) 형님이 찾아와 보고 갔다. 이날은 50리를 갔다.

晦日. 朝晴晚風. 早辭親庭, 離發抵過驛市邊, 暫休後, 至楊江院秣馬. 夕抵大江光州宅留宿, 馬輪草川兄主及宋元祚, 宋聖福, 龜山寶城兄來見而去. 是日行五十里.

▪3월 1일. 맑았다. 식후에 면교(面橋)의 여러 형님들과 이별하고 낙안(樂安)으로 향하였다. 낙안 향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는데 향교의 집사와 교임(校任)인 류씨와 박씨 두 벗이 잘 대접해주었다. 김암(黔巖)에서 상중인 최씨 집에 노복을 보내 서책을 빌릴 계획을 하였다. 얼마 뒤에 상중인 최씨가 학노(鶴奴)와 함께 와서 《역대록(歷代錄)》, 《백룡음(白龍吟)》, 《비운리(飛雲履)》, 《환주(還珠)》, 《타산석(他山石)》 5권의 서책을 소매에서 전해주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곧바로 길을 올랐다. 이어 순천(順天)을 향해 길을 정하였는데, 대개 재동(齋洞) 족숙(族叔)이 구례(求禮)에 머물고 있으므로 나란히 말을 타고 가려는 계획 때문이었다. 순천 관산촌(冠山村)에 인척 박씨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은 60리를 갔다.

三月初一日. 晴. 食後別面橋僉兄主, 向樂安. 至樂安鄉校秣馬, 而校執任柳朴兩友, 善爲接待矣. 送奴黔巖崔哀家, 借書冊計也. 有頃崔哀, 偕鶴奴而來, 袖其歷代錄白龍吟飛雲履還珠他山石五卷冊, 傳致而暫話後, 卽爲上道, 因向順天作路. 蓋齋洞族叔, 方留求禮, 故欲與聯鞭計也. 至順天冠山村朴戚家留宿. 是日行六十里.

▪ 2일. 일찍 출발하여 송원(松院)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으니 순천(順天) 땅이었다. 오후에 출발하여 구례(求禮) 문산(文山)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족속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떠나기로 약속하였다. 이날은 80리를 갔다.

初二日. 早發至松院, 秣馬中火, 順天地也. 午後離發, 至求禮文山留宿. 與族叔相話, 約與同行. 是日行八十里.

▪ 3일. 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잔수강(漣水江)³⁰³을 건너 산동원(山洞院)³⁰⁴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으니 남원(南原) 땅이었다.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나 길을 떠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숙성치(宿星峙)를 넘어 남원(南原)의 무수동(無愁洞)에 이르러 잠시 노씨 어른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우연히 내동(內洞)에서 상중인 김씨를 만나 위로를 한 뒤 곧바로 노씨 어른에게 절하며 하직 인사를 하였다. 외평(外坪) 누이의 집에 이르렀는데 집안 형편이 전보다 나아져 다행이었다. 유숙하였다. 이날은 60리를 갔다.

初三日. 食後發程, 越漣水江, 到山洞院秣馬, 南原地也. 獐風大作, 行路難堪. 越宿星峙, 至南原無愁洞, 暫話盧丈座上, 偶逢內洞金哀, 致慰後, 卽爲拜辭於盧丈. 至外坪妹家, 家樣稍勝於前, 可幸. 留宿. 是日行六十里.

▪ 4일. 일찍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떠나 남원 읍내 시장 주변에 이르러 식량과 말편자를 사고 곧바로 길에 올랐다. 울도천(栗道川)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저녁에 평당점(坪塘店)에서 유숙하였다. 이날은 60리를 갔다.

初四日. 早食後發程, 至南原邑內市邊, 買糧米及馬鐵, 卽爲上程. 至栗道川

303) 잔수강(漣水江) : 전라북도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남해의 광양만으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섬진강(蟾津江)의 다른 이름이다. 섬진강을 부르는 명칭은 지역마다 달랐는데 남원에서는 ‘순자강(鶻子江)’, 곡성에서는 ‘암록강(鴨綠江)’, 구례에서는 ‘잔수강(漣水江)’, 그리고 광양에서는 ‘섬진강(蟾津江)’ 혹은 ‘섬강(蟾江)’으로 각각 기록되었다.

304) 산동원(山洞院) : 관리들의 출장 숙소를 이른다. 산동은 지리산 밑의 골짜기이므로 ‘산골’이라 불렀고 고려 때 산동부곡(山洞部曲), 조선 시대에 산동방(山洞坊)이라 불렀으며 산동원(山洞院)이 원촌에 있었다. 옛날에 산동원이 계곡동에 있었던 것을 인조 23년(1645년)에 운제(지금의 원촌)으로 옮겼고 이름도 운제원으로 개칭된 것이다.

中火. 夕抵坪塘店 留宿. 是日行六十里.

▪5일. 새벽녘에 출발하여 노고암회점(奴古巖回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전주부 내영(全州府內營) 주인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은 80리를 갔다. 마침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편을 만나 집에 편지를 부쳤다. 初五日. 曉頭登程, 至奴古巖回店, 朝飯秣馬. 至全州府內營主人家留宿. 是日行八十里. 適逢鄉下人便, 付家書.

▪6일. 아침 전에 길에 올라 삼례(參禮)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말이 조금 절뚝거리며 염려스러웠다. 여산(礪山) 선산에 이르러 성묘를 한 뒤 문수사(文殊寺)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절이 매우 황폐하였다. 이날은 70리를 갔다. 初六日. 朝前上道, 至參禮中火, 鬣者微蹇可慮. 至礪山先山省墓後, 到文殊寺留宿. 寺甚殊廢矣. 是日行七十里.

▪7일. 아침 전에 길에 올라 양주역(楊州驛) 마을을 지나 큰길로 나가 은진(恩津) 읍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말의 절뚝거림이 더욱 심해져 답답하였다. 오후에 이산읍점(尼山邑店)에 이르러 잠시 말에게 꼴을 먹이고, 판치(板峙)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은 90리를 갔다. 初七日. 朝前上程, 過楊州驛村, 出大路, 至恩津邑內中火. 而馬蹇滋甚可悶. 午後至尼山邑店暫秣, 至板峙留宿. 是日行九十里.

▪8일. 비 내릴 조짐이 있더니 새벽녘에 보슬비가 내렸다. 이른 시간에 출발하여 금강진(錦江津)을 지나 공주신점(公州新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그리고 말의 절뚝거림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잠시도 말을 탈 수 없었다. 고단하며 또 염려스러워 답답하였다. 길을 떠나 목단원(牧丹院)에 이르니 비가 내렸다. 비를 무릅쓰고 화원(河源)에 이르니 의복이 다 젖었다. 말에게 꼴을 먹이고 조금 있으니 비 내릴 조짐이 조금 갠다. 원대점(院垔店)에 이르렀는데 상사(上舍) 임학룡(林學龍)이 주막에 먼저 들어와 있으니 기뻐다. 인하여 함께 유숙하였다. 이날은 90리를 갔다.

初八日. 有雨意, 曉頭微雨. 早時發程, 越錦江津, 至公州新店, 朝飯秣馬. 而馬蹇益甚, 故不得暫騎. 憊且慮慮可悶. 離發至牡丹院, 雨作. 冒雨至花源, 衣服盡濕. 秣馬, 稍間雨意小霽. 至院垞店, 林上舍學龍甫, 先來入幕, 可喜. 因與同宿. 是日行九十里.

▪9일. 비가 올 기미가 보였으나 맑게 됐다. 이른 시간에 길에 올라 천안삼거리점(天安三渠里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실음소(失音所)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고, 김제역촌(金堤驛村)에서 우연히 생원(生員) 박성서(朴聖瑞)를 만났다. 정말로 다른 지방에서 친구를 만나니 그 기쁨은 헤아릴 수 없었다. 성환역(成歡驛) 앞에 이르러 소사(素沙)의 앞 들판을 바라보니 비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상황상 이미 가게에서 나와 부득이하게 채찍을 재촉하여 말을 계속 몰아 달리니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안개였다. 간신히 소사점(素沙店)에 이르니 사람들로 모두가 가득 찼지만, 비가 내려 주막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이날을 100리를 갔다.

初九日. 雨意快晴. 早時登程, 到天安三渠里店, 朝飯秣馬. 至失音所秣馬, 金堤驛村, 偶逢朴生員聖瑞甫. 正所爲他鄉逢故人, 其喜不可量. 至成歡驛前, 望素沙前坪, 風雨大作. 然勢已出店, 不得已促鞭長驅, 則非雨也, 乃風霧也. 艱到素沙店, 皆充滿而雨作. 入幕留宿. 是日行百里.

▪10일.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진위읍점(振威邑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곧바로 길을 나서 한 마장(馬場)³⁰⁵도 지나지 않았는데 족속이 말에서 떨어져 오른쪽 어깨가 뼈가 어긋났다. 잠시 치료하고 상류천점(上柳川店)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곧바로 출발하여 사근천점(沙斤川店)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바람이 매우 차가웠다. 100리를 갔다.

初十日. 早朝發程, 到振威邑店朝飯, 卽爲發程, 不過一馬場, 族叔落馬, 右臂違骨. 移時治瘡, 到上柳川店秣馬, 卽爲發程, 至沙斤川店留宿. 是日風氣甚寒. 行百里.

305) 마장(馬場) : 10리나 5리가 못 되는 거리를 계산할 때 리(里) 대신 쓰이는 단위이다.

▪11일. 출발하여 과천(果川)에 이르러 조금 쉬었다가 호현(狐峴)을 넘어 승방점(僧方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동작(銅雀)을 넘고 돌가(玆家)에 이르러 임 상사(林上舍)와 헤어졌다. 곧장 이교(圮橋) 박 선달(朴先達) 집에 이르러 잠시 쉬 뒤에 족숙과 함께 능주(綾州) 홍씨 집에 가자고 지시하였다. 쌍동(雙洞)에 이르니 주인장이 너무나도 기쁘게 맞아 주었고, 가정이 날로 새로워져 축하하였다. 이날 50리를 갔다. 서 초관(徐哨官)과 구 초관(仇哨官)이 마침 와서 서로 만났는데 기이하였다.

十一日。發程至果川，小憩踰狐峴，至僧方店，朝飯秣馬。越銅雀，至玆家，與林上舍分路。直至圮橋朴先達家小憩後，與族叔同往洪綾州家指視。至雙洞，主人丈顛倒欣迎，而家庭日新可賀。是日行五十里。徐哨官及仇哨官，適來相面可奇。

▪12일. 아침에 필동(筆洞)에 가서 족숙의 조섭(調攝)을 묻고 왔다. 식후에 과거를 보았는데 동접(同接)³⁰⁶과 서로 떨어지기 어려웠다. 필동(筆洞)에 유숙하고 밥을 먹고자 노복과 말을 이끌고 필동으로 갔다. 인하여 저녁밥을 먹고 유숙하였다.

十二日。朝往筆洞，問族叔調候而來。食後爲見科擧，則難於同接之相離。欲爲留食於筆洞，率奴馬，往筆洞。因食夕飯而留。

▪13일. 쌍동 주인어른이 내가 필곡(筆谷)에 가서 유숙한다니 매우 원망하는 기색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쌍동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말은 필곡에서 먹이를 먹이려고 남겨두었다. 남동(南洞) 김 생원(金生員) 집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식후 호동(壺洞)에 가서 석사(碩士) 유자일(兪子一)을 보고 왔다. 오후에 성의 서쪽으로 가서 주인집에 이르러 한산(閑山) 어른과 민 주서(閔注書)를 보고 이어 냉동(冷洞)으로 가서 심흥양(沈興陽)을 조문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인척 전 우후(田虞候)를 보고 정동(貞洞)에 들려 이 주서(李注書)를 보았다. 해가 이미 저물었다.

306) 동접(同接) : 과거 응시를 앞두고 선비들이 한곳에 모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동아리 또는 그 구성원을 이른다.

十三日. 雙洞主人丈, 以我往留筆谷, 多有悵然之色, 故不得已還來雙洞. 而馬則留喂於筆谷. 往南洞金生員家, 相話而來. 食後往壺洞, 見兪碩士子一而來. 午後往城西, 至主人家, 見閑山丈及閑注書, 因往冷洞, 弔沈興陽. 回路見田威虞候, 入貞洞見李注書. 日已夕矣.

▪14일. 맑았다. 예동(藝洞)에 가서 한안성(韓安城)과 그의 세 아들을 보고 왔다.
十四日. 晴. 往藝洞, 見韓安城及其三子而來.

▪15일. 전의동(典醫洞)에 가서 순천(順天) 소 석사(蘇碩士)를 보고, 오는 길에 중부(中部)를 들러 강소(講所)의 동정을 살피고 왔다.
十五日. 往典醫洞, 見順天蘇碩士, 來路入中部, 見講所動靜而來.

▪16일. 새벽에 두호(杜湖) 조의(趙議)에게 가서 밥을 먹은 뒤, 중부(中部)에 가서 학강례(學講禮)³⁰⁷를 마치고, 시지(試紙) 인쇄를 답사하고 왔다. 과장(科場)의 일이 이에 이미 갖추어졌다.
十六日. 曉頭往杜湖趙議而食後, 往中部, 經學禮講, 踏試紙印而來. 科場之事, 於是已具矣.

▪17일. 종일토록 필동(筆洞)을 유람하였다.
十七日. 終日遊筆洞.

▪18일. 과거장에 들어가려고 한밤중에 밥을 서둘러 먹고 종각대로(鍾閣大路)에 이르니 인적이 매우 쓸쓸하였다. 의동(醫洞)의 객점에 갔는데 파루(破漏)³⁰⁸ 치는 소리가 비로소 울려 석사(碩士) 소학천(蘇學天), 석사 한사휴(韓

307) 학강례(學講禮) : 소과의 조흥강(照訖講)을 달리 부를 말로, 생원진사시의 응시생에게 보이는 예비 시험을 이른다. 호적 대조를 마친 뒤 응시생에게 《소학(小學)》으로 문장의 뜻을 면강(面講)하여, 합격하면 조흥첩(照訖帖)을 주어 초시에 응시하게 하였다. 《六典條例 5 禮典 科擧

308) 파루(破漏) :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5경(更) 5점(點)에 종각의 종을 33번 치던 일을 말한다.

師休)와 함께 예조(禮曹) 문 앞에 갔는데 날이 아직 새지 않았다. 동틀 무렵 문으로 들어가 오래지 않아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곧 ‘사현(謝玄)이 비수(淝水)에서 대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처럼 바둑을 두었다. [聞謝玄淝水之捷圍碁如故也]’³⁰⁹⁾는 것이었다. 마지막 편을 베끼고자 할 즈음 먼저 올렸다는 것을 듣고는 비로소 들어갔으나 필력이 없어 지연되니 한탄스러웠다. 간신히 써서 올린 뒤 또 석사 소학천의 시권(試卷)을 베끼고 나왔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필교(筆橋)에 이르러 숙식하였다.

十八日。以入場次，夜半促食，至鍾閣大路，人跡甚寥寂矣。往醫洞旅店，撞破漏始鳴。與蘇碩士學天韓碩士師休，同往禮曹門前，日未曉矣。平明入門，未久題出，卽聞謝玄淝水之捷圍碁如故也。卒篇欲寫之際，聞先呈，始入而無筆遲延可歎。艱辛書呈後，又寫蘇碩士試卷而出。日已向西矣。至筆橋宿食。

▪19일. 종일토록 필교(筆橋)에 누워있었다.

十九日。終日臥筆橋。

▪20일. 또한 어제와 같았다.

二十日。亦如昨日。

▪21일. 또 어제와 같았다.

二十一日。又如昨日。

▪22일. 방(榜)이 나왔는데 허사로 돌아가니 분함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309) 문사현비수지첩위기여고야(聞謝玄淝水之捷圍碁如故也) : 사현은 동진(東晉)의 정승인 사안(謝安)의 조카로, 자는 유도(幼度)이고, 시호는 헌무(獻武)이다. 동진(東晉) 말기의 정승인 사안(謝安)은 침착한 사람이었다. 북방의 여러 나라를 통일한 진왕(秦王) 부견(苻堅)이 95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동진을 치러 오자, 사안은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을 대장으로 임명하여 8만이라는 소수의 군대로 방어하게 하였는데, 부견(苻堅)의 백만 대군을 회비(淮淝)에서 크게 격파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때 사안은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다가 승전 보고를 받고도 내색하지 않고 계속해서 손님과 바둑을 두었던 고사가 있다.

가장 건디기 어려운 것은 동쪽 이웃과 서쪽 집에서 신은(新恩)³¹⁰의 부름이 없지 않았고, 남쪽 들판과 북쪽 거리에서 모두 화동(花童)의 선택이 있었으니 부모님을 모시면서 낙방한 사람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이날 박성서(朴聖瑞)가 와서 만나고 갔다.

二十二日. 榜出歸虛 憤不可言. 而最所難堪者, 東憐西舍, 無非新恩之呼, 南陌北街, 揔是花童之選, 則侍下落榜人情懷爲如何. 是日朴聖瑞來見而去.

▪23일. 생원(生員) 이광주(李匡周)가 아침에 와서 서로 만나고 갔다. 식후에 재동(齋洞) 족숙이 작별을 고하고 내려갔다. 천 리 밖에서 친구와 이별은 본래 괴로운 심정인데 하물며 과거에 떨어진 뒤이니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있겠는가.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어 괴로운 심정을 펴니, 시는 다음과 같다.

삼월 장안의 경물 아름다운데	三月長安景物佳
우리네 마음만 슬프기 그지 없어라	吾人心緒獨堪嗟
낙방의 ³¹¹ 서글픔 아직도 가시질 않는데	渡灞餘悵猶未抑
청문 ³¹² 에 늘어진 버들가지 다시금 볼런가	靑門更見柳枝斜

마침내 족숙과 작별을 고하고 차동(車洞)에 가서 양구(楊口)의 노정을 상세히 묻고 쌍동(雙洞)으로 돌아왔다. 떠나기를 재촉하며 길에 올랐는데 해의 그림자는 이미 서쪽에 있었다. 동대문(東大門)을 나가 석곶(石串)에서 면원(免院)까지 30리를 가서 유숙하였다. 경계는 양주(楊州) 땅이었다.

310) 신은(新恩) :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말한다.

311) 낙방의 : 원문의 ‘渡灞’는 파교를 건넌다는 뜻으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함을 말한다. 한유(韓愈)의 시 <현재유회(縣齋有懷)>에, “서책을 품고 황도를 떠나, 눈물을 머금고 푸른 파수 건너네. [懷書出皇都 銜淚渡清灞]”라고 읊은 구절이 있는데, 이 시는 한유가 정원(貞元) 11년 박학광사시(博學宏詞試)에 급제하였으나 등용되지 못하고 경사(京師)를 떠나 낙양(洛陽)으로 간 사실을 읊은 것이다. 《漢文大成 13 韓退之全詩集 卷上》

312) 청문 : 청문(靑門)은 도성의 동쪽 문을 말한다. 한(漢)나라 장안성(長安城) 동남방 문의 원 이름은 패성문(霸城門)이었는데, 그 빛이 푸르므로 일반이 청문으로 부른 데서 연유된 호칭이다. 《한서(漢書)》 왕망전(王莽傳).

二十三日. 李生匡周朝來相見而去. 食後齋洞族叔告別下去. 千里外別故人, 素是惡懷, 而沉落第之餘, 又有此景色者乎. 遂吟一絕, 以敘惡懷曰: “三月長安景物佳, 吾人心緒獨堪嗟, 渡灞餘悵猶未抑, 青門更見柳枝斜.” 遂與族叔告別, 往車洞, 詳問楊口路程, 還來雙洞, 促行登程. 日影已西. 出東大門, 自石串至免院三十里留宿. 界是楊州地也.

▪24일. 찬바람이 몹시 불었다. 날씨가 매우 추워 답답하였다. 마치(馬峙)를 넘어 당산점(唐山店)까지 40리를 가서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대개 산골길은 울퉁불퉁하여 행역(行役)이 매우 어렵지만 어찌하겠는가. 운천(雲川)을 지나 청평천점(淸平川店) 앞에 이르니 비가 세차게 내릴 조짐이 있어 부득이하게 청평천점으로 들어가 유숙하기로 계획하였다. 조금 뒤에 도성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행색이 과거를 본 선비와 같았다. 또 비가 몰아치니 청평천점으로 들어와 서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곧 춘천(春川)의 김 석사(金碩士)로 낙방하여 내려가는 것이었다. 말에게 꼴을 먹인 뒤에 길을 모르자고 말하였으므로 인하여 함께 동행하는데 빗줄기는 그치지 않았다. 간신히 가평(佳平) 가묘점(可墓店)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100리를 갔다. 이날 밤에 밤새도록 비가 퍼부었다. 이 비는 비록 가뭄 끝에 오는 단비지만 나그네의 고민스러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한밤중 잠에서 깨니 지붕이 새어 베갯머리의 의복이 다 젖어 분함을 말할 수 없었다. 마침내 절구한 수를 읊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비 내리는 푸른 산 백 리길	雨裡靑山百里程
도롱이 걸치고 샓갓 쓴 내 발길 힘겨웠네	披簑帽笠惱吾行
다행히 함께 온 관동 선비가 있어	同來幸有關東士
여관방 관솔불 아래 나그네 시름 토로하네	旅榻松燈客苦評

새벽까지 비가 내리므로 늦게 일어나 말에게 꼴을 먹이고 이어 길에 오를 계획을 하였다.

二十四日. 陰風大作. 日氣甚冷悶悶. 躡馬峙, 至唐山店四十里, 朝飯秣馬.

盖峽路間關，行役甚艱奈何。過雲川，至清平川店前，雨意大作，不得已入店，以留宿爲計矣。稍間有自京下來之人，樣似科儒。亦爲雨所逼，入店相話，乃春川金碩士，而落榜下來者也。秣馬後以登程爲言，故因與同行，雨勢不止。艱到佳平可墓店留宿。是日行百里。是夜達宵雨注，雨雖旱餘之甘露，而爲客苦悶不可言。夜半寤睡，則屋漏枕邊，衣服盡濕，憤不可言。遂咏一絕曰：“雨裡青山百里程，披衰帽笠惱吾行。同來幸有關東士，旅榻松燈客苦評。”至曉雨作，故晚起秣馬，因爲登道之計。

▪ 25일. 비가 왔다. 아침을 먹은 뒤 출발하여 가평읍(佳平邑) 앞에 이르러 김객(金客)과 헤어졌다. 앞 시내를 넘고 병항(柄項)을 넘었는데 병항(柄項)의 험난함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양쪽 벼랑 석벽은 갈고 닦여진 듯하고 그 사이로 말 한 필이 지나갈 만하였으며, 깎아지른 듯한 바위는 험준하여 그 위험함을 말할 수 없었다. 겨우 그 고개를 넘으니 한두 가구가 있었는데, 바위에 의지한 채 강을 따라 거주하고 있었다. 그 강은 곧 한강 상류였다. 그 흐르는 물을 따라 갓길로 20리를 가니 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혹은 돌을 뚫고 좁은 길이 만들어져 있고, 혹은 절벽이 천 척이나 되니 두려운 마음과 두려운 자취는 꿈에서도 놀랄 만 하였다. 안보 주점(安堡酒店)에 이르러 잠시 말에게 꼴을 먹이고 5~6리를 가니 하나의 고개가 있었는데, 곧 석파령(石坡嶺)³¹³이었다. 참으로 높기도 하고, 정말 위험하였으니 그 매우 험준함은 병항의 길과 같았다. 덕두원(德頭院) 주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는데, 춘천(春川) 땅이었다. 채찍을 재촉하여 10여 리를 가는데 빗줄기가 거세졌다. 춘천읍 10리 남짓에 못 미쳐 신양강진(新陽江津)을 건너니 비가 물을 퍼붓듯 쏟아져 빨리 달려 읍점(邑店)에 들어갔다. 날이 매우 저물지 않았으나 비가 내리므로 부득이하게 유숙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날 70리를 갔다. 밤새도록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리니 나그네의 근심과 번민을 말할 수 없었다.

二十五日。雨。朝飯後發程，至佳平邑前，與金客分路。越前川，踰柄項，柄項之險，曾所未見，兩崖石壁如鑠，間容一馬，巉巖崎嶇，險不可言。纔越其嶺，

313) 석파령(石坡嶺) : 진부령과 미시령 사이에 위치하고, ‘셋령’, ‘새이령’으로 불렸다.

有一二家, 倚巖緣江而住. 其江乃漢江上流也, 緣其流以邊路行二十里, 其爲路也. 或穿石爲逕, 或斷岸千尺, 恐悚之心, 悸怖之跡, 夢寐亦驚. 至安堡酒店, 暫爲秣馬, 行五六里, 有一嶺, 卽石坡嶺也. 高則高矣. 危則危矣. 其絕險足如柄項之路矣. 至德頭院酒店中火, 春川地也. 促鞭行十餘里, 雨勢大作. 未及春川邑十里餘, 越一新陽江津, 雨下如注, 疾馳入邑店. 日勢不甚暮, 而以雨之故, 不得已留宿爲計. 是日行七十里. 達夜雷雨, 客裡憂悶, 不可言也.

▪ 26일. 식전에 길에 올라 소양강진(昭陽江津)을 건너 기락(奇落) 갖길에 이르렀는데 그 험준함과 위태로움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었고 게다가 길을 물을 행인도 없어 앞으로 나아갈 일이 한탄스러웠다. 겨우 갖길을 지나니 하나의 작은 시내가 있었는데 매우 급한 여울이었다. 시내 앞뒤로는 두 개의 가게가 있었으나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다시 급한 여울을 건너다가 말이 물에서 넘어져 굴러 의복이 다 젖었으니 분함은 말할 수 없었다. 가게에 들러 옷을 깨끗이 하고 양구(楊口) 앞길을 물으니 앞 시내를 잘못 건넜다고 하였다. 몹시 분한 상황을 더욱 어찌하겠는가. 가게 이름은 청평사동점(淸平寺洞店)이었다. 한 마장(馬場)을 가니 갖길에 위험한 곳이 있었는데 길이 큰 빗물에 잠겨있었다. 그러므로 위쪽 바위 사이를 경유하여 간신히 평탄한 길로 나와 부창치(夫唱峙)를 넘어서 진목정 여막(眞木亭旅幕)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려고 하니, 여막에는 말에게 먹이를 먹일 도구가 없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길에 올라 수인(遂仁) 갖길에 이르렀는데 그 험준함은 병향과 기락의 길과 함께 동일한 위치에 놓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혹은 큰 빗물에 잠겼고 혹은 벼랑을 뚫어야 하니 왼쪽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 전후좌우로 위험하여 죽을 지경이 아님이 없었다. 두려운 마음과 위태로운 상황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대개 관동의 땅은 길이 비록 험준하나 방면마다 암석과 굽이진 강물이 흘러서 불만한 곳이 아님이 없었다. 그러나 산골짜기 길에 인적이 드물고 여행하는 나그네도 매우 적어 비록 많은 돈이 있더라도 양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었다. 대개 그 백성의 삶은 기장과 조를 먹고 굴참나무 껍질로 지붕을 이었으며, 산은 높고 땅은 척박하여 경작이 매우 적었다.

궁벽한 산과 급한 협곡 사이에 한두 가구만 있는데 바위에 의지한 채 생활하고 있으니 농사의 어려움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양구(楊口) 읍내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읍에 들어간 뒤에 곧바로 관아에 통자(通刺)하고 인하여 관아로 들어가 6년 만에 얼굴을 이제야 비로소 주객(主客)으로 만나게 되니 기쁨을 헤아릴 수 없었다. 이날 100리를 갔다. 춘천(春川) 길 위에서 갑자기 절구시 한 수를 읊었으니 다음과 같다.

삼월 춘천의 시냇물 아득히 흘러가고	三月春川水杳茫
금빛 강물 양 언덕에 늦꽃 피어 향기롭네	殘花兩岸錦流香
강산은 청고한 자태 뽑내지만	江山雖有清高色
먼 길 온 나그네 무심히 행장 꾸리기 바쁘네	遠客無心但促裝

二十六日. 食前登程, 越昭陽江津, 至奇落邊路, 其險危前所未見, 而且無行人問路, 前進可歎. 纔過邊路, 有一小川, 甚急灘也. 川前後有兩店, 而無人問路. 更越急灘, 馬顛落水, 衣服盡濕, 憤不可言. 入店灑衣, 問楊口前路, 則誤越前川云. 憤憤之狀, 爲尤奈何. 店名則清平寺洞店也. 行一馬場, 有邊路危險處, 而路爲潦水所沒, 故由上邊巖際, 艱辛出坦路, 踰夫唱時, 至眞木亭旅幕, 欲爲秣馬, 則幕無喂馬之具. 故因爲上程, 至遂仁邊路, 則其險也, 與柄項奇落之路, 不可同日而語矣. 或浸於潦水, 或鑿於崖石, 左一步不得, 右一步不得, 前後左右, 無非危死之境. 心魂悸怖, 危懼之狀, 難以筆記也. 蓋關東之地, 路則雖險, 而面面巖石, 曲曲江流, 無非可觀處. 然而峽路人稀, 行旅甚鮮. 雖有萬錢, 糧不齎則飢, 蓋其民產, 其食稷粟, 其屋屈皮, 而山高土脊, 農作甚小. 窮山急峽, 間有一二家, 倚巖爲生, 民事之艱難, 大率如此也. 至楊口邑內, 日已夕矣. 入邑後, 卽通衙中, 因入衙中, 六年顏面, 今始邂逅主客, 欣喜不可量也. 是日行百里. 春川路上, 猝吟一絕曰: “三月春川水杳茫, 殘花兩岸錦流香. 江山雖有清高色, 遠客無心但促裝.”

▪27일. 맑았다. 우연히 절구시 한 수를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며칠 동안 고생 끝에 이 고을에 이르니	幾日間關到此州
-----------------------	---------

산은 첩첩 물은 겹겹 길은 멀기도 하였네 山重水複路悠悠
 청명한 아침 상쾌하게 매현에 올라 앉으니 清朝快上梅軒坐
 천 리 먼 고향 땅은 외로운 배에 매여 있구나 故園千里繫孤舟
 二十七日。晴。偶得一絕曰：“幾日間關到此州，山重水複路悠悠。清朝快上梅軒坐，故園千里繫孤舟。”

▪28일. 흐렸다. 대개 산골짜기 고을은 산이 높아 산속 아지랑이가 날마다
 피어오른다. 여기에 온 지 수삼일(數三日)에 청명한 날씨를 한 번도 보지
 못해 답답하였다. 읍시 한 수를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그대를 보려고 멀리 관동으로 나와 爲見吾君遠出關
 십 년 만에 서로 만나 활짝 웃어보네 相逢笑破十年顏
 분정³¹⁴하니 새도 내려앉아 치적을 노래하고 分庭鳥下治聲蔚
 업무 보는 책상에 먼지 쌓여 직무도 한가롭네 簿案塵生職事閑
 나그네의 외로운 마음은 고뇌가 많지만 客子孤懷多困惱
 주인의 정한한 복³¹⁵은 강산에서 풍요롭구나 主人清福饒江山
 화원에서 손을 잡고 때때로 활을 쏘며³¹⁶ 花園携手時觀德
 태수의 풍류를 잠시나마 함께해 보리라 太守風流小與班
 二十八日。陰。蓋峽邑山高嵐氣日起。來此數三日，一未見清明日氣悶悶。得
 一律曰：“爲見吾君遠出關，相逢笑破十年顏。分庭鳥下治聲蔚，簿案塵生職事
 閑。客子孤懷多困惱，主人清福饒江山。花園携手時觀德，太守風流小與班。”

314) 분정 : 고대에 주인과 빈객이 상견(相見)할 때 주인은 뜰의 동쪽에 서고 빈객은 뜰의 서쪽에 서서
 마주 보며 예를 갖추므로써 서로 대등한 관계임을 나타내었다.

315) 청복 : 맑고 한가로움을 누리는 복을 말한다.

316) 활을 쏘며 : 원문의 ‘관덕(觀德)’은 덕을 살펴본다는 뜻으로, 활쏘기를 말한다. 《예기(禮記)》 20
 권 <사의(射義)>에 이르기를, “활쏘기는 진퇴(進退)와 주선(周旋)이 반드시 예(禮)에 맞아야 한다.
 마음이 바르고 자세가 곧아야 활과 화살을 잡을 때 바르고 안정되고, 활과 화살을 잡을 때 바르고
 안정되어야 적중을 말할 수 있다. 활쏘기는 덕행을 살필 수 있다.[射者，進退周旋必中禮。內志正外體
 直，然後持弓矢審固；持弓矢審固，然後可以言中。此可以觀德行矣.]”라고 하였다.

▪29일. 흐렸다. 이날 동산(東山) 위에서 활쏘기 관람과 꽃구경을 하며, 기녀를 데리고 무명 과녁을 설치하여 종일토록 활쏘기를 하였다. 내 평생 처음으로 직접 활쏘기를 하였으니 맞추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그러므로 활을 잘 쏘는 자는 위에 자리하고, 활을 잘못 쏘는 자는 무료하였다. 마침내 스스로를 비웃는 절구시 한 수를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반평생 서재에서 책벌레 ³¹⁷ 와 짝하였으니	半世書帷伴蠹魚
허공에 활시위 당겨도 북소리 잠잠하네	空張弧矢鼓聲虛
노래하는 기녀 웃어대고 관료 비웃으니	歌妓供笑官僚哂
무예 소홀한 썩어빠진 선비 부끄럽기 그지없네	愧殺腐儒武藝疏

인하여 조롱하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였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산꽃 문간 버드나무 은어를 비치고	山花門柳映銀魚
온종일 명중을 다투며 화살은 허공을 가르네	永日爭中發矢虛
서생의 활 솜씨 서툴다 사람들아 비웃지 마소	書生拙射人休笑
자신을 바르게 하는 공부만은 서툴지 않으리니	正己工夫也不疏

二十九日。陰。是日觀幘賞花於東山之上，携妓設布。終日射幘。吾以平生初手發矢，不中者累矣。故善射座上，拙射無聊。遂作自嘲詩一絕曰：“半世書帷伴蠹魚，空張弧矢鼓聲虛。歌妓供笑官僚哂，愧殺腐儒武藝疏。”因解嘲曰：“山花門柳映銀魚，永日爭中發矢虛。書生拙射人休笑，正己工夫也不疏。”

▪30일. 날씨가 조금 맑았다. 오계(梧溪) 이씨 어른 및 수령과 송암정(松巖亭) 옛터로 술을 지니고 가서 회포를 풀고 왔다. 바로 정자 위에서 입으로 절구한 수를 읊고 서로 창화(唱和)하였다. 이씨 어른의 시는 다음과 같다.

동서로 자리잡은 초록빛은 가시덤불 헤치고	披荊帶綠坐西東
------------------------	---------

317) 책벌레: 본문의 '두어(蠹魚)'는 서적 속의 좀으로 책벌레를 말한다. 《비파기(琵琶記)》 효부제진(孝婦題眞)에 “향초 잎 향기 진동하자 책 벌레 모두 달아나네.[芸葉分香走魚蠹]”라고 하였다.

돌밭 가에 늦꽃은 붉은 꽃잎 반쯤 내밀었네
술을 다 마신 석양에 무한한 회고의 정에 잠겨
금강산 한길 꿈속인 듯하네

石畔殘花半吐紅
酒盡斜陽無限意
金剛一路夢中通

수령의 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³¹⁸⁾ 풍물 중에 관동이 으뜸이니
눈에 가득한 봄빛만이 어찌 붉으랴
술에 취하고 다함없는 강산의 흥취에 취하여
꽃구경하고 돌아오는 길 붉은 노을속이네

靑丘風物最關東
滿眼春光不但紅
醉裡江山無限興
看花歸路夕陽通

마침내 차운하였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석양에 송암정 나무 그림자 동쪽에 어른거리니
앞 시냇물은 푸르고 뒷산은 붉게 물들었네
끝없는 시인의 흥취가 다시 일어나니
저녁노을 속에 돌길을 따라 걸어가노라

返照松巖樹影東
前川水綠後山紅
看來不盡騷人興
散步斜陽石路通

晦日。日氣稍晴。與梧溪李丈及主倅，往松巖亭舊墟携酒，舒懷而來。即於亭上，口占一絕，相與唱和。李丈詩曰：“披荆帶綠坐西東，石畔殘花半吐紅。酒盡斜陽無限意，金剛一路夢中通。”主倅詩，“靑丘風物最關東，滿眼春光不但紅。醉裡江山無限興，看花歸路夕陽通。”遂和之曰：“返照松巖樹影東，前川水綠後山紅，看來不盡騷人興，散步斜陽石路通。”

■윤3월 1일. 청명하였다. 이날 또 동(東) 자 운을 써서 유람하며 감상하였던 뜻으로 다시 지었다. 수령의 시는 다음과 같다.

골짜기 북쪽에 높이 뻗은 나무가 있고

雲樹溪之北

318) 우리나라 : 원문의 '靑丘(靑丘)'는 동방의 지역을 지칭한 말로 조선, 즉 우리나라를 의미한다.

고을의 동쪽에 바람과 안개가 일어나네
화창한 바람은 삼월의 버들을 흔들어대고
단비는 절반이나 붉게 물든 산을 적셔주네
오랜 교분의 벗 천리 길 멀다 앓고 달려와
깊은 정 나누며 한 늙은이와 노니네
저녁노을에 무한한 흥취가 일어
어지러이 엷힌 산 중에 말을 세우노라

風烟縣以東
和風三月柳
時雨半山紅
舊契朋千里
深情從一翁
斜陽無限興
立馬亂山中

화답하니 시는 다음과 같다.

호남의 나그네가 천 리를 왔는데
삼월 봄날 관동의 산에 눈이 덮혔네
산골물은 푸른 물결로 단장했고
산빛은 외로이 붉게 물들었네
양성의 수령 시주의 자리를 베풀고
광협의 늙은이와 풍류를 즐기네
그 속에 있는 빼어난 흥취를
시로 읊어 비단 주머니에 담아보네

千里湖南客
三春雪嶽東
澗容粧皺綠
山色染孤紅
詩酒楊城倅
風流廣峽翁
箇中奇絕趣
收拾錦囊中

이씨 어른이 화답하였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동천의 쇠하고 늙은 나그네
해산의 동쪽에 말을 멈췄네
버들이 흔들거리니 앞 시내가 푸르고
꽃이 피니 작은 정원이 붉은 빛이네
주고받은 시 소년 보다 못한 듯한데
먼저 술 따라주며 옹이라 하니 부끄럽네
끝도 없이 펼쳐진 풍물을 바라보고
지는 노을 속에서 배회하노라

桐川衰老客
駐馬海山東
柳拂前溪綠
花開小院紅
酬詩嫌讓少
先酌愧稱翁
風物看無盡
徘徊落照中

이날은 이씨 어른과 함께 술병을 들고 기녀를 데리고 고을 뒤 비봉산(飛鳳山)에 올라 종일토록 유람하고 완상하며 왔다.

閏三月初一日. 晴明. 是日又占東字, 更寫遊賞之意, 主倅詩云, “雲樹溪之北, 風烟縣以東. 和風三月柳, 時雨半山紅. 舊契朋千里, 深情從一翁. 斜陽無限興, 立馬亂山中.” 和之曰: “千里湖南客, 三春雪嶽東. 澗容粧皺綠, 山色染孤紅. 詩酒楊城倅, 風流廣峽翁. 箇中奇絕趣, 收拾錦囊中.” 李丈和曰: “桐川衰老客, 駐馬海山東. 柳拂前溪綠, 花開小院紅. 酬詩嫌讓少, 先酌愧稱翁. 風物看無盡, 徘徊落照中.” 是日與李丈, 提壺携妓, 登邑後飛鳳山, 終日遊玩而來.

■2일. 아침에는 비가 내렸고 저녁에는 흐렸다.

初二日. 朝雨晚陰.

■3일. 맑았다. 이날 봉하관(鳳下館)에 가서 수령 및 이씨 어른과 종일토록 활을 쏘았다. 우연히 네 발을 적중하여 수령이 일해주(一海酒)로 사적례(四的禮)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의 높고 높은 풍류를 볼 수 있었다. 인하여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천여 리 밖의 사람이 여기에서 잠시 고을 사람들과 함께 유람하고 봄을 감상하였으니 실로 기이한 일입니다.”라고 하니 한바탕 웃으며 헤어졌다.

初三日. 晴. 是日往鳳下館, 與主倅及李丈, 終日射候. 偶中四的, 主倅以一海酒爲設四的禮, 可見其風流之卓卓也. 因與相顧曰: “千餘里外之人, 與此假邑之人, 同遊賞春, 實是異事.” 一場戲笑而罷.

■4일. 맑았다. 대개 부모를 떠나 파교(灞橋)를 건넌 사람³¹⁹⁾이 어찌 먼 지방에서 계속 머물고자 왔겠는가. 금강산이 멀지 않다는 말을 듣고 한 번

319) 파교(灞橋)를 건넌 사람 : 과거에 급제하지 못함을 말한다. 한유(韓愈)의 시〈현재유회(縣齋有懷)〉에, “서책을 품고 황도를 떠나, 눈물을 머금고 푸른 파수 건너네. [懷書出皇都 銜淚渡清灞]”라고 읊은 구절이 있는데, 이 시는 한유가 정원(貞元) 11년 박학굉사시(博學宏詞試)에 급제하였으나 등용되지 못하고 경사(京師)를 떠나 낙양(洛陽)으로 간 사실을 읊은 것이다. 《漢文大成 13 韓退之全詩集 卷上》 이후 보편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거나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것을 ‘파교를 건넌다(渡灞)’라고 표현한다.

완상(玩賞)하고자 이 고을에 머물며 기다렸다. 좋은 금강산의 봄날 풍경을 기다린 것은 비록 좋은 일이기는 하나 부모가 그리운 마음에 오래될수록 더욱 견디기 어려워서 유람하며 완상하는데 흥취가 없었고, 먹고 자는데 흥미도 없었으며, 흐드러진 술자리와 변화한 가무(歌舞)가 갑자기 좋지 못한 상황에 이르니 한탄스러웠다. 이날 이른 아침에 객사(客舍)로 가서 무명 과녁에 활을 쏘았으나 내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통증으로 편을 나누어 활을 쏠 수 없으므로 함께 활쏘기를 파하였다. 이어 송암정에 가서 유람하는데 수령이 술자리를 베풀어 이씨 어른과 나를 위로하였다. 그러므로 마침내 연회 자리에서 청(淸)자 운을 써서 구슬을 꿰 듯 이어서 훌륭한 시³²⁰를 읊었다.

돌에 부딪혀 세차게 흐르는 시내 마음처럼 맑고【자삼】	奔溪觸石與心淸【三】
양쪽 언덕의 맑은 모래는 십리나 맑구나【효원】	兩岸晴沙十里明【源】
보슬비는 봄 산 만 조각 붉은 꽃잎을 적셔주고【언】	雨細春山紅萬片【彦】
산들바람은 천 줄기 푸르른 방초에 불어오네【고】	風微芳艸綠千莖【高】
꽃 술잔에 누가 태화탕 ³²¹ 을 얻었는가【자삼】	花樽誰得太和湯【三】
솔숲에서 거문고 소리 고요히 들려오네【효원】	松籟靜聽琴韻鳴【源】
남은 흥취를 다시 화원의 길에서 찾고【효원】	餘興更尋花院路【源】
돌아가는 들에 소리 높여 노래하니 새들이 놀라네【화】 ³²²	高歌歸野禽路驚【和】 ³²²

또 짧은 절구시 한 수를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어릴 적부터 풍류를 즐기던 나그네	自少風流客
백발이 늘어감을 어찌 싫어하리오	何嫌白髮新

320) 구슬을 …… 훌륭한 시 : 원문의 ‘연주(連珠)’는 구슬을 꿰 것과 같은 뛰어난 시문을 말한다. 《소동파시집(蘇東坡詩集)》 권38 <천축사(天竺寺)>에 “연주와 첩벽을 공연히 입으로 읊을 뿐, 나는 새와 놀란 뱀 같은 글씨는 없어졌네.[空詠連珠吟疊璧, 已亡飛鳥失驚蛇.]”라는 구절이 나온다.

321) 태화탕 : 술의 이칭이다. 송나라 소옹(邵雍)의 <무명공전(無名公傳)>에 “천성적으로 술을 좋아했는데 일찍이 술을 명명(命名)하여 태화탕(太和湯)이라 했다.” 하였다.

322) 【화】 : 이 시에 참여한 【언】, 【고】, 【화】는 연회에 참여한 사람이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소나무 동산에서 취흥을 즐기노니
나도 모르게 옆 사람과 웃음짓네

松壇同醉興
不覺傍人嘖

이씨 어른

경물과 송암은 예스럽지만
 시내와 산은 모습은 새롭다네
내 마음만 홀로 즐겁지 않은가
쓸쓸히 먼 산을 마주하고 웃음짓네

景物松巖古
溪岑面目新
獨吾心不樂
悄對遠山嘖

또

천 리길 찾아온 봄 나그네
돌아갈 생각에 보는 것마다 새롭네
꽃은 나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
이슬을 머금고 사람을 향해 웃음짓네

千里尋春客
歸思觸目新
花能知我意
含露向人嘖

효원(孝源)

산골의 풍속은 옛날과 같지만
인정은 도리어 새로움 좋아하네
성쇠에도 절도가 있음을 아노니
소나무 아래에서 꽃을 보며 웃음짓네

峽俗猶依古
人情却好新
盛衰知有節
松下見花嘖

자삼(子三)

初四日. 晴. 蓋離親渡灞之人, 豈欲留連於遠地而來. 聞金剛之不遠, 方欲一玩, 故留待此邑. 以待金剛春景之好. 雖是美事, 而思親之懷, 久益難耐, 以至於遊玩之無興, 寢食之罔味, 盃酒之爛熳, 歌舞之繁華, 頓無好況, 可歎. 是日早朝往客舍射布, 而以吾泐脂之痛, 不得分邊以射, 故同爲破射. 因往

松巖亭以遊, 盖主倅爲設酒饌, 以勞李丈及吾, 故遂於讌席上, 占清字韻, 連珠以咏. “奔溪觸石與心清【三】, 兩岸晴沙十里明【源】. 雨細春山紅萬片【彦】, 風微芳艸綠千莖【高】. 花樽誰得太和湯【三】, 松籟靜聽琴韻鳴【源】. 餘興更尋花院路【源】, 高歌歸野禽路驚【和】.” 又占短絕, “自少風流客, 何嫌白髮新. 松壇同醉興, 不覺傍人嘖.” 李丈. “景物松巖古, 溪岑面目新. 獨吾心不樂, 悄對遠山嘖.” 又. “千里尋春客, 歸思觸目新. 花能知我意, 含露向人嘖.” 孝源. “峽俗猶依古, 人情却好新. 盛衰知有節, 松下見花嘖.” 子三.

▪5일. 맑았다. 동헌(東軒)에서 유숙하였다.

初五日. 晴. 留宿東軒.

▪6일. 맑았다. 식후에 행장을 꾸려 오계(梧溪) 이씨 어른과 나란히 말을 타며 길을 떠나려고 풍악(楓嶽)의 길로 출발하려는데 수령께서 서둘러 이별의 술잔을 내왔다. 수령에게 <음성유별시(吟成留別詩)> 절구 한 수를 주었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그 옛날 삼년 동안 이별하였는데	昔與三年別
이제 백 리 수령 ³²³ 과 헤어지려하네	今將百里分
훗날 기약을 그대는 묻지 마소	後期君莫問
우연히 만났지만 열흘 함께 했다네	邂逅一句云

차운시는 다음과 같다.

높이 솟은 소나무 아래 옛 정을 나누고	舊契松千尺
한껏 술을 마시며 새 회포를 풀었네	新懷酒十分
떠나고 머무는 금강산의 길	去留金嶽路
서운한 마음은 같다고 하네	悵悵一般云

323) 백 리 수령 : ‘백리(百里)’는 백리의 땅을 맡는 지방관을 말한다.

자삼과 헤어지고 이어 곧바로 길에 오르니 해는 중천에 있었다. 채찍을 재촉하여 항령(項嶺)에 이르렀는데 산길이 험준하였기 때문에 말을 탈 수 없었다. 마침내 말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 공동(恭洞) 안삼선(安三先)의 집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항령에서 시 한 수를 읊었으니 다음과 같다.

깊은 산골 궁벽한 벼랑에 붉은 꽃 보이지 않아	絕峽窮崖未見紅
봄소식 서로 통하지 않았나 의심하였네	却疑春信不相通
홀연히 산 중 살구가 계곡을 따라 핀 것을 보니	忽見山杏緣溪發
비로소 동군 ³²⁴ 은 조화옹의 솜씨임을 알았네	始覺東君造化工

길을 떠나 5리를 가서 회양(淮陽)의 경계에 이르니, 길은 험준하고 골짜기는 급하였다. 양쪽 언덕은 각은 듯하고 계곡물은 어지럽게 흘렀다. 간신히 주현(舟峴) 창촌(倉村)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70리를 갔다. 이날 밤에 전갈 걱정으로 편히 잠을 잘 수 없어 한탄스러웠다.

初六日。晴。食後治行，與梧溪李丈，聯鞭作行，將發楓嶽之路，主倅催進別盃。與主倅吟成留別詩一絕曰：“昔與三年別，今將百里分。後期君莫問，邂逅一句云。”次，“舊契松千尺，新懷酒十分。去留金嶽路，悵悵一般云。”子三相與分手，因卽上途，日將午矣。促鞭至項嶺，山路險峻，故不得騎馬。遂下馬徐步，至恭洞安三先家秣馬，於項嶺吟一絕曰：“絕峽窮崖未見紅，却疑春信不相通。忽見山杏緣溪發，始覺東君造化工。”離發行五里，至淮陽界，路險峽急。兩岸如削，溪流亂射。艱到舟峴倉村舍留宿。是日行七十里。是夜愁竭，不得穩睡可歎。

■ 7일. 맑았다. 새벽녘에 아침을 먹고 동이 틀 무렵 길에 올라 이현(梨峴)에 이르렀다. 간신히 걸어 넘어서 마파령(磨波嶺)에 이르렀다. 한나절 여행길 모두 험준한 골짜기였는데 비로소 마파령에 이르니 동남쪽이 확 트여

324) 동군(東君) : 동군은 봄을 맡은 신의 이름이다. 동제(東帝)·동황(東皇)·청황(靑皇)·청제(靑帝)라고도 한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시에 “병들고 나니 어떤 일도 한가함보다는 못한데, 동군이 깃발 거두고 돌아감 또 보겠네.(病餘萬事不如閑 又見東君卷旆還)”라는 구절이 있다. 《牧隱叢 卷21 柳巷樓上》

자못 양계(陽界)³²⁵에 있는가 생각하였다. 동쪽에 풍악(楓嶽)을 보니 하늘에
 꽂힌 높은 봉우리가 구름과 안개 사이로 어슴푸레하였다. 운장촌(雲長村)
 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이며, 장안사(長安寺)³²⁶ 앞길을
 물으니 여기에서 50리 떨어졌다고 하였다. 앞길이 가까운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불어난 앞 강물을 피해 지름길을 경유하여 작은 고개를 넘어
 장안사에 이르기 10여 리 전에 큰길로 나와서 5리를 가니 멀리 금강산의
 몇몇 봉우리가 보였는데 겹겹의 많은 봉우리 위에 꽃이 세워진 듯하였다.
 이어 절구시 한 수를 읊었으니 다음과 같다.

단발령 ³²⁷ 앞에서 한바탕 웃으니	斷髮嶺前一破顏
못 봉우리 흰 구름 사이 뻗뻗이 서 있네	群峰簇立白雲間
황금 채찍으로 가리키며 스님 불러 묻노니	金鞭指點呼僧問
장안사의 뒷산은 어드메인고	何處長安寺後山

하얗게 서 있는 빼어난 빛깔은 명성이 과연 헛되지 않았다. 괘궁정(掛弓亭)
 을 경유하여 표훈사³²⁸ 동촌(表訓寺洞村)에 이르러 술을 사서 흠뻑 마시고
 장안사(長安寺)로 들어갔다. 장안사 아래 수석은 각 방면마다 맑고 깨끗하여
 도봉산(道峯山)의 물과 다름이 없어 흥금이 지나칠 정도로 상쾌하였다.
 극락문(極樂門)으로 들어가 능파교(凌波橋)를 건너 범종각(泛鍾閣)을
 경유하여 산영루(山暎樓)에 앉았다. 사방 벽에 이름이 써졌는데 사대부와

325) 양계(陽界) : 사람이 사는 현 세상으로 곧 불교에서 말하는 이승이다.

326) 장안사(長安寺) : 내금강(內金剛)에 있는 사찰로, 만천교(萬川橋)를 건너 왼쪽 산언덕에 있다.
 외금강(外金剛)의 유점사(楡岾寺)·신계사(新戒寺), 내금강의 표훈사(表訓寺)와 더불어 금강산 4대
 고찰로 꼽힌다. 신라 법흥왕(法興王) 때에 창건되었고, 고려 성왕(成王) 때에 중건되었고, 1343년
 (충혜왕 복위4)에 기황후(奇皇后)에 의해 다시 중건되었다. 법당(法堂)과 불전(佛殿)과 불상(佛像)을
 모두 중국의 기술자가 제작하였다. 《稼亭集, 卷6 金剛山長安寺重興碑, 韓國文集叢刊 3輯》

327) 단발령 : 금강산 서쪽 천마산(天磨山)에 있는 고개이다. 사람들이 이 고개에 올라 금강산을
 바라보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속세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328) 표훈사(表訓寺) : 금강산 4대 사찰(유점사, 장안사, 신계사, 표훈사)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찰이다.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면 장연리에 소재하며,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 제97호이다.

이름난 선비가 아님이 없었다. 아름다운 풍경과 빼어난 암석은 진실로 우리나라에서 신령스러운 구역이라고 말할 만 하였다. 그리고 산영루 앞에는 장경봉(長庚峯), 관음봉(觀音峰), 지장봉(地莊峯), 석아봉(釋阿峰)이 있었는데 모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다. 웅장하고 화려한 사찰에는 대웅전(大雄殿), 사성전(四聖殿), 범종각이 있었는데 모두 매우 크고 걸출했으며, 규모는 2층으로 되어 있었다. 사찰은 칭찬으로도 부족하였고, 빼어난 산봉우리와 아름다운 산수는 진실로 기이한 절경이었다. 마침내 유판서(兪判書)가 지은 시를 차운하여 읊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하늘이 우리나라 관동에 명승지를 만들었으니	天爲吾東關勝區
삼라만상 기이한 절경 빼죽빼죽 드러나 있네	森羅奇絕露頭頭
천 길 산악의 빛깔 온통 눈으로 뒤덮힌 듯하고	千尋嶽色渾疑雪
일만 골짜기의 냇물 소리 문득 가을인 듯하네	萬壑溪聲却似秋
절벽에 의지한 자욱한 안개 무슨 마음이런가	宿霧何心依絕壁
석양에 끝없는 감회가 일어 텅빈 누각 올랐네	斜陽無限上虛樓
온갖 생각들이 왔다가 모두 다 사라지니	看來萬念都消盡
한바탕 유쾌한 놀이 하늘이 시인에게 빌려준 것이리	天借騷人一快遊

이날 장안사(長安寺)의 승당(僧堂)에서 유숙하였다. 이날 100리를 갔다. 밤에 빗소리가 부슬부슬 들리니 산을 둘러보자던 약속을 이후로 늦췄다. 답답한 마음을 뭐라 말할까.

初七日. 晴. 曉頭朝飯, 平明上程, 至梨峴. 艱辛步越, 至磨波嶺. 半日行路, 盡是險峽, 而始到波嶺, 則東南開豁, 頗有陽界意思矣. 東見楓嶽, 則插天高峯, 隱隱於雲霧之中. 至如雲長村, 中火秣馬, 而問長安寺前路, 則此去五十里云. 前程之近, 從可知也. 避前江水漲, 由徑路越小峴, 未至長安寺十餘里, 出大路行五里, 遙見金剛數峰, 插立於衆疊之上, 因吟一絕曰: “斷髮嶺前一破顏, 群峰簇立白雲間. 金鞭指點呼僧問, 何處長安寺後山.” 其白立秀色, 名果不虛. 由掛弓亭, 至表訓寺洞村, 沽酒快飲, 入長安寺. 寺下水石, 面面澄清, 無異道峰山水, 而胸襟之爽過矣, 入極樂門, 渡凌波橋, 由泛鍾閣, 坐

山暎樓. 四壁題名, 無非搢紳名士, 其風景之美, 巖石之勝, 眞所謂海東靈區. 而樓前有長庚峯·觀音峰·地莊峯·釋阿峰, 皆是削壁. 而梵宮之雄麗, 有大雄殿·四聖殿·泛鍾閣, 皆極宏傑, 制以二層, 然其梵宇, 則不足稱賞, 而其峰巒之秀, 泉石之美, 眞奇絕處也. 遂次兪判書得一韻以咏曰: “天爲吾東關勝區, 森羅奇絕露頭頭. 千尋嶽色渾疑雪, 萬壑溪聲却似秋. 宿霧何心依絕壁, 斜陽無限上虛樓. 看來萬念都消盡, 天借騷人一快遊.” 是日宿長安寺僧堂. 是日行百里. 夜間雨聲騷騷, 看山之約, 從此遲矣. 悶悶何言.

▪8일. 비가 내렸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종일토록 가랑비가 내리더니 조금도 개일 기미가 없었다. 그러므로 산에 오를 수 없어 단지 산영루와 범종각 사이에서 소요하였다. 오랜 객지 생활 나머지 돌아갈 기한이 매우 임박하였으나 경치를 완상할 곳은 끝이 없었다. 비로 막힌 나그네의 심정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산영루에 이름을 썼다.

初八日. 雨. 自曉作雨, 終日霏微, 小無開霽之意, 故不得登山. 只箇逍遙於山暎樓泛鍾閣之間. 久客之餘, 歸期甚迫, 而玩景之處無窮云. 關雨客懷, 何可勝言. 遂題名於山暎樓.

▪9일. 흐렸다. 새벽에 일어나 하늘을 보니, 비록 맑게 갠 기색은 있었으나 산이 어둑하고 구름이 자욱하여 근심스러웠다. 인하여 이장(李丈)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옛날에 일찍이 듣건대 사람들이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는 인연이 적으면³²⁹⁾ 날씨가 반드시 흐려서 분명하게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우리도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는 인연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혹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는 인연이 두터워 맑게 갠 후의 경치를 통쾌하게 보려고 그런 것일까요? 알 수 없군요.”라고 하였다.

식후 여정에 올랐다. 청려장(靑藜杖)³³⁰⁾을 짚고 길을 안내하는 승려를

329)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는 인연이 적으면: 원문의 ‘선분(仙分)’은 선산(仙山)이라 불리는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는 인연을 말한다.

330) 청려장(靑藜杖):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푸른빛을 약간 띤 흰색 지팡이다. 명아주의 잎이 푸른색이라 청려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따라 산영루(山暎樓)³³¹ 앞길로 걸어가 시내를 따라 2리를 가니, 작은 암자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지장암(地莊菴)이었다. 잠시 머물러 구경을 한 후에 즉시 옥경대(玉鏡臺)에 올라 명경대(明鏡臺)를 바라보고 황천강(黃川江)을 굽어보았다. 홀로 서 있는 층벽(層壁)의 형상이 선장(仙掌)의 승로반³³²과 같았고 급히 흘러내리는 어지러운 폭포의 영롱함은 마치 금쟁반에 쌓인 물과 같았다.

석가봉(釋伽峰)은 그 오른쪽에 있고 관음봉(觀音峰)은 그 왼쪽에 있었다. 급한 골짜기와 높은 물결은 기세가 우레와 같았고, 절벽 사이를 휘돌아가는 구름은 형세가 그림과 같았다. 금강문을 바라보았다. 옥경대에 높게 앉으니 산봉우리의 승경과 수석의 기묘함을 붓으로 기록하기 어려웠다. 기이하도다. 조화옹(造化翁)이 천기를 운용[運機]한 모미여!

마침내 옥경대³³³에 이름을 쓰고 돌아왔는데, 한스러운 것은 비 올 미가 견히지 않아서 영원동(靈院洞)³³⁴에 들어 가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른바 금사굴(金沙窟)·국왕대궐·만리장성(萬里長城)·옥추대(玉湫臺)·영원암(靈院菴)·배석대(拜石臺)·지장봉(地莊峰)·시왕봉(十王峰)·판관봉(判官峰)·동자봉(童子峰)·장군봉(將軍峰)·마면봉(馬面峯)·우두봉(牛頭峯)·백마봉(白馬峯)·차일방(遮日峯)·온담반야굴(溫曇般若窟)·현불현성치(賢佛峴城峙)·망고대(望高臺) 등의 영이한 곳을 갖가지로 몸소 볼 수 없어서 자못 한스러웠다. 다만 천일대에 앉아서 들으니, 모두 바라만 보았다고 하므로 일부러 가서 보지 않았다. 발길을 돌려 몇 리를 가다가 수월암(水月菴)·안양암(安養菴)을 지나서 명헌담(鳴軒潭)에 이르렀다. 명헌담은

331) 산영루(山暎樓) : 금강산 내금강에 위치한다. 장안동(長安洞) 어귀에서 일조문(日照門)으로 들어가서 만천교를 건너는데 다리 안에 산영루(山暎樓)가 있다.

332) 선장(仙掌)의 승로반 :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천상의 이슬을 받기 위해 건장궁(建章宮)에 만들어 놓은 승로반(承露盤)을 가리킨다. 금으로 만든 선인(仙人)이 손바닥으로 승로반을 받치고 있는데 그 높이가 20길이었다고 한다.

333) 옥경대(玉鏡臺) : 금강산 내금강지역 백천동에 있는 거울 같이 맑은 넓은 바위로 5-6명이 앉을 수 있다.

334) 영원동(靈院洞) : 금강산 내금강지역에 있는 골짜기로 조탑장에서 백마봉까지를 포괄한다. 영원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물이 깊고 맑았으며 폭포는 절벽에 매달려, 그 웅장한 형상이 마치 용이 물속에서 세차게 솟구치는 파도와 닮은 것 같았다. 가까이서 보니 혼백(魂魄)이 두근거리며 뛰었고 멀리서 보니 몸과 마음이 상쾌해졌다. 절벽을 따라 잔도를 건너 치마바위[裳巖]를 빙둘러 나오니 강산의 승경이 곳곳마다 기막히게 아름다웠다.

마침내 견여(肩輿)로 삼불암(三佛巖)에 이르렀다. 몇 길이나 되는 큰 바위가 우뚝 솟아 있었고 전면에는 삼 불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곧 무학(無學)³³⁵·나옹(懶翁)³³⁶·지공(指空)³³⁷의 불상이었고, 후면에는 53불(佛)의 진상(眞像)이 새겨져 있었는데, 곧 금동거사(金同居士)가 새긴 것이었다. 청련암(靑蓮菴)·보희암(普喜菴)을 지나서 백화암(白華菴)에 들어갔다. 잠시 쉬었다가 서산(西山)³³⁸·청파(靑坡)·풍담(楓潭) 삼 대사의 비문을 두루 구경하였다.

표훈사(表訓寺)³³⁹에 이르러서 능파교(凌波橋)를 건너 능파루(凌波樓)에 들어가서 범우(梵宇)를 두루 둘러보니 아득한 누대(樓臺)와 굉장한 전우

335) 무학(無學) : 무학(1327~1405)은 고려 말 조선 초 서산 출신의 승려이다. 법명은 자초(自超), 당호는 계월헌(溪月軒), 법호는 무학(無學), 속세의 성은 박씨(朴氏)이다. 아버지는 승정대부문하시랑(崇政大夫門下侍郎)에 증직된 박인일(朴仁一)이고, 어머니는 고성 채씨(固城蔡氏)이다.

336) 나옹(懶翁) : 나옹(1320~1376)은 고려 후기 원나라 연경의 광제선사 주지, 회암사 주지 등을 역임한 승려이다. 속명은 아원혜(牙元惠), 호는 나옹(懶翁) 또는 강월헌(江月軒)이며, 법명은 혜근(惠勤), 혜근(慧勤)이다. 아버지는 선관서영(善官署令) 서구(瑞具)이다. 중국의 지공(指空)평산처림(平山處林)에게 인가를 받고 무학(無學)에게 법을 전하여 조선시대 불교의 초석을 세웠다.

337) 지공(指空) : 원문의 지공(地空)은 지공(指空)으로 수정하였다. 지공(미상~1363)은 원나라 때의 고승(高僧)이다. 인도 마갈타국(摩揭陀國) 사람으로, 이름은 제납박타(提納薄陀, 禪賢)이며 8살 때 승려가 되었다. 원나라로 건너가 불법을 전했는데, 이때 고려(高麗)의 나옹화상(懶翁和尚)에게 인가(印可)를 주었다. 충숙왕 15년(1328) 고려에 들어와서 금강산 법기도량(法起道場)에 예배하였고, 다시 원나라로 가 연경(燕京)에서 법원사(法源寺)를 짓고 머물렀는데 이때 고려의 혜근(慧勤)에게 선종을 전수하기도 했다.

338) 서산(西山) : 서산(1520~1604)은 조선 중기의 승려이다. 법명은 휴정(休靜)이고, 법호는 청허(淸虛)이며 서산(西山)이라고도 한다. 자(字)는 현응(玄應)이다.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한양 수복에 공을 세웠다. 유(儒)불(佛)도(道)는 궁극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삼교통합론(三教統論)의 기원을 이루어 놓았다

339) 표훈사(表訓寺) : 내금강 표훈동 계곡에 있는 금강산 4대 사찰 중의 하나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절이다. 표훈사는 신라 문무왕 10년(670) 표훈선사가 창건했다고 하지만 실은 신라 진평왕 20년(598) 관록과 용운 등이 창건하였다.이 각주는 생략바랍니다.

(殿宇)는 조금도 장안사(長安寺)³⁴⁰와 같지 않았고 그 부유한 절의 모습과 수많은 승도들은 잔폐한 장안사와 동일하게 말할 수 없었다. 비 올 기미가 통쾌하게 개이지 않아 정양사(正陽寺)에 오를 수 없었다. 인하여 표훈사에서 유숙하였다. 드디어 지팡이를 짚고 기암(奇菴)에 올랐다. 비록 기이한 절경을 감상할 수 없었으나 왼편으로는 청학대(靑鶴臺)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천일대(天日臺)가 있었다. 마침내 한가로이 거닐며 산보하다가 신방(新房)으로 내려와 유숙하였다. 대개 날씨가 맑아지기를 기다려 천일대에 올라서 금강산의 절경을 실컷 구경하고자 해서였다. 이날 10리를 갔다.

初九日。陰。曉起看天，雖有晴霽之色，而山暗雲濕可悶。仍與李文相話曰：“昔嘗聞之，人小仙分，則日氣必陰，不得明見。莫是吾輩，小於仙分而然耶。抑或厚於仙分，快靚霽後之景而然耶。未可知也。”食後登程。扶青藜杖，隨指路僧，步出山暎樓前路，緣溪，行二里，得一小菴，乃地莊菴。暫留遊玩後，卽上玉鏡臺，仰見明鏡臺，俯臨黃川江。孤立層壁狀，如仙掌之承露，急流亂瀑噴，若金盤之貯水。釋伽峰在其右，觀音峰在其左。急峽高浪勢，如雷霆，絕壁歸雲形，如畫裡。望見金剛門。高坐玉鏡臺，峰巒之勝，水石之奇，難以筆記，奇哉。造化翁運機之妙也。遂題名於玉鏡臺而歸，所可恨者，以雨意之不霽，不得入靈院洞。所謂金沙窟，國王大闕，萬里長城，玉湫臺，靈院菴，拜石臺，地莊峰，十王峰，判官峰，童子峰，將軍峰，馬面峯，牛頭峯，白馬峯，遮日峯，溫塌般若窟，賢佛峴城峙，望高臺等，靈異之處，未得種種躬見，頗可爲恨。而但聞坐於天日臺，則皆所望見云，故姑不往見耳，回行數里。閱歷水月菴安養菴，至鳴軒潭。潭水深清，瀑布懸崖，其雄壯之狀，若龍鬪水波濤洶湧，近而觀之，魂悸魄動，遠而視之，神清骨爽。緣崖涉棧，繞出裳巖，江山之勝，隨處奇絕矣。遂肩輿至三佛巖。有大石屹立數丈，而前面刻三佛像，卽無學懶翁地空三佛之像也。後面刻五十三佛眞像，卽金同居士所刻也。歷青蓮菴普喜菴，入白華菴。小憩後，周觀西山青坡楓潭三大師碑文。至表訓寺，渡凌波橋，入凌波樓，遍覽梵宇，則樓臺之縹緲，殿宇之宏傑，稍不若長安，而其寺樣之殷富，僧徒之稠夥，與長安之殘弊，不可同日而語矣。以雨意之快不晴，不得上正陽寺。因宿表訓。遂杖

340) 장안사(長安寺) : 금강산 내금강에 있었던 절로 현재에는 절터만 남아 있다. 금강산 4대절의 하나로 551년에 처음 세우고 1731년에 다시 지었다.

策, 登起奇菴. 雖無奇絕之玩, 而左有青鶴臺, 右有天日臺. 遂逍遙散步, 而下宿新房. 蓋待日晴, 欲上天日臺, 以窮金剛之景故也. 是日行十里.

▪ 10일. 맑았다. 아침을 먹은 후 견여(肩輿)로 정양사(正陽寺)³⁴¹에 올라 곧바로 천일대(天日臺)에 오르니 날씨가 갠 뒤라 청명하여 경치가 무궁하게 펼쳐졌고 구름과 안개가 쾌청하게 걷혀서 일만이천 봉우리가 진면목을 깨끗하게 드러냈다. 이른바 장경(長庚)·지장(地莊)·차일(遮日)·백마(白馬)·우두(牛頭)·마면(馬面)·금사(金沙)·영원(靈院)·망고(望高)·시왕(十王)·귀왕(鬼王)·판관(判官)·동자(童子)·장군(將軍)·사자(獅子)·석응(石鷹) 등 여러 봉우리가 나열되었는데, 들쭉날쭉 높낮이가 가지런하지 않았고 천일대에서 바라보면 병풍과 같이 펼쳐지고 빼곡하게 늘어서 어지럽지 않았다. 혹은 호승(胡僧)이 예불하는 것 같고 혹은 창극(槍戟)이 나열된 것 같아 질서정연하게 빼어나고 우뚝하여 그 기이한 승경이 지극하였다. 그러나 그 산봉우리의 색은 그다지 맑고 깨끗하지 않았다. 만폭동 윗면에서부터 중향성(衆香城)으로 비로봉(毗盧峰) 끝에 이르기까지 몇천 봉우리 몇만 골짜기인지 모르겠으나 모두 옥색이요 빙안(氷顔)이어서 한 면의 그늘진 빛이 조금도 없었다. 강산의 기이한 절경이 여기에서 모두 드러나고 천지의 정신이 이 사이에 모두 담겨 있었다. 어제 완미했던 옥경대(玉鏡臺)·명경대(明鏡臺)·명현담(鳴懸潭)·치마바위[裳巖]의 경치는 여기에 비하면 하풍(下風)³⁴²이라고 이를 만하였다. 멀리 비로봉(毗盧峯)과 수미봉(須彌峯)을 바라보니, 흰 눈이 꼭대기에 가득하고 빙안(氷顔)이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봄이 강남에서 다해가서 꽃과 버들이 이미 시들었는데 유독 이 한 구역만 얼음과 눈이 아직도 엉겨있어 봄인가 겨울인가 하니 시기는 봄인데 경치는 겨울이었다. 이 또한 강산의 한 가지 기이한 승경이니 천지간에 다시 어떤

341) 정양사(正陽寺) : 금강산 내금강에 있는 절이다. 금강산에서도 가장 양지바른 곳에 지은 절이라 하여 정양사라 이름 지어졌다. 600년에 처음 세워지고 661년에 개건 확장된 다음 여러 차례 개건하여 전해 내려왔다. 절문은 혈성루이다.

342) 하풍(下風) : 다른 것만 못함을 비유한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15년 조에 감배하풍(甘拜下風)이 있는데, 이는 기꺼이 바람이 불어 가는 쪽을 향하여 머리 조아려 절을 한다는 뜻으로, 남만 못함을 스스로 인정함을 비유한 말이다.

곳이 이보다 아름다운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 비록 한유(韓愈)³⁴³·유종원(柳宗元)³⁴⁴의 문장과 이백(李白)³⁴⁵·두보(杜甫)³⁴⁶의 시문이라 할지라도 모사해 낼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인이 고려국에서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한 것이 진실로 허언이 아니었다.

마침내 혈성루(歇醒樓)에 들어가서 주위를 돌며 두루 감상하니 산수의 경치가 한눈에 다 들어왔고 불사에는 육면의 무량각(無樑閣)이 있었다. 무량각(無樑閣)은 이전에도 비록 많이 봤지만 이와 같이 기이한 구조의 형식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 인하여 퇴어장(退漁丈)³⁴⁷의 현판 시에 차운하였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만이천봉 대략 짚고 돌아오니	萬二千峯領略歸
신선한 바람결에 육수의 ³⁴⁸ 가 나부끼네	仙風飄灑六銖衣

343) 한유(韓愈) : 한유(768~824)는 중국 당(唐)의 유학자, 문장가로 자는 퇴지(退之)이다. 문장가로서 유종원(柳宗元) 등과 고문(古文) 부흥에 힘써,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라 일컬어진다.

344) 유종원(柳宗元) : 유종원(773~819)은 중국 당나라의 문학가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다. 한유와 더불어 고문 부흥(古文復興) 운동의 쌍벽이다.

345) 이백(李白) : 이백(701~762)은 당나라 시인으로 중국의 최고 시인으로 추앙되며 시선(詩仙)으로 불린다.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이다.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된다. 1,100여 편의 작품이 현존한다.

346) 두보(杜甫) : 두보(712~770)는 당나라 시인으로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이며 이백과 함께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시성(詩聖)이라 불렸다. 소릉(少陵)에 거주했고,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郎)이 되었기 때문에 두소릉·두공부라고 불린다.

347) 퇴어장(退漁丈) : 김진상(金鎭商, 1684~1755)의 호이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여익(汝翼), 호는 퇴어(退漁)이다. 김반(金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판 김익훈(金益勳)이고, 아버지는 김만채(金萬埰)이며, 어머니는 이항(李杭)의 딸이다. 1699년(숙종 25) 진사가 되고 1712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설서(說書)지평(持平)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1720년 홍문록에 올라 수찬(修撰)을 지냈다. 1722년(경종 2) 신임옥사로 무산(茂山)에 유배당하였으나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풀려나 이조정랑으로 등용되었다. 이어 수찬필선(弼善)부교리(副校理) 등을 역임하던 중 1729년(영조 5)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실시된 탕평책에 반발하여 퇴거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환로에 진출하여 1735년 부제학(副提學), 1738년 대사성, 1740년 대사헌을 거쳐 1753년 좌참찬에까지 이르렀다. 문집으로 『퇴어당유고(退漁堂遺稿)』가 전한다.

348) 육수의(六銖衣) : 천인(天人)이 입는다는 극히 얇고 가벼운 옷이다. 《장아함경(長阿含經)》에 “도리천(初利天)에는 옷의 무게가 육수(六銖)이고,焰마천(炎摩天)에는 삼수(三銖)이고, 도솔천(兜率天)에는 이수 반(二銖半)이다.” 하였다. 한악(韓偓) 시(詩)에는 “육수의 얇아서 가벼운 추위를

맑게 갠 후 기이한 절경을 넘으니
온갖 상념 모두 재가 된 지 30년이 안 되었네

清光霽后逾奇絕
萬念都灰卅載非

이동하며 유람하고 도로 표훈사로 내려갔다. 잠시 휴식한 후 마침내 금강문으로 걸어 나갔는데 이른바 금강문이라는 것은 곧 두 개의 바위가 서로 마주하여 아래로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위에서 서로 만나니 이 또한 기이한 곳이었다.

청학봉(靑鶴峯) 앞길을 경유하여 백학봉(白鶴峯)·소향로(小香爐)·대향로(大香爐)의 비탈길을 지나 만폭동(萬瀑洞)³⁴⁹으로 들어갔다. 지나온 여러 봉우리가 모두 만 길이나 곧바로 솟아 그 사이로 한 줌 흙도 남아 있지 않았는데 흑 노송(老松)이 너울거리며 거꾸로 걸려 있어 참으로 그림 속의 풍경이었다. 이른바 만폭동의 경치를 어찌 종이와 붓으로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처음 만폭동으로 들어갈 때 벼랑에 크게 ‘만폭동’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또 그 반석에 양봉래(楊蓬萊)³⁵⁰가 초결(草訣)로 크게 쓴 ‘봉래풍악 원화통천(蓬萊楓岳 元化洞天)’이라는 8글자가 있었다. 또 그 아래에는 ‘삼산국(三山局)’이라는 3글자가 있었고, 그 옆에 바둑판이 완전(完然) 새겨져 있었으며, 또 그 윗면에는 ‘천하제일강산(天下第一江山)’ 6자가 있었고, 기타 큰 고을의 명공(名公)이 고금(古今)에 썼던 이름이 몇천만 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골짜기 석벽에 가득 차서 조금도 여지가 없었으니, 강산이 완상할 만 한 곳임을 여기에서 상상할 수 있겠다.

10여 보를 가니, 또 청룡담(靑龍潭)이 있었다. 초서 글자는 비록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으나 굵이굵이 폭포고 걸음마다 맑은 연못이며 물은 빛나고 돌은

일으키누나.[六銖衣薄惹輕寒] 하였다.

349) 만폭동(萬瀑洞) : 만폭동은 금강대 아래 원통골에서 내륙 깊숙이 마하연이 있는 백운동 입구까지 약 17km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 골짜기는 많은 담소와 폭포, 기암괴석이 개울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금강산 계곡을 대표한다.

350) 양봉래(楊蓬萊) :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을 가리킨다.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응빙(應聘), 호는 봉래(蓬萊)완구(完邱)창해(滄海)해객(海客)이다. 주부인 양희수(楊希洙)의 아들이다. 형 양사준(楊士俊), 아우 양사기(楊士奇)와 함께 글에 뛰어나 소식, 소순, 소철 등 중국의 삼소(三蘇)에 견주어졌다.

희어서 색깔이 마치 푸른 옥이 은은히 비추는 듯하였고 험한 골짜기 높은 파도 소리는 마치 우레가 세차게 포효하는 듯하였다. 인하여 청룡담 위에 이름을 새겼다. 또 한두 걸음을 가니 수십 길의 폭포가 벼랑 꼭대기에서 어지러이 흘러내렸는데 모습이 마치 백옥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 이름은 세두분(洗頭盆)이라 하였는데 지로승이 말한 것을 들으니 보덕불(普德佛)이 이곳에서 머리를 감았다고 하였다. 세두분의 형상은 둥글면서 또 깊고 오목하여 마치 조화옹(造化翁)이 만든 것 같았다.

1리쯤 가니, 묵룡담(黑龍潭)이 있었다. 그 기이한 절경의 모습이 청룡담(靑龍潭)과 차이가 없었다. 묵룡담의 위에는 비파담(琵琶潭)이 있었는데 굴곡이 저서 구불구불한 모양이 비파와 같았으므로 인하여 이름한 것이다. 그 바위 절벽에도 또한 ‘비파담’이라는 3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또 몇 보쯤 지나가니 벽하담(碧霞潭)이 있었다. 맑게 용솟음치는 벽하담의 물은 4개의 연못 가운데 최고의 승경처였는데 바위 면에는 또 ‘벽하담’이라는 3글자가 있었다. 벽하담 위에는 분설담(噴雪潭)이 있었는데 물이 높은 폭포에서 떨어져 모양이 눈을 내뿜는 것 같았으므로 인하여 이름한 것이었다.

맨발로 옷을 걷어 올리고 벽하담 가의 폭포를 지나서 보덕굴(普德窟)을 찾았다. 만 길의 석벽 위에 위아래로 불우(佛宇)가 있었는데 상방(上房)은 사미(沙彌)³⁵¹가 거주하는 곳이고, 하방(下房)은 보덕불의 신주를 모신 함(龕)이 있었다. 절벽 기울어진 곳은 석굴에 가까웠으므로 백 척의 구리 기둥으로 지탱하여 지었다. 또 무쇠를 채운 주물로 들보를 만들어 앞뒤로 묶은 것이 철삭(鐵索) 아닌 것이 없었다. 위아래 계체(階砌)는 모두 쇠못을 박아서 지탱하였고, 만 길 허공 위에 당을 세웠는데, 내려다보면 두려워서 모골(毛骨)이 모두 서늘했다. 또 그 청(廳) 가운데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판자가 있었는데, 열어 보니 절벽이 끝이 없어 시력이 도달할 수 없었으니 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능히 만든 것이겠는가. 만약 천옹(天翁)이 세운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불자(佛者)가 만들었을 것이다. 오래 머무니 심장이 두근거려 발길을 돌려 아래로 내려갔다. 백여 길의 폭포 벼랑을

351) 사미(沙彌) : 출가하여 십계를 받은 어린 사내아이를 의미한다.

따라 아래로 내려가서 진주담(眞珠潭)에 이르렀다. 이동할 때 그 폭포의 모습을 두루 감상해 보니 팔담(八潭) 가운데 최고였다. 물이 천 길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흰 눈가루인가 의심하다가 분명 진주의 모습이었다. 물의 깊이와 너비가 이곳이 과연 제일이었으니 매우 기이했다.

또 10여 보를 가니, 구담(龜潭)이 있었다. 시내 아래에 거북이와 같은 형상의 바위가 있어서 이름한 것이었다. 그 위의 반석(盤石)에는 우암(尤庵) 노선생(老先生)의 초서로 된 2구 시³⁵²가 있었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맑은 시내 흰 돌과 취향을 함께 하고	淸溪白石聊同趣
갠 달 맑은 바람 특별히 전하리	霽月光風更別傳

한 구는 새긴 지 오래되어 돌이 마멸되고 자획이 떨어져 나가 알 수 없었으니 한탄스러웠다. 연못 가운데에는 5, 6개의 석혈(石穴)이 사방으로 둘러 있었는데 모두 2, 3길쯤 되었고 깊고 맑아 경외스러웠다. 지로승에게 물으니 옛날에 구룡이 살던 굴이었다고 하였다. 위에는 누가 쓴 것인지 모르는 ‘구룡연(九龍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우옹필(尤翁筆)’의 아래에 있어서 아마도 우옹(尤翁)이 쓴 것인듯했다. 그 위에 선담(船潭)이 있었는데 선담의 모습이 배와 같았다.

벼랑을 따라 잔도를 경유하여 수십 보를 가니 화룡담(火龍潭)이 있었다. 화룡담 위에는 자차성(自次城)이 있었는데, 비록 치첩(雉堞)은 없었으나 석벽이 중첩되어서 마치 돌을 깎아서 축조한듯하였다. 또 그 위의 한 작은 시내를 넘으니 높게 솟아 천 길이나 되는 석벽이 조금의 치우침 없이 우뚝 솟아 있었으니 명칭이 사자암(獅子巖)³⁵³이었다. 그 사자암은 대(臺) 위에 대(臺)가 있는 형상으로 위태롭고 기이했다. 그 상대(上臺)의 돌은 마치 장차

352) 초서로 된 2구의 시 : 현종 3년(1662) 3월에 송시열이 금강산을 유람할 때 만폭동 반석(盤石)에 주희(朱熹)의 ‘맑은 시내 흰 돌과 취향을 함께하고, 갠 달 맑은 바람 특별히 전하리.[淸溪白石要同趣 霽月光風更別傳]’라는 시를 친필로 써서 새겨둔 것을 말한다.

353) 사자암(獅子巖) : 금강산 내금강 만폭동 만폭팔담 중 최상류에 해당되는 화룡담 바로 위에 위치한 바위이다. 화강암의 수평절리가 발달해 있는 단애 위에 사자 모양을 한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사자암이다.

떨어질 듯해서 뒤로 물러날 기세였고 바위 하나로 지탱하여 서 있었으니, 필시 하늘이 만든 것이었다. 화룡담(火龍潭) 앞쪽을 넘으니, 또 만 길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었는데, 곧 오선봉(五仙峯)이었다. 그 봉우리의 최정상 층층 절벽 위에는 돌을 떨어뜨린 흔적이 있었는데 그 혈(穴)이 완연히 새것 같았다. 지로승이 말하기를 “옛날에 불자가 사자암이 경복(傾覆) 되는 것을 근심하여 오선봉(五仙峯)의 돌을 뽑아서 지탱하였습니다.”라고 하니, 말이 매우 허황됐다. 그러나 그 두 봉우리의 돌이 하나는 지탱하고 하나는 뽑은 흔적이니 괴이하였다. 또 이 돌의 크기는 저 구멍의 너비와 대략 서로 비슷하였으니 괴이하였다. 말을 만든 자가 말을 전하여 후세를 속인 것이다. 이후로는 자못 기이한 볼 곳이 없었다. 따라서 곧장 마하연(摩阿衍)에 도착하였다. 조금 오랫동안 휴식한 후 상의를 다 벗고 백운봉(白雲峯)을 찾아서 길을 따라 만회암(萬灰菴)으로 들어갔다. 만회암에는 용모가 건장한 대가(大師)가 있었는데 진실로 석씨(釋氏)의 기상이 있었다. 그 이름은 상언(常彦)이고, 그의 호는 설파(雪坡)였다. 그의 경술의 조예(造詣)를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었으나 그 언어와 행동이 자못 범승(凡僧)이 아니었다.

마침내 백운대(白雲臺)³⁵⁴를 향하였다. 백운대 아래에서 바라보니 철삭(鐵索)의 길이가 10여 길이었다. 대개 상고(上古)로부터 그 대(臺)에 올라가고자 하였으나 오를 방법이 없어서 이 철삭을 설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오르게 한 것이었다. 간신히 올라갔다. 그 위에 길이 있었는데 겨우 손바닥만 하였고 길 밖 좌우는 아득하여 몇만 길인지 몰랐으며, 발 디디는 곳 바깥은 모두 저승 세계였다. 그 위는 우뚝 솟아서 하늘과의 거리가 한 자 남짓이 안 되었다. 대(臺) 아래를 굽어보니 풍도(豊都)가 바로 있었다. 잠깐인데도 심신이 떨리고 두려운 것이 어찌했겠는가. 흑 벼랑을 잡고 기어가고, 흑 나무에 의지하여 무릎으로 기어서 간신이 정상에 도착하였다. 10여 사람이 앉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향성(衆香城)을 마주 보고 뒤로는 망고대(望高臺)를 내려다보았다. 중향성의 경치는 대개 석양이 아름다운데 마침 그 시간을 만나 그 본연의 흰 빛을 또 석양의 영롱함이 비추니, 그 기이한 절경을 비록

354) 백운대(白雲臺) : 마하연 동쪽 5리쯤에 있다. 내금강 중향성 기슭의 험준하고 가파른 바위 길을 따라 북쪽으로 쇠뿔줄을 잡고 올라가면 암봉에 오르게 되는데 이곳이 백운대이다.

남산의 죽간을 다 쓰고³⁵⁵⁾ 섬계의 등지(藤紙)를 다하여도³⁵⁶⁾ 오히려 기록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나의 졸렬한 글과 거친 말로 어찌 그 만분의 일이라도 기록하겠는가. 다만 하늘을 찌를듯한 몇천의 봉우리는 옥설(玉雪)의 빛 아닌 것이 없었는데, 흑 흰 승복을 입은 호승(胡僧)이 합장하여 예불을 드리는 듯한 형상이었고, 흑 수많은 갑옷 입은 병사가 뻑뻑하게 늘어서 명령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물의 모양으로 보면 돌은 또한 사물이었고, 사람의 형상으로 보면 봉우리는 또한 사람이었다. 기상(氣像)이 천만 가지이고 기교가 백 가지로 나타나니 이는 중향성의 큰 장관이었다.

그 남쪽을 보니 하늘에 꽃혀서 높이 솟은 것은 높고 높은 월출봉(月出峯)과 일출봉(日出峯)이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 우뚝 솟은 것은 층층으로서 있는 구정봉(九鼎峯)과 혈망봉(穴望峯)이었다. 그 아래로 승상(僧像)·석옹(石鷹)·법기(法起)·오선(五仙)·칠보(七寶)·가업(伽業)·향로(香爐)·청학(靑鶴)의 봉우리가 마치 자손들이 나열된 것 같았고, 화룡(火龍)·선귀(船龜)·진주(眞珠)·분설(噴雪)·벽하(碧霞)·청룡(靑龍)·비파(琵琶)·흑룡(黑龍) 등의 연못은 금대(襟帶)가 구불구불 이어진 것 같았으니 이는 백운대의 장관이었다. 그 가운데의 기이하고 빼어난 모습은 담담하게 돌아가는 것을 잊게 하였는데, 이 몸이 사미(沙彌)가 되지 못해 이와 같이 신령하고 기이한 곳에서 늙어 죽을 수 없는 것이 절로 한스러웠다. 해가 저물어서 다시 이내 철삭(鐵索)을 잡고 내려왔다.

마하연(摩訶衍)³⁵⁷⁾으로 돌아와 머물렀다. 이 암자도 또한 기이한 승경처였다.

355) 남산의 죽간을 다 쓰고 : 송지행이 백운대에서 바라 본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나라 이밀(李密)의 격문에 나온 죽간을 인용한 것이다. 수(隋)나라 때 이밀(李密)은 양제(楊帝)의 죄 열 가지를 열거하고 이르기를 “남산의 대나무를 모조리 베어 죽간을 만든다 해도 그의 죄악을 다 쓸 수가 없고, 동해의 물을 터놓는다 해도 그의 죄악을 다 씻을 수가 없다. [罄南山之竹 書罪無窮 決東海之波 流惡難盡]”라고 하였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183 수기(隋紀) 공제(恭帝)』

356) 섬계의 등지(藤紙)를 다하여도 : 송지행이 좋은 종이가 있더라도 백운대에서 바라 본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다. 중국 절강성(浙江省) 섬계(剡溪)에서 생산된 등(藤)으로 만든 종이는 가장 빛깔이 희고 질이 좋기로 유명했다.

357) 마하연(摩訶衍) : 표훈사에 딸린 암자로 661년(신라 문무왕 1년)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 ‘마하연’이란 대승(大乘)이라는 뜻이다. 만폭동을 지나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암자이다. 53칸의 방을 가진 큰

금강산의 심복(心腹)에 처하여 중향(衆香)의 석성(石城)이 에워싸고 있어, 터전이 고묘(高妙)하였으며 범우(梵宇) 또한 아름다웠다. 옥상의 판자는 금장을 칠하여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이 지극했는데 승려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 중고(中古)에 너무 사치스럽다고 하면서 솔가지를 태워서 그슬렸다고 하였다. 뜰 아래에 한 그루 나무가 있었는데 가지는 회나무와 같고 뿌리는 소나무와 같았다. 천연히 회나무와 소나무가 마른 것 같았다. 비록 만 가지에 어린 눈을 머금고 있었으나 하나의 나뭇잎도 짝이 트지 않아 괴이하여 승려에게 물으니, “이 나무는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봄에는 잎이 나오는데 잎은 회나무와 비슷하고 열매는 측백나무와 비슷하여 그 이름을 계수나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계수나무의 모양은 이전에 보지 못한 바로 계수나무의 이름을 듣고 지극히 귀하다고 여겨 곧바로 그것을 보니 비록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모양은 기이하였다. 이날 밤 마하연에서 유숙하였다. 종일토록 다닌 것이 10여 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름답고 절묘하며 기이한 승경이 여기에서 최고였다. 만폭동에서부터 화룡담에 이르기까지 10리는 족히 되었다. 벼랑과 골짜기는 얼마나 많았고 입석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모두 유람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쓴 곳인데 그중에서도 이곳이 명승지임을 알겠다. 내일이면 장차 내산(內山)과 이별해야 하니 창연한 마음이 없지 않아서 마침내 읊시 한 수를 읊었다. 시는 다음과 같다.

비 내리는 산영루에 지팡이 소리 울리고	雨中山暎一筇鳴
영원동 겨우 지나니 또 혈성루였네	靈院纔過又歇醒
높다란 보덕암은 불력의 노고이며	普德菴高勞佛力
우뚝한 수미탑엔 하늘의 정기 모였네	須彌塔屹會天精
굽이굽이 팔담은 빙옥을 뿜어내고	八潭曲曲嗽水玉
층층이 칠보대는 수정이 걸렸네	七寶層層掛水晶
백운대 정상의 경치 아직 보지 못했는데	未了白雲臺上景
기우는 해에 다시 중향성을 마주하네	斜陽更對衆香城

절이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금강산의 중심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을 경유해야만 주위의 다른 사찰로 갈 수 있다.

대개 내산에서 가장 좋은 곳을 취하여 읍시 한 수를 지은 것이다.

初十日. 晴. 早餐后, 肩輿上正陽寺. 直上天日臺, 則霽后清明, 光景無窮. 雲霞快霽, 萬二千峯淨露眞面目. 所謂長庚地莊遮日白馬牛頭馬面金沙靈院望高十王鬼王判官童子將軍獅子石鷹諸峯羅列, 參差高下不齊, 而望於此臺, 則布列如屏, 簇立不亂, 或似胡僧之禮佛, 或如鎗戟之列立, 井井而秀, 正正而峙, 極其奇勝. 然其峯巒之色, 不甚清決. 自萬瀑洞上面, 至衆香城, 盡毗盧峰, 不知幾千峰幾萬壑. 皆是玉色冰顏, 小無一面陰翳之色. 江山奇絕, 於此盡露, 天地精神, 都輸此間. 昨日所玩, 玉鏡臺明鏡臺鳴懸潭裳巖之景, 比於此中, 可謂下風. 而遙見毗盧峯須彌峯, 則白雪盈巔冰顏, 滿壑春盡, 江南花柳已衰, 而獨此一區冰雪尙凝, 則春耶冬耶, 時則春而景則冬也. 此亦江山之一奇景, 不知天地間, 更有何處, 可以并美於此. 雖韓柳之文, 李杜之詩, 莫能模出. 華人之願, 生高麗國, 一見金剛山者, 信非虛語矣. 遂入歇醒樓, 周回遍玩, 山水之勝, 一眼盡之, 而佛舍, 則有六面無樑閣. 無樑之閣, 前雖多見, 而如此奇構之制, 曾所未見也. 因步退漁丈板上韻曰: 萬二千峯領略歸, 仙風飄灑六銖衣. 清光霽后逾奇絕, 萬念都灰卅載非. 移時遊玩, 還下表訓. 小憩後, 遂步出金剛門. 所謂金剛門, 卽兩巖相對, 下有一人僅容之路, 上則相接, 此亦奇異處也. 由青鶴峯前路, 歷白鶴峯小香爐大香爐磴路, 入萬瀑洞. 所經數峯, 皆矗立萬丈間, 無一杯土留着, 而或有老松婆娑倒掛, 眞畫中景也. 所謂萬瀑洞景槩, 豈可以紙筆盡記也. 初入洞, 崖大刻萬瀑洞, 又其盤石有楊蓬萊草訣大書曰, 蓬萊楓岳元化洞天八字. 又其下有三山局三字, 而傍刻碁局宛然方正, 又其上面有天下第一江山六字, 其他名公巨鄉, 古今題名, 不知幾千萬, 滿壑石壁, 小無餘地, 江山之可玩於此可想. 行十餘步, 又有青龍潭草字. 雖不知何人所書, 曲曲瀑布, 步步澄潭, 水明石白色, 若青玉之隱映, 急峽高浪聲, 如雷霆之吼怒, 因於青龍潭上刻名. 又於一二步, 有數十丈瀑布亂流, 於懸崖之上狀, 如白玉之屑, 其名則洗頭盆云. 而聞指路所言, 則普德佛洗頭於此處, 而盆形圓且深凹, 似若化翁之所造矣. 行一里餘, 有黑龍潭, 其奇勝之狀, 與青龍潭無異. 而潭之上, 有琵琶潭, 屈曲透迤狀, 如琵琶. 故因以爲名也. 其石崖, 亦刻琵琶潭三字矣. 又過數步許, 有碧霞潭. 潭水之澄清洶湧於四潭之中, 爲最勝處. 而石面又有碧霞潭三字.

潭之上，有噴雪潭，水落高瀑狀，如噴雪，故因以爲名者也。跣足褰衣，越碧霞潭上瀑，尋普德窟。萬仞石壁上，有上下佛宇，而上房則沙彌所住之處，下房則普德佛安靈之龕也。絕壁傾仄，石窟逼側，故以百尺銅柱撐而構之。又以水鐵橫鑄爲樑，而前後維之者，無非鐵索。上下階砌，皆以鐵釘插而支之，設堂於萬仞虛空之上，臨之悚然，毛骨俱凜。又其廳中有開閉一小板，開而視之，絕壁無底，眼力未到，此豈人力，所能辦哉。若非天翁之所設，則必也佛者之所造也。久住心悸，旋筇下來。緣百餘丈瀑崖而下，至眞珠潭。移時遊翫，其瀑布之狀，最於八潭，而水下千仞，初疑白雪之屑，明是眞珠之狀。水之深廣，此果第一處，奇哉異哉。又行十餘步，有龜潭溪，下有巖狀若龜形，故名之。而其上盤石，有尤庵老先生草書二句曰：霽月光風更別傳，清溪白石聊同趣。一句則刻石泐，字畫剝落，未能知之，可歎。潭中有五六石穴周回，皆二三丈餘，而深澈可畏。問於指路則曰，“昔日九龍所居之窟”云。上刻九龍淵的不知誰人所書，而在於尤翁筆下，疑是尤老之筆也。其上有船潭，潭形似船矣。緣崖由棧，行數十步，有火龍潭。潭上有自次城。雖無雉堞，而石壁重疊，若斲石以築者然。又其上邊，越一小溪，有石壁屹聳千仞，不小偏倚，特立聳起，名爲獅子巖。其爲巖也，臺上有臺狀，其危奇。而其上臺之石，若將墮墜，似有動退之勢，而有一石撐而立之，必是天作。而越火龍潭前邊。又有峯屹立萬丈，卽五仙峯也。其峯最上頭，層崖之上，有落石之痕，其穴宛然如新。指路告之曰：“昔日佛者，患獅巖之傾覆，拔仙峯之石以撐之”云，語甚虛荒。然其兩峯之石，一撐一拔痕，則可怪。又此石之大小，彼穴之闊狹，略相近焉，怪哉。造言者之傳說瞞後也，此後則殊無奇觀處。故直到摩阿衍。稍久休憩後，盡脫上服，訪白雲峯。歷路入萬灰菴。菴有一大師形容魁偉，真有釋氏氣像。其名常彥，其號雪坡。其經術造詣，雖未詳知，而其言語舉止，殊非凡僧也。遂向白雲臺，臺下仰看，鐵索長可十餘丈。蓋自上古，欲上其臺，無路可緣故。故設此索，使人舉登者也。艱辛以上。其上有路，僅如一掌，而外左右，則杳不幾萬丈，容足之外，盡是閻羅。屹立其上去天，如不盈尺。俯瞰臺下，禮都正在，俄頃心身之悸怖，爲如何哉。或抱崖而匍匐，或緣木而膝行，艱到上峯。足可坐十餘人。前對衆香城，後臨望高臺。衆香之爲景也，蓋宜夕陽，而適值其時，以其本質之白又照夕陽之玲龍，其爲奇勝。雖盡南山之竹，傾

剡溪之藤, 尙不能書記, 況我拙辭蕪語, 豈可錄其萬一也. 但挿天幾千峯, 無非玉雪之色. 或如白衲胡僧, 叉手拜佛之像, 或似萬甲精兵, 森立待令之狀. 以物狀觀之, 則石亦物也, 以人形視之, 則峯亦人也. 氣像萬千, 奇巧百出, 此則衆香城之大觀也. 視其南面, 則挿天而聳秀者日出峯, 日出峯之高高也, 入雲而屹立者九鼎峯, 穴望峯之層層也. 其下僧像石鷹法起五仙七寶伽業香爐青鶴之峯, 若子孫之羅列, 火龍船龜眞珠噴雪碧霞青龍琵琶黑龍之潭, 如襟帶之逶迤, 此則白雲臺之狀觀也. 箇中奇絶之像, 淡然忘歸, 自恨此身不爲沙彌, 不得終老於如此靈異之境也. 以日暮之, 故更仍鐵索而下, 還次摩阿衍. 此菴亦奇勝處, 處金剛之心腹, 環衆香之石城, 基地高妙, 梵宇亦麗. 屋上板子, 塗金粧之極其華侈, 而聞僧所傳, 則中古鄭松江, 謂“以太多燃松煤之”云. 庭下有一樹, 枝似檜而根如松. 天然若檜松之枯, 而雖有萬條之含嫩, 而無一葉之抽青, 怪而問之僧云, “此樹之爲物也, 秋則落, 而春則開. 葉似檜而子似栢, 其名謂桂.” 桂樹之狀, 前所未見, 而桂樹之名聞之極貴, 卽而視之, 雖未的知, 狀則奇矣. 是夜宿摩阿衍, 終日所行, 不過十餘里, 而佳妙奇勝, 此處爲最, 自萬瀑洞, 至火龍潭, 洽滿十里. 崖壑何限, 立石何限, 而盡爲遊玩人題名之所, 則箇中名勝於此可知. 明日, 則將別內山, 不無悵然之懷, 遂咏一律曰: 雨中山暎一笻鳴, 靈院纔過又歇醒. 普德菴高勞佛力, 順彌塔屹會天精. 八潭曲曲嗽冰玉, 七寶層層掛水晶. 未了白雲臺上景, 斜陽更對衆香城. 盖取內山最好處, 以成一律者也.

▪ 11일. 맑았다. 일찍 식사한 후 견여(肩輿)³⁵⁸로 불지암(佛地庵) 앞길에 이르렀다. 견여에서 내려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불지암에 이르니, 암자는 모두 황폐하였다. 경치는 매우 아름답고 멋지나 사미(沙彌)가 거처하지 않은 것이 애석하였다. 암자 앞에는 2층 석천(石泉)이 있는데 위는 옥계수(玉溪水)라고 이름하고, 아래는 감로수(甘露水)라고 이름하였다. 마침내 마셔보니 맛이 매우 청량하여 가슴까지 시원한 듯하였다. 묘질상(妙質像)에 이르니 바위가 있었는데 우뚝 백여 길이나 서 있었고, 가운데에 큰 불상

358) 견여(肩輿) : 좁은 길을 지날 때 임시로 쓰는 간단한 가마를 이른다.

하나가 조각되어 있는데 승려가 나옹원불(懶翁願佛)³⁵⁹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서 있는 광명대(光明臺)는 광대하여 사문(沙門)의 공로이나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한 점에 무익하였다. 이허대(李許臺)를 지나서 1리를 가니 폭포가 여러 층으로 있었는데 또한 기이한 절경이었다. 골짜기가 험준하여 견여에서 내려 지팡이에 의지하여 올라가니 궁벽한 골짜기에 눈이 가득 쌓였는데 혹은 깊이가 한 길 남짓 되었고, 혹은 깊이가 무릎이 빠질 정도였다. 산이 높고 외진 지역이라는 것은 윤3월의 눈으로 알 수 있었다. 간신히 내수참(內水站), 유참(楡站)에 도착했는데 가마를 멘 스님은 와서 기다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마침내 견여로 축수굴(祝手窟)을 지나 효운동(曉雲洞)에 이르니, 폭포 아래에 연못 하나가 있었고 4개의 석굴도 있었다. 그 모습 중에 작은 것은 술 단지 항아리와 같았고, 큰 것은 굴이나 구덩이와 같았다. 그 깊이는 한이 없었고 이름하여 새기기를 효운동(曉雲洞)이라고 하였는데, 대개 지난날 아홉 마리 용이 살았던 연못이라고 하였다. 그 앞에는 상암(常巖)이 있었는데 광대한 벽이 서 있어 내산(內山)의 상암(常巖)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100여 걸음을 가니 선담(船潭)이 있었다. 그 모습이 배와 같아 또한 내산의 선담(船潭)보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연못에 폭포가 몇 길의 높이에서 떨어져 돌이 모두 섬돌처럼 갈렸고 가운데는 또한 깎여 물이 넘쳤다. 윗면은 협소하고 그 가운데는 마치 눈썹과 같았으며 깊이는 헤아릴 수 없었다. 이어 유참사(楡站寺)에 내려오니 뒤에는 서산대사(西山大師) 및 다른 선사의 부도가 있었다. 마침 산영루(山映樓)에 들렀다가 곧장 능인전(能仁殿)으로 향하여 능인전 전당을 두루 관람하였다. 불좌는 모두 나무뿌리로 산 모양이 되도록 층층이 만들었고, 불상은 53불로 목가산(木假山)³⁶⁰의 사이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 가운데

359) 나옹원불(懶翁願佛) : 나옹은 혜근(惠勤, 1320~1376)으로, 성은 아씨(牙氏), 속명은 원혜(元惠), 호는 나옹이다. 중국 원나라에서 인도의 승려 지공(指空)에게 배운 뒤에 귀국하여 왕사가 되었다. 보우(普愚)와 더불어 고려 말 선종의 대가로서 이후의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원불은 사사로이 모시고 발원하는 부처 또는 8상으로 서원(誓願)을 성취한 화신불(化身佛)을 말하기도 한다.

360) 목가산(木假山) : 나무로 만든 가짜 산이란 뜻으로, 나무뿌리가 기묘하게 얽혀 산의 형상을 이루어 관상용이 된 것을 지칭한다.

병풍 및 탁의(卓衣)³⁶¹) 등 물건은 모두 황궁에서 하사한 것이었다. 옥등(玉燈) 2쌍이 있었는데 모두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나 화려하고 아름다움은 견줄 만한 것이 없었다. 앞에는 16층 석탑(石榻)이 있어 비어있는 부분을 살펴보니 그 가운데 모두 금불(金佛)이 앉아 있었다. 고적(古蹟)은 인목왕후(仁穆王后)의 어필(御筆)과 경책(經冊), 선종(成宗)의 어필(御筆)과 교지(教旨)가 있었고, 구보(舊寶)는 앵무배(鸚鵡盃), 호박배(琥珀盃), 청유리대(靑琉璃臺)가 있었다. 사찰의 오른쪽에는 오탁정(烏啄井)이 있었는데 물맛이 매우 청량하였다. 어실(御室)이 있었으니 곧 세조(世祖), 예종(睿宗), 성종(成宗)의 위패가 봉안된 각(閣)이었다.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이윽고 마치고, 이어 점심시간이 되어 성불령(成佛嶺)을 넘었으니 10리를 갔다. 비록 불정대(佛頂臺)에 들렀지만 그 위태로움과 높이는 백운대만큼 심하지 않은 것 같으나 불정대 가운데에 있는 구멍은 깊어서 밑이 보이지 않았다. 12폭포를 바라보니 은은히 흰 무지개가 하늘을 꿰뚫는 듯 하였고, 층층히 떨어져 흘러 연속해서 12폭포를 이루며 한 곳도 사이가 끊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폭포가 하나뿐인 것 같았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 곧 12층의 폭포였다. 불적(佛蹟) 폭포, 수락(水落) 폭포 또한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이어 박달(朴達)의 높은 고개로 내려가는데 형세가 마치 종이 세워진 것 같았고, 곧장 수만 길을 내려가는데 위험하였다. 금강산을 두루 지나면서 여기가 가장 험준하였다. 풍혈대(風穴臺)에 들어가니 구멍의 깊이가 10여 길이었다. 지금도 풍기(風氣)가 있어 옷깃을 풀고 마주 서니 시원한 바람에 절로 상쾌하였고 열은 안개가 가늘게 피어오르니 기이한 것이 조화옹(造化翁)의 공이었다. 오송대(五松臺)를 지나 학서대(鶴栖臺)를 바라보고, 석천(石川)을 넘어 송림굴(松林窟)에 들어갔다. 굴 안은 광활하여 마치 두서너 칸의 사찰과 같았고, 그 안에 하늘이 만든 층탑이 있었는데, 53불상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위도 기이하고 교묘한 곳이니 어디를 가든 없는 곳이 없었다. 이어 원통암(圓通菴)을 향해 가서 유숙했다. 이날 50리를 갔다. 온 길을 돌아보니 산이 우뚝 높이 솟아 형세가 하늘에 꽂힌 것 같았다. 처음에 내가 길 떠나기를

361) 탁의(卓衣) : 승려가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법의(法衣)를 말한다.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의심하였다

十一日. 晴. 早食後, 肩輿至佛地庵前路. 下輿緣溪而上, 至佛地菴. 菴皆荒蕪. 景甚佳妙, 而惜無沙彌之居者也, 庵前有二層石泉, 上名玉溪水, 下名甘露水. 遂嗽而飲之, 味甚清冽, 心胸似爽. 至妙質像, 有巖, 屹立百餘丈, 中刻大佛一像. 僧所謂懶翁願佛, 而其下立光明臺, 誕哉, 沙門之勞, 於無益以眩人耳目也. 過李許臺, 行一里. 有瀑布數層, 亦奇絕處也. 以峽峻下輿, 扶筇而上, 雪滿窮壑, 或深丈餘, 或深沒膝. 山高境僻, 可知於閏三月之雪矣. 艱到內水站榆站, 輿僧來待已久. 遂肩輿過祝手窟, 至曉雲洞, 有一潭在於瀑布之下, 有四石穴焉. 其爲狀也, 小者如瓮罌焉, 大者如窟坎焉. 其深無底. 而名而刻之曰曉雲洞, 蓋昔日九龍所處之淵云耳. 其前有常巖, 其廣大壁立, 大勝於內山裳巖矣. 行百餘步, 有船潭焉. 其狀似船, 亦勝於內山之船潭. 而其爲潭也, 瀑落數丈, 石皆砌磨, 中亦剝陷. 上面則狹小, 而其中若眉稜, 深不可測. 因下榆站寺, 後有西山大師及他師浮屠矣. 遂入山暎樓, 直向能仁殿, 遍覽殿宇. 其佛座, 皆以木根, 假山層造, 而佛則以五十三佛, 列立於木假山之間矣. 其中所有屏風及卓衣等物, 皆是大內所賜. 有玉燈二雙, 皆非我東之物, 侈美無雙. 前有十六層石榻, 窺見空缺處, 其中皆坐金佛矣. 古蹟則有仁穆王后御筆經冊成廟御筆教旨, 舊寶則有鸚鵡盃琥珀盃青琉璃臺. 寺之右, 有烏啄井, 水味甚冽, 有御室, 乃世祖睿宗成宗位牌, 奉安之閣. 遊翫既畢, 因爲中火, 越成佛嶺. 十里. 雖入佛頂臺, 其危其高, 不似白雲臺之甚. 而臺中有穴, 深不見底. 望見十二瀑, 隱若白虹之貫天, 層層流落, 連成十二瀑, 無一處間斷. 初若一瀑而已, 更詳視之, 乃十二層瀑也. 佛蹟之瀑, 水落之瀑, 亦何過此也. 因下朴達高峙, 勢若建鈴. 直下數萬仞, 其爲危險. 遍歷金剛, 此爲最峻矣. 入風穴臺, 穴深十餘丈. 現有風氣. 開襟對立, 涼颯自爽, 微霞細起, 異哉. 造化之功也. 過五松臺, 望見鶴栖臺, 越石川, 入松林窟. 窟中廣活, 若數三間梵宇, 而中有天作層塔. 五十三佛羅坐. 其上奇巧處, 無處無之. 因向圓通菴留宿. 是日行五十里. 顧瞻來路, 屹立高聳, 勢若挿天. 始懼吾行, 何以得達於此也. 疑是從天而降歟, 從天而降歟.

▪12일. 흐렸다. 일찍 출발하여 5리 남짓 가니 고개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소양(小陽)이라는 높은 고개였다. 그 높고 험준함이 박달(朴達)과 서로 엇비슷하여³⁶² 비록 순여(筍輿)³⁶³가 있었지만 위험해서 탈 수가 없었다. 마침내 가마를 멘 승려에게 순여를 해체하게 하고 그 줄을 허리에 묶어 앞에서 인도하며 끌어 올려 간신히 높은 곳에 오르니 끝없는 동해가 무릎 아래에 보였는데, 안개가 자욱하여 파도를 선명히 볼 수 없어 애석하였다. 멀리서 해금강(海金剛)을 바라보니 멀어서 그 기이한 절경을 자세히 볼 수 없으나, 산봉우리는 또렷하였다. 서쪽으로 집선봉(集仙峯) 및 채운봉(彩雲峯)을 바라보며, 이어서 걸어 내려와 봉래도(蓬萊島)에 이르니, 붓으로 ‘양봉래(楊蓬萊)’라고 써 있었고, 그 아래에 또 계수대(桂樹臺)가 있었다. 발연치폭(鉢淵馳瀑)³⁶⁴의 장소에 이르니 굽이굽이 폭포가 흐르고 굴곡이 기묘하였다. 위에는 반석(盤石)이 있었는데 수백여 명이 앉을 수 있었고, 평탄하며 매끈매끈하여 놀만 하였다. 마침내 그 위에 앉아 승려로 하여금 폭포를 타게 하고 정경을 감상하였으나 위험은 헤아릴 수 없었다.

발연사(鉢淵寺)³⁶⁵에 들어가니 사찰의 동쪽에는 하나의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의 형상이 기묘하였다. 대(臺) 위에 대가 있어 장엄한 병풍과 같았다. 위에는 표율징사사적비(表律澄師事蹟碑)가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가 깎이고 떨어져서 비문을 기록할 수 없었다. 앞에는 한그루 노송(老松)이 있었는데, 승려가 말하기를 “표율이 심었으나 연대는 모릅니다. 다만 흑시 들고 흑 무성하기를 이미 3차례나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푸른

362) 엇비슷하여 : 원문의 ‘백중(伯仲)’은 말리와 둘째인데, 서로 엇비슷하여 차이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363) 순여(筍輿) : ‘죽여(竹輿)’와 같은 의미로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가마를 말한다.

364) 발연치폭(鉢淵馳瀑) : 외금강 신계사 남쪽 25리쯤에 있는 연못이다. 쌓으로 흐르는 곳은 상발연(上鉢淵)이고 여섯 개의 웅덩이가 있는 곳은 하발연(下鉢淵)인데, 제5연(淵)이 마치 바리때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하였다. 옛날에 진표 율사(眞表律師)가 발연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가 잡념이 생기면, 흐르는 폭포에 달려가서 마음을 안정시키곤 했으므로 치폭(馳瀑)이라 불렀다고 한다.《林下筆記 卷37 蓬萊祕書》

365) 발연사(鉢淵寺) : 외금강 신계사 남쪽 225리 쯤에 있으며, 집선봉 동쪽 사면에 발달한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발연소굴 또는 바리소굴이라고도 한다. 발은 스님들의 식기인 바리를 뜻한다.

잎과 푸른 껍질을 보니 조금도 마른 흔적이 없었다. 또 소나무라는 식물은 본래 시들거나 다시 무성한 이치가 없으니 무성하고 시들었다는 설은 매우 허황된 것 같았다. 그리고 옛날에 시들어 죽었다면 뿌리, 가지, 줄기, 잎이 장차 썩이고 썩었을 것이다. 지금 갑술(甲戌)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생기가 돌고, 지금은 옛날처럼 푸르고 무성하였다. 이는 거주하는 승려와 늙은이, 어린이 모두 본 것이니 또한 의심할 바가 없다고 할 만하다. 의아하고 괴이하였다.

점심 후에는 발우담폭포(鉢盂潭瀑布)에 이르렀다. 3층으로 있는데 중간층을 발우(鉢盂)라고 하니 모양이 발우와 같았고 색이 또한 깨끗하였다. 외산(外山)의 정경을 위하여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내려와 곧장 달려 신계사(神溪寺)에 이르니 노복과 말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비록 저물지 않았지만, 구룡연(九龍淵) 앞길은 여기에서 30리를 가야 한다고 하므로 유숙한 후에 가서 보기로 계획하였다. 누대 위에 이름을 쓰고, 관음봉(觀音峯)과 개승봉(蓋升峯)을 바라보니 두 봉우리가 서로 마주 보고 하늘을 꽃힌 듯하여 모양이 매우 기묘하였다. 이날 40리를 갔다.

十二日. 陰. 早發, 行五里餘. 有一嶺, 名小陽高峙. 其高峻可與朴達, 互相伯仲. 雖有筍輿, 危不能騎. 遂使輿僧解輿, 纜束腰, 前導引上, 艱辛登臨, 則無邊東海視之膝下, 而惜乎霧塞不得波濤之明見也. 遙望海金剛, 遠不能詳其奇勝, 而峯巒則歷歷矣. 西望集仙峯及彩雲峯. 因爲步下, 至蓬萊島, 筆是楊蓬萊所書, 而其下, 又有桂樹臺矣. 至鉢淵馳瀑處, 其曲曲流瀑, 屈曲奇妙. 上有盤石, 可坐數百餘人, 平滑可翫. 遂坐其上, 使僧馳瀑, 景則可玩, 而危不可測. 入鉢淵寺, 寺之東有一大巖, 巖形奇巧, 臺上有臺, 儼若屏風. 上有表律澄師事蹟碑, 年久剝落字, 不可記碑. 前有一老松, 僧云: “表律所植, 而不知年紀, 但或枯或榮者, 已至三次.” 今見翠葉蒼鱗, 頓無枯痕. 且松之爲物, 本無枯而更榮之理, 則榮枯之說, 似甚虛荒. 而昔年枯死, 根枝幹葉, 將至粒朽矣. 今去甲戌, 始有生意, 今則蒼茂如古. 此則居僧老少之所共的見者也, 亦可謂無疑矣. 可訝可怪. 中火后, 至鉢盂潭瀑布. 有三層, 其中層謂鉢盂, 狀似鉢盂, 色亦潔白. 外山之景, 此不居下矣, 直馳至神溪寺. 奴馬已來待. 日雖不暮, 九龍淵前路, 此去三十里云, 故留宿后往觀爲計, 題名於樓上, 望見觀音峯蓋升峯, 兩峰相對插天, 狀甚奇妙. 是日行四十里.

▪ 13일. 밤에 비가 오다가 아침에 갓다. 식후에 견여(肩輿)로 옥류동(玉流洞)에 이르렀다. 산봉우리가 수려하고 시냇물이 맑고 깨끗하여 내산(內山)과 다름이 없으나 웅장하고 위엄이 있으며, 장엄하고 화려함은 조금 더 나았다. 골짜기의 바위 절벽에 ‘옥류동’이라는 세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알았도다! 골짜기를 옥류(玉流)로 이름한 것은 물이 백길 위에서 떨어지고, 몇 이랑의 연못으로 둘러싸여 물 빛깔이 맑고 깨끗하며 연못의 형상이 등글고 반듯하여 한 조각의 모래와 자갈로 막힘이 없으니 백옥의 대야에 담겨진 물과 비슷해서이다. 옥류동이라는 이름이 어찌 잘 형용한 말이 아니겠는가.

벼랑을 따라 올라가니 비봉봉(飛鳳峯)이 있었는데 하늘을 찌른 듯 우뚝 서 있었고, 폭포가 있었는데 천길 아래로 떨어졌으니, 마치 흰 고래가 공중에 치솟아 오른 듯하였다. 2리를 가니 비봉연(飛鳳淵)이 있어 절벽을 따라 비탈길을 기어올랐으니, 그 길의 위험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수십 층의 잔도를 오르고 몇 리쯤 가니 쇠줄 수십 장이 있었다. 간신히 내려가서 시냇가를 건너니 석벽(石壁)이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석벽은 모두 얼음을 깎아놓은 것 같았고, 한 점의 티끌도 없이 깨끗하였다. 기울어진 벼랑은 깎이고 미끄러워 정신이 놀랍고 등골이 오싹하였으며, 급한 협곡과 드센 물결에 혼백이 놀라 두근거렸다. 만약 한 발이라도 실족했다면 절반만 숨 쉴 수 있는 삶이라도 얻고자 한들 얻을 수 있겠는가.

마침내 포복하며 무릎으로 기어서 구룡연(九龍淵)을 마주하여 앉으니, 폭포의 웅장함에 입이 짝 벌어지고 다른 폭포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여길 만하였다. 벽 위에는 ‘구룡연’ 3글자가 있었으니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께서 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의시은하락구천(疑是銀河落九天)’³⁶⁶⁾이 새겨져 있었으니, 이 시를 쓴 자는 나와 같은 마음을 먼저 가졌을 것이다. 폭포가 만길 높이에 걸려 은하수가 하늘에 떨어진 듯 물결이 골짜기에 일렁이어서 황홀하였고, 성난 용이 강을 뒤집 듯 여산(廬山)의

366) 의시은하락구천(疑是銀河落九天) : 이백의 <여산폭포를 바라보다[望廬山瀑布]>에 “햇빛이 향로봉 비추어 붉은 놀이 생겼는데, 멀리 보니 폭포는 전천이 거꾸로 걸린 듯하네. 삼천 척 높이를 곧장 쏟아내리 쏟아내라, 아마도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닐까.[日照香爐生紫煙, 遙看瀑布掛前川. 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라는 시에 보인다.

폭포를 방불케 하였다. 생각해보니 이 한스러움은 이백(李白)과 함께 이 폭포를 보고 그 우열을 견주지 못한 점에 지나지 않았다.

대개 금강산의 내산, 외산의 정경을 한눈에 담았으니 산수(山水)의 사이에서 비록 지식이 없으나 보통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논하면 내산의 정경은 맑고 아름다우며 오묘해서 비유하면 아름답고 젊은 사람을 곱게 단장한 것과 같았다. 외산의 정경을 비유하면 대장부의 늠름한 풍채와 같으나 다만 봉우리의 빛깔이 내산의 맑고 깨끗함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흠이었다. 마침내 옥류동에 이름을 새기고 신계사(神溪寺)로 돌아 내려갔다.

점심 뒤에 말을 타고 산을 출발하여 삼일포(三日浦)로 향하다가 운전촌(雲田村)에 이르니 소나기가 몰아쳐 의복이 다 젖었다. 이는 맹양양(孟襄陽)이 눈 속³⁶⁷ 서호(西湖)의 정경과 날씨가 대략 같았으니 옷 젖는 것이야 아까울 것이 있으랴.³⁶⁸ 곧바로 삼일포에 이르러 소나무 숲 몇 리를 들어가 나루터에 이르니 큰 돌이 있었는데 완연(禪然)히 우뚝 서 있었다. 앞면에 삼일호(三日湖)라고 새겨졌고, 뒷면에는 제일호산(第一湖山)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호수는 바다 10여 리와 통하여 호수가 되었고, 너비와 길이 모두 4, 5리였다. 섬들이 호수 한복판에 점찍은 듯이 흩어져 있었고, 돌 봉우리는 정상에 층층이 있는데, 물갈래가 나뉘어서 호수를 이루었으니 오호삼주(五湖三洲)가 된 것이다. 급히 뱃사공을 부르니 하얀 납의(衲衣)를 입은 한 분이 있었는데 푸른 숲속에서 와 머리에 녹태책(鹿胎責)³⁶⁹을 쓰고 배에 올라

367 맹양양(孟襄陽)이 눈 속 : 소식(蘇軾)의 <증사진하충수재(贈寫真何充秀才)> 시에서 당나라 시인 맹호연(孟浩然)이 눈 속에서 나귀를 타고 시를 읊던 모습을 일러 “그대는 못 보았나? 눈 속에서 나귀 탄 맹호연이, 눈썹 찌푸리고 시 읊느라 산처럼 어깨 으쓱인 것을.[君不見雪中騎驢孟浩然，皺眉吟詩肩聳山.]”이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68 옷 젖는 …… 있으랴. : 도잠(陶潛)의 시에 “남산 아래에 콩 심으니, 풀은 무성하고 콩 싹은 드문드문. 새벽에 일어나 잡초를 김매고, 달빛 떠고서 호미를 메고 돌아오네. 좁은 길에 초목이 자라나니, 저런 이슬이 내 옷을 적시네. 옷 젖는 것이야 아까울 것 있으랴, 그저 농사만 잘했으면.[種豆南山下 草盛豆苗稀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 道狹草木長 夕露沾我衣 衣沾不足惜 但使願無違]”이라고 한 데서 말이 나온다. 《陶淵明集 卷2 歸田園居》

369 녹태책(鹿胎責) : 원문의 ‘녹변(鹿弁)’은 녹태책을 가리키는데, 은자(隱者)가 쓰는 녹비(鹿皮)로 만든 건(巾)이다. 양 무제(梁武帝)가 즉위하여 옛친구인 하점(何點)에게 녹비건을 하사하며 불렀다 한다. 《梁書 何點傳》

노를 저어 뱃머리를 돌려 물을 거슬러 올라가 나루터에 배를 대었다.

그러므로 마침내 배에 올라 사선정(四仙亭)에 이르니 사선정 아래 바위로 된 벼랑에 ‘사선정’ 세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우암 송시열 옹이 쓴 것이었다. 배에서 내려 사선정에 올라가 비래정(飛來亭)의 옛터를 바라보고 잠시 노닐며 완상(玩賞)하였다. 이곳은 금강산 아래 기슭으로 관동팔경(關東八景) 중 최고로 칭송되었다. 해가 저물자 곧바로 배로 돌렸다.

고성(高城) 읍내에 이르러 술을 사서 기분 좋게 마시고 곧바로 해산정(海山亭)에 오르니 비로소 강산에 볼 만한 승경(勝景)이 많음을 알았다. 사방의 벽에 쓰여진 시는 선배들의 시가 아님이 없었고, 우암 송시열과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의 시는 가장 무리에서 빼어났다. 그리고 강산의 정경은 서쪽으로 금강산 만천 봉우리의 구름과 임하였고, 동쪽으로 창명수(滄溟水) 억만리의 초나라 경색(景色)과 인접하였다. 풍경의 아름다움을 말하면 동귀암(東龜巖)에 해 뜨는 경색과 서귀암(西龜巖)에 달이 지는 그림자가 지점에 들어있던 것이었고, 유람의 승경을 말하면 칠성봉(七星峰) 점점의 누대와 삼일포(三日浦)에 세차게 흐르는 물이 앞뒤로 늘어있는 것이었다.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은 바다와 산의 정경이었고, 내 심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섬들의 아름다움이었다. 자유분방한 습관과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흥취로 이에 상쾌하였다. 돌아보면 속세에서 얼마나 재물에 관심을 가졌는지 우스웠다. 이날 읍내에서 유숙하였다. 30리를 갔다.

이어 본 읍의 호리(戶吏)를 불러 해금강(海金剛)에서 노닐고 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그로 하여금 배에서 기다리게 하고, 또 술을 사와 안주를 내어오게 하여 해산정(海山亭)에서 즐겁게 마셨다. 밤이 깊은 후에 술 흥취가 이끄는 대로 다시 대호루(帶湖樓)에 오르니, 날 듯한 높은 누각에서 큰 강가가 아스라이 보이는데 파도 소리에 난간이 요란스러웠고 물가의 그림자에 절벽이 잠겨있었으니 이것이 대호(帶湖)의 빼어난 경치였다. 그리고 흰 명주 같은 달빛으로 호방한 흥취는 형용할 수 없었다.

十三日。夜雨朝晴。食后肩輿，至玉流洞。峯巒之秀麗，溪流之清潔，無異內山，而其雄威壯麗，稍勝焉。洞之石崖，大刻玉流洞三字。得哉！洞名之以玉流也，水落於百仞之上，縈迴於數畝之塘，水色清白，潭形圓正，無一片沙石

之礙滯，則彷彿盛水於白玉之盤。玉流洞之名，豈非善形容語也。

緣崖而上，有飛鳳峯，挿天屹立，而有瀑布，落於千仞之下，疑若素鯢之騰空矣。行二里，有飛鳳淵。緣壁攀磴，其路之險危，可勝言哉。登數十層棧梯，行數里餘，有鐵索數十丈。艱辛緣下，渡溪流上，石壁滿壑。石壁皆似削水，淨無一點之累。仄崖削滑，神驚骨爽。急峽波惡，魂悸魄動。若失一足，則欲得半息之生，其可得乎。遂匍匐膝行，對坐九龍淵，則瀑布之雄壯，可謂舌詘而不下者。壁上有九龍淵三字，尤庵老先生所筆，而其下又刻疑是銀河落九天，題此詩者，先得我心乎。瀑掛萬仞，恍惚銀河之落天，波盪一壑，彷彿怒龍之翻江，廬山之瀑。想不過此恨不與白也，同見此瀑，較其優劣也。大抵金剛一山，內外之景，一眼盡之，山水之間，雖無知識，而以凡眼論之，則內山之景，淑美佳妙，比若美少父凝粧嬋妍。外山之景，譬如大丈夫風采軒昂，而但峯巒之色，不及內山之潔白，是所欠也。遂刻名於玉流洞，回下神溪寺。中火後，騎馬出山，將向三日浦，至雲田村，爲驟雨所驅，衣服盡濕。此與孟襄陽雪裡西湖之景，氣像略同，衣沾不足惜也。直抵三日浦，入松林數里，至津頭，有大石，頑然特立。前面刻三日湖，後面刻第一湖山。其爲湖也，通海十餘里爲湖，廣袤皆可四五里。島嶼點點於湖心，石峯層層於山顏，而分派作湖，爲五湖三洲矣。急招舟子，則有一白衲，來自綠林之中，岸鹿奔而登船，開捩拖而泝流，艤舟於渡頭。故遂登船，抵四仙亭。亭下巖崖大刻四仙亭三字，是尤翁所書也。下船登亭，望見飛來亭古址。移時遊玩。此是金剛下麓，而最稱於關東八景者也，以日暮卽爲迴舟。至高城邑內，沽酒快飲，卽上海山亭，始知江山之勝，無盡莊也。四壁題咏，無非前輩之詩，而尤翁白洲之詩，最所絕倫，而江山之景，則西臨金剛山萬千峯雲氣，東接滄溟水億萬里楚色。以言乎風景之美，則東龜巖日出之色，西龜巖月落之影，入於指點，以言乎遊觀之勝，則七星峰點點之臺，三日浦湯湯之水，羅於前後。爽我胸襟者，海山之景也，樂我心神者，島嶼之美也。疏狂之習，傲遊之興，於是乎快矣。顧笑塵世何物關心。是日宿邑內。行三十里。因招本邑戶吏，以海金剛遊玩，次使之待舟，又使沽酒進肴，快飲於海山亭。夜深後爲酒興所惹，更上帶湖樓，翼然高樓，縹緲於大江之頭，波聲撓檻，汀影沈壁，此帶湖之勝槩。而月色如練，豪興無狀矣。

▪14일. 맑았다. 일찍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해산정에 이르렀는데 해가 뜨지 않았다. 이어 동귀암(東龜巖)에 올라 조금 오래 있으니 해가 떴다. 만경(萬頃)의 바다에 태양이 솟아났는데 영롱한 색이 풍만하니 천지 사이에 일대의 장관이었다. 식후에 채찍을 재촉하여 해금강에 이르렀는데 관인(官人)이 이미 와서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곧바로 나루터로 가니 흥합, 미역을 캐는 무리가 벼랑에 널리 가득하였고 더벅머리의 아이는 백어(白魚)의 껍미를 이고 있었다. 연해는 대개 그들의 생계로 바닷일을 업으로 삼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배에 올라 천천히 배가 떠날 준비를 하여 칠성봉(七星峰) 앞바다에 이르니 층층의 돌 봉우리가 점을 찍은 듯 나란히 서 있었다. 그리고 소위 해금강은 크고 작은 물결을 밀치며 우뚝 서 있는데 기상(氣象)이 천만이었고, 벼랑에 의지한 채 우뚝 솟았는데 기묘함은 끝이 없었다. 무성히 솟아 있었고 뻗뻗이 서 있는데 혹은 높고 혹은 낮아 마치 장차 큰 바다에 전복할 듯하였고, 혹은 층층이 혹은 겹겹이 되어 아마도 장차 파도에 침몰할 듯하였다. 노에 의지하여 그것을 보니 백운(白雲)의 봉우리인가 하였고, 배뚝³⁷⁰⁾을 걸어 그것을 보니 신기루의 환영(幻影)인가 하였다. 하나의 잎사귀 같은 조각배를 타고서³⁷¹⁾ 만경창파를 지나가며 즐겁게 유람한 것은 한창려(韓昌黎)³⁷²⁾의 형악(衡岳) 유람³⁷³⁾과 소설당(蘇雪堂)³⁷⁴⁾의 적벽(赤壁) 유람도 앞날에 아름다움을 독차지할 수 없었다. 심신이 황홀하니 의연히 해산(海山)의 선형(仙兄)이 되어 고깃배를 불러 안주를 내어오게 하고, 만장 깊은 물결 속에서

370) 배뚝 : 비바람이나 햇빛을 막기 위해 떠나 부들 등의 풀로 거적처럼 엮어 배에 설치한 것을 말한다.

371) 하나의 …… 타고서 : 소식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더구나 나와 자네는……일엽의 작은 배를 타고서 술잔과 술동이를 들어 서로 권하고 있으니, 천지간에 하루살이가 붙어 있는 것이고, 푸른 바다의 좁쌀 한 알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오.[沉吾與子……駕一葉之扁舟，舉匏樽以相屬，寄蜉蝣於天地，渺滄海之一粟.]”라고 한데 나온 말이다. 《古文眞寶後集 卷8》

372) 한창려(韓昌黎) : 중국 당대(唐代)의 문인인 한유(韓愈)이다. 창려인(昌黎人)으로서 자(字)는 퇴지(退之)이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며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이 있다.

373) 형악(衡岳) 유람 : 한유가 일찍이 형산에 올라 많은 글을 지은 적이 있었다. 특히 이때 가을비가 내리자 정성껏 기도하여 비가 그쳤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한다.

374) 소설당(蘇雪堂) : 이름은 소식(蘇軾)으로 자는 자침(子瞻)으로 미주(眉州) 미산(眉山) 출신이다. 순(洵)의 아들로 철(轍)의 형이다. 호는 철관도인(鐵冠道人)정상재(靜常齋)설랑재(雪浪齋)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바다 물고기를 소반에 올리게 하였다. 하인을 시켜 몇 집의 홍로(紅壚)에서 술을 사 오게 하고 탁주를 올려 술잔을 채우게 하였다. 강산의 유람에 열흘을 딱 채웠으니 오늘의 유람도 즐거웠도다. 비록 풍경은 끝이 없고 좋은 흥취도 이와 같았으나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작은 배를 돌려 해안에 배를 대게 하였다. 스스로 선분(仙分)³⁷⁵이 단지 반나절에 그쳤다는 것에 부끄러워하며 출발하여 10리를 갔다.

남강진(南江津)을 건너 5, 6리를 가서 영랑호(永郎湖)에 이르러 잠시 노닐며 완상하였다. 이어 현종암(懸鍾巖)에 이르니 바위의 모습이 종과 같았다. 그리고 그 상층의 괴이한 바위는 가운데 구덩이가 바깥으로 드리워져 장엄하게 석굴을 이루었으니 그 속에 10여 사람은 앉을 수 있지만 그 위는 평탄하였고 그 아래는 깎아서 만들어진 듯 하였다. 재빨리 그 위에 올라가서 물건으로 그것을 두들겼는데 종소리가 있는 것 같았으니 이곳을 현종(懸鍾)이라고 이름한 까닭이었다. 선주암(仙舟巖)을 바라보니 배가 뒤집힌 형상과 같아 또한 기이하였다. 천지의 정기를 모아 기이한 승경을 무한하게 이룬 것이 이와 같이 지극하였다. 바다를 따라 올라가니 백사장은 흰 명주와 같았고, 푸른 절벽은 깎은 듯하였다. 갑자기 돌아가고픈 마음이 없어져 흑 반석(斑石)에 앉았다가 물을 치면서 갔다.

발괴촌(勃怪村)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20리를 갔다. 수둔강(水屯江)을 건너는데 강물이 넘쳐 옷을 젖으니 한탄스러웠다. 장촌(莊村)에 이르러서 유숙하였다. 이날 40리를 갔다. 이후에는 특별히 볼만한 곳이 없어 한탄스러웠다.

〈제풍악기후(題楓嶽記後)〉는 다음과 같다.

과거급제가 어찌 풍악산 유람과 같으랴	登科何似見楓嶽
강산 중에 제일이요 유람 중에 제일이라네	第一江山第一遊
일만이천 봉우리 날 보고 응당 웃으니	萬二千峯應笑我

375) 선분(仙分): 신선 세계를 구경할 수 있는 인연을 말하니, 선산(仙山)이라 불리는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는 인연을 말한다.

봄바람에 일찍 굽이진 강가를 거닐었네
또 다음과 같다.

春風曾踏曲江頭

그대의 <풍악기>를 읽고
나는 혈성루³⁷⁶에 앉았네
구름이 가니 중향성³⁷⁷의 빛깔이고
눈이 내리니 만폭동³⁷⁸ 폭포이네
조선도 늦게나마 한 번 보았으니
천하를 작은 두 눈으로 보리라
이로부터 낯선 손님이 아니니
산과 선분을 맺은 뒤 유람하였네

讀君楓嶽記
坐我歇醒樓
雲去衆香色
雪來萬瀑流
朝鮮遲一見
天下小雙眸
從此非生客
與山結後遊

<운영고(雲影稿)>는 다음과 같다.

평생 소옹의 역술법을 배우려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풍악을 유람했네
하필이면 운무와 녹옥장이
층층 일만이천 봉우리에 있는가

平生欲學邵翁術
不出戶庭楓嶽遊
何必煙霞綠玉杖
層層萬二千峯頭

또 다음과 같다.

객이 풍악산의 빛깔에 이끌려
웃으면서 운산루를 이야기하네

客携楓嶽色
笑說雲山樓

376) 혈성루 : 금강산 표천동 계곡 표훈사 뒤에 있는 누각을 가리킨다.

377) 중향성 : 내금강 마하연(摩訶衍) 뒤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하얀 바위 봉우리들을 일컫는 명칭이다.

378) 만폭동 : 표훈사에서 만천(萬川)을 따라 동북쪽으로 오르면 금강문(金剛門)이 있는데, 금강문에서부터 화룡담(火龍潭)까지의 구간을 만폭동이라고 부른다. 금강대(金剛臺) 아래에 펼쳐진 200미터가량의 반석(磐石)과 만폭팔담(萬瀑八潭) 등의 절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옥류동(玉流洞)·만물상(萬物相)과 더불어 금강산 3대 절승의 하나로 꼽힌다.

특별한 땅이라 시인과 문사들 많고
 모든 하늘의 불자들 떠돌아다니네
 위엄있는 모습에 속인들은 놀라고
 뻑뻑한 모습에 비속한 눈을 씻네
 천년 달빛 속의 만폭동을
 어떻게 우암 노옹은 유람했을까

特地騷人雨
 諸天佛者流
 巖巖驚俗骨
 簇簇洗塵眸
 萬瀑千秋月
 如何尤老遊

〈운암우객고(雲庵寓客稿)〉

十四日. 晴. 早起冠巾, 至海山亭, 日未明矣. 因上東龜巖, 稍久日出. 萬頃積水, 湧出火輪, 圓滿玲瓏之色, 天地間一壯觀也. 食後促鞭, 至海金剛, 官人已來, 艤船而待. 故直往渡頭, 則紅蛤青藿之屬, 彌滿崖壁. 垂髻戴白魚貫. 沿海, 蓋渠生涯以海作爲業故也. 遂登船緩艤. 至七星峰前洋, 層層石峯, 點點羅立, 而所謂海金剛, 則排波浪而特立. 氣像萬千, 依斷崖而聳出, 奇妙無窮. 林林而秀, 叢叢而立, 或高或低, 若將顛覆於滄溟者然, 或層或重, 恐將沈沒於波濤者然. 依櫓而觀之, 白雲之峯歟. 捲篷而看之, 蜃樓之影歟. 駕一葉之扁舟, 凌萬頃而遨遊. 韓昌黎衡岳之遊, 蘇雪堂赤壁之遊, 不能專美於前. 心神恍惚, 依然爲海山仙兒, 招漁艇而供肴, 萬丈深波中, 海族登盤. 使僕夫, 而沽酒數家紅壚, 上濁醪盈樽. 江山之遊, 洽滿一句, 今日之遊樂乎. 雖風景無邊, 好興如斯, 而知不可乎久留, 回短棹而泊岸. 自愧仙分, 只得半日而止乎, 離發, 行十里. 渡南江津, 行五六里, 至永郎湖, 暫爲遊玩. 因至懸鍾巖, 則巖形似鍾. 而其上層怪巖, 則中坎外垂, 儼成石窟. 而其中可坐十餘人, 其上則平坦, 其下則削成矣. 快登其上以物撞之, 則似有鍾聲, 此所以名以懸鍾者也. 望見仙舟巖, 則似舟覆形亦奇. 天地儲精, 以成無限奇勝之處者, 如斯其至矣. 緣海而上, 白沙如練, 翠壁如削. 頓無歸意, 或斑石而坐, 擊水而行. 至勃怪村, 中火, 行二十里. 渡水屯江. 江水漲活, 衣服沾濕, 可歎. 至莊村留宿. 是日行四十里. 此后則別無可觀處, 可歎. 題楓嶽記後. 登科何似見楓嶽, 第一江山第一遊. 萬二千峯應笑我, 春風曾踏曲江頭. 又. 讀君楓嶽記, 坐我歇醒樓. 雲去衆香色, 雪來萬瀑流. 朝鮮遲一見, 天下小雙眸. 從此非生客, 與山結後遊. 雲影稿. 平生欲學邵翁術, 不出戶庭楓嶽遊, 何必煙

霞綠玉杖，層層萬二千峯頭。又。喀携楓嶽色，笑說雲山樓。特地騷人兩，諸天佛者流。巖巖驚俗骨，簇簇洗塵眸。萬瀑千秋月，如何尤老遊。雲庵寓客稿。

▪15일. 비가 왔다.

十五日. 雨.

▪16일. 맑았다. 일찍 출발하여 양구(楊口) 관아 안에 이르렀다.

十六日. 晴. 早發, 抵楊口衙中.

▪17일. 어제 풍악산에서 비로소 와서 의복을 세탁하고자 종일 초당(艸堂)에 머물렀다.

十七日. 昨自楓嶽始來, 以衣服澣濯次, 終日留連於艸堂.

▪18일. 오후에 나가 관청 뜰에 이르니 수령과 무사는 활을 쏘고 있었다. 이날 벗 임성우(任聖友)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밤은 깊고 달이 밝자 이어 매기(梅妓)들과 함께 닭이 울 때까지 술을 마시며 연회를 벌였다.

十八日. 午後出, 衙園及, 主倅及武士射候. 是日任友聖友, 自京下來. 夜深月明, 因與梅妓輩, 至鷄鳴時, 飲酒遊讌.

▪19일. 수령이 “나는 내일 장차 떠날테니 술상을 차리리다.”라고 하였다. 이어 관덕정(觀德亭)에서 활을 쏘고, 또 송암정(松巖亭)에 가서 읍속(邑屬)들로 하여금 냇가의 고기를 잡게 하였다. 정자 위에서 회와 탕을 만들고, 술에 거나하게 취해 노래와 춤을 한창 벌린 뒤 파하였다. 이날 또 동헌(東軒)에서 매기(梅妓)들과 새벽이 되도록 노래하고 술을 마시며, 새벽녘이 이르자 잠에 들었다.

十九日. 主倅謂我明日將別, 設酒肴. 因於觀德亭射候, 又向松巖亭, 使邑屬獵川捉魚, 於亭上作鱠烹, 酒酣歌舞, 方張而罷. 是日, 又與梅妓輩於東軒, 達曉歌酒, 而至曉頭就睡.

▪20일. 이씨 어른과 가장 늦게 출발하였다. 진목정(眞木亭)에 이르러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부창원(浮唱院)에 이르러서 유숙하였다. 이날 15리를 갔다.

二十日. 與李丈最晚發程. 至眞木亭秣馬. 至浮唱院留. 是日行五十里.

▪21일. 흐리고 보슬비가 내렸다. 일찍 길을 출발하였다. 청평사(淸平寺) 앞길에 이르렀는데 비가 내렸다. 기락(奇落) 갖길을 지나 소양정(昭陽亭) 아래에 이르러서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마침내 소양정에 오르니 정자는 큰 강가에 접해있고, 사방의 절벽에는 제영시(題詠詩)가 많았다. 그리고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과 정재(定齋)³⁷⁹ 박태보(朴泰輔)의 시가 있었고, 다른 시 또한 많이 있었다. 마침내 청음 김상헌의 시에 차운하여 화운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표연하면서 어렴풋한 소양강 강가의 누대에서	飄緲昭陽岸上樓
푸른 안개 낀 붉은 난간에서 빗속 유람하였네	綠烟紅欄雨中遊
명성은 천년동안 우리나라 ³⁸⁰ 에 전해지고	名傳海左千年國
처마는 동서 백 리 고을을 누르고 있네	軒壓東西百里州
벽화와 남겨진 시들은 선배들의 흥취이고	畫壁詩留前輩興
맑은 강일렁이는 물결은 나그네의 수심이네	淸江波瀲旅人愁
짐 챙겨 돌아가면서 황모점에 들러선 안 되는데	歸裝莫趣黃茅店
술 취해 노래하는 것이기 지 못해 난간가에 의지했네	不勝酣歌倚檻頭

379) 정재(定齋) : 원문에는 ‘正齋’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아래에 수록된 시의 출처를 기반으로 ‘定齋’의 오기이다. 정재(定齋)는 박태보(朴泰輔, 1654~1689)의 호이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사원(士元),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박세당(朴世堂)의 아들로, 당숙인 박세후(朴世廬)에게 입양되었다. 1675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677년 문과에 급제한 후 예조 좌랑, 홍문관 수찬, 사헌부 지평, 시간원 정언, 호남 암행 어사, 파주 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仁顯王后)의 폐위를 강력히 반대해 주동적으로 소를 올렸는데, 이로 인해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 도중 옥독(獄毒)으로 노랑진에서 죽었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고 풍계사(豐溪祠)에 제향되었다. 《정재집(定齋集)》 14권이 전한다.

380) 우리나라 : 원문의 ‘해좌(海左)’는 해동(海東)으로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정재의 시³⁸¹)는 다음과 같다.

한가한 사람은 절로 한가로워 외경을 잊지만	閑者自閑忘外境
바쁜 사람은 스스로 알고 강산을 사랑하네	忙人自解愛江山
나루터에 솟아있는 그림 같은 누각 바라보니	看他畫閣津頭起
바쁜 자를 위해서이지 한가한 자를 위함이 아니네	不爲忙人只爲閑

석파령(石坡嶺)을 넘어서 안보점(安保店)에 이르렀다. 날이 비록 저물지 않았지만, 말발굽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유숙하였다. 이날 90리를 갔다.

二十一日。陰而微雨。早時發程，至清平寺前路，雨作。過奇落邊路，至昭陽亭下，朝飯秣馬。遂上昭陽亭，亭臨於大江之頭，四壁多題咏。而有清陰正齋之詩，其他亦多有之。遂次清陰韻以和之曰：“飄緲昭陽岸上樓，綠烟紅欄雨中遊。名傳海左千年國，軒壓東西百里州。畫壁詩留前輩興，清江波灑旅人愁。歸裝莫趣黃茅店，不勝酣歌倚檻頭。”正齋之詩曰：“閑者自閑忘外境，忙人自解愛江山。看他畫閣津頭起，不爲忙人只爲閑。”越石坡嶺，至安保店。日雖不暮，而爲挿馬鐵，不得已留宿。是日行九十里。

▪22일. 맑았다. 일찍 출발하여 병항(柄項) 갓길을 지나 시전(柿塵)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당산(塘山)에 이르러서 말에게 꼴을 먹인 후 곧바로 출발하여 사릉³⁸²하점(思陵下店)에 이르러서 유숙했다. 이날 110리를 갔다.

二十二日。晴。早發，過柄項邊路，至柿塵，朝飯秣馬。至塘山秣馬後，卽爲發行。至思陵下店留宿。是日行一百十里。

▪23일. 새벽 무렵 출발하였다. 석관점(石串店)에 이르러서 허기를 달래고,

381) 정재의 시 : 《정재집(定齋集)》 권2 <소양정희제(昭陽亭戲題)> “閑者自閑忘外境，忙人方解愛江山。看他畫閣津頭起，正爲忙人不爲閑。”에 나온다.

382) 사릉 :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 1440~1521)의 능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건건면 사릉리에 있다.

동대문 안에 이르러서 이씨 어른과 이별하고 쌍동(雙洞)에 들어갔다. 아침을 먹고, 곧바로 후동(後洞)에 가서 원산(圓山) 정씨 어른과 잠시 이야기하였다. 이어 정씨 어른 및 낙안(樂安) 정윤환(鄭允煥)과 함께 삼청동(三清洞)에 가서 노닐며 완상하였다. 홍진안(洪鎭安)의 집에 들어가니 이씨 어른이 없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길에 안동(安洞) 민 감사(閔監司)의 집에 들리니, 민 감사가 그 아들을 위하여 소분(掃墳)³⁸³을 하느라 만날 수 없었다. 상동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한 후 한림동(翰林洞)에 가서 생원 김광은(金光殷)과 동침하였다. 집에서 온 편지를 보니 이에 평안하다는 소식이었다.

二十三日。曉頭發程。至石串店，瘳飢，至東大門內，與李丈分手，入雙洞。朝飯，卽往後洞，與圓山丁丈暫話。因與丁丈及樂安鄭允煥，同往三清洞遊玩。入洪鎭安家，李丈不在。故回路入安洞閔監司家，閔令爲其子，掃墳之行，不得相面。來雙洞，夕飯後，往翰林洞。與金生光殷同枕。見家書，乃平信也。

▪24일. 맑았다. 아침 전에 후동(後洞)에 들어와 정씨 어른과 고별했는데, 대개 정씨 어른이 나보다 먼저 길을 떠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오전에는 쌍동에 머물렀고, 오후에는 난동(蘭洞)에 가서 유정안(兪延安)에게 조문하고 왔다. 二十四日。晴。朝前入來後洞，與丁丈告別，蓋丁丈，先我作行故也。午前則留雙洞，午後往蘭洞，弔兪延安而來。

▪25일. 식후에 한림동(翰林洞)에 가니 김생(金生)은 강가에 나가서 서로 볼 수 없었다. 이어 차동(車洞)으로 가서 민한산(閔閑山)을 만나 양구(楊口)의 편지를 전하였다. 유동(鎡洞)으로 길을 바꿔 향하니 수레와 말이 문에 가득하고, 빈객이 당을 짝 차서 이의(李議)를 만날 수 없었다. 다시 냉동(冷洞)으로 향하여 심흥양(沈興陽)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유동으로 와서 전 우후(田虞侯)를 만났다. 오는 길에 필동(筆洞)에 들러서 홍 석사(洪碩士)를 만나고 왔다.

二十五日。食後往翰林洞，則金生出去江頭，故不得相面。因往車洞，見閔閑

383) 소분(掃墳) :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무덤을 깨끗이 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山, 傳楊口書. 轉向鑰洞, 則車馬闐門, 賓客滿堂, 故不得見李議. 更向冷洞, 見沈興陽, 移時談話後, 來鑰洞, 見田虞侯. 來路入筆洞, 見洪碩士而來.

▪26일. 일찍 한림동에 갔으나 김생이 또 없었다. 이어 유동에 가서 이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동으로 와서 김생을 만나려고 하였다. 청하여 노자 2냥을 얻어서 1냥은 휘항(揮項)³⁸⁴을 구매한 다음 김생에게 남겨 주었다. 그리고 상중인 장경익(張景翼)과 삼각정(三角亭)에 이르렀는데 종인(宗人)이 왔다. 아침을 먹고 출발하고자 하였으나 방해되는³⁸⁵ 일이 많아서 저녁 때 출발하였다. 부억재(夫億峙)를 경유하여 한강진(漢江津)을 넘어 살리현점(芝里峴店)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20리를 갔다.

二十六日. 早往翰洞, 金生又不在. 因往鑰洞, 與李議移時談話, 又來翰洞, 要見金生. 請得路資二兩, 一兩則贖揮項次, 留給金生. 而張哀景翼及三角亭, 宗人而來. 朝飯, 欲爲發程, 而自多掣肘, 夕時發行. 由夫億峙, 越漢江津, 至芝里峴店留宿, 是日行二十里.

▪27일. 일찍 출발하여 오계(梧溪)에 이르러서 아침을 먹고, 청위점(淸渭店)에 이르러서 말에게 꼴을 먹였으며 진위(振威)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100리를 갔다. 학노(鶴奴)가 크게 아파서 매우 근심스러웠다.

二十七日. 早發. 至梧溪朝飯, 至淸渭店秣馬, 至振威留宿. 是日行百里. 鶴

384) 휘항(揮項) : 조선 시대 남자들이 쓰던 머리에서 어깨까지 덮는 방한모이다. 머리 윗부분인 정수리 부분은 트여 있으며 뒤는 길다. 작은 것은 뒤통수와 목을 두르고 큰 것은 어깨와 등도 덮을 수 있다. 볼기를 달아 목덜미와 뺨을 싸고 좌우에 끈을 달아 목에 맨다.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는 “호항(護項)이란 이마를 두르는 털머릿수건 같은 것인데 중국의 음으로는 호(護)를 휘(揮)라 읽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와전되어 휘항이라 하였다. 그 연원이 잘못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본래 호항이지 휘항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毛髮學辭典》

385) 방해되는 : 원문의 철주(掣肘)는 공연히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여 뜻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말로 노(魯)나라 복자천(宓子賤)의 고사이다. 복자천이 선보(單父)의 수령으로 임명되어 떠나갈 적에 글씨를 잘 쓰는 임금의 측근 아전 두 사람을 청하여 함께 데리고 갔다. 고을의 아전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 아전들에게 글씨를 쓰게 하였는데, 글씨를 쓰려고 하면 옆에서 팔꿈치를 잡아당기고, 그 때문에 글씨를 잘못 쓰면 또 화를 내었다. 그 아전들이 두려워 사직하고 돌아가 임금에게 자초지종을 고하니, 임금이 자신을 경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한다. 《呂氏春秋 具備》

奴大痛, 可悶可悶.

▪28일. 맑았다. 닭이 울자 말에게 꼴을 먹이고 날이 쌀 무렵 길에 올라 성환(成歡)에 이르렀으니 50리를 갔다.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이고 또 천안삼거리(天安三巨里)에 이르렀으니 50리를 갔다. 말에게 꼴을 먹이고 채찍을 재촉하여 인지원(仁智院)에 이르렀으니 50리를 갔다. 유숙하였다. 이날 150리를 갔다.

二十八日. 晴. 鷄鳴秣馬, 質明上程, 至成歡, 五十里. 朝飯秣馬, 又至天安三巨里, 五十里. 秣馬促鞭. 至仁智院. 五十里, 留宿. 是日行一百五十里.

▪29일. 맑았다. 동틀 무렵 길에 올라 효포(孝浦)에 이르렀으니 60리를 갔다.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이고 이산(尼山)에 이르렀으니 40리를 갔다.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 채찍을 재촉하여 저교(楮橋)에 이르렀으니 45리를 갔다. 유숙하였다. 이날 145리를 갔다.

二十九日. 晴. 平明登程. 至孝浦, 六十里. 朝飯秣馬, 至尼山, 四十里. 秣馬中火促鞭, 至楮橋, 四十五里. 留宿. 是日行一百四十五里.

▪4월 1일. 동틀 무렵 길에 올라 삼례(參禮)에 이르렀으니 60리를 갔다.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전주부(全州府) 내에 이르렀으니 30리를 갔다.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이고 오후에 길을 떠나 기치(箕峙)에 이르렀으니 30리를 갔다. 유숙하였다. 이날 110리를 갔다.

四月初一日. 平明上程, 至參禮, 六十里. 朝飯秣馬. 至全州府內, 三十里. 中火秣馬. 午後發程. 至箕峙, 三十里. 留宿. 是日行一百十里.

▪2일. 이른 시간에 길에 올라 평당(平塘) 앞길에 이르러서 유희모(柳希謨)와 김득추(金得秋)를 만났다. 대략 도로의 소식을 들으니 원산(圓山) 정씨 어른께서 말에서 떨어져 어깨를 다쳤는데 조금 전 앞길에 있었다고 하였다. 소식을 듣고는 놀라 염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채찍질을 재촉하여 오수(獒樹)에 이르렀으니 60리를 갔다. 정씨 어른께서 먼저 도착하였는데

그 상처가 대단하였다. 노년에 파수(灞水)를 건너는데³⁸⁶⁾ 여행길도 편치 않으셨으니 지극히 불쌍하고 가련하였다.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인 후 곧 서로 이별하고 바로 원천(元泉)으로 향하여 □□에 이르렀으니 30리를 갔다.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는데, 말이 잘 먹지 못하니 불쌍하여 천천히 달렸다. 원천에 이르렀는데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다. 외평(外坪)의 누이 집에서 유숙하였다. 이날 120리를 갔다.

初二日. 早時上路. 至平塘前路, 逢柳生希暮金生得秋. 略聞行路消息, 圓山丁丈, 落馬傷臂, 差先前路云. 聞不勝驚慮, 促鞭至葵樹, 六十里. 丁丈先到, 而其傷處大端. 老境渡灞, 行李又不安, 極爲憐悶. 朝飯秣馬後, 卽與相別, 直向元泉, 至□□, 三十里. 中火秣馬, 而馬不善喂, 可悶緩驅. 至元泉. 日未夕矣. 留宿於外坪妹家. 是日行一百二十里.

■3일. 외평에 머물렀다. 식후에 매형과 함께 호곡(虎谷)에 가서 잠시 노닐고 왔다. 오후에 내촌(內村)에 가서 상중인 김견이(金犬耳)를 조문하고, 용추(龍湫)의 기이한 절경을 듣고는 곧바로 올라갔다. 잠시 감상하고 내려오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이어 저녁 식사를 내촌에서 먹고 와서 곧 잠자리에 들었다. 밤에 부슬부슬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오랫동안 나그네 생활을 한 나머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매우 다급하였는데 비로 또 막히게 되니 답답하였다. 初三日. 留外坪. 食後與妹兄同, 往虎谷, 暫遊而來. 午後往內村, 弔金哀犬耳, 而聞龍湫之奇勝, 卽爲上去. 暫爲觀賞而來, 日已夕矣. 因食夕飯於內村而來, 卽爲就睡. 夜聞雨聲濛濛, 久客之餘, 歸意甚迫, 而雨且阻之, 可悶.

■4일. 아침에 비가 내리고 저물녘에 갔다. 날이 저문 뒤 길에 올라 곡성(谷城) 읍내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순천(順天) 영귀정(咏歸亭)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유숙하였다. 이날 100리를 갔다.

386) 파수(灞水)를 건너는데 : 한유(韓愈)의 시 <현재에서 생긴 감회[縣齋有懷]>에 “서책을 품고 황도를 떠나, 눈물을 머금고 푸른 파수 건너네.[懷書出皇都, 銜淚渡清灞.]”라고 읊은 구절이 있는데, 이 시는 한유가 정원(貞元) 11년 박학광사시(博學宏詞試)에 급제하였으나 등용되지 못하고 경사(京師)를 떠나 낙양(洛陽)으로 간 사실을 읊은 것이다. 《韓昌黎集 卷2 縣齋有懷》 이후 보편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거나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것을 ‘파수를 건넌다[渡灞]’라고 표현하였다.

初四日. 朝雨晚晴. 晩後登程, 至谷城邑內, 中火秣馬. 至順天咏歸亭, 日已昏矣. 留宿. 是日行百里.

■5일. 맑았다. 오후에 길을 나서 상중인 보성(寶城) 우산(牛山) 안씨 집안에 이르니 안휴(安休)와 안백(安伯) 두 형이 모두 여막에 있었다. 유숙하였다. 이날 40리를 갔다.

初五日. 晴. 午後發程, 至寶城牛山安哀家, 休伯兩兄, 皆在廬次. 留宿. 是日行四十里.

■6일. 맑았다. 아침을 먹은 후 길에 올라 추동(楸洞)에 이르러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점심을 먹고 유둔(油屯)³⁸⁷ 시장 변두리에 이르렀는데 마침 좌수(座首) 송규량(宋奎良)을 만나고 허기를 달랬다. 양강원(楊江院)에 이르러서 잠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집으로 왔다. 친정(親庭)이 대체로 편안하여 말할 수 없이 행복하였다.

初六日. 晴. 早飯後上程, 至楸洞秣馬, 中火至油屯市邊, 適逢宋座首奎良, 糲飢. 至楊江院, 暫爲秣馬來家. 親庭粗安, 幸不可言也.

387) 유둔(油屯) : 원문은 ‘油屯’인데,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屯’을 ‘屯’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유둔은 비가 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 즉 기름종이를 말한다.

신해년(1791) 2월

辛亥二月

▪26일. 비가 왔다. 송산(松山) 형님과 함께 비를 맞으며 길을 떠나 지등(池登) 신익권(申益權)의 집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과역(過驛)³⁸⁸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사교(四橋)에 이르러 나주덕에서 유숙하였다. 이날 40리를 갔다.

二十六日. 雨. 與松山兄主, 冒雨作行, 至池登申益權家, 中火. 至過驛暫憩. 至四橋, 留羅州宅. 是日行四十里.

▪27일. 맑았다. 말이 부실하고 또 절뚝거리어서 다시 내동(內洞)으로 끌어 보내고 재동(齋洞)에서 유숙하였다.

二十七日. 晴. 以馬之不實又蹇, 還爲牽送於內洞, 留齋洞.

▪28일. 재궁(齋宮)에서 유숙하였다.

二十八日. 留齋宮.

▪29일. 맑았다. 또 재궁에 머물렀다. 천노가 내동(內洞)으로부터 말값 30냥을 추급해 왔다.

二十九日. 晴. 又留齋宮. 千奴自內洞推馬價三十兩而來.

▪3월 1일. 맑았다. 네 차례나 튼실한 말을 구했으나 마침내 사지 못했다. 또 재궁에 머물렀다.

三月初一日. 晴. 四求實馬, 終未得買. 又留齋宮.

▪2일. 눈이 내렸다. 입석(立石)으로 사람을 보내 말을 사 올 계획이었으나 사람이 오지 않았으므로 또 재동에 머물렀다.

初二日. 雪. 送人於立石, 爲買馬計, 而不來, 故又留齋洞.

388) 과역(過驛) :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과역면이다.

▪3일. 맑았다. 입석의 말을 35냥으로 결정하고 사 왔으나 야위고 고단함이 워낙 심하여 먼 길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다. 여행 기일은 매우 촉박한데 여러 날을 지체하니 근심스러운 마음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初三日. 晴. 立石馬決以三十五兩買來, 瘦儻特甚, 似不堪遠行. 而行期甚忙, 而遲滯多日, 悶悶不可言.

▪4일. 맑았다. 도음(道陰)에서 말을 사 왔으므로 저녁에 길을 떠나 면교(面橋)에서 유숙하였다.

初四日. 晴. 買馬於道陰而來, 故夕時發行, 留面橋.

▪5일. 맑았다.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났다. 추동(楸洞)에서 점심을 먹고 간신히 우산(牛山)에 이르렀다. 말이 워낙 부실하여 전혀 타지 못하고 종일토록 걸어서 발이 부르트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근심스럽고 근심스러웠다. 형중의 집에 이르렀으나 형중에게 신병(身病)이 있어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지 못해 한탄스러웠다. 이날 70리를 갔다.

初五日. 晴. 朝食登程. 中火於楸洞, 艱到牛山. 馬匹太不實, 全不騎乘, 徒步終日, 至於足繭, 悶悶. 至衡仲家, 衡仲有身病, 不得穩紮, 可歎. 是日行七十里.

▪6일. 식후에 천평(泉坪)에 이르렀다. 다시 금곡(金谷) 조씨(趙氏)의 말을 사서 말값으로 45냥을 지급하고 본래 말을 흥양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30리를 갔다.

初六日. 食後至泉坪. 更買金谷趙馬, 給價四十五兩, 還送本馬於興陽. 是日行三十里.

▪7일. 비가 왔다. 비에 막혀 천평에서 유숙하였다.

初七日. 雨. 阻雨留泉坪.

▪8일. 맑았다. 아침을 먹고 상을 당한 김씨를 조문하고 길을 떠나 양벽정

(漾碧亭)³⁸⁹⁾ 나무를 건넜다. 영귀정(詠歸亭)에 이르러 벗인 조사집(趙士集)을 잠시 만났다. 마침 사장(士章)은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하고 와서 아쉬웠다. 지신(智信)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괴치(怪峙)에 이르렀는데 낙안(樂安) 종인(宗人)이 소매를 나란히 하여 만나기를 기다렸다. 곡성 읍내 여막(旅幕)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70리를 갔다.
 初八日. 晴. 朝食吊金哀, 登道, 渡漾碧亭津. 抵詠歸亭, 暫見趙友士集. 適值士章不在, 不得相面而來, 可歎. 至智信, 秣馬中火. 至怪峙, 樂安宗人留待聯袂. 至谷城邑內旅幕留宿. 是日行七十里.

▪9일. 새벽부터 길을 떠나 남원 읍내에 이르렀는데 이슬비가 내렸다.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울치(栗峙)에 이르지 않았는데 비와 눈이 연이어 쏟아져 의복이 모두 젖었고 말짐이 무거워서 잠시도 타지 못하고 걸어서 고개를 넘어 간신히 박석치(礪石峙) 여점(旅店)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70리를 갔다. 밤새도록 비가 쏟아지니 근심스럽고 근심스러웠다.
 初九日. 凌晨發行, 至南原邑內, 微雨. 秣馬中火. 未至栗峙, 雨雪連注, 衣服盡濕, 而以馬之卜重, 暫不得騎, 徒步越嶺, 艱到礪石峙旅店留宿. 是日行七十里. 達夜雨注, 悶悶.

▪10일. 음산하여 춥고 바람이 냉랭하였으나 비는 조금 개었으므로 새벽에 길을 떠났다. 임실(任實) 굴암회(窟巖回 굴바위) 여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는데 날이 아직 정오가 되지 않았다. 오후에 전주(全州) 신원(新院)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100리를 갔다. 집으로 보내는 편지와 철삽[鐵鍬]을 아전 박명동(朴命東)이 가는 편에 부쳤다.
 初十日. 陰寒風冷, 而雨則小霽, 故平明登程. 至任實窟巖回旅店秣馬, 日未午矣. 午後至全州新院留宿. 是日行百里. 付家書及鐵鍬於朴吏命東去便.

▪11일. 동틀 무렵 길을 떠났다. 완영(完營 전라감영) 주인집에 이르러 아침을

389) 양벽정(漾碧亭)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도래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이다.

먹고 말굽에 편자를 박았다. 말이 전혀 먹지를 않아서 부득이 주인집에 머물렀다. 이날 20리를 갔다.

十一日. 平明登程. 至完營主人家, 朝飯插鐵. 以馬之全不食, 不得已留主人家. 是日行二十里.

▪12일. 밤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니 근심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파루(罷漏)³⁹⁰ 뒤에야 활짝 개었는데 천노(千奴)는 그 형 집에 가서 유숙하고 새벽에 오지 않았으므로 동이 튼 후에야 길을 떠나 삼례(參禮)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을 먹었다. 여산(礪山) 읍내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마침 서울에서 내려오던 영동(永洞)의 벗 이수곤(李壽坤)을 만나 잠시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마륵재각(馬輪齋閣)에는 편지를 부치고 집에는 구두로 소식을 전했다. 마침내 길에 올라 저교(楮橋)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90리를 갔다. 이날은 온종일 걸어서 두 발이 부르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으니 한탄스러웠다.

十二日. 夜雷聲雨作, 悶不可言. 罷漏後開霽, 而千奴往留其兄家, 曉未及來, 故平明後登程, 至參禮, 秣馬朝飯. 至礪山邑內, 秣馬中火. 適逢永洞李友壽坤之自京下來便, 暫爲相話, 寄書於馬輪齋閣, 家則口傳消息. 遂上道, 至楮橋留宿. 是日行九十里. 是日則終日徒步, 兩足成繭, 不得寸步前進, 可歎.

▪13일. 맑았다. 새벽에 길에 올라 이성(尼城)에 이르렀는데 40리 길이였다.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을 먹었다. 공주(公州) 효포(孝浦) 아래 주막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90리를 갔다.

十三日. 晴. 曉頭上程, 至尼城, 四十里. 秣馬朝飯. 至公州孝浦下酒幕留宿. 是日行九十里.

▪14일. 맑았다. 새벽에 길을 떠나 모란원(牧丹院)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인주원(仁周院)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을 먹다가 우연히 사도진

390) 파루(罷漏) : 도성의 동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해 5경 3점(새벽 4시 전후)에 종각(鐘閣)의 종을 33번 치는 것이다.

(蛇渡津) 마부를 만났다. 이 사람은 같은 고향 사람으로 객중 나그네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천안 읍내 여점(旅店)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90리를 갔다. 이날 밤 말이 제법 죽을 마시고 풀을 먹으니 근심이 조금 풀렸다.

十四日. 晴. 平明登程, 至牧丹院糲飢. 至仁周院, 秣馬朝飯, 偶逢蛇渡馬夫. 是同鄉人, 頗慰客中旅懷矣. 至天安邑內旅店留宿. 是日行九十里. 是夜馬頗飲粥食艸, 小弛悶然.

▪15일. 맑았다. 새벽에 길에 올라 직산(稷山) 성환(成歡)³⁹¹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을 먹었다. 아침 전에 40리를 가서 갈원(葛院)에 이르렀다.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오산(烏山)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100리를 갔다.

十五日. 晴. 曉頭上程, 至稷山成歡, 秣馬朝飯. 朝前行四十里, 至葛院. 秣馬中火. 至烏山留宿. 是日行百里.

▪16일. 맑았다. 새벽에 길을 떠났다. 신수원(新水原)에 이르니 촌락이 비록 즐비하지는 않았지만 영역이 매우 광활하여, 하류천(下柳川)으로부터 진목정(眞木亭) 어로(御路)³⁹²에 이르기까지 10리가 숫돌과 같이 평탄하였다. 또 그 좌우에 새로 심은 버드나무가 비록 숲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장성하여 뽕뽕한 산림을 이룬다면 장차 경치로 이름난 곳이 될 것 같았다. 사근천(沙斤川) 시변(市邊) 주막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60리를 지났는데 덕능(德能)이 뒤처져 오지 않아 한나절을 기다렸으나 묘연히 소식이 없으니 괴이하고 괴이했다. 오늘 강을 건너 서울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동행이 오지 않으니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할 듯하여 한탄스러웠다. 아주 늦게 덕능이 당도하여서 즉시 길을 떠나 과천(果川)에 이르러 새로 건축된 행궁(行宮)을 보니 그 아득함[縹杳]이 지극했다. 남태령(南泰嶺)을 넘어 승방(僧房)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80리를 갔다.

391) 성환(成歡) : 충청남도 천원군(天原郡)의 한 읍으로 아산(牙山)으로 통하는 중요 지점이다.

392) 어로(御路) : 임금이 거동하는 길이다.

十六日. 晴. 曉頭發行. 至新水原, 則村落雖未櫛比, 而範圍極其宏闊, 自下柳川至眞木亭御路十里, 坦平如砥. 且其左右新種柳木, 雖不成林, 若得長盛茂蜜, 則將爲勝景處矣. 至沙斤川市邊酒幕, 朝飯秣馬. 行過六十里, 而以德能之落後不來, 留待半日, 杳無消息, 可怪可怪. 以今日將欲渡江入京, 而同行不來, 似未入城, 可歎耳. 最晚德能來到, 故卽爲發行, 至果川, 見行宮新建, 極其縹杳. 越南泰嶺, 至僧房留宿. 是日行八十里.

▪17일. 맑았다. 아침에 출발하여 동작진(銅雀津) 어귀에 이르렀다. 간신히 동작진을 넘어 사두 주막(沙頭酒幕)으로 나가 요기를 하고 곧바로 칠패 여막(七牌旅幕)에 이르니 매우 지치고 피곤해서 유숙할 생각이었다. 덕능을 시켜 남원에 머물던 종친 송훈(宋堧)을 수각교 점막(水閣橋店幕)에서 찾아보게 하였는데 함께 왔으므로 대략 보소(譜所)의 진행 개요(概要)를 들으니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탄스러웠다. 이날 점막에서 유숙하였다. 대개 덕능이 함께 왔는데 유숙할 곳이 없고 또한 보소(譜所)의 소식을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十七日. 晴. 早發, 至銅雀津頭. 艱辛越津, 出沙頭酒幕療飢, 直至七牌旅幕, 困憊頗甚, 故因爲留宿計料. 使德能尋見南原留宗堧於水閣橋店幕, 同爲來到, 故略聞譜所梗槩, 事不易成, 可歎. 是日留店幕. 蓋以德能同來, 無留處, 且欲詳譜所消息故也.

▪18일. 이른 아침에 이 상인(李喪人)을 전립동(戰笠洞)으로 찾아갔다.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하다 보니 얼굴과 모발이 이전에 서로 알던 사람이 아님을 문득 깨달았다. 그 기뻐하며 정성스러운 대접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잠시 대화를 나누고 길을 돌려 차동(車洞) 주인댁으로 갔다. 그 집안의 딸이 전날보다 백배는 환하고 밝으니 비로소 부귀함이 집을 운택하게 함³⁹³)을 깨달았다. 서로 마주하고 정담을 나누었는데 주인 영감은 새로 사행(使行)을 다녀와 집안의 살림살이가 곧 재상집 규모가 되었다. 내가 먼 지방의 한미한

393) 부귀함이 집을 운택하게 함 : 《대학장구》 전 6장에 “부유함은 집을 운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운택하게 한다.〔富潤屋 德潤身〕” 하였다.

나그네임을 알면서도 옛정을 잊지 않고 정성스러운 대접이 옛날과 같았으니 그 남은 경사[餘慶]³⁹⁴가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돌아와 여막에서 아침을 먹고 유숙하였다.

十八日. 早朝尋見李喪人於戰笠洞. 積年阻面, 顏毛頓覺非前日相知者也. 其欣悅款待不可言. 暫話, 轉往車洞主人宅. 其門庭之烜赫百倍前日, 始覺富貴能潤屋矣. 相對情話, 則主人令新作使行而來, 屋中什³⁹⁵物便作卿相家規模. 見我遐方寒客, 而不忘舊情, 款接如舊, 可知其餘慶之不遠矣. 還來朝飯於旅幕而留宿.

▪19일. 아침 전에 차동(車洞) 민 감사(閔監司) 댁에 가서 머물렀다. 식후에 남원의 종형 송여현(宋汝賢)과 함께 주동(鑄洞)에 갔다가 곧바로 교리 송익효(宋翼孝)의 집에 가서 익형(翼亨), 익정(翼廷)과 더불어 실컷 상세히 얘기를 나누었다. 또 유수(留守) 댁에 가서 익저(翼著)를 만나 정담을 나누었는데, 흥양파(興陽派)가 이전 족보에서 모욕을 받은 연유를 모두 진술하며 대동보(大同譜)를 굳게 물리치니 두 유사(有司)가 편의대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을 하므로 또 서울 종중의 문장(門長)인 송희명(宋熙明)에게 가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저동(苧洞) 송 감역(宋監役) 댁에 들어가 보성(寶城) 종인(宗人) 송지명(宋持命)을 찾으니 마침 출타 중이었다. 즉시 나와서 여막에서 유숙하였다. 저녁 후에 여현(汝賢)이 나왔기에 베개를 나란히 하고 함께 잤다.

十九日. 朝前往車洞閔監司宅因留. 食後與南原宗兄汝賢, 俱往鑄洞, 直往宋校理翼孝家, 與翼亨翼廷爛熳詳話. 又往留守宅, 見翼著, 亦爲穩話, 俱陳興陽派前譜受辱之由, 牢却同譜, 則兩有司答以便宜處之爲言, 故又往見京宗門長熙明暫話. 來路入苧洞宋監役宅, 尋見寶城宋持命, 則適出他. 卽爲出來, 留宿旅幕. 夕後汝賢出來, 因爲聯枕.

394) 남은 경사[餘慶] : 《주역》 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경사가 있게 마련이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재앙이 돌아오게 마련이다.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라는 말이 나온다.

395) 문맥에 의거하여 ‘什’을 ‘什’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0일. 맑았다. 식전에 차동(車洞)에 가서 56냥의 돈을 옮겨 두고, 즉시 경모궁(景慕宮)³⁹⁶ 앞 조씨 집으로 옮겨서 유숙하였다.

二十日. 晴. 食前往車洞, 傳置五十六兩錢, 卽爲移居於景慕宮前趙家留宿.

▪21일. 비가 왔다. 유동(楡洞)에서 유숙하였다.

二十一日. 雨. 留楡洞.

▪22일. 비가 왔다.

二十二日. 雨.

▪23일. 아침 전에 보성 종인 송지명(宋持命)이 찾아왔다. 식후에 친척 전광언(田光彦)이 찾아와서 만나고 갔다.

二十三日. 朝前寶城宗人持命來見. 食後田戚光彦來見而去.

▪24일. 유동(楡洞)에서 유숙하였다.

二十四日. 留楡洞.

▪25일. 주동(鑄洞)에 갔다. 오는 길에 저동(苧洞)에 들어가 보성 종인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오다가 호동(壺洞)에 들어가 박 곡성(朴谷城)과 함께 머물러 얘기를 나누다가 저녁때 돌아와 여막에서 유숙하였다.

二十五日. 往鑄洞. 來路入苧洞, 見寶城宗人, 暫話. 來入壺洞, 與朴谷城留話, 夕時還來, 留旅幕.

▪26일. 가랑비가 왔다. 여막에서 유숙하였다.

二十六日. 細雨. 留旅幕.

▪27일. 조식 후 천노를 짐을 꾸려 보내기 위해 차동(車洞)으로 이끌고 갔다.

396) 경모궁(景慕宮) : 정조의 아버지 장헌세자(莊獻世子, 1735~1762)와 비(妃) 헌경왕후(獻敬王后, 1735~1815)의 신주를 봉안한 사당을 이른다. 창덕궁(昌德宮) 안에 있다.

가는 길에 박 곡성(朴谷城)의 집에 들러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즉시 차동으로 향했는데, 주인 영감은 이미 당직에 들어갔으므로 그 집안에 채단(彩緞)을 환매(換買)해 줄 것을 부탁하고 짐을 꾸려 보냈다. 오후에 천노가 돌아왔다. 그 놀란 마음을 움켜잡으며 그 이유를 물으니, 말 탄 사람에게 붙잡혀 그 노잣돈 2냥을 빼앗기고 왔다고 하므로 남대문 밖에서 유숙하고 파루(罷漏) 때 와서 기다리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해가 떴어도 오지 않으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의심과 걱정이 백 가지로 일어났다. 부득이 직접 여점(旅店)으로 가다가 중도에 서로 만나 와서 즉시 내보냈다. 이날은 바로 28일이었다. 이날 경모궁(景慕宮) 여점(旅店)으로 왔다.

二十七日。朝食後，治送千奴次，率去車洞。去路歷入朴谷城家，暫話，即向車洞，則主人令已入番，故付托門下換買彩緞，治行送去矣。午後千奴還來。其驚心可掬，問其所由，則見捉於騎馬，奪其路資二兩而來，故留宿南大門外，期以罷漏時來待矣。日出不來，莫知其由，疑慮百出。不得已親往旅店，中路相逢而來，即爲出送。是日即二十八日也。是日來景慕宮旅店。

▪29일. 비가 왔다. 오후에 송현(松峴)에 가서 안 교리를 조문하고 비를 맞으며 왔다.

二十九日。雨。午後往松峴，弔安校理，冒雨而來。

▪30일. 맑았다. 여점에 머물렀다.

晦日。晴。留旅店。

▪4월 1일. 맑았다. 여점(旅店)의 여러 친구와 함께 동대문 밖 도화동에 가서 복사꽃을 감상했다. 깊고 깊은 긴 계곡에 깨끗한 모래와 흰 자갈 아닌 것이 없었으며 양쪽 언덕의 인가(人家)는 자못 뽀뽀하였는데 복사꽃과 살구꽃이 언덕에 가득하여 사방 풍광이 비단으로 장식한 듯하였으니 진실로 승지(勝地)라 할 만하였다. 노닐고 감상하는 인사들이 모두 금옥(金玉)과 같은 명사들이었으니 다만 꽃과 버들만 감상할 만한 것이 아니라 왕래하는 유람객도 또한 가관이었다. 석양이 진 뒤에 동대문으로 돌아와서 송동(宋

洞)으로 돌아 들어오니 그 그윽하고 기이한 절경이 비록 도화동에 미치지지는 못했으나 다만 석벽(石壁)이 가파르게 서 있고, ‘증주벽립(曾朱壁立)³⁹⁷⁾’이란 네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으니 바로 우암(尤庵) 노선생(老先生)의 필체였다. 혹은 우로(尤老)가 일찍이 여기에 살았다고도 하고 혹은 이곳을 유람했다고도 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 황혼 무렵에 돌아와서 여점에서 유숙하였다.

四月初一日. 晴. 與店中諸益, 同往東大門外桃花洞, 玩桃花. 深深長谷, 無非明沙白石, 兩岸人家頗稠, 而桃杏滿岸, 四面光景, 粧以錦繡, 眞所謂勝地. 遊玩之人, 俱是金玉名士, 不獨花柳可玩. 遊人之往來, 亦一可觀. 夕陽後還入東大門, 轉入宋洞, 則其幽夔奇絕, 雖不及桃花洞, 而但有石壁削立, 而大刻曾朱壁立四字, 卽尤庵老先生筆也. 或云尤老曾居於此, 或云遊賞於此云, 未知孰是. 乘昏而來留旅店.

■2일. 식후에 덕능과 함께 저동 송 유수(宋留守) 집에 가서 잠시 대화를 나누 뒤 보성 종인(宗人)과 동행하다가 확교(廓橋)에 이르러 헤어지고 서소문으로 나와서 차동에서 유숙하였다.

初二日. 食後, 與德能俱往苧洞宋留守家, 留話後, 與寶城宗人同行, 至廓橋分袂, 出西小門, 留車洞.

■3, 4, 5, 6일. 연이어 차동에서 유숙하였다.

初三四五六. 連留車洞.

■7일. 이 석사(李碩士) 형제와 함께 종각(鐘閣)에 가서 등시(燈市)³⁹⁸⁾에 들렀다. 그 등의 모양이 천만 가지로 달랐으니 기이한 그림과 괴상한 모양이 진실로 한눈에 다 보기 어려웠다. 종각 주변에서 헤어져 바로 송현(松峴)

397) 증주벽립(曾朱壁立) :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증자와 주자처럼 곳곳이 지조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이는 송시열이 이곳에 거처할 때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다.

398) 등시(燈市) : 등롱(燈籠)을 파는 시장으로 각 점포에서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 빛깔의 화등(花燈)을 교묘하게 만들어 현란하게 달아 놓으면,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여 그것을 사 갔다고 한다.

으로 향하여 안 교리(安校理)와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또 호동(壺洞) 박 곡성(朴谷城)의 집으로 들어가 자직(子直)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고 여점으로 와서 유숙하였다.

初七日. 與李碩士昆季同往鍾閣, 歷見燈市. 其燈樣萬千不同, 奇畫怪狀, 實難一眼可盡. 於鍾閣邊分袂, 直向松峴, 與安校理, 移時討話. 又入壺洞朴谷城家, 與子直暫話, 來留旅店.

▪8일. 비가 올 듯하다가 다시 맑아졌다. 곧바로 차동으로 가서 백건(伯健), 중순(仲順) 두 벗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등고치(登高峙)에 올라 등(燈)을 구경하고 한참 뒤에 내려와 차동에서 유숙하였다.

初八日. 似有雨意而還晴. 直向車洞, 與伯健仲順兩友, 夕食後登登高峙, 觀燈, 移時後下來, 留車洞.

▪9일. 비가 오다 오후에 맑아졌다.

初九日. 雨午後晴.

▪10일. 맑았다. 도화(道化)의 김이록(金履祿)이 내려간다고 고향으로 집에 보내는 편지를 부쳤다.

初十日. 晴. 道化金履祿告下去, 故寄家信.

▪11일. 맑았다.

十一日. 晴.

▪12일. 비가 왔다. 조식 후에 백건(伯健) 형제와 함께 승보시(升補試)³⁹⁹⁾ 시험장으로 들어가 구경하고 나와서 잠시 경모궁 여점으로 들어갔다가 즉시 차동으로 돌아갔다.

399) 승보시(升補試) : 조선조 때의 과거시험의 한 가지이다. 소과(小科)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이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에게 매년 10회(뒤에는 1회)에 걸쳐 행하였는데, 합격한 자에게는 생원과(生員科)·진사과(進士科)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十二日. 雨. 朝食後, 與伯健昆弟, 同入升補場中, 遊玩出來, 暫入景慕宮旅店, 卽爲還去車洞.

▪13일. 맑았다. 식후에 이 흥양 현감 집으로 가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차동으로 돌아왔다.

十三日. 晴. 食後往李興陽家, 暫話, 還來車洞.

▪14일. 맑았다. 식후에 주동(鑄洞)으로 가서 송 교리(宋校理)와 삼종 형제를 만나고 저동(苧洞) 송 감역 집으로 왔다. 덕능도 와서 함께 동대문 밖 이미정(二美亭)으로 갔는데 형백(馨伯)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형백이 있지 않아서 ‘봉(鳳)’ 자를 써놓고[題鳳]⁴⁰⁰ 돌아왔다. 전척(田戚)과 함께 차동으로 갔다.
十四日. 晴. 食後往鑄洞, 見宋校理三從兄弟, 來苧洞宋監役家. 德能亦來, 同往東大門外二美亭, 爲見馨伯故也. 馨伯不在, 故題鳳而歸. 與田戚同往車洞.

▪15일~21일. 연이어 차동에 있었다. 혹 주동에 가거나 혹 팔패(八牌)⁴⁰¹에 간 뒤로 특별히 왕래한 곳이 없었다.

十五日至廿一日. 連在車洞. 或往鑄洞, 或往八牌之後, 別無往來處.

▪22일. 비가 왔다.

廿二日. 雨.

▪23일. 맑았다. 식후에 경모궁에 가서 여러 사람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저동으로 들어가 종인(宗人)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즉시 나왔는데

400) ‘봉(鳳)’ 자를 써놓고[題鳳]: 사람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을 뜻한다. 진(晉)나라 혜강(嵇康)은 여안(呂安)과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여안이 혜강을 찾아갔을 때 마침 혜강은 집에 없고 혜강의 형인 혜희(嵇喜)가 나와서 맞이하였다. 그러자 여안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위에다가 봉(鳳) 자를 써 놓고 돌아갔으나, 혜희는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였다. 혜강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봉(鳳)은 평범한 새이다.”라고 하였다. 《世說新語 簡傲》 이는 혜강을 만나러 왔다가 봉(鳳)은 못 만나고 평범한 새인 혜희를 만났다는 것이다. 봉(鳳) 자를 파자(破字)하면 ‘평범한 새(凡鳥)’가 된다.

401) 팔패(八牌): 서울의 남대문 밖에 있던 지명이다.

광중(光仲)이 이미 내방(來訪)하여서 문하의 여러 사람이 양가(梁哥)의 집을 지정하여 유숙하게 하였다. 양가(梁哥)의 집은 영감 덕과 아주 가까웠다. 즉시 가서 서로 만나 자세히 고향 소식을 탐문하니 그 기쁨과 다행을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廿三日. 晴. 食後往景慕宮, 與諸人暫話. 來路入苧洞, 與宗人暫話, 卽爲出來, 則光仲已來訪, 故門下諸人指留於梁哥家. 梁家與令監宅至近矣. 卽往相面, 詳探鄉信, 其喜幸曷勝.

▪24일. 이른 아침에 또 광중(光仲)의 여점에 가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왔다. 해가 저문 뒤에 보성 종인(宗人)이 찾아왔으므로 함께 광중의 하처(下處)로 가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인하여 냉정동(冷井洞) 교리 성종인(成種仁)의 집에 갔는데 서로 만나지 못해 즉시 돌아왔다.

廿四日. 早朝又往光仲旅店, 暫話而來. 晚後寶城宗人來訪, 故同往光仲下處, 移時敘話. 仍往冷井洞成校理種仁家, 不與相逢, 卽爲還來.

▪25일. 돈 100냥은 주인택 내간(內間)⁴⁰²에 맡겨 놓고 나머지 돈 100냥은 사랑루(舍廊樓)에 맡겨 두니, 대개 광중이 가지고 온 물건이었다.

廿五日. 錢百兩留置於主人宅內間, 餘錢百兩留置舍廊樓中, 蓋光仲之持來物矣.

▪26일. 맑았다. 광중(光仲) 및 덕능(德能)과 함께 주동(鑄洞) 보청(譜廳)의 여러 유사를 가서 만났다. 오는 길에 잠깐 당촌의 종인(宗人)을 만나 길옆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왔다.

廿六日. 晴. 與光仲及德能, 同往見鑄洞譜廳諸有司. 來路暫逢唐村宗, 路傍暫話而來.

▪27일. 나머지 돈 100냥을 주인택에 맡겨 두고 광중, 사수, 덕능과 함께 중순시

402) 내간(內間)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이나 부인을 말한다.

(中旬試)⁴⁰³에 합격한 마재(馬才)를 가서 만나고 종일토록 있다가 왔다.

廿七日. 留置餘錢百兩於主人宅, 與光仲士洙德能, 往見中旬馬才, 終日而來.

▪28일. 또 주동에 가서 물의(物議)⁴⁰⁴를 자세히 탐문한 뒤에 족보 단자를 전하여 바쳤다. 오는 길에 이동(泥洞)에 들어가 장령 송민재(宋民載)를 만났는데 무안 종인(務安宗人) 지원(持元)이 마침 왔으므로 비로소 그 집에서 만나 인하여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왔다.

廿八日. 又往鑄洞, 詳問物議後, 傳納譜單. 來路入泥洞, 見宋掌令民載, 務安宗持元適來, 故始逢於其家, 因與酬酢而來.

▪29일. 경모궁 여점에 갔는데 텅 비어 있었다. 한참 동안 옷자락을 풀어 헤치고 쉬다가 길을 돌려 이교(二橋)로 향하여 부장(部將) 이경일(李景一)을 찾아가 만났는데 진 주부(陳主簿)도 또한 놀러 왔으므로 인하여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즉시 돌아왔다.

廿九日. 往景慕宮旅店, 則一空矣. 移時披襟休憩, 轉向二橋, 尋見李部將景一, 陳主簿亦來遊, 故因敘尋往不見之由, 卽爲還來.

▪30일.

晦日.

▪5월 1일.

五月初一日.

▪2일. 광중(光仲)이 돌아간다고 고하므로 집으로 보낼 서신을 써서 부치고 인하여 서로 작별했다. 천리 밖에서 서로 이별하는 회포가 남아 있어 매우 쓰리고 아팠다.

403) 중순시(中旬試) : 중순에 보는 무예 시험이다.

404) 물의(物議) : 여러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하는 논의나 평판이다.

初二日. 光仲告歸, 書付家書, 因與相別. 千里之外相別之懷在留, 甚酸苦矣.

▪3일. 밤부터 비가 왔는데 종일토록 개지 않았다.

初三日. 自夜雨作, 終日不霽.

▪4일. 맑았다. 오후에 이문동(二門洞)으로 가서 송지원(宋持元)을 만났다. 오는 길에 장 황주 목사(張黃州)의 집에 들어갔는데 형백(馨伯)이 들어오지 않아서 즉시 돌아왔다.

初四日. 晴. 午後往二門洞, 見宋持元. 來路入張黃州家, 馨伯不入, 故卽爲還來.

▪5일. 주동으로 가다가 도중에 서문 안 송익홍(宋翼弘)의 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안 종인(宗人)이 이르러서 함께 정동 송익상(宋翼庠)의 집을 찾아갔으나 출타하여 만나지 못했다. 길을 돌려 주동에 가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오후에 비가 내려서 인하여 머무르며 그치기를 기다렸다. 저물도록 개지 않았으므로 유수 댁(留守宅) 노마(奴馬)를 빌려 타고 빠르게 달려서 왔다.

初五日. 往鑄洞, 路次入西門內翼弘家, 談話之際, 務安宗人來到, 故同與尋往貞洞翼庠家, 出他不見. 轉往鑄洞, 移時談話矣. 午後雨作, 因留待歇勢矣. 至暮不霽, 故借騎留守宅奴馬, 疾馳而來.

▪6일.

初六日.

▪7일. 식전에 저동(荳洞) 종인(宗人)이 노비를 시켜 서시(書示)하기를, 중시조의 지장책(誌狀冊)을 찾아서 이 문권(文券)을 한림동(翰林洞) 상언(上言) 제작인에게 갖다 두라고 하였으므로 함께 가서 찾아다 노비 편에 부쳐 보내고, 즉시 돌아왔다. 병조(兵曹)의 별구종(別驅從)을 경모궁에 보냈는데 약간의 침구(枕具)와 지갑(紙匣)을 가지고서 왔다.

初七日. 食前苧洞宗人使奴者書示, 爲覓中始祖誌狀冊, 而此文券往置翰林洞上言製作人, 故同往推尋, 寄送奴便, 卽爲還來. 送兵曹別驅從於景慕宮, 持來若干枕具紙匣而來.

▪8일. 주동에 가서 종일토록 대화를 나누고 오는 길에 저동으로 들어가 종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初八日. 往鑄洞, 終日談話, 而來路入苧洞, 與宗人暫話而來.

▪9일.

初九日.

▪10일. 식전에 무안(務安) 종인(宗人) 지원(持元)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갔다.

初十日. 食前務安宗人持元來訪, 敘話而去.

▪11일. 식전에 이문동에 가서 지원(持元) 종인을 만나고 오는 길에 장 황주(張黃州)의 집에 들어가 장형백(張馨伯)이 오지 않겠다는 기별이 왔음을 물어서 알았다.

十一日. 食前往里門洞, 見持元宗, 而來路入張黃州家, 問知張馨伯不來之奇來.

▪12일. 덕능이 찾아와 황 장계(黃長溪)의 노마(奴馬)를 하송(下送)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함께 정동(貞洞) 임 장령(任掌令)의 사관(舍館)으로 가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덕능과 함께 장계의 사관으로 갔는데 장계는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고 즉시 돌아왔다.

十二日. 德能來見, 爲傳黃長溪奴馬下送之奇. 偕往貞洞任掌令舍館, 移時敘話, 與德能往長溪舍館, 則長溪出他未逢, 故卽爲還來.

▪13일. 유동(楡洞)의 부장(部將) 이경일(李景一)의 여점에 갔는데 경일은

부재중이라 길을 돌려 경모궁으로 향하던 무렵에 길에서 장흥의 김 선달을 만나 함께 가다가 이화정(梨花亭)으로 보내 진 주부(陳主簿)를 여점으로 오게 하여 잠시 대화를 나누고 왔다.

十三日. 往楡洞李部將景一旅館, 則景一不在, 故轉向景慕宮之際, 路逢長興金先達同往, 而使送梨花亭, 要來陳主簿於旅店, 暫話而來.

▪14일.

十四日.

▪15일. 식후에 진 주부(陳主簿), 이 부장(李部將) 및 생원 전광한(田光漢)과 덕능(德能)이 함께 와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갔다.

十五日. 食後, 陳主簿, 李部將及田生光漢, 德能同來, 故移時敘話而去.

▪16일.

十六日.

▪17일. 정동에 갔으나 황 장계를 만나지 못하고 길을 돌려 임 장령(任掌令)의 여점으로 향하여 잠시 대화를 나누고 왔다.

十七日. 往貞洞, 不見黃長溪, 轉向任掌令旅店, 暫話而來.

▪18일.

十八日.

▪19일. 진 주부(陳主簿)와 이 부장(李部將)이 찾아왔는데 이날은 날씨가 매우 더웠다. 미호(溟湖) 김 췌주(金祭酒)의 상이 났다.

十九日. 陳主簿, 李部將來見, 而是日日氣甚熱. 溟湖金祭酒喪出.

▪20일.

二十日.

▪21일.

二十一日.

▪22일. 덕능이 와서 머물렀다.

二十二日. 德能來留.

▪23일. 지원(持元) 종인(宗人)과 함께 약현(藥峴)으로 가서 송지상(宋持尙)을 만나고 왔다.

二十三日. 與持元宗人, 同往藥峴, 見宋持尙而來.

▪24일. 서문(西門) 안에 가서 익홍(翼弘)을 만나고 인하여 정동으로 갔는데 익상(翼庠)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길에서 익상 종인을 만났다. 돌아올 무렵에 기선(騎船)⁴⁰⁵을 타고 온 간촌(看村) 박생을 우연히 만났다. 천리 먼 곳에서 오랫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던 끝에 고향 사람을 만났으니 그 기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잠시 여염집에 앉아 고향 소식을 물으니 한 해 농사는 조금 풍년이 들었고 시운(時運)도 또한 크게 치성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익홍의 집으로 돌아와 지원(持元), 익상(翼庠)과 함께 용동(龍洞)의 송씨 집으로 가서 잠시 쉬었다. 길을 돌려 주동으로 향하다가 먼저 유수(留守) 집에 들어가 잠깐 얘기를 나누고 또 문중 어른 댁으로 갔다. 문중 어른이 부재중이라 즉시 산청(山淸) 댁으로 와서 교리(校理) 집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또 유수(留守) 댁으로 들어가 조금 휴식을 취한 뒤에 또 저동(苧洞) 송 감찰(宋監察)의 집으로 갔는데 보성 종인(宗人)인 송지명(宋持命)이 부재중이었으므로 길을 돌려 경모궁으로 가니 모두 출타 중이었다. 그래서 오는 길에 호동(壺洞) 박 곡성(朴谷城)의 집에 들어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二十四日. 往門內, 見翼弘, 因往貞洞, 爲見翼庠矣. 路逢庠宗. 還來之際, 偶逢看村朴生之騎船來者. 千里久客之餘, 得逢故鄉人, 其喜曷極. 暫坐閭家,

405) 기선(騎船) : 사람이 타는 배이다. 짐을 싣는 배는 복선(卜船)이다.

問家鄉消息, 則年事稍登, 時運亦不大熾云矣. 還來翼弘家, 與持元翼庠, 同往龍洞宋家暫憩. 轉向鑄洞, 先入留守家小話, 又往門長宅. 門長不在, 故卽來山清宅, 移時敘話於校理家. 又入留守宅, 稍憩後, 又向苧洞宋監察家, 則寶城宗人持命不在, 故轉往景慕宮, 則皆出他, 故來路入壺洞朴谷城家, 敘話移時而歸.

▪25일. 월암(月巖)의 고 서방(高書房) 집에 갔다. 이곳은 성시(城市) 속의 산림이라 그 맑고 상쾌함이 고요함 속에서 지극하게 나왔으므로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다.

二十五日. 往月巖高書房家. 此是城市山林, 其清爽出靜極矣, 故限日暮談話而來.

▪26일.

二十六日.

▪27일. 지명(持命) 종인(宗人)이 오후에 와서 만나고 갔다.

二十七日. 持命宗人午後來見而去.

▪28일. 새벽부터 연이어 단비가 쏟아지니 민사(民事)에 매우 다행이고 다행이었다. 어제 집에 보낼 편지를 써서 본 관아로 가는 편에 부쳐 보냈다.

二十八日. 自曉頭連注甘雨, 民事極幸極幸. 昨日修家書, 付送本官衙中去便.

▪29일. 맑았다.

二十九日. 晴.

▪6월 1일. 맑았다. 초하룻날 아침에 비로소 보리밥을 먹었기에 절구시 한 수를 읊었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늦봄의 생애 매번 굶주림을 근심하여

春晩生涯每患飢

농가에서 잎 푸를 때 보리를 베었네
올해 장안의 나그네 되어
6월에 보리밥 짓는 걸 처음 보았네

農家刈麥葉青時
今年爲客長安裡
糲飯初看六月炊

생원 전광한(田光漢)이 와서 만나고 갔다.

六月初一日。晴。朔朝始食麥飯，故爲咏一絕。“春晚生涯每患飢，農家刈麥葉青時。今年爲客長安裡，糲飯初看六月炊。”田生光漢來見而去。

■2일. 이른 아침 유동 이 부장(李部將)이 주인 영감을 만나기 위하여 왔다가 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 저녁을 먹은 뒤에 비로소 비올 기미가 있다가 파루(破漏) 때에 이르러 연이어 쏟아졌다.

初二日。早朝檢洞李部將，爲見主人令而來，因爲敘話而去。夕食後始有雨意，至破漏時連注。

■3일. 비가 크게 쏟아졌다가 오후에 개었다. 밤에 울시 한 수를 지었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나그네로 노니는 맛 그 쓸쓸함이 어떠하겠는가
졸렬한 계획 일마다 모두 허사가 되었네
귀객 모임에선 가난한 선비가 웃고
소년들 무리 속엔 노인이 드물다네
산천은 호남으로 가는 길 막고 있어
이 신세 한강의 북쪽 여막에서 부침하네
고향 집 천리 먼 길임을 비로소 알았나니
집 떠난 지 5개월 만에 한 통의 편지를 보았네

旅遊滋味冷何如
拙計都隨事事虛
賢客場中貧士笑
少年叢裡老生疏
山川阻隔湖南路
身世浮沈漢北廬
始識家鄉千里遠
離家五月一看書

初三日。雨大注，午後開霽。夜做一律曰：“旅遊滋味冷何如，拙計都隨事事虛。賢客場中貧士笑，少年叢裡老生疏。山川阻隔湖南路，身世浮沈漢北廬。始識家鄉千里遠，離家五月一看書。”

▪4일. 맑았다. 아침 전에 약현(藥峴)에 가서 종인(宗人) 송지상(宋持尙)을 보았다. 식후에 확교(廓橋)에 가서 잠시 송익홍(宋翼弘)과 대화를 나누고 길을 돌려 저동으로 향하여 보성(寶城)의 사수(士洙)를 만났는데 덕능이 마침 여기에 있어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왔다.

初四日. 晴. 朝前往藥峴, 看宗人持尙. 食後往廓橋, 暫與宋翼弘相話, 轉向苧洞, 見寶城士洙, 德能適在此, 移時相話而來.

▪5일. 땅거미가 질 무렵 다시 비가 왔다.

初五日. 初昏更雨.

▪6일. 아침에 비가 오다가 저녁에 개었다.

初六日. 朝雨晚晴.

▪7일. 종일토록 가랑비가 내렸다. 평안 감사의 장계(狀啓) 가운데 “우박이 혹 큰 것은 계란과 같고 작은 것은 비둘기알과 같다.”라고 하였다 하니 괴이하고 괴이했다.

初七日. 終日微雨. 平安監司狀啓中, 雨霰或大如鷄卵, 小如鳩卵云, 可怪可怪.

▪8일. 아침에 부슬비가 내렸다.

初八日. 朝細雨.

▪9일. 맑았다. 일찍 이동(泥洞)에 가서 교리 송민재(宋民載)와 송지원(宋持元) 종인(宗人)을 만나고 길을 돌려 주동에 가서 교리와 그 두 조카를 만나 조금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동에 갔는데 사수(士洙)가 출타하였으므로 또 이교(二橋) 이 부장(李部將)의 여점으로 가니 진 주부(陳主簿)도 또한 왔다. 경일(景一)이 술을 사서 대접했으므로 요기한 후에 다시 송현(松峴)으로 향하여 안 교리(安校理)와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곧바로 장동(壯洞)으로 향하여 남서방 기중(南書房器仲)을 찾아갔다. 간신히 찾아서

이르렀는데 또 술을 사서 권하므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오는 길에 태인 현감 홍낙현(洪樂顯)을 찾아가니 오랫동안 소식이 막혀있던 끝에 서로 만나 기쁘게 대하니 옛정이 없지 않았다. 또 술을 사서 애써 권하였는데 너무 마셨다고 사양하는데도 권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므로 억지로 한 잔을 마시고 즉시 이별을 고하고 돌아왔다. 날이 이미 저물고 있었다.

初九日. 晴. 早往泥洞, 見宋校理民載持元宗, 轉往鑄洞, 見校理及其兩從, 稍久談話. 往苧洞, 則士洙出他, 故又往二橋李部將旅店, 則陳主簿亦來矣. 景一買酒以饋, 故瘳飢後, 更向松峴, 與安校理, 移時敘話, 直向壯洞, 尋往南書房器仲. 艱辛覓到, 亦買酒以勸, 故移時敘話, 日已暮矣. 來路尋見洪泰仁樂顯, 則積年久阻之餘, 相逢喜待, 不無舊情矣. 又買酒強勸, 辭以已飲, 則勸之不已, 故強飲一盃, 卽爲告別而來. 日已向昏矣.

▪10일. 맑았다. 사수(士洙)가 와서 만나고 갔다.

初十日. 晴. 士洙來見而去.

▪11일. 아침을 먹은 후 하인과 함께 저동에 가니 사수(士洙)는 나가고 덕능(德能)만 홀로 있어서 잠시 자리를 함께하며 서늘한 바람을 쐬다가 인하여 전동(典洞)의 승지 이서구(李書九)⁴⁰⁶의 집에 갔다. 대개 순무사(巡撫使)였던 선조의 일이 《장릉지(莊陵誌)》⁴⁰⁷에 들어가 전하게 되었는데 옥당

406) 이서구(李書九) : 1754~1825. 조선 순조 때의 문신. 자는 낙서(洛瑞), 호는 척재(惕齋), 시호는 문간(文簡),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여러 지방관을 비롯, 호조 판서(戶曹判書)·대제학(大提學) 등을 역임하고,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렀다. 박제가(朴齊家)·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과 함께 사가(四家)로 일컬어졌으며, 저서에는 《강산집(薑山集)》이 있다.

407) 장릉지(莊陵誌) : 단종(端宗)과 관련된 생전·사후의 사적(史蹟)을 기록한 책으로, 윤순거(尹舜舉, 1596~1668)의 《노릉지(魯陵誌)》를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9세손 박경여(朴慶餘)가 권화(權和)와 함께 속지(續誌) 2권을 증보하고 제목을 《장릉지》라고 바꾼 것이다. 《노릉지》는 노산군(魯山君)의 능호(陵號)를 따른 이름이고, 《장릉지》는 노산군이 숙종 때 단종으로 복위된 뒤의 능호인 장릉(莊陵)을 따른 이름이다. 1791년(정조15)에 정조(正祖)가 이의봉(李義鳳)·박규순(朴奎淳)·윤광보(尹光普) 등에게 이 책의 수정 작업을 명하였고 실제로는 5년 후인 1796년까지도 완료되지 못하다가 정조의 독촉에 의해 같은 해 5월야야 완료된다. 《正祖實錄 15年 4月 29日》, 《承政院日記 正祖 20年 5月 11日, 15日》

(玉堂)의 여러 신하가 비록 이미 입전(立傳)되었어도 이 영감에게 특명을 내려 교정을 보게 하였으므로 가서 만나 뵈고 실상이 매몰되는 근심을 없애주기를 부탁하려고 해서였다. 이 영감을 들어가 뵈었는데 마침 좌석에 빈객이 없었으므로 차분하게 함께 대화를 나누며 두루 두 차례 전문(傳文)을 살펴보고 인하여 베껴 써서 소매 속에 넣어서 나왔다. 길을 돌려 송현(松峴)에 가서 안 교리를 만났는데 술과 안주를 대접해주기에 잠시 앉아서 더위를 피하였다. 이날 매우 무더웠다. 다시 나왔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이날 저물녘에 큰비가 내렸다.

十一日. 朝食後, 同下人往苧洞, 則土洙出去, 獨有德能, 故暫與坐納涼, 因往典洞李承旨書九家. 蓋巡撫先祖事入傳於莊陵誌, 而玉堂諸臣, 雖已立傳, 特命李令, 使之校正, 故往見面, 請使無沒實之患故也. 入見李令, 則適值座無賓客, 故穩與相話, 周觀兩度傳文, 因爲謄書袖之而出. 轉往松峴, 見安校理, 則饋以酒肴, 暫坐避暑. 是日極熱矣. 還爲出來, 日已夕矣. 是夕黃昏大雨.

▪12일. 맑았다. 이날 주인 영감이 승지로 자리를 옮겼다.

十二日. 晴. 是日主人令移承旨.

▪13일. 새벽에 큰비가 내렸는데 마치 쏟아붓는 것 같았다. 온종일 혹은 맑기도 하고 혹은 비가 오기도 했다.

十三日. 曉大雨如注. 終日或晴或雨.

▪14일. 아침에 비가 왔다가 저녁에 맑았다.

十四日. 朝雨晚晴.

▪15일. 밤에 큰비가 내렸다. 이날은 바로 유두일(流頭日)⁴⁰⁸이었다. 마침내 고향 생각으로 인하여 절구시 한 수를 지었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408) 유두일(流頭日) : 명절(名節)의 하나인 음력 6월 15일을 가리키는데, 옛날 풍속에 이날은 일가나 친지들끼리 서로 어울려 물 맑은 계곡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어서 액(厄)을 떨어버리고, 유두면(流頭麵), 밀전병 등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노닐었다고 한다.

반년을 한양 도읍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니	半年寄旅漢陽都
객중의 세월이 망아지가 틈을 지나듯 ⁴⁰⁹ 지나가네	客裡光陰易隙駒
유두일 아름다운 때에 풍우가 몰아치니	流頭佳節多風雨
우리 집 이날은 갑절로 날 그리워하겠지	吾家此日倍思吾

十五日. 夜大雨. 是日卽流頭也. 遂因鄉思占一絕. “半年寄旅漢陽都, 客裡光陰易隙駒. 流頭佳節多風雨, 吾家此日倍思吾.”

■16일. 새벽에 비가 오다 저녁에는 맑았다. 이른 아침 이경일(李景一)이 와서 만나고 갔다.

十六日. 曉雨晚晴. 早朝李景一來見而去.

■17일. 밤에 비가 왔다. 종일토록 가랑비가 내렸다.

十七日. 夜雨. 終日霏微.

■18일. 이날은 바로 원자(元子)⁴¹⁰의 탄신일이다. 어제 승정원으로부터 여러 생도에게 음식을 하사한다[賜饌]는 명⁴¹¹이 있어서 아침에 반궁(泮宮)으로 들어갔다. 중도에 비를 만나 의복이 모두 젖었다. 간신히 반촌(泮村)⁴¹²에 들어가니 하사할 음식은 낙급(絡給)하여 운반해 갔고 승지가 여러 생도에게 유지를 전하며 지필(紙筆)을 갖추라 하므로 서둘러 필기도구를 마련하여 비를 무릅쓰고 입장하니 임금이 하사한 음식은 명륜당 당상에서 이미 모두

409) 망아지가 틈을 지나듯 : 원문의 극구(隙駒)는 망아지가 틈을 지나간다는 것으로, 세월이 빨리 흐름을 비유한 말이다. 장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천지간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흰 망아지가 틈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人生天地之間 若白駒過隙〕”라고 하였다.《莊子 知北遊》

410) 원자(元子) : 정조의 둘째 아들인 문효세자로, 곧 순조(純祖, 1790~1834)이다.

411) 음식을 하사한다[賜饌]는 명 :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정조 15년 6월 18일 조에 “이날은 자궁의 탄신일이며 원자의 돌이었다. 김복헌(集福軒)에 갖가지 놀이감을 담은 소반을 차려놓았다. 원자는 사육화양건(四旂華陽巾)을 쓰고 자주색 비단 겹저고리를 입었는데 앓은 모습이 의젓하였다. 먼저 채색 실을 집고 다음으로는 화살과 악기를 집었다. 곧 각신과 승지들에게 들어와서 보라고 명하였다. 종실·대신·제신(諸臣)과 대궐에서 수직하는 낭관, 장수·호위 군사 및 서리·하인, 군졸과 큰 길거리에서 사는 백성들에게까지 떡을 내렸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412) 반촌(泮村) :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근처의 동네를 이르는 말이다.

배포되어 버렸다. 두 명의 승지와 병조 판서, 성균관의 여러 고위 관리들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이른바 유생들이 당상(堂上)으로 난입하여 (그 음식을) 모조리 짓밟아 버리니 여러 당상관이 모두 자리를 피하였다. 그 요란하고 시끄러운 상황을 이미 다 말로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장맛비가 또 크게 내리니 비천당(丕闡堂)⁴¹³으로 피하여 들어가 과제(科題)를 들으니 “이분이 바로 후직(後稷)이다.[時維后稷]”⁴¹⁴ 이었다. 어렵게 지어서 바쳤는데 날이 아직 정오가 되지 않았다. 즉시 경모궁 진 주부(陳主簿)의 여소(旅所)로 왔다. 대개 대로(大路)변에 진흙이 심하여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석사(李碩士)를 응란교(凝鑾橋) 어귀에서 유숙하게 하고 즉시 나와서 곧바로 이교(二橋) 이정일의 여관으로 향했는데 비 오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 조금 휴식을 취한 뒤에 마전교(馬廛橋)에서 곧바로 천변을 따라가다가 방목전교(方木廛橋) 어귀로 나가서 신문(新門)에 이르렀다. 성 위로부터 소의문(昭義門)에 이르러 조금 쉬었다가 나오니 날이 이미 저녁이었다.

十八日. 卽元子誕日也. 昨自政院有諸生賜饌之命, 故早時入泮宮矣. 中路逢雨, 衣服盡濕. 艱到泮村, 則賜饌飲食, 絡給運去, 而承旨傳諭於諸生, 使備紙筆, 故蒼黃[竹+辨]具, 冒雨入場, 則御賜食物, 已盡排布於明倫堂上. 兩承旨及兵判, 成均館諸縉紳, 欲爲分賜之際, 所謂儒生躡入堂上, 盡皆蹂躪, 諸堂上盡爲避坐. 其擾攘紛鬧, 已無可言. 小頃霖雨又大作, 避入丕闡堂, 聞科題, 則云時維后稷. 艱構以納, 日未午矣. 卽來景慕宮陳主簿旅所. 蓋以大路泥甚, 不得行步故也. 留李碩士於凝鑾橋頭, 故卽爲出來, 直向二橋李景一旅館, 則雨來不止. 小憩後, 從馬廛橋直隨川邊, 出方木廛橋頭, 至新門. 從城上至昭義門, 小休出來, 日已夕矣.

413) 비천당(丕闡堂) : 1664년(현종5)에 건립되어 과거 시험장 등으로 쓰였다. 서반수(西泮水) 안쪽에 있어서 서반수당(西泮水堂)이라고도 하였다. ‘비천’이라는 이름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지은 것이다. 《太學志 卷1 建置 學舍》

414) 이분이 바로 후직(後稷)이다.[時維后稷] : 《시경(詩經)》 대아(大雅) 생민(生民)의 “아기를 배고 신중히 하여, 낳아 기르셨으니, 이분이 바로 후직(後稷)이다.[載震載夙 載生載育 時維后稷]”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시는 주(周)나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공이 그들의 조상인 후직(後稷)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읊은 것이다.

▪19일. 밤에 큰비가 내렸다가 종일토록 가랑비가 왔다.

十九日. 夜大雨, 終日霏微.

▪20일. 맑았다. 식전에 정동에 가서 임 장령(任掌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18일 반찬방(頒饌榜)⁴¹⁵이 비로소 나왔는데 송(頌)에서는 서울에서 김희화(金熙華), 수원에서 권의(權倚)가, 부(賦)에서는 서울에서 권황(權煇), 수원에서 심경진(沈經鎭)이 수석을 차지했다. 그 나머지 40여 인은 차상(次上)으로 초시에 부쳤다. 그 나머지는 종이 1속(束)을 하사하였다.

二十日. 晴. 食前往貞洞, 見任掌令, 敘話而來. 十八日頒饌榜始出, 而頌金熙華京, 權倚水原, 賦權煇京, 沈經鎭水原. 其餘四十餘人次上, 以付初試. 其餘賜紙一束.

▪21일. 전동(典洞) 이 승지(李承旨)의 집에 가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왔다.

二十一日. 往典洞李承旨家, 穩話而來.

▪22일. 비가 왔다. 낮에 봉포(鳳浦) 종인(宗人) 송형중(宋亨中)이 찾아와서 비로소 4월 이후의 고향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집에서 보내온 편지는 향군(鄉軍) 편에 오는데 향군이 지금 제 2여점(旅店)에 있다고 하여서 급하게 사람을 보냈다. 내송천(內松川) 김복룡(金卜龍)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곧 평범한 소식이었다. 남쪽은 전혀 여기(厲氣)⁴¹⁶가 없고 농사도 제법 풍년의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二十二日. 雨. 午間鳳浦宗人亨中來見, 始聞四月以後鄉信. 而家書來於鄉

415) 반찬방(頒饌榜) : 《정조실록》 15년 6월 18일 조에 “승지를 보내 태학의 유생들에게 떡을 내리고 이어 어제(御題)를 내려 여러 유생들에게 응제(應製)하도록 하였다. 부(賦)에서 수석을 차지한 권황(權煇)과 송(頌)에서 수석을 차지한 김희화(金熙華)는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또 “수원부의 유생에게도 성균관의 유생들과 똑같이 떡을 나눠 주고 과거시험을 보였는데, 송(頌)에서 수석을 차지한 권의(權倚)와 부(賦)에서 수석을 차지한 심휘진(沈徽鎭)을 급제시키고 활쏘기 시험에서 합격한 무사(武士) 임창옥(林昌玉) 등은 곧장 전시에 응시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416) 여기(厲氣) : 돌림병의 기운을 말한다.

軍便, 方在第二旅店云, 故急急送人矣. 內松川金卜龍者持來家書, 乃平信也. 南中則全無厲氣, 年事頗有登豐之望云, 可幸.

▪23일. 조식 후에 주동에 가서 종일토록 대화를 나누었는데 술과 음식도 있었다.

二十三日. 朝食後往鑄洞, 終日談話, 而有酒食矣.

▪24일. 아침 동안 이슬비가 내렸다. 이날은 도목정사(都目政事)⁴¹⁷를 하는 날이다.

二十四日. 朝間微雨. 是日爲都政日也.

▪25일. 비가 왔다.

二十五日. 雨.

▪26일. 남면(南面) 종인(宗人)과 함께 동대문 안에 있는 향군(鄉軍)의 여막(旅幕)에 갔다가 길을 돌려 이경일(李景一)의 여막에 갔는데 비가 한 차례 쏟아진 후에 바로 그쳤다. 그래서 군인 여막으로 돌아와 요기를 하고, 길을 돌려 저동(苧洞)으로 향했는데 사수(士洙)가 부재중이라 다만 주인집 소년 및 덕능(德能)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뒤에 나왔다.

二十六日. 同南面宗人, 往東大門內鄉軍旅幕, 轉往李景一旅幕, 則雨作一注後即止. 故還來軍人旅幕瘳飢, 轉向苧洞, 則士洙不在, 只與主家少年及德能, 暫話後出來.

▪27일. 복날이었다. 날이 너무 더웠다. 이날 아침 이문동(里門洞) 무안 종인(宗人)의 집에 가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주동(鑄洞)에서 사람을 보내 초청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전부터 비가 내려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二十七日. 伏日也. 日甚熱. 是朝往里門洞茂安宗人之家, 移時談話而來, 則

417) 도목정사(都目政事) : 해마다 음력(陰曆)으로 유월(六月)과 선달에 벼슬아치의 성적(成績)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자리를 떼어버리거나 더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던 일이다.

自鑄洞送人要請云. 而自食前雨作, 故不得入去.

- 28일. 이른 아침부터 전동(典洞)에 가서 이 승지를 만나고 길을 돌려 주동(鑄洞)에 가서 그가 어제 만나려고 했던 뜻을 물으니 복날이라 술과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잠시 앉아서 서늘한 바람을 쐬고 즉시 나왔는데 오는 길에 영월 부사 박기정(朴基正)⁴¹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길에서 영남의 석사(碩士) 하석오(河錫五)를 만나 그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니 출타하였다고 하여 즉시 돌아왔다.

二十八日. 早朝往典洞, 見李承旨, 轉往鑄洞, 問其昨日要見之意, 則爲伏日有酒食云矣. 暫坐納涼, 卽爲出來, 而來路爲見朴寧越基正矣. 路逢嶺南河碩士錫五, 聞其有無, 則出他云, 故卽爲還來.

- 29일. 날이 저문 뒤에 흥양(興陽)의 군인인 서성태(徐聖泰)가 와서 뵈고 고향 소식을 전하고 갔다.

二十九日. 晚後興陽軍人徐聖泰來謁, 爲傳鄉信而去.

- 30일. 봉동(鳳洞)의 종인(宗人) 및 남면의 군인들이 와서 만나고 갔다.

三十日. 鳳洞宗人及南面軍人輩來見而去.

- 7월 1일. 식전에 진 주부(陳主簿) 및 이 부장(李部將)이 영감을 알현하려고 와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인하여 함께 확교(廓橋) 김 병사(金兵使)의 집에 갔는데 비올 기미가 있어서 황급히 유동(楡洞)의 군인 여막으로 가니 장씨 노미 이미 말을 팔아 버려서 엄중히 꾸짖고 그에게 도로 물리라고 말을 하고 즉시 돌아오는데 이슬비가 그치지 않았다. 간신히 차동(車洞)에

418) 박기정(朴基正) : 1748~?.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일여(一如)이다. 사육신 박팽년(朴彭年)의 후손이다. 1791년 장릉 추향(追享)에서 부교리로서 대축(大祝)을 맡았다가 사육신의 자손이라 하여 영월 부사로 특별히 제수되었다. 뒤에 대사간, 병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이의준(李義駿), 이서구(李書九) 등과 함께 《장릉지(莊陵志)》를 교정하여 《장릉사보(莊陵史補)》를 편찬하였으며, 글씨에도 조예가 깊어 <장릉영천비(莊陵靈泉碑)>, <관풍헌중수기(觀風軒重修記)>, <육신사기(六臣祠記)> 등의 글씨가 전한다.

도착하였는데 비가 이미 연이어 쏟아지며 종일토록 그치지 않았다.

七月初一日. 食前陳主簿及李部將爲謁令監而來, 移時對話. 因與同往至廓橋金兵使家, 則有雨意, 急往楡洞軍人旅店, 則張漢已賣鬻, 故因峻責, 使之還退爲言, 卽爲回來, 微雨不止矣. 艱到車洞, 則雨已連注, 終日不止.

▪2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初二日. 雨而風.

▪3일. 맑았다. 형중(亨中)에게 집에 보낼 편지를 부쳤다. 오후에 이 석사(李碩士)와 함께 월암(月巖) 고 서방(高書房) 집에 가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술과 참외를 차려서 권하였다. 대개 그 가세가 자주 끼니를 굶으면서도⁴¹⁹ 이것을 마련하여 대접하니 그 인품이 가상했다.

初三日. 晴. 付家書於亨中. 午後與李碩士往月巖高書房家, 移時談話, 而設酒菰而勸之. 蓋其家勢屢空, 而[竹+辦]此以餉, 其人品可尙.

▪4일. 맑았다. 이 석사(李碩士) 형제, 이 상사(李上舍) 및 고 서방(高書房), 남기중(南器重)과 함께 피서(避暑)를 갔다. 간신히 장동(壯洞)에 이르니 날이 매우 무더웠다. 잠시 자하관(紫霞觀)에 머물렀는데 자하관은 바로 석사 남양래(南養來)의 집이었다. 깨끗하고 청량하여 ‘성시 속의 청량한 세계’라 할 만하였다. 다시 동산(東山)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옷깃을 풀어 헤치고 시원한 바람을 쐬다가 마침내 태고정(太古亭)⁴²⁰으로 향하여 한나절을 소요했다. 태고정 가에는 삼층의 석지(石池)가 있고 그 위로 몇 걸음을 옮기면 석벽(石壁)이 있는데 ‘백세청풍(百世清風)’이라 새겨 놓았다. 그 아래로 작은 연못가에 ‘대명일월(大明日月)’이라는 네 글자가 있고, 그

419) 자주 끼니를 굶으면서도 :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가 도(道)의 경지를 즐기면서 자주 끼니를 걸렀다.[回也 其庶乎 屢空]”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論語 先進》

420) 태고정(太古亭) : 서울 장동(壯洞), 문충공 김상용의 별서에 있었던 정자이다. 김상용의 집은 인왕산 자락의 청풍계(淸風溪)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의 청운동이다. 이곳에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살았으므로 장동 김씨들의 본거지가 되었는데, 태고정은 이들의 주요 문화공간 구실을 하였다.

북쪽에 한 채의 누각이 있는데 청풍지각(淸風池閣)⁴²¹이라고 이름하였다. 산보(散步)하면서 소요하니 만고에 없는 회포를 이길 수가 없었다. 남기증의 집에서 요깃거리와 술과 안주를 대접하여 서로 배부르게 먹고 취하니 석양이 이미 산에 걸려 있었다. 마침내 일행과 함께 대은암(大隱菴)에 이르렀는데 대은암은 바로 신백록(辛白麓)⁴²²이 살던 곳으로 지금은 조대(措大)⁴²³가 터를 잡아 사는 곳이 되었으므로,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위쪽으로 깊은 산골짜기 고요한 곳에서 거문고와 피리에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마침내 그곳으로 가보니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가객(歌客)을 이끌고 와서 놀다가, 날이 저물자 장차 그만두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주인 조대(措大)가 그 가객과 세 연주자를 대상으로 와서 연주하게 하니, 한나절의 풍악(絲管)을 기약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되어 한참 동안 회포를 풀었다. 마침내 바삐 걸어 문을 나오니 이미 인정(人定)⁴²⁴ 때였다.

初四日。晴。與李碩士兄弟，李上舍及高書房，南器重，同作避暑之行。艱到壯洞，則日熱甚矣。小留於紫霞觀，紫霞觀卽南碩士養來之家。灑洒清涼，可謂城市清涼界矣。更入東山，移時披襟納涼，遂向太古亭，半日逍遙。亭畔有三層石池，其上數步有石壁，而刻以百世淸風。其下小池畔有大明日月四字，其北有一閣，名以淸風池閣。散步逍遙，不勝曠古之懷矣。自南器重家，饋以療飢及酒肴，故相與飽醉，夕陽已在山矣。遂與一行至大隱菴，大隱菴卽辛白麓所居之地，而今爲措大所卜居，故暫爲敘話，遠聞其上林深澗闌之處有

421) 청풍지각(淸風池閣) : 허목(許穆)의 《기언(記言)》 별집 권9에 수록된 <삼월산수소기(三月山水小記)>를 참고하면 “계속하여 청풍계로 올라가니 시내 옆에 소오정이 있고, 시내 위에 세 개의 석지가 있으며, 못가에 태고정이 있다.〔仍遊淸風溪 臨溪有嘯傲堂 溪上有三石池 池上太古亭〕”라는 내용이 있다. 또 김창협(金昌協)의 《농암집(農巖集)》 권3에 <청풍지각(淸風池閣)>이라는 시가 있고, 김창흠(金昌翕)의 《삼연집(三淵集)》 권2에 수록된 <풍계조기(楓溪朝起)>라는 시에 “청풍지각에서 그대와 나누는 이야기〔淸風池閣與子語〕”라는 구절이 있다.

422) 신백록(辛白麓) : 백록은 신응시(辛應時, 1532~1585)의 호이다. 자는 군망(君望), 시호는 문장(文莊)이며, 본관은 영월로, 백인걸(白仁傑)의 문인이다. 1559년(명종14)에 문과에 급제하고, 선조 때에 병조 좌랑과 예조 참의 등을 거쳐 홍문관 부제학에 이르렀다. 《주자대전(朱子大全)》 중에서 예(禮)에 관한 부분을 발취하여 《주문문례(朱門問禮)》를 간행하였다.

423) 조대(措大) : 깨끗하고 가난한 선비를 이르는 말이다.

424) 인정(人定) : 밤에 통행(通行)을 금(禁)하기 위(爲)해 종을 치던 일이다.

絲竹歌吹之聲. 遂往其處, 則不知何許人率歌客來遊, 而以日暮之, 故將掇歸. 主人措大要其歌客及三絃來設於堂上, 半日之絲管不期相會, 移時暢懷. 遂忙步出門, 已人定時矣.

▪5일. 새벽 무렵 아직 잠이 깨지 않았는데 생원 정효관(丁孝寬)이 이별을 고하고 갔다. 천리 밖에서 매번 고향 사람과 이별할 때마다 마음이 절로 좋지 않았다.

初五日. 曉頭未覺睡之時, 丁生孝寬告別而去. 千里之外, 每別鄉人, 則心懷自不好矣.

▪6일.

初六日.

▪7일. 일찍 일어나 홍산(鴻山) 종인(宗人)과 함께 주동(鑄洞)에 가니 술과 안주가 있었다.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길을 돌려 하량교(河梁橋) 주변으로 가서 생원 김이록(金履祿)을 만났다. 또 호동(壺洞)에 가서 박 곡성(朴谷城)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이 부장의 여막으로 가서 얘기를 나누다가 날이 너무 무더워 즉시 돌아왔다.

初七日. 早起, 與鴻山宗人往鑄洞, 則有酒肴矣. 移時談話, 轉往河梁橋邊, 見金生履祿. 又往壺洞見朴谷城敘話後, 往李部將旅幕敘話, 日熱甚矣, 卽爲還來.

▪8일. 생원 김이록이 와서 만나고 갔다.

初八日. 金生履祿來見而去.

▪9일. 저물 무렵부터 비가 내리다 밤새도록 큰비가 왔다.

初九日. 自昏雨作, 達夜大雨.

▪10일. 큰 비바람이 불고 종일토록 개지 않았다. 금년에 처음 겪는 큰물이었다.

初十日. 大風雨, 終日不霽. 今年初度大水也.

▪11일. 맑았다.

十一日. 晴.

▪12일. 아침에 맑았다. 영감이 소분(掃墳)⁴²⁵의 일로 여주(驪州)로 나갔는데 날이 저물자 비가 크게 내려서 밤에는 큰물이 졌다.

十二日. 朝晴. 令監以掃墳事出去驪州, 而日晚雨大作, 夜大水.

▪13일. 아침에 맑았다가 저녁에 비가 왔다.

十三日. 朝晴晚雨.

▪14일. 비가 왔다.

十四日. 雨.

▪15일. 종일토록 가랑비가 왔다.

十五日. 終日霏微.

▪16일. 맑았다. 저동에 가서 사수(士洙)를 만나고 하량교(河梁橋) 여점으로 가서 생원 김이록(金履祿)을 방문하였는데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길을 돌려 연지동(蓮池洞) 석사 유자일(兪子一)의 집에 가서 조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술을 사서 대접해주니 그 은근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경모궁에 들어가서 진 주부(陳主簿)를 만났다. 오는 길에 이 부장(李部將)의 여소(旅所)에 들어가 함께 길을 가서 차동(車洞)으로 와서 유숙하였는데 봉화가 이미 떨어졌다.

十六日. 晴. 往苧洞見士洙, 因往河梁橋旅店, 訪金生履祿, 則出他未逢. 轉往蓮池洞兪碩士子一家, 稍久談話, 爲沽酒以饋, 其殷懃之情可掬. 暫入景

425) 소분(掃墳) :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제사 지내는 일이다.

慕宮, 見陳主簿. 來路入李部將旅所, 同與作行, 來留車洞, 烽火已落矣.

▪17일. 잠깐 맑았다가 잠깐 비가 왔다. 저녁에 여러 벗들과 함께 모화관에 가서 새로 건립한 정렬(貞烈) 이씨의 홍살문(紅箭門)⁴²⁶을 보고, 오는 길에 월암(月巖)에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왔다. 비는 이미 내리고 있었다.

十七日. 乍晴乍雨. 夕時與諸益, 同往慕華館, 見新立貞烈李氏之紅門, 來路入月巖, 暫歇而來. 雨已作矣.

▪18일. 비가 왔다.

十八日. 雨.

▪19일. 비가 왔다.

十九日. 雨.

▪20일. 아침에 맑았다. 정동으로 가서 임 장령(任掌令), 황 장계(黃長溪)를 만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왔다. 이날 또 큰물이 졌다.

二十日. 朝晴. 往貞洞見任掌令黃長溪, 移時談話而來. 是日又大水.

▪21일. 아침에 맑았다. 오후에 이교(二橋)의 군인 여점에 가서 신군(新軍)이 오늘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고향 소식을 탐문하고자 하였으나 그놈들이 모두 대장 집으로 가서 만나지 못하였고 날은 이미 저물었다. 길을 돌려 호동으로 가서 박자직(朴子直)과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이 부장(李部將)의 여막으로 가서 유숙하였다.

二十一日. 朝晴. 午後往二橋軍人旅店, 聞新軍之今日來到, 欲探鄉信, 厥漢輩皆往大將家, 不得相見, 而日已暮矣. 轉往壺洞, 與朴子直, 移時談話, 往

426) 정렬(貞烈) 이씨의 홍살문(紅箭門) : 궁인(宮人) 이씨(李氏)에게 수칙(守則)이라는 작첩과 정렬(貞烈)이라는 호를 내리고 그가 살고있는 곳을 표하여 '수칙이씨지가(守則李氏之家)'라고 하였다. 이씨는 그전에 경모궁(景慕宮 사도세자)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인으로서 늙어 머리가 희도록 초막집을 그대로 지키며 사람들과도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느끼는 바 있어 표이(表異)의 은전을 특별히 베풀었던 것이다. 《정조실록》 15년 7월 16일.

李部將旅幕留宿.

▪22일. 새벽부터 비가 내려 온종일 가랑비가 왔으므로 계속하여 유숙하였다.
二十二日. 自曉頭作雨, 終日霏微, 故因宿焉.

▪23일.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 생원 김이록(金履祿)의 여점에 이르렀는데 김생(金生)이 부재중이어서 향군(鄉軍)의 여점으로 들어가니 비록 집에서 온 편지는 없었으나 농사의 상황과 시기(時氣)가 대단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알았으니 다행스러웠다. 인하여 내교(來校) 편에 집에 보내는 편지를 부치고 즉시 나왔다. 오는 길에 정동(貞洞)에 들어가 황장계(黃長溪)에게 말을 전하고 왔다. 21일부터 우연히 설사와 여름 감기에 걸리니 객지에서 근심스럽고 근심스러웠다.

二十三日. 早朝發行, 至金生履祿旅店, 則金生不在, 而入鄉軍旅店, 則雖無家書, 備知農形及時氣之不至大端, 可幸. 因付家書於來校便, 卽爲出來. 來路入貞洞, 傳言於黃長溪而來. 自二十一日, 偶患泄瀉及暑感, 客中悶悶.

▪24일. 맑았다.

二十四日. 晴.

▪25일. 맑았다.

二十五日. 晴.

▪26일. 잠시 소나기가 내렸다. 말값 5냥을 먼저 장씨 놈에게 지급했다.

二十六日. 暫驟雨. 馬價五兩, 先給張漢.

▪27일. 이른 아침 말에게 꼴을 먹이는 것을 보기 위해 잠시 정동(貞洞)에 갔는데 풍우에 막혀서 잠시 쉬다가 왔다. 설사 증세는 비록 그쳤으나 감기는 완쾌되지 않아서 바야흐로 고단하게 누워있을 때 이 선달이 닭 한 마리를 삶아서 보내니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했다. 이날 파루(罷漏)할 때 영감이

뱃길로 들어왔다.

二十七日. 早朝爲見秣馬, 暫往貞洞, 爲風雨所阻, 小憩而來. 瀉症雖止, 而感氣不快, 方困臥之際, 李先達爲烹一鷄以饋之, 實爲感感. 是日罷漏時, 令監自木道入達矣.

▪28일. 맑았다. 식후에 진 주부(陳主簿), 이 부장(李部將)이 영감을 만나러 왔으므로 함께 소의문(昭義門)⁴²⁷으로 들어가 주동 송 교리(宋校理) 및 여러 유사(有司)를 만났다. 오는 길에 이동(泥洞)으로 들어가 교리 송민재(宋民載)를 만나 《충효록(忠孝錄)》을 맡겨 두고 저동(苧洞)으로 들어가 사수(士洙)를 만나고 왔다.

二十八日. 晴. 食後陳主簿·李部將爲見令監而來, 故同入昭義門, 往鑄洞見宋校理及諸有司. 來路入泥洞, 見宋校理民載, 留置忠孝錄, 又入苧洞, 見士洙而來.

▪29일. 큰비가 밤새도록 내리며 개지 않다가 아침이 된 후에야 비로소 맑아졌다.

二十九日. 大雨達夜不霽, 至朝後始晴.

▪8월 1일. 아침 전인데 인하여 비가 와서 종일토록 부슬비가 내렸다. 정동(貞洞)에 가서 말편자 두 부(部)를 주고 말편자를 박게 하였다.

八月初一日. 朝前因雨, 終日霏微. 往貞洞給馬鐵二部, 使之插鐵.

▪2일. 비가 왔다. 아침에 산이문동(山里門洞)에 가서 성주(城主)와 흥양(興陽) 하인을 만나고 하량교(河梁橋)에 들어서 김이록(金履祿)을 방문하였는데 출타하여 만나지 못했다. 호동(壺洞)에 이르러 박 곡성(朴谷城)을 만나고 또 경모궁 진 주부(陳主簿)에게 갔다. 오는 길에 호동에 들어가 이 부장(李部將)을 만나고 또 박 곡성(朴谷城)의 집에 들어가 우산(牛山) 안씨 벗에게 온

427) 소의문(昭義門) : 서소문(西小門)이다.

편지를 받아서 곧바로 나와 월암(月巖)으로 들어갔는데 고 서방(高書房)은 부재중이었다. 곧바로 내려와 김 청풍(金淸風)의 집에 들어가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初二日. 雨. 早往山里門洞, 見城主及興陽下人, 歷入河梁橋, 訪金履祿, 則出他未遇. 至壺洞見朴谷城, 又往景慕宮陳主簿. 來路入壺洞, 見李部將, 又入朴谷城家, 受牛山安友抵書, 直爲出來, 入月巖, 則高書房不在矣. 直爲下來, 入金淸風家暫話, 而日已夕矣.

■3일. 이른 아침 정동에 갔는데 벗인 임씨의 노비가 병이 들어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니 한탄스럽고 한탄스러웠다. 저녁을 먹은 뒤에 정동(貞洞) 임장령(任掌令)의 여점으로 가서 유숙하였다. 밤새도록 비가 쏟아졌다.

初三日. 早朝往貞洞, 則任友之奴以病不得下去云, 可歎可歎. 夕食後, 往貞洞任掌令旅店留. 終夜雨霏.

■4일. 아침을 먹은 뒤에 차동(車洞)으로 와서 춘백(春白)을 각처의 여막으로 보내 내려갈 사람을 찾게 하였다. 과연 남원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찾아 함께 왔으므로 동행하기로 약속하였다.

初四日. 朝食後, 來車洞, 送春白於各處旅幕, 求得下去人. 果得南原下去人同來, 故約與同行.

■5일. 이른 아침 정동(貞洞)으로 갔는데 동춘(東春)이란 자가 아무쪼록 함께 가자 한다고 하니, 만약 무사히 함께 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본 바로는 아무 일 없이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니 고민스러웠다. 낮에 남원 사람이 와서 품삯을 요구하니, 다른 사람과 동행한다는 뜻으로 거절하였다. 저녁에 정동으로 갔는데 임장령(任掌令)이 비로소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니 정말로 이른바 ‘때에 임하여 낭패에 이르다.’라는 것이니 분하고 분하였다.

初五日. 早時往貞洞, 則東春者謂以某條同去云. 若無事同去, 則幸矣. 以今所見, 無故得達似未易矣, 可悶. 午間南原人來索雇錢, 以他人同行之意斥

428)之矣. 夕時往貞洞, 則任掌令始以不送爲言, 定所謂臨時致敗, 憤憤.

▪6일. 이른 아침에 또 춘백(春白)을 각 처의 여점으로 보냈는데 과연 전주 마부 한 사람을 구하여 왔으므로 즉시 그놈이 거주하는 창동(倉洞)으로 가서 동행하기로 약속하고 즉시 돌아왔다. 아침밥을 재촉하여 먹고 행장(行裝)을 꾸려 별구종(別驅從) 사봉(巳奉)을 거느리고 창동(倉洞)으로 갔다. 인하여 짐을 꾸려 길을 떠나는데 해가 이미 저물었다. 빠르게 달려 강어귀에 이르렀는데 강물이 아직도 불어있어서 동작진(銅雀津)으로 배를 움직일 수 없었다. 강가에 떠 있는 남은 배를 따라 배에 타려고 하는데 말이 배에 잘 오르지 못하다가 간신히 배에 올랐다. 막 배가 출발하려고 할 즈음에 말이 강물로 뛰어들더니 엎어져 일어나지 못하였고 행장(行裝)도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종에게 입수하여 끌고 나오도록 재촉하였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떤 물건이 물에 젖지 않았겠는가. 수심이 이미 가슴과 허리까지 차는데 그 말이 무슨 수로 다시 배에 오르겠는가. 부득이 사봉(巳奉)으로하여금 모래사장 주변으로 끌고 나오게 하여 다시 다른 배에 타게 하였는데, 내가 탄 배는 빠르기가 나는 새와 같아서 이미 바위가 험한 해안가에 이르렀다. 물이 급하고 바위가 서 있어서 하선(下船)할 만한 길이 없었으니 그 위태롭고 두려운 상황을 무어라 형언할 수 없었다. 자주자주 돌아보니 사봉이 뱃사공[船漢]과 행인(行人)을 고향쳐 부르며 백방으로 힘들게 고생하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해안가에 올랐는데 이름이 강진(康津)인 전주 마부의 말이 배에서 내린 뒤 즉시 험한 길을 따라 가버리자 그놈도 뒤따라 가버렸다.

한참 후에 사봉과 짐 싣는 말이 와서 정박하였으므로 그에게 짐을 싣게 하였는데 말이 또 배에 오를 때 무수한 매질 때문에 놀라고 기겁하여 짐 싣는 것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놀라 일어나 빙빙 돌며 돌아다니다가 인하여 엎어지고 넘어져 이미 짐들이 물에 잠기고 또 백사장으로 굴러떨어지니 의복과 명지(明紙)의 상태가 어떠했겠는가. 또 간신히 짐을 싣고 급한 언덕과 험한 길을 오르니 혹은 놀라고 혹은 날뛰며 광분하고 질주하니 그 걸어가는

428) 원문의 '斤'을 문맥에 근거하여 '斤'으로 수정하였다.

상황이 혹 허리가 부러진 듯하고 혹 다리가 부러진 듯하였는데 이때 강진(康津)이 돌아오니 그 기쁨과 다행스러움을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간신히 하나의 고개를 넘었는데 또 진흙 언덕을 만나니 건설한 말도 또한 혹 넘어지고 미끄러지는데 이 미치게 놀란 말이 어찌 잘 갈 수 있겠는가. 몇 걸음 지나지 않아서 번번이 넘어지고 엎어지는데 날은 이미 어둠이 내렸다. 당초에 짐들은 다만 겨울옷과 봄옷이었으므로 지극히 가볍고 가벼웠는데 먼저는 침수되고 또 거기다 진흙과 모래까지 보태어져 심히 움직일 수 없었다. 강진(康津)이란 사람이 이동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 말은 이미 가버리고 뒤따를 사람은 없는데 이 말은 이끌고 가기 어려우니 소인은 이만 작별을 고하고 떠나겠습니다. 청컨대 아무쪼록 승방점(僧房店)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황급히[悻悻] 떠나 버리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마침 황혼 무렵에 땔나무를 파는 몇 사람을 만났는데 비록 일면식도 없었지만 그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져 승방점(僧房店)으로 짐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니 그 사람들이 품삯으로 4~5전(錢)을 요구하였다. 길이야 5~6리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이다. 하지만 품삯이 아무리 높아도 이런 때엔 돈이 또한 귀한 것이 아니다. 얼마라도 뜻대로 주겠다고 대답했더니, 그놈들이 비로소 질퍽질퍽한 물속에서 끌고 나와 그 말에 짐을 나누어 실었다.

간신히 승방점에 당도해보니, 강진이란 자는 이미 과천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한단 말인가. 부득이 여막으로 들어갔는데 한 칸의 방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명의 무관이 술김에 주인 놈과 크게 싸우니 그 요란한 상황과 위태로운 모습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간신히 밤을 보냈으나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이런 길들지 않은 말로 노비도 없이 먼 길을 가자니 하늘에 오르는 듯하였다. 평생에 먼 여행길이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처럼 낭패에 이른 것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바였다. 같은 여막에서 밤을 보낸 사람은 모두 서울 사람이었는데 그중 신창

(新昌)⁴²⁹⁾ 사람인 두 길손이 내려간다고 하므로 함께 가자고 청하며 값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자 그 사람이 허락하였다. 이 또한 언짢은 마음에 제법 위로가 되었다.

初六日. 早朝又送春白於各處旅店, 則果得全州馬夫一人而來, 故卽往厥漢所住處倉洞, 約與同行, 卽爲回來. 催食朝飯, 治行具, 率別驅從已奉, 往倉洞. 因爲治行離發, 日已夕陽. 疾馳至江頭, 則江水尙漲, 不得行船於銅雀. 從浮餘, 乘舟之際, 馬匹不善登船, 艱辛上船. 方張行船之際, 馬匹躍出江水, 臥而不立, 行具沒數沈水. 催奴入水牽出, 則於焉之間, 何物不添濕乎. 水深已至胸腰之餘, 其馬何以復登, 不得已使已奉牽出沙邊, 更騎他船, 而吾所登之舟, 疾如飛鳥, 已至於岸上巖險之處. 水急巖立, 無路下陸, 其危凜之狀, 不可形言. 頻頻回顧, 則已奉呼喝船漢及行人, 艱苦百端, 今始登岸, 而全州馬夫名康津者之馬下陸後, 卽因險路而去, 厥漢追蹤而去矣. 移時後, 已奉馱馬到泊, 故使之馱卜, 則馬亦驚於登船時答擊之無數, 馱卜未半, 驚起回踏. 因爲顛沛, 已沈卜物, 又轉於沙場, 衣服及明紙模樣, 爲何如哉. 又爲艱辛馱卜, 上其急坂險路, 則或驚或躍, 狂奔疾走, 其行步之狀, 或如腰折, 或如折脚, 而此際康津迴來, 其喜幸可勝. 艱越一峙, 又當沈坂, 健實之馬亦或跌跎, 則此狂驚之馬, 豈能善行乎. 不過數步, 輒爲顛伏, 日已生昏矣. 當初卜物, 只是冬春之衣, 故至爲輕輕矣, 先爲沈水, 又塗泥沙, 重不可動矣. 康津者不得移動曰: “吾馬已去, 而無人隨後, 此馬難以率去, 小人告去. 請某條隨來於僧房爲可云”, 而悻悻而去, 此將奈何. 適逢柴買數人於黃昏, 雖不識面, 挽執厥者, 懇乞運卜於僧房, 則厥人索雇價四五錢. 路不過五六里之近, 而其價雖高, 當此之際, 錢亦不貴, 答以多小間可以如意以給云, 則厥漢始曳出於泥濘水中, 分卜於其馬, 艱到僧房, 則康津者已越去果川矣, 此將奈何. 不得已入於旅幕, 則一間之房, 不知幾許人已入占矣. 又有一武弁乘酒與主漢大戰, 其擾亂之狀, 危凜之態, 不可勝言. 艱辛經夜, 而不得接目. 以此生之馬, 無奴致遠, 意登天上, 平生遠行, 不知幾番, 而如此致敗, 曾所未經. 同幕經夜之人皆是京人, 而其中新昌人二客下去, 故請與同行約以給

429) 신창(新昌) : 충청남도 아산 지역의 옛 지명이다.

價, 則其人許之. 是亦頗慰惡懷矣.

▪7일. 동틀 무렵 짐 싣는 말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놀라서 날뛰는 증세는 어제와 같아서 간신히 남태령(南泰嶺)을 넘었다. 평지 중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또 넘어지니 그 분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강진(康津)이란 자를 우연히 이때에 만났는데 말하기를, “승방점(僧房店)에서 짐을 잃어버려 지금 뒤쫓아 가는데, 신수원(新水原)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하고 즉시 넘어가 버렸다. 곳곳마다 강물이 넘치고 걸음마다 진흙 구덩이여서 열 번 떨어지고 아홉 번 넘어지며 간신히 신수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유천(柳川)에 이르렀다. 도중에 강진이란 자가 뒤따라왔다. 인하여 말을 끌게 하고 오산(烏山)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初七日. 開東時, 馱卜牽出, 則其驚躍之症一如昨日, 艱越南泰嶺. 於平地有水處, 又爲顛伏, 其憤不可言. 康津者偶逢於此際云: “失卜物於僧房, 今可追後, 秣馬於新水原爲可云云.” 卽爲越去矣. 處處水漲, 步步泥坎, 十顛九伏, 艱到水原秣馬. 至柳川. 中路則康津者隨來矣. 因使牽馬至烏山留宿.

▪8일. 동틀 무렵 길을 떠나는데 진흙 구덩이인 험지가 또 어제 왔던 길의 두 배였으니 그 위태로움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또 갈원(葛院)에서 신창 사람과 헤어지고 소사(素沙)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앞 하천은 월천군(越川軍 강을 건네주는 인부)으로 건너게 하고 아교(阿橋)에 이르러서는 배로 건넜다. 성환(成歡)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初八日. 平明登程, 泥坎之險, 又倍於昨來之路矣, 其危凜何量. 又於葛院, 與新昌人分路, 至素沙 秣馬. 前川則越川使過涉, 至阿橋, 則船渡. 至成歡留宿.

▪9일. 동틀 무렵 길에 올라 천안 읍내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初九日. 平明登程, 至天安邑內留宿.

▪10일. 동틀 무렵 금강을 넘어 정천(定川)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은진(恩

津)에서 유숙하였다.

初十日. 平明越錦江, 秣馬於定川, 留恩津.

▪ 11일.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 능판(陵坂)에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전주부(全州府) 내 강진(康津)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밤 창평(昌平) 마부를 만나 동행하자고 약속하였다.

十一日. 早朝登程, 秣馬於陵坂. 至全州府內康津家留宿. 是夜逢昌平馬夫, 約與同行.

▪ 12일. 운남(雲南)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노령(蘆嶺)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十二日. 至雲南秣馬, 至蘆嶺留宿.

▪ 13일. 날이 밝기 전 길을 떠나 방축동(防築洞)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였다. 담양 읍내에 이르자 앞길이 자못 비 올 기미가 있어 말을 재촉하여 창평(昌平) 성산(聲山)에 이르렀는데 기지(器之)는 부재중이었다. 그런데 동기간에 뜻밖에 상봉하니 기쁨은 컸으나 말에게 꼴을 먹일 길이 없어서 근심스러웠다. 밤이 깊어진 뒤에야 기지(器之)가 비로소 왔으니 기쁘고 기뻐다.

十三日. 未明登程, 至防築洞秣馬. 至潭陽邑內, 前路頗有雨意, 促鞭至昌平聲山, 器之不在. 同氣之間, 意外相逢, 歡喜則深, 而秣馬之道未由也, 可悶矣. 夜深後, 器之始來, 可喜可喜.

▪ 14일. 식후에 길을 떠나 광주읍을 지났는데 20리를 갔다. 주막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를 하였다. 과거를 보러 가는 진안(鎭安) 유생과 함께 고개에 올라 화순 읍내로 들어가니 바로 시험을 보는 읍이었다. 가장 먼저 길가에서 우아(友兒)를 만났다. 길손이 된 지 7개월 만에 비로소 부자지간에 얼굴을 마주 대하니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정해놓은 사관(舍館)으로 들어가 비로소 가족들이 무고(無故)하다는 소식을

알고 다행스러웠다.

十四日. 食後發行, 過光州邑, 二十里. 酒幕秣馬療飢. 與鎮安居科儒同爲上嶺, 入和順邑內, 卽試邑也. 最先逢友兒於路左, 作客七朔, 始與父子相對, 喜幸何言. 入所定舍館, 始知家中無故之信, 可幸.

▪15일.

十五日.

▪16일.

十六日.

▪17일. 식후에 상시관(上試官)⁴³⁰이 설장(設場)으로 들어왔다. 3일이나 남았는데 기한에 앞서서 들어오니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바였다.

十七日. 食後上試入來設場. 隔在三日, 而先期入來, 前所未見.

▪18일. 새벽에 밥을 먹고 의막(依幕)⁴³¹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보냈는데 한낮에 이르러서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오후에 비로소 문이 열렸는데 장교(將校)와 선비 중에 밟혀 죽은 자가 8명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으니 두려움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그중에 와평(瓦坪) 김도항(金道恒)이란 자도 또 짓밟힌 무리 속에 들어갔는데 비록 죽지는 않았으나 그 상처는 대단했다. 간신히 살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었다.

十八日. 曉食送依幕諸具, 而至日午不開矣. 午後始開門, 而將校及士子踐踏而死者八人云. 聞來危凜不可言. 其中瓦坪金道恒亦入踐踏之中, 而雖得不死, 其傷處則大端矣. 艱辛得生, 不幸之幸也.

▪19일. 꼭두새벽에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 오후에 시험장을 나왔다.

430) 상시관(上試官) :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의 시관(試官) 가운데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이다.

431) 의막(依幕) : 임금이나 관원이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막사이다.

十九日. 曉頭入場, 午後出場.

▪20일. 설사가 점점 심해지니 고민스러움을 어찌 말로 하겠는가.

二十日. 以痢漸漸劇, 苦悶何言.

▪21일. 꼭두새벽에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 오후에 시험장을 나와서 즉시 길을 떠나 인물 주막(人物酒幕)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一日. 曉頭入場, 午間出場, 卽爲發行, 至人物酒幕留宿.

▪22일. 꼭두새벽에 길을 떠나 풍치(風峙) 박씨 친척 집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를 하였다. 재동(齋洞)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二日. 曉頭登程, 至風峙朴戚家, 秣馬療飢. 至齋洞留.

▪23일. 집으로 돌아왔는데 해가 아직도 일렀다.

二十三日. 還家, 日尙早矣.

신해년(1791) 11월

辛亥十一月

▪13일. 길을 떠나 양강원(楊江院)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남양(南陽)에 이르렀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덕철(德哲)의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은 뒤 덕철과 함께 재동 면교(齋洞面橋)에 갔는데 삼중 형님과 여러 종친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40리를 갔다. 초천(艸川) 댁에서 유숙하였다.

十三日. 發行, 至楊江院中火. 至南陽, 日已夕矣. 入德哲家, 夕飯後, 與德哲偕往齋洞面橋, 三從兄主及諸宗已來待矣. 是日行四十里. 留艸川宅.

▪14일. 문권(文券)이 아직 수정되지 않아서 일찍 출발하지 못하고 말을 사 왔는데 비록 드러난 병은 없었으나 모두 부실하다고 하여서 부득이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보냈다. 다시 동편 문에서 말을 27냥에 샀다. 말굽을 박고 짐을 꾸리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걸음을 재촉하여 매곡(梅谷) 앞길에 이르렀는데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잠시 내려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날이 저물어 나아가기가 어려웠으나, 이미 화옥(華玉)과 동행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화옥은 나보다 6, 7일이나 앞서 길을 떠나 월정(月亭)에서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다. 달빛을 받으며 승동(升洞)에 이르렀는데 이미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이날 20리를 갔다. 저녁을 먹은 뒤 월정(月亭)에 기별을 보내 내일 함께 일찍 출발하자고 약속하고 유숙하였다.

十四日. 以文券之未及修定, 不得早發, 而買來馬匹, 雖無顯病, 而皆云不實云, 故不得已還送本主. 更買東邊門, 馬二十七兩. 挿鐵治行, 日已夕矣. 促行至梅谷前路, 則有要見之人, 暫下立談, 日暮難進, 而已與華玉約與同行, 故華玉先我六七日發行, 留待於月亭者久矣. 乘月至升洞, 已初昏矣. 是日行二十里. 夕飯後, 通奇於月亭, 約與明日早發而留宿.

▪15일. 아침을 먹은 뒤에 화옥(華玉)을 몹시 기다리고 있을 때 생원 김성각(金聲珪)이 막근담(莫根潭)으로부터 찾아와서 검하여 차동(車洞)에 편지를 부쳤다. 얼마 뒤 화옥(華玉)이 앞길을 지나갔으므로 즉시 길을 떠나 추동

지상동(楸洞池上洞)에 이르렀다. 집안 노인이 막소(幕所)에서 기다리며 덕능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매 속에 넣어와 부쳤으므로 잠시 함께 서서 얘기를 나누었다. 길을 재촉하여 유점(鎡店)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무동정(茂同亭)에 이르러 막소(幕所)에 노비와 말을 머물게 하고 화옥과 동행하여 곡천촌(曲川村) 앞에 이르렀는데 이미 황혼 무렵이었다. 달빛을 받으며 우산(牛山) 형중(衡仲)의 집에 들어갔는데 형중의 병이 여전히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었다. 이날 50리를 갔다. 十五日. 朝飯後, 苦待華玉之際, 金生聲珏自莫根潭來見, 兼付車洞書簡. 有頃華玉過去前路, 故即發行, 至楸洞池上洞. 宗老留待幕所, 袖付德能去書, 故暫與立談. 促行至鎡店, 中火秣馬. 至茂同亭, 留置奴馬於幕所, 與華玉同行, 進至曲川村前, 已黃昏矣. 乘月入牛山衡仲家, 衡仲之病尚未見效矣. 達夜相談. 是日行五十里.

▪ 16일. 꼭두새벽에 길을 떠나 낙수강(洛水江) 어귀에 이르렀는데 노비와 말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마침내 화옥(華玉)과 헤어져 나는 천평(泉坪)으로 들어가고 화옥은 먼저 궁호(弓湖)로 갔는데 오후에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천평(泉坪)에서 점심을 먹고 궁호에 이르러 잠시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인하여 동행해서 금곡(金谷)에 이르니, 사장(士章)의 병이 조금 차도가 있었으나 다만 그 생계가 쓸쓸함을 보고 탄식하였다. 즉시 길을 떠나 울정(栗亭)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50리를 갔다.

十六日. 曉頭發行, 至洛水江頭, 奴馬已到. 遂與華玉分路, 余則入泉坪, 華玉先往弓湖, 要與午後相會. 中火泉坪, 至弓湖, 暫與相談. 因與同行, 至金谷, 則士章之病小差, 而但其生理之蕭然, 見之嗟惡矣. 卽爲發行, 至栗亭留宿. 是日行五十里.

▪ 17일. 꼭두새벽에 길에 올라 괴치(怪峙)에 이르렀는데 날이 이미 밝았다. 잠시 요기를 하고 곡성 이천(谷城離川)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길을 떠나 주포(周浦)에 이르렀는데, 전일의 대로(大路)는 올여름 큰물에 잠겨서 옛날 증산(甌山)의 소로(小路)를 고쳐 길을 냈으므로 새로운 길을 경유하여 사망당

(事芒塘)에 이르렀고 대로(大路)는 경유하지 않았다. 직행하여 증산(甌山)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70리를 갔다.

十七日. 曉頭登程, 至怪峙, 日已平明. 暫爲療飢, 至谷城離川, 中火離發, 至周浦, 則前日大路爲今夏大水所沈, 改出昔日甌山小路, 故由新路至事芒塘, 不由大路. 直行至甌山留宿. 是日行七十里.

■18일. 꼭두새벽에 길에 올라 10리도 못 갔는데 눈이 내렸다. 눈을 맞으며 오수(檜樹)에 이르러 요기를 하였다. 임실 굴암회(窟巖回 굴바위)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는데 눈이 그치지 않으니 근심스러웠다. 눈을 맞으며 오원(烏院)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70리를 갔다.

十八日. 曉頭登程, 未至十里雪作. 冒雪至檜樹療飢. 至任實窟巖回, 秣馬中火, 而雨雪不止, 可悶. 冒雪至烏院留宿. 是日行七十里.

■19일. 밤새도록 눈이 내려 일찍 출발하지 못하고 새벽에 길에 올라 노암(爐巖)에 이르러 요기를 하고 즉시 길에 올랐다. 전주부 내에 이르러 도중에 절구시 한 수를 읊었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누가 장송의 절개를 말하였던가	誰道長松節
모진 겨울에도 푸르름을 변치 않네	頑冬不變靑
차가운 바람에 밤새 눈이 내리는데	寒風一夜雪
외딴 골짜기 흰 눈 속에 우뚝하구나	窮壑白亭亭

화옥이 해조(解嘲)⁴³²하였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내리는 눈이 바람을 따라 쌓이니	雨雪隨風積
-------------------	-------

432) 해조(解嘲) : 본래는 세상의 조롱에 대해 해명하는 것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차운한 것이다. 전한 말기의 학자인 양웅(揚雄)이 빈한한 생활을 하며 《주역(周易)》을 모방하여 《태현경(太玄經)》을 저술하고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도(道)가 아직 설익어서 이렇게 곤궁한 게 아닌가?”라고 조롱하자, 양웅이 <해조(解嘲)>를 지어 부귀영화를 초탈하여 담박하게 살아가려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고사가 유명하다. 《漢書 卷87 揚雄傳下》

소나무의 모습 묘연히 푸르름을 잃었네
삼시간에 햇빛 높아지니
예전처럼 우뚝이 서 있구나

松顏杳失青
須與高日色
依舊立亭亭

흥양(興陽 고흥)의 여러 관리가 마침 주인집에 왔기에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서 부쳤다. 이날 50리를 갔다.

十九日. 達夜雪下, 不能早發, 平明登道, 至爐巖療飢, 卽爲登程. 至全州府內, 道上吟一絕. “誰道長松節, 頑冬不變青. 寒風一夜雪, 窮壑白亭亭.” 華玉解嘲曰: “雨雪隨風積, 松顏杳失青. 須與高日色, 依舊立亭亭.” 興陽諸吏適來於主人家, 故書付家書. 是日行五十里.

▪20일.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 빗을 사러 나가지 못했다. 아침을 먹은 뒤 비로소 길에 올라 겨우 간천(良川)에 이르렀는데 눈보라가 매우 사나웠다. 조촌(助村) 앞길에 이르러 서울에서 내려오는 생원 장경익(張景翼)을 만났으나 모질게 바람이 불고 사납게 눈이 내려 천지가 어두컴컴했으므로 서서 얘기를 나누었다. 삼례(參禮)에 이르러 요기를 하고 눈을 맞으며 능치(陵峙)에 이르렀는데 날이 이미 저물어 인하여 유숙하였다. 이날 50리를 갔다.

二十日. 風雪大作, 以質梳之不卽. 朝飯後始爲登程, 纔至良川, 風雪極惡. 至助村前路, 逢張生景翼之自京下來, 而獐風虐雪, 天地晦冥, 故相與立談. 至參禮療飢, 冒雪至陵峙, 日已暮矣, 因爲留. 是日行五十里.

▪21일. 꼭두새벽에 눈보라가 조금 그쳤으므로 길에 올라 여산(礪山)에 이르러 요기를 했다. 은진(恩津) 읍내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여 말을 재촉하여 이성읍(尼城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80리를 갔다.

二十一日. 曉頭風雪小止, 故登道, 至礪山療飢. 至恩津邑內, 秣馬中火. 雨雪更作, 促鞭至尼城邑宿. 是日行八十里.

▪22일. 꼭두새벽에 길에 올라 효포(孝浦)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를 하였으며 활원(活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80리를 갔다.
二十二日. 曉頭登程, 至孝浦, 秣馬療飢, 至活源留宿. 是日行八十里.

▪23일. 이른 새벽에 길에 올라 차령(車嶺)에 이르니 20리였다. 해가 비로소 동쪽에서 떴다. 천안 삼거리(天安三거리)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를 하였다. 도중에 절구시 한 수를 읊었다.

눈 속의 광경을 취중에 지나고	雪中光景醉中過
술 깬 뒤엔 등 뒤의 노정 모두 잊었네	醒後渾忘背後程
말을 호령하는 한 소리에 막 눈을 뜨니	叱馬一聲方開眼
의연히 나는 백옥경 ⁴³³ 에 앉았구나	依然坐我白玉京

화옥이 화답하였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덕평으로부터 삼십 리를 와서	自德坪來三十里
모진 바람 차가운 빗속에 취중에 길을 갔네	凜風凍雨醉中程
오늘 밤은 성환역에서 자려는데	今宵擬宿成歡驛
언제나 마침내 해 아래 ⁴³⁴ 서울로 돌아갈까	幾日須歸日下京

눈을 맞으며 길을 떠나 성환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100리를 갔다.
二十三日. 早曉上程, 至車嶺, 二十里. 日始開東. 至天安三渠里, 秣馬療飢. 道吟一絕. “雪中光景醉中過, 醒後渾忘背後程. 叱馬一聲方開眼, 依然坐我白玉京.” 華玉和之曰: “自德坪來三十里, 凜風凍雨醉中程. 今宵擬宿成歡

433) 백옥경(白玉京) :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천제(天帝)의 도성(都城)이다.

434) 해 아래 : 해 아래[日下]는 경도(京都)를 가리킨다. 옛날에는 제왕을 태양에 비유하였으므로, 제왕이 있는 곳을 일하 혹은 일변(日邊)이라고 하였다. 굴원(屈原)의 <이소(離騷)> 말미에 고국인 초(楚)나라를 그리워하면서 “하늘 위 눈부시게 빛나는 세계에 올라와서, 홀연히 옛 고향을 아래로 굽어보노라니, 마부도 슬퍼하고 내 말도 그리워하여, 머뭇머뭇 뒤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네. [陟升皇之赫戲兮 忽臨睨夫舊鄉 僕夫悲余馬懷兮 蜷局顧而不行]”라고 마무리한 말이 나온다. 혁희대(赫曦臺)의 혁희는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이라는 말이다.

驛, 幾日須歸日下京.” 冒雪作行, 至成歡留宿. 是日行百里.

▪24일. 날씨가 매우 온화하여 동틀 무렵 길에 올랐다. 화옥이 먼저 절구시 한 수를 읊었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폭설 쏟아지고 찬 바람 부는 길	暴雪寒風路
어찌하여 북쪽 길을 가는가	胡爲向北征
태산 무너져 ⁴³⁵⁾ 하염없이 눈물 흐르니	山頽不盡淚
우리 선생을 위하여 곡을 하네	爲哭我先生

차운시는 다음과 같다.

신해년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辛夏秋冬節
남쪽에 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네	南征復北征
일 년 중 말 위에서 보낸 날 많으니	一年多馬上
나의 평생 펄도 요란하구려	擾擾我平生

진위(振威) 읍내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을 먹었다. 이천(泥川)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100리를 갔다. 밤중에 화옥이 먼저 절구시 한 수를 읊었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우리들 길에 오른 지 언제였나 물으니	吾輩登程問幾日
상현이 보름달 되고 하현으로 이지러졌네	上弦盈月下弦虧
서울은 점점 가까워지고 고향 집 멀어지는데	京城漸近家鄉遠
눈 속에서 객지의 그리움을 어찌 견디겠는가	雪裡那堪客裡思

435) 태산 무너져 : 훌륭한 스승이 죽은 것을 의미한다. 옛날 공자(孔子)가 아침 일찍 일어나 뒷짐을 지고 지팡이를 끌고 문 앞에 한가로이 노닐며 노래하기를 “태산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꺾이고 철인(哲人)이 죽겠구나.[奉山其頽乎 梁木其摧乎 哲人其萎乎]” 하였는데, 그 후 곧 별세하였다. 여기에서 연유하여 스승의 죽음을 산퇴양쇠(山頽梁摧)라고 한다.《禮記 檀弓上》

화답시는 다음과 같다.

천리 궁벽진 길을 두 마리 말로 달려서	千里窮程兩馬馳
객중에 시름하며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마주하네	客中愁對月盈虧
이번 길엔 다행히 함께 노닐자는 염원을 이었지만	此行幸續同遊願
여관 침상의 매서운 추위에 어찌 다시 그리워 하겠는가	旅榻酸寒豈復思

二十四日. 日氣甚溫和, 平明登程. 華玉先吟一絕曰: “暴雪寒風路, 胡爲向北征. 山顏不盡淚, 爲哭我先生.” 次曰: “辛夏秋冬節, 南征復北征. 一年多馬上, 擾擾我平生.” 至振威邑內, 秣馬朝飯. 至泥川留宿. 是日行百里. 夜間華玉先吟一絕曰: “吾輩登程問幾日, 上弦盈月下弦虧. 京城漸近家鄉遠, 雪裡那堪客裡思.” 和曰: “千里窮程兩馬馳, 客中愁對月盈虧. 此行幸續同遊願, 旅榻酸寒豈復思.”

■25일. 날씨가 또 매우 온화하여 다행스러웠다. 꼭두새벽에 길을 떠나 사천(沙川)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과천에 이르렀는데 60리였다. 날이 아직도 일러서 강을 건너기가 어려워 과천에서 유숙하였다. 밤에 울시 한 수를 읊었다. 시는 다음과 같다.

한 해에 세 번이나 한강 나루 건너는데	一年三渡漢津驪
다행히 채찍 나란히 하며 너와 나 둘이구나	幸有聯鞭爾我雙
등 뒤의 남쪽 고향은 구름이 바다에 가로막히고	背後南鄉雲隔海
눈앞의 북악은 눈이 소나무를 덮었네	眼前北岳雪封松
낮에 갈 때면 추위가 뼈에 사무치는 것 매번 두렵고	晝行每畏寒侵骨
밤에 잘 때면 눈이 창으로 들어오는 것 늘 근심이었네	夜宿長愁雪入窓
앞길을 헤아려 보건대 멀지 않았으니	屈指前程知不遠
왕성은 다만 노량진 강물 너머라네	王城只隔露梁江

二十五日. 日氣亦甚溫和, 可幸. 曉頭啓行, 至沙川, 朝飯秣馬. 至果川, 六十里. 日尚早矣, 而以渡江之難, 留果川. 夜吟一律曰: “一年三渡漢津驪, 幸有聯鞭爾我雙. 背後南鄉雲隔海, 眼前北岳雪封松. 晝行每畏寒侵骨, 夜宿長

愁雪入窓. 屈指前程知不遠, 王城只隔露梁江.”

▪26일. 눈이 왔다. 동틀 무렵 길에 올라 동작(銅雀)에 이르렀다. 차가운 바람이 점점 거세지는데 인마(人馬)는 숲처럼 뻥뻥하게 서 있었고 강물은 반쯤 얼어서 뜻대로 강을 건널 수 없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간신히 얼음을 빼내며 건너서 청파(靑坡)에 이르렀는데 큰 눈이 펄펄 쏟아졌다. 마침내 화옥과 헤어지며 절구시 한 수를 읊었다. 시는 다음과 같다.

그대는 청문을 향하고 나는 백문을 향하니	君向靑門我白門
이별의 슬픔에 객지에서 헤어지기 어렵구나	別懷難作客中分
재삼 말을 세워 미리 함께 돌아가자 기약하니	再三立馬前期同
미호로 짐을 꾸려 하루빨리 돌아오겠다 하네	漢上歸裝早早云

눈을 맞으며 차동(車洞)에 이르러 여점에서 유숙하였다.

二十六日. 雪. 平明登程, 至銅雀. 寒風漸緊, 人馬林立, 江水半冰, 不得任意渡江, 奈何. 艱辛挺氷而渡, 至靑坡, 大雪浮浮. 遂與華玉分路, 遂吟一絶曰: “君向靑門我白門, 別懷難作客中分. 再三立馬前期同, 漢上歸裝早早云.” 冒雪至車洞, 留旅店.

▪27일. 눈이 개어 화창했다. 아침 전에 주인댁에 가서 주인 영감을 만나고 여막으로 돌아왔다.

二十七日. 雪晴而和. 朝前往主人宅, 見主人令監, 還來旅幕.

▪28일. 여점에서 유숙하였다. 낙안(樂安)의 종인(宗人)과 진 주부(陳主簿)가 와서 만나고 갔다.

二十八日. 留旅店. 樂安宗人及陳主簿來見而去.

▪29일. 여점에서 아침을 먹고 학교(廓橋)에 가서 종인(宗人) 익홍(翼弘)을 만나고 인하여 곧바로 주동(鑄洞)에 갔으나 교리(校理)가 제관(祭官)으로

가서 만나지 못하였다. 다만 송익정(宋翼廷) 삼 형제를 만나 후주당(後周堂)으로 가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송 감찰(宋監察)의 집에 들어갔으나 보성 종인(宗人)은 만나지 못하였다. 또 이동(泥洞) 송 교리(宋校理)에게 들어갔으나 서로 공교롭게 어긋났다. 정동(貞洞)에 들어갔으나 익상(翼庠)을 만나지 못하고 왔다. 여점에서 유숙하였다.

二十九日. 朝飯旅店, 往廓橋, 見宗人翼弘, 因直往鑄洞, 校理往祭官, 故不得相面. 只見翼廷三昆李, 往後周堂暫話. 來路入宋監察家, 不見寶城宗人. 又入泥洞宋校理, 又與巧違. 入貞洞, 不見翼庠而來. 留旅店.

▪12월 1일. 흐렸다. 설사가 차도가 없어서 또 여점에서 유숙하였다. 도화(道化)의 생원 김이록(金履祿)이 찾아왔는데 덕능의 서간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으므로 4냥의 돈을 내주었다.

十二月初一日. 陰. 泄瀉之不差, 又留旅店. 道化金生履祿來見, 爲傳德能書柬, 故出給四兩錢.

▪2일.

初二日.

▪3일.

初三日.

▪4일. 남별궁(南別宮)⁴³⁶ 앞 여점에 가서 흥양(興陽) 관아의 하인(下人)들을 찾아가 만났다. 길을 돌려 호동(壺洞)으로 가서 곡성 현감을 지낸 박자직(朴子直)을 만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에 신서달 사첨(申嶼達士瞻)을 방문하였는데 여점에 있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였다. 경모궁 앞 여점으로 갔는데 화옥, 덕능 및 김이록이 모두 있어서 서로 만나고 왔다.

436 남별궁(南別宮) : 선조 때 의안군(義安君) 이성(李城)의 신궁으로, 1593년(선조26)에 명나라 장군 이여송(李如松)이 주둔한 이래로 중국 사신의 여사(旅舍)로 썼다. 지금의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 호텔 자리에 두었던 별궁이다.

初四日. 往南別宮前旅店, 尋見興陽官下人輩. 轉往壺洞, 見朴谷城子直, 敘話移時後, 訪申嶼達士瞻, 則不在旅店, 故不得相見. 往景慕宮前旅店, 華玉德能及金履祿俱在, 故相見而來.

▪5일. 오후에 이 흥양(李興陽)을 찾아가 만났는데 또 그 며느리의 상을 당하였고 자신도 병이 들었다. 다만 그 두 손자와 더불어 칩거하는 상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잠시 대화를 나눈 뒤에 즉시 돌아왔다.

初五日. 午後往見李興陽, 則又喪其婦, 身又有病. 只與其兩孫, 蟄伏之狀, 不可勝言. 少話後即來.

▪6일. 이른 아침에 천노(千奴)와 태선(泰仙)이 내려가려고 나왔다가 길에서 한 필의 세목(細木)⁴³⁷을 잃어버리고 오니 분통이 터졌다. 흥양(興陽)의 각처에 편지를 부치고 인하여 노마(奴馬)를 보내며 앞의 운을 써서 수안(遂安)⁴³⁸의 봉 석사(奉碩士)에게 주었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그대는 임진을 건너고 나는 한강에서 배를 타서	君渡臨津我漢艚
우연히 객관에서 만나 그림자 둘이 되었네	偶逢客館影成雙
남쪽 고향 아득한 꿈은 운해에 희미하고	南鄉遠夢迷雲海
서쪽 길 돌아갈 시름은 소나무 숲에 걸렸네	西路歸愁掛嶽松
천리에 두 동이의 술은 낡은 책상에 나란한데	千里朋樽聯弊榻
오경의 눈보라는 차가운 창문을 때리네	五更風雪打寒窓
대장부 다시 만나자 약속하기 어려우니	男兒會面難爲約
높은 산은 끝이 없고 강도 그지없어라	無限高山無限江

오후에 덕능이 와서 만나고 갔다.

初六日. 早朝千奴及泰仙下去次出來, 而路失一匹細木而來, 可憤. 付書東

437) 세목(細木) : 고운 무명이다.

438) 수안(遂安) : 오늘날 북한 황해북도 수안군 일대이다.

於興陽各處，因送奴馬，用前韻贈遂安奉碩士曰：“君渡臨津我漢艤，偶逢客館影成雙。南鄉遠夢迷雲海，西路歸愁掛嶽松。千里朋樽聯弊榻，五更風雪打寒窓。男兒會面難爲約，無限高山無限江。”午後德能來見而去。

▪7일. 식후에 주동(鑄洞)에 가서 먼저 사수(士洙) 종인(宗人)을 방문하고 다음으로 교리 집에 가서 교리의 삼종형제를 만나 얘기를 나누던 차에 덕능이 와서 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날이 저문 뒤에 차동으로 왔다. 이날은 날씨가 매우 온화했다.

初七日. 食後往鑄洞, 先訪士洙宗, 次往校理家, 見校理三從兄弟, 吐話之際, 德能來, 故因與敘話, 日暮後來車洞. 是日日氣甚溫和.

▪8일.

初八日.

▪9일.

初九日.

▪10일.

初十日.

▪11일. 식후에 확교(廓橋)에 가서 송익홍(宋翼弘)을 찾았는데 마침 집에 있지 않아서 다만 그 아들만 만나고 길을 돌려 김 병사(金兵使)의 집으로 향하다가 전 생원을 방문했는데 또 부재중이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十一日. 食後往廓橋, 尋宋翼弘, 適不在家, 只見其子, 轉向金兵使家, 訪田生, 亦不在, 故不得相見而歸.

▪12일. 이른 아침에 서소문 안에 가서 익홍(翼弘) 종인(宗人)을 만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즉시 나왔다. 이날 눈이 내렸다.

十二日. 早朝往西小門內, 見翼弘宗, 移時談話, 卽爲出來. 是日雪.

▪13일. 아침 전에 덕능이 찾아와서 인하여 3냥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날은 몹시 추웠다. 주동에서 사람을 보내 내일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는 뜻으로 편지를 보냈으므로 약속대로 하겠다고 답하였다.

十三日. 朝前德能來見, 因給三兩錢. 是日極寒. 鑄洞送人以明日會話之意書送, 故答如約.

▪14일. 겨울 감기에 갑자기 걸렸으므로 가서 만나지 못하였으니 한탄스러웠다.

十四日. 以寒感之猝發, 不得往會, 可歎.

▪15일. 눈이 왔다.

十五日. 雪.

▪16일. 연일 고통스러웠다.

十六日. 連日苦痛.

▪17일. 이른 아침 덕능이 와서 내일 아침 고향으로 가는 인편이 있다고 말하기에 식후에 길을 돌려 주동으로 가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책을 제작하는 규모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정밀함이 지극하였다. 저녁에 곧바로 경모궁 여점으로 갔는데 날이 이미 저물녘이었다. 밤에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썼다. 또 생원 김이록(金履祿)을 보내 화옥을 부르니 뒤따라 내려가겠다고 했다는데 저문 뒤에도 오지 않았다. 또 함께 베개를 나란히 하지 못하는 서글픈 회포를 이루 말로 할 수 없었고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인하여 절구시 한 수를 읊었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내 그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저녁 무렵 객점을 찾았네

爲與吾君話
乘昏訪旅家

또 나를 홀로 자게 하니

又令孤宿我

이별의 회포 배나 더 많아지네

一倍別懷多

十七日. 早朝德能來言, 明早有故鄉往便, 故食後轉往鑄洞, 移時談話, 詳見造冊規模, 則極其精密矣. 夕間直往景慕宮旅店, 日已昏矣. 夜修家書. 又送金生履祿, 要華玉, 則答以從後下去云, 而昏後不來. 又不得相與聯枕悵然之懷, 不可言不可言. 因吟一絕. “爲與吾君話, 乘昏訪旅家. 又令孤宿我, 一倍別懷多.”

▪18일. 이른 아침에 화옥이 왔으므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후에 길을 떠나 호동(壺洞)에 이르러 자직(子直)을 조문하였다. 또 송현(松峴)으로 와서 교리 안상후(安祥後)의 일을 위로하고 곧바로 차동(車洞)으로 나갔는데 주인 영감이 승지가 계사(啓辭)한 일 때문에 삭탈관직 되었다.

十八日. 早朝華玉來, 故相與敘話, 而後離發, 至壺洞, 弔子直. 又來松峴, 慰安校理祥後人事, 直出車洞, 則主人令監以承旨啓辭事削職矣.

▪19일.

十九日.

▪20일. 이날 생원 전광한(田光漢)이 비로소 찾아왔다. 응제(應製)할 네 개의 시제(試題)가 나왔으므로 고시(古詩)로 지어 올렸다.

二十日. 是日田生光漢始來見. 出應製四題, 故以古詩製進.

▪21일. 순천 김 선달이 와서 만나고 갔다.

二十一日. 順天金先達來見而去.

▪22일. 눈이 왔다. 응제방목(應製榜目)이 나왔다. 급제한 3인은 표(表)에 신귀조(申龜朝)⁴³⁹, 부(賦)에 채홍원(蔡弘遠)⁴⁴⁰, 고시(古詩)에 신광하(申光

439) 신귀조(申龜朝) : 1748~1813. 자는 계행(季行), 호는 종옹(鍾翁)이다. 1791년 응제에 장원하고 벼슬은 응교에 그쳤다.

440) 채홍원(蔡弘遠) : 1762~?.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이숙(遜叔)이고, 채제공(蔡濟恭, 1720~1799)

河)⁴⁴¹라고 하였다.

二十二日. 雪. 應製榜出. 出及第三人申龜朝表, 蔡弘遠賦, 申光河古詩云矣.

▪23일.

二十三日.

▪24일. 김이록 및 종인(宗人) 송지명(宋持命)이 와서 만나고 갔다.

二十四日. 金履祿及宗人持命來見而去.

▪25일. 크게 눈이 왔다.

二十五日. 大雪.

▪26일. 반궁(泮宮)⁴⁴²에 가서 학제(學製)⁴⁴³를 관광하고 왔다.

二十六日. 往泮中, 觀光學製而來.

▪27일. 매우 추웠다. 대전동(大廡洞)으로 가서 사수(士洙)를 방문하였는데 사수가 부재중이어서 곧바로 주동으로 향하여 종일토록 대화를 나누고 황혼 무렵에 나왔다.

二十七日. 極寒. 往大廡洞, 訪士洙, 則士洙不在, 故直向鑄洞, 終日談話, 黃昏出來.

의 양자이다. 1792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승지에까지 올랐으나, 1801년 시파(時派)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질 때 파직·유배되었다. 저술로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가 있다.

441) 신광하(申光河) : 1729~?. 자는 문초(文初),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1756년에 28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하고, 1792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442) 반궁(泮宮) : 원래 주대(周代) 제후의 학궁(學宮)을 말하는데, 그 제도는 동서의 문 남쪽으로 물이 둘러 있어 그 형상이 반벽(半壁)과 같고 그 규모는 천자의 학궁인 벽옹(辟雍)의 반인 까닭으로 반궁이라 한다. 조선조의 성균관에 해당한다.

443) 학제(學製) : 성균관 대사성이 사학의 유생을 성균관에 모아 시(詩)와 부(賦) 등으로 시험 보이는 사학합제(四學合製)를 말한다.

▪28일. 아침에 눈이 왔다. 식전에 정동으로 가서 임 장령(任掌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눈이 내렸으므로 즉시 눈을 맞으며 나왔다. 또 매우 추웠다.
二十八日. 朝雪. 食前往貞洞, 見任掌令, 敘話之際雪作, 故卽爲冒雪出來. 又極寒.

▪29일. 매우 추웠다.
二十九日. 極寒.

▪30일. 또 매우 추웠다. 이날은 바로 해가 바뀌는 날이었다. 객지에서의 서글픈 회포와 집을 그리는 마음을 스스로 억누를 수 없었다.
三十日. 又極寒. 是日卽歲改日也. 客裡悵然之懷, 思家之情, 不能自抑矣.

▪임자년(1792) 1월 1일. 날씨가 비록 어제보다는 풀렸으나 새벽에 눈이 내려 자못 추웠다.
壬子正月初一日. 日氣雖解於昨日, 而曉間雪作頗寒矣.

▪2일. 죽동(竹洞) 송 감찰(宋監察)의 집에 갔더니 새해 음식[歲饌]을 갖추어 대접해 주었다. 사수(士洙)를 만나 함께 주동으로 가서 문중 어른과 송 교리를 만났는데 또 새해 음식을 갖추어 대접해 주었다. 날이 저물어 공동(公洞)으로 들어가 흥양 호장(興陽戶長)의 하인인 임인갑(任仁甲)을 찾아 남쪽의 소식을 물으니 전염병[厲氣]이 크게 치성하였고 또 지난달 11일 천노가 내려가는 편에 전주 신원(新院)에서 만났다고 전하였다.
初二日. 往竹洞宋監察家, 則備歲饌以饋矣. 見士洙, 同往鑄洞, 見門長及宋校理, 則又備歲饌以饋. 日暮入公洞, 尋興陽戶長下人任仁甲, 問南中消息, 則厲氣大熾, 且傳去月十一日逢千奴下去便於全州新院云矣.

▪3일. 임리(任吏)가 와서 내일 내려간다고 말하길래 집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저녁에 직접 갔는데 임리(任吏)가 부재중이어서 오는 길에 정동 송익상(宋翼相)의 집과 확교(廓橋) 송익홍(宋翼弘)의 집에 들어갔는데 모두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왔다.

初三日. 任吏來言, 明日下去云, 故修家書, 夕時親往, 則任吏不在, 故來路入貞洞翼庠家, 廓橋翼弘家, 皆出他, 未見而來.

▪4일. 박 상사(朴上舍), 진 주부(陳主簿)가 와서 만나고 갔다. 내일은 돌아가신 조부의 기일이다. 객지에서서의 회포를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밤새도록 초연한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初四日. 朴上舍, 陳主簿來見而去. 明日乃王考諱辰也. 客裡懷事, 不可形言. 終夜愴⁴⁴⁴然之心不能自抑矣.

▪5일. 임리(任吏) 편에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부쳐 보냈다.

初五日. 付送家書於任吏便.

▪6일.

初六日.

▪7일.

初七日.

▪8일. 연일 극심하게 추우니 삼동(三冬)⁴⁴⁵에 없던 바이다.

初八日. 連日極寒, 三冬所無也.

▪9일. 승동(升洞)에 갔는데 사수(士洙)를 만나지 못하여 주동(鑄洞)으로 가서 종일토록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왔다.

初九日. 往升洞, 不遇士洙, 故往鑄洞, 終日穩話而來.

444) 원문의 '愴'을 문맥에 근거하여 '愴'로 번역하였다.

445) 삼동(三冬): 겨울철 석달 간이다.

▪10일.

初十日.

▪11일. 매우 추우니 근고(近古)에 없던 바이다.

十一日. 極寒, 近古所無也.

▪12일. 바로 입춘인데도 또 매우 추웠다. 승동(升洞)에 가서 사수(士洙)를 만나고 왔다.

十二日. 卽立春日也, 亦極寒. 往升洞, 見士洙而來.

▪13일. 아침 전에 예리(禮吏)⁴⁴⁶ 오치영(吳致榮)이 찾아왔기에 상언(上言)하는 초고를 부쳐 보냈다.

十三日. 朝前禮吏吳致榮來見, 故付與上言艸而去.

▪14일. 조금 풀어졌다. 이날 중순(仲順) 및 여러 벗과 함께 주교(舟橋)에 가서 배로 교각 만드는 것을 보았다. 큰 강을 가로질러 그 위에 판자를 설치하여 다리를 만들고, 양쪽에 채목(綵木)으로 난간을 만들어 그 위아래로 또 무수한 큰 배들이 나열되어 얼어붙어 있었는데 은연중에 섬과 같았다.

十四日. 稍解. 是日與仲順及諸益, 往舟橋, 見其以舟爲橋. 橫絕大江, 上設板而爲橋, 兩邊以綵木造爲欄干, 而其上下又有無數大船羅列着水, 隱若島嶼焉.

▪15일. 날씨가 비록 매우 청명하지는 않았으나 달빛은 참으로 좋았다. 마침내 여러 벗과 함께 교문(橋門) 밖을 거닐며 거리를 배회하다가 왔다.

十五日. 日氣雖未極清明, 月色則正好矣. 遂與諸益, 踏橋門外, 徘徊街上而來.

446) 예리(禮吏) : 예방(禮房)의 아전을 가리킨다.

▪ 16일. 인일제(人日製)⁴⁴⁷를 행하였으므로 새벽에 밥을 먹고 돈화문 밖에 이르렀는데 사수(寫手 글씨를 베껴 쓰는 사람)가 계획을 어겨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즉시 예조 직방(禮曹直房)으로 가서 오치영(吳致榮)을 찾으려 오지 않았다고 하여 인하여 송현(松峴)으로 가서 안 교리(安校理)를 만나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는 뒤 다시 직방(直房)으로 왔는데 오리(吳吏)가 귤내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래서 길을 돌려 경모궁으로 갔는데 오직 덕능만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또 직방으로 들어갔는데 오리(吳吏)가 부재중이라고 하여 다시 나왔다. 저녁을 먹은 뒤 종소리를 들을 계획으로 또 여러 벅과 종루(鍾樓)에 들어갔다. 종소리를 들은 뒤에 정동(貞洞) 임 장령(任掌令)의 여점으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이날 밤 달빛이 없는 것이 한스러웠다.

十六日. 行人日製, 故曉飯至敦化門外, 以寫手之違劃, 不得入門. 卽往禮曹直房, 尋吳致榮, 則不來云, 故因往松峴, 見安校理, 移時談話後, 復來直房, 則吳吏入去闕內云. 故轉往景慕宮, 則惟見德能, 暫話而回路. 又入直房, 則吳吏不在云, 故還爲出來. 夕飯後, 爲聽鍾計, 又與諸益入去. 鍾樓聽鍾後, 入貞洞任掌令旅店留宿. 是夜恨無月光矣.

▪ 17일. 매우 흐렸다. 아침 전에 이천(而天)이 술을 사서 대접했는데 내 생일이어서 그런 것이었다.

十七日. 甚陰翳. 朝前而天買酒以饋, 以吾生日而然矣.

▪ 18일. 이천(而天)과 함께 예조 직방(禮曹直房)에 가서 집리(執理)를 찾아가 얘기를 나누고 왔다. 덕능이 와서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十八日. 與而天同往禮曹直房, 尋見執理, 敘話而來. 德能來待久矣.

▪ 19일. 눈이 왔다.

十九日. 雪.

447) 인일제(人日製) : 음력 정월 초 7일에 성균관 유생에게 보이는 과거(科擧)이다. 인일(人日)은 오순절(五巡節)의 하나로, 사람을 점친다는 풍속이 있었다.

▪20일. 학교(廓橋)에 가서 익홍(翼弘) 종인(宗人)을 만나고 왔다.

二十日. 往廓橋, 見翼弘宗而來.

▪21일. 이른 아침에 정동에 가서 익상(翼庠) 종인(宗人)을 만나고 왔다. 유광(有光)에게 먼저 30냥을 바치고 2냥은 덕능에게 주었으며 1냥은 사수에게 주었다.

二十一日. 早朝往貞洞, 見翼庠宗而來. 有光處先捧三十兩, 二兩給德能, 一兩給士洙.

▪22일. 약간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안일득(安一得)을 만났다. 그와 함께 길에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말 가운데 다만 계하(啓下)⁴⁴⁸에 대해서는 마땅히 힘을 다해 도모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러웠다. 그리고 예조 판서 정호인(鄭好仁)이 유임되었다고 하여 여러 방면으로 칭념(稱念)하고 왔다.

二十二日. 持若干物, 往見安一得. 與之相話於路次, 其言內但啓下則當極力圖之云, 可幸, 而禮判鄭好仁因任云, 故多方稱念而來.

▪23일. 정동(貞洞) 정 판서(鄭判書)의 집에 가서 교하(交河)⁴⁴⁹의 윤상좌(尹商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윤생(尹生)은 곧 예조 판서의 집에 머무르며 친한 손님을 접대하였으므로 상궁(商宮)을 나오게 하여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식후에 주인 영감이 승정원 도승지 서매수(徐邁修)⁴⁵⁰ 및 승지 신기(申蓍), 승지 홍인호(洪仁浩)⁴⁵¹에게 편지를 써서 계하(啓下)

448) 계하(啓下) : 신하가 계달(啓達)한 문서에 대해 임금의 처결하여 내리는 것이다.

449) 교하(交河) : 경기도 파주 지역의 옛 지명이다.

450) 서매수(徐邁修) : 1731~1818.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덕이(德而), 호는 당헌(巖軒)이다. 1787년(정조11) 당진 현감 재직 중 56세의 나이로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순조대 초기에 시파(時派)와 벽파(僻派)가 대립하는 가운데 이조 판서로서 시파에 치우친 인사를 행하여 벽파로부터 크게 반발을 받았다. 1804년(순조4) 우의정에 올라 영의정에까지 이르렀으나 1806년 삼사로부터 논핵을 받아 문외출송(門外黜送) 당하고, 1813년 판중추부사로 다시 서용된 뒤 곧 일생을 마쳤다. 저서로는 황해감사를 역임하였을 당시 작성한 《해영일기(海營日記)》가 있다.

451) 홍인호(洪仁浩) : 1753~1799.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원백(元伯)이다. 원주에서 출생하였다.

를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데 회답을 받지 못했다. 또 주동(鑄洞)에 가서 승지 이민채(李敏采)⁴⁵²에게 칭념(稱念)을 청하여 보내고 왔다. 도승지의 답서(答書)는 왔는데 신령(申令)이 머뭇거리는 뜻이 있어서 즉시 장흥동(長興洞) 도승지[都令]의 집으로 가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바야흐로 궐내 문정(門庭)으로 들어가니 매우 소란스러웠다. 소매 속에서 주인 영감의 편지를 겸인(僉人 청지기)에게 전하고 만나기를 청하자, 입궐의 행차 때문에 매우 바빠서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땅히 잘 주선하겠다 답하므로 매우 감사하고 훗날에 마땅히 와서 사례하겠다고 답하고 왔다.

二十三日。往貞洞鄭判書家，要見交河尹商佐。尹生卽禮判家留接親客，故要出商宮，與之敘話。食後主人令修簡於政院都承旨徐邁修及申承旨蒼，洪承旨仁浩，托以善爲啓下之地，未見回答。又往鑄洞，請送稱念李承旨敏采而來。都令答書來到，而有申令徘徊之意，故卽往長興洞都令家，則日已暮矣。方入闕內門庭，極紛擾。袖傳主人令書簡於僉人，請與相見，則答以入闕之行甚忙，雖未得相見，當善爲周旋云，故答以多感，後當來謝云而來。

▪ 24일. 사경(四更)⁴⁵³ 즈음에 대가(大駕)가 출궁하였는데 큰 눈이 펄펄 쏟아졌다. 신하와 백성들의 우려를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오후에 여주(驪州)의 구 생원(具生員)이 그 아버지의 효행으로 상언을 올리고자 하여 글을 짓고 정서(正書)하려는 뜻으로 와서 의논하였으므로 임 장령(任掌令)의 주인에게 지시하였다.

二十四日。四更量大駕出宮，而大雪浮浮。臣民之憂慮不可言矣。午後驪州具生員以其父孝行欲呈上言，來議構文正書之意，故指示任掌令主人。

1777년(정조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중화부사승지를 거쳐 대사헌이 되었고, 1798년 강원 감사가 되어서는 도내 각 읍의 관리들의 비위와 이들의 민폐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왕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앞서 1784년 왕명으로 각도의 형옥결안(刑獄決案)의 편집에 착수하여 1799년에 완성하였는데, 뒤에 동생 홍의호(洪義浩)가 증수하여 《심리록(審理錄)》이라 하여 간행하였다.

452) 이민채(李敏采) : 1740~미상.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치행(稚行)이다. 1777년(정조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정언을 거쳐, 헌납승지를 역임하였다. 외직으로 양주목사를 지내고 참판에 이르렀다.

453) 사경(四更) : 새벽 2시 무렵이다.

▪25일. 이른 아침에 정동에 가서 송익상(宋翼庠)을 만나 예조 판서에게 칭념(稱念)을 부탁하고 인하여 소록(小錄)을 써서 주고 왔다.

二十五日. 早朝往貞洞, 見宋翼庠, 托以稱念禮判, 因書給小錄而來.

▪26일. 이른 아침에 군택(君澤)이 왔으므로 아침을 먹은 뒤 주교(舟橋)로 나가서 종일토록 배회하던 차에 마침 정광옥(丁光玉)을 만나니 매우 기뻐다. 즉시 상언(上言)을 올리고 들어오니 돌종(玆宗)이 와서 대가(大駕)가 환궁하는 것을 보고 왔다. 저녁에 주인 영감이 문안하는 반열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대가(大駕)를 수행하는 승지가 모두 체차(遞差)되었네.”라고 하였다. 전일에 부탁하고자 했던 것들이 모두 기회를 놓쳐버렸으니 한탄스럽다. 다음날 문안할 때 주인 영감이 내 성명과 상언(上言)하는 이유를 글로 써서 가지고 들어가 승지 신기(申耆)에게 부탁하고 왔다. 얼마 후 분발(分撥)⁴⁵⁴을 보았는데 신령(申令)도 또한 체차(遞差)되고 다른 승지들도 모두 나갔으므로 즉시 청간(請簡)⁴⁵⁵을 썼다. 주인 영감이 우승지(右承旨) 이형원(李亨元)⁴⁵⁶에게 가서 전하고 아울러 도승지 및 두서너 명의 승지에게 부탁하였다. 날이 저물자 별배(別陪)⁴⁵⁷가 와서 말하기를, “이령(李令)이 형조 참판으로 체직되어 갔습니다.”라고 하므로 즉시 예조(禮曹)에 가서 집리(執吏)를 찾으니 이미 예조 판서의 집으로 가버렸고, 오리(吳吏)는 나의 상언이 해당 부서로 오지 않았다고 하니 그 낙심한 마음을 이루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이날은 바로 27일이였다.

二十六日. 早朝君澤來到, 故朝飯後, 出去舟橋, 終日徘徊之際, 適逢丁光玉,

454) 분발(分撥) : 조보(朝報)를 발행하기 전에 각 관아의 하인들이 그 요점을 종이쪽지에 적어서 관원들에게 공람시키는 일을 말한다.

455) 청간(請簡) : 청탁하는 서간이다.

456) 이형원(李亨元) : 1739~179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선경(善卿), 호는 남계(南溪)이다. 1761년(영조37)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의주 부윤,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798년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이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빈민들에게 나누어줄 곡식의 보급이 늦어져 소란이 생기자, 이에 대한 영남어사(嶺南御史) 여준영(呂駿永) 등의 탄핵을 받고 가산군(嘉山郡)으로 귀양 가 그곳에서 죽었으나, 그 뒤 곧 신원되었다.

457) 별배(別陪) : 벼슬아치 집에서 사사로이 부리던 하인을 말한다.

其喜可掬. 卽呈上言入, 來丕宗, 見大駕還宮而來. 夕時主人令自問安班來言: “隨駕承旨一併許遞.”云. 前日之所稱念皆誤機矣, 可歎. 翌問安時, 主人令書持吾之姓名及上言所由, 以入勤托一承旨申承旨蕃而來矣. 非久見分撥, 則申令亦遞, 而他承旨皆出, 故卽書請簡. 主人令往傳於右令李亨元, 并托都令及數三承旨矣. 日晚別陪⁴⁵⁸來言: “李令遞去刑曹參判.”云. 故卽往禮曹, 尋見執吏, 則已去禮判家, 而吳吏云, 吾之上言不爲來該曹, 其落莫之懷可言. 是日卽二十七日也.

▪28일. 아침을 먹고 예조 및 신령(申令)의 집에 갔는데 신령(申令)은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인하여 예조로 갔는데 안리(安吏)는 없다고 하여 한나절을 기다리다가 마침 김수(金澮)가 찾아왔으므로 그와 함께 갔다. 날이 저문 뒤에 경모궁으로 가서 유숙하였는데 화옥을 오라고 하여 그와 함께 잤다.
二十八日. 朝食往禮曹及申令家, 則申令出他未見. 因往禮曹, 則安吏無之云, 故半日留待, 而適金澮來見, 故與之同去矣. 日晚後, 往景慕宮留宿, 而華玉要來, 與之同宿.

▪29일. 비 올 징후가 있어서 아침을 먹은 뒤에 곧바로 궐문 밖으로 와서 안리(安吏)를 찾아가 만나니 안리(安吏)도 또한 쓸쓸하였다고 하였다. 잠시 얘기를 나눈 뒤 도암 선생(陶庵先生)의 서원을 세우자고 봉소(封疏)한 선비를 차가(車家)의 의막에서 찾아보고, 길을 돌려 죽동으로 가서 군택(君澤)을 만난 뒤에 길을 돌려 주동(鑄洞) 보소(譜所)로 향하여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서소문 내 종인(宗人) 익홍(翼弘)의 집에 들어갔는데 종인은 부재중이어서 즉시 나왔다. 이날 가랑비가 그치지 않았다.
二十九日. 有雨徵, 故朝食後, 直來闕門外, 尋見安吏, 則安吏亦落莫云矣. 暫話後, 尋陶庵先生建院封疏儒於車家依幕, 轉往竹洞, 見君澤後, 轉向鑄洞譜所, 移時討話. 來路入西小門內宗人翼弘家, 則宗人不在, 故卽爲出來. 是日微雨不止.

458) 원문의 ‘陪’를 문맥에 의거하여 ‘陪’로 번역하였다.

▪2월 1일. 조금 추웠다.

二月初一日. 稍寒.

▪2일. 아침 전에 김수(金澗)가 와서 만나고 갔다. 식후에 정광옥(丁光玉), 전임서(田霖瑞), 유사영(柳思榮) 세 사람이 와서 만나고 갔다.

初二日. 朝前金澗來見而去. 食後丁光玉, 田霖瑞, 柳思榮三人來見而去.

▪3일. 김수(金澗)가 와서 만나고 갔다. 이흥철(李興哲) 편에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부쳐 보냈다. 덕능이 찾아와서 1냥의 돈을 군택(君澤)에게 추급(推給)했고 그 손자가 바야흐로 천연두[西神]⁴⁵⁹⁾로 아프다고 하였다.

初三日. 金澗來見而去. 付送家書於李興哲便. 德能來見, 推給一兩錢於君澤, 而其孫方痛西神云矣.

▪4일. 눈이 왔다.

初四日. 雪.

▪5일. 눈이 왔다.

初五日. 雪.

▪6일. 오후에 월암(月巖)에 가서 잠시 고 서방(高書房)을 만나고 왔다. 황혼 무렵에 눈이 내리더니 밤중에 큰 눈이 왔다.

初六日. 午後往月巖, 暫見高書房而來. 黃昏時雪作, 夜間大雪.

▪7일. 1일부터 감기를 앓았다. 대개 감기가 크게 유행하여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유행병이라 이상할 것이 없었으나 다만 증상에 조금 특이한 것이 있었다. 서울에서 일시에 치성하고 기세가 대단하니 괴이하고 괴이했다.

初七日. 自初一日患感氣. 蓋感氣大熾, 無人不痛, 無異時氣, 而但症有稍異

459) 천연두[西神] : 천연두를 영남(嶺南)에서 서신(西神)이라고 하는데, 호구별성(戶口別星), 호구마마(戶口媽媽)라고도 한다.

者矣. 京城一時熾蔓, 氣象莽然, 可怪可怪.

▪8일. 또 크게 눈이 왔다.

初八日. 又大雪.

▪9일. 김수(金澗)가 와서 만나고 갔다. 이날 종일토록 오한으로 덜덜 떨면서 크게 아팠다.

初九日. 金澗來見而去. 是日終日寒戰大痛.

▪10일. 여주(驪州)의 생원 구석의(具錫儀)가 그 선친의 효행에 대해 상언(上言)하는 일로 여러 번 내왕하였다. 인하여 그 권(卷) 속의 시를 청하므로 창졸간에 지어서 주었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공의 유적을 보니 종이에 보풀 일어났는데	覽公遺蹟紙毛生
백행이 모두 이 안에서 이루어졌으리	百行皆從這裡成
충심의 봉양을 어찌 자식의 효도라 이르리요	忠養豈云爲子孝
어버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 천성에서 나왔음을 알겠네	悅親方見出天誠
영천에서 이미 생전의 효심을 징험했고	靈泉已驗生前感
화고 ⁴⁶⁰ 로 오직 사후의 영화를 더했네	華誥惟增死後榮
백발로 대궐에 포장할 계획을 세우니	白首天門褒獎計
그대가 또한 집안의 명성 이어 가리라	知君能又繼家聲

初十日. 驪州具生錫儀以其先父孝行呈上言事來往數次矣. 仍請其卷中韻, 故猝構以賜曰: “覽公遺蹟紙毛生, 百行皆從這裡成. 忠養豈云爲子孝, 悅親方見出天誠. 靈泉已驗生前感, 華誥惟增死後榮. 白首天門褒獎計, 知君能又繼家聲.”

▪11일. 흐렸다.

460) 화고(華誥): 오화관고(五花官誥)의 준말로, 증직을 의미한다. 옛날 증직을 내리는 조서를 오색의 금화(金花)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十一日. 陰.

▪ 12일. 식전에 하량교(河梁橋) 김수(金澗)의 여점에 갔다.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鑄洞)에 가서 종일토록 대화를 나누었다. 저녁 무렵 돌아오는 길에 죽동(竹洞)에 들어가 군택(君澤) 손자의 천연두를 살펴보니 잘 끝나서 다행스러웠다. 하량교로 돌아와서 유숙하였다. 이날 밤 두세 번 설사를 하였다.

十二日. 食前往河梁橋金澗旅店. 朝飯後, 往鑄洞, 終日談話. 夕間回路, 入竹洞, 見君澤孫兒西神, 善爲出場, 可幸. 還來河梁橋留宿. 是夜泄瀉二三次.

▪ 13일. 식전에 경모궁에 가서 회시(會試)를 보는 객인 유사영(柳思榮)과 전임서(田霖瑞) 등 여러 사람을 만났다. 아침을 먹은 뒤에 화옥(華玉)이 반중(泮中 성균관)에서 내려왔으므로 동행하여 궐문 밖에 이르렀다. 대개 성균관 유생들의 봉소(封疏) 때문이었다. 마침내 화옥과 헤어져 예조 직방에 들어가 집리(執吏)와 다정한 대화를 나눈 뒤에 대로(大路)를 따라 돌아왔다. 대개 질퍽거림이 너무 심해서 소로(小路)를 경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곧바로 남대문 내 창동(倉洞)으로 와서 정혜휘(丁兮輝)와 유정찬(柳廷燦)을 만나고 왔다.

十三日. 食前往景慕宮, 見會客柳思榮田霖瑞諸人. 朝飯後, 華玉自泮中下來, 故同行至闕門外. 蓋由館儒封疏故也. 遂分路, 入禮曹直房, 與執吏穩話後, 還從大路. 蓋泥濘已甚, 不得由小路故也. 直來南大門內倉洞, 見丁兮輝及柳廷燦而來.

▪ 14일. 이교(圮橋)에 있는 평양 김영록(金永祿)의 여점에 갔는데 김영록이 부재중이므로 즉시 돌아오다가 길에서 김영록을 만나, 서서 대화를 나누고 왔다.

十四日. 往圮橋平壤金永祿旅店, 則金也不在, 故卽爲回來矣, 路逢金也, 立談而來.

▪ 15일. 아침을 먹을 때 김수(金澗)가 찾아왔으므로 이천(而天)과 함께

김영록(金永祿)의 여점에 가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왔다. 덕능이 와서 그 형의 부음(訃音)을 만났다면 이르기를, “참담합니다. 모레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선조의 일을 위하여 해를 넘기며 나그네로 떠돌았는데 아직 성사되지 않았고 또 천리 밖에서 동기(同氣)의 변을 만나니 그 비참한 상황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또 남쪽의 역병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놀라 돌아가고픈 마음이 더욱 심해지는데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스럽고 한탄스러웠다.

十五日. 朝飯時, 金灘來見, 故與而天同往金永祿旅店, 暫話而來. 德能來言, 遭其兄訃音云, 慘矣. 再明下來爲言. 爲其先事, 經年旅遊, 未得成事, 又遭同氣之變於千里之外, 其景色之慘不可盡言. 且南中厲氣消息, 聞之心驚, 歸思益甚, 而事不如意, 可悶可歎.

▪ 16일. 화옥(華玉)과 하량교(河梁橋)에 가서 노닐자는 약속을 하여 식후에 직접 갔는데 김수(金澮)는 부재중이고 유(柳)와 전(田) 두 명의 객이 마침 있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죽동(竹洞)에 갔는데 군택(君澤)은 부재중이었다. 즉시 김 생원의 하처(下處)로 돌아왔는데 화옥(華玉)이 이르렀고 찬우(燦尤)가 또 왔으므로 함께 술을 사서 마시고 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 천노(千奴)가 이르러서 집안은 우선 별일이 없다고 하니 다행스러웠다.

十六日. 華玉有來遊河梁橋之約, 故食後躬往, 則金澮不在, 而柳田兩客適在, 故暫話. 往竹洞, 則君澤不在矣. 卽爲回到金生下處, 則華玉來到, 燦尤亦來, 故仍與沽酒以飲而來. 夕食後千奴來到, 而家中姑無故云, 可幸.

▪ 17일.
十七日.

▪ 18일. 바로 회시(會試)⁴⁶¹를 보는 날이었다. 김 생원이 시험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 종일토록 예조(禮曹) 문밖에서 기다렸다. 낙안(樂安)의 김우

461) 회시(會試) : 한성부와 지방에서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을 서울로 모아 제2차로 보이는 시험을 회시, 또는 복시(覆試)라 한다. 이 회시에 합격한 사람만이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응시하게 된다.

(金友)와 벗 정혜휘(丁兮輝), 유우(柳友)가 또 와서 함께 배회했다. 남원(南原) 노우(盧友)의 사관(舍館)을 찾아가 그와 서로 만난 뒤 날이 이미 저무는지라 다시 나왔는데 천노가 바야흐로 감기를 앓아서 경모궁 여점에 보내두고 그 따뜻한 방에서 조리(調理)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은 유행병이 크게 치성하는 세상이라 우환이 없을 수 없으니 한탄스러웠다.

十八日。卽會日也。爲見金生出場，終日留待於禮曹門外。樂安金友及丁友兮輝，柳友亦來，同與徘徊。尋訪南原盧友舍館，與之相面後，日已夕矣，還爲出來，而千奴方痛感氣，送置於景慕宮旅店，取其房溫調理之計也。而如此時氣大熾之世不無憂患，可歎。

■19일. 비가 올 조짐이 있었다. 오후부터 비로소 비가 와서 20일 닭이 울 때에 이르러 그쳤다.

十九日。有雨徵。自午後始雨，至二十日鷄鳴時止。

■20일. 바로 종장일(終場日)⁴⁶²이었다. 자못 비 올 기미가 있다가 새벽에 쾌청하니 선비들의 행운이었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二十日。卽終場日也。頗有雨意，曉頭快晴，多士之幸也。夕間雨作。

■21일. 아침을 먹은 뒤에 수각교(水閣橋) 주변에 가서 정혜휘(丁兮輝), 유정찬(柳廷燦)을 만나 시험장 안에서의 인사(人事)를 잘 치렀다고 들으니 다행스러웠다. 하량교에 가서 김 생원과 함께 경모궁에 갔을 때 잠시 곡성 현감의 집에 들어가 《운고(韻考)》⁴⁶³를 빌려서 여점으로 넘어가 응제(應製)를 지어 올리고 하량교로 와서 유숙하였는데 화옥도 함께 와서 밤에 육전을 지지며 대화를 나누었다.

二十一日。朝飯後，往水閣橋邊，見丁兮輝，柳廷燦，聞善爲場中人事云，可幸。往河橋，與金生同往景慕宮時，暫入谷城家，借《韻考》，越去旅店，做呈

462) 종장일(終場日) : 이들이나 사흘로 나눌 때의, 마지막 날의 과거(科擧) 보는 시험일이다.

463) 운고(韻考) : 한자(漢字)의 상성(上聲)·평성(平聲)·거성(去聲)·입성(入聲)을 분류해 놓은 책이다.

應製, 來宿河橋, 而華玉同來, 夜煎肉談話.

▪22일. 동틀 무렵 날씨가 다시 비가 오려고 하니 근심스러웠다. 화옥이 먼저 반중(泮中)으로 들어가고 나는 인하여 김 생원의 거처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식후에 방목(榜目)이 나왔으므로 잠시 여덟아홉 번을 살펴본 뒤에 주동으로 가니 방목이 또 날아왔다. 매번 생원·진사 방목을 볼 때마다 같은 고향 사람이 한 사람도 입격(入格)을 하지 못하니 서글픈 마음을 이루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치회(釋會)의 대부인 회갑날이었다. 친빈(親賓)을 초청하여 술과 고기를 많이 베풀어 주었으므로 종일토록 배부르게 먹고 왔다.

二十二日. 平明天欲更雨, 可悶. 華玉先入泮中, 余則因朝飯於金生處, 而食後榜出, 故暫觀八九度後, 往鑄洞, 則榜亦飛到. 故每觀生進之榜, 同鄉之人一不入格, 悵然之懷, 可勝言哉. 釋會之大夫夫人甲日也. 請親賓, 而多供酒肉, 故終日飽餒而來.

▪23일. 식전에 김 생원이 와서 지금 바야흐로 길을 떠난다고 하니, 천리 밖에서 떠나보내고 머무는 서글프고 서운한 심정을 어찌 말로 하겠는가. 겨울옷과 아직 부치지 못한 서신을 부쳐 보낸 것은 나도 또한 오래지 않아 내려갈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二十三日. 食前金生來言, 今方發行云, 千里之外, 去留之情, 悵缺何言, 付送冬衣未付書信者, 余亦有非久下去之意故也.

▪24일. 대가(大駕)가 파주 영릉(永陵)⁴⁶⁴으로 행차하였는데 종일토록 찬 바람이 불다가 혹 눈이 내렸다. 이전에 올린 상언(上言)⁴⁶⁵을 다시 올리는 것이 자못 외람되고 분수에 넘친다는 혐의가 있어서, 근대(近代) 양 세대에 시호(諡號)를 내려달라는 상언서(上言書)를 올리고자 하여 소록(小錄)

464) 영릉(永陵) : 영조(英祖)의 맏아들로서 추존된 진종(眞宗)과 그 비 효순왕후(孝純王后)의 능을 말한다.

465) 상언(上言) :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나 호소할 일이 있을 적에 임금의 가거(駕車) 앞으로 나아가 직소(直訴)하는 가전상언(駕前上言)인 듯하다.

을 승정원에 보냈다. 승정원의 논의가 모두 불가(不可)하다고 하여서 부득이하게 뜻을 접었다. 슬프고 서운한 가운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천리 밖에서 여러 달을 연이어 유숙한 것은 다만 선대(先代)의 일 때문이었는데 두 가지 일 모두 감히 상언(上言)을 하지 못하게 되니 매우 서글퍼져 갑자기 성을 등지고 한번 싸워보자는 결심이 섰다.

二十四日。大駕行幸於坡州永陵，冷風終日或雪。以前呈上言之再呈，頗有猥越之嫌，欲呈近代兩世贈諡之上言書，送小錄於政院矣。政院之議皆云不可，故不得已罷意。悵缺之中，反思千里之外累朔留連者，只是先代事矣，兩事俱不敢呈，極爲悵然，猝出背城之意。

▪25일. 아침에 주동에 가서 중시조(中始祖)의 일로써 상언(上言)을 정서(正書)하였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저물녘에 나왔다.

二十五日。早往鑄洞，以中始祖事，正書上言，日已夕矣。冒昏出來。

▪26일. 아침 전에 화옥이 찾아와서 수두(首頭)로 상언(上言)하겠다고 뜻을 언급하였다. 식후에 모화관으로 나가서 상언(上言)을 올렸다. 또 승정원 및 각처에 조화(造化)를 부렸다.

二十六日。朝前華玉來見，以首頭上言之意言及。食後出去慕華館，呈上言。又弄造化於政院及各處。

▪27일. 새벽에 예조 직방에 들어갔는데 상언(上言)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잠시 응범(應範)의 집에 들어갔는데 응범이 술과 고기 및 국수를 갖추어 나오니 치하할 만하였다. 잠시 뒤에 직방에 갔는데 상언(上言)이 본조(本曹)에서 입계(入啓)⁴⁶⁶되어 판하(判下)⁴⁶⁷되었다고 하여서 안리(安吏)에게 매우 정성스럽게 부탁을 한 뒤에 바빠 주동으로 가서 예조 판서 정창순(鄭

466) 입계(入啓) : 임금께 구두로 아뢰거나 서장(書狀)으로 아뢰는 것이다.

467) 판하(判下) : 신하가 아뢰어 청한 일을 임금이 윤허(允許)하던 것이다.

昌順⁴⁶⁸)에게 칭념(稱念)해 줄 것을 청하였다. 또 죽동으로 가서 또 참판 정동준(鄭東浚)⁴⁶⁹의 청간(請簡)을 얻어서 급히 예조 판서에게 부치고 즉시 차동(車洞)으로 나와서 2냥의 예채(例債)⁴⁷⁰를 변통하여 다시 황급히 예조로 들어갔는데 안리(安吏)는 이미 계문(啓文)을 작성하기 위하여 바야흐로 당상관(堂上官)⁴⁷¹의 집으로 가야 해서 함께 낙동(駱洞)으로 갔다. 길을 돌려 주동(鑄洞)으로 가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 예조 판서의 답간(答簡)이 당도하여 이르기를, 이미 임금께서 재가(裁可)하도록 회계(回啓)⁴⁷²한 것과 같다고 하니, 그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이루 말로 할 수 있겠는가. 급히 낙동(駱洞)으로 왔는데 군택이 바야흐로 문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한 생각을 고하고 즉시 나왔다.

二十七日. 未明入去禮曹直房, 則上言尙未下來矣. 暫入應範家, 則應範爲備酒肉及麵以進, 可賀. 小許往直房, 則上言入啓判下於本曹, 故與安吏勤勤付托後, 忙去鑄洞, 請得稱念於禮判鄭昌順. 又往竹洞, 又得鄭參判東⁴⁷³請簡, 急付禮判, 卽爲出來車洞, 變通二兩例債, 還急入去禮曹, 則安吏已爲修啓次, 方往堂上家, 故同往駱洞. 轉往鑄洞, 移時企待矣. 禮判答簡來到云, 已如上裁回啓, 其喜幸可勝言哉. 急來駱洞, 則君澤方來待於門外矣. 告以來事之意, 卽爲出來.

▪ 28일. 날이 아직 밝지 않았는데 관건(冠巾)을 쓰고 곧바로 예조(禮曹)로

468) 정창순(鄭昌順) : 1727~?.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기천(祈天), 호는 사어(四於)이다. 1757년(영조 33) 문과에 급제하여 판서까지 올랐으며, 《송도지(松都誌)》《송도잡기(松都雜記)》《동문회고(同文彙考)》《십구사략통고(十九史略通攷)》 등을 편찬한 인물이다.

469) 정동준(鄭東浚) : 1753~1795.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사심(士深)이다. 이조 참의, 대사간, 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자신과 측근들이 요직에 임명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조정과 임금을 비난하는 말을 하다가 권유(權裕)에게 탄핵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70) 예채(例債) : 의례적으로 수고비조로 주는 돈이다.

471) 당상관(堂上官) : 조선 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이다.

472) 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下問)에 대하여 심의하여 보고를 하던 일이다.

473) 원문의 ‘浚’을 《문과방목(文科榜目)》에 의거하여 ‘浚’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가니 계제사(稽制司)⁴⁷⁴)는 문이 닫혀 사람이 없었고 예조의 대청(大廳)에 의관(衣冠)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집리(執吏)가 회시(會試)의 창방일(唱榜日)⁴⁷⁵)이라 바야흐로 궐내에 들어가 백패(白牌)⁴⁷⁶)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의관을 갖춘 사람들은 나와 함께 상언(上言)한 사람들 아님이 없었다. 대청에서 배회하는데 끝내 나오지 않았다. 또 사시(巳時)⁴⁷⁷)가 바로 그 시각이라는 말을 듣고서 응범(應範)을 찾아가 방안에 앉아 있다가 한참 뒤에 천노(千奴)에게 문의 개폐 여부를 살펴보게 하니 와서 문이 열렸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가서 그 회계(回啓)에 대하여 문자 답하여 말하기를, “오래지 않아 마땅히 알게 될 것이니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라 하였다. 여러 상언(上言)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일제히 와서 모여 낭방(廊房)에 가득했다. 안리(安吏)의 이른바 ‘수응(酬應)하기 어려워 자못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므로 조금 있다가 들어오라고 부탁하더군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집리(執吏)가 주시하며 이르기를, “앉아서 기다리시오.”라고 하니 조금 기다리던 사람들이 혹은 나가거나 혹은 그대로 있었다. 비로소 회계초(回啓草)가 나와서 보니 ‘그 사의(辭意)가 비록 자손에게 그것을 하게 하더라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니 그 기쁨과 다행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잘 회계(回啓)해 주었다는 뜻으로 사례하니 답하여 말하기를, “임금께서 반드시 별도의 은전(恩典)이 있을 것이니 결코 회계(回啓)에 따라 판하(判下)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판하(判下)는 언제 나오냐고 물으니 답하여 이르기를, “낮엔 반드시 내려올 것이니 아침을 먹은 뒤에 들어오십시오.” 하였다.

474) 계제사(稽制司) : 예조(禮曹)의 한 분장(分掌). 의식(儀式)·제도(制度)·조회(朝會)·경연(經筵)·사관(史館)·학교(學校)·과거(科擧)·인신(印信)·표진(表箋)·책명(冊命)·천문(天文)·누각(漏刻)·국기(國忌)·묘휘(廟諱)·상장(喪葬)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475) 창방일(唱榜日) : 방목(榜目)에 적힌 과거급제자의 이름을 부르는 날을 말한다.

476) 백패(白牌) : 소과와 잡과(雜科) 합격자에게 내리는 흰 종이의 증서이다. 참고로 대과(大科) 합격증은 붉은 종이에 써서 홍패(紅牌)라고 한다.

477) 사시(巳時) : 오전 9시~11시이다.

그러나 이미 회계의 내용을 보고는 기쁨이 지극하여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대청 가운데 앉아 있었다. 잠시 후에 판하(判下)가 나와서 서둘러 20장(丈)의 계하(啓下)를 손으로 펼쳐 읽어보니, 청시(聽施)는 하나도 없고 죄를 청한 것이 과반이라 개인적인 마음으로 황송하였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 집안일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시호를 내리라는 전교(傳敎)를 하였으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러워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또 각 도에서 상언(上言)한 사람들이 두 손 모아 축하하지 않음이 없었고 여러 관리는 경사라고 일컬지 않음이 없었으니 곧바로 거리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급하게 회계초(回啓草) 및 판하(判下)한 전교를 베껴서 춘조(春曹)⁴⁷⁸의 대문을 즐겁게 나왔다. 집리(執吏)도 뒤를 따르며 축하한다고 말하며 또 운운(云云)하는 바가 있었다. 몇 걸음 나오지 않았는데 천노와 화옥이 함께 왔다. 인하여 함께 응범의 집으로 와서 회계초를 펼쳐 보았다. 즉시 승동(升洞)으로 와서 군택에게 회계초를 보이고 함께 주동(鑄洞)으로 갔는데 여러 종친이 나와 축하해 주는 것이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하였으니, 생각건대 같은 종파의 우의가 깊어서일 것인데 대개 예조 판서에게 곧바로 용납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종친들이 힘써준 것이 거지반이었다. 저녁에 차동(車洞)으로 돌아오니 주인 영감도 또한 크게 기뻐하였다. 급히 소찰(小札)을 얻어 전조(銓曹)에 보내며 이조와 예조 중에서 의망(擬望)해 달라는 뜻으로 신신부탁하였다. 황혼이 지나서 답서가 당도하였는데 흔쾌히 허락하니 더욱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웠다.

二十八日。未明冠巾，直往禮曹，則稽制司閉門無人，而禮曹大廳多有衣冠之人。故問其所由，則執吏以會試唱榜日，方入闕內，分給白牌，而衣冠之人無非與我同上言之人也。徘徊於大廳，而終不出來。且聞巳時乃時刻云，故往訪應範，坐於房內，移時後，使千奴往觀門之開閉，則來云門開。故卽往問其回啓，則答云：“非久當知之，不必急。”觀諸上言之人，一齊來會廊房充滿。安吏所謂難爲酬應，頗有厭色，故托以稍間入來云。而執吏目云坐待。稍待諸人或出或

478) 춘조(春曹) : 예조(禮曹)의 별칭이다.

在. 始出啓草而視之, ‘其辭意雖使子孫爲之, 無以加此.’ 喜幸何言. 謝以善啓之意, 則答云: “自上必有別恩典, 決不以依回啓施行判下矣.” 吾問判下何時可出, 答云: “午間必以下來, 朝飯後入來.” 爲言. 然既觀回啓辭緣, 則欣喜之極, 全無食念, 坐於廳中矣. 有頃判下出來, 忙手披閱二十丈啓下者, 無一聽施, 請罪過半, 私心惶悚, 爲如何哉. 至於吾家事, 以特爲贈諡傳教, 喜幸之極, 無以爲心. 且各道上言之人無不攢賀, 諸吏輩莫不稱慶. 直欲蹈舞於街道, 而不可得矣. 急騰啓草及判下傳教, 快出春曹之大門. 執吏隨後稱賀, 又有所云云矣. 不出數步, 千奴與華玉同來矣. 因與同來應範家, 披觀啓艸, 卽來升洞, 視君澤啓艸. 同往鑄洞, 則諸宗之進賀若自家事, 可想同宗之誼深. 而蓋旋容於禮判者, 宗人之力居半矣. 夕間還來車洞, 主令亦大樂. 急得小札, 送於銓曹, 吏禮中擬望之意, 申申付托矣. 黃昏後答書來到, 而快許, 尤所幸幸也.

▪29일. 밤부터 비가 왔다. 오늘 천노를 보낼 계획이었는데 비 올 기미가 이와 같고, 또 서경보(徐景輔) 및 재인(才人) 지원(之遠)이란 자가 오늘 비가 오면 길을 떠나지 않겠으나 내일은 반드시 출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이번 편에 편지를 부치려고 각처의 서간(書簡)을 써서 두고 내일이 오기를 고대하였다. 저녁에 천노를 불렀는데 아픈 모습이 역력하여 놀라서 이유를 물으니 오늘 새벽부터 오한으로 떨리고 두통이 나더니 한기(寒氣)가 종일토록 차도가 없다고 하였다. 이런 유행병이 크게 치성하는 때를 당하여 그 놀라고 염려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즉시 경모궁 여막으로 보내서 온돌에 땀을 흘리도록 하였다. 정동(貞洞)으로 가서 임 장령(任掌令)을 만나고 왔다.

二十九日. 自夜雨作. 欲以今日送奴爲計矣, 雨意如此, 且聞徐景輔及才人之遠者, 今日雨來, 不爲登程, 而明日則必爲發行, 故付書此便, 書置各處書簡, 而苦待明日耳. 夕間招千奴, 則顯有痛狀, 驚問所由, 則自今日曉頭, 寒戰頭痛, 寒氣終日不差云. 當此時氣大熾之時, 其爲驚慮, 何極. 卽送景慕宮旅幕, 以爲溫突取汗之計. 往貞洞, 見任掌令而來.

▪30일. 서 생원 및 지원(之遠)이 돌아간다고 고하므로 문중의 도장(都狀) 연명장(連名狀)과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부쳐 보내고 인하여 팔선(八仙)

과 함께 예조 직방에 가서 집리(執吏)를 응범(應範)의 집으로 나오게 하여 술과 안주를 갖추어 대접하고 인하여 약간의 선물을 주었다. 곧바로 경모궁 여점으로 갔는데 천노의 아픈 증세가 자못 심상치 않았으니 그 우려됨이 어떠했겠는가. 생원 김이록(金履祿)에게 조리(調理)하는 법을 부탁하고 왔다. 수안(遂安) 이 생원의 편지가 왔고 또 빌린 물건을 부쳐주니 다행스러웠다. 궐내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증시(贈諡)⁴⁷⁹하는 일에 처결하기 어려운 일이 많은데 징험할 곳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조 판서의 물음도 또한 당연하니 근심스럽고 근심스러웠다.

三十日. 徐生及之遠告歸, 故付送門中都狀及家書, 因與八仙同往禮曹直房, 要執吏, 出來應範家, 備酒饌以饋, 因給若干物. 直往景慕宮旅店, 則千奴痛勢, 頗不尋常, 其爲憂慮爲如何哉. 托於金生履祿調理之方而來. 遂安李生書來, 且付所貸之物, 可幸. 自關內有書, 贈事多有難處之事, 徵驗無處, 而吏判之所問亦當矣, 悶悶.

■3월 1일. 이조 판서를 만나 보기 위해 이른 아침에 전동(磚洞)으로 갔는데 이미 입길하였다. 이에 곧바로 예조로 가니 집리(執吏)가 막 궐내로 들어왔으므로 사유(事由)를 상세히 말하였다. 또 이조 판서를 만나고 싶었으나 서로 어긋난 이유를 말하니 바로 직방(直房)에 있다고 하여 함께 직방으로 갔는데 막 개정(開政)⁴⁸⁰하러 대궐로 나아갔다고 하므로 대략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하여 죽동(竹洞)으로 갔는데 군택(君澤)이 부재중이어서 인하여 길을 돌려 주동으로 갈 무렵 날은 이미 저물었다. 아침을 먹지 않아서 허기와 피곤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여점으로 들어가 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주동(鑄

479) 증시(贈諡) : 송대립(宋大立, 1550~1597)에게 시호를 내리는 일로 이후 송대립은 참의공(參議公)으로 추증되었다. 송대립의 본관은 여산(勵山), 자는 신백(信伯)이고, 아들은 송침(宋謙, 1590~1637)이다. 1594년에 무과에 합격, 아우인 지도 만호(智島萬戶) 송희립(宋希立)과 함께 이순신(李舜臣)의 휘하로 들어갔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권율이 송대립을 창의 별장(倡義別將)으로 삼아 연해의 왜적을 막게 하였다. 군사가 부족하여 의병을 모집해서 침범한 적선(賊船)을 무찌르다가 북병을 만나 칼을 휘두르며 고군분투, 적의 포환(砲丸)에 맞아 절명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선조(宣祖)가 특명으로 병조참의에 증직하였으며,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훈하였다.

480) 개정(開政) : 이조(吏曹)에서 관원들의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洞)에 이르러 종일토록 대화를 나누다가 왔다. 영감은 이미 대궐로부터 신시(申時)⁴⁸¹)에 퇴근하여 자세히 말하기를, 이조 판서가 문반인지 무반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니 한탄스러웠다.

三月初一日. 爲見吏判, 早往磚洞, 則已入闕. 乃故直往禮曹, 則執吏方入闕內, 故以事由詳言. 且言欲見吏判, 相違之由, 則方在直房, 偕往直房, 則方詣闕開政云, 故略敘其由. 因往竹洞, 則君澤不在, 故仍轉往鑄洞之際, 日已晚矣. 未食朝飯, 飢困難堪, 故入旅店, 買食一器麵, 至鑄洞, 終日談話而來. 令監已自闕中申退詳言, 吏判文武難辨, 追贈極難云, 可歎.

▪2일. 비가 왔다. 전당(銓堂)에서 문반(文班)인지 무반(武班)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의망(擬望)하지 못했다고 하므로 순무사(巡撫使)⁴⁸²)의 출처(出處)를 알고 싶어 정동으로 가서 임 장령(任掌令)과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청음집(淸陰集)》⁴⁸³)을 구해서 보고자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였으니 한탄스러웠다. 비를 맞으며 나오자 경모궁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노가 차도가 없어서 경모궁 처소에서 재촉하여 내보냈다고 하였다. 그래서 즉시(경모궁 처소로) 들어갔는데 이미 나가버렸다. 다시 즉시 돌아와 호동(壺洞)에 들러 박 곡성(朴谷城)을 만나고 왔다.

初二日. 雨. 銓堂以文武之未分, 不爲擬望, 故欲知巡撫使出處, 往貞洞, 與任掌令移時談話, 欲求見淸陰集, 而不得, 可歎. 冒雨出來, 則自景慕宮有來人, 而千奴不差, 自宮所催促出送云. 故卽爲入去, 則已爲出去矣. 還卽回來, 歷入壺洞, 見朴谷城而來.

▪3일.

481) 신시(申時) : 오후 3시~5시 사이이다.

482) 순무사(巡撫使) : 전시(戰時)나 지방에 변란이 일어났을 때 왕명을 띠고 내려가 군무(軍務)를 맡던 임시 관직이다. 여기서는 김여물(金汝物, 1548~1592)을 말한다.

483) 청음집(淸陰集) :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문집이다. 김상헌의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석실산인(石室山人),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시호는 문정이다. 좌의정을 지냈으며, 효종이 즉위하여 복벌을 추진할 때 이념적 상징으로 추앙되어 대로(大老)라는 존칭을 받았다.

初三日.

■ 4일. 일찍 일어나 관건(冠巾)을 쓰고 새벽에 전동(磚洞)으로 가서 이조 판서를 만나 순무공(巡撫公)⁴⁸⁴의 사적(事蹟) 및 문반과 무반을 비록 증명할 수는 없으나 이미 도진무(都鎭撫)⁴⁸⁵이었으니 반드시 정경(正卿)이었다는 것을 갖추어 말하고, 우상(右相) 혹은 찬성(贊成)으로 의망(擬望)하여 비하(批下)해 주라는 뜻으로 강력히 요청하니 곧 답하여 말하기를, “이미 적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어찌 억견(臆見)으로 막대한 정사(政事)를 이루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 낙동(駱洞)의 송준재(宋俊才)가 자리에 있다가 또한 말을 도왔으나 마침내 흔쾌히 허락하지 않으니 근심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즉시 승동(升洞)으로 와서 군택과 상의하고 또 길을 돌려 주동(鑄洞)으로 가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나 마침내 하나로 귀결되는 의견이 없어서 다시 승동(升洞)으로 와서 군택과 함께 낙동(駱洞)으로 가서 정언(正言)을 만나고 인하여 나왔는데 날이 이미 한나절이 지나버렸다. 저녁에 비 올 기미가 있었다.

初四日. 早起冠巾, 平明往磚洞, 見吏判, 具言巡撫公事蹟及文武之雖無明證, 而既是都鎭撫, 則必是正卿, 以右相或贊成擬批之意强請, 則答云, 既未的知, 則豈以臆見以成莫大之政事, 適駱洞宋俊才在座矣, 亦爲助言, 而終不快許, 悶不可言. 卽來升洞, 與君澤相議, 又轉往鑄洞, 爛熳相議, 而終無歸一之論, 故復來升洞, 與君澤同往駱洞, 見正言, 因爲出來, 日已半日矣. 夕間有雨意.

484) 순무공(巡撫公) : 김여물(金汝物, 1548~1592)을 말한다.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사수(士秀), 호는 피구자(披裘子) 또는 외암(畏菴)이다. 1577년(선조10)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했다. 병조낭관을 지내고 충주도사를 거쳐, 1591년 의주목사로 있을 때 서인 정철(鄭澈)의 당으로 몰려 파직되고 의금부에 투옥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순변사 신립이 그의 무략과 재능을 알고 자기의 종사관으로 임명해줄 것을 왕에게 간청하여, 함께 충주 방어에 나섰다. 신립이 새재[鳥嶺] 방어의 어려움을 들어 충주로 나아가 배수의 진을 치려 하자, 이에 반대하고 새재를 점령하여 지키든지 높은 언덕을 이용하여 역습하자고 주장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충주의 달천을 등지고 배수진을 쳐 탄금대 아래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나, 이를 막지 못하자 신립과 함께 강에 투신 자결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788년(정조12) 장의라는 시호를 받았다.

485) 도진무(都鎭撫) : 조선 초기의 무관직으로 종2품의 외직 무관인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막료(幕僚)이다.

▪5일. 비가 왔다. 일찍 일어나 관건을 쓰고 승동(升洞)으로 가서 군택(君澤)을 만나 함께 전동(磚洞)으로 갔다. 군택은 김 고양(金高陽)의 집으로 가고 나는 이조 판서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조 판서를 만나 뵈고 족보는 바야흐로 규장각에 들어가서 가지고 올 수 없었다는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는데도 또한 가까운 시일 안에 의망(擬望)하여 비하(批下)하겠다는 말은 없었으니 한탄스러웠다. 여러 가지로 사설(辭說)을 늘어놓고 즉시 나왔는데 군택이 이미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함께 의동(醫洞) 병문(屏門)⁴⁸⁶으로 나갔다. 군택은 곧바로 승동으로 돌아가고 나는 경모궁에 가서 천노의 소식을 물으니, 어제 열이 내렸고 여막의 주인이 돈을 요구하므로 차동(車洞)으로 사람을 보냈다고 하였다. 조금 휴식을 취한 뒤 돌아오는 길에 임 승지(林承旨)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부재중이었다. 그래서 바삐 걸어 돌아오는데 증도에 비가 내렸다. 승동(升洞)으로 와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 뒤에 비를 맞으며 나왔다. 허기지고 피곤한 상황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初五. 雨. 早起冠巾, 往升洞, 見君澤, 同往磚洞. 君澤去金高陽家, 我入吏判家, 見吏判盡言族譜方入奎章閣, 故不得持來之由, 而又無從近擬批之言, 可歎. 多般辭說, 還卽出來, 則君澤已爲留待於門外, 故同出醫洞屏門. 君澤則直還升洞, 我往景慕宮, 問千奴消息, 則昨日落汗, 幕主索錢, 故送人於車洞云矣, 小憩後回路, 入林承旨家, 則不在. 故忙步回來之際, 中路雨作矣. 來升洞, 小話後, 冒雨出來. 飢疲之狀, 不可勝言矣.

▪6일. 이른 아침 정동(貞洞)으로 가서 임우(任友)를 만나 《국조(國朝)》⁴⁸⁷의 소재를 물으니 없다고 하여 즉시 나왔는데 순천(順天)의 임규관(任桂寬)이 찾아왔고 전 생원이 또 찾아와서 만나고 갔다.

初六日. 早朝往貞洞, 見任友, 問國朝之所在, 而無之云, 故卽爲出來, 則順天任桂寬來見, 田生亦來見而去.

486) 병문(屏門) : 골목 어귀의 길가이다.

487) 국조(國朝) : 실학자 김육(金堉)이 편찬한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을 가리키는 듯하다. 조선 시대 명신의 언행과 행적에 관한 책으로, 모두 17책으로 되어 있으며, 367명이 수록되어 있다. 도학·사업(事業)·충절로 분류되며 각 개인의 가계와 벼슬 경력·언행·행적을 기록하였다.

▪ 7일. 매우 흐리고 추웠다. 식후에 팔선(八仙)을 거느리고 함께 예조 직방으로 가서 안리(安吏)에게 문지(紋紙 무늬가 있는 종이)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니 살 수 없다고 하여 곧바로 승동(升洞)으로 갔는데 군택이 나를 만나기 위해 나갔다고 하였다. 인하여 주동(鑄洞)으로 가서 빌린 돈 5貫동(貫銅)을 전해주고 왔는데 중순(仲順)이 이미 교동(校洞)에서 돌아와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니 한탄스러웠다.

初七日. 甚陰冷. 食後率八仙, 同往禮曹直房, 問自紋紙買不買於安吏, 則未得買得云, 故直往升洞, 則君澤爲見吾而出去云矣. 因往鑄洞, 傳所貸五貫銅而來, 則仲順已自校洞回來, 而不得許諾云, 可歎.

▪ 8일. 권평(權平)이 와서 천노가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므로 5전(錢)의 돈을 막소(幕所)에 보냈다. 이른 아침 정동(貞洞)으로 가서 《청음집(淸陰集)》 안에 순무사(巡撫使) 김여물(金汝物)에 관한 부분을 보고 즉시 죽동(竹洞)으로 가서 군택과 동행하여 승례문(崇禮門)에 이르러 군택을 섬암(蟾巖)으로 보내고 왔다. 벗 임규관(任桂寬) 및 군택이 찾아와서 만나고 갔다.

初八日. 權平來言, 千奴索錢, 故送五錢于幕所. 早朝往貞洞, 得見淸陰集中巡撫使金汝物, 卽往竹洞, 與君澤同行, 至崇禮門, 送君澤於蟾巖而來. 任友桂寬及君澤來見而去.

▪ 9일. 이른 아침에 한동(翰洞)으로 가서 이 흥양(李興陽)을 만나고 왔다. 군택이 또 섬암(蟾巖)에서 찾아왔다가 즉시 갔다. 식후에 비가 왔다. 처음에는 식후에 바로 전동(磚洞)으로 가서 이조 판서를 만나려고 했으나 비가 와서 또한 뜻과 같이 되지 않았다. 돌아갈 시기가 점점 닥쳐오는데 추증(追贈)의 일이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으니 그 근심을 이루 말로 할 수 있겠는가. 비가 종일토록 내리며 개지 않았다.

初九日. 早朝往翰洞, 見李興陽而來. 君澤又自蟾巖來見卽去. 食後雨作. 初欲食後卽往磚洞, 爲見吏判矣. 以雨作, 又不如意. 歸期漸迫, 追贈事尙今遷就, 其悶可勝言哉. 雨終日不霽.

▪10일. 바로 삼일제(三日製)⁴⁸⁸ 날이었다. 비가 왔다. 아침을 먹고 반궁(泮宮)으로 들어가는데 진흙길이 무릎까지 빠졌다. 집춘문(集春門)⁴⁸⁹에 들어가니 춘당대(春塘臺)⁴⁹⁰에 시험장이 설치되었고 아직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비가 내렸는데 잠깐씩 오다가 말다가 하였다. 출제(出題) 후에 대가(大駕)가 환궁하기에 노차(路次)에서 엎드려 천안(天顏)을 바라보았다. 선정(先呈)이 들어간 뒤에 경모궁으로 나와서 천노의 병에 대한 소식을 묻고 걸음을 재촉하여 전동에 이르러 이조 판서를 만나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었는데 마침내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니 한탄스럽고 분통이 터졌다. 비를 맞고 나오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初十日。卽三日製日也。雨。早飯入泮，泥路沒膝矣。入集春門，設場於春塘臺，未及定坐，雨作乍作乍止。出題後大駕還宮，伏於路次，瞻仰天顏。先呈入後，出來景慕宮，問千奴病奇，促行至磚洞，見吏判，多般酬酢，終不以不能明知爲言，可歎可憤。冒雨出來，日已夕矣。

▪11일.

十一日.

▪12일. 이조 판서를 만나보려고 전동(磚洞)에 갔는데 이조 판서가 대궐

488 삼일제(三日製) : 3월 3일에 보이는 과거이다. 《정조실록》 3월 10일 조를 보면, “식년 회시(式年會試)의 정원은 원래 33명인데, 시험관이 착오로 32명을 뽑았다. 방목(榜目)을 만들어 아뢰니, 시관들의 직책을 삭탈하라고 명하고는, 인하여 전교하기를, “금일 마침 3일제(三日製)를 만났으니, 합격한 자 중에서 1명을 뽑아 33명의 수를 채우는 것이 실로 적합한 방편이다.”하였다. 춘당대에 나아가 3일제(三日製)를 거행하였는데, 7명의 시관을 갖추어 고사하게 하여 6명을 뽑았다. 1등한 진사 윤익렬(尹益烈)은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하도록 하여 식년 회시에 등제한 33명으로 부쳤으며, 그 다음인 생원 이명부(李明孚)와 홍대협(洪大協)은 아울러 급제를 주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489 집춘문(集春門) : 창경궁에서 성균관으로 통하는 문으로, 임금이 친히 성균관에 거둥하거나 관원을 보내어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일 때 혹은 성균관 유생들이 왕명으로 창덕궁 후원에 출입할 때 사용되었다.

490 춘당대(春塘臺) : 창경궁 안에 있는 후원(後苑)으로, 선비를 시험 보이고 무사(武士)를 사열하던 곳이다. 성종 조에 한 줄기에 9개의 가지가 난 파가 나자 ‘서충(瑞葱)’이라고 하였는데, 그 뒤 연산군 11년(1505)에 이곳에 대를 지어 ‘서충대(瑞葱臺)’라 이름 짓고 놀이하는 장소로 삼았다. 선조 5년(1572)부터 춘당대에서 선비를 시험 보이기 시작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 京都 宮闕 春塘臺》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여서 마침내 곧바로 궐문 밖으로 가다가 용인(龍仁) 유생(儒生)들이 도암(陶菴) 선생의 서원을 건립해 달라고 상소하며 대궐에 옆드려 있는 것을 보았다. 호동(壺洞)에 가서 자직(子直)을 만나 잠깐 얘기를 나누는 뒤에 경모궁 여점으로 갔는데 만나 볼 만한 사람이 없어서 반중(泮中)으로 사람을 보내 화옥을 맞이해 오게 하여 얘기를 나누던 중에 생원 김이록(金履祿)과 두 명의 김씨 무인(武人)이 또 왔다. 어제 천노가 들어와서 음식을 먹은 뒤에 나갔는데 그다지 수척하지는 않더라고 전해주니 다행스러웠다. 저녁에 나갔다.

十二日. 欲見吏判次, 往磚洞, 則吏判入闕內云, 故遂直往闕門外, 見龍仁儒生之爲陶菴先生建院疏伏閣者. 往壺洞, 見子直, 小話後, 往景慕宮旅店, 則無可見之人, 故送人於泮中, 邀來華玉相話之際, 金生履祿, 兩金武亦來矣. 傳聞昨日千奴入來, 飲食後出去, 而不甚瘦敗云, 可幸. 夕間出來.

▪13일. 낙동(駱洞)에 가서 정언 송준재(宋俊載)를 만나고 인하여 이현(泥峴)으로 가서 송 교리를 만나고 왔다.

十三日. 往駱洞, 見宋正言俊載, 因往泥峴, 見宋校理而來.

▪14일.

十四日.

▪15일.

十五日.

▪16일. 식후에 전동으로 갔는데 이조 판서가 대궐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만나보지 못하고 인하여 주동(鑄洞)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고 왔다.

十六日. 食後往磚洞, 則吏判入闕內, 故不得相見, 因往鑄洞, 相話而來.

▪17일. 이른 아침에 전동(磚洞)으로 갔는데 이조 판서가 바야흐로 궐내로 들어가야 하므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다만 얼굴만 접하였다. 즉시

길을 돌려 경모궁으로 가서 천노를 만났다. 또 화옥을 맞이해 와서 얘기를 나누고 왔다.

十七日. 早往磚洞, 則吏判方入闕內, 故不得接話, 只接面目. 卽爲轉往景慕宮, 見千奴. 又要來華玉, 相話而來.

■18일. 천노가 경모궁에서 나왔으므로 1냥의 돈을 주어서 보냈다. 군택이 와서 만나고 갔다.

十八日. 千奴自景慕宮出來, 故給一兩錢以送. 君澤來見而去.

■19일. 식후에 전동으로 갔는데 문 앞에 안장을 채운 말이 십여 마리였다. 매우 소란하여 말하기 어렵겠다 생각하고 마침내 송현(松峴)으로 향하여 민진사 형제를 만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오는 길에 전동(磚洞)에 들어가 비로소 전장(銓長)⁴⁹¹에게 대신들과 서로 대화를 나눈 이유를 자세히 물으니 답하여 이르기를, “참찬(參贊)은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비록 좋긴 하지만 이조 판서나 좌찬성(左贊成)만 못합니다.”라고 하니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다. 여러 가지로 애써 간청하였으나 여전히 흔쾌하게 허락을 하지 않아서 즉시 돌아왔다.

十九日. 食後往磚洞, 則門前鞍馬以十數. 可想其甚擾難言, 遂向松峴, 見閔進士兄弟, 移時討話後, 來路入磚洞, 始與銓長詳問, 與大臣相話之由, 則答云, 參贊何如, 答以雖好矣, 猶不如吏判及左贊成, 則良久不答矣. 多般强請, 猶不快諾, 故卽爲回來.

■20일. 아침에 육조(六曹)에 가다가 앞길에서 육상궁(毓祥宮)⁴⁹²으로 거동하는 대가(大駕)와 과거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는데 매우 장관이었다.

491) 전장(銓長) : 이조 판서를 말한다.

492) 육상궁(毓祥宮) : 조선 시대 영조의 생모인 숙빈(淑嬪) 최씨(崔氏)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1725년(영조1) 영조가 즉위하면서 생모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지었는데, 지을 당시에는 숙빈묘라 이름하였다. 1744년에 육상묘로 고쳤으며, 1753년에는 육상궁으로 승격하였다.

二十日, 早往六曹, 前路見毓祥宮動駕及唱榜, 極壯觀矣.

▪21일. 아침에 전동(磚洞)에 가서 이조 판서를 만나고 인하여 예조 직방으로 가서 집리(執吏)를 만났다. 길을 돌려 경모궁으로 향하여 아침을 먹고 박화옥(朴華玉)을 오게 하여 얘기를 나눈 뒤 유동(楡洞)으로 가서 유자일(兪子一)을 만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경모궁으로 돌아와 잠시 쉬었다가 인하여 나왔다. 중도에 비가 왔다.

二十一日. 早往磚洞, 見吏判, 因往禮曹直房, 見執吏. 轉向景慕宮朝飯, 要來朴華玉, 相話後, 往楡洞, 見兪子一, 移時討話後, 還來景慕宮小憩, 因爲出來. 中路雨作.

▪22일. 밤에 비가 왔다. 이른 아침 월암(月巖)에 가서 이천(而天)을 만나고 왔다. 식후에 주동(鑄洞)에 가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정사(政事)⁴⁹³를 보았으나 또 들어가지 못했으니 분통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인하여 유동으로 가서 유자일(兪子一)을 방문하니 그 아들이 말하기를 ‘영파정(映波亭)⁴⁹⁴에 유람을 가셨는데, 저에게 송씨 어른께서 오거든 아이 종과 함께 유람하는 장소로 찾아오시게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아이 종과 함께 영파정으로 갔는데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동산과 연못의 승경(勝景)이 참으로 볼만하였다. 즉시 함께 만나 술을 마신 뒤에 경모궁으로 돌아왔다. 재촉하여 돌아올 때 전동(磚洞)으로 들어가 처음에는 전장(銓長)을 책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조 판서가 읊(搦)한 뒤에 즉시 말하기를, “금일의 정사(政事)가 당록(堂錄)⁴⁹⁵과 상치(相值)되어서 매우 분요(紛擾)하여 과연 의망(擬望)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에는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493) 정사(政事) : 선조(先祖)가 시호를 받는 일을 심사하는 일이다.

494) 영파정(映波亭) : 조선 시대 마포 현석촌, 지금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에 있었던 용산(溶山) 영파정(映波亭)을 말한다.

495) 당록(堂錄) : 의정부에서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선임하기 위한 2차 기록이다. 의정부와 이조의 판서·참판·참의 등이 모여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명단에서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다시 권점(圈點)을 적어 그 찬반을 보이며 그 결과를 임금에게 올리면 득점의 순위대로 교리·수찬에 임명된다.

라고 하며 은근히 공경을 다하였다. 나도 또한 먼 지방의 유생이 권세 있는 가문을 출입하기가 편치 않다는 것으로 누누이 말을 하자 답하여 이르기를, “선조를 위한 일인데 비록 하루에 열 번 오더라도 무슨 어려운 뜻이 있겠습니까. 우선 내일을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므로 즉시 돌아왔다.

二十二日. 夜雨. 早朝往月巖, 見而天而來. 食後往鑄洞, 移時討話. 見政事, 而又不入, 憤不可言. 因往楡洞, 訪叡子一, 則其子言往遊於暎波亭, 而托於其子云, 宋丈若來, 與僮童來訪於所遊處, 故與童子, 往暎波亭, 則其花林園池之勝, 儘可觀矣. 卽與相見飲酒後, 還來景慕宮. 催促回來時, 入磚洞, 初欲致責於銓長. 吏判相揖後, 卽言, “今日政與堂錄相值, 故極甚紛擾, 果未擬望. 明日則斷斷爲之.” 慇懃致款. 余亦以遐方儒生之難便於出入權門, 縷縷言之, 則答云, “爲先之事, 雖一日十來有何難意, 姑待明日.” 爲言, 故卽爲回來.

■23일. 이른 아침 월암(月巖)에 가서 시장(諡狀) 공책을 찾아서 왔다. 식후에 주인 영감의 영변 부사(寧邊府使) 망통(望筒)⁴⁹⁶이 당도하였고 정목(政目)⁴⁹⁷에 선조(先祖)를 참찬(參贊)으로 증직(贈職)시킨다는 입계(入啓)가 있었으니 그 기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잠시 후에 이조(吏曹)의 하리(下吏)가 정목(政目)을 가지고 와서 인하여 술값을 요구하고 갔다.

二十三日. 早朝往月巖, 推來諡狀空冊而來. 食後主人令監寧邊府使望筒來到, 而政目先祖贈職以參贊入啓, 其快樂不可言矣. 有頃吏曹下吏持政目來見, 因索酒債而去.

■24일. 해가 저문 뒤 전동(磚洞)으로 갔는데 이조 판서가 잠자리에 들어서

496) 망통(望筒) : 망단자(望單子)로 후보자의 성명을 적어 놓은 통이다.

497) 정목(政目) : 조선 시대에 이조와 병조에서 관리의 임명과 해임을 기록한 문서이다. 도목정사(都目政事)의 줄임말로 도목(都目) 또는 도목정(都目政)이라 부르기도 한다.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은 단도목(單都目), 두 번 시행하는 것을 양도목(兩都目), 네 번 시행하는 것을 4도목(四都目)이라 하였다. 조선 시대에 문무 양반은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두 번 행하였고, 토관(土官)·녹사(錄事)·서리(書吏)도 양도목이었다. 잡직(雜職)은 4도목으로서 1월·4월·7월·10월에 시행하였다. 그러나 군사의 도목정사는 복잡하여 양도목·4도목 이외에 6도목·3도목·1도목도 있었다.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길에서 이조 판서의 겸인(僉人)⁴⁹⁸을 만났는데 등초(謄草)한 관교(官敎)⁴⁹⁹가 있다고 하므로 다시 이조 판서의 집으로 가서 소지(小紙)⁵⁰⁰를 가지고 예조 직방으로 들어갔는데 집리(執吏)가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지 못하였다. 즉시 경모궁으로 갔는데 화옥(華玉)이 와서 기다렸다.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유동(楡洞)으로 가서 유자일(兪子一)을 만났는데 한 잔 술을 대접해주었다. 잠시 후에 함께 관동(館洞)으로 갔는데 이 상서(李尙書)가 부재중이라 잠시 그 아들 홍천(洪川)을 만나 시장(謚狀)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뜻으로 말을 하니, 그 대인(大人)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사양하여서 인하여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오는 길에 죽동(竹洞)으로 들어가 군택(君澤)을 만났다. 인하여 주동(鑄洞)에 가서 치회(穉會) 형제를 만나고 왔다.

二十四日。晚後往磚洞，則吏判就枕，故不得相見而歸矣。路逢吏判僉人云有官敎謄草，故還往吏判家，持小紙而去入禮曹直房，則執吏入闕內，故不得相見。卽往景慕宮，則華玉來待矣。暫話後，往楡洞，見兪子一，饋以盃酒矣。小頃同往館洞，則李尙書不在，暫見其子洪川，爲敍來見請狀之意，則以其大人之年滿固辭，故因留更來之約，而來路入竹洞，見君澤。因往鑄洞，見穉會兄弟而來。

▪25일. 식전에 관교(官敎)가 내려져 이조 집리(吏曹執吏)인 오진택(吳鎭宅)의 집으로 전송하였다. 군택이 와서 만나고 갔다.

二十五日。食前宣官敎，送傳於吏曹執吏吳鎭宅家。君澤來見而去。

▪26일. 식후에 전동(磚洞)으로 가서 이조 판서를 만나고 의망(擬望)이 되어 매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즉시 예조 직방으로 갔는데 안리(安吏)가

498) 겸인(僉人) :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이다.

499) 관교(官敎) : 교지(敎旨)를 이르는데 4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임금의 직접 내리는 사령장(辭令狀)이다.

500) 소지(小紙) : 조보(朝報)를 발행하기 전에 그 당일에 긴요한 사항을 각사(各司)의 하인이 소지(小紙)에 써서 관원에게 먼저 돌리던 문서이다.

오지 않았다. 한참 동안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오기에 상언(上言)했던 본래 초고를 찾으니 오지 않았다고 고하므로 이조에 사람을 보냈는데 집리(執吏)가 궐내로 들어가 찾지 못하고 왔다. 즉시 경모궁으로 갔다가 인하여 유동(楡洞)으로 갔는데 유씨 벗이 출타하였으므로 곧바로 관동(館洞)으로 가니 이 상서가 여전히 출번(出番)⁵⁰¹하지 않아서 다만 그 아들인 홍천(洪川)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인하여 간청하니 자못 전일에 낙락(落落)⁵⁰²했던 것과는 같지 않아서 다시 후일의 약속을 남기고 왔다. 인하여 죽동(竹洞)으로 들어가 군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나왔다. 안보(安寶)⁵⁰³를 하고 왔다.

二十六日. 食後往磚洞, 見吏判, 致擬望多謝之意, 卽往禮曹直房, 則安吏不來. 故移時留待後, 始來, 推尋上言本艸, 則告云不來, 故送人吏曹, 則執吏入關內, 不得推尋而來矣. 卽往景慕宮, 因往楡洞, 則兪友出他, 故直往館洞, 則李尙書尙不出番, 故只與其子洪川敘話. 因懇請, 則頗不如前日之落落, 更留後約而來. 因入竹洞, 與君澤相敘後出來. 安寶而來.

■27일. 주인 영감이 영변 수령에 제수되어 길을 떠났으므로 백건(伯健) 등 여러 벗과 함께 홍제원(弘濟院)⁵⁰⁴에 가서 송별하고 왔다.

二十七日. 主人令監除寧邊倅發行, 故與伯健諸益, 同往弘濟院, 送別而來.

■28일. 식후에 곧바로 낙동(駱洞)에 가서 정 판서(鄭判書)를 만나 예조 판서였을 때 회계(回啓)해 준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여 문에 이르러 통자(通刺)⁵⁰⁵하였는데 답하기를, “당시의 일은 다만 국사(國事)이기

501 출번(出番) : 일직(日直) 또는 당직(堂直) 등(等)의 근무(勤務)를 마치고 집으로 나오는 것이다.

502 낙락(落落) : 남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저번에 만났을 때 그 아버지에게 시장(謚狀)을 써주라는 부탁을 완강하게 거절한 것을 말한다.

503 안보(安寶) : 옥새를 찍는 것이다.

504 홍제원(弘濟院) : 한양에서 의주(義州)로 가는 길목에 설치했던 공관(公館)으로 중국의 사신들이 서울 성안에 들어오기 전에 임시로 묵던 곳이다. 지금의 서대문구 홍제동에 1895년(고종32)까지 건물이 남아 있었다.

505 통자(通刺) : 명함을 주고 인사를 청하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하게 선계(善啓)⁵⁰⁶한 것인데 어찌 치사(致謝)를 받으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또 몸에 병이 있어 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길을 돌려 정언 송준재(宋俊載)의 집으로 가서 서로 만나고 또 주동(注洞)으로 가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죽동(竹洞)으로 들어갔는데 군택이 이미 먼저 경모궁 여점으로 갔다고 하므로 곧바로 관동(館洞)에 이르러 이홍천 시원(李洪川時源)을 만나 그 대인(大人)이 출번(出番)했다는 것을 물어서 알고 통자(通刺)를 한 뒤에 들어가 만나서 두세 번 간청을 드리니 흔쾌히 허락하며 말하기를, “행장(行狀)은 (가지고) 찾아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나올 때 비가 내려 곧바로 조점(趙店)으로 왔는데 화옥과 군택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군택과 함께 관동(館洞)으로 가서 문밖에서 군택을 기다리게 하고 또 이 판서(李判書)를 만나서 행적을 적은 책[行蹟冊]을 드리고 왔다. 군택과 함께 대묘동(大廟洞)으로 들어가 송익홍(宋翼弘)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군택(君澤)과 작별했다. 궐문 밖에서 장차 예조 직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리(安吏)가 마침 나오므로 상언했던 초고를 찾아왔는지의 여부를 물으니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즉시 나왔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二十八日。食後直往駱洞，見鄭判書，欲致禮判時回啓之恩，踵門通刺，則答以當時事，只爲國事秉公善啓，豈有致謝之義乎。且有身病不得見客云。故轉往宋正言俊載家相見，又往注洞，移時討話後，入竹洞，則君澤已先往景慕宮旅店云，故直抵館洞，見李洪川時源，問知其大人之出番之意，而通刺後入見，數三懇請，快許曰：“行狀來見可也。”云。故辭出之際雨作，而直來趙店，則華玉及君澤皆留待矣。小話後，與君澤同往館洞，留君澤於門外，又見李判書，因納行蹟冊而來。與君澤入大廟洞，見宋翼弘敘話後，與君澤作別。自闕門外將入禮曹直房，安吏適出來，故問上言艸推來與否，則尚不推來云。故卽爲出來，日已暮矣。

▪ 29일. 밤에 비가 왔다가 아침에는 맑았다.

506) 선계(善啓) : 임금에게 서면으로 아뢰는 일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二十九日. 夜雨朝晴.

■4월 1일. 식후에 예조 직방에 가서 안리(安吏)를 만나 상언한 초고에 대하여 물으니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마침내 양언(良彦)의 예사 문서(禮斜文書)⁵⁰⁷를 부탁하고 인하여 호동(壺洞)으로 가서 자직(子直)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경모궁에 가서 공책을 찾아 인하여 노비와 말을 거느리고 연동(蓮洞)으로 왔는데 이 판서는 부재중이어서 이홍천(李洪川)을 만나 예단(禮緞)과 공책을 전달하고 왔다.

四月初一日. 食後往禮曹直房, 見安吏, 問上言草, 則尙不推來云矣. 遂托良彦禮斜文書, 因往壺洞, 見子直敘話後, 往景慕宮, 尋空冊, 因率奴馬, 來蓮洞, 則李判不在, 故見李洪川, 致禮緞及空冊而來.

■2일. 식후에 연동에 가서 이 판서(李判書)를 만나 어제 찾아온 이유를 말하고 속히 완성해 줄 것을 간청하니 수일 뒤에 지어내겠다고 답하였다. 오는 길에 장용영(壯勇營)⁵⁰⁸ 앞길에서 화옥을 만났는데 차동(車洞)에 가서 공교롭게 어긋났다고 하였다. 서서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즉시 묘동(廟洞)으로 들어가 송익홍(宋翼弘)을 만났다. 또 예조로 향하여 상언한 초고를 찾아가려고 하였는데 아직도 찾아오지 못했다고 하니 괴이했다. 날이 저문 뒤에 나왔다.

初二日. 食後往蓮洞, 見李判書, 言其昨來之意, 請其速成, 則答以數日後製出爲言矣. 來路於壯勇營前路逢華玉云, 往車洞, 而巧違矣. 立談數語, 卽入廟洞, 見宋翼弘. 又向禮曹, 推尋上言冊, 則尙不推來云, 可怪. 日暮後出來.

■3일. 비가 왔다. 한림동(翰林洞)에 가서 이 흥양(李興陽)을 만나고 왔다.

初三日. 雨. 往翰林洞, 見李興陽而來.

■4일. 백건(伯健) 형제와 남산에 가서 꽃과 버들을 구경하면서 종일토록

507) 예사문서(禮斜文書) : 양자(養子)를 허가하는 예조의 증명서이다.

508) 장용영(壯勇營) : 정조(正祖) 15년에 창설하여 수원부(水原府)에 배둔 군영(軍營)으로 부사(府使)를 유수(留守)로 올려 두었는데 후에 총리청(總理廳)으로 개칭(改稱)하였다.

있다가 왔다.

初四日. 與伯健兄弟, 往南山, 作花柳之行, 終日乃來.

▪5일. 연동(蓮洞)에 가려고 대문 밖을 나왔는데 흥양(興陽) 하인 중화(重和)의 무리 두서너 명을 만나 흥양(興陽) 소식을 물었다. 함께 창동(倉洞)으로 가서 아전 박지효(朴志孝)를 만나 인하여 고향에서 온 편지를 요청하였는데 집안은 비록 편안하다는 소식이었으나 산변(山變)⁵⁰⁹이 있다고 들으니 분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즉시 이현(泥峴)으로 가서 교리 송민재(宋民載)를 만나 내려간다는 뜻을 전하였다. 또 주동(鑄洞)에 갔는데 교리(校理)가 몸이 편안치 못하여 산청(山淸) 집으로 피해 나갔다. 한나절 동안 얘기를 나누고 또 문중 어른의 집에 가서 돌아간다는 뜻을 고하였다. 죽동(竹洞)으로 들어가니 군택은 부재중이었다. 급히 연동(蓮洞)으로 가서 이판서(李判書) 부자를 만났는데 시장(諡狀) 초고가 이미 나와서 내일 정서(正書)하려고 하니 모레 가지고 가라고 말하였다. 또 유동(楡洞)으로 들어가 유자일(兪子一)을 만나 술을 마시며 정담을 나누었다. 경모궁에 들어가 화옥이 왔는지를 물으니 아득히 소식이 없다고 하여서 오는 길에 호동(壺洞)으로 들어가 박자직(朴子直)을 만나 돌아간다고 고하였다. 또 대묘동(大廟洞)으로 들어가 돌아간다고 고하고 예조에 들어갔는데 텅 비어 있고, 하인들이 집리(執吏)가 바야흐로 예조에 올라갔다고 하므로 곧바로 예조의 문 앞으로 와서 한참을 기다리니 비로소 나왔다. 상언(上言)한 초고를 찾아왔냐고 물으니 아직 찾아오지 못했다고 하니 분통이 터졌다. 내일로 약속하고 즉시 나왔는데 날이 이미 저물녘이었다.

初五日. 往蓮洞次, 出大門外, 則見興陽下人重和輩數人, 問興陽消息. 同往倉洞, 見朴吏志孝, 因索鄉書, 則家中雖是安信, 聞有山變, 憤不可言. 卽往泥峴, 見宋校理民載, 致下去之意. 又往鑄洞, 則校理不寧, 出避於山淸宅矣. 半日談話, 又往門丈家, 告以歸意. 入竹洞, 則君澤不在矣. 急往蓮洞, 見李判書父子, 則諡狀草已出, 而明日欲爲正書, 再明持去爲言. 故又入楡洞, 見

509) 산변(山變) : 산소와 관련된 송사(訟事)를 말한다.

兪子一, 飲酒情話. 入景慕宮, 問華玉來否, 則杳無聲息, 故來路入壺洞, 見朴子直告歸. 又入大廟洞告歸, 入禮曹, 則一空, 而下人輩云, 執吏方往上禮曹, 故直來禮曹門前, 移時企待, 則始爲出來矣. 問其推來上言, 則尙不來云, 可憤. 約以明日, 卽爲出來, 日已昏矣.

▪6일. 오후에 월암(月巖)에 가서 술을 마시며 꽃을 감상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백건(伯健) 형제가 먼저 내려왔고 나는 남 서방(南書房)과 함께 예조 문밖으로 갔다. 그가 아직 상언한 초고를 찾아오지 않았음을 물어서 알고 즉시 나왔다.

初六日. 午後往月巖, 飲酒賞花, 日已夕矣. 伯健兄弟先爲下來, 余與南書房, 往禮曹門外. 問知其尙未推來, 卽爲出來.

▪7일. 동틀 무렵에 연동(蓮洞)에 가다가 장용영(壯勇營) 앞에 이르렀는데 화옥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10냥의 돈을 전하며 작별하고 곧바로 연동 이 판서 댁으로 들어가 이 판서를 들어가 뵈고 시장(諡狀)을 받아서 인하여 작별을 고하고 돌아왔다. 식후에 시장(諡狀)을 쓰고자 하였으나 격례(格例)⁵¹⁰를 자세히 몰라서 겸인(僉人) 혼(混)과 함께 태상부(太常府)⁵¹¹에 가서 이전 사람들의 시장(諡狀)을 찾아서 살펴본 뒤에 월암으로 왔다. 시장(諡狀)을 다 쓰지 못했는데 비가 이미 내리고 있었다. 다 썼는데도 비 오는 것이 그치지 않으니 이날 예조에 가서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비를 맞고 내려오느라 의복이 모두 젖었다. 저녁 무렵 비가 조금 개자 조겸(趙僉)이 시장(諡狀)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初七日. 平明往蓮洞, 至壯勇營前, 華玉已來待矣. 傳十兩錢作別, 直入蓮洞李判書宅, 入謁受諡狀, 因爲告別回來. 食後欲書諡狀, 而未詳格例, 與混僉同往太常府, 尋見前人之諡狀後, 來月巖. 寫之未畢. 雨已作矣. 寫畢雨來不止, 是日之往傳禮曹勢莫由矣. 冒雨下來, 衣服盡濕. 夕間雨小霽, 趙僉持諡

510) 격례(格例) : 격식으로 되어있는 관례이다.

511) 태상부(太常府) : 제사(祭祀)·증시(贈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이다.

狀下來, 而日已夕矣.

▪8일. 날이 밝지 않았는데 겸인(僉人) 혼(混)을 권하여 예조에 보내서 시장(諡狀)을 전달하게 하였다. 아침을 먹을 때 길을 출발하였다. 화옥과 군택은 모두 이른 아침에 와서 전송했다. 마침내 건순(健順) 및 향촌의 여러 객과 작별하고 걸음을 재촉하여 강을 건너 과천 읍내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유천(柳川)에 이르러 날이 비록 저물지는 않았으나 천리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급하게 말을 몰아서는 안 되므로 마침내 유천(柳川)⁵¹²에서 유숙하였으니 수원(水原) 땅이었다. 이날 80리를 갔다.

初八日. 未明勸送混僉於禮曹, 傳致諡狀. 朝飯時發程. 華玉及君澤皆早來送行. 遂與健順及鄉客諸人作別, 促行渡江, 至果川邑內, 朝飯秣馬. 至柳川, 日雖未暮, 欲作千里之行者, 不可急驅, 遂留宿於柳川, 水原地也. 是日行八十里.

▪9일. 날이 밝지 않았는데 길에 올라 갈원(葛院)에 이르니 60리였다.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실음소(失音所)에 이르니 40리였다. 다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천안 읍내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130리를 갔다.

初九日. 未明登程, 至葛院, 六十里. 朝飯秣馬. 至失音所, 四十里. 更爲秣馬, 至天安邑內留宿. 是日行一百三十里.

▪10일. 날이 밝지 않았는데 길에 올라 인지원(仁智院)에 이르니 50리였다.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공주(公州) 신주막(新酒幕)에 이르니 50리였다. 말에게 꼴을 먹이고 금강(錦江)을 건너 판치(板峙)에 이르니 30리였다. 여기서 유숙하였다. 이날 130리를 갔다. 길을 따라갈 때 날씨가 비록 조금 갠다고는 하나 바야흐로 아프면서도 애써 가는 자를 보았고 혹 통증을 겪으면서 겨우 일어나는 자가 있었다. 하루 동안에 시신으로 실려 가는 것을 길에서 만난 것이 네다섯 번을 밀돌지 않았으니 위태로운 상황을

512) 유천(柳川) : 지금의 경기도 평택시에 있다.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初十日. 未明登程, 至仁智院, 五十里. 朝飯秣馬. 至公州新酒幕, 五十里. 秣馬, 濟錦江, 至板峙, 三十里. 留宿. 是日行一百三十里. 沿路時氣雖云小霧, 見其方痛而強行者, 或有經痛而纔起者. 一日之內, 道逢擔屍而去, 不下四五, 凜凜之狀, 不可形言.

▪11일. 닭이 울자 일어났다. 먹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동풍이 크게 부는 것을 보니 반드시 큰비가 내릴 것 같았다. 바야흐로 길을 가는 중이라 근심스러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동이 트지 않았는데 길에 올라 정천(定川)에 이르니 가랑비가 비로소 내리고 운무(雲霧)가 사방에 가득했다. 말을 재촉하여 초교(草橋)에 이르자 자못 날씨가 꺾 형세가 있었으니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웠다. 은진(恩津)에 이르니 55리였다.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하늘이 쾌청했다. 여산(礪山)에 이르니 40리였다. 말에게 꼴을 먹였다. 삼례(參禮)에 이르니 30리였다. 여기서 유숙하였다. 이날 130리를 갔다.

十一日. 鷄鳴起. 看黑雲四起, 東風大吹, 必然大雨. 方作路中悶然, 不一而足. 未明登程, 至定川, 則細雨始下, 雲霧四塞矣. 促鞭至草橋, 頗有開霽之勢, 可幸可幸. 至恩津, 五十五里. 朝飯秣馬. 天氣快晴矣. 至礪山, 四十里. 秣馬. 至參禮, 三十里. 留宿. 是日行一百三十里.

▪12일. 맑았다. 새벽에 길에 올라 간천(良川)에 이르렀다. 그 선화당(宣化堂)이 불에 전소된 후 다시 조성하는 공사를 살펴보니, 이런 농사철에 역정(役丁)을 많이 징발하여 나무를 끌게 하고 수백의 민부(民夫)⁵¹³들이 무리를 이루어 나무를 끄니 어찌 백성들의 원망이 없겠는가. 전주영(全州營) 주인집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읍리(邑吏) 장풍우(張豐佑)가 마침 왔으므로 읍내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다. 즉시 길을 출발하여 노암(爐巖)에 이르니 40리였다.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길에서 금산사(金山寺) 낭현(郎賢) 등 여러 승려를 만났는데 또 나무를 끌기 위해 승군(僧軍)을 이끌고 당도하여

513) 민부(民夫) : 관아에서 불러 쓰는 인부이다.

몇 백 명인지 알 수 없는 승도(僧徒)들이 길을 따라서 올라갔다. 말을 재촉하여 오수(葵樹)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120리를 갔다.

十二日. 晴. 平明登程, 至良川. 見其宣化堂燒火後成造事, 當此農時, 多發役丁曳木, 而數百民夫成羣曳木, 豈無民怨乎. 至全州營主人家, 朝飯秣馬. 邑吏張豐佑適來, 故聞知邑奇. 卽爲發程, 至爐巖, 四十里. 中火秣馬. 路逢金寺郎賢諸僧, 亦以曳木次, 率僧軍來到, 而沿路僧徒不知幾百名上去矣. 促鞭至葵樹留宿. 是日行一百二十里.

▪ 13일. 맑았다. 새벽에 길에 올라서 증산(甌山)으로 가는 길을 경유하여 주포(周浦)에 이르니 45리였다. 아침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대개 올해 보리농사는 경기도로부터 충청도에 이르기까지 길을 따라가며 본 바로는 풍년이라고 이를 만하나 여산(礪山) 아래로는 크게 위쪽 지방에 미치지 못하였고 남원(南原)의 형편이 지극히 말이 아니었으니 백성의 농사가 염려스러웠다. 불회치(佛會時)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말에게 꼴을 먹였다. 석곡(石谷)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120리를 갔다.

十三日. 晴. 平明登道, 由甌山路, 至周浦, 四十五里. 朝飯秣馬. 蓋今年麥事, 自京畿至忠清道, 則沿路所見, 可謂麥登, 而自礪山以下, 則大不及上道, 而南原極爲無形, 民事可慮也. 至佛會時中火秣馬. 至石谷留宿. 是日行一百二十里.

▪ 14일. 동틀 무렵 길을 출발하여 영귀정(咏歸亭) 주막에 이르러 금곡(金谷)의 안부를 물으니 이르기를, “사집(士集) 내외는 모두 역병[時氣]으로 상출(喪出)하였고 사장(士章)의 집안은 누이 세 모자가 바야흐로 아파서 아직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 곧바로 양벽정(漾碧亭) 나루터 어귀에 이르렀는데 나루터의 배가 낡아 파손되어 배를 운항할 수 없어서 강변 길을 따라 광청(廣淸)에 이르러 다리를 통해 강을 건너 천평(泉坪)에 이르러 삼종질(三從姪)에게 안부를 물으니 이제 막 아픔을 겪었다고 하였다. 재종형님을 들어가 만나고 인하여 아침을 먹고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는데 날이 이미 중천이었다. 낙안(樂安) 추동(楸洞)

에 이르니 이미 황혼 무렵이었다. 인하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를 한 후 달빛을 받으며 면교(面橋)에 이르렀다. 아직 말에게 꼴을 먹이지 못했는데 닭이 울었으므로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날 100리를 갔다.

十四日. 平明發程, 至咏歸亭酒幕, 問金谷安否, 則云, “以士集內外皆以時氣喪出, 士章家舍妹三母子方痛, 尙未落汗.”云, 故不得相面. 直至漾碧亭津頭, 則以津船之朽敗, 不得行船, 沿邊路至廣清, 由橋渡江, 至泉坪, 問三從侄, 纔經痛云矣. 入見再從兄主, 因爲朝飯, 移時談話, 日已午矣. 至樂安楸洞, 已黃昏時矣. 因秣馬療飢, 乘月至面橋. 未及秣馬, 鷄鳴, 故不得接目. 是日行百里.

■15일. 날이 밝지 않았는데 사람을 보내 재동(齋洞)에 기별을 넣었다. 송산(松山) 형님과 군배(君培)가 찾아왔다. 아침을 먹은 뒤 성집(聖集) 및 다른 제종(諸宗)이 조금씩 와서 모였으므로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없었다. 날이 저물려고 하는데 길에 올라 과역(過驛)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재동(齋洞)의 종질들과 남면(南面)의 제종(諸宗)이 모두 찾아와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길을 출발하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비를 맞으며 말을 재촉하여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十五日. 未明送人通奇於齋洞矣. 松山兄主及君培來見. 朝飯後, 聖集及他諸宗稍稍來集, 不得早發. 向晚登程, 至過驛中火. 齋洞宗侄輩及南面諸宗皆來, 移時談話後, 發程. 雨始作, 故冒雨促鞭, 遂還家.



호남한국학 자료총서 6 『서행록』 2
송정약(宋廷岳)·송지행(宋志行) 지음

인쇄 2021. 1. 14
발행 2021. 1. 19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연락처 tel. 062)603. 9600 fax. 062)941. 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송정약(宋廷岳)·송지행(宋志行)
역자 조일형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일반연구위원
박미선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문희숙 - 전남대학교 박사수료
김현희 - 전남대학교 박사수료

편집·제작 (주)나무와달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37번길 8, 201호
tel. 062)529. 9179 fax. 062)529. 9178

<비매품/별매>

ISBN 979-11-90608-10-7 9391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호남한국학진흥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